

2005 전북여성백서

2005



전북발전연구원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집 필 진

집 필 진	권 인 탁 •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교수
	김 선 남 • 원광대학교 교수
	김 성 숙 • 전북여성단체연합 정책위원장
	김 혜 경 • 전북대학교 교수
	문 윤 결 • 예원예술대학교 교수
	신 대 철 • 전주대학교 교수
	윤 명 숙 • 전북대학교 교수
	이 혜 숙 • 한일장신대학교 교수
	조 덕 이 • 우석대학교 교수
	허 명 숙 • 전북일보 편집국 부국장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발 간 사

시대변화에 따라 성계(性界)가 무너지고 여성의 역할도 생산적 사회구성요소의 한 축으로 당당하게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력이 산업의 핵심요소였던 근대산업사회에서 고용 없는 성장으로 대변되는 지식기반사회로 급속도의 이동은 남녀의 구별을 무의미하게 하고 사회전반에 걸쳐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활약이 눈에 띄게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 제3차 북경 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한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전략을 실천하기 위하여 그해 12월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은 헌법이 규정하는 남녀평등 이념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동시에 여성의 참여가 부진한 영역의 경우 여성의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잠정적인 우대조치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가 양성평등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지 10돌을 맞는 시점에서 본 연구원이 『2005 전북여성백서』를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2005 전북여성백서』는 2000년 전라북도가 발간한 『전북여성발전50년』의 후속 작업인 동시에 전북여성의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이정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즉 전북여성발전50년 작업이 지난 반세기 동안 전북여성의 발자취를 기록한 것이라고 한다면 2005 전북여성백서는 2000년 이후 지난 5년 동안 전북여성의 생활과 활동 전반에 걸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각 영역별로 구분하여 검토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발전방향을 제언하였으며, 전북여성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이정표 세우기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4년에 작성하여 2005년 통합연구원의 연속사업으로 추진해 온 전북여성백서 발간사업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전라북도가 추진한 여성정책과 전북여성의 행적을 낱낱이 기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21세기 고령화·저출산시대를 맞아 여성인력의 양성과 활용은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필수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발간된 2005 전북여성백서가 전북여성의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과 구체적인 정책수립에 적극 활용되길 희망합니다.

끝으로 2005 전북여성백서 발간을 위해 자료수집과 분야별 원고작성에 애써 주신 집필진, 워크샵을 통해 좋은 의견을 주신 토론자, 그리고 편집인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 12월 31일
전북발전연구원장 한 영 주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전북여성백서 발간의 필요성	3
제 2 절 전북여성백서의 범위와 내용 구성	4
제 2 장 전북여성의 발전사	7
제 1 절 여성들의 삶 들여다보기	9
1. 시대적 배경	9
제 2 절 전북여성의 분야별 활동	20
1. 여성 교육	20
2. 여성의 경제활동	25
3. 여성 행정	28
4. 여성 정치	35
5. 여성단체 어떻게 활동했나	37
6. 예술분야 여성활동	49
제 3 절 제언	52
제 3 장 전북 여성정책 내용 및 평가	55
제 1 절 여성정책 추진체계 및 기반 조성	58
1. 여성정책 중·장기계획	58
2. 여성정책 추진체계	64
3. 여성관련 법·제도	71
4. 여성정책관련 예산	72
5. 공공부문의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	75
6. 여성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	78
7. 공무원에 대한 젠더교육	80
제 2 절 여성정책 추진 내용	81
1. 여성정책의 년도별 변화추이	81
2. 주요 정책 추진실적	83
제 3 절 전라북도 여성정책의 평가와 정책제안	94
1. 여성정책의 평가	94

2. 정책제안	98
---------------	----

제 4 장 전북의 인구와 가족 105

제 1 절 인구	107
1. 인구규모와 변동	107
2. 인구구조와 분포	110
3. 외국인 인구	112
제 2 절 가족형태	113
제 3 절 가족관계 : 부부관계와 세대관계	116
1. 부부관계	116
2. 세대관계	123
제 4 절 가족가치관	125
1. 결혼에 대한 태도	127
2. 이혼에 대한 태도	130
3. 부모부양에 대한 태도	134
제 5 절 가구경제	137
1. 소득과 계층	137
2. 여성의 경제활동과 취업태도	138
제 6 절 다양한 가족들	139
1. 이혼과 한부모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139
2. 단독가구	141
3. 재혼가정	142
4. 국제결혼가정	143
제 7 절 요약 및 정책제언	145

제 5 장 전북지역 여성단체 활동 151

제 1 절 서론	153
제 2 절 전라북도여성단체 현황 및 주요 사업	154
1. (사) 전라북도 여성단체 협의회	154
2. (사) 전북여성단체연합	167
3. 전북 YWCA 협의체	173
제 3 절 여성단체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174
1. 단체운영 자금의 열악성과 상근 인력 부족	174
2. 새로운 인력 발굴 및 육성문제	176

제 6 장 전북지역 여성인적자원개발	177
제 1 절 행정기관의 여성인적자원개발 정책	180
1. 전라북도의 여성인적자원개발정책	180
2. 시·군의 여성인적자원개발 정책	181
제 2 절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로서 학교	183
1. 학교현황	183
2. 조직	184
3. 학생현황	184
4. 학사운영	185
제 3 절 여성평생교육기관	185
1. 대학부설평생교육원	186
2. 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188
3. 여성회관	190
4. 사회복지관	193
5. 평생학습관	195
6. 자원봉사기관	196
7. 농협주부대학	197
제 4 절 결론	199
제 7 장 전북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실태	201
제 1 절 전북여성의 인적현황 및 경제활동	203
1. 전북여성의 인적 현황	203
2. 전북여성 취업자의 제반 특성	208
3. 전북 취업여성의 시군별 분포	218
제 2 절 여성의 취업활동 장애 및 노동환경	224
1. 여성의 취업에 대한 태도 분석	224
2. 취업여성의 직무만족 및 복지실태	229
제 8 장 전북지역 여성의 정치참여와 정치적 대표성	241
제 1 절 서론	24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42
1. 연구의 범위와 내용	242
2. 연구방법	242

제 3 절 여성의 정치참여와 여성단체 활동	243
1. 여성 유권자의 정치참여 실태 분석	244
2. 전북지역 여성단체의 활동 내용	248
제 4 절 전북지역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현황	253
제 5 절 전북지역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방안	260

제 9 장 여성의 문화예술 활동 263

제 1 절 여성 문화예술 활동의 의미	265
1. 여성과 문화예술 활동	265
2. 여성문화예술 활동의 일반적 상황	266
제 2 절 전라북도의 여성 문화정책	270
1. 「여성의 문화활동 활성화」사업의 추진실적	271
2. 「여성의 문화활동 활성화」사업 정책평가	273
3. 「여성의 문화활동 활성화」사업 종합평가 및 문제	278
4. 전라북도 여성문화정책에 대한 지역의 평가	279
제 3 절 전문적 문화예술 활동 현황	281
1. 전라북도 전문 여성문화예술인 활동 현황	281
2. 장르별 전문 여성문화예술인 활동 현황	282
제 4 절 전라북도 여성들의 문화생활과 여가생활	288
1. 전라북도 여성들의 문화생활	288
2. 전라북도 여성들의 여가생활	293
제 5 절 연구를 통한 제언	298

제 10 장 전북지역 보육실태와 지원방안 303

제 1 절 서론	305
1. 보육과 사회적 변화	305
2. 보육의 양적 변화와 전북의 보육 여건	306
제 2 절 연구방법 및 범위	307
제 3 절 전북의 보육 현황	308
1. 보육 수요	308
2. 전라북도 보육 시설 현황	315
3. 보육 아동 현황	323
4. 보육 시설 종사자 현황	340
5. 보육 예산	347

6. 전라북도 특수보육시책 사업	355
7. 기타	358
제 4 절 맺는말	361
제 11장 여성의 복지서비스 실태와 지원방안	365
제 1 절 서론	365
제 2 절 여성과 복지	366
1. 여성 빈곤과 사회복지	366
2. 여성 장애인과 복지서비스	379
3. 여성노인과 사회복지	384
4. 외국이주여성과 사회복지서비스	392
제 3 절 맺음말	398
제 12 장 여성의 인권실태와 권익증진	401
제 1 절 여성의 권익증진 지원 사업	403
제 2 절 전북여성긴급전화 <1366>의 활동현황	405
제 3 절 전라북도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사업 현황 및 특성 ...	412
1. 성폭력 피해자 보호사업 및 성과	412
2.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업 및 성과	432
3. 성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업 및 성과	451
제 4 절 요약 및 결론	466
■ 참고문헌	471

표 목 차

<표 3-1> 제2차 전북여성정책기본계획 따른 전라북도 추진과제	60
<표 3-2> 여성부문에 대한 연도별 투자계획	64
<표 3-3> 여성정책담당기구 현황	65
<표 3-4> 복지여성국 담당공무원	66
<표 3-5> 전라북도청 여성정책기구 조직도	67
<표 3-6> 여성정책기구의 주요 업무	68
<표 3-7> 여성정책과 업무별 담당공무원	68
<표 3-8> ‘연구원’의 조사·연구사업	69
<표 3-9> 전라북도 여성정책위원회 위원의 직능별 현황(2005)	70
<표 3-10> 전라북도 여성정책부서 예산	73
<표 3-11> 전라북도 여성정책부서 예산비율의 증감	74
<표 3-12> 여성부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따른 2004 ~2005 전라북도 여성관련 사업예산	75
<표 3-13> 직급별 여성공무원 비율	76
<표 3-14> 전라북도 본청 5급이상 여성공무원 변화 추이	77
<표 3-15> 여성공무원 교육훈련현황	77
<표 3-16> 전라북도 여성위원회 참여 목표율과 성과(위축직 기준)	78
<표 3-17> 여성발전기금의 조성실적	79
<표 3-18> 공무원에대한젠더교육	81
<표 3-19> 연도별 여성정책의 목표와 방향	82
<표 3-20> 중점추진시책의 변화추이	83
<표 3-21> 여성주간행사 프로그램	93
<표 4-1> 전라북도 인구, 세대 추이 (1961-2003)	108
<표 4-2> 합계출산률 (1997-2003, 전북)	109
<표 4-3> 연령별 인구구성비 (2003년)	110
<표 4-4> 출생성비 (전국, 전북, 울산, 경남)	111
<표 4-5> 시군별 외국인등록현황 (2003년)	112
<표 4-6> 국적별 외국인등록현황(2003, 전라북도)	113
<표 4-7> 인구수별 가족형태의 변화(1995, 2000, 전북, 전국)	115
<표 4-8> 배우자 만족도 (2002년, 전국, 전북)	117
<표 4-9> 배우자 만족도의 학력별, 연령별 분포 (전북)	117
<표 4-10> 배우자 만족도의 성별차이(전북, 전국)	118
<표 4-11> 사회통계조사-가사분담 실태 조사 (부부 중 부인만 조사)	119
<표 4-12> 가사노동 분담의 학력별, 연령별 실태 (2002년, 전북)	120

<표 4-13> 20대 부부의 가사분담 실태의 변화 (1998년, 2002. 전북)	121
<표 4-14>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른 구타당한 경험의 차이	122
<표 4-15> 아내폭력 가해자의 연령별, 학력별 특성	123
<표 4-16> 자녀에 대한 만족도 (2002)	123
<표 4-17> 부모(배우자부모)에 대한 만족도의 성별비교 (전북, 2002)	124
<표 4-18> 부모생계 부양자 조사	125
<표 4-19> 부모부양 실태의 학력별 차이 (전북, 2002)	125
<표 4-20> 결혼에 대한 태도의 변화 1998-2002 (전국, 전북)	127
<표 4-21> 결혼태도의 성별, 학력별, 연령별 차이 (전북, 2002)	129
<표 4-22> 이혼에 대한 태도 조사	131
<표 4-23> 이혼에 대한 태도의 성별, 학력별, 연령별 차이(전북, 2002)	132
<표 4-24> 노인부양에 대한 태도 조사	134
<표 4-25> 노인부양에 대한 태도조사 2002년	136
<표 4-26> 가구소득 분포	137
<표 4-27> 전북여성의 주관적 계층의식	138
<표 4-28> 전북 여성의 취업에 대한 태도 (2002)	138
<표 4-29> 여성가구주의 혼인상태별 분포 (1990, 1995, 2000)	139
<표 4-30> 이혼율의 변화(전북, 1997~2003)	140
<표 4-31> 전북 도시지역의 1인가구의 연령별 분포	142
<표 4-32> 초혼·재혼 종류별 혼인 1993-2002> (전북)	143
<표 4-33> 외국인과의 결혼, 2000-2003 (전국)	143
<표 4-34> 외국인처의 국적별 혼인현황(전라북도)	144
<표 5-1> 여성단체 총괄표 (2005)	154
<표 5-2> 전라북도 여성단체 협의회 단체 현황	156
<표 5-3> 전라북도 여성단체 협의회 2000년 주요사업	159
<표 5-4> 전라북도 여성단체협의회 2001년 주요사업	160
<표 5-5> 전라북도 여성단체협의회 2002년 주요사업	161
<표 5-6> 전라북도 여성단체협의회 2003년 주요사업	162
<표 5-7> 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 2004년 주요사업	163
<표 5-8> 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 2005년 주요사업	164
<표 5-9> (사) 전라북도 여성단체 협의회 소속 단체 설립목적 및 활동사업(2004년) ..	165
<표 5-10> (사) 전북 여성단체 연합 2000년도 주요사업	168
<표 5-11> (사) 전북여성단체연합 2001년도 주요사업	169
<표 5-12> (사) 전북여성단체연합 2002년도 주요사업	169
<표 5-13> (사) 전북여성 단체 연합 2003년도 주요사업	170
<표 5-14> (사)전북여성단체연합 주요사업(2004년)	171
<표 5-15> (사)전북여성단체연합 주요사업(2005년)	172
<표 5-16> (사)전북여성 단체연합 회원단체 주요 사업내용 (2004년)	172

<표 5-17> 전라북도지역 여성단체 예산 (1년 예산액)	175
<표 5-18> 재원 조달방법(복수응답)	176
<표 6-1> 시·군의 여성인적자원개발 사업	181
<표 6-2> 연령별 성인학생 현황	184
<표 6-3> 대학부설평생교육원현황	186
<표 6-4> 'C'대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187
<표 6-5>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프로그램	189
<표 6-6> 군산여성인력개발센터 프로그램	190
<표 6-7> 전라북도 내 여성회관 현황	191
<표 6-8>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프로그램	192
<표 6-9> 사회복지관	193
<표 6-10> 원광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194
<표 6-11> 평생학습관	195
<표 6-12> 군산학생종합회관 프로그램	196
<표 6-13> 자원봉사기관	196
<표 6-14> 전주시 자원봉사종합센터 프로그램	197
<표 6-15> 농협주부대학	198
<표 6-16> 농협중앙회전주지부 프로그램	198
<표 7-1> 전북지역 성별 연령구조, 2002~2004	203
<표 7-2> 전국 및 전북지역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1990-2004	205
<표 7-3> 전북인구의 성별 경제활동인구와 취업 및 실업, 1990~2004	206
<표 7-4> 15세 이상 전북인구의 성별 비경제활동인구, 1990~2004	207
<표 7-5> 남성 대비 연령계층별 전북여성의 취업자 구성비, 1994-2004	209
<표 7-6> 전국대비 연도별·교육정도별 취업자 비율, 1990~2004	211
<표 7-7> 전국대비 연도별·산업별·성별 취업자 비율 (1990~2004)	213
<표 7-8> 전국대비 연도별·직업별·성별 취업자 비율, 1990~2004	215
<표 7-9> 산업별·시도별 취업자, 2004	217
<표 7-10> 전북지역 취업여성 산업별 및 시군 분포	219
<표 7-11> 전북 여성 대표자 사업별 및 시군별 분포, 2003	222
<표 7-12> 15세 이상 인구의 여성취업에 관한 태도 (1991, 1995, 1998, 2002)	226
<표 7-13> 여성취업의 장애요인 분석	228
<표 7-14> 임금근로자 직무만족, 1991, 1995, 1998, 2002	230
<표 7-15> 전북지역 취업여성의 산업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 (2004)	232
<표 7-16> 시·도 및 성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 2002~2004	233
<표 7-17> 산업 및 성별 월평균 임금, 2001~2004	234
<표 7-18> 직업 및 혼인상태별 여성취업자 분포(1990, 1995, 2000)	235
<표 7-19> 직업 및 혼인상태별 여성취업자 분포(1995)	236
<표 7-20> 직업 및 혼인상태별 여성 취업자 분포, 2000	237

<표 8-1>	지방선거에서 전국 남녀유권자 및 투표율 실태	245
<표 8-2>	지방선거에서 전국 남녀유권자 및 투표율 실태	245
<표 8-3>	지방선거에서 남녀유권자의 정치참여 차이 분석	246
<표 8-4>	국회의원 선거에서 남녀유권자 구성 및 투표 참여 분석	247
<표 8-5>	전북지역 유권자의 17대 총선에서 참여 의지 분석	248
<표 8-6>	16대 총선을 전후한 전북지역 여성단체의 활동 내용	249
<표 8-6>	16대 총선을 전후한 전북지역 여성단체의 활동 내용	250
<표 8-7>	17대 총선을 전후한 전북지역 여성단체의 활동 내용	253
<표 8-8>	한국과 선진국가의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현황 비교	255
<표 8-9>	16대 및 17대 총선에 출마한 지역구 성별 후보자 및 당선자	256
<표 8-10>	지방선거 지역구 의원 출마 성별 후보자 및 당선자(비례대표 포함)	257
<표 8-11>	전북지역 여성 국회의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의원 및 상임위 활동	258
<표 8-12>	전북지역 여성공무원의 직급별 비율, 2000-2004	259
<표 8-13>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 가운데 여성위원 비율, 2000-2004	260
<표 9-1>	과거 활동과 앞으로 하고 싶은 문화활동	268
<표 9-2>	여성의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계획	274
<표 9-3>	「여성참여 문화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관련사업의 목표달성도	275
<표 9-4>	「문화시설 보육서비스제공」 사업의 목표달성도(1998-2002)	276
<표 9-5>	「여성참여 문화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관련사업의 목표달성도	276
<표 9-6>	「여성참여 문화프로그램 개발보급」 사업의 양성평등에 대한	277
<표 9-7>	여성의 문화활동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	278
<표 9-8>	여성참여 문화프로그램개발사업의 양성평등 기여도 평가	279
<표 9-9>	문화참여 활성화를 위한 향후 5년간 주요 정책제안	280
<표 9-10>	지역별/장르별 전문작가 현황(2005년)	283
<표 9-11>	전북도립국악원 예술단원 현황 (2005년)	284
<표 9-12>	전라북도 여성들의 신문 구독율 (2004년)	288
<표 9-13>	전라북도 여성들의 신문 구독시 관심분야 (2004년)	289
<표 9-14>	전라북도 여성들의 TV 즐겨보는 프로그램 (2004년)	290
<표 9-15>	전라북도 여성들의 비디오 및 DVD 시청율 (2004년)	290
<표 9-16>	전라북도 여성들의 독서인구 비율 (2004년)	291
<표 9-17>	전라북도 여성들의 독서량 (2004년)	292
<표 9-18>	전라북도 여성들의 음악감상 비율 및 방법 (2004년)	292
<표 9-19>	전라북도 여성들의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2004년)	293
<표 9-20>	전라북도 여성들의 여가활용방법 (2004년)	294
<표 9-21>	전라북도 여성들의 여가생활 만족 및 불만족 이유 (2004년)	295
<표 9-22>	전라북도 여성들의 국내관광여행 횟수 (2004년)	296
<표 9-23>	전라북도 여성들의 국내관광여행 횟수 (2004년)	296
<표 9-24>	전라북도 여성들의 레저시설별 이용자 현황 (2004년)	297

<표 9-25> 여성의 문화활동 참여 활성화 방안 (2002년)	299
<표 10-1> 10세미만의 아동인구	309
<표 10-2> 전북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1990-2002)	310
<표 10-3> 취업여성 자녀의 수탁율 추정치 (전국)	311
<표 10-4> 전북 취업여성자녀 수탁율 추정치(1990-2005년 현재)	312
<표 10-5> 전라북도 시도별 보육수요, 충족율, 추가 보육수요	313
<표 10-6> 10세 이하 자녀의 주된 양육 방법	314
<표 10-7> 여성 취업의 장애요인 (육아 및 가사)	315
<표 10-8> 전북의 보육시설현황 (전국 대비)	316
<표 10-9> 전국의 보육시설 연도별 설치운영 현황	317
<표 10-10> 전라북도 시, 군별 시설 설치현황	318
<표 10-11> 전북의 시군별 보육시설 설치, 운영현황	319
<표 10-12> 전북 국고지원시설 확충 현황(1995-2004)	321
<표 10-13> 용자보육시설 확충현황(1995-2004)	322
<표 10-14> 특수보육시설 현황	323
<표 10-15> 전국의 지역 및 연령별 보육 아동 현황	324
<표 10-16> 전북의 지역 및 연령별 보육아동 현황	325
<표 10-17> 전국의 연도별 보육아동 현황	326
<표 10-18> 전라북도의 연도별 보육아동 현황 (시군별)	327
<표 10-19> 시설 유형별 보육아동 현황	328
<표 10-20> 보육시설 아동의 정. 현원 현황	330
<표 10-21> 정부의 보육료 지원 아동 현황 (총괄)	331
<표 10-22> 법정저소득 지원아동 현황	332
<표 10-23> 기초생활 수급권 자녀 지원 아동현황	332
<표 10-24> 아동복지시설아동지원현황	333
<표 10-25> 모. 부자 가정 지원아동 현황	333
<표 10-26> 기타 저소득 지원아동 현황	334
<표 10-27> 전북 각 시군별 지원아동 현황	335
<표 10-28> 특수보육시설아동현황	336
<표 10-29> 시 군별 방과 후 아동 추이	339
<표 10-30> 각 시군별 장애 아동 보육 현황	340
<표 10-31> 보육시설 종사자 현황	341
<표 10-32> 보육시설 종사자 현황	342
<표 10-33> 전북의 시군별 보육시설 시설장 및 보육교사 현황	344
<표 10-34> 전라북도 시,군별 종사자 현황	345
<표 10-35> 특수보육시설 종사자 현황	346
<표 10-36> 2005년 전국의 보육 예산	347
<표 10-37> 전라북도 보육 예산	349

<표 10-38> 전라북도 및 각 시군 별 보육 예산 추이	350
<표 10-39> 전라북도 각 시 군별 시설 지원예산	351
<표 10-40> 시군별 아동지원 예산	352
<표 10-41> 전라북도 시군별 개축 및 개보수 지원예산	353
<표 10-42> 전북 시군별 보육시설 용자금액	354
<표 10-43> 전라북도 특수 보육시책 예산의 타 지역 비교	355
<표 10-44> 전북 특수시책 사업 및 예산 (2000-2004년)	356
<표 10-45> 전라북도 각 시군별 특수 보육 시책 현황	357
<표 10-46> 전라북도 보육 정보 센터 설치 현황	359
<표 10-47> 전라북도 보육 시설 및 아동의 상해보험 가입현황	359
<표 10-48> 전라북도 보육시설 화재보험 가입 현황	360
<표 11-1> 여성가구주 비율 추이	367
<표 11-2> 전북지역 혼인상태별 여성가구주	368
<표 11-3> 지역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	369
<표 11-4>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현황 - 수급자 성별	369
<표 11-5> 전라북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 현황	370
<표 11-6>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현황- 시도, 성별	371
<표 11-7> 일반수급자 연령별현황(여자)	372
<표 11-8> 2004년도 자활사업 참여 현황	373
<표 11-9> 전라북도 자활사업 현황-시군, 성별	374
<표 11-10> 일반수급가구 세대구분(가구유형)별 현황 - 시도별	375
<표 11-11> 저소득 모 · 부자가정 지원 사업 추진실적	377
<표 11-12> 모 · 부자복지시설 현황	378
<표 11-13> 전북의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수 및 여성비율 (1998 ~ 2002)	378
<표 11-14> 장애인 등록현황	380
<표 11-15> 전라북도 장애유형별, 성별 장애인등록 현황	381
<표 11-16> 장애인 욕구 실태조사 (2002)	383
<표 11-17> 여성장애인 법적, 제도적 생활보호 사업 추진실적	384
<표 11-18> 일반수급가구 세대구분(가구유형)별 현황 - 전라북도	386
<표 11-19> 시도별 노인 의료복지시설 및 주거복지시설 총괄표	387
<표 11-20> 전라북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총괄표	388
<표 11-21> 전라북도 재가노인복지시설 총괄표	388
<표 11-22> 연령에 따른 삶의 만족도	389
<표 11-23> 연령에 따른 서비스 욕구	390
<표 11-24> 노인들의 욕구조사(2002)	391
<표 11-25> 전라북도 여성노인복지증진 사업 추진실적(2000-2002)	392
<표 11-26>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 분포	393
<표 11-27> 여성 결혼이민자의 거주지 분포	394

<표 11-28> 지역별 여성 결혼이민자 세대 수와 비중	394
<표 11-29> 중국교포여성 사회적응 사업 추진실적	395
<표 11-30> 동사무소·사회복지관·이주여성상담소 방문 경험과 이유: 전체	396
<표 11-31>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실태	397
<표 12-1> 여성권익증진을 위한 지원 현황(2002-2005)	403
<표 12-2> 여성범죄발생현황(2002-2004)	404
<표 12-3> 전북여성긴급전화<1366>의 시설 현황	405
<표 12-4> 여성긴급전화<1366>의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2004)	405
<표 12-5> 여성긴급전화<1366>의 네트워크 구축현황(2004)	405
<표 12-6> 여성긴급전화<1366>의 자원봉사자 활용(2002-2003)	406
<표 12-7> 여성긴급전화<1366>의 상담의뢰자 및 상담방법(2002-2003)	407
<표 12-8> 여성긴급전화<1366>의 상담주제(2002-2004)	407
<표 12-9> 여성긴급전화<1366>의 피상담자 연령(2002-2004)	408
<표 12-10> 여성긴급전화<1366>의 피상담자 학력(2002-2003)	408
<표 12-11> 여성긴급전화<1366>의 피상담자 상담시간(2002-2004)	408
<표 12-12> 여성긴급전화<1366>의 피상담자 상담조치 결과(2002-2004)	409
<표 12-13> 여성긴급전화<1366>의 외국인 피상담자 유형·국적·체류자격(2004)	410
<표 12-14> 여성긴급전화<1366>의 외국인 상담자 방법 및 시간대(2004)	410
<표 12-15> 여성<1366>의 외국인 상담의 주제(2004)	411
<표 12-16> 여성긴급전화 <1366>의 외국인 상담 조치결과(2004)	411
<표 12-17> 성폭력 피상담자 유형 및 상담 방법(2002-2004)	413
<표 12-18> 성폭력 피상담자 유형 및 상담 방법(2002-2004)	414
<표 12-19> 성폭력 가해자 유형(2002-2004)	415
<표 12-20> 성폭력 상담조치(2002-2003)	416
<표 12-21> 성폭력 피해자 상담 조치(2004)	416
<표 12-22> 성폭력상담소의 교육사업(2004)	417
<표 12-23> 성폭력상담소의 홍보사업(2004)	418
<표 12-24> 성폭력상담소의 조사·연구사업(2004)	419
<표 12-25> 여성장애인 대상 성폭력상담소의 교육 및 훈련사업(2004)	420
<표 12-26> 여성장애인 대상 성폭력상담소의 홍보사업(2004)	421
<표 12-27> 여성장애인 대상 성폭력상담소의 조사·연구사업(2004)	421
<표 12-28>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피상담자 유형 및 방법(2002-2003)	422
<표 12-29>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피해 유형 및 연령(2002-2004)	423
<표 12-30>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가해자 유형(2002-2004)	424
<표 12-31>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상담조치결과(2002-2003)	425
<표 12-32>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지원실적(2002-2003)	426
<표 12-33>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입소자의 심리적·정서적 지원(2004)	426
<표 12-34>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입소자의 수사·법적 지원(2004)	427

<표 12-35>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입소자의 의료적 지원(2004)	427
<표 12-36>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입소자의 학교문제 지원(2004)	427
<표 12-37>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입소자의 자립지원(2004)	428
<표 12-38>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입·퇴소현황(2002-2004)	428
<표 12-39>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연령별 입소현황(2002-2004)	429
<표 12-40>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입소 경로(2002-2004)	430
<표 12-41>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보호기간(2002-2004)	431
<표 12-42> 가정폭력상담소의 피상담자 유형 및 상담 방법(2002-2004)	432
<표 12-43> 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담내용(2002-2003)	433
<표 12-44> 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담내용(2004)	433
<표 12-45> 가정폭력상담소의 피상담자 연령 및 학력	434
<표 12-46> 가정폭력가해자 유형(2002-2004)	434
<표 12-47> 가정폭력가해자 연령 및 학력(2002-2003)	435
<표 12-48>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상담조치결과(2002-2003)	436
<표 12-49> 가정폭력피해유형(2004)	436
<표 12-50> 가정폭력상담소의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내용(2004)	437
<표 12-51> 가정폭력상담소의 가정폭력 가해자 지원내용(2004)	437
<표 12-52> 가정폭력상담소의 교육사업(2004)	438
<표 12-53> 가정폭력상담소의 홍보사업(2004)	439
<표 12-54> 가정폭력상담소의 조사 및 연구사업(2004)	440
<표 12-55>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운영실적(2002-2003)	441
<표 12-56>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연령별 입소현황(2002-2004)	442
<표 12-57>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입소시 동반 아동연령(2002-2004)	443
<표 12-58>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입소자의 직업(2002-2004)	444
<표 12-59>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입소자의 입소경로(2002-2004)	445
<표 12-60>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입소자의 보호기간(2002-2004)	446
<표 12-61>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지원실적(2002-2003)	447
<표 12-62>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 및 재활 지원(2002-2003)	447
<표 12-63>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심리·정서적측면 지원(2004)	448
<표 12-64>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수사·법적 (2004)	448
<표 12-65>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의료적 지원 (2004)	449
<표 12-66>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피해자 자립지원(2004)	449
<표 12-67>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피해자 동반아동지원 (2004)	450
<표 12-68>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가해자 지원(2004)	450
<표 12-69>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퇴소시 상태(2004)	451
<표 12-70> 7개 시·군별 조사업소수(2002.6-11)	452
<표 12-71> 7개 시·군별 조사여성수(2002.6-11)	454
<표 12-72> 성매매상담센터 현황	457

<표 12-73> 성매매상담센터의 상담의뢰자 및 상담방법(2003-2004)	457
<표 12-74> 성매매상담센터의 상담 주제(2003-2004)	458
<표 12-75> 성매매상담센터의 피상담자 종사업소(2003-2004)	458
<표 12-76> 성매매상담센터의 피상담자 연령(2003-2004)	459
<표 12-77> 성매매상담센터의 피상담자 지원결과(2003-2004)	459
<표 12-78> 성매매여성현장상담센터의 홍보사업(2004)	460
<표 12-79> 성매매여성현장상담센터의 조사연구사업(2004)	461
<표 12-80> 성매매 선도일시보호시설 현황	461
<표 12-81> 성매매 선도일시보호시설 입소자의 연령(2004)	462
<표 12-82> 성매매 선도일시보호시설 입소자의 학력(2004)	462
<표 12-83> 성매매 선도일시보호시설 입소자의 입소경로(2004)	463
<표 12-84> 성매매 선도일시보호시설 입소자의 성매매 경험 여부 및 유형(2004)	463
<표 12-85> 성매매 선도일시보호시설 퇴소자의 입소기간(2004)	463
<표 12-86> 성매매 선도일시보호시설 퇴소자의 퇴소사유(2004)	464
<표 12-87> 성매매 선도일시보호시설 재입소자의 재입소 사유(2004)	464
<표 12-88> 성매매 선도일시보호시설 재입소자 연령(2004)	464
<표 12-89> 성매매 선도일시보호시설 의료서비스(2004)	465
<표 12-90> 성매매 선도일시보호시설의 프로그램(2004)	465
<표 12-91> 성매매 선도일시보호시설의 법률지원(2004)	465

그림 목 차

<그림 4-1> 세대당 인구추이 (1961-2003)	109
<그림 4-2>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 조사(연령별 2002년)	121
<그림 4-3> 결혼에 대한 태도 조사(연도별/지역별)	128
<그림 4-4> 결혼에 대한 태도 조사(연령별 2002년)	130
<그림 4-5> 이혼에 대한 태도 조사(연도별/지역별)	131
<그림 4-6> 이혼에 대한 태도 조사(연령별 2002년)	133
<그림 4-7> 노인부양에 대한 태도의 지역별 차이의 연도별 변화	135
<그림 4-8> 노인부양에 대한 태도 조사(연령별 2002년)	136
<그림 6-1> 학교조직	184
<그림 11-1> 65세 이상 인구 추이	385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전북여성백서 발간의 필요성
- 제 2 절 전북여성백서의 범위와 내용 구성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전북여성백서 발간의 필요성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전라북도가 추진해 왔던 그간의 여성정책 및 여성문제 해결 노력은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선구자적 혜안과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예를 들면, 전라북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여성정책관실’을 설치하여 지역적인 특수성에 기초한 여성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였으며, ‘전북여성통계연보’의 지속적인 발간을 통해 전북여성의 문제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였고, ‘전라북도중등여성교육원’(전라북도중고등학교 개정)을 설립하여 과거 가난으로 교육기회를 갖지 못했던 성인여성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해 주었으며, 그리고 ‘전라북도 여성발전연구원’(2005년 3월 5일 전북발전연구원과 통합)을 설립하여 지역 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조사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전라북도는 ‘전북여성발전50년’이라는 여성사를 발간함으로써 전북여성의 소중한 흔적을 기록으로 보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였다.

전북여성발전50년(2000) 여성사가 발간 된지 5년째를 맞아 전북발전연구원에서는 2004년부터 전북지역 여성계와 더불어 준비해 왔던 전북여성백서 발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지난 5년간 전라북도 여성정책과 전북여성의 행적을 기록으로 정리하면서 지나온 과거를 되돌아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전북여성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본 연구원에서는 2004년부터 추진해 왔던 ‘전북여성백서’ 발간사업을 연속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2004년 전북여성백서 작업이 연구원의 기본과제로 출발하였지만 연구원의 단독 작업으로 추진할 경우 연구내용의 편협성과 자료수집의 한계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본 연구원은 전라북도 여성문제 전문가 및 여성단체가 더불어 참여할 수 있는 공동사업으로 확대하게 되었다.¹⁾ 그리고 전북여성백서의 발간작업이

1) 본 연구원의 연구사업 발표 및 자문회의(2004. 6. 16)에서 전북여성백서의 사업내용 확대 및

향후 5년 단위로 지속·반복적으로 발간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성백서 발간을 2005년에 마무리하기로 하고 연구를 연장 추진하게 되었다.

제 2 절 전북여성백서의 범위와 내용 구성

전북여성백서에 포함될 내용범위는 ‘전북여성발전50년’을 바탕으로 설정하였다. 즉 전북여성발전50년 여성사가 1990년대 후반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전북여성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전북여성백서는 시간적으로 2000-2004년 사이에 진행되었던 전북지역 여성 관련 활동 내용과 그 변화를 중심으로 다루었고, 필요한 경우 1990년대 후반 내용도 소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전북여성백서의 내용 구성은 ‘전북여성발전50년’(2000)을 바탕으로 한국여성백서(2003)와 그밖에 일부 지역에서 발간되었던 여성백서(경기도, 2003; 대전광역시, 2002; 강원여성백서, 2002; 서울특별시, 2001; 대구광역시, 2001; 인천광역시, 2002)를 참고로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1부는 전북여성백서 발간의 필요성과 연구방법에 관한 것이며, 제1장에서는 전북여성백서 발간의 필요성과 내용구성을 서술하였다.

제2부는 전북여성의 역사성과 인적 및 물질 토대에 관한 것으로 전북여성의 발전, 여성정책, 인구와 가족 등을 검토하였다.

제2장은 전북지역 여성인물에 대한 고찰로서 전북여성의 생활모습을 시기에 따라 어떤 특성이 있는지 개괄적으로 검토하고, 최근 여성의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즉, 역사적으로 구분 가능한 시점을 선택하여 각 시대마다 전북여성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간략하게 검토하며, 특히 최근 전북지역 여성의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제3장은 전라북도 여성정책 내용과 그 평가에 관한 것으로서 정부(여성가족부)의 여성정책 기구 및 여성정책을 비롯하여 전라북도 여성정책 추진을 위한 기구와 제도,

전북지역 여성문제 전문가 및 여성단체가 참여하는 공동작업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그리고 여성정책 내용을 소개하는 동시에 그 성과도 함께 평가하였다.

제4장은 전북의 인구와 가족에 관한 것으로 전북인구의 성별, 연령별 구성 변화를 통해 전북여성의 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최근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가족구조에 있어 변화와 그 특성, 그리고 향후 전망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제3부는 전북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실태와 향후 과제에 관한 것으로서 전북여성의 단체활동, 인적자원 실태, 경제활동 참여, 정치참여 및 정치적 대표성, 문화 예술활동 등을 검토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제5장은 전북지역 여성단체 활동에 관한 것으로 전북지역에서 활동하고 하고 있는 단체를 중심으로 그 활동을 소개하는 동시에 평가하며, 그리고 향후 여성단체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6장은 전북여성의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것으로서 여성의 공식교육을 비롯하여 전북지역 여성평생교육기관의 운영 실태와 여성의 참여, 그리고 향후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7장은 전북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관한 것으로서 전북여성의 구체적인 경제활동, 예를 들면,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등에 관한 제반 특성을 비롯하여 전북지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제8장은 전북여성의 정치참여와 정치적 대표성 문제로서 선거과정에서 전북여성의 유권자로서 정치참여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관련 내용으로서 선출직 여성대표 구성 및 변화, 지방자치단체의 고위공무원과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위원 비율 등을 검토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9장은 전북여성의 문화예술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다양한 문화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북여성의 활동을 소개하고 향후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제4부는 전북여성의 복지기반 및 인권실태에 관한 것으로서 보육문제, 복지 수혜를 받고 있는 여러 소외계층과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영역을 검토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제10장은 전북지역 보육실태와 지원방안에 관한 것으로서 정부와

전라북도 보육사업 정책내용 및 방향을 검토한 후 전북지역 실태를 조사하였고 향후 여성의 사회활동참여 활성화를 비롯하여 아동의 건강한 보호와 양육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제11장은 전북여성의 복지서비스 실태와 지원방안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적 지원이 요구되는 저소득 모자가정, 여성노인, 여성장애인, 미혼모 등과 같이 사회적 여성소의 계층에 대한 실태와 지원, 그리고 향후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제12장은 전북여성의 인권실태와 권익증진에 관한 것으로서 지역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나 성매매 실태와 그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 현황, 그리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 2 장

전북여성의 발전사

- 제 1 절 여성들의 삶 들여다보기
- 제 2 절 전북여성의 분야별 활동
- 제 3 절 제언

제2장 전북여성의 발전사

허명숙(전북일보 편집국 부국장)

제 1 절 여성들의 삶 들여다보기

1. 시대적 배경

1) 근대²⁾

(1) 여성의 근대적 의식의 태동

한국사회에서 여성정책을 수립, 발전시켜온 역사는 매우 짧다.

한국사회에서는 18세기에 일부 실학자들에 의하여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적인 조처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었고, 이후 개화기에 와서는 남녀차별의 부당성이 부각되면서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한 관련 정책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으나, 이러한 논의는 국권의 상실과 함께 중단되는 비극을 맞았다.

한국여성의 정치·사회적 지위가 고려 이전 불교 지향 사회에서는 평등했으나 고려 말 주자학이 조선의 치국 이념이 되면서부터 유교적 사회관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사회는 가부장적 사회규범이 지배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남녀의 관계는 여성이 남성에 예속되고 부속되는 주종적 관계로 변화되었다. 18세기 후반 실학사상의 발생은 여성 사회참여에 긍정적인 측면을 제시하여 평등한 인간관을 탄생하게 하였고 서학의 전래는 인간평등을 강조, 여성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실학사상과 서구적 근대문물의 유입으로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교육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여성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되었고, 근대사회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여성들의 사회의식은 점차 향상되어 가부장적인 기존 질서 속에서 여성을

2) 신기철·신용철 편저, 새우리말 큰사전(삼성출판사, 1978)에 따르면, 근대는 넓은 뜻으로는 근세와 같은 뜻으로 쓰이나, 일반적으로는 본건사회의 뒤를 잇는 자본주의 사회를 이룬다고 돼 있다. 한국사에서 근대는 조선시대 후반부터를 일컫는다.

차별하는 모순에 대한 개선과 불평등하고 비인간적인 억압 요소를 제거하여 남녀평등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요구가 확산되었다.

1896년 도제 개편에 따라 전라도에서 전라남·북도로 세분화 되면서 전라북도만의 특성을 갖게 되었다. 특히 동학은 근대 한국여성사의 중추적 역할을 한 사상으로, 한국 여성 발전사에서 뿐 아니라 전북지역 여성사에서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2) 남녀평등 사상

19세기 후반 전북지역에서 태동한 동학혁명에서의 만인 평등사상은 여성의 지위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 동학농민혁명의 발발지로서 남녀평등 이념이 뚜렷했던 이 고장이니 만큼 여성의식이 일찍부터 깨어 있었고 후에 개신교의 유입과 더불어 여성교육이 이뤄지고 독립운동으로 이어지면서 이 지역 여성 희생자가 많이 나오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동학 보다 뒤에 발흥한 증산교가 훨씬 더 강한 여성 해방의식을 담고 있는 것도 민중의식의 성장과 더불어 이루어진 여성에 대한 의식의 변화와 연관시켜 이해할 수 있다. 증산교의 근본사상은 정음정양(正陰正陽)인데, 이는 음양의 질서를 바로잡아 혼탁한 세상을 구한다는 뜻으로, 남녀간의 평등한 관계를 새로운 세상의 질서로 상정하는 것이었다.

또한 개항과 더불어 들어온 외래문화는 여성의 사회참여에 활기를 주게 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단체인 찬양회가 관립여학교 설립운동을 벌였고 소수이긴 하지만 여성교육시설이 확대되면서 근대적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교사·간호사·산파·사무원·의사 등 전문직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이 것은 이후 여성운동의 인적·물적 기반이 되었다.

1910년 한일합방 이후 일제 초기의 여성단체들은 일제의 눈을 피해가며 국권회복을 위한 목적으로 비밀리에 단체를 조직하기도 했다. 기전여학교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 여성들의 구국 열정은 너무 크고도 위대했다.

일제시대 계급적인 그리고 민족적인 억압과 함께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이 결합되어 군산의 정미소에서 일어난 쌀의 누를 고르는 선미 여성노동자들의 파업이 있었다.

또한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이 수용되기 시작한 1923년경부터 근우회가 창립되는 1927년까지 지방에서는 최초의 사회주의 여성단체로 김제에서 여우회가 조선여성동우

회보다 5개월 늦게 창립된다. 여우회는 그 선언에서 “여자로 하여금 비절참절한 생활을 영계 한 근본 원인이 사회현상의 기초인 경제조직의 불합리에 있음을 절실히 체험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족적인 종래의 인권운동보다 일보를 진하여 대중해방운동으로써 우리의 적년원한을 풀고자 하여 이에 본회를 조직한다”고 하면서 △ 규중처녀로 하여금 난마 같은 현 사회를 이해케 하여 여성의 자각을 촉진함, △ 현대여성의 인권적 입장과 경제생활의 파멸을 자각케 하여 여성의 반역을 기함, △ 단결의 힘으로써 대중해방운동과 제휴하여 완전무결한 신 사회 건설을 기함이라는 강령을 채택하여 조선여성동우회에 못지않은 급진적 인식을 드러냈다. 신간회와 같이 반제 반봉건운동을 과제로 삼아 1927년 4월 26일 발기총회를 열고 창립된 근우회는 첫 지방조직으로 1927년 8월 22일 전주지회를 출범시킨다. 전라북도에서 군산지회가 더 있었다. 전주근우회는 발회식에서 정치문제를 다루었고 ‘전주여고보 사건’에 개입했다. 임부득 등 전주여고보생들의 사회주의적 비밀 결사 적광회(1929년 5월) 조직사건인 전주여고보 사건(1929년 8월) 때는 퇴학처분 해제 경고문을 근우회 본부에서 보내옴으로써 간부 허정숙과 정칠성이 3일 구류에 처해지기도 했다. 그러나 근우회는 본부의 미온적 투쟁 방침에 반발한 지방 지회들로부터 들고 일어난 신간회 해소와 맥을 같이하면서 결국 해소되고 말았다. 근우회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정부인·지식여성·소부르주아 여성층이 그대로 방치되면서 활동을 중단하고 침잠하거나 일제의 황국식민화 정책에 끌려 들어가 친일의 길을 걷기도 했다. 근우회라는 반제적인 전국적 여성조직이 자연 소멸함으로써 일제는 중일전쟁·태평양전쟁의 발발에 따른 여성인력 동원정책, 그를 위한 여성 어용단체의 조직 작업을 아무런 저항 없이 순조로이 진행시킬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여성에 대한 인식과 여성이 사회에 참여하게 된 역사가 100년 남짓한데 비해 오늘날 여성의 지위는 많이 향상되었고 사회적 진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성의 권리와 역할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져가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역할의 확대와 교육수준의 향상, 가족의 변화 등에 원인이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여성 자신이 가지게 된 의식의 성숙과 발전의 주체자이고자 하는 강력한 욕구가 만들어낸 결과라 하겠다.

2) 광복이후 여성 활동

(1) 여성관련 시책·방향 수립

일제 식민지 하의 혹독한 삶의 조건 가운데서도 우리의 선각자들은 여성의 인간화를 향한 의지와 힘을 광복운동을 통하여 축적해 나갔다. 주권의 상실이 주는 호된 억압과 남성 중심적 사회가 갖는 여성 비하의 이중적 질곡 속에서 축적된 힘은 1945년의 해방을 맞아 여성의 지위향상 요구로 분출되었다.

전통사회의 대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의존적으로 살아오던 한국여성들도 비로소 자신의 권리에 대해 인식하고 독립국가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으게 되었다. 1946년 미군정 당시 민주통일본부 시절부터 부녀부가 운영되었고, 9월에는 우리나라에서 여성 관련 분야 행정을 다루는 최초의 정부조직으로 보건후생부 내에 부녀국이 설치되었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제정된 헌법에는 남녀평등과 동등한 참정권이 명시되어 여성의 권익이 보장되는 우리사회의 성격과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정부 내에는 여성관련 행정조직이 처음으로 설치되고, 이 조직에 의해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이 구체적으로 수립되기 시작한 이래 50여 년간 우리나라 여성정책은 남녀평등사회의 구현을 목표로 일관되게 발전하여 왔다.

광복의 기쁨은 1950년 발발한 6·25전쟁으로 인해 여지없이 파괴되어 버렸다. 특히 여성들은 동족상잔의 비극 속에서 남편과 자식을 잃고 생활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절망과 고통을 겪게 되었다. 그러나 여성들은 전쟁을 계기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개발의 필요성과 독자적인 삶의 실현에 대해 자각하기 시작하였고, 정부 차원에서는 전쟁미망인의 자립 지원 및 윤락여성 발생 예방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들의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성정책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다. 전쟁이라는 역사의 분수령을 계기로 여성의 역할은 가정에서 사회로 확장되었고, 여성의 경제적 지위는 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취업여성으로 변화하였다.

1945년 이후 1950년대의 혼돈기 속에서도 제 1, 제 2공화국 정부를 지나는 동안 소수이기는 하나 우수한 여성지도자들이 정치무대에서 활약하였고, 여성단체를 조직하여 정부수립과 전쟁피해 복구를 위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근로여성의 보호와 모성보호를 명시하였고, 1959년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설립되어 여성활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해방직후 여성단체가 조직되는 전국적인 흐름에 따라 전라북도에도 대한애국부인회가 탄생됐고 50년대 혼란기를 거쳐 60년대 우리사회의 활발한 경제 도약과 더불어 여성들의 활동도 계몽 또는 부녀교육으로 매진, 70년대 들어 새마을운동과 함께 부역개량 등 활발한 활동이 전개됐다.

여성단체들이 60년대 후반부터 발아하기 시작, 70년대는 다양한 단체가 조직돼 이들 단체를 통한 여성들의 활동이 눈에 띄기 시작했고 이름 하여 유명 여류인사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오늘의 여성단체의 뿌리가 70년대에 거의 자리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 때만 해도 여성운동이 남성들에 의해 타율적으로 진행돼왔던 게 사실이다. 80년대 들어 시민의식의 고양과 함께 민주화 운동이 활기를 띠면서 일선 산업부문의 단순 생산계통에서 일하던 여성노동자들의 의식이 높아지는가 하면 농민분야에서 의식 있는 여성들의 여성 활동과는 다른 면을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정치 분야에는 여성들의 진출이 미약해 여성들의 의사가 제대로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행정계를 비롯한 각 분야에서 여성들의 위치는 아직도 부수적인 차원에 머물렀다.

3) 대변혁 시대(1960년대)

(1) 여성들 눈을 뜨다

1960년대는 농업 국가였던 한국사회가 제 3공화국 정부의 출범과 함께 공업화 사회로 전환하면서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이 시행되던 대변혁의 시대였다. 여성의 취업은 수출 중심의 경제정책에 따라 저임금의 노동력으로 활용된 저연령층 미혼여성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여 1963년 15세 이상 여성인구 767만명 중 경제활동 인구는 283만 5천명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은 37.0%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1960년대 이후 정부 주도로 강력하게 추진된 가족계획 사업에 따라 변화한 가족구조는 자녀수의 감소 등 여성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전통적 결혼관 또한 변화하여 가정 중심에서 부부 중심으로 옮겨가는 양상을 보이게 됐다. 1953년부터 실시된 의무교육으로 여성의 교육기회는 크게 확대되어 초등학교의 여아 취학률이 상승됐고,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으로 여성 진학률도 급상승되었다. 1962년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제정되었고, 가족법의 1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제도적으로

는 1966년과 1971년 사이에 지방 시·도 부녀회는 부녀아동과로 승격되고, 시·군에도 부녀복지회를 두어 여성정책 시행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4) 격동의 시대(1970년대~1980년대)

(1) 여성문제를 사회문제로 인식

1970년대는 정치 경제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제 3공화국 정부의 유신헌법 반포로 인한 격동의 시대였다.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여성노동자의 저임금, 중노동 등 고용문제를 비롯한 여성문제가 사회문제로 인식되었고, 세계적으로도 여성의 해방을 주장하는 여성운동이 고조되던 시기였다.

특히 1970년대 여성사의 전환점으로 기록될 사건 중의 하나가 1975년 유엔이 제정한 ‘세계 여성의 해’이다. 여성발전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한국의 여성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커다란 영향을 미쳐 여성의 잠재력과 가능성에 주목하게 된다. 멕시코에서 열린 세계여성회의 참가 등 여성관련 국제교류를 활발하게 전개하는 출발점이 되기도 하였다.

국내적으로는 모자보건법이 제정되었고 1976년에는 직업훈련기본법이 제정되어 소수이나마 여성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가 제공되기 시작하였다. 같은 해 여성취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여행원에 대해 실시해오던 차별적인 관행인 결혼각서제가 폐지되었고, 이어 77년에는 70여개의 여성단체들이 연대하여 추진한 가족법 개정운동의 결과로 가족법의 제 2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또 1977년 이화여대는 국내 최초로 여성학 강좌를 설치하여 여성문제의 해결을 위한 학문적 접근을 시작하여 여성의식의 함양과 남녀평등교육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여성단체는 여성운동의 잠재력을 축적하면서 여성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문제, 여성사회교육의 확대, 기생관광과 매춘관광의 반대 시위 등 남녀차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동일방직 노조는 1972년 여성지부장을 선출했고, YH 여성노동자들은 75년 노조를 결성해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 불법 해고, 부당 전직 등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1970년대 이후 산업화로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 경제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정치적으로는 권위주의적 독재 체제가 강화되었다. 이 때 민주사회를 건설하려는 지식인 여성들과 민중여성들, 특히 여성노동자들에 의해 여성운동은 조금씩 새로운 면

모를 갖춰 갔다. 여성단체에서는 가족법 개정운동과 기생관광 반대운동 등을 벌였고, 생산직 여성노동자들은 노동조건 개선과 여성노동자의 특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투쟁에 나섰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여성단체나 종교단체가 여성노동자의 열악한 상황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아주 초보적이지만 여성노동자와 진보적 지식인의 연대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2) 사건에서 인권으로

1980년 이후 여성운동은 운동이념 조직 실천에서 1970년대와는 질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였다. 1983년 청년 지식인 여성 중심으로 새로운 이념을 가진 여성평우회, 여성의 전화,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여성부 등의 단체가 조직되었다. 1983년 한국통신 교환수였던 김영희씨가 제기한 전화교환원 정년 차별문제와 1985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 청구과정에서 25세 조기 정년퇴직 문제를 불러일으킨 이경숙 사건이 있었다. 이경숙 사건은 여성단체들의 역학적 힘이 발휘된 최초의 사건이었다. 25세 조기 정년제 철폐를 위한 여성단체연합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성이 결혼 후 퇴직한다는 관례가 법적으로 굳어지는 것을 막았다. 이에 그치지 않고 가사노동을 법적으로 보상하는 평가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가사노동에 관한 일련의 논쟁을 제기하여 주부역할에 대한 경제적 평가의 필요성을 제기한 최초의 작업으로 그 의의가 컸다.

1986년 권인숙씨 성고문 사건은 여성의 문제가 민주화운동과 연결되어진 가장 극적인 사건이었다. 같은 해 벌어진 KBS 시청료 거부운동은 시청료를 실제로 내준 주부들이 사회운동의 주역으로 등장했다.

5) 민주화 시대(1990년대)

(1) 제도와 틀 다져

1990년대는 제한적이거나 민주화가 시작되면서 여성운동의 정치적 성격이 약해졌고, 성차별 타파라는 여성운동 고유의 과제에 충실해졌다. 정치적 환경의 변화로 여성운동의 관심이 군사적 권위주의 정권의 타도에서 가부장제 법 관행 의식 등의 개혁으

로 변화한 것이다.

또한 1990년대는 여성관련 기구와 제도가 새롭게 설립된 연대로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제 5공화국 정부는 1981년 보건사회부 부녀아동국을 가정복지국으로 개편하여 가정복지과, 아동복지과, 부녀복지과의 3과 체제를 운영하였다.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해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여성계의 지속적인 건의를 바탕으로 여성문제 전담기구인 한국여성개발원(1983년)이 설립되었고 이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여성정책심의위원회(1983년)가 탄생하였다. 1985년 여성발전기본계획과 남녀차별개선지침이 여성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국가시책으로 채택되었고, 1987년 제 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부터는 여성개발 부문이 신설되어 여성발전 계획이 국가계획으로 통합되었다.

1988년 여성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정무장관(제 2)실이 발족되었고, 지역의 여성행정을 담당하는 전국의 14개 시·도 가정복지국(1988년)이 이 시기에 탄생하였다. 또한 헌법에 남녀평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1987년) 남녀고용평등법(1987), 모자복지법(1989)이 제정되었고, 1958년 공포된 이래 가부장적인 남존여비 사고방식에 기초한 법률로 여성계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를 받아오던 가족법의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1989).

교과 과정에서도 남녀학생이 분리돼서 배우던 가정과 기술과목이 통합되어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여 평등교육을 향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1988년부터 여학생의 입학이 허용되지 않았던 세무대와 경찰대 등 특수대학도 부분적이거나 여학생에게 개방되었다. 여성문화의 개념을 여성적 감수성으로 분류하지 않고, 여성의 현실을 여성의 시각으로 형상화하여 문학 미술 연극 영화 무용 등의 장르에서 여성주의 문화가 등장한 것도 80년대의 일이다.

(2) 법으로 말하다

국내에서 성희롱이라는 용어가 사건 판례로 처음 적시되는 계기가 됐던 1992년 발생한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은, 1993년 10월 21일 여성계와 서울대생으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가 결성되고 1994년 4월 19일 3000만원 배상 판결 시점부터 일반에 회자되기 시작했다.

1991년 우리나라는 남북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여 정식 회원국이 되었고, 1994년

에는 유엔여성지위위원회의 위원국이 되어 국가적으로도 여성부문에서도 활발한 국제 활동의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1991년에 전국 169개 시·군에 가정복지과가 설치되고 과장을 모두 여성으로 임명하였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을 시작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1993년)이 제정되었고, 윤락행위등방지법이 개정(1995년) 되었다.

1993년 2월 출범한 문민정부는 변화와 개혁을 목표로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국정목표의 하나로 추진하여 첫 내각을 구성하면서 정무장관(제 2), 보건사회부, 환경처 장관과 정무(제 2)보좌관을 여성으로 임명하여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94년 노동부는 고용평등, 모성보호, 여성고용의 확대 및 국제협력 증진을 목표로 1994~97년간의 근로여성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여성발전을 위한 국가계획이 마련되었다. 1994년에는 국회여성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여성 관련 입법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공군사관학교가 97학년도부터, 육군사관학교가 98학년도부터, 해군사관학교가 99학년도부터 여성 생도를 선발했다.

(3) 정치 세력화

90년대 들어 부활된 지방자치시대의 흐름을 타고 정계로의 여성 진출 목소리가 높아지고 실제 여성계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 여성들의 학력이 높아지면서 예술계 뿐 아니라 각 전공분야에 여성들이 활발하게 진출, 평등한 삶이 실천돼가고 있는 양상을 보여준다.

1990년대는 제한적이거나 민주화가 시작되면서 여성운동의 정치적 성격이 약해졌고, 성차별 타파라는 여성운동 고유의 과제에 충실해졌다. 다양한 여성단체들이 다양한 이슈를 내걸고 활동하였으며, 여성문화활동이 활발히 이뤄졌다.

6) 양성평등 구체적 실천(2000년대)

2000년대 들어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고 2001년 여성부가 출범했으며 2003년에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보육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됐다.

2001년 국내 여성계는 양성이 평등한 사회실현과 여성의 권익 증진이라는 기치 아래 수많은 과제들을 이슈화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2001년은 여성부 출범과 함

께 한국 여성사의 제 2의 원년이 된 해였다. 2002년은 정부 차원에서 공보육의 열개가 마련되기 시작했다. 연초에 여성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 간에 보육정책 종합대책이 마련되면서 그동안 민간이 떠맡아왔던 보육에 국가가 직접 개입한다는 공보육 대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미국 국무부가 2002년 6월 작성한 세계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서 한국이 최상위인 1 등급을 받은 것을 놓고 미국 의회 의원들이 일종의 이의를 제기하면서 한국의 정확한 인신매매 실상이 이슈화됐다. 이런 가운데 2002년 10월 필리핀 정부가 주한 필리핀 대사관을 통해 기지촌 일대에서 감금 및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국 여성을 위한 손해배상 소송을 한국법원에 제기한 사건이 발생, 한국의 인신매매 실태가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되면서 결국 범정부 차원에서 인신매매 근절대책이 검토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2002년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을 모았던 장상 전 이화여대 총장이 결국 인준의 턱을 넘지 못하고 낙마하자 여성계의 낙심도 컸다. 10월엔 금강산에서 남북 여성대표 670여명이 모여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할을 모색한 남북여성 통일대회가 분단 이후 처음으로 열려 주목을 받았다.

2003년 최초의 여성 법무장관이 탄생했고, 강금실 법무장관은 2004년, 1년4개월여만에 자리를 물러났지만, 2005년 현재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서울시장 영입 1순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이 2004년 4·15 총선에서의 눈부신 활약을 무대로 한나라당 대표로 재선됐다. 이는 우리나라 정당사에서 두 번째 여성 당 대표라는 기록을 남긴다. 박근혜 대표는 2007년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 1순위로 꼽히고 있다. 17대 총선 기간 호남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몸을 던지는 '삼보일배'까지 했던 민주당의 추미애 의원은, 민주당이 총선에서 참패하고 자신마저 낙선한 뒤 재충전을 위해 미국으로 떠나 워싱턴에 머물고 있으나 2005년 현재 통일부 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헌정사상 최다인 39명(전체의원 대비 13%)의 여성의원들이 여의도로 입성한 게 계기다. 16대 국회의 16명(5.9%)과 비교해 2배 넘게 경충 뿔 약진이었다. 비례대표의 50%를 여성 몫으로 할당한 제도 개선에다 기존 남성 정치인에 비해 전문성을 갖춘 참신한 여성 정치인을 통해 정치 변화를 바라는 유권자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였다. 그렇게 여성 정치시대 서막이 열렸다. 그러나 일부 여성의원들은 참여한 여야 대치 속에서 전문 영역을 살리지 못한 채 정치권에서 묻혀버리는 한계를 드러냈다.

2000년대는 무엇보다 모성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 분담 전기를 마련하는 등 여성권의 신장을 위한 제도적 초석이 다져졌으며, 호주제 위헌심판 제청, 청소년 성범죄자 명단 신상 공개, 성폭력 대학생 첫 제명, 첫 여성장군 탄생, 성매매방지법 입법 청원 후 성매매방지특별법 제정 입법 청원 등이 이뤄졌다. 결국 2004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2000년을 전후로 호주제 폐지운동이 본격화 됐으며,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2005년 2월초 호주제를 둘러싼 위헌제청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린 데 이어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3월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민법 개정안은 본인 중심의 신분등록부 사용, 가족 범위 확대, 부성 강제 완화, 친양자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5년 특히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기능이 확대 개편되어 가족정책의 수립·조정·지원업무를 시작하면서 가족정책의 원년으로 선포했는가 하면, 2004년부터 보육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이관 받아 보육서비스 개선과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전북지역의 경우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의무화 된 여성발전기금 조성을 2000년대는 각 시도별로 마무리 짓는 양상을 보였다. 여성 유휴인력 활용 차원에서 한 차원 높은 여성경제 활동에 초점을 두고 일하는 여성의 집(여성인력개발센터로 개칭, 2005년 지원·감독부서가 여성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서 여성 취업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양성평등 차원이 강조되고,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정책과 예산 수립 등이 확산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제 2 절 전북여성의 분야별 활동

1. 여성 교육

1) 여학교의 역사

(1) 애국선봉에 선 여학생들

최초로 전라북도에서 시행된 여성을 위한 신식교육은 1891년 프랑스인 보두네 신부(한국명 윤 신부)가 전주시 교동에 설립한 여교당이며, 이 여교당은 3년간 교육을 시행하다가 1894년에 문을 닫았다. 1920년에 라크루 신부가 이 자리에 해성학원을 설립하여 다시 시작하였다. 이는 성심여중고의 모체로 전북지역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근대적인 여성교육의 효시다. 1897년 전북공립소학교(전주초등학교 전신)가 세워졌다.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에서 전주신흥학교를 1900년에 연데 이어 1902년 전주기전여학교를 설립했다.

기전여학교 학생들은 1907년 국채보상운동에도 앞장섰고 한일합방에 이은 독립운동에도 적극 가담했다. 기전여학교 박현숙 선생은 학생들의 민족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승의여학생 시절부터 송죽회라는 비밀구국단체에 가담, 활약한 송 교사는 1915년 졸업 후 기전여학교에 부임해서 감리교의 공주회 여성회의를 조직해서 민족정신 양양과 구국정신을 학생들에게 심어주었다. 박 교사에게 감화를 받은 임영신·오자현·송귀내·유채봉·오순애 등은 구국을 위한 결사대를 조직, 비밀리에 국사를 배웠는가 하면 전주에서의 만세운동을 주도하고 독립선언서를 등사하고 태극기를 만드는 일 등 1919년 독립운동에 이르기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해냈다. 이들은 얼굴만 내놓고 머리에서부터 둘러쓰고 다니던, 근대여성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쓰개치마 벗기에도 앞장서 1915년 전학생 동맹 휴학 결의를 다진 3일 만에 기전학생들의 쓰개치마를 벗어던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전주 장날 이들 대부분이 주동이 되어서 벌인 1919년 3월 13일의 만세운동으로 인해 임영신·김공순·김신희·김인애·최금주·강정순·함연춘·김순실·김라현·최요한나·정복수·송순희·최애경 등 기전학교 졸업생들과 재학생들로 구성된 13명의 결사대원에게는 전주재판소에서 3년 또는 3년 6월의 징역 언도가 내려졌으며, 이 언도에 불복,

대구 복심법원에 상고해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전주기전여학교 학생들의 애국정신은 후배 여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졌다. 1929년 광주학생사건으로 전국 194개교가 동맹 휴학 또는 투쟁에 들어갔을 당시, 전주여자고등보통학교의 투쟁은 매우 거세었으며 주동자급인 오주현과 유부흥(1966년 개교 40주년 기념일에 명예졸업장 수여), 김말재(1976년 개교 50주년 기념일에 명예졸업장 수여) 등이 졸업 1개월을 남겨두고 퇴학당하기도 했다.

(2) 선교 차원의 여성교육

전북지역에서의 근대식 여성교육은 선교활동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전주와 서울에서 선교활동을 한 클락(한국명 강운립)목사가 서문교회 임시 당회장을 역임하고 신흥학교에서 교편도 잡았는데, 그 부인(한국명 한예정)의 친정부모가 먼저 간 딸을 기념하기 위해 전주에 여자들을 위한 성경학교, 즉 한예정성경학교(한일장신대 전신)를 건축했다. 1921년 전주 서문교회 배은희 목사 부인 김영신씨가 호남에서 최초로 유치원을 세워 서문유치원(전주유치원으로 개칭) 건물을 이용해 여자 야학교를 개설했다.(배은희 전 서문교회 목사(작고)가 쓴 『방애인 소전』(1934년 간행)에는 1928년 서문교회 전도실에서 4~5명의 고아로 시작했다고 기록.) 전주서문교회 유치원 선생들이 주축이 돼 전주여자기독청년회(전주YWCA 전신)를 조직, 복음전도와 고아보육 사업을 해왔다.

(3) 공교육 틀 세워나가

전북지역에서 최초의 한국인을 위한 관립 여학교는 1926년에 세워진 전주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로 4년제였다. 1919년 설립된 전주풍남여자보통학교(전주 풍남초등학교 전신) 졸업생들이 배출되면서 고등보통교육으로의 수용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이전 1924년에 세워진 전주공립고등여학교와 군산고등여학교 이리고등여학교는 일본인 전용학교로 10여 년간 한국인 학생의 입학은 허용하지 않았다. 1937년 9월 25일 신사참배 거부로 기전학교가 자진 폐교했으며, 고등과 학생 170명은 전주여고보로 편입하였고, 보통과 학생은 전주공립여자보통학교로 편입하였다. 1992년에는 중군위안부 관련 극비 문서들이 일본 방위청에서 발견됐는데 그 해 1월 전주국민학교(당시 전주상생공

립학교)에서 일제시대 때 6학년 여자 어린이 10명이 정신대로 끌려간 사실이 기록된 학적부가 발견됐다.

1949년 교육법이 제정되기 전에 여성교육은 일부를 제외하고 가정교육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그 내용은 유교정신에 바탕을 둔 교육으로 남성의 종속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1948년 도립 이리농과대학을 필두로 전주에 전주명륜대학, 사립 군산대학 등이 설립되었으며 이들이 합하여 1951년 국립 전북대학이 되어 전라북도에서도 본격적으로 대학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었다.

1951년에 교육법 일부 개정에 따르는 초급대학 및 중등학교의 개편과 각 학생에 대한 조치에 의해서 중학교에서는 인문 실업계의 구별이 없어지고, 중학교에 수업연한 1년 과정의 고등기술학교를 병설할 수 있게 되었다. 또 6년제 중학교는 지역별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로 계획적인 개편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초급대학은 단설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대학에 병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4년제인 전북공립여자중학교는 인문계 12학급 600명인 전주여자고등학교로 출범하게 되었다. 해방 전에 설립된 여학교로는 중학과정에 기전여중 전주여중 김제여중 정읍여중이 있었고, 고등학교 과정에는 군산여고 이리여고 전주여고 정읍여고 김제여고 등이 있으며 신사참배 문제로 자진 폐교한 기전여고와 멜본딘여고 등이 있다. 이 두 학교는 해방 후에 다시 개교하게 된다.

1960년대 여학생을 위한 학교가 부족해 여러 학교가 개교되었고, 교실을 증축하는 등 여학생을 위한 교육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1961년부터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전문대 및 대학 2~4년, 대학원에 이르는 현 교육체제의 골격이 설립되었다.

1960년대 여중학교로는 원광여중 함열여중 만경여중 금성여중 왕신여중 성신여중 황등여중 이일여중 멜본딘여중 진안여중 동신여중이 개교되었다. 고등학교로는 원광여중고 부안여고 군산중앙여고 군산여상 영생여상 왕신여중고 함열여중고 성신여고 영광여고 삼례여고 순창여고 등이 개교하였다. 3년제 대학과정의 간호학교는 전주도립병원 구내에 자리 잡고 있던 공립 전주간호학교, 사립으로 예수간호학교, 개정간호학교 등이 있다.

그 후 전북의 보수성으로 인하여 1970년대 말까지 관습적인 차별이 계속되었다. 전라북도에서는 1972년부터 중학교 무시험 추천 입학을 실시해서 1972년 2월 10일에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여학생을 대상으로, 11일에는 남학생을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하였다. 1974년에 시행된 고교 평준화 정책에 따른 중등교육 취학의 급격한 상승은 교육기회를 한 차원 더 높여 주었다. 1970년대에 설립된 여자중학교로는 전일여중 근영여중 진성여중 청구여중 경암여중 고부여중 호문여중이 있고, 고등학교는 근영여고 남원여고 진경여상 만경여중고 정주여중고 성원여상 풍남여상 예림여고 등이 있다. 전라북도 교육위원회도 산업체 근로학생 특별학급과 산업체 부설 특별학교를 설치하여 근로청소년에게 취학의 기회를 확대하였는데, 당시 도내에는 군산 청구목재 부설 특별학교인 청구여중이 1977년에 설립되었고, 한해 뒤인 1978년에는 경암여중이 설립되었다. 1978년 전주여상에도 산업체 근로학생을 위한 2학급과 덕진중학교에 1학급을 운영하였으며, 이리남중 원광여중고에도 이러한 특별학급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전북지역 여성지도력의 요람인 전주여중이 중학과정 평준화 정책에 의해서 명문교가 폐교됨에 따라 1972년 2월 졸업생을 끝으로 문을 닫게 된다.

기전여자전문대가 1974년에 개교하여 영양과 식품가공과 보육과를 설치하여 전문인을 양성하였고, 1979년에는 우석여대가 개교됐다.

1970년대에 중·고등학교에 대해 학군제 진학을 실시하게 되자 서울을 중심으로 좋은 학군으로 이사 가는 경우가 많았으며, 전라북도에서도 많은 가정이 자녀교육을 위해 도시지역으로 이사 가는 현상이 나타났다. 서울 집중이 심해져 1980년대 이후 더욱더 서울에 있는 대학교로 빠져나가게 되었다. 1980년 7·30 교육개혁 조치가 이뤄졌고, 이러한 교육개혁을 통해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과외교육의 해소를 적극 주장하고 나선 문교부의 기본 입장은 전인교육에 있었다. 80년대부터 진학률이 상승되어 현재는 거의 평등한 교육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1980년대는 많은 수의 여성들이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서 여대생들의 취업이 서서히 사회문제로 등장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4) ‘최초’ 여성 교육자들

전북 최초의 여자 교장은 지동옥씨로, 1945년 9월 미 군정 하에서 신설이나 다름없었던 군산공립고등여학교에 부임했다. 전북 최초의 여성 초등장학사(설선자), 여성 중등장학사(정복술 전주여자고등보통학교 1회 졸업) 등이 탄생한다.

또한 신사임당상을 받은 조옥영씨가 여성 교육행정가로, 조숙희씨가 전북 최초 여

성 교육장으로, 김나미씨가 최초의 전라북도교육청 여성 장학사(완주교육장에서 정년 퇴임)로 전북교육사에 남았다. 이밖에 장수교육장을 역임한 조금숙씨, 진안교육장을 역임한 김정자씨 등을 여성 교육행정 수장으로 꼽을 수 있다.

2) 여성들의 요람, 여성회관

1968년 10월 31일 전주시 고사동에 전북여성회관(초대관장 김기옥)이 준공돼 여성 교육을 담당했다. 교양강좌실 상담실 전시실 도서실 예식장 미아보호소 미용실 등을 갖춘 전북여성회관은 여성들의 건전한 사회참여와 지역사회 개발에 대한 진취적인 역할 기대와 함께 여성단체들의 환영을 받았다.

전라북도 예산으로 운영, 모든 강습에 수강료가 없었으며 야간강좌도 있어서 은행 직원 회사비서 타이피스트 등 전문직 여성들이 곳곳이 양재 등을 배웠다. 남부시장을 지나던 장바구니 든 주부들도 낮에 잠깐 들어와서 수강했을 정도다. 강당을 대관료를 안 받고 무료로 빌려주고 도서실은 당시 글 좀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의 사랑방이었다.

72년 2월 구 KBS전주방송국 자리로 옮긴 뒤 80년 9월 현 전주시 금암동 잠종장 부지로 신축 이전했다. 파출부(가사도우미)를 육성하고, 여성백일장대회를 개최, 입상자들이 78년 11월 전주글벗회를 조직해서 여성백일장 대회 10주년 기념으로 회원 16명이 백일홍 문집 1집을 냈다. 전북여성합창단도 구성, 76년 4월 전북야외음악제를 열기도 했다. 85년에는 군산여성회관이 완공되었다.

전북여성회관 관장을 장수현·나정자·장정하·김명숙씨가 역임했다.

전라북도여성회관 수탁기관인 전북여성발전연구원이 2005년 4월 전북발전연구원내 여성정책연구소로 편입되면서 기존의 여성회관을 승계하는 재단법인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가 10월 발족했다.

3) 전라북도립 여성중고등학교

1997년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고등학교 학력 인정 도립중등여성교육원(전라북도립 여성중고등학교로 개칭)을 설치하여 1998년 3월 첫 입학식을 가졌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정규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거나

중도에 그만 뒤야 했던 여성들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인 도립 여성중고등학교는, 2001년 제 1회 졸업생 78명(중학교 42명, 고등학교 36명)을 배출해서 교육시기를 놓친 성인 여성들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했다. 지난 2005년 2월 중학교 48명, 고등학교 37명 등 85명의 제 5회 졸업생을 포함해 지금까지 중학교 359명, 고등학교 282명 등 총 641명이 도립 여성중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전북도 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 소속의 사설계 단위로 운영되어왔으나 개교 7년여 만인 2005년 전라북도 사업소로 승격됨으로써 독립적인 교육기관으로 인정받게 됐으며, 도지사가 맡아오던 교장직도 교육전문가를 영입, 운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2. 여성의 경제활동

1) 농민의 딸에서 산업역군으로(1960년대~1970년대)

(1) 수출공단에 진출

1960년까지 전북여성 경제활동의 참가는 거의 대부분이 농업부문에 무급 가족 종사자로 참여하였다. 전주 1공단이 66년부터 69년 말까지 조성되고 이어 73년과 74년 이리 수출공단이 들어서면서 많은 여성들이 산업역군으로 나서게 됐다. 새마을부녀회를 중심으로 구판장을 운영해서 지역발전과 부녀사업을 위한 공동기금을 마련하고 소비절약과 허례허식 추방 캠페인, 가정의례준칙 실천운동 전개에도 앞장섰다. 그 후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이뤄지면서 제조업 사무직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취업여성의 비율이 증가하였지만 인적자본의 축적 정도가 낮은 저학력 여성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하위직종에 취업하였다.

(2) 단순·하위 직종에 머물러

1960년대부터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행정장비가 타이프라이터로 개선되면서 많은 여성들이 타자요원으로 취업의 기회를 얻게 된다. 전주·군산·익산 등 3개 시의 타자학원이 성업을 이루었고 타자요원은 고용원이나 조무원의 대우를 받기도 했으나 다

수가 일용직에 머물렀다. 60년대 도내 여성들의 주요 일터는 전주중앙시장 근처의 전주지방전매청(63년 전주연초제조창으로 개칭, 89년 한국담배인삼공사 전주제조창으로 개칭, 현재 KT&G), 구 전주MBC 동양아파트 우성아파트 일대 방직공장, 제사공장과 유망 양잠에 여성인력이 몰렸다.

2) 여성노동자 조직 활성화(1980년대~1990년대)

(1) 섬유노조 활동 활발

1980년대 전북 여성 활동 가운데 노동운동은 빠질 수 없다. 섬유업체가 많은 도내 산업 특성상 여성노동자들이 주축이 된 섬유노조의 활동은 한국노조운동사에서도 큰 발자취를 남겼다. 79년 도내에서는 최초로 자율적인 노조가 태창메리야스에 결성됐고 81년 박복실 위원장을 비롯한 태창노조 여성조합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사수한다는 각오로 임금 인상을 외치며 거리로 나오면서 노동운동이 조직화하는 계기가 된다. 야 학교와 기업 내 여상학교 등에서 배움의 아쉬움을 떨치려 했던 여성노동자들은 노동조건과 복지문제에 대한 의식이 싹터 80년대 중반 군산 세풍합판과 후반기의 이리 아세아스와니·후레아훼션 등 노조원들의 투쟁으로 이어진다.

(2) 비정규직 노동자 편에 서서

1990년대에 들어와서야 전북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다변화되었지만 직장과 가정의 양립 문제 등으로 인하여 크게 향상되지는 못하였다.

경제난이 장기화되면서 여성은 경제 일선에서 구조 조정의 한파를 맞았다. 전북지역 여성계는 여성실업과 빈곤의 악순환 고리 끊기 노력을 펼쳤다. 그동안 익산지역에서 노동운동을 이끌어왔던 전북여성노동자회는 전주에 지부를 내고 평등의 전화를 확대하면서 노동자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전북지역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대변인으로 나섰다. 또 판매 영업직, 보험설계나 학습지 교사 등 대표적인 비정규직 여성 권리 찾기 캠페인을 활발하게 벌였다.

특히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2003년 전북대학병원과 전북대 그리고 원광대병원 등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들의 항쟁이 거셌다. 비정규직 학교 영양사들도 정규직으로의 전환과 전국 하위에 머문 근무 일수 증가 등을 요구하며 도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노동조건에 항상을 외쳤다. IMF관리 기간에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부부 직원의 경우 여성이 먼저 해고를 당하는 등의 사례(농협 등)에서 보듯 비정규직 여성들은 상시적인 계약 해지로 불안한 고용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3) 두드러진 여성 진출(2000년대)

1970년대만 해도 39.3%에 머물렀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1980년 42.8%에서 1990년 47.0%로 도약하더니 2000년 48.6%, 2004년 49.8%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³⁾. 여성기업 수도 104만4천개(2001년) 109만1천개(2002년) 111만8천개(2003년)로 늘고 있다. 2005년 여성 합격자의 경우 삼양그룹이 60%, 한진해운 60%, 외환은행 57%, 기업은행 49% 등 여풍이 거세다. 한국은행(34%), 금융감독원(33.3%), 사법고시(32.3%) 등 공기업이나 고시에서도 여성 합격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4) 여성 경제인

전북 출신의 여성 경제인으로는 군산시 대야면 출생의 이길여씨(1932~ , 가천길재단 이사장)가 첫 손 꼽힌다.

또한 활발한 경제 활동을 한 박성숙씨는 한양물산을 운영하면서 전북여성경제인협회 초대회장을 역임했으며, 유근영 (유)한풍제약 대표는 새세대육영회의 전북지역 회장을 맡기도 했다.

1900년대까지만 해도 건설회사 대표 등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여성 사장이 많았고,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여성 경제인이 적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여성 경제인 수가 부쩍 늘었고, 여성 경제인 우대와 같은 사회 분위기에 힘입어 이들은 여성경제인 협회를 조직했을 뿐 아니라 귀금속·조선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내수에서 그치지 않고 수출에도 박차를 가해 전북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3) 김원배·김필규, 남성 '호림' 내년 취업시장 여성 '맑음', 중앙일보 2005년 12월 27일자 3면, 통계청 자료 재인용.

3. 여성 행정

1) 1950년대~1960년대

(1) 부녀에서 여성으로

전북에 부녀행정의 역사는 부녀아동과가 1948년 보건후생국의 후생과에 소속됐던 부녀계에서 출발했다. 당시 중앙의 초대부녀국장 고헌경씨가 전국 각도를 순회 방문하여 설치한 것인데 전북 초대 부녀계장은 윤경옥씨였다. 이 당시 도 본청과 각 시군 여성공무원은 기능직 및 업무보조나 교환원 등으로 그 숫자도 극히 적었다. 그 이듬해 부녀계는 사회국 사회과 소속으로 이관돼 계장은 김기옥씨였다. 전북도 부녀계는 49년도내 농촌부녀자의 자질향상을 위해 부녀지도자 양성 강습회를 2회에 걸쳐 실시하고 강습을 마친 부녀지도자들은 각 지방을 순회하면서 강연 영화 등으로 농어촌 문맹부녀자들의 계몽운동을 전개할 것을 밝혔다.

50여 년 동안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산업화로 인한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각 분야에 여성들이 진출하고 있지만 유독 정치 분야와 행정 분야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과거 유교주의 사상에 의한, 관직은 남성이 전유해야 한다는 사상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특히 전라북도는 보수성이 강하고 여성에게 배타적인 문화 탓인지 현재까지도 관리직급의 여성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2) 고아 돌보기에서 아동복지로 확대

1956년 9월 전주시 다가동에 전주도립모자원을 설립하여 전쟁미망인의 재활을 위하여 재봉교육, 편물교육 등을 실시한 것이 관에서 운영한 최초의 모자복지 시설이었다. 그 이전인 1952년 정읍시에 종교단체가 운영한 마리아 모자원을 설립하여 모자복지사업에 이바지하였다. 전쟁고아를 위하여 옥구군에 사회복지법인인 신광애육원을 설립하여 전쟁고아 보호사업을 하였으나 점차 고아가 줄어 1969년 2월에 모자보호사업을 목적으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그 외 1952년에 진안군에 설립한 이산애육원이 운영되다가 1974년에 폐지되고 1977년 9월 이산모자원을 설립하여 운영되고 있다. 1976년 8월 옥구군 대야면에 상록모자원이 설립되어 운영하고 있다.

(3) 생활지도사에서 요직 진출

1957년 우리나라에 농사교도법이 제정 발효됨에 따라 도 농사원(현 농업기술원)에서는 새로운 농사기술 습득과 생활개선을 위한 생활지도사 13명을 채용하여 도 및 각 시군 농사원에 발령하고 농촌생활개선사업을 시작하였다. 이는 전라북도 여성들이 공직에 대거 진출한 첫 사례로 꼽힌다. 먼저 마을 단위로 생활개선구락부를 조직하여 의생활 개선을 지도해나갔다. 그 당시 한복을 입고 일하는 주부들에게 작업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주부나 어린이들에게 활동하기 편리한 평상복 제작법을 지도하였다. 식생활에서는 농촌에서 생산하는 소채류에 따라 영양 손실이 적은 요리법(분식 혼식장려와 개량 메주 쭈기 등)을 지도함으로써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였다. 주생활에서는 가사노동 절감과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부엌 개량, 아궁이 개량, 장독대 개량, 우물 개량, 변소 개량 등을 지도하고 가계부 쓰기, 행주 개량, 기생충 구제 등의 사업을 과제로 지도하였으나 인력 부족으로 전체적인 지도는 하지 못하고 시범 마을을 정하여 지도하여 전 마을로 파급되어지도록 하였다.

1959년 8월 20일 부녀계는 대한부인회 전라북도지부와 공동으로 부녀지도자 강습회를 열었다. 부녀행정의 중요성과 합리적인 식생활, 건전한 국민정신을 함양하자는 내용의 이 강습회는 도내 각 도시에서도 개최되어 많은 여성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1962년 정부는 대정부 홍보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 공보실을 설치하고 공보요원은 여성으로 하되 초급대학 이상의 학력으로 제한하고 공개 채용을 실시하였다. 공보요원의 주요 업무는 정부·도·시·군의 정책이나 업적을 주민에게 홍보하고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대국민 홍보활동에 전력하였다. 전라북도도 13개 시군에 모두 공채하여 공보요원으로 활동하였다. 이 시기에 전라북도는 여성을 대상으로 지방 5급 을류(현 9급) 공채를 실시하여 선발하고 전원 읍면사무소에 배치하였다. 지방공무원으로 여성들이 대거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였으며 이들은 호적, 병무 등 민원업무를 비롯해 모든 업무를 두루 섭렵할 수 있었다.

(4) 가족계획 업무

1962년 정부에서는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가족계획을 채택하고 그 사업을 구체화하면서 가족계획사업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당시 추정된 인구 증가율 2.9%를 제1차 경제개발 5개년(1962~1966) 계획이 끝날 때까지 2.5%로, 읍면마다 1명 이상의 가족계획요원을 배치하고 가족계획에 대한 지도계몽을 실시하였다. 시군 보건소에서는 업무의 특성상 미혼여성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였으나 수가 부족하여 간호고등학교(현 간호전문대학)를 졸업한 미혼여성을 채용하는 등 정부차원의 가족계획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들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가족계획 사업을 성공시켰다.

2) 1970년대

(1) 읍면까지 본격 행정업무

전북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70년에 읍면에 부녀행정요원을 배치했다. 71년 전주시는 경제사회국 사회과내의 부녀아동계가 부녀아동과로 승격하고 동시에 각 시군에 부녀아동계(시는 사회과, 군은 내무과 소속)가 설치되었다. 1972년도에는 부녀상담 업무와 일반 부녀자 자질 향상을 위한 읍면 부녀행정 지도요원 164명을 배치하는 등 타 시도보다 앞서가는 부녀행정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용직 신분으로 배치되었던 이들은 각 시군의 예산 사정에 따라 1975년 이후부터 인력 감축 대상으로 처리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도 가정복지국장을 오영순·김명희·하승민씨가 역임했으며 현재는 복지여성국으로 이름이 바뀌어 장정하씨가 국장을 맡고 있다.

3) 1980년대~1990년대

(1) 요직 진출

1980년대에 들어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고학력 여성의 증가 등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이는 1970년대까지 특정분야의 목적 사업을 위하여 여성들만을 특별 임용하던 수준을 완전히 탈피하

여 일반직과 특정직 등 공개 경쟁시험에 여성의 응시율과 합격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었다. 1988년 이전까지는 9급을 채용할 때 성별 구분모집을 적용하여 선발예정 인원의 10%만을 채용하여 오던 것을 89년 6월 공무원 임용시험령을 개정, 이를 철폐하므로 여성합격자는 97년도 시험에서 37.6%로 대폭 늘어나게 되었다.

1988년 정무 제2장관에 여성이 임명되고 4월 1일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되고 부녀 행정 기구가 개편되면서 전국 14개 시도에 가정복지국이 신설되고 여성국장이 임명되는 여성계에 주목할 만한 발전을 가져왔다. 전북은 오영순 도가정복지과장이 초대 도 가정복지국장으로 임명됐다.

1991년도 전 국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선진국형 사회복지사 제도를 도입하여 인구 20만명 이상의 읍면동에 사회복지사를 배치하여 복지업무를 전담케 하였다. 도가 실시하는 공개채용(별정 7급)을 거쳐 발령하였으며, 이들의 사회복지 직렬화 작업이 정부 차원에서 꾸준히 검토되어오다가 최근 작업이 구체화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1년 전국 169개 시군의 부녀계를 가정복지과로 승격하여 시군 단위로 여성과장이 임용되어 대거 간부직 공무원으로 진출되었다.

(2) 전환점 된 지방자치제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시작되면서 도 기구개편에 따른 가정복지국이 여성복지국으로 개칭되고 산하 부서도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여성복지과로 구성하고 청소년과는 체육청소년과로 개칭, 문화관광국으로 이관되었다. 특히 지방자치 이후 민선지사의 공약사업으로 농촌여성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부안·고창·순창군에 여성회관이 건립되었으며, 1996년 도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신설되었고, 여성복지국을 복지여성국으로 개편하여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여성복지과로 나뉘어 운영되었다. 전북여성정책관실은 97년에는 직장 내 남녀평등의식을 조사하여 기초 자료를 마련하였고, 98년부터 전북여성 통계연보를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발행하고 있으며, 전북여성의 취업구조 조사,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가족관련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전라북도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1998년도에는 부녀여성국장을 전국 최초로 공개 채용하였고, 조직 내의 승진 기회를 열어 놓아 문화관광국장을 여성으로 승진 발령하기도 하여 여성의 고위직 진출이

많아졌다. 여성관련 중앙 부처에서도 현직에 있는 익산 출신 강기원 여성특별위원장, 농촌진흥청의 임평자 농촌생활연구소장과 가정복지심의관을 역임한 김명숙씨 등 전북 출신의 많은 여성들이 고위직에 진출하여 우리나라 여성발전을 위해 활동했다. 1993년 도내 최초로 여성 동장(정문자 전주시 풍남동장)이 탄생하고, 94년에는 도내 첫 여성 보건소장(정옥순 진안보건소장)이 탄생했다.

1995년은 6·27 지방선거와 함께 광복 50주년이 되던 해로서 그 해 8월에 베이징에서 있었던 제 4차 세계여성회의에도 전북지역에서 40여명이 NGO에 참석했다. 또한 95년은 전북여성들의 정책을 입안할 기구인 여성정책관실이 도지사 직속으로 설립되는 안과 도청 직원들의 자녀를 보육할 직장보육시설을 전북여성회관에 설립하는 안, 전북여성발전연구원(당시는 전북여성개발원이라고 했음) 설립안, 도여성정책자문위원회 구성안, 전주에 모자일시보호센터 설립안 등이 검토되고 추진되던 해였다.

전라북도는 1997년부터 2005년까지 9개년에 걸쳐 모두 60억원의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1998년 전북지역에서도 96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 규정한 여성주간 행사를 하기 시작했다.

이어 2001년 여성관련 부서를 개편했다. 복지여성국 산하 여성복지과와 여성정책관실로 운영되던 도 여성관련 부서가 전북도의 조직 개편 방침에 따라 8월 복지여성국 산하 여성정책과로 통폐합됐다. 이로써 1996년 10월 전국 최초로 남녀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종합적인 여성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출범한 여성정책관실이 5년 만에 해체됐다. 전북도는 대신 기금을 출연해 재단법인 전북여성발전연구원을 설립하기로 하고 이 곳에서 여성정책 연구 및 개발 등을 맡기로 했다.

4) 2000년대

(1) 전북여성발전연구원에서 전북여성정책연구소로

전북여성발전연구원이 2002년 2월 설립됐다. 전북도 출연기관의 재단법인 형태인 전북여성발전연구원은 전북지역 여성정책을 수립 연구하는 독립기구 성격을 띠고 전북지역 여성문제에 대한 기초조사와 여성관련 기초자료 구축 등 내부 다지기부터 시작했다. 연구원은 2002년 7월 전북도로부터 전북여성회관을 수탁해서 운영, 주체적인 여성과 미래를 주도하는 여성을 모토로 여성지도자 양성에도 그 역할을 했다. 전북여성발

전연구원은 개원 4개월여 만에 전북발전연구원 설립을 앞두고 흡수 통합 논란에 휘말리는 진통을 겪는 와중에 2002년에 전북여성유권자 정치참여 동원화 전략 연구 및 학술대회, 전북여성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간담회, 양성평등 역할극 경연대회, 전북자원봉사자 전문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하였고, 연구과제사업으로 전라북도 여성정책평가 및 발전방향 탐색 연구, 여성가장의 욕구실태와 자립을 위한 정책적 대안 모색, 전라북도 비정규직 여성 고용 실태조사, 전라북도 여성의식 및 생활 실태조사, 여성정보화 교육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전라북도 여성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6개 과제 사업을 추진하였다.

여성발전연구원의 전북경제사회발전연구원(현 전북발전연구원)으로의 통합 논란으로 2003년 한해를 장식했다. 전북발전연구원과의 통합이 또다시 2004년 10월부터 거세게 일기 시작했다. 통합연구원의 틀까지 확정지었는데, 연구원장 산하에 여성정책을 연구하는 여성정책연구소와 지역 현안을 연구하는 지역정책개발연구소 등 2개의 연구소를 두는 것으로 했다. 이 과정에서 전북여성발전연구원이 수탁해서 운영해오던 전북여성회관은 여성문화센터로 전환 운영되는 것으로 했다. 여성 교육과 전시 등이 상설 운영되고 별도 연수시설까지 겸비해 양성평등 교육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전북도에서 내놓았다. 2005년 4월 1일자로 전북발전연구원으로 통합되면서 연구원 내 전북여성정책연구소 직제 아래 전북여성발전연구원의 연구원들이 수평 이동했다. 전발연 소속기관으로 위상이 변하면서 연구영역이 여성정책 연구·개발기능 외에 사회복지관련 연구 과제까지로 확대됐다.

(2) 여성발전계획 실행

제 2차 여성발전기본계획 시행 첫 해(2003년~2007년)이기도 했던 2003년에, 97년부터 조성 중이던 전라북도 여성발전기금을 7개년에 걸쳐 30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마감 짓고 2004년부터 이자 수익금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권의 신장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기로 했다.

(3) 매매춘여성 선도에서 재활로

1947년 10월 20일 전라북도에는 공창이 총 197명으로 기록돼 있다. 도내 공창 선도

대책을 세워 공창이 제일 많았던 군산에서는 1948년 2월 공창폐지에 따른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자 업자들을 소집하여 공창 선도대책을 강구하였다.

1950년대는 타 도에 비하여 비교적 윤락여성⁴⁾이 적었다. 1958년 기록으로는 전국에 1만 5천여명의 윤락여성이 있었으나 전라북도는 348명에 불과하였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 윤락행위등방지법이 공포되어, 윤락행위를 범죄화 하여 강력히 단속한 결과 음성화 되는 폐단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1962년 정부의 시책으로 윤락여성 특정 지역을 설치하여 전주(경원동 3가) 군산(송창동, 영화동) 이리(창인동 2가) 김제(황산) 등에 설치하였다. 윤락여성 선도를 강력히 추진하는 선도대책위원회가 1962년 6월에 개최하여 대책 마련에 나섰다. 1949년 부녀계를 신설하면서부터 윤락여성의 직업보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부녀직업 보도시설인 부녀사업관을 설치하였다. 그 후 1963년 전주시립 직업보도소가 설치되었고 사회복지법인체인 전북성애원(1964, 이리시)과 착한목자직업보도소(1970, 옥구군)를 설치하여 가출부녀자 및 윤락여성을 대상으로 기술·교양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가출여성, 윤락여성 등 요보호 여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1969년 전주에 18명의 부녀상담원을 두었으며, 상담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1976년 역전 터미널(전주, 이리) 등에 임시 상담소를 설치하고 85년까지 시군까지 확대하여 17개소의 상담소를 설치하였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와 매매춘여성 및 미혼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성폭력 피해 상담소 4개소(1998년)를 운영하고 요보호 여성을 위하여 24시간 상담전화인 여성1366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지촌 윤락가를 방문 상담하고 선도대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전북지역 매매춘 업소 관련 여성들의 인권문제가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다. 2000년 9월 19일 군산시 대명동 매매춘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해 20대 여성 5명이 창살과 자물쇠로 갇힌 쪽방에서 연기에 질식사 숨졌기 때문이다. 이 사건이 인신매매, 감금 폭행, 성매매 강요로 인한 인권유린이었음을 여론화하면서 그해 9월 25일 군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전북여성단체연합을 중심으로 군산윤락가화재사건대책위가

4) ‘윤락여성’이라는 단어는 2005년 현재 사용하지 않지만, 50년대 당시에 쓰이던 단어를 그대로 기록했다.

발족됐다. 화재 참사의 이면에 숨어있던 직업소개소와 폭력조직에 의한 인신매매, 감금 및 매춘 강요, 화대 갈취, 빗과 폭력, 공권력과의 유착 비리, 실효성 없는 법 등 한국사회 매매춘의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주었다. 대책위는 2001년부터 2002년까지 1년 6개월 동안 7차 재판까지 간 끝에 경찰의 직무유기에 대해 피해자 한명당 2200만원에서 2300만원 정도의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1심 선고를 이끌어냈다.

2002년 1월 29일 군산시 개복동 성매매업소 밀집지역에서 또다시 화재가 발생해 14명의 성매매 여성들이 감금된 채 화마에 휩쓸려 버렸다. 이 사건으로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로 경찰관 5명이 파면되고 이중 3명이 구속됐다. 이후 매매춘 여성들의 탈매춘 지원 요청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화재 참사 이후 진상 규명과 매매춘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온 전북여성단체연합은 탈 성매매를 원하는 여성들이 안전하게 쉬면서 재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인 매매춘 여성 쉼터이자 자립지원 센터인 '민들레 쉼터'를 개설했다.

이와 더불어 전라북도도 군부대 내 성희롱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역의 35사단 장병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으며, 대학생 양성평등 노가바(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대회를 개최해서 양성평등 의식을 확산했다.

4. 여성 정치

1) 요직 여성 정당원

정당 사무국에서 1900년대까지 여성은 부녀 또는 여성분과에서 여성표를 모으는 역할을 하는 데 머물렀다.

2005년 박혜숙씨가 민주당전북도당의 총무부장을 맡으면서 정당 사무국에도 여성이 요직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70년 공화당 정권 전라북도 초대 부녀부장(서기관 대우)은 전 전주시립부녀직업보도소장 전덕기씨(현 가화의료재단 이사장)가 맡았다. 제2대(1972~1979) 부녀부장은 숙명여자대학교를 졸업하고 전주여고에서 교편생활의 경력이 있는 김용순씨(전 전주여고 교사)가 발령됐다. 제3대(1980년 12월~1981년 5월) 최수자 부녀부장(2급 대우)은 당시 전북도 부녀계장으로 근무하다가 민정당 창당 멤버로 발탁됐다. 그 뒤 최수자씨는 새

마을중앙연수원 부설의 어린이집 원장을 하다가 전북도복지여성국장·전북장학숙장을 역임했다. 제4대 부녀부장은 이명우씨(현 전북도여성정책과장)가 81년부터 93년까지 맡았다. 공화당 전주시 부녀부장은 장수현 전 전주시 초대 부녀과장이 오랫동안 지냈다.

2) 전북출신 여성 국회의원

1대·2대 민의원, 초대 상공부장관, 여자국민당 당수 등을 역임한 임영신이 정치무대에서 눈부신 활동을 펼친 후 전북 출신 여성들의 정치활동은 그리 활발하지 못했다. 임영신은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 행정구역이 전북에 속했던 금산(충남) 출신으로 고향을 지역구로 당당히 금배지를 달았다.

이후 2005년 현재 전북 출신 여성 국회의원은 김현자(11대 12대, 김제) 김정숙(14대 15대, 김제, 초대 정무 제2보좌관 역임) 오양순(15대, 익산, 원광대 약대 졸), 최영희(15대, 남원, 대한간호협회장 역임) 조배숙(16대 17대, 익산, 변호사) 김현미(17대, 정읍) 등이다.

1991년 6월 27일,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 선거에서 여성후보는 조옥영씨(전 전북도교육위원)가 민자당 공천을 받아 도의원(비례대표)으로 출마했으나 당선권에 진입하지 못했다. 기초의회에 최복래씨(1947년~ 평민당 이리시지부 부녀부장 15년간 역임)가 익산시 북일동(영등 어양) 지역구로 나와 전북지역 최초의 여성 시의원이 됐다. 최복래 의원은 5명의 남성후보들을 거뜬히 물리치고 당선하였다. 임기 중 사회건설위원회와 내무위원회 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하였으며 94년엔 예산결산위원장도 맡았다. 95년에는 지방의회 동시선거에 출마하였으나 실패한 후 2002년 7대 기초의회 선거에 익산시 영등2동 선거구에서 출마, 재선되는 기쁨을 누렸다.

91년 처음 실시된 교육자치제 선거에서 전북의 제 1대 교육위원 15명 중 여성으로는 정송자씨(참교육학부모회장 역임)가 유일하게 당선됐다.

1995년 6월 27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지역 여성단체들은 1994년 할당제 도입을 위한 전북지역 연대모임을 조직했으며 여성의식 20% 확보 공동 대책위원회를 결성하는 한편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 여성의 정치참여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95년 전라북도 광역에 한복임씨가, 기초에 전주지역의 이재천·오정례·오정식씨와

익산에서 최복래·권혜전씨 등 6명이 출마했지만 제 5대 광역 비례 2명(강예순 한나라당, 고영자 국민의회) 기초 2명(전주; 이재천 오정례)이 당선되는 것으로 그쳤다.

96년 15대 국회에 오양순 전북여성단체협의회회장(도여약사회장)이 신한국당 공천으로 진출했다.

98년 6·4 지방선거에서 광역에서 비례대표로 김완자씨(국민회의)가, 또 기초의원예 전주에서 이재천·오정례·박영자씨 등 3명의 여성이 당선됐다. 이 때 무주군에서 백완승씨가 무소속으로 기초자치 단체장(무주 군수)에 출마했으나 당선되지 못했다. 2000년 16대 4·13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으로 전주시 제3선거구를 지역구로 국회의원에 허남주씨가 출마했으나 이 지역의 정서나 본인의 지명도 등에서 처음부터 역부족이었다.

2002년 지방선거에서는 광역의회에서 지역구로 박영자(전주 완산2지구), 비례대표로 백인숙(국민회의)·김민아씨(민주노동당) 등 3명이 선출됐고, 기초의회에서 최복래·함정식씨 등 2명이 당선됐다.

2004년 제 17대 총선에서 익산을 지역구에서 조배숙씨가 당선된 것을 비롯해 전국구로 전북 출신의 김현미씨가 당선됐다.

5. 여성단체 어떻게 활동했나

1) 애국에서 출발(근대~1950년대)

한국에서 여성운동이 본격적으로 언제 시작됐는가에 대해서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 1898년 찬양회의 구성을 여성운동의 씨앗으로 보기도 하며, 때로는 1929년의 근우회의 구성에서부터 본격적인 여성운동으로 삼기도 한다. 더 가까이는 70년대 80년대에 이르러서야 명실상부한 여성운동이 시작됐다고 보기도 한다.

대한YWCA연합회는 창설과 더불어 지방을 순회하면서 YWCA를 조직한 김필례가 1922년 인천 경성 청주 대구 광주 등 5개 도시와 11개 학교에서 YWCA 조직을 끝냈다고 보고했다고 ‘한국YWCA 반백년’에 기록했다. 전쟁이라는 극심한 시련 속에서도 미국YWCA와 여러 나라의 재정적인 도움과 연합회의 중점적인 조직 복구 지원에 의해 30주년을 맞은 1952년에는 14개 지방YWCA 중 10개 YWCA가 복구되고 진해와 군산 등지에 YWCA가 새로 창설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주서문교회 1백년사(1998년

간행) 화보에는 1928년 전주서문교회 전도실에서 4~5명의 고아로 전주고아원을 개설해서 교회 부근의 가옥을 구입해서 본격적인 고아보육사업을 하는데 서문교회 교인들이 주축이 된 전주여자기독청년회가 경영하고, 서문교회가 성탄절 연보를 이 고아원에 지원하는 것을 시발로 이들의 사업을 적극 도왔다고 기록돼 있어서 전주YWCA는 실제 1928년 이전 설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배은희 전 서문교회 목사(작고)가 쓴 방애인 소전(1934년 간행)에는 황해도 출생으로 개성 호수돈여자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방애인 선생(1909~1933)이 1926년 전주기전여자학교에 부임해서 24세의 짧은 생을 마칠 때까지 6년간 전주에 머물면서 전주YWCA 회원·전주서문교회 교사로서 병든 자의 친구, 슬픈 자의 위로, 결인의 친구, 거리의 성자, 조선이 낳은 성자라는 별칭이 따라다녔다고 기록돼 있다.

여성단체의 초창기에는 구국 국가재건 반공활동과 불우가정을 돕는 사회활동을 주로 하였다. 해방 이후 전라북도에도 임시 시국대책위원회가 발족되었고 1947년에 대한독립촉성회 전북본부가 조직됨과 동시에 독립촉성애국부인회 전북본부가 여성단체로 발족되었다. 1949년 3월 대한부인회전북본부가 결성되었고 차영민씨가 전북본부의 초대 회장을 맡아 초기의 어려움 속에서 여성운동의 전력을 다했다. 대한부인회도 독립촉성애국부인회의 목적과 뜻을 이어받아 문맹 퇴치와 여성들의 의식을 일깨우는 일을 주요 사업으로 삼아 활동을 벌였다.

이 당시 전북여성계 활동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윤경옥씨다. 1947년 전북도청 초대 부녀계장으로 일하기 시작하면서 여성단체 조직을 정비하여 독립촉성애국부인회 전북본부를 조직했으며 49년 3월 대한부인회 전북본부를 결성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윤씨는 기독교여전도회 전북연합회장, 적십자사 전북지사 상임위원 등을 겸직하면서 여성들의 자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55년부터는 5년간 YWCA 전주시 지부장을 맡아 여성계의 대모 역할을 해왔으며, 81년 여성계의 일선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84년 8월 9일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한국부인회 전북도지부 종신 명예회장으로 일했다. 50년대 여성단체들은 행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전 재민 구호와 전후 복구사업, 분단 이후엔 불우가정, 불우여성, 불우아동을 돕고 반공교육을 위한 동원체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1950년 한국전쟁에서 1960년대 말까지 사회단체 활동 침체기에 구호사업과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전후 복구사업에 이어 문맹퇴치 계몽운동 등이 펼쳐졌다.

2) 어려운 이웃과 함께(1960년대)

1960년대 들어 친목, 전문직업분야, 문화 등 각 분야에 걸쳐 여성단체가 생겨났으며 각 시군 지방조직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60년대 상반기에는 대부분 불우여성에 대한 원조와 여성의 자활능력을 기르는데 치중된 경향을 보이고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회원 간의 친목도모, 여성들의 지위향상, 복리증진 등에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중산층이 움직여(1970년대)

1970년대에 들어서 유신정권 체제로 인하여 여성단체 활동은 국가의 통제 하에 소비자 보호운동, 직업훈련, 봉사활동 등의 소극적인 활동을 펼칠 수밖에 없었다. 1969년 전북지역 여성단체들의 협의체로 탄생한 기린클럽은 1973년 해체되고, 이어 1975년 전북여성단체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도내 12개 여성단체가 모였다. 전문직업여성클럽(70년) 여성옹호협회(70년) 주부교실도지부(72년) 여성사격연맹(72년) 새마을부녀회(73년) 구국여성봉사단(76년) 가족계획어머니회, 부녀클럽, 자모회, 녹색어머니회, 적십자부녀봉사대 등이 70년대 출범했다.

이 당시 한때는 도와 각 시군 공무원 부인들의 부인협찬회 조직이 있었다.

1970년 시작된 새마을운동을 계기로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확대되었다. 부녀자에 대한 교양교육과 1인 1기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부녀자로 하여금 범도민적 생활개혁, 새마을운동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목적으로 1차와 2차는 시군 부녀계장 및 부녀상담원과 학교 구역별 여교사와 부녀그룹 회장단에게 합숙교육과 순회교육을 실시했으며 3차는 교육 받은 이들이 부녀자들에게 전달 교육을 실시하였다. 지도사업으로 계몽에 필요한 간행물 푸른 전북 부녀그룹을 매월 1만부씩 발간하여 주부들이 실천해야 할 사항을 제시해주었으며 도 여성회관과 3개시에는 주부대학을 개설하여 많은 여성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었다. 특히 부녀행정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많은 문제점을 제기, 토의하여 실천과제를 발굴했을 뿐 아니라 1977년에 처음으로 부녀행정 비교 시찰을 통해서 타 도의 부녀사업 추진사항을 현장에서 교육함으로써 큰 성과를 거두었다.

4) 대학생도 농촌·노동자운동 가세

유신체제 아래 1970년대 대학생들은 농촌운동과 노동자운동에 뛰어들었다. 대학생들이 농촌계몽운동 차원으로 부안 순창 등 이 고장 농촌지역을 찾기 시작했다. 동국대 출신 이준희씨(작고, 부안)나 서강대 학생운동가 출신 김윤씨(작고, 순창)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들의 활동은 전북여성농민회로 그 뿌리가 이어지고 있다.

가톨릭농민회 중앙 감사를 오랫동안 지내온 장순자씨(1945년~)의 경우는 대학생 출신 농민은 아니지만, 지식인층의 보나르도 운동 기수로서 손꼽히며, 현재도 김제 금구면 황산리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5) 독자적 영역 확보(1980년대)

(1) 구심점 제시

국내 여성계가 1980년대 말을 가족법과 남녀고용평등법, 탁아제도 등 여성관계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데 총 매진해온 가운데 도내 여성계는 소비자 의식함양에 크게 기여하고 사회 환경 및 정치 분야에까지 활동 영역을 넓혀 나갔다. 전북여성계는 또한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구심점을 제시하는 등 역할을 찾으려 노력했다.

80년대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축적된 역량으로 민주화 운동에 가담하였으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의 방향으로 전환하여 이전까지의 여성단체 활동과는 달리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다. 소수의 여성지도자에서 가정주부, 여성근로자, 농민, 청년 등으로 점차 확대되었다. 또한 여성단체의 중앙집권적인 조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조직이 활발하게 결성되어 여성단체의 지방분권적 활동이 전개되었다. 80년대 여성계는 소비자 보호운동, 환경 보전운동, 가족법 개정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부분적으로는 진보적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려고 노력했다. 민주화 기운이 팽배한 사회 분위기와 국내 여성계의 흐름 속에서 도내 여성단체들은 80년대 초기에는 알뜰한 가정육성으로 건전사회 기풍 조성에 앞장선다는 소비절약 생활화 등이 주요 사업이었으나 83년 부녀사업 5대 목표에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라는 표어 등장과 함께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더욱 강조되었다.

1980년대 들어 경제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됨에 따라 1983년부터는 모든 여

성교육에 경제관련 문제를 필수적으로 교육하였고, 1985년에는 124만의 도내 여성이 이 교육에 참여하는 열의를 보였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환경보호 활동과 성폭력 추방운동, 정치의식 함양 활동, 소비자운동도 활발했다.

2002년엔 전북지역 일부 여성단체들이 성 주류화 관점에서 여성정책을 평가하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예산편성을 논하는 등 진일보된 양상을 띠었다. 2002년 전북지역 여성계는 비교적 주류에 서 있지 못한 계층의 여성들의 목소리가 크게 터져 나왔던 한 해였다. 또한 전주를 중심으로 도내 많은 여성들이 전주월드컵과 세계소리축제 등 전북자원의 굵직한 행사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2002년 여름 수해현장 봉사활동에도 앞장 서서 뛰어 들었다.

전북 여성계는 새만금 개발 중단 반대와 부안지역 원전센터 유치 추진, 반전 평화운동, 이라크 파병 반대운동 등 봇물처럼 쏟아져 나온 지역 현안에도 분주히 움직였다.

(2) 조직적 사회참여

특히 한국이 '86 아시안 게임'과 '88올림픽' 개최국으로 지정되자 전북도는 질서·친절·청결 운동을 도정의 역점시책으로 채택하여 범도민 의식개혁 운동으로 여성이 앞장 서서 도민의 역량을 높였다. 올림픽이 열리기 전인 87년 전북도가 일본 가고시마현과 결연, 가고시마현의 부인의 선단 소속의 여성들이 전북을 방문해서 이 지역 여성과 교류의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

80년 전주에서 개최된 제 61회 전국체전, 무주에서 개최된 아시아 태평양지구 잼버리대회 등에서 여성들이 봉사활동에 앞장섰다. 87년 12월 대통령선거를 즈음해서 민주적인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고 도내에서 진보적인 성향의 여성단체가 출현하게 된다.

1980년대는 여성들의 의식화와 투쟁 경험이 결합해 조직적인 단체 활동의 양상을 띠면서 이제까지의 활동과는 차별화된 성격을 갖는다. 여성단체 활동의 주체도 소수의 여성지도자에서 가정주부, 여성근로자, 농민·청년 등으로 점차 확대되었다.

(3) 빈민 탁아활동 활발

1980년대 빈민지역 여성운동이 탁아활동을 중심으로 전개되기 시작, 도내 최초의 빈민 여성운동 성격을 띤 탁아소인 해뜨는 동산 아가들의 집이 군산시 선양동에 들어섰다. 이에 힘입어 익산시와 부안군 돈지에 탁아방이, 전주에서 평화의 집이,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전주고백교회와 나눔교회·일터교회(일터 아가들의 집)에 탁아방이 꾸러졌다.

6) 단체별 특성 살려

80년대에 이르러 새마을운동의 열기가 차츰 수그러지면서 도내 여성단체들은 단체별 특성을 살려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도내에선 83년 7월 대한주부클럽연합회전북지부 소비자개발센터가 개설되면서 소비자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시와 군지역 등에 6개 지회를 두어 각 지역의 소비자들이 권리를 찾는 데 눈뜨게 했다. 주부클럽연합회전주·전북지회가 건물 신축을 위한 기금을 모으는 가운데 설립 20주년을 맞은 2003년에 7억원의 교부금을 확보한 데 이어 2005년 전주시 서신동에 청사를 신축하는 기쁨을 안았다.

민주화의 열기 속에서 전북여성계도 뜨겁게 달아올라 87년 말에 결성된 전북민주여성유권자 공동위원회가 88년 2월 전북민주여성회로 체제 변화를 선언하면서 진보적인 여성단체가 출범하였다. 전북민주여성회는 93년 3월 27일 전북여성운동연합으로 창립대회를 갖고 전북여성농민회연합, 전북여성의 전화, 전북지역사회 탁아소위원회, 환경을 지키는 여성들의 모임, 일하는 여성들의 모임, 전북장청 여성선교회, 전북여학생대표자협의회 등 7개 단체로 결합력을 높이면서 여권신장의 구심체로의 출범을 시작했다. 전북민주여성회는 92년 11월 30일 마지막 총회를 거쳐 전북여성운동연합 결성 위한 준비 모임이 결성됐다. 여성학교, 여성마당, 여성사랑 작은 교실, 정세설명회, 소모임 등을 운영하던 도내 여성운동의 상징적 대표 단체였으나 경제적 압박과 조직력 부족 등으로 발전적 해체를 선언한 데 이어 1993년 3월 27일 재창립되고, 98년 11월 전북여성단체연합(전북여연)으로 법인을 등록한 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전북여연 내부에도 운동단체 뿐 아니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는 등 보다 확대된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전북여성단체연합은 여성노인 이야

기방을 마련하고 주부클럽전주·전북지회가 중년여성의 노후 준비를 위한 세미나 및 연구 조사활동을 펼치는 등 여성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등 소외된 여성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전북여성단체연합은 평등밥상 차리기 대회를 열어 일반인들의 남녀평등 의식을 높이고, 전주세계소리축제 기간엔 아시아 여성포럼 국제행사를 개최해 아시아 국가들의 여성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기독살림여성회가 일본군 위안부와 전쟁터에서 자행되고 있는 여성들의 인권유린 참상을 고발하는 전쟁범죄와 여성인권 관련 학술포럼과 여성인권 캠프 등을 열었다.

85년부터 전주YWCA는 여성 도매사를 배출, 87년까지 계속하다가 잠시 중단한 뒤 89년 다시 시작, 여성부업으로 각광을 받았다. 또 영세 극빈가정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주시 중노송동 기자촌에서 토요학교를 열었다.

12개 전북지역 여성단체가 가입됐던 전북여성단체협의회는 1985년 박경옥씨(간호협회 전북지부장)를 회장으로 선출하고 간호보조원협의회와 여약사회가 회원단체로 추가되면서 전열을 가다듬었다. 최부용 한국부인회 지부장이 부회장을 맡는 등 임원개편과 함께 새로운 바람이 부는 듯 했으나 한해동안 여성개발원 지원의 성평등 강연회 개최에 그쳤다. 그 뒤 강현욱 전북도지사가 1989년 12월 여성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약속한 여성발전기금 5억원(현금 3억원에 어음 2억원)을 전북여협에 기탁해줌으로써 또 다른 전환기를 맞게 됐다. 업체의 부도로 어음 2억원은 결국 회수되지 못했지만 이 기금을 토대로 임의단체의 성격을 띠었던 전북여성단체협의회가 사단법인체로의 전환을 모색했다(90년 2월). 전북여성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명예환경 감시원이 조직돼 환경보존에도 앞장서는 등 환경보호 운동도 새로운 관심사로 등장했다.

전북여성단체협의회는 전북여성영화제를 개최, 전북지역 여성영화인 발굴에 주춧돌 역할을 해내기 시작했다. 2003년엔 제 4회 전북여성영화제 개최에 앞서 한국여성재단 후원을 받아 처음으로 열었던 여성영화 아카데미의 호응이 컸다.

76년 발족된 대한영양사회전북지부도 88년 사무국을 개설하면서 영양사들의 권익에 힘을 보탠다. 간호협회(간호사, 85년) 간호보조사(간호조무사) 여약사회 색동어머니회전북지회(86년) 전북대총여학생회(85년 11월 제 1회 여학생제 개최) 등이 속속 설립되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이리·정주·군산 그리고 전주지부(88년 11월)도 발족했다. 가정법률상담소는 법을 몰라 억울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지역 여성들에게 희망을 던져 주었다.

대한무궁화여성중앙회전북지회, 예림회전북지부 등도 있었다. 직장 내 여직원들의 모임이 활성화됐다. 1987년 걸스카우트전북연맹이 주관해서 걸스카우트 전국대회를 정읍(당시 정주시)에서 치렀으며 2003년 전국 장애인들의 잼보리인 ‘아구노리’를 전북대학교 일원에서 열었다. 80년대 후반기 도내 여성들이 소모임을 구성해서 여성문제를 전문적으로 담은 격월간지 ‘열린 마당’(1989년 2월 28일 제 1호~ 1993년 2월 28일 21호로 마감)을 발간한 것은 전북 여성 활동에서 획기적인 것이었다.

7) 연대활동 빛나(1990년대)

(1) 정치 참여 독려

91년 벽두부터 도내 각 여성단체들은 도내 정치계에 여성의원을 배출하기 위해 선거전략, 선거연설을 지도하는 등 여성의 정치참여 의식을 높이기 위한 강연회를 열고, 여성후보에 여성 표 몰아주기, 돈 쓰는 후보 안 찍기 등의 선거운동을 벌였다. 정치참여 없이는 여성의 지위 향상 등 인권 보장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현실적인 고민에서 정치참여에 적극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95년 실시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정치 참여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지방의회 여성의석 20% 확보와 여성단체 단일 후보 추대를 결의하는 등 95년 여성활동 주제를 ‘선거와 여성의 정치참여’로 정하고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정치교실에 여성후보자들을 보내는 것을 시작으로 6월의 지방자치제 선거준비에 들어갔다.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전북지회(95년 4월)도 창립됐다.

전북지역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선 한해였다. 전북여성정치발전센터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차세대 여성교육과 초등학생 모의의회를 열어 여성 및 예비 여성 유권자의 정치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자체 내 상시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특히 선거준비를 위해 전문가팀과 입지자들을 결합시켜 선거전략 수립부터 정책공약 개발, 선거비용 지원 등 선거 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김완자 당시 전북도위원을 팀장으로 한 2002 지방선거팀을 발족하기도 했다.

(2) 소외계층과 함께

90년대에는 단체별 특화 영역을 구축하면서 차별화와 공동 목적에서 연대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90년대 여성단체 활동의 특징은 단체간의 연대활동과 지방조직의 강화라고 볼 수 있다. 활동 면에 있어서도 정치참여, 정신대 문제, 성폭력 가정폭력, 환경, 평화통일 문제 등이 주를 이루어 이전에 비해 여성의 고유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청소년을 위한 특별활동, 실업극복을 위한 활동, 재정 자립을 위한 활동 등도 활발했다.

90년 5월 전주YWCA가 전주시 효자동에 회관을 건립하고 전주여성의 전화(초대회장 박상희)가 개설됐다. 상담원 교육을 통해 구타당하는 여성 등 가정폭력 해결에 나섰다. 남원YWCA가 91년 문을 열어 남원지역민들의 인권과 교육에 큰 도움을 주게 됐다. 전주YWCA는 95년 3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소외계층 인권회복을 선언했으며, 전주시로 부터 청소년문화의 집을 위탁받고, 도내 최초로 청소년 만화공모전을 열었다. 군산YWCA가 96년 7월 15일 도내 최초로 일하는 여성의 집을 개관해서 여성의 능력개발과 취업기회 확대에 전기를 마련한 데 이어 전주YWCA도 98년 노동부 지원을 받아 여성전문직업훈련 교육기관의 하나인 일하는 여성의 집을 마련, 실직 여성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취업 훈련을 실시하는 등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전주YWCA가 주도해서 벌인 도내 이마트의 지역법인화 운동은 이마트로부터 전북에 산지 바이어를 두고 지역산품의 매입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결실을 맺었다. 전주YWCA 부설의 여성인력개발센터 인형극 지도자과정 수료 주부들은 인형극단을 창설해 상설 공연을 하기에 이르렀다.

90년대에는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93년),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전문직 여성한국연맹 전주클럽(97년), 전북여성농민회연합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한중여성교류협회전북지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전북지회, 전북여성정치발전센터 등이 발족됐다. 전주 참교육학부모회도 92년 사무실을 마련한 후 교육 분야에서 인권을 챙겼다.

전주여성의 전화는 1995년 김기수·경화 남매 사건이 가정폭력으로 인한 존속 살인 사건임을 변호, 1996년 광주고법 항소심에서 김기수는 3년 6개월, 김경화는 소년원 송치의 선고를 받는 것으로 그치게 했다. 전주여성의 전화는 95년 사단법인 한국여성의 전화 전북지부로 바뀌었다. 96년 12월 익산에도 여성의 전화가 설립돼 상담원 교육을 실시하고 군산에서도 설립됐다.

(3) 김부남 사건 대책위 구성

1991년 김부남 사건을 계기로 도내 11개 단체가 참여해 김부남사건대책위원회를 구성, 성폭력 추방운동을 벌인 것은 대표적인 여성 연대활동이었다. 1991년 발생한 김부남 사건에 적극 대처해냈다. 31세의 주부였던 김부남 씨가 9살 때 남원의 이웃 아저씨에게 강간당하고 겪었던 상처로 인해 21년이 지난 뒤 그를 살해하자 박상희 목사를 비롯해 도내 여성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김부남사건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며 이를 계기로 성폭력예방치료센터가 설립되기에 이른다.

(4) 경제살리기 앞장

98년 7월 1일 가정폭력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이를 알리는데 주력하고 경제 살리기 운동,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 할당제 도입 등 정치세력화 운동에 힘을 모았다. 도내 많은 여성단체들이 금 모으기, 외화 모으기 운동 등을 통해 경제 살리기에 앞장섰으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의식개혁 운동, 재활용 운동 등을 활발히 전개했다.

8) 여성 세력화 주력(2000년대)

(1) 정치에 힘 모으다

2002년 6·13선거에서 여성단체들이 보여준 힘은 대단했다. 도내 여성들은 정치 후보자로서 진일보한 면모를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연대활동 등을 통해 정치 세력화를 표현했다. 1월부터 전북여성정치연대가 뜨고, 전북여성단체협의회와 전주YWCA·전북여성정치발전센터 등이 연대해 4월 전북여성 유권자 연대를 발족했다. 기초의원에 12명, 선출직 광역의회에 2명, 광역의회 비례대표에 6명 등 모두 20명의 여성이 출마해 역대 지방선거 중 출사표를 던진 여성후보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이중 기초의회 2명, 광역의회 3명이 당선됨으로써 당선율은 전체의원의 1.8%로, 전국 여성 당선율인 2.2%에도 못 미치는 결과로 그쳤다. 더구나 여성 후보 6명이나 나선 전주시 기초의회에 여성의원 당선자를 단 한명도 배출하지 못했고 오직 군산과 익산에서 각 1명씩이 배출돼 여성의 정치참여의 벽이 여전히 높은 점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결과에는 후보 공천 과정에서의 경선제 도입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정치권이 여성공천 할당제를 정당법

에 명시했지만 정치 입문의 뜻을 가진 많은 여성들이 경선 출마를 포기하거나 낙선하는 결정적 원인이 됐던 것이다.

2003년 중반을 넘어서면서 2004년 총선을 앞둔 여성정치 세력화에 집중된 뒤 2004년 17대 총선에 대비해서 2003년 8월 중앙 321개 단체로 총선여성연대를 발족한데 이어 11월에는 여성 1백인을 국회로 보내자는 모토를 내걸고 ‘맑은 정치 여성네트워크’가 활동을 시작했다. 전북지역 여성계도 여성후보자 공천 시 비례대표 50%, 지역구 30%의 여성할당제를 관철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여성정치 참여를 통한 여성 세력화의 노력은 여성계 내에서 계속 이어지면서 2005년 9월 (사)한국여성정치연맹 전북도연맹이 창립된 데 이어 2006년 5월 실시될 지방선거에 대비, 여성들의 지방의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연대모임인 ‘맑은정치·생활정치 전북여성네트워크’도 10월 발족됐다.

(2) 여성 결혼이민자 지원

외국인(필리핀·베트남·조선족·일본 등) 여성들과 결혼하는 전북지역 농어촌 남성인구가 급증하면서, 행정에서 뿐 아니라 도내 여성단체들도 이들 여성 결혼이민자 지원 사업에 주력했다. 전북여성단체연합과 전주여성의 전화, 전북여성농민회연합 등은 국제결혼을 통해 전북지역에 정착한 이주여성들에 대한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3) 성매매·성폭력 추방

2000년 들어서는 성매매 성폭력 추방 움직임이 활발했다. 2000년 9월 군산 대명동 성매매 지역 화재 참사로 공론화 된 매매춘 문제에 대해 중점 진단하고 성문화의식 개선과 성매매 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성매매특별법 제정을 추진했다. 화재 참사 이후 진상 규명과 매매춘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온 전북여성단체연합은 탈 성매매를 원하는 여성들이 안전하게 쉬면서 재활을 할 수 있는 장소 제공을 위해 여성가족부 지원으로 전주 선미촌에 현장 자활지원센터를 마련했다. 전북여성단체연합은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현장 상담소를 열고 민간단체로서는 최초로 전북지역 성매매 실태를 조사하고, 전북지역 남성 성의식 조사에 나섰다.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도내 36개 단체는 2004년 성매매방지법이 9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성매매방지법 조기 정착을 위한 전북시민연대를 결성했으며, 성매매 인권지원센터가 여성부의 지원을 받아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쉼터인 민들레를 운영해오고 있다.

전북대는 도내 4년제 대학으로는 처음으로 성희롱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규정을 학칙으로 제정, 공포하는 등 대학가에 성폭력 성희롱 추방 움직임도 거세게 일었다.

성가치관과 생명관을 심어주기 위한 성교육 멀티전시관인 토티스쿨 와~가 2001년 12월 19일 개관됐다. 전라북도 지방경찰청 방범과에 여성 청소년 범죄 예방 및 피해구제 문제를 전담할 여성청소년계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청소년성매매 등 대 여성범죄를 전담할 여경 기동수사반을 신설한 것도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면에서 진일보한 사건이었다.

2000년 문을 연 전북여성장애인연대가 부설로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를 열었고, 여성자원봉사연맹 전북지부 전주지회도 전북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상담과 예방활동을 위한 부설 외국인 여성 성폭력 상담소를 열었다.

(4) 호주제 폐지운동

여성부 출범 기념으로 2001년 열린 평등문화 실천 전국 릴레이 전북지역 행사도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공감대 확산과 실천을 위한 행사였다. 2001년부터 특히 7월 1일부터의 여성주간에 전국적으로 호주제 폐지를 주제로 한 행사를 벌여나갔다. 2001년 전북지역 전주·군산·익산·정읍 등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호주제 폐단 알리기 거리 홍보 및 서명운동에 나섰다. 전북YWCA협의회에서는 전북과 경기도 여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 호주제 폐지 한마당을 펼치기도 했다.

2003년 전북 여성계는 호주제 폐지와 함께 문을 열었다. 10월엔 도내 46개 여성단체가 참여한 호주제 폐지를 위한 전북여성연대를 발족해서 전북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에게서 호주제 연내 폐지를 위한 활동을 벌였다. 참여정부 출범을 계기로 여성계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호주제 폐지 문제는 숱한 논란 끝에 민법 개정으로까지 이어져 관련 안이 2003년 11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연내 마무리 되지 못하고 결국 2004년을 넘

어 2005년까지 이어졌다. 2005년 3월 2일 제 252회 임시국회에서 호주제 폐지를 포함한 민법 개정안이 통과 의결됐다. 전북여성단체연합과 전북여성단체협의회, 전북YWCA협의회, 각 시군 여성단체협의회, 주부클럽연합회전북지회 등은 단체별로 도내 순회 강좌를 마련하고 연극 공연, 가두 서명 등 각종 행사를 통해 호주제 폐지 전령사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5) 일부 단체 재정비

2002년 한해 내용을 겪고 다시 출발한 전북여성경제인협회전북지회가 여성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해나가고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역시 진열을 가다듬고 활발한 활동을 했다. 전주YWCA는 2002년 장애인 선생 추모 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쳤다. 장애인 선생의 첫 번째 공개 추모 사업으로 1934년에 출판된 장애인 소전을 현대어로 옮겨 출판해서 기념회를 열었다.

(6) 여대생 기구 출범

전북대가 여성부로부터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설립 지원을 받은 것을 기점으로 원광대와 전주대도 2003년 자체적으로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를 설립, 여대생 취업에 청사진을 보여주었는가 하면 전북대는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재단의 지정 후원으로 WISE전북지역센터를 열어 이공계열에 재능 있는 여대생들에 힘을 실어주었다.

6. 예술분야 여성활동

1) 문학

군산지역의 정운봉씨(1919년~)는 토요일인회 산파역을 하면서 전북지역 여류 문인의 주류를 형성했으며, 1952년 전주 카멜다방에서 전북 최초로 시화전을 열었다.

익산의 최미나씨는 1960년 전북일보에 신문소설 ‘노을 앞에서’를 연재, 도내 최초 여성 소설가로 남았다. 당시 전북일보 신춘문예가 전북지역 여성 문인을 기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제 1회 동화(수필)부문에 김순영씨와 소설 부문에 김정희씨(‘시원’, 도청

근무)가 당선됐다.

후에는 전북여성회관이 주최하는 주부백일장이 여성문인 배출의 창구 역할을 담당했다. 이들 문인들을 중심으로 전북지역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이 1985년 전북여류문학회를 창립, 동인지 ‘결’을 발간하고 있다.

양귀자 은희경 신경숙 이금림(방송작가) 강혜련씨 등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북 출신 작가다.

전주 출생인 ‘혼불’ 작가 최명희(1947~1998년)는 전주덕진공원에 최명희 문학공원이 조성돼 있는 등 전북 사람들의 마음에 여전히 살아 있다.

2) 음악

메조소프라노 김혜경(서울 음대 교수)·송광선씨(이화여대 교수) 등이 전국무대에서 활발한 공연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성악가 김선숙(충남대 교수)·이금희씨, 피아니스트 김현진씨 등이 전북음악 발전에도 이바지했다.

3) 국악

남원 출생 국창 박초월(1917~1983년)은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의 예능보유자로, 1955년 박귀희와 함께 한국민속예술학원을 창립해 후진을 양성했고, 1962년 초대 한국국악협회 이사장을 맡았다. 1966년 국립창극단에 입단해 활동했고, 국악협회 상임고문, 판소리보존회 이사장을 지냈다. 1976년 독일에서 열린 세계민속음악제에 참가했다. 춘향가·심청가에 특히 뛰어났다.

김소희(1917~1995년)는 춘향가에는 송만갑 명창의 소리가 있고, 정정렬 명창과 김소희 명창 자신의 소리가 들어 있다는 평을 받은, 절제된 창 의 정수를 보여준 타고난 소리꾼이었다. 중요무형문화재 5호로 지정받았다.

오정숙 명창은 1975년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제1회 판소리 명창부 수상자가 됐다. 심청가 기능 보유자로서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2호인 이일주는 1978년 전주대사습놀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문하생인 조소녀(광주 명창대회서 대통령상) 민소환 방성춘 주윤숙 등이 맥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남원 출생으로 김소희를 사사한 안숙선(1949

년~)은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 산조 및 병창 예능 보유자. 제13회 전국 판소리 명창 경연대회 대통령상 수상, 1983년 대만(창극 춘향전), 1986년 남원'전국 판소리 경연대회'대통령상 수상, 1987년 KBS 국악대상 등을 받았다. 한국종합예술학교 전통예술원 성악과 교수이자 국립창극단 예술감독으로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다.

4) 미술

격조 높은 추상화로 한국화단에 획을 그어놓은 우향 박래현(1920~1976)의 영향은 현재에 이른다. 우향은 전주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 졸업 후 서울여자사범연습과를 나와 순창초등에서 잠시 교편생활을 했다. 1947년엔 한국에서 최초로 윤보 김기창과 부부전을 열었다. 1956년 제 5회 국전에서 '노점' 으로, 제 8회 한국미협전에서는 '이른 아침' 으로 한 해에 두 개의 대통령상을 받았다. 또 1961년 10회 국전부터 초대 작가가 되어 최초의 여류 국전 심사위원이 됐다. 사실적인 표현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형태와 구성을 중심으로 한 작품으로 바뀌, 동향화가로서 추상미술의 개척자가 됐으며, 1969년 50세에 미국으로 건너가 7년간 관화공부를 한 우향은 성신여사대 교수를 역임하고, 1974년 신사임당을 수상했으며 56세에 세상을 떠났다.

1970년대 허백련 선생을 사사한 람전 허귀녀(작고)는 전라북도전 초대작가를 지냈다.

목원 임섭수(1958년~)는 군산사범을 졸업한 뒤 15년간 초등학교 교사를 지내다가 40세에 목정 방의걸 화백을 사사하고 47세에 군산대 미술학과에 입학해서 홍익대 교육대학원을 나왔다. 연지회 가람회 가연회 등을 창립했고 목원화실을 열어 후진들을 육성 지도하고 있다.

5) 무용

1960년대 전북무용사엔 육정림 이연태 오화진 박순자씨 등이 기록된다.

1965년 한국교육무용문화상 제도가 생겨나 전국적으로 교육무용가의 연구실적을 심사했는데, 전북에서는 육완순(3급)이 수상했다. 현대무용사를 이끌어온 살아있는 주

역으로 불리는 육완순은 무용가 제 1호로 한양대에서 이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전주 출생을 인연으로 무주·전주 동계유니버시아드 폐회식 총괄 안무(1997)를 담당했다. 1975년 창단멤버인 이청자 이정희 김옥규 김복희 김화숙 박명숙 양정수 박인숙으로 창단 공연을 가진 컨템포러리무용단의 활약은 그 중에서도 두드러진다. 특히 육완순이 안무한 ‘예수 그리스도 슈퍼스타’는 1973년부터 20여년간 국내는 물론 이탈리아 미국 순회공연을 가졌으며, 1993년에는 상트 페테르스부르크 국립발레단 초청으로 모스크바 상트 페테르스부르크에서 컨템포러리무용단과 합동공연을 갖기도 했다.

이길주는 중요무형문화재 97호 ‘살풀이춤’ 이수자로, 익산시립무용단 상임안무가로 활동 후 원광대로 자리를 옮겼으며, 육완순무용단 단원이었던 김화숙은 1985년 김화숙 현대무용단 사포 창단 및 예술감독을 맡고, 1981년부터 원광대 교수로 재직 중이면서 전북무용의 맥을 잇고 있다. 신용숙 또한 사포현대무용단원으로 있으면서 김화숙 안무 작품에 다수 출연했으며, 손정자 우석대 교수는 무용협회전북지회장을 역임하고, 청소년 창작그룹댄스 경연대회 지도에 열중하고 있다.

제 3 절 제언

전북지역 여성들은 근대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국적인 상황과 세계적인 흐름에 순응하면서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해 역량을 펼쳐왔다. 또한 동학농민혁명 등을 통해 그 어느 지역보다 평등의식이 일찌감치 싹 텄던 이 지역이니만큼 정의롭지 못하거나 부당한 사안은 여성·남성을 떠나 힘차게 들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 왔다. 교육·행정·문화·사회 분야 등 각 분야에서 전북지역 여성들이 선두적인 역할을 해냈는가 하면, 특히 성매매 등 폭력을 비롯해서 여성 인권에 관련된 사안에는 전북 여성들이 단합된 힘을 발휘하면서 전국적으로도 바람직한 결실을 가져왔다. 전북지역 여성들은 진취적인 자세로 시대에 앞선 활동을 벌여왔다. 특히 문화 분야에서 이 지역 출신 여성들의 활약은 눈부시다.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정치·경제 분야에 최근 들어 여성들이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는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여 사회와 국가발전

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노력을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나라마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첨단과학기술 등 모든 부문에서 여성의 역할을 중시하고 정책 수립과 시행과정에 여성을 통합시켜 나가고 있다. 사회의 발전은 사회 구성원 전체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져야 더욱 의미 있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미래는 세계화 시대를 맞아 많은 민간기구와 여성들이 꾸준히 제기해온 자유 평등 인권 복지 등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여성취업의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전문직 진출의 증대와 동시에 공장 자동화, 사무 자동화의 영향으로 단순직 고용만이 증가될 우려도 적지 않다.

가족의 형태와 기능의 변화도 여성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에 대한 가족구성원의 이해와 협조가 보편화 될 것으로 예상되나, 고령화 사회에 대한 불완전한 대비로 말미암아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될 것이다. 미래의 경쟁력은 사람의 경쟁력이다. 여성인력의 개발과 활용은 경제적 욕구와 자아실현의 차원을 넘어 사회와 국가, 국제경쟁력 차원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다. 여성인력에 대한 중장기적 교육투자와 고용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어야만 이러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을 둘러싼 여건변화에 있어서 지방화 시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여성의 지위변화와 사회참여의 폭이 급격히 증대되고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여성정책이 개발되고 집행되면서 지방차원에서 체계적 경쟁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반면에 지방의 재정적 행정적 인적 여력에 따라 지역간 여성정책 수준의 격차 또한 적지 않게 벌어지고 있다. 여성정책의 효율적인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하다.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발전을 이룩할 수 있어야 한다.

문화구조 측면에서도 여성의 교육 수준과 의식의 향상으로 적극적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 욕구가 강해지고, 남성의 가사 협조와 여성 취업이 자연스러워지고 있다. 21세기 여성의 역할이 사회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의 큰 변인으로 다가온다. 정보화 사회에 맞는 국민들의 사회적 욕구, 여성의 사회적 동인으로서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제 3 장

전북 여성정책 내용 및 평가

- 제 1 절 여성정책 추진체계 및 기반 조성
- 제 2 절 여성정책 추진 내용
- 제 3 절 전라북도 여성정책의 평가와 정책제안

제 3 장 전북 여성정책 내용 및 평가

김성숙(여성단체연합 정책위원장)

헌법의 남녀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고, 여성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여성부가 출범함으로써 여성정책 추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또한 여성의 인권보호와 양성평등 실현에 걸림돌이 된 법·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제·개정 추진으로 가부장제(=여성억압)의 상징인 ‘호주제’마저도 “헌법불합치”라는 판결을 이끌어 내었으며, 2002년 12월 「여성발전기본법」의 개정으로 각부처의 여성정책책임관 지정과 여성정책조정회의가 신설되어 여성정책추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정책의 성별평가 의무화 등으로 성인지적 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하였다.

중앙정부가 주도한 일련의 여성정책추진을 위한 기반조성과 중앙과 지방과의 연계 구축을 위한 노력은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추진에 영향을 주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정책 추진을 위한 여성정책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여성발전기본조례」의 제정과 각종 조례의 남녀차별적 조항을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중앙정부의 [여성정책기본(5개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하게 되었다.

전라북도는 전국 최초로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설치하여 여성정책전담부서를 마련하였으며, 여성부의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이 수립·시행되기 이전인 1997년부터 [여성정책 중·장기계획]을 수립·시행하였다. 여성부의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이 수립·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가 중앙정부에 의해 추진됨에 따라 전라북도는 2000년, [전북여성발전 중·장기계획]을 수정하여 [전북여성정책 3개년(변경)계획(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 하였고, 현재 [제2차 전북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이 수립·시행되고 있다.

제 4장에서는 전라북도의 여성정책 추진체계 및 기반조성과 여성정책 추진현황을 정리하고 전라북도 여성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본다.

제 1 절 여성정책 추진체계 및 기반 조성

1. 여성정책 중·장기계획

[제1·2차 전북여성정책기본계획]의 목표와 기본전략은 여성부의 [여성정책기본계획]과 같으며, 각 정책과제에 따른 추진계획은 전라북도에서 그간 실시하고 있던 사업을 과제별로 재구성하여 여성부의 [제1,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맞추어 여성정책담당 부서에서 작성하고, 여성정책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립·시행된다.

1) 제1차 전북여성정책기본계획

(1) 목표와 추진전략

[제1차 전북여성정책기본계획]의 목표는 “건강한 가정구현과 사회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건전사회시스템 구축”이며, 기본전략은 ① 양성평등의 촉진 ② 여성의 사회참여 확산 ③여성의 삶의 질 향상 ④ 여성의 복지증진 이다.

(2) 세부 추진계획

[제1차 전북여성정책기본계획]은 여성부의 6대 기본 전략⁵⁾, 20개 중 14개과제에 34개 추진과제와 8개의 특수과제를 선정하여 시행하였다.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아래와 같다.

전략 1. 법·제도관행의 개혁과 여성의 대표성제고 (5개사업)

성차별적 법·제도의 정비, 남녀평등의식제고를 위한 여건조성, 의 구축,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공무원 여성채용목표제 지속추진

전략 2. 여성고용의 촉진 및 안정을 위한 지원강화 (5개사업)

5) 1. 법·제도 및 관행의 개혁과 여성의 대표성제고, 2. 여성고용의 촉진 및 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 3. 여성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교육체제 확립 4. 다양한여성·가정복지서비스의 확충 5. 여성의 문화·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6. 국제협력과 통일에의 여성역할 증대

여성의 고용촉진 적극유도, 여성경제인지원, 여성재고용 활성화, 취업알선기능 강화,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전략 3. 여성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교육체제 확립 (2개사업)

여성사회교육기관의 기능강화, 여성사회교육지원체계 구축

전략 4. 다양한 여성·가정복지서비스의 확충 (16개 사업)

임신·출산여성 보건교육 강화, 남아선호사상에의한 성비불균형해소

보육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 방과후 아동지도사업 확산

저소득 모자 지원, 요보호여성 발생 예방 및 선도, 여성장애인의 범·제도적 생활보호, 중국교포여성 사회적응 지원 생산활동과 가사의 이중부담완화

지역정책결정과정에 여성농업인의 참여 확대, 농어촌 전문여성인력 양성, 조직육성 여성전용 경로당 신축, 경로당운영 활성화, 경로교통수당 지급, 경로당 운영, 난방, 간식비 지원

성·가정폭력 발생 예방 및 피해자 보호관리

전략 5. 여성의 문화·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10개사업)

여성동호인 단체의 창작활동 지원, 문화예술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 문화의 집, 문화학교 지정 운영

자원봉사활동 지원, 자원활동센터 운영비지원, 여성자원봉사자 대회, 자원봉사자 교육,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 행사추진

전략 6. 국제협력과 통일에의 여성역할 증대(1개사업)

여성의 국제협력활동 강화

2) 제2차 전북여성정책기본계획

(1) 목표와 추진전략

[제2차 전북여성정책기본계획]은 “실질적 남녀평등사회의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 ① 남녀의 조화로운 동반자 관계형성
 - ② 지식기반사회여성의 경쟁력 강화
 - ③ 사회 각 분야 여성의 대표성 제고
 - ④ 여성의 복지증진 및 인권보호 강화
- 라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추진전략은 성주류화와 협력체계 구축이다.

(2) 세부 추진계획

[제2차 전북여성정책기본계획]의 구성은 10개 분야에 25개 과제를 선정하고, 과제에 따른 122개 추진계획과 년도별 시행계획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1차 전북여성정책기본계획]에 비해 양적으로도 발전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도 여성통계연보 발간, 성인지적 제도에 대한 연구, 공무원교육에 양성평등교육과정 설치, 차세대 여성지도자 육성, 문화예술분야의 여성참여 확대,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등 상당한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제2차 전북여성정책기본계획]의 세부추진계획은 아래 <표 3-1>과 같다.

<표 3-1> 제2차 전북여성정책기본계획 따른 전라북도 추진과제

1. 정책에 양성평등 관점통합	
1-1 여성정책추진기구 확대 및 성인지적 예산수립	여성정책위원회 운영 여성정책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성인지적 제도에 대한 정책연구
1-2 정책의 성별분석을 위한 기반조성	전북여성통계연보 격년 발간 성차별적 자치법규의 발굴 정비 공무원교육훈련과정에 양성평등교육과정 설치
2.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 제고	
2-1 공공부문의 여성의사결정과정 참여확대	5급이상 여성관리자 비율 확대 공무원 양성평등 목표제 추진 여성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인사관리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 확대
2-2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관련 여성단체 지원 차세대 여성지도자 육성 여대생 캠프 운영
3. 여성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	
3-1 여성과학기술인력육성 및 지원	도내대학의 과학기술연구소에 여대생 연수 여성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
3-2 여성농업인의 능력개발 및 전문인력화	여성농업인 영농, 농기계, 정보화,생활개선교육 도농연대교류사업, 농촌생활환경 보전실천 후계농업인 선정지원 및 농외소득활동 지원 농업관련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의견수렴 간담회 농가도우미 지원 확대, 여성농업인센터 지원
3-3 여성창업활성화 및 여성기업 경쟁력 제고	창업 및 경쟁력강화, 경영안정 자금 지원 중소기업엑스포 입점,소리축제 공예업체 판촉지원 여성기업생산제품 공동구매

3-4 여성의 정보화 촉진	여성전문인력 양성교육, ITQ자격증반, 전문정보화교육, 엑셀 파워포인트등 기초교육
3-5 여성의 평생교육참여여건의 강화	여성사회교육기관 보육시설 개방 및 서비스 강화, 여성학습자 및 근로자 상담기능 강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중등여성교육원운영
4. 남녀고용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제고	
4-1 모성보호제도의 활성화 추진	홈페이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도내 사업장, 단체의 임직원교육, 제도이행 우수사업장 단체 발굴 시상
4-2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	여성의직업능력 개발훈련, 고용촉진훈련, 취업박람회 개최
4-3 보육서비스 강화	특수보육서비스 확충 및 지원, 다양한 보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저소득층자녀에 대한 지원확대,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등
5. 사회문화분야 여성참여 확대	
5-1 여성단체지원 및 협력 강화	여성단체 공동협력 사업비 공모 지원 여성단체 활동가 간담회 여성정책확산을 위한 공동협력사업 추진 및 평가 여성단체관련 정보와 자료의 수집 및 보급
5-2 여성자원봉사활성화	자원활동센터 운영 및 지원 여성자원봉사 전문교육, 사례공모 여성자원활동 유공자포상 여성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자원봉사네트웍 구축 및 운영
5-3 여성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확대	각종 문화예술실태조사시 여성관련 평가요소도입 예술동호인 기금지원 전북합창대회 개최, 각종문화예술행사 참가지원 KAST문화영제 교육센터 유지 문화산업분야 여성인력 양성지원 여성역사인물 및 여성관련문화재 발굴 문화재관련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등

6. 평화·통일·국제협력에서의 여성의 기여 확대	
6-1 환경분야에서의 여성역할 강화	환경보전자문위, 환경분쟁조정위 여성참여확대 환경관련 NGO활동 지원
6-2 여성의 국제교류 및 협력 활성화	일본가고시마 여성단체와의 교류 중국여성단체와의 교류
7. 여성의 건강과 복지향상	
7-1 여성건강증진 대책강화	장년기 여성,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모자부건수첩 발급 및 모유수유행사실시 초등여학생 비만관리 지역주민 성교육 및 성상담실시
7-2 여성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	자원봉사형 일거리마련사업 추진 일거리마련 사업장 건립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지원 여성노인 건강진단 실시 전문요양시설, 실비 여성노인시설 확충 여성노인 복지관련 성인지적 통계구축
7-3 여성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	여성장애인 임산부 해산서비스센터 운영 지원 여성장애인 단체 지원
8.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8-1 요보호여성 발생예방 및 선도	긴급전화 1366, 성매매인권지원센터 운영 생매매방지를 위한 홍보활동강화 관련 실무자들의 성매매인식재고를 위한 교육
8-2 여성폭력 발생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가정·성폭력 상담소와 보호시설 운영 지원 성폭력응급키트 보급 및 피해자 치료비지원 상담원 보수교육 및 직장, 학교 순회교육실시 가정폭력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실시
8-3 남녀차별 및 성희롱피해의 예방과 구제 강화	자체 성희롱예방지침 수립 및 교육실시 직장내 성희롱 심의위원회 구성 성희롱고충상담원 전문교육 남녀차별신고센터 운영
9. 양성평등한 가족정책 기반조성	
9-1 통합적가족복지정책 기반조성	가족형태 가족가치관 변화조사 및 욕구분석 가족복지 서비스 확대 추진 건전가정육성을 위한 정책추진 호주제 폐지관련 홍보
10. 평등문화 및 의식의 확산	
10-1 평등문화의확산과 정착	공무원 양성평등교육실시,양성평등 역할극 경연 양성평등의식확산을 위한 홍보 공무원, 양성평등교육과목 설치

3) 전라북도 중장기 발전계획에서 여성의제와 재정계획

(1) 전라북도 중장기 발전계획에서 여성의제

동북아 지역경제권 대두와 지방화 등 21세기 새로운 변화에의 대응을 위한 지역발전 장기비전과 전략제시를 위한 전라북도의 [제3차종합발전계획](~2020)에는 양성평등의제(여성복지, 여성참여 등)가 7대과제6)의 VII. 삶의질확보를 위한 고품격 생활복지환경 조성에 세부추진시책으로 여성회관, 중등여성교육원, 여성자원활동센터, 여성 기술교육 확대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양성평등실현이나 여성의 지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전북발전 5개년계획](2003~2007)에서도 양성평등과 관련된 의제는 없으나 6. 참여복지실현과 청정환경보전 ② 저소득노인보호와 여성의 권익신장에서 위원회 여성참여확대와 양성평등사회구현, 농촌여성소득원개발과 여성 교육, 보육시설운영비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2) 전라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여성부문투자 계획

전라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03~2007)은 [전북발전 5개년계획]에 따른 투자계획이다. 계획기간 중 총투자사업비는 10조5,486억 58만원이다. 사회보장부문의 투자계획은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의료보호, 노인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 암센터 건립 등 복지분야의 56개 사업에 총투자사업비의 26.9%인 2,846,445백만원으로 여성부문에 대한 투자계획은 아래<표 3-2>와 같다.

6) I. 지역발전의 통합성 증진을 위한 공간개발, II. 친환경적이고 개성있는 지역정주기반 형성, III.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지식기반사업육성, IV. 세계와 지역을 통합하는 교통 정보체계구축, V. 지역발전의지속가능성을 위한 환경자원개발, VI. 문화적 정체성을 갖춘 지역문화, 관광개발, VII. 삶의 질확보를 위한 고품격 생활복지환경 조성

<표 3-2> 여성부문에 대한 연도별 투자계획

사업내용	사업계획					
	합계	2003	2004	2005	2006	2007
모자보건사업	3,055	640	594	607	607	607
국가암관리사업	5,868	1,228	1,160	1,160	1,160	1,160
보육시설확충, 기능보강	6,174	1,356	2,367	817	817	817
보육시설지원확대	9,553	1,637	1,706	1,877	2,063	2,270
보육시설운영	286,392	47,605	58,703	59,159	60,225	60,700
모자복지시설운영	3,669	717	712	734	746	760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	2,011	504	359	368	380	400
여성폭력방지,요보호여성보호사업	2,416	453	460	493	493	517
여성발전연구원운영	2,669	469	550	550	550	550
전라북도 여성회관	2,786	515	515	556	600	600
여성농업인센터운영	3,805	209	209	1,187	800	1,400
농업인영유아 양육비지원	21,888	0	4,838	4,830	6,110	6,110
총계	350,286	55,333	72,173	72,338	74,551	75,891

자료: 전라북도 중장기 발전계획에서 발췌

2. 여성정책 추진체계

1) 여성정책기구와 인력의 변화

지방자치제의 부활과 더불어 도 행정개편에서 전라북도의 여성정책담당부서는 복지여성국(3과 : 사회, 가정, 여성복지)으로 개편되었으며, 행정부지사 직속의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하여 여성정책을 전담하도록 하였다. 여성정책담당관실은 여성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조사 및 연구사업⁷⁾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전라북도의 여성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2001년 전라북도의 조직재편 과정에서 여성정책관실과 여성복지과를 통폐합하여 복지여성국 산하 여성정책과로 개편함으로써 여성관련 정책조사·연구 기능이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문제

7) 여성정책담당관실의 정책연구사업 : 전북여성취업실태 및 취업희망실태, 전북여성노인생활실태조사,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전라북도 가족실태조사, 전라북도 여성장애인실태 및 복지욕구 연구,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여성 결혼 및 가족생활실태조사, 전북여성정책발전을 위한 설문조사, 성인여성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등

를 보완하기 위하여 그간 여성정책담당관실이 담당하고 있던 여성관련 연구와 정책개발 부문을 대체할 수 있는 조직으로 '전북여성발전연구원' (이하 '연구원')이 2002년 설립되어 여성관련 정책조사·연구, 여성능력의 계발 및 사회교육, 여성단체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담당하였다. 전라북도 여성정책의 개발, 수립·시행 체계는 '연구원'이 여성정책개발부문을 담당하고 여성정책과가 여성정책의 수립·시행하는 구조로 변화, 발전되었다. 그러나 2004년 '연구원'은 전북발전연구원에 통합되었다.

전라북도 본청공무원(2000년 939명, 2002년 952명)의 증가율은 1.38%인 반면, 여성정책담당부서의 인원 2000년 19명에서 2002년 23명으로 15.79%증가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2003년과 2004년을 비교해 보면, 복지여성국의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의 인력이 3명 감소된 반면, 여성정책과의 인력은 23명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조직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여성정책인력의 감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모·부자복지관련 업무와 보건복지관련 업무가 여성정책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여성정책담당자들의 업무량은 늘어났다.

<표 3-3> 여성정책담당기구 현황

구분	2000 ~		2001.10	2002~2004		2005. 9	
국,실,원	복지여성국	여성 정책관실	복지여성국	복지여성국	전북여성 발전연구원	복지 여성국	전북여성교 육문화센터
과명	여성복지과		여성정책과	여성정책과		여성가족과	
담당부서	여성복지 생활지도	정책연구계 조사평가계	여성복지 여성지원 여성교육	여성정책 권익증진 여성지원* 여성교육*	정책개발 교육복지 행정관리	여성정책 권익증진 여성지원 여성교육	
정원/ 현원	9/9	10/10	20/21	23/23	7/7	18/18	*

대외협력 → 여성지원, 차별개선 → 여성교육으로 2004년 변경됨

자료 : 전라북도 복지여성국

<표 3-4> 복지여성국 담당공무원

구분	합계	본청				사업소			
		계	사회 복지과	가정 복지과	여성 정책과	계	여성 회관	어린이 회관	
2002	정원	62	57	19	15	23	5	위탁	5
	현원	62	57	19	15	23	5		5
	증감	0	0	0	0	0	0		0
2003	정원	63	58	19	16	23	5	위탁	5
	현원	62	57	19	15	23	5		5
	증감	△1	△1	0	△1	0	0		0
2004	정원	65	60	20	17	23	5	위탁	5
	현원	64	59	20	15	23	5		5
	증감	△3	△1	0	△2	0	0		0
2005	정원	71	56	20	18	18	15	9*	6
	현원	70	56	20	18	18	14	8*	6
	증감	△1	0	0	0	0	△1	△1*	0

*는 2005년 사업소로 전환된 도립 여성 중·고등학교 공무원 수임
 자료 : 전라북도 복지여성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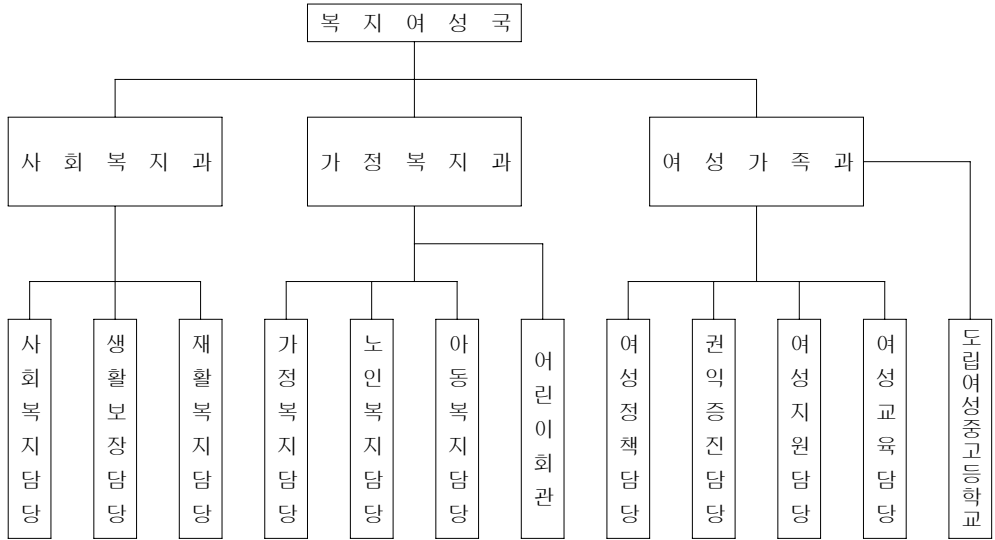
2) 여성정책담당 부서의 조직과 인력

(1) 여성정책전담기구(2005년)

전라북도의 여성정책전담기구는 복지여성국내 여성가족과이다. 복지여성국과 여성가족과의 조직구성을 보면 아래 <표 3-5>와 같다.

여성가족과는 여성정책, 권익증진, 여성지원, 여성교육담당 4개의 담당과 도립여성중고등학교로 구성되어 있다.

<표 3-5> 전북도청 여성정책기구 조직도



(2) 주요 업무와 담당인력

여성가족과의 업무를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여성정책담당은 여성정책의 종합기획조정, 여성관련 자료의 구축과 관리, 여성정책조사와 평가분석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권익증진담당은 여성폭력과 보건복지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여성지원담당은 여성단체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여성교육담당은 여성의 교육과 남녀 차별제도 개선 및 신고센터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도립여성중고등학교⁸⁾는 교육기회를 놓친 성인여성들의 중등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8) 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교육기회를 놓친 성인여성들의 평생교육 구현과 여성의 복지증진 및 자아실현으로 사회참여기회를 확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98년 3.9일 전라북도 중등여성교육원으로 설립되었으며, 2004년 도립여성중고등학교로 변경되었다.

<표 3-6> 여성정책기구의 주요 업무

부서명	주요업무
여성정책담당	여성정책의 종합기획·조정, 여성발전연구원 운영지도, 여성관련자료 구축·관리, 여성정책조사평가·분석
권익증진담당	가정·성폭력피해자 보호, 가정·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지도, 여성 1366운영, 윤락행위방지 및 일군위안부관련 업무, 모부자 복지관련 업무, 보건복지관련 업무
여성지원담당	여성단체활동지원, 여성자원봉사활동 지원, 여성관련 국제협력 업무 여성관련 법인허가·단체등록·관리
여성교육담당	남녀차별 제도개선 및 신고센터운영, 성희롱예방·양성평등교육 추진, 여성사회교육 추진,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도
여성중고등학교	교육계획수립·시행, 교사 수급계획 수립·시행, 학생관리 종합정보시스템운영, 진학 및 진로상담

여성가족과의 인력은 여성정책담당에 6명, 권익증진담당에 4명, 여성지원담당 4명, 여성교육담당 4명, 도립여성중고등학교에 8명으로 26명이 담당하고 있다.

<표 3-7> 여성정책과 업무별 담당공무원

구분	여성정책	권익증진	여성지원	여성교육	여성중고등학교
명	6	4	4	4	6

3) 여성정책 연구기관 - 전북여성발전연구원⁹⁾

‘연구원’은 2001년 여성복지과와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여성정책과로 통합하면서 여성정책 전담연구기관으로 2002년 설립되었으며, 같은해 7월 여성회관의 운영을 위탁받아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교육을 동시에 담당하였다.

‘연구원’은 정책개발, 교육복지, 행정관리 3개 분야에 7명의 인력을 갖고 있으며, 여

9) 행정자치부는 광역자치단체의 출연 연구원을 1개소만 허가한다는 원칙에 따라 전라북도는 전북발전연구원이 전라북도 출연연구원으로 허가받기 어렵다 점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전북의 여건을 이유로 여성계의 반발을 무시하고 ‘전북여성발전연구원’과 ‘전북발전연구원’의 통합을 추진하여 2004년 ‘여성발전연구원’은 전북발전연구원에 흡수통합되었다.

성관련 정책조사·연구,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교육, 여성단체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주요 기능으로 하였다.

‘연구원’의 정책조사·연구사업의 내용을 아래 <표 3-8>과 같다. 정책조사·연구 부문은 전북지역 여성의 일반적 특성과 관련된 연구와 여성의 사회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후 정책방향, 여성의 정치세력화, 여성단체와 관련된 연구 등이 진행되었다. 적은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의욕적으로 진행하였으나 전북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여성정책을 개발하는데 미진하였다. 게다가 전북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 성과 역시 여성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특히 전라북도와 연구원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¹⁰⁾ 연구 결과가 전북 도정(道政)에 적극 반영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러나 여성정책 연구의 불모지였던 전라북도가 여성정책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연구기관을 설립하여 전북 지역 발전과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활동을 통하여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여성회관 수탁운영을 통한 교육 사업이 함께 이루어짐으로써 여성의 인적 자원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였다.

<표 3-8> ‘연구원’의 조사·연구사업

2002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북지역 여성정보화교육 실태 및 활성화 방안연구 2. 전북지역 여성유권자의 정치참여와 정치세력화 연구 3. 전라북도 여성의 의식 및 생활실태조사
2003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성농업인의 건강과 복지육구 2. 일반여성의 사회참여 실태 및 활성화 방안 3. 취업모의 가족지원을 위한 보육육구 및 보육기관 실태조사 4. 6.13 지방선거에서 여성의 정치세력화 실패요인분석 5. 여성단체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6. 전북지역 사회교육기관의 여성교육 실태와 향후 방향연구

10) 예를 들면, 복지여성국이 2004년 추진하고자 했던 성인지적 제도에 대한 정책연구나 여성농업인현황 및 실태조사가 연구원에서 담당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2004년 연구원의 사업에 반영되지 못했다. 전북도는 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정책으로 수행하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정책으로 반영할 수 없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2004년

1. 전북지역 공무원의 성의식 및 여성정책 이해조사
2. 전북지역 정책의 성인지성 분석
3. 전북지역 여성회관의 사회교육 운영실태 조사 및 프로그램개발
4. 17대 총선 여성후보의 지지율 분석
5. 성폭력실태 및 대처방안연구
6. 외국인여성 정착지원방안 연구
7. 여성장애인의 직업재활실태 및 욕구조사
8. 여성노인의 여가 및 일자리창출 연구

4) 여성정책위원회 운영

[전라북도 여성정책위원회]는 남녀평등 촉진에 관한 정책,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 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관한 정책, 여성의 고용 등 경제활동을 위한 정책, 여성의 능력개발에 관한 정책, 여성분야의 국제협력과 통일에 관한 정책, 여성의 인권보호에 관한 정책, 기타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정책을 자문하는 자문기관이다.

[전라북도 여성정책위원회]의 위원의 구성은 총 13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행정부지사가 위원장, 여성정책과장이 간사가 된다. 전라북도 여성정책위원회 위원의 직능별현황을 보면, 전문가 그룹으로 볼 수 있는 법조인과 교수(연구원)이 2인 여성단체 2인, 기타 6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9> 전라북도 여성정책위원회 위원의 직능별 현황(2005)

계	당연직	도의원	법조인	교수 연구원	언론인	여성단체	기타
13	1	-	1	2	1	2	6

[전라북도 여성정책위원회] 회의는 년2회 정기회를 실시하며, 위원장 또는 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여성정책위원회는 매년 정기회 2회를 진행하였으며, 여성정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으며, 2003년 조례제정(안)을 검토하였고, 2003~2004년 여성발전연구원 운영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2004년 연구원 통합을 권고하였다.

3. 여성관련 법·제도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된 후 각 지방자치단체는 각각의 특수한 여성현황과 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여성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로 「여성발전기본조례」 등을 제정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여성과 관련된 법령들의 제·개정을 통하여 여성의 지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현재 전라북도는 5개의 여성관련 조례와 3개의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1) 여성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1997. 03. 19.)

남녀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 등에 관한 종합적인 여성정책 수립과 관련한 전라북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고 여성정책을 제안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여성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1997. 09. 26)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3) 전북도립중고등학교의 설치 및 운영조례 (1997. 09. 26)

평생교육법 제20조에 따라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여성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도내 여성의 능력발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4) 여성회관 운영조례 (1999. 01 22)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교육, 전라북도여성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5년 전라북도여성교육문화센터가 출범하면서 여성회관운영조례는 폐지되었다.

5) 전라북도여성교육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 (2005.5.31)

이 조례는 21세기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의 경쟁력 향상,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6) 전라북도여성발전기본조례 (2005.)

여성발전기본조례는 전라북도 여성정책수립의 토대로 2003년부터 조례제정을 추진하여 2005년 제정되었다. 전라북도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도와 도민의 책무, 잠정적 우대조치, 여성정책의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평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4. 여성정책관련 예산

1) 전라북도 여성정책관련 예산

예산은 정책에 대한 자치단체의 실행의지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전라북도 본청의 여성정책관련 예산은 복지여성국의 여성가족과 예산과 여성가족과에서 관장하는 여성회관, 도립여성중고등학교(중등여성교육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연구원의 예산을 합하여 전북도 일반회계 대비 여성정책예산을 산출하면 0.3~0.4%정도로 매우 적다. (타부서¹¹⁾에 산재되어 있는 예산은 포함하지 않았다.) 2004년 현재, 전북여성단체

11) 타부서의 여성관련 예산은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의 여성농업인 관련 예산과 가정복지과의 보육관련 예산이 있다.

연합의 전라북도 여성정책관련 예산분석¹²⁾에 의하면, 여성정책 총예산은 55,087,750천 원으로 전체 예산의 3.22%를 차지하고 있으나 도내 여성의 비율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 (「성평등의 눈으로 본 정책과 예산」, 2004)

2004년까지 여성정책 예산의 총액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전라북도 일반회계 대비율은 0.34%정도에 그치고 있었다. 그런데 2005년 여성정책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 총액도 감소하였고, 전라북도 일반회계 대비율은 더욱더 낮아졌다.

<표 3-10> 전라북도 여성정책부서 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도 일반회계(A)		1,001,186	1,423,998	1,439,012	1,632,100	1,792,900	2,495,000
여성정책부 서예산 (B)	여성정책과	3,505	3,372	2,536	3,859	4,144	4,716
	중등여성교육	322	694	707	544	603	511
	여성회관	825	606	707	515	515	545
	인력개발센터	-	-	346	247	265	265
	연구원	-	-	514	414	572	-
	소계	4,652	4,672	4,810	5,579	6,099	6,037
B/A		0.4%	0.33%	0.33%	0.34%	0.34%	0.24%

자료: 각년도 복지여성국 업무보고자료

전라북도 여성정책과 예산비율의 증감을 살펴보면, 2001년의 경우 일반회계 증가율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2002~2003년은 약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004년 여성정책 예산은 일반회계의 증가율 보다 낮아지고, 2005년 일반회계 예산의 증가율은 63.26%인데 반해 여성정책예산은 1%p 이상 줄었다.

12) 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의 예산과 타부서의 여성관련 예산을 포함하고 있다. 보육과 관련된 예산을 모두 여성정책예산으로 분류하여 분석을 진행하여 예산비율이 3.22%를 차지하게 되었다.

<표 3-11> 전라북도 여성정책부서 예산비율의 증감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일반회계 전년대비 증가율	42.2%	1.1%	13.4%	9.85%	63.26%
여성정책관련 예산의 전년대비 증가율	0.02%	2.95%	15.99%	9.32%	-1.02%

자료: 각년도 전라북도 예산서 참조

2) 여성정책관련 부서의 영역별 예산 13)(2004~2005)

전라북도의 여성정책관련 예산을 여성부의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10대과제에 대입하여 보면, 보육이 포함된 4. 남녀고용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분문에 84.21%로 예산이 가장 많으며, 3. 여성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부문¹⁴⁾이 9.88%로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9. 양성평등한 가족정책기반조성과 관련된 예산은 전혀 없으며, 1. 정책에 양성평등관점 통합은 여성발전연구원 운영비를 포함하였으나 1%를 넘지 못하고 있는 등 10대 과제 중 6개 과제는 여성정책 총예산의 1%를 넘지 못하고 있다. 즉 예산이 부문별로 균형 있게 편성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여성관련 예산을 담당 부서별로 보면, 복지여성국의 여성정책과(7.84%)와 가정복지과(84.04%), 농림수산국의 농업정책과(7.43%)에 편중되어 있다. 특히 가정복지과의 예산이 가장 많은데 이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 및 저소득층 보육료지원 등 보육사업에 배정된 것으로 여성과 직결되는 예산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농업정책과 예산 역시 농업인자녀 보육료 지원(4,110,495천원 중 3,638,299천원)을 제외하면 여성농업인과 관련된 예산은 매우 적다. (「성평등의 눈으로 본 정책과 예산」, 2004)

13) 여성정책과 예산뿐만 아니라 타부서의 여성정책관련 예산이 포함되어 있음.

14) 여성농업인관련 예산 중 농어촌자녀 보육비지원이 포함되어 있어 예산비중이 높게 나타남

<표 3-12> 여성부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따른 2004 ~2005 전라북도 여성관련 사업예산

(단위 : 천원)

여성부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10대 정책과제	2004		2005	
	여성관련 사업 예산	부문별 비중(%)	여성관련 사업 예산	부문별 비중(%)
1. 정책에 양성평등 관점통합	537,192	0.98	1,500	-
2.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 제고	15,090	0.03	38,290	0.05
3. 여성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	5,444,080	9.90	4,636,840	6.54
4. 남녀고용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	46,390,405	84.23	62,512,676	88.17
5. 사회문화분야 여성참여 확대	339,914	0.62	171,330	0.24
6. 평화·통일·국제협력에서의 여성의 기 여 확대	10,000	0.02	0	-
7. 여성의 건강과 복지향상	1,656,299	3.00	2,550,750	3.60
8.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669,770	1.22	968,345	1.37
9. 양성평등한 가족정책 기반조성	0	0.00	0	-
10. 평등문화 및 의식의 확산	25,000	0.04	19,800	0.03
총계	55,062,750	100	70,899,531	100.0

자료: 각년도 전라북도 예산서 참조

5. 공공부문의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

1) 지방의회에서 여성의 대표성제고

정치분야에서 여성의 활동은 미미하다. 전국 평균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여성의원 비율 9.2%, 2.2%(2002년)이다. 전라북도의 도, 시·군의회의 여성의원 비율은 전국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여성의원은 전라북도의회의 경우 수는 1998년 전체 38명중 여성은 1인으로 2.6%, 2002년 전체 36명 중 3명으로 8.3%로 증가되었다. 전라북도 시·군의회의 경우 1998년 1.2%(3/249명)에서 2002년 0.8%(2/237)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 지방의회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낮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그러나 2002년 선거에서 여성 지역구의원이 1인 당선됨으로써 여성의 광역 의회진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2)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의 대표성 제고

(1) 여성공무원의 지위

① 여성공무원의 일반적 현황

전라북도청 및 시·군 소속 공무원의 여성비율은 2000년 24.6%이며, 2004년 27.0%로 증가하였으며, 전라북도청의 여성공무원의 비율 역시 2000년 12.4%에서 2004년 13.6%로 증가하여 전체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점점 높아지는 추세에 있고 볼 수 있다. (전라북도 여성통계연보 2001, 복지여성국)

전라북도 직급별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보면, 하위직에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공무원의 직급별 분포현황은 여성공무원의 승진율¹⁵⁾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보여주며, 하위직의 높은 비중은 2000년 이후 공무원의 공개임용고시에서 여성의 비율¹⁶⁾이 50%이상을 차지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3-13> 직급별 여성공무원 비율

	5급이상	6급	7급	8급	9급
2000	4.30	16.03	25.73	44.50	42.06
2002	3.58	17.16	28.97	45.09	60.95
2004	4.39	18.43	33.75	46.81	48.71

자료: 전라북도 복지여성국

② 여성공무원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

여성공무원 중 정책결정과정에 책임 있게 참여할 수 있는 5급 이상의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2000년 4.30%(861명중 37명), 2002년 3.58% (866명 중 31명)로 낮아졌다. 전라북도청을 보면, 2001년 5.56%에서 2004년 4.39%로 그 비중이 낮아져 여성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가 미미하다. 5급 이상의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은 일반직과 별정직에

15) 승진 공무원중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2001년 16.7%, 2003년 20.3%, 2004년 24.5%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16) 전북지방공무원의 공개임용고시 합격자 중 여성의 비율은 2000년 53.8%, 2001년 53.4%, 2002년 51.7% : 전라북도 여성통계연보(2003)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0년 일반직 3.56%, 별정직 38.89% 이며, 2002년 일반직 2.93%, 별정직 46.15%) 이는 일반직 여성공무원이 관리직으로 승진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2002년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2006년까지 5급이상 여성관리자 10%를 목표로 시달한 바 있다. 현재 2006년까지 이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표 3-14> 전라북도 본청 5급이상 여성공무원 변화 추이

(단위 : 명, %)

년도	2000	2001	2002	2003	2004
여성/전체	12/253	24/288	12/253	-	14/319
여성비율	4.74	5.56	4.74	-	4.39

자료: 전라북도 복지여성국

③ 여성공무원의 교육훈련 현황

여성공무원의 교육훈련 현황을 보면, 여성능력향상, 여성정책, 양성평등, 여성공무원의 의식혁신 등 양성평등교육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선진양성평등정책과 NGO비교시찰을 할 수 있도록 여성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를 지원하고 있다.

<표 3-15> 여성공무원 교육훈련현황

구분	일시	인원	교육내용
2001년	4.23~4.27	29	여성능력향상
	9.24~9.28	29	여성능력향상
	해외연수	16	선진양성평등정책과 NGO비교시찰
2002년	4.22~4.26	29	여성정책
	9.23~9.27	29	양성평등
	해외연수	20	선진양성평등정책 비교, 국제관광박람회참가
2003년	4.28~5.02	20	양성평등
	9.01~9.05	19	양성평등
2004년	4.26~4.30	35	양성평등
	9.20~9.24	39	여성공무원 의식혁신

자료: 각년도 전라북도 복지여성국 업무보고자료

(2) 각종위원회의 여성참여

여성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전라북도의 경우 여성부가 권장하는 여성위원의 위촉비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다만, 여성공무원의 낮은 지위로 인하여 당연직 위촉비율이 낮아 2004년 현재 전체위원의 27.5%가 여성이다.

<표 3-16> 전라북도 여성위원회 참여 목표율과 성과(위촉직 기준)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목표율	25	28	30	36	36.5
여성참여율	28.9	35	35.2	37	36.5

자료: 전라북도 복지여성국

6. 여성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

1) 여성발전기금의 조성

(1) 여성발전기금의 조성

여성발전기금의 조성은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고 있다.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들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1997년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1997년부터 2005년까지 60억원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기금의 조성방법은 도비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기타수익금 등이다.

(2) 여성발전기금의 조성 실적

전라북도의 여성발전기금은 1997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6억원씩 36억원을 조성하

고, 2003년 이후 24억원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2003년까지 목표액의 절반인 30억원이 적립되었다. 이후 2년 내에 30억원을 적립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원래 목표인 2005년 60억 달성은 어렵게 되었다. 게다가 각종 기금에 대한 이자율이 낮아짐에 따라 기금이자를 활용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전라북도는 각종 기금의 적립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여성발전기금 역시 적립이 중단되었으며, 여성발전기금 조성 사업의 목표를 60억에서 30억으로 하향조정하여 2004년부터 여성발전기금의 이자를 활용하는 것으로 사업을 변경하였다.

<표 3-17> 여성발전기금의 조성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조성실적	400	400	400		-
적립실적	1,503	2,074	2,611	3,000	3,000

자료: 전라북도청 홈페이지

2) 여성발전기금 운용 현황

여성발전기금은 「전라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와 동시행규칙에 따라 여성관련 사업에 사용된다. 여성발전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여성정책관련 사업을 시작한 것은 2004년으로, 이자 1억원을 활용하여 23개 여성단체 사업을 지원하였다.

(1) 기금의 용도

전라북도의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복지향상을 위한 연구 및 사업, 요보호 여성의 복지증진 및 발생예방을 위한 사업, 여성의 사회교육, 국내외 연수 및 국제교류사업, 기타 남녀평등 실현과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지원할 수 있으며,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한 전통적인 성역할의 변화에 기여하지 않는 사업은 제외하도록 하였다.

(2) 지원에 대한 심사와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체계

여성발전기금을 활용한 사업 지원은 전라북도 여성발전기금 관리위원회의 심사로 이루어진다. 기금관리위원회는 총12명으로 구성되며, 행정부지사, 기획관리실장, 복지여성국장이 당연직위원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여성복지에 관한 경험 및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 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심사평가기준은 기금의 사용목적에 대한 적정 여부, 지원사업의 적정 여부,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신청자의 최근 1년간의 여성관련 사업 추진실적 등이다. 현재 전라북도는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체계는 갖추고 있지 않다.

(3) 2004년 지원내용

2004년 기금을 활용한 지원사업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사업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보면, 여성의 사회참여활성화 및 복지향상 4건(기혼여성잠재력, 중년여성의 삶의 의욕 고취, 은빛사랑 행복한 노년, 여성어르신의 신체·정서적 지원), 요보호여성의 복지증진 및 발생예방 2건(외국인여성 정착지원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여성장애인 건강검진) 여성의 사회교육 5건(여성노인대학, 여성정신건강교육, 건강문화교실,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양성평등캠프, 농촌지역 여중·고생을 위한 성교육), 기타 남녀평등실현과 여성발전 9건(정치교실, 여성자치학교, 차세대여성 전문직여성 진로지도교육, 차세대여성지도자캠프, 여성이 만드는 풀뿌리 공동체, 평등가족 신문공고, 여성지도자위탁교육, 부부가 함께하는 체험교실, 평등의식향상을 위한 영화상영 및 실태조사)이며, 남녀평등실현을 위한 전통적인 성역할 변화에 기여하지 않는 사업 3건(농산물안정성 촉구 및 도내 농산물 소비촉진, 지역간유대화합을 위한 가족캠프, 사랑의 손잡기 김장축제)이다.

7. 공무원에 대한 젠더교육

<표 3-18>에서 전라북도 공무원 젠더교육의 현황을 보면, 실시가 강제된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이외의 젠더교육은 실시되고 있지 않다.

<표 3-18> 공무원에 대한 젠더 교육

연도	교육제목	참가대상	참석인원	강사	교육내용
2003	직장내 성희롱예방	도청직원	1,456명	전정희	성희롱예방
	<외부교육>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교육원 교육 (2003, 6.11~6.12) 에 31명의 공무원이 참석함.				
2004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5급이하 공무원	1,419명	박영미 미래여성연구원	직장내성희롱예방 교육
	성희롱예방교육	5급이상 공무원	328명	이성철 남서울대 교수	성희롱예방 및 양성평등의식제고

자료: 전라북도 복지여성국

제 2 절 여성정책 추진 내용

1. 여성정책의 연도별 변화추이

1) 연도별 여성정책 목표 및 방향

전라북도의 여성정책 기본목표를 살펴보면, 2001년은 가정과 사회에서 공동참여와 책임분담을 통한 건전사회시스템 구축을 위해 가족 내에서의 성평등 문화 정착과 사회의 성평등 의식 확산을 정책으로 양성평등에 대한 선언적 의미와 여건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2001년의 사업이 가정과 사회에서 성평등 의식 확산에 주력한 반면, 2002년은 여성의 복지증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으로 여성정책이 좀 더 구체화되고 있다. 2003, 2004년에는 양성의 조화로운 동반자 관계 형성을 강조하면서 여성의 대표성과 역량강화를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정책의 목표와 방향으로 설정하여 「전라북도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실질적 남녀평등사회의 실현”이라는 비전과 ① 남녀의 조화로운 동반자 관계형성 ② 지식기반사회 여성의 경쟁력 강화 ③ 사회 각 분야 여성의 대표성 제고 ④ 여성의 복지증진 및 인권보호 강화라는 정책목표에 접근¹⁷⁾해 가고 있다.

17) 정책목표의 설정이 곧 정책목표의 실현은 아니다. 세부적인 사업에 들어가면 각년도의 차별성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표 3-19> 연도별 여성정책의 목표와 방향

구분	기본목표	정책방향
2001	건강한 가정구현과 사회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은 분담하는 건전사회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의식 확산으로 여성의 지위향상 · 여성의 생활안정과 능력개발 · 건전한 가족문화정착으로 여성의 삶의 질 향상 · 여성의 사회활동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 · 국제교류를 통한 상호 협력과 연대
2002	다양한 여성의 복지서비스확충 경쟁력있는 여성전문인력의 양성 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전반의 성차별적인 법제도 및 의식개선 ·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 여성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교육 · 여성폭력 방지 및 인권보호 ·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2003~ 2005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양성평등사회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정책 활력화를 위한 기반구축 · 남녀의 조화로운 동반자관계 형성 ·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 제고 · 지식기반사회 여성의 경쟁력 확보 · 여성의 복지증진 및 인권보호 ·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활성화 ·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설립 및 신축(2005)

자료: 각년도 전라북도 복지여성국업무보고

2) 연도별 중점추진시책

전라북도 여성정책의 연도별 중점추진시책을 살펴보면 2001이후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사회참여 활성화, 여성의 인권보호,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여성교육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반면, 2001~'02년도는 여성정책기본 자료의 구축·관리를 위한 시책이 추진된 반면, 2003~'05년에는 이를 토대로 여성정책 활력화를 위한 기반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표 3-20> 중점추진시책의 변화추이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추진 시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정책기본 자료의 구축·관리 ·성차별적 관행과 의식의 개선으로 양성평등 촉진 ·폭력피해 여성보호 강화, 보호체계구축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강화로 공동체 의식 함양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의 잠재능력개발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교육 ·여성의 평생교육 실현을 위한 중등 여성교육원 운영 ·수요자중심의 여성회관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정책기본 자료의 구축 ·여성정책 종합평가 실시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인권보호를 위한 관련기관 통합적 지원 ·폭력피해 여성의 효율적인 사회복지지원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강화 ·21세기 미래지향적 여성교육 ·중등여성교육원 운영 ·여성회관 위탁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정책활력화를 위한 기반구축 ·모·부자가정 자립 기반 조성 ·요보호여성 발생예방 및 선도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활성화 및 협력강화 ·내실있는 여성자원 봉사활동 ·전북·가고시마 여성단체 교류 ·양성평등사회 구현 ·여성발전을 선도하는 여성지도자 교육 ·중등여성교육원 ·여성발전연구원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사회·직업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정책활력화를 위한 기반구축 ·모·부자가정 복지 증진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지원 ·여성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활성화 ·남녀가 함께 참여하는 양성평등문화 구현 ·지역발전에 부응하는 여성지도자 양성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운영 ·여성발전연구원 운영 ·여성취업 활성화를 위한 직업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정책활력화를 위한 기반구축 ·한부모가정 생활자립 지원 ·여성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 ·여성 사회참여 확대 ·내실있는 여성 자원봉사 활동 ·성희롱예방 및 남녀차별의식 개선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여성지도자교육 ·여성인력개발 및 일자리 창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설립 및 신축

자료: 각년도 전라북도 복지여성국 업무보고

2. 주요 정책 추진실적

1) 남녀평등사회 기반구축

전라북도는 통계연보를 격년으로 발간함으로써 여성정책의 수립·시행의 기초적인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제1, 2차 전북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여성정책의 기본방향과 비전을 제시하였다.

(1) 남녀 차별 법령 발굴 개정

여성발전기본법 제 11조 및 동법 시행령 2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등의 성차별적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였다. 전라북도의 성차별적 법·제도의 개선내용을 보면, 1998년 3,432건의 조례와 규칙을 검토한 후 117건의 성차별적 내용을 발굴하여 115건을 개정 완료하였다.(전북여성발전연구원 2002-4) 2000년 성차별적 내용을 64건 발굴하여 2001년 58건을 개정 완료하였으며, 6건은 2002~2003년 개정을 추진하였다.

(2) 여성정책의 연구

전라북도는 여성정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2001년 “성차별의식 실태조사”와 “성교육 및 양성평등”에 관한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002년, 전라북도는 여성정책 발전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전라북도 여성정책 평가 및 발전방향 탐색을 위한 연구」를 전북여성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1998년 ~2001년까지의 전라북도 여성정책을 평가하고 이후 여성정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2002년 이후 여성정책과 관련된 연구는 전북여성발전연구원에서 전담하였다.

(3) 여성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및 홍보

여성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은 여성정책위원회와 “여성정책활성화를 위한 토론회”(2004)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년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여성정책 추진설명회”를 개최하여 여성정책을 홍보하였다.

(4) 시·군 여성정책 평가 실시

시·군 여성정책에 대해 2001년, 2003년 행자부의 지침에 의거 서면 및 현지확인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최우수, 우수시군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여 여성정책 수범사례 발굴·확산으로 환류효과를 높이고 담당자의 업무능력 향상 및 여성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였다.

2) 여성의 대표성제고

(1)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 제고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를 추진하여 여성부의 권장수준인 30%(위촉직 기준)를 2001년 35%로 조기 달성하였다. 그러나 여성위원의 위원회 중복참여와 전문성의 부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전북여성인명록 DB가 이미 구축되어 있다.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여성인적자원에 대한 DB구축과 분야별 위원회 선정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위원회의 특성에 맞는 전문여성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성인여성의 여성지도자 육성과 더불어 차세대 여성지도자를 양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여성의 지도력 개발을 위해 '전북여성지도자교육'을 2001년부터 시작하였다. 2년간의 교육은 양적인 측면에서 진행되었으나, 2003년부터 전북여성발전연구원에 위탁하여 진행함으로써 질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또한 2001년부터 차세대 여성지도자 육성 프로그램으로 '여대생 캠프'(2박 3일, 여대생 50명)를 진행하였고, 2004년 '2030우먼리더십 캠프'는 남성의 여성에 대한 이해와 지원을 높이기 위해 남성 (20명)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3) 여성공무원의 적극적인 인사관리

전라북도는 여성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인사관리와 여성관리자 비율확대를 시책으로 가지고 있다. 전라북도는 현재, 여성간부양성 과정을 운영하는 것 이외에 적극적인 시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3.8%로 전국 평균 5.9%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개방형 인사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적극적인 인사정책이 필요하다.

3) 여성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

(1) 여성농·어업인의 능력개발 및 전문인력화

여성 농·어업인의 능력개발 및 전문인력화를 위한 사업 중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제고 및 전문인력 육성기반 조성을 위하여 농촌여성소득개발 기술교육, 여성농업인 영농교육 및 여성농기계 교육훈련, 농촌생활여건 개선 등은 그간 농업기술원에서 진행해 오던 사업이며, 농어촌관련 협의체에 여성농업인 대표 참여 확대, 여성후계농업인 육성지원사업은 농림부의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신설된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온 사업이다. 여성 농·어업인의 대표성제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농촌관련 여성단체 지원을 하고 있으며, 여성 농·어업인의 안정적 농촌정주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농가도우미지원, (2001~), 여성농업인센터 지원(2002~), 영유아양육비 지원(2003~)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여성농·어업인 능력개발 및 전문인력화는 여성정책담당부서가 아닌 타부서에서 시행하는 대표적인 여성정책 사업으로 농림부나 농촌진흥청의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진다.

(2) 여성창업 활성화 및 여성기업 경쟁력 제고

여성의 창업활성화와 여성기업 경쟁력제고는 2001년 이후 여성기업 경영인의 경영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 자금신청업체 평가시 가점부여 폭을 확대(5점~8점)하여 여성기업인이 자금지원 선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하였다. 그 외 생산제품 판매촉진 홍보, 융자심의위원회에 여성기업인 참여 등을 추진하고 있다.

(3) 여성의 정보화 촉진

전라북도는 여성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2001년 전라북도 여성회관 내에 여성전용 정보화 교육장 설치 컴퓨터 기초교육(4기 200명), 전문기술교육(3기 75명), 인터넷활용교육 및 검색 경진대회(1기 25명)를 실시하였다. 2002년 정보화교육을 위한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어 컴퓨터 기초교육, 인터넷 및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였다. 2003년부터는 별도의 교육과정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여성회관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4) 여성의 평생교육 여건의 강화

① 여성회관의 운영

여성회관은 18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기능교육과 취미교양교육을 실시하며, 문화·복지사업, 취업정보센터, 보육실 운영 등으로 여성이 사회참여 활성화와 잠재능력 개발,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다.

여성회관의 사업방향은 여성의 경쟁력강화와 여성전문인력배양(2001), 21세기 지식 기반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있는 전문인력 육성과 미래지향적 프로그램개발로 여성사회교육 운영의 활성화(2002, 2003), 여성의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으로 경제능력 향상도모(2004)로 변화되었다. 그러나 여성회관의 교육프로그램은 자격·취업, 전문, 취미·정서, 문호·교양, 정보화교육 등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다. 2005년 여성회관은 여성교육문화센터로 전환되었다.

②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운영

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성인여성의 기초학력제고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하에 1998년 여성중등교육원으로 출발하였다. 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중·고등학교 각 3학급, 3년제로 운영된다. 2005년 현재 5회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도립중고등학교 운영은 졸업생을 통해 교육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으로 여성들의 기초학력 향상과 학습기회 확대를 위해 의미 있는 사업이다.(전북여성발전연구원, 2002)

(5)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립 및 운영지원

여성인력개발센터는 2001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립·운영규칙」(여성부 훈령)이 제정되어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직업능력개발 훈련,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을 알선, 여성의 고충상담, 후생복지 및 문화시설의 운영, 기타 여성복지증진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전라북도는 2003년, 2개소(전주, 군산)를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 여성직업전문기관으로 전환하였다.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2003년 9과정 36과목, 2004년 32과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 여성의 취업정보제공 및 취업알선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일자리 정보제공 및 취업을 알선 하고 있다.

4) 남녀고용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제고

남녀고용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라는 정책과제는 고용상 기회균등과 남녀차별개선,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지원,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 남녀평등의식의 확산, 비정규직여성근로자 등의 근로조건보호와 능력개발, 보육서비스 강화와 관련된 정책과제가 추진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보육서비스강화,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지원과 관련된 사업이다.

(1) 보육 서비스의 강화

보육서비스는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활동의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04년 여성부가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기도 하였다.

전라북도의 보육아동은 2001년 58,490명에서 2004년 44,172명으로 32.4%감소하였다. 반면 보육시설은 878개소에서 1,079개소로 22.9%가 증가하였으며, 보육아동은 보육수요의 64%에서 70%로 증가하였다.

전라북도의 보육서비스 강화를 위해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과 기능보강, 저소득아동 간식비 지원, 출산보육교사 대체인건비 지급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육시설의 경우, 영아나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의 설치에 대한 지원이 확대¹⁸⁾되어 보육 수혜자의 욕구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간의 사업이 시설의 확충에 사업의 중점이 주어졌으나, 시간연장제 보육 등 보육서비스의 다양화, 교사의 질 제고를 위한 출산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 저소득 자녀에 대한 간식비지원 등은 보육서비스의 질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다.

(2)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지원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 홍보, 출산보육교사에 대한 대체교사 인건비지급,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 이행 우수기관 시상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8) 특수보육시설 현황 : 1998년 영아 4, 장애아 2개소
2003년 영아 10, 장애아 4, 방과후 86, 시간연장 2, 휴일 1개소
2004년 영아 26, 장애아 9, 방과후 104, 시간연장 7, 휴일 1개소

5) 여성의 사회·문화 참여확대

(1) 여성단체 지원 및 협력강화

여성발전기본법 제 3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 및 그 활동에 필요한 그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전라북도의 여성단체는 2001년 36개 단체, 334천명에서 2004년 38개 단체 358천명으로 증가하였다. 전라북도는 여성단체사업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여성사회 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 여성지위향상과 여성능력개발, 여성단체 조직활성화 도모를 위해 1998년부터 여성단체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여성단체지원 사업은 2001년 20개 사업 69.1백만원, 2002년 16개사업 72.5백만원, 2003년 29개사업 183백만원, 2004년 42개(단체육성 18개, 여성발전기금 23개) 사업 207백만원이 지원되어 지속적으로 지원이 증가되었다. 여성단체지원사업은 여성단체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나, 지원사업 내용에 있어서 여성의 지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왔는지 알 수 없다. 이후 지원사업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성인지적 평가·분석이 필요하며, 이러한 점은 사업 선정 시에도 고려되어야 한다.

(2)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자원봉사활동은 자발적인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서로 돕고 존중하며, 이웃과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공공복지의 증진을 위한 활동으로 참여자 자신에게 만족감을 줄 뿐 만아니라 사회적으로 공익을 창출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은 여성발전기본법 제28조 219)에 근거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자아실현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더불어 잘사는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건설”을 목표로 자원활동센터에 대한 지원, 자원봉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사기 양양을 위한 자원봉사자 대회(우수센터와 유공자 시상,

1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여성자원활동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수사례집 발간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은 기관·시설·병원 및 요보호대상자 재가봉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에서 유치하는 사업(예 : 2002월드컵 등)에도 참여한다. 자원봉사자 중 매년 약 4000명이 교육을 받고 있어 양적인 측면에서는 성과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질적인 측면의 교육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3) 문화·예술 분야 여성참여 확대

전라북도의 문화관련 사업은 문화의 집과 문화학교 설치·운영과 문화시설 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한 여성참여 문화프로그램 지원과 여성합창제로 요약 할 수 있다. 제2차 전북여성정책기본계획에는 이 분야의 추진계획이 가장 많으나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여성합창제 하나만이 운영되고 있다. 감수성과 창조력이 요구되는 문화·예술 분야는 여성이 보다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여성인력의 양성을 위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6) 평화, 통일, 환경, 국제협력에서의 여성기여 확대

평화·통일·환경·국제협력에서의 여성기여 확대는 국제협력 이외의 정책과제는 시행되고 있지 않다.

국제협력은 2001년 “아시아 여성의 양성평등을 위한 공동과제”란 주제로 아시아 여성포럼(10월 18~20일)을 개최하여 ‘국제적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지역 여성 네트워크 형성, 양성평등문화 실천 노력으로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일회성에 그치고 말았다. 현재 여성의 국제교류는 전라북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의 가고시마와 중국의 강소성과의 여성단체교류가 격년으로 진행되고 있다.

7)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1) 여성의 건강

임신·출산여성 보건을 위하여 임신부에 대한 건강진단사업을 매년 진행하여 산

전·산후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건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여성건강검진과 유방암검진,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자궁암 유방암 검진사업을 진행하여 여성암의 조기발견을 통한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아직 전라북도의 여성의 건강과 관련된 정책은 일반여성으로 확대되고 있지 못하다.

여성건강검진 비용이 2003년 134,730천원에서 2004년 111,000천원으로 감소하였고, 2005년에는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여성암검진 예산 역시 2003년 116,918천원에서 2005년 82,650천원으로 감소하는 등 여성건강검진관련 사업이 축소되고 있다.

(2)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①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전라북도의 모·부자가정 현황을 보면, 모자가정 3,479세대(재가 1,010세대) 9,543명이며, 부자가정 908세대(재가 227세대) 2,415명이며, 모자복지시설은 7개소에 125세대 345명이 생활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지원강화로 건강한 가정육성과 조기 자립기반 조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내역을 보면, 모·부자가정 생활안정을 위해 자립금 지원, 월동비 및 피복비지원을 하고 있으며,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양육비 및 중고생 학비 지원, 대학입학금등 교육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모자복지시설의 내실화 및 시설 수용자 지원을 위해 시설 운영비 및 생계비 지원, 시설기능보강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자체사업으로 모·부자가정 생활수기를 공모 시상하고 있으며, 모자시설 가족 캠프와 모자시설 지역주민 개방행사를 통해 지역주민과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② 여성장애인과 여성노인의 복지

장애인 관련 정책 중 여성정책으로 볼 수 있는 사업은 장애인 가정 영아 양육비지원, 장애인 임신부 해산서비스센터 운영, 여성장애인단체지원이다.

여성노인을 위한 사업은 2001년 여성노인 경로당신축 5개소 신축 사업이 진행되었을 뿐 일반 노인정책이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장애인관련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노인관련 업무는 가정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여성정책 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의 수립·시행에 있어

서 성인지성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 여성정책은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몫이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수혜대상자의 성인지성을 반영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여성정책 담당 부서가 이를 총괄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장애인과 노인정책에서 보여준다.

8) 여성 폭력 예방 및 인권강화

(1) 성매매방지대책의 실효성제고

전라북도는 군산 성매매집결촌의 두 번의 화재로 인해 성매매피해 여성을 위한 활동이 타지역에 비해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2003년 ‘성매매 여성현장상담센터’가 운영되기 시작되었다. 그러나 2003년까지 전라북도는 성매매여성을 상대로 한 사업을 ‘요보호여성 발생예방 및 선도’라는 명칭으로 진행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여성 1366운영’, ‘요보호여성 기술교육’ 정도였다. 2004년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성매매방지법)이 공포되었고, 전라북도의 ‘요보호여성 발생 및 선도’는 ‘성매매여성’ 정책으로 자리잡았으며, ‘성매매현장상담센터’의 지원과 더불어 ‘성매매여성 선도보호시설 운영지원’ ‘성매매피해여성직업재활교육’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2) 여성폭력 예방 및 인권보호

성·가정폭력은 법·제도의 정비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예방하고 처벌해야 할 사회적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전라북도의 성·가정폭력의 예방과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한 사업은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과 더불어 성·가정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성·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정신적·육체적 치료서비스제공, 상담원들에 대한 보수교육 등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여성폭력 예방 및 인권보호 부문의 예산이 대부분 시설지원에 편중되어 있으며, 폭력예방 보다는 사후 지원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 여성폭력과 관련한 사업에서 피해자의 정서적, 심리적, 법적 지원은 상담소나 보호시설에서 담당할 수 있으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은 행정의 지원이 필요하며, 외국인 여성의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위해서는 외국인 피해여성을 상담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3) 남녀차별 및 성희롱피해의 예방과 구제 강화

남녀차별 금지와 이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을 구제하고,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전라북도는 여성차별신고상담을 위한 [여성차별신고센터]와 [직장내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2004년 군인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9) 평등문화 및 의식의 확산

(1) 여성주간 행사

여성주간 (7.1. ~7. 7.)은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남녀평등 촉진 등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하는 주간으로 전라북도는 여성주간에 “여성주간” 행사를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주간 행사의 내용이 요식적인 행사로 그치는 경향이 있다. 여성주간은 도내 전체에 양성평등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 중점 추진사업을 중심으로 한 슬로건과 프로그램 구성으로 여성이 모이는 장과 더불어 일반 시민, 청소년, 어린이까지 모두 참여하여 사회 전체 양성평등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표 3-21> 여성주간행사 프로그램

년도	주제	행사내용
2001	함께하는 남녀평등 함께 누릴 밝은 미래	기념식, 재외국민 무료 전통혼례식, 전북여성농업인 한마당, 가정내 양성평등프로그램, 남성요리경연, 성·가정폭력 예방 인형극, 당당한 주체로서의 여성노인 출발
2002	당당한 평등 문화 컨설팅	기념식, 유공자 및 유공단체 격려. 여성단체활동 등 우수사례 발표 및 전시, 기타 여성단체 행사지원
2003	당당한 평등 문화 컨설팅	기념식, 유공자 및 유공단체 격려, 양성평등특강 (탈렌트 김성환)
2004	남녀가 함께 만드는 평등세상만들기	특강, YMCA합창, ‘가문장아기’와 ‘꿈꾸는 새’ 공연, 여성단체의 자체 행사
2005		기념식, 특강, 표창, 연극공연, 가족사랑 및 평등문화 확산 캠페인 등

자료: 전라북도 복지여성국 업무보고자료

(2) 양성평등문화 확산운동

생활 속의 평등문화 확산운동으로 2002년 초등생 양성평등 역할극 대회, 2003년 대학생 양성평등 노래가사바꿔부르기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행사는 성(性)과 연령에 관계없이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였다. 여성뿐만 아니라 성(性)과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제 3 절 전라북도 여성정책의 평가와 정책제안

1. 여성정책의 평가

1) 여성정책추진체계와 기반조성

전라북도의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 및 기반조성과 관련하여 전라북도 여성정책중장기계획, 여성정책담당 조직체계 및 인력, 법·제도적인 측면, 여성정책 예산,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 여성발전기금의 조성, 공무원에 대한 젠더교육에 대해 살펴보았다.

(1) 전라북도의 여성정책 중·장기계획은 여성부의 여성정책기본계획을 골간으로 하여 전라북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작성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여성정책은 중앙정부의 평가에서 호평을 받고 있으며, 여성정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역의 특성과 여성의 욕구, 정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 등을 여성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발전해야 한다.

(2) 여성정책담당 조직체계 및 인력은 현재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와 전북발전연구원의 여성정책연구소로 이원화된 체계로 여성정책 수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후 지속적으로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여성가족과의 연계의 틀을 가져갈 필요가 있으며, 성인지적 교육과정의 운영으로 공무원의 여성정책관련 전문성을 배양해야 한다.

(3) 법·제도적인 측면을 보면, 기존의 각종 조례의 성차별적 요소를 철폐하기 위

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양성평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여성발전기본조례의 제정은 여성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법적인 토대를 구축하였다. 여성정책위원회와 여성발전기금 관련 조례에 대한 검토와 개정이 필요하다.

(4) 여성관련 예산, 예산을 정책실행을 가능할 수 있는 척도라고 할 때, 여성정책과 관련된 예산은 아직 매우 미흡하며, 부문별 불균형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관련 예산의 확대와 부문별 균형 잡힌 예산 편성을 위해 각 부서에서 성인지적 정책이 수립·시행되어야 한다.

(5)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는 여성의원의 비율이나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어 여성의 공직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의 추진과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각종 위원회의 위원위촉에 있어서 여성참여비율이 3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여성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여성전문위원의 일정비율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6) 여성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따른 사업지원은 여성단체의 활동에 도움이 되고 있다. 여성발전기금 운용과정에서 나타는 문제점인 사업지원체계, 심사위원회의 구성, 사업에 대한 평가 틀의 마련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7) 공무원에 대한 젠더교육은 성희롱예방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성인지적 관점을 갖도록 하는 것, 성인지적 정책수립 방법, 사업시행 이후 성인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젠더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이수자와 정책수립과 시행과정에 성인지성을 반영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여성정책 추진현황

전라북도의 여성정책은 2001년 ‘가정과 사회에서 성평등의식 확산’ 2002년 ‘여성의 복지증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2003년 이후 ‘양성의 조화로운 동반자 관계 형성’으로 발전하여왔다.

전라북도 여성정책 추진현황은 [전라북도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중심으로 2003~'05년 추진결과를 반영하여 살펴보았다.

(1) 남녀평등사회의 기반구축을 위해 전라북도는 통계연보 발간, 「제1, 2차 전북여성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여성정책에 대한 의견수렴기구로 [여성정책위원회]를 운영 등 여성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기반과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통계연보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축하기 보다는 통계청의 통계를 재조합하여 작성하여 지역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여성정책위원회는 자문기구, 년 2회 회의 개최로는 여성정책에 대한 의견 수립이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

(2) 여성의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위해 여성 농·어업인의 능력개발 및 전문인력화를 위한 사업과 여성의 평생교육여건 강화를 위해 여성회관과 도립여성중고등학교를 운영이다. 여성농업인 관련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받아 안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지역 여성농업인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이 실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북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여성회관을 대신하여 2005년 출범한 여성교육문화센터는 지금까지 여성회관에서 진행되었던 취미, 교양, 직업교육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지역 내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여성의 지도력 개발, 양성평등 강사양성 등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현재 물성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여성의 창업활성화와 여성기업 경쟁력제고, 정보화촉진을 위한 사업, 여성과학기술인력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 등은 성인지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각 부서의 정책 수립·시행에 있어서 성인지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3) 남녀고용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라는 정책과제는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 모성보호 및 직장가정생활의 양립지원과 보육서비스 강화와 관련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보육서비스 강화와 관련하여 시간연장제 보육 등 보육서비스의 다양화, 교사의 질 제고를 위한 출산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 저소득 자녀에 대한 간식비지원 등은 보육서비스의 질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돌봄노동의 사회화가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돌봄노동을 어떻게 사회화할 것인가 다양한 정책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추진이 미흡한 고용상 기회균등과 남녀차별개선, 남녀평등의식의 확산, 비정규직여성근로자 등의 근로조건보호와 능력개발과 관련된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부서와

의 협조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4) 여성의 사회·문화 참여 확대와 관련된 정책과제는 여성단체 활동과 자원봉사 활동지원, 문화의 집과 문화학교 설치·운영 지원이다. 여성단체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감수성과 창조력이 요구되는 문화·예술분야는 여성이 보다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여성인력의 양성을 위한 정책적인 배려가 요구된다.

(5) 평화·통일·환경·국제협력에서의 여성기여 확대와 관련된 사업은 전라북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의 가고시마와 중국의 강소성과의 여성단체교류가 격년으로 진행되고 있다. 여성의 국제교류가 단체지원 성격으로 진행되기보다는 전문인력의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며, 평화·통일·환경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6)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은 여성건강보호를 위해 임신·출산여성과 저소득층 여성암에 대한 건강진단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건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긍정적이다. 이후 여성건강관련 정책은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으로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은 중앙정부의 보조사업과 더불어 모·부자가정 생활수기를 공모 시상을 통해 사기를 진작하고 있으며, 모자시설 가족 캠프와 모자시설 지역주민 개방행사를 통해 지역주민과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장애인과 여성노인의 복지와 관련된 사업은 장애인 가정 영아 양육비지원, 장애인 임신부 해산서비스센터 운영, 여성장애인단체지원이며, 여성노인을 위한 사업은 2001년 여성노인 경로당신축 5개소 신축 사업이 진행되었을 뿐 일반 노인정책이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장애인관련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노인관련 업무는 가정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여성정책 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의 수립·시행에 있어서 성인지성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 여성정책은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몫이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수혜대상자의 성인지성을 반영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여성정책 담당부서가 이를 총괄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장애인과 노인 정책에서 보여준다.

(7) 여성폭력예방 및 인권강화

전라북도는 군산 성매매집결촌의 두 번의 화재로 인해 성매매피해 여성을 위한 활

동이 타지역에 비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성·가정폭력의 예방과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은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과 더불어 성·가정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성·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정신적·육체적 치료서비스제공, 상담원들에 대한 보수교육 등을 추진해 왔다. 이부문은 여성단체와 행정의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여성정책의 수립·시행에 있어서 민·관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실효성을 보여준다.

(8) 양성평등문화 및 의식의 확산 사업은 년중 행사인 여성주간 행사에 그치고 있다. 여성주간 행사는 년 중 추진된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들을 총화해내고, 여성들 스스로의 힘을 확인하는 장치되어야 하며, 일반시민, 청소년, 어린이까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2. 정책제안

1) 여성정책추진체계 및 기반조성

(1) 여성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전라북도는 여성정책이 전담부서인 여성가족과의 사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여성정책은 여성가족과가 주무부서이긴 하지만 모든 부서가 골고루 책임지고 정책을 시행할 때 정책에서의 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다. 정책전반에 성인지성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각 국·시·군·구에서 여성정책을 책임질 수 있는 책임자가 선정되어야 하며, 여성정책의 수립·집행에 대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구조(중앙정부의 여성정책책임관과 여성정책조정회의)가 마련되어야 한다. 여성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체계는 도지사나 부지사가 관장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기구로 형식적인 회의체가 아닌 실질적으로 전라북도 여성의 지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 부서에서 성인지성이 담보되는 정책의 수립·시행을 논의하고, 부서 간 여성정책의 조정과 사업추진을 통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여성가족과는 이를 종합·조정하고 추진실적을 점검할 수 있는 위상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2) 전라북도 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의 개정으로 모든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각 부문별 정책이 양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성차별적인 요소는 없는가, 정책 수행 효과가 양성에게 동등하게 미치는가 등을 분석·평가할 수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

(3) 공무원에 대한 젠더교육과 정책수립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정책의 담당자인 공무원이 성평등 의식 및 성인지적인 관점을 가지고 맡은 분야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전라북도의 모든 정책의 수립·시행에 있어서 성인지성이 반영될 수 있다. 모든 정책의 수립과정에서 성인지성을 반영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것은 공무원에 대한 젠더교육과 정책수립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다. 전체 공무원이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이수자에 대한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4) 여성정책의 연구 및 의견수렴

현재 전라북도의 여성정책연구 전담기관은 전북발전연구원의 여성정책연구소이다. 여성정책연구소가 여성정책 전담기관으로 역할을 충분히 담당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와 전북발전연구원 내에서 여성정책연구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정책연구소는 전북지역 여성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를 진행해야 하며, 연구과정에서 전북여성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연구결과가 전라북도 여성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와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전라북도는 각부서의 여성정책의 수립·시행에 있어서 여성의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실질적으로 여성정책을 전담하고 있는 여성가족과와 여성농민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정책과 이외에서는 정책의 수립·시행과정에서 여성의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가 없다. 기획예산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수립할 때, 각 부서에서 정책을 수립

할 때 여성의 의견수렴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해야 한다.

(5) 공공부문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 확대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성공무원의 양성과 더불어 개방형 인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문성 있는 여성의 공직 진출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라북도는 각종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선임에 있어서 전문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위원을 선임하고, 여성위원들의 정책개발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적극적인 위원회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 정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라북도나 각 시·군 의회에 인턴제를 도입하여 젊은 여성정치 지망생들이 현실정치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여성관련 예산의 확대

2005년 지방분권의 확대실시와 지방분권특별교부세의 지원에 따른 전라북도 여성정책 관련 예산은 2004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전라북도의 총예산이 63.26% 증가한 반면, 여성정책전담부서의 예산은 1%p정도 줄었으며, 여성정책관련 총예산은 28.75%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다. 예산의 총괄지원이 여성에게는 불리하게 작용되어 여성관련 정책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회는 2002년 “성인지적예산편성 및 자료제출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2003년 예산편성지침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투자재원배분 방향으로 설정된 바 있다. 전라북도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예산이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여성정책이 부문별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재조정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적절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3) 부문별 정책제안

(1) 여성의 인권과 복지

- 1)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확대
 - ① 여성장애인 복지서비스 확충

여성장애인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일자리제공65.0%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61.9%이다(사회통계조사보고서 2002). 전라북도의 여성장애인 정책이 이제는 복지서비스의 확대와 더불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적극적인 정책으로 취업교육을 통한 일자리 제공이 필요하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한다.

② 여성노인

노인층에서 여성노인의 비중이 높다. 여성노인의 욕구는 경제적 어려움의 해소와 더불어 간병서비스, 건강체크, 가사서비스 등이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의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사회통계조사보고서 2002). 이러한 여성노인의 욕구를 반영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③ 성매매여성 사회복귀 지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지난 2~3년간 성매매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고, 여성부와 여성단체의 중점사업으로 추진되었다. 그 결과 전라북도는 상담시설과 보호시설이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자활센터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성매매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한 자활지원은 미흡하다. 성매매여성의 자활을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과 더불어 성구매자 대상의 예방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의식개선 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

④ 이주여성(국제결혼 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그동안 이주여성의 문제는 크게 부각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국제결혼으로 외국여성의 국내정착이 많아졌으며,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이후 농업생산의 상당부분을 담당해야 할 인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주여성은 의사소통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주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한국인으로서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어야 하며,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2) 여성폭력 방지 및 인권강화

여성의 폭력은 인권문제이다. 그동안 여성폭력에 대한 관심은 여성폭력의 심각성, 후유증, 피해자의 치료 및 보호 등 복지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였으며, 상담시설과 보호시설에 대한 지원이 정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제 폭력의 사전예방을 위한 정책이 좀 더 많이 실행되어야 하며, 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행위자에 대한 교정·치

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3) 여성의 건강증진

전라북도 여성의 주관적 건강평가는 ‘좋다’는 응답이 1/3 수준이다(사회통계조사보고서 2002). 여성의 건강관리 방법은 주로 운동, 식사조절, 수면과 휴식 등이다.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은 임신 출산에 대한 보건서비스와 취약계층에 대한 암 검진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여성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생애주기에 따른 체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여성이 주로 걸리는 질병에 대한 정기적인 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과 인적자원의 개발

1) 취약여성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정책

전라북도는 여성노동자와 관련된 정책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실직 여성가장에 대한 취업훈련과 취업이나 창업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여성가장 채용 사업장에 장려금을 지급하여 여성가장의 채용을 늘리고, 창업을 할 경우 중장기적인 경영컨설팅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여성의 경우 비정규직이 절대적으로 높은 현실에서 여성취업자에 대한 안정적인 근로조건 마련을 위한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2)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농림부의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계획]이 마무리되고, 2차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에 들어가 있다. 전라북도의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은 농림부의 예산지원에 따른 사업을 진행하고 있을 뿐 자체적인 사업은 거의 시행하고 있지 않다. 전라북도의 경우 여성취업인구의 26.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여성농업인의 농업 전문인력으로 육성을 위한 교육 훈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이 수립·시행되어야 한다.

3) 여성인적자원의 활용제고

여성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전라북도는 2개소의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이를 모두 담당 할 수 없다. 여성인적자원의 전일적 활용을 위해서는 연령별, 학력별, 취업형태별로 여성인적자원의 통계 및 정보체계 구축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적절한 직업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재직여성근로자는 직무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전업주부는 지역내 노동시장에 맞는 특성화된 직종에 대한 직업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고학력 여성의 도내 취업으로 여성인재를 지역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성 차별 없는 고용환경조성

성평등한 고용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여성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산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고용평등 실천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성평등한 고용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여성근로자가 많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고용 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모성보호 이행실태(육아휴직제 실효성 확보)등을 점검하여 우수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인센티브(지방세의 감면 등)의 부여, 사업장 내 명예 고용평등 감독관제 운영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 등을 해 나가야 한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지원하고, 교육 강사뱅크를 운영하여 강사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지원

1) 여성의 평생교육 지원

정보통신의 발달, 사회 및 경제구조가 많이 변화되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경제활동에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출산과 영·유아 보육을 마친 여성들은 자기개발의 욕구가 강해지고 있으며, 자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취미와 교양과 관련된 프로그램 뿐 만 아니라 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직업교육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전라북도는 여성교육문화센터와 인력개발센터를 통해 여성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취미·교양에 치우쳐 다양하지 못하고, 체계적인 전문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여성들의 욕구를 충분히 채워주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여성의 평생교육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하며, 여성의 정체성함양과 지도력 향상, 성평등 확산을 위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2) 여성의 문화활동 지원

지금까지 문화정책과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은 물성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사회전반에는 남성위주의 문화가 팽배해 있다. 이후에 전개될 사회는 창의성과 다양성, 감성이

더 많이 요구되고 있어 여성의 주체적 참여가 더 많이 요구될 것이다. 여성이 문화활동에서 주류로 서기 위해서는 문화산업분야에서 여성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문화예술단체 활동에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3) 여성단체 육성지원

여성단체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여성문제에 대한 공동의식을 갖고 여성의 지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이다. 여성단체가 정책의 수혜대상자 또는 비관자의 입장에서 공동의 협력자로 자리 잡은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행정 역시 여성단체를 파트너십을 가지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정책추진의 효율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여성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한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전라북도는 여성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의 협력의 강화,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규모 확대, 공동협력 사업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와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원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4) 국제협력 및 통일에서 여성활동 지원

국제협력에서 여성인적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제전문 여성인력 양성이 요구된다. 전라북도 국제협력 과정에서 인턴제 등을 활용하여 여성인력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 및 사회·문화 교류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통일은 현재 우리사회의 당면과제이다. 통일은 조용한 발걸음으로 우리의 곁에 다가오고 있으나 여성이 남북교류 협력이나 통일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는 매우 적다. 통일되었을 때 양성이 평등하게 통합될 수 있도록 여성의 적극적 참여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에 대한 여성의 관심을 높이고, 여성이 함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여성대상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남북화해협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여성의 남북교류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전북도의 남북 교류협력 기구에 여성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4 장

전북의 인구와 가족

- 제 1 절 인구
- 제 2 절 가족형태
- 제 3 절 가족관계 : 부부관계와 세대관계
- 제 4 절 가족가치관
- 제 5 절 가구경제
- 제 6 절 다양한 가족들
- 제 7 절 요약 및 정책제언

제 4 장 전북의 인구와 가족

김혜경(전북대학교 교수)

이 장은 90년대 말 이래 최근까지 5년 여간의 전북 가족의 특성과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가족형태, 가족관계, 가족가치관, 가구경제의 측면에서 전북지역 가족의 변모양상을 짚어보되, 그것을 전국적 경향과 비교하여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전북지역 인구변화의 현상에 대해서도 간략히 검토해볼 것이다. 먼저 아래의 절에서는 인구규모의 변화, 그 내부구성의 특징, 외국인 인구의 추이 등을 살피고자 한다.

제 1 절 인구

2003년 말 현재 전북의 인구는 196만 2천명이며, 그중 여자는 98만명이다. 세대당 인구수는 2.9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합계출산률도 지속적으로 낮아져서 2003년 현재 1.19명으로 떨어졌다. 외국인 인구규모는 97년 5,773명에서 2003년 8,437명으로 46%가 증가하였는데, 내부구성면에서는 성차가 뚜렷하여 외국인 유입이유의 성에 따른 차이를 읽을 수 있다.

1. 인구규모와 변동

2003년 12월 현재 전북의 총인구는 196만 2천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하고 있다²⁰⁾. 지난 40년 정도의 추이를 보면 지속적으로 감소경향을 보여 1961년 이래 숫적으로는 410,620명이 감소하였으며, 비율면에서는 17.3%가 감소하였다. 감소경향은 80년대 이래 보다 급속해졌다. 1990년대 이후의 인구변동을 보면 1991년 한 해동안 3만 1천명이 감소되었고, 이후 94년까지 매년 1만명 이상씩 줄어들었다. 90년대 후

20) 지난 12월 28일 발표된 통계청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잠정 집계결과에 따르면 전북의 인구는 2005년 11월 현재 전국인구의 3.8%를 구성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반부에는 97년을 제외하고는 미미한 증가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2002년 약 5만 2천명이 감소하면서 2002년부터는 200만명 미만에 머물고 있다. 2003년 말 현재 여성은 전체 인구의 50.4%인 98만 8천명이다.

<표 4-1> 전라북도 인구, 세대 추이 (1961-2003)

(단위: 명, %)

연별	인구	남	여	세대수	세대당 인구수
1961	2,373,487 (100.0)	1,174,578 (49.4)	1,198,909 (50.6)	396,945	6.0
1970	2,386,381 (100.0)	1,169,134 (48.9)	1,217,247 (51.1)	427,311	5.6
1980	2,287,689 (100.0)	1,145,795 (50.0)	1,141,894 (50.0)	451,978	5.1
1990	2,069,960 (100.0)	1,030,300 (49.7)	1,039,660 (50.3)	517,354	4.0
2000	2,003,500 (100.0)	997,371 (49.7)	1,009,129 (50.3)	645,798	3.0
2003	1,962,867 (100.0)	974,354 (49.6)	988,513 (50.4)	672,111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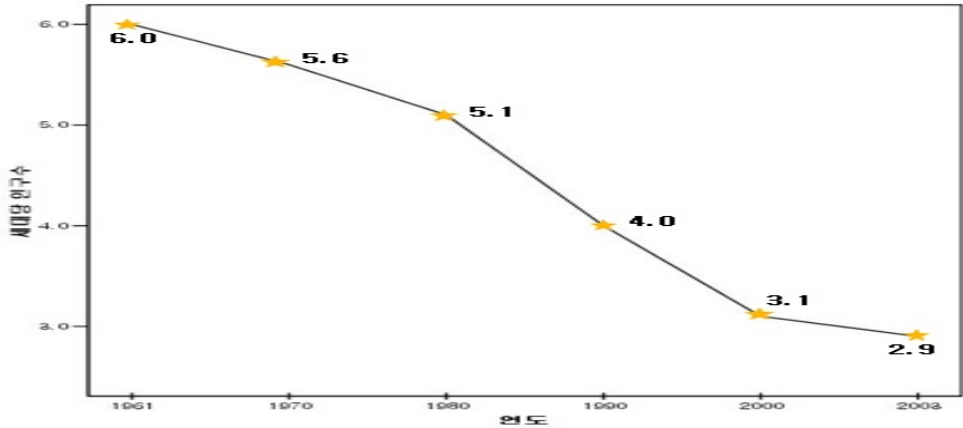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전라북도, 『2004년 전북통계연보』: 기획관실, 『주민등록인구통계보고서』

세대당 인구수는 출산률의 저하, 취업이나 취학을 이유로 한 가구원간의 분거현상, 1인가구의 증가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1980년 5.1명하던 세대당 인구수는 1990년 4.0명으로, 다시 2000년에는 3.0명으로 급속히 줄어들었으며, 2003년 현재 2.9명을 기록한다²¹⁾.

21) 지난 12월 28일 발표된 통계청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잠정 집계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평균가구원수는 2.9명이며, 전북의 경우 2.76명으로 집계되었다.

<그림 4-1> 세대당 인구추이 (1961-2003)



자료: 전라북도, 『2004년 전북통계연보』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기획관실, 『주민등록인구통계보고서』

한편 전북지역의 합계출산율은 2003년 현재 1.26명으로 전국평균 1.19보다는 높게 나타난다. 합계출산율은 1990년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1.5명-1.6명의 수준을 유지해왔으나, 2001년 1.4명으로 감소하였으며, 2002년 이래 계속 1.3명을 훨씬 밑돌고 있다.

<표 4-2> 합계출산률 (1997-2003, 전북)

(단위: 명)

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전북	1.64	1.61	1.52	1.58	1.41	1.26	1.26
전국	1.54	1.47	1.42	1.47	1.30	1.17	1.19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조사.

이러한 현상은 자녀교육의 경제적인 부담은 물론, 양육과 취업이 갈등하는 현실적 조건에서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는 최근의 일반적인 추세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보인다. 지역별로 비교해 볼 때 1.26명이라는 수치는 광주광역시나 강원도와는 같은 수준을 보이는 것이며, 전라남도나 충청지역보다는 낮은 편이다.

2. 인구구조와 분포

먼저 전북인구의 연령계층별 구성을 보면 2003년 현재 유년인구(14세이하)는 19.6%,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68.7%, 노령인구(65세이상)는 11.7%를 차지한다. 그러나 지역별 차이가 커서 군지역의 경우 노령인구와 유년인구는 10%이상 간격이 벌어지기도 한다. 성별로 보면 여성의 구성비는 2003년 현재 50.4%로 전국평균(49.8%)에 비해 약간 높다. 연령계층별 성비를 살펴보면 40대까지는 남성의 비율이 높지만 50대 이후로는 역전되어 지속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다. 85세 이상 인구에서 여성은 77.5%에 이른다.

<표 4-3> 연령별 인구구성비 (2003년)

(단위: 명, %)

5세 계급별	인구	남	여	성비
총계	1,954,430 (100.0)	970,288 (100.0)	984,142(100.0)	98.6
0-4세	111,898 (5.7)	57,913 (6.0)	53,985 (5.5)	107.3
5-9세	139,338 (7.1)	72,593 (7.5)	66,745 (6.8)	108.8
10-14세	133,505 (6.8)	69,546 (7.2)	63,959 (6.5)	108.7
15-19세	133,224 (6.8)	68,503 (7.1)	64,721 (6.6)	105.8
20-24세	167,503 (8.6)	89,847 (9.3)	77,656 (7.9)	115.7
25-29세	142,406 (7.3)	74,750 (7.7).	67,656 (6.9)	110.5
30-34세	155,098 (7.9)	80,098 (8.3)	75,000 (7.6)	106.8
35-39세	149,835 (7.7)	77,374 (8.0)	72,461 (7.4)	106.8
40-44세	157,001 (8.0)	79,879 (8.2)	77,122 (7.8)	103.6
45-49세	135,004 (6.9)	68,334 (7.0)	66,670 (6.8)	102.5
50-54세	105,657 (5.4)	52,442 (5.4)	53,215 (5.4)	98.5
55-59세	93,665 (4.8)	45,637 (4.7)	48,018 (4.9)	95.0
60-64세	100,548 (5.1)	45,036 (4.6)	55,512 (5.6)	81.1
65-69세	88,346 (4.5)	37,832 (3.9)	50,514 (5.1)	74.9
70-74세	63,064 (3.2)	24,703 (2.5)	38,361 (3.9)	64.4
75-79세	40,101 (2.0)	14,978 (1.5)	25,032 (2.5)	59.8
80-84세	24,520 (1.3)	7,714 (0.8)	16,806 (1.7)	45.9
85세 이상	13,818 (0.7)	3,109 (0.3)	10,709 (1.1)	29.0

자료: 전라북도, 『2004년 전북통계연보』 (외국인 제외): 기획관실, 『주민등록인구통계보고서』

여성의 인구에 대한 남성인구의 비율은 20대가 가장 높아서 20-24세 집단에서는 여성 100명당 남성은 115명, 25-29세 집단에서는 여성 100명당 남성 110명을 기록한다.

이처럼 젊은 연령집단에서 나타나는 성비격차는 80년대 이후 보다 확산된 적극적인 성 감별과 출산조절(여아낙태)과 관련이 있는 현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같은 해 전국평균의 성비보다도 훨씬 높은 것이어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인다(20-24세: 111.4, 25-29세: 100.9).

2003년도 전국의 출생성비는 여아 100명당 남아는 108.7명이다. 특히 출산순위가 셋째일 경우 그것은 무려 136.6명에 달한다(통계청, 2003년 출생·사망통계). 전북지역 전체아동의 출생성비 불균형은 여아 100명당 남아 106.3명을 기록하여 비교적 격차가 적다. 이러한 수치는 인천과 함께 전국 시도 중 가장 낮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울산·경남 등 일부 불균형이 심한 지역과는 약 9명 정도의 차이를 나타낸다.

<표 4-4> 출생성비 (전국, 전북, 울산, 경남)

(단위 : 여아 100명당 남아수)

	93	95	97	99	00	01	02	03
전 국	115.3	113.2	108.2	109.6	110.2	109.0	110.0	108.7
인 천	112.2	112.6	107.2	110.0	108.7	108.5	107.2	106.3
전 북	110.4	112.3	107.7	107.3	108.1	106.7	110.6	106.3
울 산	-	-	112.9	114.6	112.6	115.9	113.2	115.6
경 남	121.3	119.2	111.8	110.8	112.7	111.9	113.2	113.7

자료: 통계청, “2003년 출생·사망 통계요약” (통계청, 2003년 인구동태조사)

그러나 이와 같은 상대적으로 적은 성차를 곧바로 여아와 남아에 대한 평등한 태도로 연결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태아성별의 의학적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이것은 경제적 요인과의 관련이 있는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3. 외국인 인구

2003년 현재 전북지역의 외국인인구는 8,437명으로 나타난다. 이는 1997년의 5,773명에 비하면 숫적으로는 2,664명이, 비율상으로는 46%가 증가한 수치이다. 8,437명 중 남자는 4,065명이고 여자는 4,372명으로 여자가 약간 많다(『2004 전북통계연보』). 지역별로는 익산시가 2,298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전주 1,555명, 군산 1,226명의 순이어서 도시, 공단을 중심으로 한 취업기회가 외국인 인구의 유입을 불러왔음을 알 수 있다.

<표 4-5> 시군별 외국인등록현황 (2003년)

(단위: 명)

구 분	계	남	여
합 계	8,437	4,065	4,372
전주시	1,555	571	984
군산시	1,226	686	540
익산시	2,298	1,165	1,133
정읍시	724	361	363
남원시	329	115	214
김제시	629	426	203
완주군	575	363	212
진안군	198	93	105
무주군	69	18	51
장수군	134	47	87
임실군	160	79	81
순창군	111	12	99
고창군	239	73	166
부안군	190	56	134

자료: 전라북도, 『2004년 전북통계연보』 (기획관실, 『주민등록인구통계보고서』)

외국인의 국적별로는 중국이 가장 많은 3,420명이다. 그러나 성차가 있는데, 남성

의 경우에는 중국이 1,432명으로 가장 많은 35.2%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이 각기 8.2%씩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중국이 1808명으로 중국국적의 남성수에 비해 훨씬 많을뿐더러, 여성 내부적으로도 전체의 41.4%라는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한다. 그리고 그 다음이 필리핀 국적이 13.7%, 일본 국적이 12.8%를 차지하는 등 남성과는 차별성을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외국여성인구의 유입은 취업 외에, 결혼을 계기로 하고 있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본문 5장 2절 국제결혼가정 참조).

<표 4-6> 국적별 외국인등록현황(2003, 전라북도)

구 분	계	남	여
합 계	8,437	4,065	4,372
중 국	3,420	1,432	1,808
필리핀	934	333	601
일본	605	45	560
베트남	462	257	205
인도네시아	415	335	80
미국	305	185	120
캐나다	154	97	57
태국	145	94	51
영국	32	22	10
독일	17	11	6
프랑스	5	5	-
기 타	2,123	1,249	874

자료: 전라북도, 『2004년 전북통계연보』 (기획관실, 『주민등록인구통계보고서』)

제 2 절 가족형태

이 절부터는 가족형태를 시작으로, 가족관계, 가족가치관, 가구경제 등 가족관련 주요주제들을 하나 하나 통계적 추이를 짚어보면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오늘날 한국가족의 특징을 단적으로 가장 잘 드러내주는 양적 통계는 바로 가족형태라고 할 수 있다.

2000년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세대별 “가구수”를 볼 때 가장 많은 것은 2세대 가구(60.8%)이며, 그 다음이 1인가구(15.5%), 1세대가구(14.2%)의 순으로 나타난다²²⁾. 이것은 구성비상의 변화로 보면 1995년보다 1인가구는 2.8%, 1세대가구는 1.5%가 높아진 것이지만, 증가속도상으로 보면 1인가구의 증가율은 35.4%에 달하며, 1세대가구의 증가율은 24.0%이다(2세대가구는 6.0% 증가). 지역별로 볼 때 읍면지역의 1인가구 구성비는 18.9%로 동지역(14.6%)보다 높다. 이처럼 읍면지역에서 1인가구가 많은 것은 5가구 중 1가구가 노인단독가구인 것과 같은 노령화현상과 관계있으며, 도시의 1인가구는 주로 취업이나 취학을 이유로 이동한 젊은 층으로 구성되는 특징을 보인다. 1세대 가구 중 부부가구는 특히 50-59세 및 60-69세 연령집단에서 높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결혼한 자녀가 분가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그러나 “가구”구성이 아닌 “인구”구성으로 볼 때 가족형태는 아래와 같은 변화를 보인다. 먼저 전국의 인구를 가족형태별로 분류하면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핵가족의 비율은 52.8%로 나타난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은 부부만 사는 1세대 부부가족으로 11.1%를 차지한다. 그리고 부부와 자녀, 그리고 노부(모)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3세대가족은 10.3%로 나타난다. 전북인구 중 1인가구로 사는 비율은 5.7%이며, 한부모가족은 6.6%(편모가족 5.4%)를 기록한다.

22) 통계청, 2000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결과(가구·주택부문) 보도자료.

<표 4-7> 인구수별 가족형태의 변화(1995, 2000, 전북, 전국)

(단위 : %)

가족형태		전북1995	전북2000	전국1995	전국2000	
1세대	부부가족	8.9	11.1	10.8	7.9	
	기타	1.1	1.3	1.8	2.1	
2세대	부부+자녀		53.4	52.8	50.4	58.9
	편부모 가구	편부가구	1.1	1.2	1.3	1.3
		편모가구	5.3	5.4	6.1	5.3
	기타*		6.5	6.2	5.5	5.5
3세대	부부+자녀+부(모)	12.5	10.3	6.8	9.3	
	기타	5.4	4.7	3.0	4.1	
4세대 이상		0.5	0.4	0.2	0.3	
1인가구		4.3	5.7	12.7	5.0	
비혈연가구		1.0	0.9	1.4	0.9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보고서』 1995, 2000.

*2세대 기타는 부부+편부모, 조부모+손자녀 등.

전국평균(2000년)과 비교해 볼 때 전북의 경우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핵가족의 비율은 약 6%나 적게 나타나며(58.9% : 52.8%), 대신 1세대 부부가족은 3.2%가 많고, 조부모와 함께 사는 3세대가족과 1인가구의 비율도 조금 높게 나타난다. (각기, 10.3% 5.7%) 핵가족 비율이 낮은 대신 3세대 비율이 높은 것은 농도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1세대, 1인가구의 비율이 높은 것 역시 농촌지역에 노부부가구, 노인단독 가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분포한 것과 같은 농촌인구의 노령화현상과 관련이 있으리라 보인다. 이외에도 취업이나 취학을 이유로 부모와 자녀세대가 각기 노부모/형제자매/1인가구로 분거하는 경우가 타지역보다 높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조부(모)와 손자(녀) 등으로 구성된 “2세대 기타” 유형의 가족이 전국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은 부부의 경제문제나 이혼 등으로 농촌의 조부(모)가 손자(녀)의 부양을 맡고 있을 가능성도 말해주고 있다.

1995년과 비교하여 전북지역의 가족형태 상에는 전반적으로 커다란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전형적 핵가족의 비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53.4%--> 52.8%), 3세대 확대가족은 2.2%가 감소하여, 3세대가 지속적으로 축소해가는 경향을 반영한다. 이에 비해 1세대 부부가족은 2.2%, 1인가구도 1.4% 증가하였다²³⁾.

제 3 절 가족관계 : 부부관계와 세대관계

전북 지역의 최근 가족관계, 가족가치관의 실태와 변화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본 보고서는 통계청이 실시한 <사회통계조사>의 전국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사회통계조사>는 1998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가족·복지·노동”영역을 조사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자료는 그 중 “가족”부분으로, 여기에는 부모부양의 현황과 태도, 결혼과 이혼에 대한 태도, 배우자와의 관계 및 가정생활만족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위의 자료는 전북지역의 가족변화의 양상과 함께, 전북과 전국을 비교함으로써 전북지역 가족관계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되어 채택되었다.

1. 부부관계

1) 부부만족도

전반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전북 지역 부부의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이 62%, 보통이 32%, 불만족이 6%로 나타나는데 이는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높은 수치이다. 이는 전북지역의 농촌인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전국적으로도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의 만족도 평균값이 조금 높은 경향과도 일치한다.

23) 그러나 전국적인 양상은 이와는 좀 다르다. 위의 표에서처럼 지난 5년간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핵가족의 비율은 약 8%정도나 급증하여서 핵가족화의 경향을 뚜렷이 보이고 있는 점이나, 이에 비해 1인가구와 부부가족의 비율은 감소한 점을 들 수 있다. 1인가구의 감소현상(약 7%)은 청년실업 등 고용불안정으로 인해서 1인가구를 꾸리지 못한 채 가족과 동거하는 청년층의 비중이 늘어난 것이 한 원인이라고도 해석해볼 수 있으며, 부부가족의 감소(3%) 역시 만혼경향으로 결혼에 진입하지 않는 인구층이 증가한 것과는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전국적으로 볼 때 가구를 구성하는 인구수 면에서 1인가구나 부부가족의 비율이 감소한 것에 비해 전북지역의 증가현상은 농촌에서의 노인단독가구나 노부부가구의 증가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4-8> 배우자 만족도 (2002년, 전국, 전북)

(단위: %)

지역별	만족	보통	불만
전국	60.3	31.8	7.8
전북	61.9	32.2	5.9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2002년.

학력별로는 대졸이상자의 만족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서 월등히 높게 나타나서 74%의 응답자가 만족을 표시한 반면 고졸은 64.0%, 중졸은 55.6%로 나타나는 등 학력별로 약 10%씩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학력별 차이는 소득의 차이와도 관계가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가 높고, 40대 50대가 비슷하게 낮으며, 오히려 60대 이상에서는 다시 약간 상승하는 결과를 보인다. 이것은 자녀를 결혼시키고 난 후 빈둥지세대가 된 노부부들이 서로를 의지하게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혹은 서로를 잘 알게 된 부부들이 갈등을 피해가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9> 배우자 만족도의 학력별, 연령별 분포 (전북)

(단위: %)

구분		만족	보통	불만
학력별	초졸이하	55.7	38.5	5.8
	중졸	55.6	35.2	9.3
	고졸	64.0	30.3	5.7
	대졸이상	74.1	22	4
연령별	15-19세	-	-	-
	20-29세	72.9	25.9	1.2
	30-39세	69.0	24.2	6.8
	40-49세	57.8	34.2	8
	50-59세	57.3	37.1	5.6
	60세이상	59.6	36.2	4.2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2002년.

그러나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는 성별로도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여성의 경우 불만족의 비율은 거의 10%에 육박하고 만족도도 56%로 남성에 비해 10% 이상이 떨어진다. 아래의 표에서처럼 이러한 성별격차는 전국통계에서도 공통적인 현상이다.

<표 4-10> 배우자 만족도의 성별차이(전북, 전국)

(단위: %)

구분		만족		보통		불만	
		전북	전국	전북	전국	전북	전국
성별	남성	67.2	65.6	30.1	29.4	2.7	4.7
	여성	56.5	55.5	34.3	34.2	9.2	10.0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2002년.

이러한 성별 차이는 부부간의 적극적인 의사소통노력을 필요로 하는 문제이다. 최근 여성가족부(이전 여성부)의 지원으로 사회단체들이 평등가족 만들기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04년 전북여성단체연합은 예비부부와 결혼초기부부를 대상으로 평등부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갈등중재와 협상훈련과 같은 기술적인 부분은 물론, 남녀간의 차이에 대한 이해, 양계가족문화 구축하기, 관계맺기를 위한 역량 키우기, 평등을 향한 전략과 미래설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여성부, 2004)²⁴⁾. 2002년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이 공무원, 여성단체활동가, 교수 등 전문가 집단(36명)을 대상으로 필요한 여성정책을 묻은 결과, 가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평등한 가족관계·가족문화의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준비 등이 지적된 바 있다(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 2002).

2) 가사노동 분담

가사노동은 전국과 전북을 통틀어 약 90%의 여성들이 여성이 “책임지고” 있다(설문문항은 “주도한다”임). 전북의 경우 전체 가정에서 부부가 가사노동을 공평히 분담하는 가정은 7.1%이다.

24) 여성부 2004, 『평등가족 실천교육 운영보고서: 광주·호남권』.

<표 4-11> 사회통계조사-가사분담 실태 조사 (부부 중 부인만 조사)

(단위: %)

	조사년도	부인이 주도	공평 분담	남편이 주도	해당없음
전국	1998	90.8	5.7	2.2	1.3
	2002	88.9	8.1	3	-
전북	1998	92.5	5.1	2.3	0.2
	2002	89.7	7.1	3.2	-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998, 2002년.

그러나 지난 4년간의 변화를 볼 때 공평분담의 비율이 미약하나마 상승하는 긍정적인 양상을 보인다. 즉 전북과 전국 모두에서 부인이 주도하는 경우는 약간 줄어든 반면, 공평하게 분담하는 경우는 약간 증가하였다.

한편 학력별, 연령별 차이를 볼 때 가사노동분담 실태에서 학력차이는 없으나 연령차이는 많이 난다. 30대 이상 집단에서는 거의 공통적으로 약 70% 정도가 부인이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0대 후반, 20대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20대의 경우는 부인이 주도(48.7%)와 공평하게 분담(49.0%)이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표 4-12> 가사노동 분담의 학력별, 연령별 실태 (2002년, 전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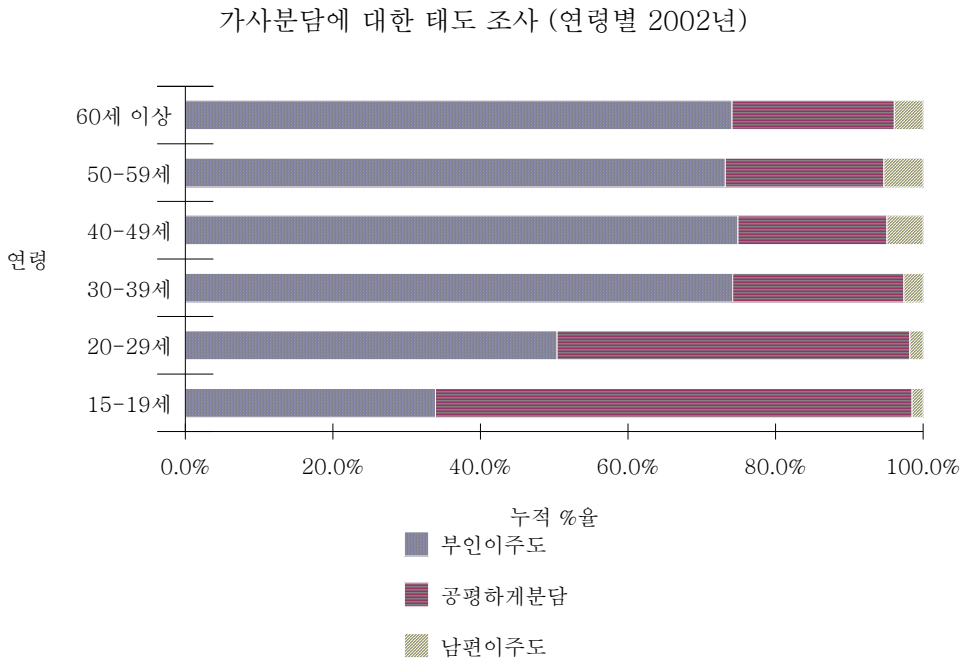
(단위: %)

구분		부인이 주도	공평하게 분담	남편이 주도
합계		64	32.3	3.7
학력별	초졸이하	69.3	27.5	3.2
	중졸	55.7	40.1	4.2
	고졸	63.9	32.2	3.9
	대졸이상	62.6	33.9	3.5
연령별	15-19세	30.7	67.8	1.5
	20-29세	48.7	49.0	2.3
	30-39세	69.6	26.3	4.1
	40-49세	71.4	23.0	5.6
	50-59세	70.7	25.4	3.9
	60세이상	74.1	22.2	3.6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2002년.

연령별 차이는 아래의 그림에서처럼 30대이상 집단과 그 아래 집단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세대차이를 강하게 드러낸다. 즉 30대에서 60대미만의 경우 공통적으로 부인책임의 비율이 70-71%수준이었으며, 60대이상에서도 74%정도를 나타낸다. 이에 비해 20대 부부의 부인책임률은 20%이상이 낮다.

<그림 4-2>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 조사(연령별 2002년)



여기서도 1998년 조사와 비교해 볼 때 변화의 조짐은 확실히 보인다. 특히 다른 집단과 달리 20대의 집단에서는 공평분담의 비율이 32%에서 49%로 급증하였다. 이는 전국통계와도 거의 똑같은 현상인데 전국적으로도 20대 부부의 가사노동 공평분담비율은 같은 기간에 31.9%에서 47.8%로 급증하였다. 이러한 변화현상 역시 30대이상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으로 이들 세대의 가족의식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3> 20대 부부의 가사분담 실태의 변화 (1998년, 2002. 전복)

(단위: %)

구분	부인이 주도	공평분담	남편이 주도
1998	66.9	31.9	1.5
2002	48.7	49.0	2.3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998, 2002년.

3) 아내구타

부부관계에서 불평등성을 가장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가 바로 아내구타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정폭력이 적극적으로 조사되기 시작한 1990년대 이래 가정폭력, 정확히는 ‘남편폭력’ 경험률은 대체로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1999년 한국여성개발원의 조사에서는 여성응답자 418명 중 36%가 남편에게 구타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도 사단법인 <전주여성의 전화>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지역의 기혼여성 9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38%가 남편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연령과 교육수준별로 구타경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응답자가 고연령일수록, 저학력일수록 아내구타가 많이 발생하였다.

<표 4-14>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른 구타당한 경험의 차이

(단위: %)

구타경험	연령				학력		
	30대미만	30대	40대	50대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있다	17.6	35.1	44.3	46.9	50.7	42.9	26.0
없다	82.4	64.9	55.7	53.1	49.3	57.1	74.0
통계	p<.001				p<.001		

출처: 정혜정 2000, “전북지역 가정폭력 실태와 가정폭력특별법 인지 및 활용도 조사”
전북지역 현황보고 및 대안마련을 위한 대토론회, 사단법인 전주 여성의 전화.

전주여성의 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담자료에 따르면 2003년 상담 총 525건 중 218건이 가정폭력상담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는 신체적 폭력이 18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등도 포함되었다.

<표 4-15> 아내폭력 가해자의 연령별, 학력별 특성

(단위: 명, %)

계	연 령						학 력				
	20세 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초등학교 이하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이하	전문대 이하	대졸 이상
221	1 (0.4)	27 (12.2)	92 (41.6)	60 (27.1)	33 (14.9)	8 (3.6)	7 (3.2)	39 (17.6)	80 (36.2)	48 (21.7)	47 (21.3)

출처: 정혜정 2000, 상동.

이 자료에 의하면 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많고, 학력별로는 고졸자가 가장 많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아내구타를 폭력으로 인지하고, 상담 등의 활동을 통해 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 집단이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 고학력자에서 더 많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도 풀이될 수 있다.

2. 세대관계

1) 자녀와의 관계

부모의 자녀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이나 전북이나 약 70%정도의 부모들이 자신의 자식들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반면 불만족의 비율은 3-4%의 수준에 머물렀다.

<표 4-16> 자녀에 대한 만족도 (2002)

(단위: %)

구분	만족	보통	불만
전국	69.1	26.6	4.3
전북	71.6	25.3	3.1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2002년.

그러나 출산률이 저하되고 자녀수가 감소하는 한편으로 입시위주의 교육부담이 증가하면서 개별 자녀에 대한 물질적 투자와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이러한 현상

은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하는데, 한 신문기사에 의하면 전주지역의 일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 한 명당 월 평균 21만원을 훨씬 웃도는 학원비 등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신동 S초교 전교생 1,522명 조사. 『새전북신문』 2005년 4월 19일).

2) 노부모와의 관계

노부모와의 만족도는 자녀에 대한 것보다는 낮아서 2002년 현재 부모에 대한 만족도에서 만족이 60.9%, 보통이 34.3%, 불만족이 4.8%로 나타난다. 그러나 배우자의 부모에 만족도를 성별로 보면 차이가 있는데, 여성들의 시부모에 대한 불만족의 비율(12.1%)은 남성들의 처가에 대한 불만족(3.9%)에 비해 보다 높다. 이는 부계중심의 가족제도가 갖는 불평등성으로 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표 4-17> 부모(배우자부모)에 대한 만족도의 성별비교 (전북, 2002)

(단위: %)

구 분	자기부모			배우자의 부모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여 성	60.8	34.5	4.6	43.0	44.9	12.1
남 성	60.9	34.2	4.9	49.1	47.0	3.9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2002년.

이러한 점은 경제적 이유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002년도 조사결과 부모의 실제적인 생계부양자는 장남을 포함, 자녀들인 경우가 약 60%이고, 스스로 해결하는 비율은 40%여서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능력의 취약성을 보여준다. 특히 전북지역에서는 부모의 생계를 노인 “스스로” 해결하고 있는 비율은 전국평균 46.3%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진 39.9%를 기록한다.

<표 4-18> 부모생계 부양자 조사

(단위: %)

	조사년도	장남	자녀	스스로	기타
전국	1998	27.0	31.0	41.6	0.2
	2002	22.7	30.6	46.3	0.5
전북	1998	26.1	33.4	40.0	0.5
	2002	23.5	36.2	39.9	0.5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998, 2002년.

그러나 점차 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이 변화하면서 위의 표에서처럼 장남만이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간에 분담하여 부모님의 생계를 지원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1998년 33.4%→ 2002년 36.2%). 이것은 전반적으로 장남으로 이어지는 부계직계가 족제도의 약화, 가족의식의 민주화와 관계되어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학력별로는 응답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부모님은 스스로 부양을 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부모의 경제적 지위의 세대적 재생산의 양상을 보여주는 한 지표일 수 있다.

<표 4-19> 부모부양 실태의 학력별 차이 (전북, 2002)

(단위: %)

구분	장남	자녀	스스로	기타
초졸이하	46.7	32.2	19	2.1
중졸	26.2	40.6	33.2	-
고졸	22.3	36.4	41.3	-
대졸이상	12.3	35.2	51.8	0.7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2002년.

제 4 절 가족가치관

가족가치관의 변화는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급속히 변화한다. 아래의 두 사례는 핵가족화와 개인주의적 의식의 확산으로 인한 새로운 풍속을 잘 드러내고 있다.

대학을 졸업한 뒤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김**씨(28, 전주시 송천동)는 지난해 분가해 혼자 살고 있다. 서신동에 부모가 계시지만, 독립을 선언했다. 분가 후 식사와 빨래 등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번거로움에도, 부모의 눈치나 간섭을 받지 않아 혼자만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끼니나 거를까 염려하며 결혼할 때까지만이라도 함께 살자는 어머니의 성화가 가끔씩 있기는 하다. 그러나 김씨는 부모가 계시는 집을 자주 드나들며 가족간 정을 확인하고, 서로를 아껴주는 마음을 간직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출처: “기획특집: 우리시대 가족은” 『전북일보』 2004. 5. 11).

위의 사례에서는 가족보다는 개인의 삶의 편의성과 독립성을 보다 추구하는 젊은 세대의 생활양식이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에 비해 아래의 사례에는 핵가족화 경향, 가족의식의 축소변화를 아쉬워하는 40대 이후 한 남성의 가족가치관이 반영되어 있다.

5남 2녀의 막내인 회사원 이**씨(47, 전주시 효자동)는 포항에 사는 둘째 형네 조카 얼굴들을 떠올리기가 쉽지 않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적에는 한 해 명절때라도 함께 모이는 자리가 있었으나, 7년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조카들과의 교류가 뚝 끊겼기 때문이다. 전주에 사는 큰 형 집에서 대소사를 치르지만, 어느 때부터인지 형제들의 왕래가 드물어지고 조카들을 대동하는 일이 점차 줄어들어 가는 것에 이씨는 영 마음이 편치 않다. 자신이 어려서 1년에 꼭 한 두 번씩 서울과 포항 등에 사는 형님과 누님 맥 등을 오갔던 때를 떠올리면 이씨는 그시절이 그렇게 그리울 수 없다. 학교 시험 때문에, 친구들과 약속 때문에, 몸이 아파서 등등의 이유로 몇 년째 조카들을 대동하지 않는 형님 내외가 아쉬하기도 하다. 자신이 자랄 때에 비해 지금은 교통여건도 훨씬 편리해서 1일 생활권이 됐음에도 가족간에 오히려 더 거리감이 생긴 현실이 이씨는 안타깝기만 하단다(출처: 상동).

이러한 가족가치관의 변화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결혼에 대한 태도변화, 이혼에 대한 태도변화, 그리고 노인부양에 대한 태도변화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최근 정책적으로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의 가속화(2005년 1.16명)를 둘러싸고 그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공존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족가치관, 특히 결혼의 의미와 필요성 등에 대한 태도가 많이 변화한 점이 지적되곤 한다. 이 절에서는 가족가치관 중에서도 변화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결혼과 이혼에 대한 태도를 살펴볼 것이다. 이와 함께 노인부양에 대한 태도변화를 알아보는데, 이는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지금껏 가정에서 책임져왔던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개입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사회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1. 결혼에 대한 태도

결혼에 대한 태도는 지난 4년간 매우 커다란 변화를 보였다. 1998년 전체의 39.6%가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응답했던 데 반해, 2002년 그것은 30.4%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전북지역의 태도는 전국평균에 비해서는 다소 보수적인 경향을 보이는 편이다. 2002년 전국적으로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에 대해서 25.6%만이 그렇다고 대답한 반면, 전북에서는 30.4%가 그렇게 대답하였다.

<표 4-20> 결혼에 대한 태도의 변화 1998-2002 (전국, 전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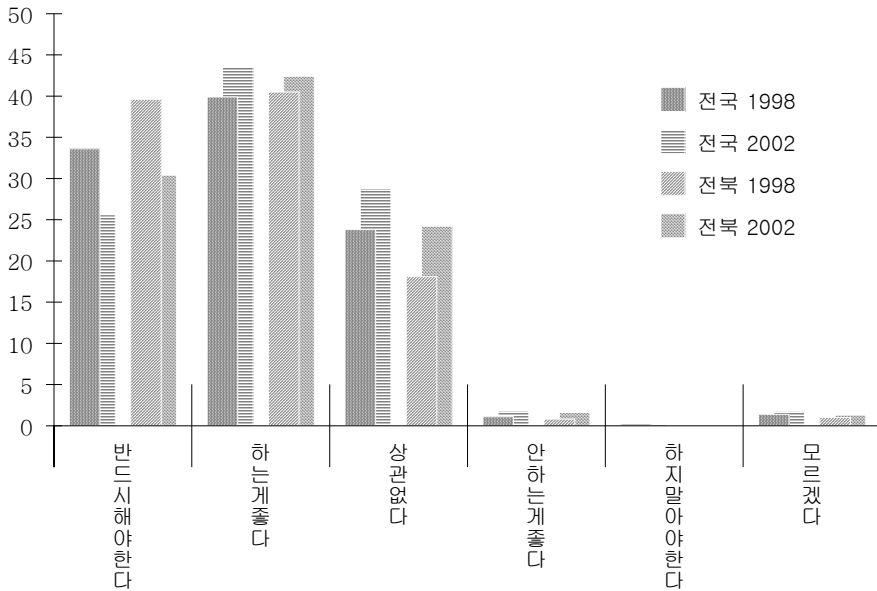
(단위: %)

	조사년도	반드시 해야한다	하는 게 좋다	상관없다	안하는 게 좋다	하지 말아야한다	모르겠다
전국	1998	33.6	39.9	23.8	1.1	0.2	1.4
	2002	25.6	43.5	28.8	1.8	0.2	1.7
전북	1998	39.6	40.5	18.1	0.8	0.1	1
	2002	30.4	42.4	24.2	1.6	0.1	1.3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998, 2002년

그러나 전국, 전북을 막론하고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입장은 8~9% 정도씩 감소하고 있어 변화의 경향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에서처럼 전국·전북에서 모두 반드시 해야한다라는 의견은 감소한 반면, 상관없다라는 태도는 증가한 모습을 보인다.

<그림 4-3> 결혼에 대한 태도 조사(연도별/지역별)



그러나 학력별, 연령별 차이가 커서 고졸이상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간 차이가 벌어졌고, 50대 이상 집단과 그 미만 집단과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아래의 표에서처럼 특히 성별 차이는 큰데, 여성들은 결혼을 “하는 게 좋다”라는 응답은 적은 반면(여자 37.8%, 남자 47.3%) “상관없다”라는 응답은 훨씬 높았다(여자 30.0%, 남자 17.9%). 이러한 결과는 한국사회에서 결혼이 여전히 가부장적 제도라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전통사회에서처럼 결혼이 개인의 선택 이전의 하나의 사회제도로서 부과되는 시대는 지났으며, 이제 결혼은 자신의 삶의 질을 고려한 개인적인 선택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결혼이 보다 민주적인 관계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결혼에 대한 부정적 태도, 만혼과 이혼의 경향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21> 결혼태도의 성별, 학력별, 연령별 차이 (전북,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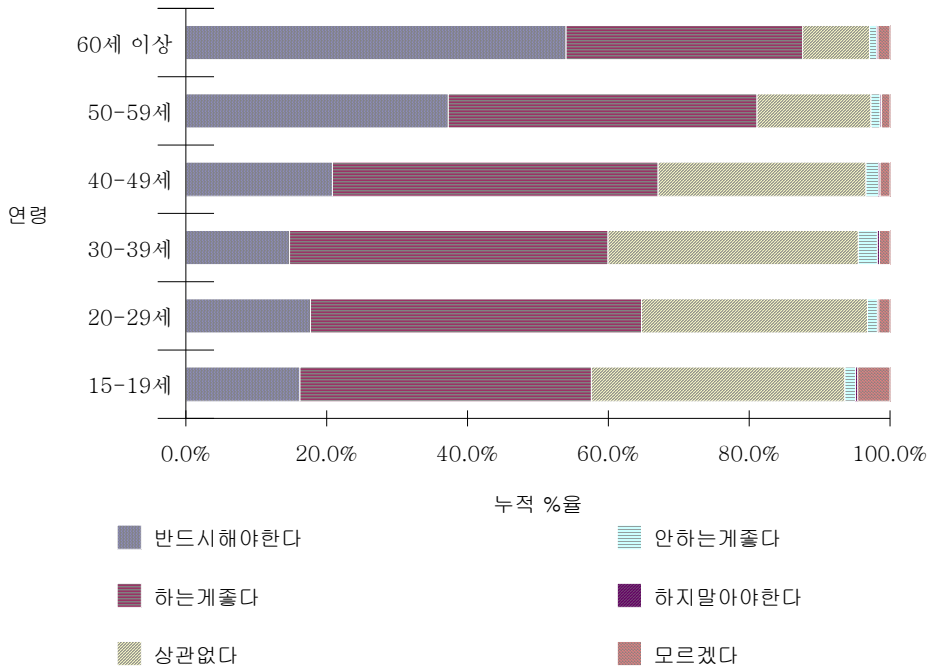
(단위: %)

구분		반드시 해야한다	하는 게 좋다	상관없다	안하는 게 좋다	하지말아야 한다	모르겠다
합 계		30.4	42.4	24.2	1.6	0.1	1.3
성별	남성	32.8	47.3	17.9	0.6	0.1	1.2
	여성	28.2	37.8	30.0	2.5	0.2	1.3
학력별	초졸이하	50.5	35.2	11.9	1.0	-	1.3
	중졸	27.7	43.2	24.4	2.2	-	2.6
	고졸	19.9	44.8	31.9	2.2	0.2	1
	대졸이상	19.7	49.5	29.5	0.8	0.3	0.2
연령별	15-19세	16.5	44.3	33.9	1.1	-	4.1
	20-29세	17.9	45	35.4	0.3	0.3	1.1
	30-39세	15.0	46.3	33.9	3.8	0.4	0.7
	40-49세	24.5	45.7	27.0	1.5	-	1.4
	50-59세	40.5	45.5	11.6	1.7	-	0.6
	60세이상	58.0	31.4	8.6	1	-	1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2002년.

위의 표 중에서 특히 결혼을 앞둔 20대의 결혼관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대 중에서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1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없다”라고 하는 응답도 35.4%에 이른다. 전반적으로 성차가 있음을 감안한다면 20대 여성에 국한할 경우 이러한 경향은 더욱 높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림 4-4> 결혼에 대한 태도 조사(연령별 2002년)



2. 이혼에 대한 태도

결혼에 대한 태도가 비교적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혼에 대한 태도는 그리 커다란 변화를 보이지는 않는다. 2002년 현재 이혼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라는 의견이 18.6%로 나타났으며, 다만 “경우에 따라 다르다”라는 의견만 조금 증가하여 이혼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고려해볼 수 있는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표 4-22> 이혼에 대한 태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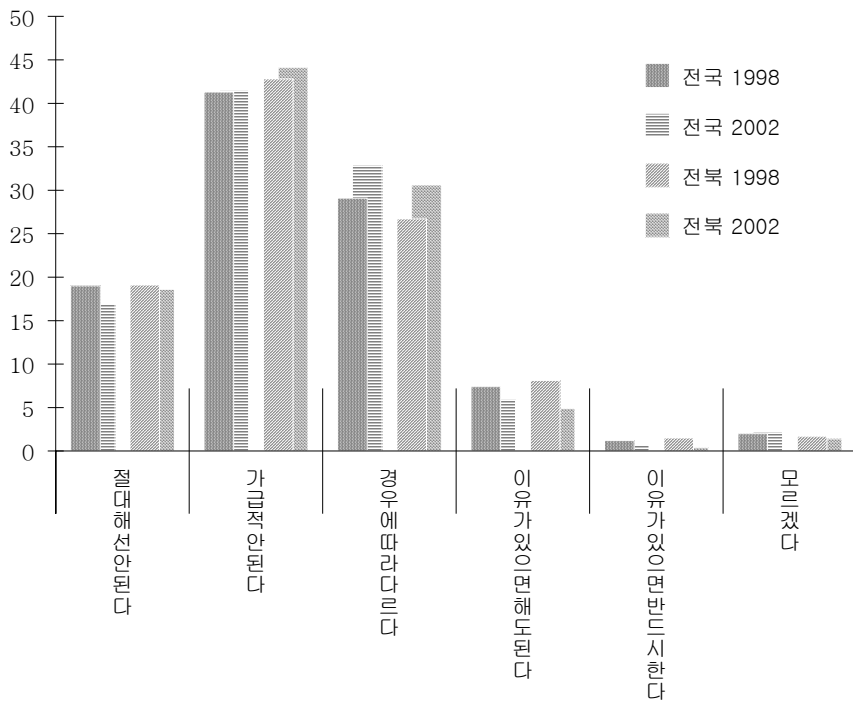
(단위: %)

	조사년도	절대해선 안된다	가급적 안된다	경우에 따라 다르다	이유가 있으면 해도된다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한다	모르겠다
전국	1998	19.0	41.3	29.1	7.4	1.2	2
	2002	16.9	41.5	32.9	5.9	0.7	2.2
전북	1998	19.1	42.8	26.7	8.1	1.5	1.7
	2002	18.6	44.1	30.6	4.9	0.4	1.4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998, 2002년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이혼의 실질적인 증가율의 증가와는 대조적이라 주목을 끄는데 이혼을 해야만 한다고 판단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해석이 이전보다 덜 전통적으로 변화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실제로 전북지역의 이혼률은 태도변화의 완만성에 비해서는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본 보고서 5장 1절. 한부모 참조).

<그림 4-5> 이혼에 대한 태도 조사(연도별/지역별)



이혼에 대한 태도를 성별, 학력별, 연령별로 나누어 볼 때 남성보다는 여성이 훨씬 이혼에 대해서 관대했으며, 학력별로는 초졸이하와 그렇지 않은 집단의 차이가 두드러지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절대 해선 안된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표 4-23> 이혼에 대한 태도의 성별, 학력별, 연령별 차이(전북,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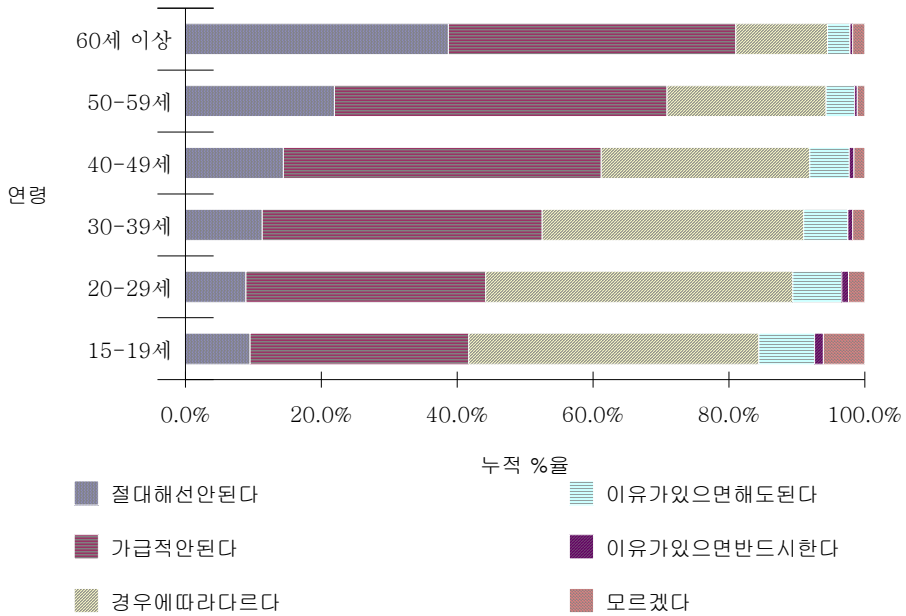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절대해선 안된다	가급적 안된다	경우에 따라 다르다	이유가 있으면 해도된다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한다	모르겠다
합계		18.6	44.1	30.6	4.9	0.4	1.4
성별	남성	19.2	48.2	26.9	3.6	0.4	1.7
	여성	18.1	40.3	34.0	6.1	0.4	1.1
학력별	초졸이하	31.7	46	18.0	2.5	0.3	1.5
	중졸	15.7	41.6	32.7	6.8	0.6	2.6
	고졸	12.4	44	36.4	5.8	0.5	0.8
	대졸이상	11.3	42.9	38.8	5.7	-	1.2
연령별	15-19세	10.0	29.1	46.9	10.2	0.7	3.1
	20-29세	9.7	32.1	48.8	7.1	0.4	1.9
	30-39세	10.1	47.2	35.8	5.7	0.2	0.9
	40-49세	14.6	51.6	28.0	3.4	0.8	1.6
	50-59세	22.3	51.6	21.6	3.4	0.2	0.9
	60세이상	37.5	45.8	13.0	2.7	0.1	0.9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2002년.

다른 가족가치관에서와 마찬가지로 이혼에 대한 태도 역시 연령별 차이가 큰데 특히 20대의 경우 가장 높은 응답이 “경우에 따라 다르다”(48.8%)이고, 그 다음이 “가급적 안된다”(32.1%)로 나타나서, 30대와도 커다란 격차를 보인다. 지난 4년간의 변화도가파라서 이러한 태도는 이전에 비해 약 10%가 상승한 것이다(98년 37.8%). 이와 같은 경향은 전국평균 20대집단의 응답결과에서도 비슷하게 발견된다.

<그림 4-6> 이혼에 대한 태도 조사(연령별 2002년)



그러나 2002년의 전북지역 조사에 따르면 기혼여성 응답자 811명 가운데 “이혼을 생각해 본” 경우는 4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승주, 2002). 복수로 응답한 답변들을 묶어보면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성격/습관의 차이(22.0%)였으며, 그 다음이 경제적 문제 (15.1%), 시댁/처가문제(14.8%), 배우자의 폭력이나 억압(9.6%), 서로에 대한 애정이 없어서(8.2%), 배우자의 음주나 도박 등 (7.9%), 그리고 원만치 못한 성생활 (5.5%), 외도(5.2%) 등으로 나타났다(한승주, 앞글: 41). 배우자의 외도나 구타 등 전형적인 문제 외에도, 성격이나 습관의 차이, 애정없음 등 다양한 이유들이 문제시되었는데 이러한 점은 실제로 이혼시도의 사유가 다양화하는 최근의 경향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참고로 재판이혼의 전 단계에 거치는 “가사조정”심판을 분석한 한 연구를 보면, 이혼제기 사유는 성별로 매우 상이하며 성역할태도와 관련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이재경, 2003). 먼저 부인이 제기하는 이혼사유는 폭언, 폭행 등 남편의 부당한 대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30.1%), 그 다음으로 주벽·외박(12.5%), 가장역할 등 성역할 소홀(8.8%), 부정행위(8.4%), 의처증(5.6%), 시댁의 부당한 대우(5.2%) 등이었다. 한편 남편이 제기하는 사유는 (부인의) 음주·늦은 귀가·단정치 못한 행동이 가장 높으며(17.9%), 그 다음으로 유기·가출(16.3%)²⁵⁾, 성역할 소홀(15.7%), 부정행위(8.5%), 자기 부모에 대한 부당한 대우(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이재경, 2003: 188). 즉 여성들은 남편의 폭언이나 폭행을 결혼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로 생각하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비해 남편들은 부인의 음주나 늦은 귀가, (식사 준비 같은) 성역할 소홀 등 소위 ‘내내 본연’의 역할에 충실치 못한 것을 문제시하는 등 전통적 부부역할 모델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부부 간에 기대하는 역할관이나 그 변화속도가 큰 점이 이혼증가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한다(이재경, 앞글).

3. 부모부양에 대한 태도

부모님의 부양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의식보다는 가족부양의 가치가 높아서 77.1%를 차지한다. 그러나 자녀 중에서 장남이 부양해야 된다는 의식은 10% 정도가 감소한 반면, 대신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식이 증가하여 15.9%를 차지한다. 그렇지만 전국적 평균치에 비해 볼 때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식은 낮고, 자녀책임의 의식은 높은 편이다.

<표 4-24> 노인부양에 대한 태도 조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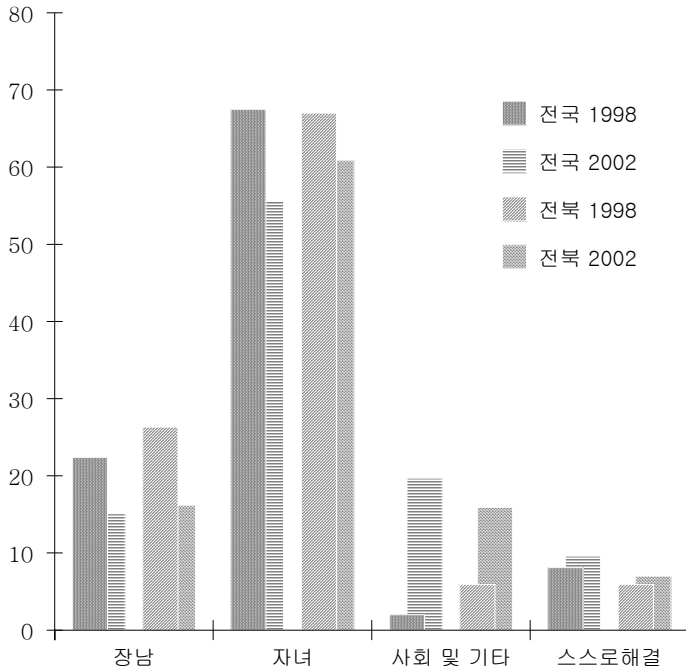
	조사년도	장남	자녀	사회 및 기타	스스로해결
전국	1998	22.4	67.5	2.0	8.1
	2002	15.1	55.6	19.7	9.6
전북	1998	26.3	67.0	5.9	5.9
	2002	16.2	60.9	15.9	7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998, 2002년.

25) (부인의) 유기·가출은 많은 경우 남편의 폭행이 원인이다.

아래 그림에서처럼 자녀가 함께 분담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압도적인 가운데, “사회 및 기타”의 책임에 대한 의식이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국의 일반적인 경향에 비해서는 전북지역은 상대적으로 그 증가속도가 미약한 편이다.

<그림 4-7> 노인부양에 대한 태도의 지역별 차이의 연도별 변화



그러나 부양태도는 학력별, 연령별로 많이 차이가 나서 대졸이상은 9.8%만이 장남이 책임져야한다고 대답했고, 초졸이하는 27.4%가 그렇게 생각했다. 특히 연령별 차이가 커서 20대응답자는 9.5%만이 장남책임이라고 답한 반면 60세 이상에서는 30.5%가 장남이 부양해야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4-25> 노인부양에 대한 태도조사 200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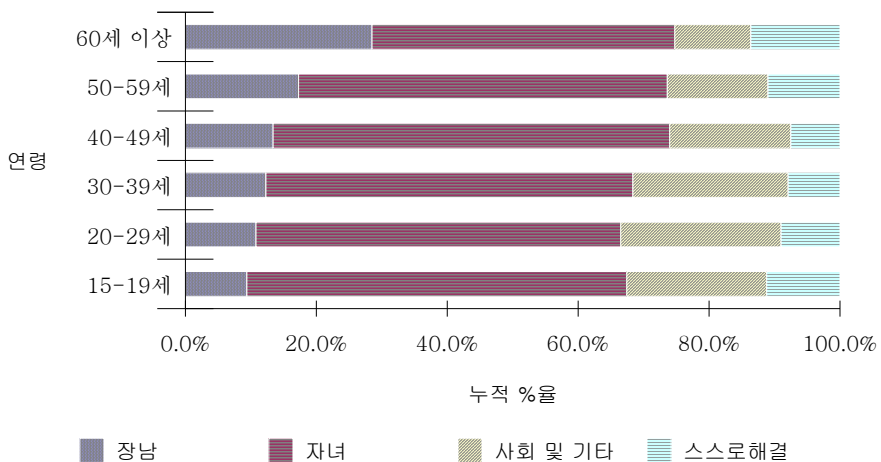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장남	자녀	사회 및 기타	스스로해결
합계		16.2	60.9	15.9	7
성별	남성	16.5	60.9	14.6	8
	여성	16	60.8	17.2	6
학력별	초졸이하	27.4	54.1	11.9	6.6
	중졸	15.4	66.8	11.4	6.4
	고졸	10.3	65.1	17.7	6.9
	대졸이상	9.8	57.7	24.2	8.3
연령별	15-19세	9.7	66.5	15.4	8.4
	20-29세	9.5	64.5	19.5	6.5
	30-39세	10.4	62.2	19.9	7.6
	40-49세	12	69.1	15.7	3.1
	50-59세	19.8	58.8	12.9	8.5
	60세 이상	30.5	48.9	12.1	8.4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2002년.

그러나 이와 같은 세대차이는 전북노인의 경제적 자립능력의 현실이 타지역보다 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앞의 2절 세대관계의 2항 참조), 현실과 태도상의 괴리가가져 올 세대갈등의 폭이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4-8> 노인부양에 대한 태도 조사(연령별 2002년)



제 5 절 가구경제

가족의 변화란 가족관계와 가족가치관만 가지고서는 그 실상을 이해하기 어렵다. 가족이 살아가는 물질적인 기반이 되어주는 경제적 조건, 즉 가구경제(household economy)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절에서는 전북지역의 가구소득과 주관적 계층, 가구소득의 주요부분으로 부상하고 있는 여성들이 갖고 있는 취업태도를 살펴볼 것이다.

1. 소득과 계층

가구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은 결코 쉽지는 않다. 본 보고서에서는 2003년에 한국여성개발원이 전국 35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가족조사>의 원자료에서 전북부분(150가구)을 추출한 결과와, 2002년 전북여성발전원이 실시한 <여성의식 및 취업실태 조사> 중 가구소득 부분을 참조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003년 한국여성개발원의 조사에 의하면 가장 많은 비율은 100-200만원, 200-300만원으로 각기 30.7%씩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00만원 미만 가구도 22%나 되었다. 한편 한 해전인 2002년 전북여성발전원의 조사에 따르면 100-200만원, 200-300만원의 비율은 39%, 21.6%로 나타난 반면 100만원 미만은 약 8%가 더 높게 나타나는 등(30.4%) 한국여성개발원의 조사결과보다는 낮았다.

<표 4-26> 가구소득 분포

(단위: %)

구분	한국여성개발원(2003)	전북여성발전원(2002)
50만원 미만	9.3	12.6
50-100만원 미만	12.7	17.8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30.7	39.0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30.7	21.6
300만원 이상	16.7	9.0
합 계	100.0%(150명)	100.0%(983명)

자료: 장혜경의 2003(『전국가족조사 및 한국가족보고서』, 한국여성개발원) 원자료 분석, 한승주 2002, 『전라북도 여성의 의식 및 생활실태조사』,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

그리고 이러한 낮은 소득은 바로 주관적 계층의식으로 연결된다. 위의 한국여성개발원의 조사결과 주관적으로 자신이 속한다고 생각하는 계층을 묻은 결과 거의 절반이 중하류층이라고 대답하였다. 반면 상류층이라고 생각한 응답자는 전혀 없었다.

<표 4-27> 전북여성의 주관적 계층의식

(단위: %)

구분	비율(%)
중상류층	2.7
중류층	31.3
중하류층	48.0
하층	16.7
최하층	1.3
계(150명)	100.0

자료: 장혜경외 2003, 『전국가족조사』, 한국여성개발원

2. 여성의 경제활동과 취업태도

2002년 전북여성의 취업률은 42.6%로 조사되었다(한승주, 2002: 61). 고용상의 지위는 자영업주가 28.9%, 상용고용자가 42.3%, 시간제고용자가 13.1%, 고용주 7.5%, 기타 8.2%로 나타난다. 자영업주의 상당부분은 농업에 종사하는 기혼여성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여성취업에 대한 생각은 “취업할 필요없이 가정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4.6%에 불과했고, 제일 많은 응답은 “가정과 관계없이 취업해야 한다”로 40.7%로 나타나 취업에 대한 상당히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풀이된다.

<표 4-28> 전북 여성의 취업에 대한 태도 (2002)

(단위: %)

구분	비율
취업할 필요없이 가정에만 전념해야 한다	4.6
결혼 전까지만 취업해야 한다	9.8
첫 자녀 출산 전까지만 취업해야 한다	9.4
자녀성장 후에 취업해야 한다	11.8
결혼 전과, 자녀성장 후 취업해야 한다	23.6
가정과 관계없이 취업해야 한다	40.7
총계(997명)	100.0

자료: 한승주 2002, 『전라북도 여성의 의식 및 생활실태조사』,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

그러나 결혼전이나 첫 자녀 출산전까지라는 의견은 23.8%, 자녀성장후, 혹은 결혼 전·자녀성장후라고 한 응답이 35.4%로 나타나는 등 여전히 결혼과 취업은 여성에게 있어서 양립이 어려운 현실을 말해준다.

제 6 절 다양한 가족들

한국의 가족유형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은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2세대 핵가족이지만 가족가치관의 변화, 가구경제적 상황의 변화 속에서 이러한 주류형태의 가족 외에 다양한 가족의 유형들이 증가해오고 있다. 이 절에서는 한부모가구, 단독가구, 재혼가구, 그리고 전북지역 농촌남성들 사이에서 증가하는 국제결혼가구를 살펴볼 것이다.

1. 이혼과 한부모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전북의 여성가구주 가구의 비율은 1990년의 18.5%로부터 2000년에는 21.4%로 계속 증가해왔다. 혼인상태별로 보면 여성가구주에서 차지하는 사별의 비율은 줄었고, 대신 이혼을 원인으로 한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비혼 여성 가구주도 적은 비율이지만 증가하였다.

<표 4-29> 여성가구주의 혼인상태별 분포 (1990, 1995, 2000)

(단위: %)

구분	유배우	사별	이혼	미혼	계
1990	14.8	70.4	2.8	12.0	100.0
1995	12.9	70.8	3.7	12.6	100.0
2000	14.2	65.5	6.9	13.4	100.0

자료: 전라북도 『여성통계연보 2003』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 1990, 1995, 2000)

인구 1,000명당 이혼률을 의미하는 조이혼률은 전북지역의 경우 3.2로서 전국평균 3.5보다는 낮은 편이나(2003년) 최근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전국적으로 이혼률은 IMF를 거치면서 2000년 이래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조이혼률은 1999년의 2.5%에서 2003년 3.5%로 증가하였다. 2000년 무렵까지는 전북지역은 이혼률이 가장 낮은 집단

에 속해왔으나, 2001년 이래 지속적으로 높아져 2003년 3.2%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조이혼률 수치는 97년과 비교하면 꼭 2배로 증가한 것이다.

<표 4-30> 이혼율의 변화(전북, 1997~2003)

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혼인(건)	14,337	13,306	13,183	11,362	10,281	10,687	10,246
이혼(건)	3,270	4,145	4,239	4,200	4,550	5,179	6,295
이혼률*	22.8	31.2	32.2	37.0	44.3	48.5	61.4
조이혼률**	1.6	2.1	2.1	2.1	2.3	2.6	3.2

자료: 전북통계연감; 통계청 인구동태조사(1997~2003)

* 이혼률은 이혼건수를 혼인건수로 나눈 것.

**조이혼률은 인구 1000명당의 이혼건수.

한편 전북지역 여성가구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60세 이상의 연령층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48.4%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각 연령층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50대 16.2%, 40대 14.2%, 30대 9.8%, 그리고 20대 이하 11.4%. 전라북도 『여성통계연보』,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 그러나 이들 한부모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그로 인한 개인적 갈등은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치료하기 위해 가족관련 상담단체들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활동을 벌이고 있다. 다음의 사례에서는 그러한 교육을 통하여 자신의 이혼가정의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 한 여성가구의 태도변화가 나타난다.

“처음 여성가장교육이 있다고 나보고 받으라고 할 때 달갑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 가정은 파괴되었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아이와 나 그것으로 우리는 가정이다”라는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되었다. 지금의 나는 불행한 집단에 속한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힘겨운 삶을 보듬어 살아내고 있는 강한 사람들 속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혼은 아픔이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시작되었던 남편의 폭력... 그것으로부터 아이의 생명을 지켜야했던 아픔! 그것이 이혼이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다... 그래도 나는 내 삶을 사랑하려 한다. 왜냐하면 나만이 살아낼 수 있는 나만의 삶이지 않는가? 이혼까지 하면서 지켜온 삶이지 않은가?...”

[(사) 전북가족상담치료센터, 『건강한 가족 행복한 우리』 통권 5호(2004년 1월) 중 한 교육생의 사례, p. 15].

그러나 가족 다양성 이해를 위한 다양한 교육들은 이들 한부모 여성가장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프로그램들과 병행될 때 실질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2. 단독가구

“인구수”가 아닌 “가구수”를 기준으로 세대별 가구구성 상태를 보면 가장 많은 유형은 2세대 가구이나(60.8%),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단독가구 15.5%이고, 그 다음이 1세대가구 14.2%의 순이다(통계청, 인구및주택총조사, 2000). 단독가구의 내부구성을 보면, 먼저 연령별로는 30세미만 연령층이 25.2%로 가장 많으며, 혼인상태로는 미혼단독가구가 가장 많고(43.0%), 그 다음이 사별(35.1%), 유배우(12.0%), 이혼(9.8%)의 순이다. 지역별로 구분해보면 읍면지역에서 단독가구는 18.9%로 동지역의 14.6%보다 높다. 읍면지역에서 단독가구가 많은 것은 5가구 중 1가구가 노인단독가구인 것과 같은 노령화현상과 관계있으며, 도시의 단독가구는 주로 취업, 취학을 이유로 이동한 젊은 층으로 구성되는 특징을 보인다²⁶⁾.

전북지역 역시 도시지역 단독가구에서 가장 많은 연령집단은 30세미만으로서 이들이 30.6%를 차지하며, 그 다음이 30대 15.8%, 60대 14.9%의 분포를 보인다. 이러한 통계는 도시의 단독가구는 취업이나 취학을 이유로 농촌의 원가족과 분거해서 형성된 특징을 말해준다.

26) 도시지역의 단독가구는 젊은 연령층이 많으며(30세미만 30.7%), 읍면지역은 고령인구가 많은(70세이상 32.6%) 특징을 보인다.

<표 4-31> 전북 도시지역의 1인가구의 연령별 분포

(단위: %)

연령분포	동부
15세 미만	-
15-19세	3.5
20-29세	27.1
30-39세	15.8
40-49세	12.7
50-59세	11.1
60-69세	14.9
70-79세	11.0
80세 이상	2.8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0.

이처럼 연령별로 볼 때는 전북도시의 단독가구는 전국통계와 별반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혼인상태별로는 차이가 있다. 즉 미혼가구의 비율은 44.3%로 전국평균(52.0%)에 비해 약 8%가 낮으며, 이혼자도 9.3%로 낮은 편이다(전국은 11.5%. 이외에 사별은 전북 33.5%, 전국 24.5%). 이러한 수치는 만혼자나 이혼자가 도시에서 홀로 단독가구를 유지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전북지역의 보수적인 사회분위기와도 관계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3. 재혼가정

일반적으로 결혼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체결혼 중에서 초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고, 대신 재혼의 비중은 남녀 모두 증가추세를 보인다. 특히 재혼(남)+재혼(여)인 경우는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데, 2002년 현재 11.6%로 나타나 10년전인 93년의 5.5%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결과를 보여준다(통계청, “2002년 혼인·이혼통계결과요약”). 전북지역에서도 역시 같은 기간 부부가 다 재혼인 경우는 5.4%에서 11.9%로 증가하는 등 오히려 전국평균보다는 더 높은 재혼비율을 보인다. 이것은 혼인 10건 중 1건 이상이 남녀 다 같이 재혼인 경우로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실은 점차 일부종사나 성적정절 등 여성에게만 요구되던 가부장적 성통제의 문화적 강제가 약화되었음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표 4-32> 초혼·재혼 종류별 혼인 1993-2002 (전북)

(단위 : %)

	1993	1998	1999	2000	2001	20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초혼(남)+초혼(여)	88.4	83.1	81.6	81.1	78.9	78.3
재혼(남)+초혼(여)	3.2	3.4	3.3	3.2	3.7	3.7
초혼(남)+재혼(여)	3.0	4.4	4.9	4.6	5.9	5.7
재혼(남)+재혼(여)	5.4	9.0	10.1	11.0	11.0	11.9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조사 2002.

4. 국제결혼가정

1) 국제결혼의 증가와 그 성격

이제 국제결혼은 예외적인 결혼유형이라고 보기 어렵다. 2003년 현재 외국인과의 결혼은 전체 결혼의 8.4%를 차지하였다. 결혼건수는 25,658건으로 이것은 전년대비 61.2%가 증가한 수치이다. 그러나 성별로 보면 같은 기간 한국여성과 외국남성과의 결혼은 1548명이 증가한 데 비해서, 한국남성이 외국여성과 결혼한 숫자는 8197명이 증가한 대조를 보인다.

<표 4-33> 외국인과의 결혼, 2000-2003 (전국)

구분	한국남성+외국여성	한국여성+외국남성
2000	7,304	5,015
2001	10,006	5,228
2002	11,017	4,896
2003	19,214	6,444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조사 2003.

국가별로 볼 때 한국남자가 결혼하는 외국여자는 중국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아 약 70%를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베트남, 일본, 필리핀 등이 각기 5-7% 정도씩을 차지한다(2003년). 이에 비해 한국여자는 일본(40.5%), 미국(19.2%), 중국(18.6%) 등 상대적으로 부유국의 남자와 결혼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한편으로는 친밀성이 전지구적 차원

으로 확대되는 친밀성의 지구화(?)의 일면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빈 국여성이 상대적인 부국남성에게 팔려서 결혼하게 되는 일종의 매매혼적 국제결혼양상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남성집단 역시 자국내에서는 결혼시장에서의 조건이 열악한 농업부문의 종사자인 경우가 많다. 바로 이처럼 결혼이주의 여성화 현상과, 신부 송출국과 수입국간에 분화가 이루어지는 국제분업구조는 국제결혼이 여성문제를 낳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즉 가사노동자로서의 노동력, 불평등한 성관계, 전통적인 농촌의 시집살이 등으로 편입되는 구조가 그것이다.

2) 전북지역 국제결혼의 규모와 성격

2003년 현재 전북에는 719명의 외국인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²⁷⁾. 국적별로는 전국양상과 비슷하게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으며(62.6%), 그 다음이 필리핀, 베트남의 순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일본과 필리핀처의 비율이 감소하는 것에 비해, 베트남처의 비율은 3년동안 0.9%에서 9.3%로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표 4-34> 외국인처의 국적별 혼인현황(전라북도)

	2001	2002	2003
전체	442 (100.0)	452 (100.0)	719 (100.0)
일본	32 (7.2)	35 (7.7)	33 (4.6)
중국	289 (65.4)	292 (64.6)	450 (62.6)
미국	4 (0.9)	5 (1.1)	6 (0.8)
필리핀	60 (13.6)	60 (13.3)	88 (12.2)
베트남	4 (0.9)	16 (3.5)	67 (9.3)
태국	10 (2.3)	8 (1.8)	23 (3.2)
러시아	3 (0.7)	7 (1.5)	7 (1.0)
몽고	4 (0.9)	8 (1.8)	8 (1.1)
기타	36 (8.1)	21 (4.6)	37 (5.1)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조사 2001-2003.

이러한 변화는 과거 통일교를 통해 종교를 매개로 이루어지던 국제결혼의 양상이

27) 2004년 통계에 의하면, 전북지역 외국인처의 수는 1,195명으로 한해 전에 비해 476명이나 증가한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국적별 소계의 총합이 108%가 되어서 사용하지 못함.

국제결혼중매업체 등을 통해 상업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여성 공급국의 종류가 달라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문화적으로 다르고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인상을 받고 있는 필리핀 여성들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보다 “유순한” 베트남 여성들이 선호되는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²⁸⁾

이들 여성들은 결혼 후 생활습관과 문화의 차이, 언어적 장벽 등에 부딪히는 문제 외에도, 결혼의 시작부터 평등한 부부관계가 어려운 물질적, 사회적 조건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한국사회에 대한 문화사회적 적응도 중요하지만²⁹⁾ 이외에 이들이 처한 여성으로서의 위치(섹슈얼리티, 가정폭력, 가사노동과 경제활동, 시댁관계 등)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들 부부사이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사회문화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며, 언어 및 학교교육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

제 7 절 요약 및 정책제언

먼저 2003년 12월 현재 전북의 총인구는 196만 2천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은 전체인구의 50.4%인 98만 8천명으로 전국평균 49.8%에 비해 약간 높은데 이것은 농업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탓에 기인한 것이다. 연령계층별로 보면 40대까지는 남성의 비율이 높고 50대 이후부터는 모두 여성의 비율이 높다. 합계출산율은 전국평균보다는 높지만 2000년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003년에는 1.26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출생성비 불균형은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2003년말 외국인인구는 8,437명으로, 이는 1997년의 5,773명에 비하면 숫적으로는 2,664명이, 비율상으로는 46%가 증가한 수치인데, 국적별로는 중국이 가장 많아 41.4%이다 (남성은 35.2%).

28) 2004년 11월의 한 외국인 지원정책 토론회 중 외국인상담센터에서 일하는 활동가들이 지적한 부분이다.(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 “국내거주 외국인의 성공적 정착 지원정책 토론회” 2004년 11월 24일)

29) 일방적인 한국사회에의 수동적, 기계적 적응이 아닌 자율성을 유지한 성격의 지역사회로의 통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언어와 문화에 대한 교육은 물론 이들의 경제적 자립과 취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모국인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인구수별 가족형태를 보면 전국평균에 비해 전북지역에서는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핵가족의 비율은 약 6%나 적게 나타나며(58.9% : 52.8%), 대신 1세대 부부가족은 3.2%가 많고(11.1%), 조부모와 함께 사는 3세대가족과 1인가구의 비율도 조금 높게 나타난다(각기 10.3%, 5.7%). 핵가족 비율이 낮은 대신 3세대 비율이 높은 것은 농도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1세대, 1인가구의 비율이 높은 것 역시 농촌지역에 노부부가구, 노인단독 가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분포한 것과 같은 농촌인구의 노령화현상과 관련이 있으리라 보인다. 이외에도 취업이나 취학을 이유로 부모와 자녀세대가 각기 노부모/형제자매/1인가구로 분거하는 경우가 타지역보다 높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조부(모)와 손자(녀) 등으로 구성된 “2세대 기타” 유형의 가족이 전국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은 부부의 경제문제나 이혼 등으로 농촌의 조부(모)가 손자(녀)의 부양을 맡고 있을 가능성도 말해주고 있다.

한편 전북 지역의 최근 가족관계, 가족가치관의 실태와 변화양상에 대해서는 통계청이 실시한 <사회통계조사>를 활용하여 변화양상 및 전국경향과의 비교기술을 실시하였다. <사회통계조사>는 1998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가족·복지·노동”영역을 조사하였는데, 그 중 “가족”부분에는 부모부양의 현황과 태도, 결혼과 이혼에 대한 태도, 배우자와의 관계 및 가정생활만족도 등이 포함된다. 먼저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이 62%, 보통이 32%, 불만족이 6%로 나타나는데 학력별, 연령별 격차가 크다. 학력별로는 대졸이상자 중 74%가 만족을 표시한 반면 고졸은 64.0%, 중졸은 55.6%로 나타나는 등 학력별로 약 10%씩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학력별 차이는 소득의 차이와도 관계가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한편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가 높고, 40대 50대가 비슷하게 낮은 수준을 보였다. 그리고 배우자만족도는 성별로도 커다란 차이가 있다. 여성의 경우 불만족의 비율은 거의 10%에 육박하고 만족도도 56%로 남성에 비해 10% 이상이 떨어진다. 부부간 만족도의 차이는 전국적으로 공통인 현상으로, 결혼제도가 갖는 성불평등성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인다. 최근 여성가족부의 지원으로 지역의 여성·사회단체들이 평등부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이러한 점에서 매우 필수적인 사회적 의식변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2002년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이 공무원, 여성단체활동가, 교수 등 전문가 집단(36명)을 대상으로 필요한 여성정책을 물

은 결과, 가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평등한 가족관계·가족문화의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준비 등이 지적된 바 있다.

한편 가사노동은 전국과 전북을 통틀어 약 90%의 여성들이 여성이 “책임지고” 있다. 공평히 분담하는 가정은 7.1%인데 지난 4년간 이 비율은 미약하나마 상승하였다. 한편 가사노동 분담은 학력의 차이(과 연관된 소득의 차이)와는 무관하나 연령별로는 차이를 보이는데 20대 이전집단과 이후집단의 차이가 많다. 30대 이상 집단에서는 거의 공통적으로 약 70% 정도가 부인이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대의 경우는 부인이 주도(48.7%)와 공평하게 분담(49.0%)이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한편 가정폭력이 적극적으로 조사되기 시작한 1990년대 이래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정확히는 ‘남편폭력’ 경험률은 대체로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전북지역에서도 응답자의 38%가 남편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2000년).

한편 부모만족도를 보면, 2002년 현재 부모에 대한 만족도에서 만족이 60.9%, 보통이 34.3%, 불만족이 4.8%로 나타난다. 그러나 배우자의 부모에 만족도를 성별로 보면 차이가 있는데, 여성들의 시부모에 대한 불만족의 비율(12.1%)은 남성들의 처가에 대한 불만족(3.9%)에 비해 보다 높다. 이는 부계중심의 가족제도가 갖는 불평등성으로 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부모님에 대한 실질적인 생계부양자는 장남을 포함, “자녀들”인 경우가 약 60%이고, “스스로” 해결하는 비율은 40%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지역에서는 부모의 생계를 노인 “스스로” 해결하고 있는 비율은 전국평균 46.3%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진 39.9%를 기록한다.

가족형태보다 더욱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은 바로 가족가치관이다. 특히 결혼에 대한 태도는 지난 4년간 매우 커다란 변화를 보였다. 1998년 전체의 39.6%가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응답했던 데 반해, 2002년 그것은 30.4%로 9% 이상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전북지역의 태도는 전국평균에 비해서는 다소 보수적인 경향을 보이는 편인데,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문항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25.6%만이 “그렇다”고 대답한 반면, 전북에서는 30.4%가 그렇게 대답하였다. 결혼가치관의 성별차이도 큰데, 여성 중에서 결혼을 “하는 게 좋다”라는 응답은 적은 반면(여자 37.8% vs 남자 47.3%) “상관없다”라는 응답은 훨씬 높았다(여자 30.0% vs 남자 17.9%). 이러한 결과는 한국사

회에서 결혼이 여전히 가부장적 제도라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20대 중에서는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17.9%에 불과하며,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비율도 35.4%에 달했다.

결혼에 대한 태도가 비교적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혼에 대한 태도는 그리 커다란 변화를 보이지는 않는다. 2002년 현재 이혼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라는 의견이 18.6%로 나타났으며, 다만 “경우에 따라 다르다”라는 의견만 조금 증가하였다(26.7%→ 30.6%). 그러나 실제 이혼률증가는 이와 같은 이혼관의 변화보다도 더 급격했다. 2000년 무렵까지는 전북지역은 이혼률이 가장 낮은 집단에 속해왔으나 2001년 이래 지속적으로 높아져 2003년의 조이혼률은 3.2(전국 3.5)로 상승하였다. 이것은 97년에 비해 꼭 2배로 증가한 것이다. 2002년 조사에서 이혼을 생각해 본 이유를 묻은 결과, 성격/습관의 차이, 경제적 문제, 시대/처가문제, 배우자의 폭력이나 억압, 서로에 대한 애정이 없어서, 배우자의 음주나 도박, 그리고 원만치 못한 성생활, 외도 등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외도나 구타 등 전형적인 이혼사유 외에도, 성격이나 습관의 차이, 애정없음 등 비전통적인 이유들이 많은 점이 눈에 띈다.

한편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빈곤현상이 잘 나타난다. 2003년에 한국여성개발원이 전국 35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가족조사> 중 전북부분(150가구)을 추출한 결과와, 2002년 전북여성발전원이 실시한 <여성의식 및 취업실태 조사> 중 가구소득 부분을 참조하여 살펴보면 2003년 한국여성개발원의 조사에서는 가장 많은 소득계층이 100-200만원, 200-300만원으로 각기 30.7%씩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00만원 미만 가구도 22%나 되었다. 2002년 전북여성발전원의 조사에 따르면 100-200만원, 200-300만원의 비율은 39%, 21.6%로 나타난 반면 100만원 미만은 약 8%가 더 높게 나타나는 등(30.4%) 한국여성개발원의 조사결과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낮은 소득은 바로 주관적 계층의식으로 연결되어, 응답자의 거의 절반이 중하류층이라고 대답한 반면 상류층이라고 생각한 응답자는 전혀 없었다.

한편 가족형태가 다양화하면서 여성가구주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혼인상태별로 보면 여성가구주에서 차지하는 사별의 비율은 줄었고, 대신 이혼을 원인으로 한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비혼 여성 가구주도 적은 비율이지만 증가하였다. 여전

히 한부모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그로 인한 개인적 갈등은 적지 않은데 이러한 문제점을 치료하기 위해 가족관련 상담단체들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과 상담활동을 실시하여 이들 가정에 대한 결손·해체의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전국적으로 “인구수”가 아닌 “가구수”를 기준으로 세대별 가구구성 상태를 보면 “단독가구”는 2세대 가구유형(60.8%)에 이어 두 번째의 위치를 차지한다(15.5%. 그 다음은 1세대가구 14.2%). 통계청의 인구 및 주택총조사(2000)에 따르면 지역별로 읍면지역의 단독가구는 18.9%로 동지역(14.6%)보다 높다. 읍면지역에서 단독가구가 많은 것은 5가구 중 1가구가 노인단독가구인 것과 같은 노령화현상과 관계있으며, 도시의 단독가구는 주로 취업, 취학을 이유로 이동한 젊은 층으로 구성되는 특징을 보인다. 전 북지역 역시 도시 단독가구에서 가장 많은 연령집단은 30세미만으로서 이들이 30.6%를 차지하며, 그 다음이 30대 15.8%, 60대 14.9%의 분포를 보인다. 이러한 통계는 도시의 단독가구는 취업이나 취학을 이유로 농촌의 원가족과 분거해서 형성된 특징을 말해 준다. 그러나 연령별 분포와는 달리 혼인상태별 분포는 전국경향과는 차이를 보인다. 즉 미혼가구의 비율은 44.3%로 전국평균에 비해 약 8%가 낮으며, 이혼자도 9.3%로 낮은 편이다. 이러한 수치는 만혼자나 이혼자가 도시에서 홀로 단독가구를 유지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전북지역의 보수적인 사회분위기와도 관계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재혼이나 국제결혼 등 비전통적인 형태의 결혼이 증가하고 있다. 2003년 현재 전북지역 혼인 10건 중 1건 이상이 부부 양측 다 재혼인 경우이다. 1993년부터 2002년 사이 이러한 결혼유형은 5.4%에서 11.9%로 증가하여, 전국평균보다는 더 높은 재혼비율을 보인다. 국제결혼도 증가하여 2003년 현재 전체 결혼의 8.4%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성별로 보면 같은 기간 한국여성과 외국남성과의 결혼은 1548명이 증가한 데 비해서, 한국남성이 외국여성과 결혼한 숫자는 8197명이 증가한 대조를 보이는데 이것은 농촌총각의 상대적인 빈국여성과의 국제결혼이 증가한 탓에 기인한다. 2003년 현재 전북에는 719명의 외국인처가 있는데, 국적별로는 전국양상과 비슷하게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으며(62.6%), 그 다음이 필리핀, 베트남의 순으로 나타난다. 이들 여성들은 결혼

후 생활습관과 문화의 차이, 언어적 장벽 등으로 적응상 문제를 겪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결혼의 시작이 일종의 매매혼적 성격을 가진 탓에 이들이 평등한 부부생활을 유지해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과 교육·취업지원 등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언어교육은 자녀세대의 학습역량 증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제 5 장

전북지역 여성단체 활동

- 제 1 절 서론
- 제 2 절 전라북도여성단체 현황 및 주요 사업
- 제 3 절 여성단체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제 5 장 전북지역 여성단체 활동

조덕이(우석대학교 교수)

제 1 절 서 론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GNP 3만불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섬세한 특성이 사회 각 분야에서 빛을 발할 것이다. 여성은 국가성장과 경쟁력의 원동력이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방면에서 남성의 동등한 파트너로서 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국력도 약의 핵심과워로서 또한 사회혁신의 진정한 에너지로서 그 역할을 다 할 것이다. (백경남. 2004)

조옥라(2002)의 연구에 의하면 세계여성 NGO 활동은 시대적 상황 변화와 그 요구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으며 사회변화와 함께 활동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1980년대는 여성의 성주류화, 1990년대에는 여성의 세력화와 함께 21세기에는 성감수성에 그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양성 평등과 여성발전을 실현해 나가는 주체로서 책임을 다해가고 있다. 여성단체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해야 하며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단체들간의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고 사회단체간의 연대활동을 통해서 여성세력화에 힘을 모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1986년 6. 29 선언 이후 시민사회가 활성화 되었으며 NGO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참여하는 기회가 많아 졌으며 그 영향력 역시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21세기에 들어와서 전세계적으로 NGO는 폭발적으로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서구는 물론, 아시아나 남아메리카 국가에서 민주화의 열기와 함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NGO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1990년대 소련이 붕괴되어 탈냉전화 되면서 동구라과의 민주화는 시민사회에서 크게 역할을 했다.

제 2 절 전라북도여성단체 현황 및 주요 사업

전라북도에는 사단법인 전라북도 여성단체협의회, 전라북도 여성단체 연합이 협의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북 YWCA역시 협의체 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전라북도 여성단체 현황을 보면 2004년 현재 사단법인 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는 22개단체로 구성되어 있고 사단법인 전북여성단체연합은 12개 단체로 구성되어있다. 미가입 독립단체는 5개이며 시군 소재 단체는 169개 단체로서 합계208개의 여성단체가 활동 중에 있다.

<표 5-1> 여성단체 총괄표 (2005)

(단위 : 개, 명)

구분	협 의 체 수	단 체 수	회 원 수
총 계	16	208	444,222
전 북 도	2	39	368,943
시 · 군 계	14	169	75,279
전 주 시	1	16	13,297
군 산 시	1	17	3,254
익 산 시	1	14	1,969
정 음 시	1	13	2,520
남 원 시	1	8	4,906
김 제 시	1	15	3,118
완 주 군	1	9	18,926
진 안 군	1	11	1,376
무 주 군	1	11	2,454
장 수 군	1	13	6,225
임 실 군	1	11	12,715
순 창 군	1	13	1,266
고 창 군	1	12	1,815
부 안 군	1	6	1,438

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여성단체에 한함.

자료 : 전북도청 여성가족과 (2005년 3월말 현재)

1. (사) 전라북도 여성단체 협의회

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는 1975년도에 창립되었으며 이는 유엔이 1975년 세계 여성의 해로 정한 시점에 창립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1947년 독립축성애국부

인회 전북본부는 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회의의 모태가 되었다. 1949년 대한부인회가 창립되고 뒤이어 대한여자청년단, 대한소녀단 전북연합회, 한국부인회, 대한어머니회, 새마을 부녀회, 대한간호협회 등 여성단체가 전라북도에 그 지부를 두고 발전 해 오다가 1975년 12개 단체로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이들 단체들은 해방이후 여성지위향상과 계몽활동, 여성의식 개혁 및 문맹퇴치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90년에는 전라북도내 여성단체의 최초의 사단법인체로 등록하게 되었고 2005년 현재 22개 회원단체와 14개 시, 군 여성단체조직을 갖고 있는 회원수 35만 명이 되는 거대한 조직이다. 1985년도 14개 단체로 재정비된 전라북도 여성단체 협의회는 인력과 재정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여성운동의 메카로서 각계각층의 여성계를 결집시켜 전북 여성운동의 산실과 중추적 역할을 다 해오면서 전라북도민의 의식개혁에 선봉장 노릇을 해왔다. 1976년부터 1985년까지를 유엔여성 10년으로 선포하고 이기간 동안 유엔 여성차별 철폐협약과 2000년을 향한 나이로비 여성발전 전략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유엔 회원국들에게 이러한 여성정책을 채택하도록 촉구하였다. 이와 같은 국제적 환경변화에 힘입고 여성운동이 확산되면서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구심체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19 년대에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탄생되었다.

전라북도 여성단체 협의회는 1990년 사단법인 단체로 창립을 하면서 제1회 전북여성대회를 개최하고 ‘바른 삶 실천 범여성 운동’의 주제로 대회를 열고 이기주의, 과소비, 퇴폐문화추방으로 밝은 가정, 밝은 사회 운동을 전개했다. (전라북도 여성발전 연구원, 전북지역 여성단체의 실태 분석과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 2003)

1994년 UN의 ‘세계 가정의 해’로서 가정에서의 주부의 중요성이 대두되게 되었고 특히 도덕성 회복 운동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전라북도 여성단체협의회회의의 초대회장은 조옥영, 2대 현상봉, 3대 정영애, 4대 오양순, 5대 은종인, 6대 최정자, 7대 이영조, 8대 유유순, 9대 조덕이가 재임하고 있다. 전라북도 여성단체 협의회는 비정부, 비영리 공익법인이고 인간의 기본권리를 존중하고, 여성도 모든 영역에서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와 책임이 있고 사회 및 국가 발전,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비정치적 민간여성단체이다. 이 협의회의 사업목적은 ①여성단체간의 협력과 친선의 도모 ②여성의 발전과 복지사회건설에 여성이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③여성의 의견을 정부와 사회에 반영,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정관 제3조).

<표 5-2> 전라북도 여성단체 협의회 단체 현황

단체명	대표자	주소
(사)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	조덕이	(560-021) 전주시 경원동 1가 108 전북은행 제일지점 3층 309
대한 간호협회 전북 간호사회	김강미자	(560-010)전주시 중앙동4가 38-1 성원오피스텔 1210호
군경미망인회 전북도지부	송판순	(560-060) 전주시 고사동2가 285-2
대한미용사회 전북도지부	김윤식	(561-182) 전주시 덕진구 금암2동 523-14
전국주부교실 전북도지부	최원자	(560-080)전주시 고사동2가 2-1 대한투자신탁 2층
한국부인회 전라북도지부	김인자	(561-162) 전주시 진북2동 1147-11
한국 간호조무사협회 전북도지부	이강숙	(560-060)전주시 고사동 389-1 롯데오피스텔 1102호
전라북도 여약사회	김남순	(560-050)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 52-3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주 전북도지부	유유순	(560-822)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894-1
대한어머니회 전북도지부	신명순	(560-182) 전주시 금암2동 거성타워 가908
대한영양사회 전북도지부	정봉희	(560-161) 전주시 진북1동 320-74
한국걸스카우트 전북연맹	이현주	(561-190) 전주시 덕진동1가 1174-11
전라북도 새마을부녀회	김숙정	(560-020) 전주시 서신동 773번지 새마을회관 7층
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 모임 전북도지회	이희숙	(561-232) 전주시 인후동2가 1560(농협도지회)
전라북도 생활개선회	고재덕	(570-140) 익산시 신흥동 270. 전라북도농촌진흥원 생활개선회
전문직여성 한국연맹 전주클럽	김경주	(565-701)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490 우석대 무용학과
원불교 전북여성회	김명화	(560-020) 전주시 경원동 3가 69 원불교 전북교구
한,중 여성교류협회 전북도지부	조덕이	(565-701)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490 우석대학교 생명과학과
한국통일여성협의회 전북도지부	조금숙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29-3 거산황궁 101-804
전라북도 재향군인여성회	강원자	(560-042) 전주시 완산구 전동2가 142-15
바르게 살기운동 전라북도여성협의회	김희자	(560-761)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4가 1번지
농천전통생활기술연구회	김용애	(570-977) 익산시 신흥동 270
세계평화여성연합 전북도지회	김도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80 광진빌딩2층전주시 덕진구 금암2 동 5158-8

전라북도에 등록된 여성단체들은 중앙의 각조직의 지부 및 지회 형태로 운영 활동하고 있다. (사)전라북도 여성단체협의회는 현재 22개 회원단체와 14개의 시군 여성단체협의회가 협동회원(시군 여협)단체로 구성되어 있다(표 2).

(사)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여협)의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여협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몇 개의 주제로 나눌 수 있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여협의 사업으로서 전북 여성영화제는 지방에서는 최초의 여성영화제이며 여성영화 상영을 통한 양성 평등의식을 확산시키고 있다.뿐만 아니라 단편 영화공모를 통하여 지역내 여성영화 인력 발굴과 소규모 여성영화제 확산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또한 전북여성영화제 여성영화 아카데미는 여성주의 철학과 매체에 대한 이해와 이론 중심의 영화아카데미를 실시하였다. 최근에 와서는 이론과 실기중심의 영화아카데미를 실시하였다. 남성 중심적인 문화에 의해 일률적으로 해석되어온 여성의 경험과 삶에 의구심을 품고 여성 자신이 주체가 되어 여성의 눈으로 세계를 보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여성은 문화 소비자에 불과하다는 시각에서 벗어나 시대가 요청하는 바와 같이 문화 생산자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 특히 여성영화 아카데미 교육생들에게 제작 기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제작품을 선정, 각각 50만원씩의 단편 영화 제작비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생의 관심과 자신감을 고취시켰다.

외국인 및 내국인 부부대화프로그램을 수행함으로써 서로 상반된 문화 속에 살아온 이들 부부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부클리닉을 할 수 있다. 부부간 대화 프로그램을 통해 부부간의 정체성 문제를 공유하고 건전한 가정 분위기 조성에 조력하고 양성평등 의식과 함께 지역 공동체 문화 조성에 도움을 주고 있다. 소통하고 표현하고 경청하는 방법을 배움으로서 건강한 부부간의 대화를 유도할 수 있으며 건강한 가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양성평등의식과 함께 지역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여 나갈 수 있다. 여성 주간 기념 양성평등 확산을 위한 연주 공연인 ‘가문장아기’는 관객으로 하여금 양성평등 의식 확산과 올바른 성 역할 모델을 제시해 주었다.

둘째로 여성의 세력화 즉 성주류화 운동으로서 전북여성 합창대회, 민주시민교육, 정치교실, 호주제폐지 운동, 리더십 및 인력양성 사업을 하고 있다. 전북여성합창제는 전북의 여성문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해가 거듭할수록 그 규모와 참여열기가

더해져서 명실상부한 전북의 여성문화 창출의 하나의 산실이 되고 있다. 전북여성 합창대회는 1999년부터 시작한 합창대회는 5회까지 실시하였던 전북예술회관이 합창대회를 하기에는 음향 시설 등이 적합지 못하다는 끊임없는 여론을 수렴하여 2004년부터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으로 옮겨 대회를 치름으로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2000년부터 시작한 정치교실은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강화해 여성사회 참여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며 직접적인 정치참여는 물론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생활정치는 여성의 손으로 해나가야 할 시점으로 차세대 여성정치인을 발굴 육성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전북여성단체협의회는 정치교실 수료자로 구성된 전북사랑회는 2005년 10월 발전적 해체를 하여 사단법인 한국여성정치연맹 전북연맹으로 탄생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북지역 여성단체 중견지도 리더쉽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셋째로 국제 교류사업을 하였다. 전라북도 여성단체협의회와 중국 강소성의 고위층 여성과의 교류활동과 일본 가고시마 여성단체와의 교류활동을 들 수 있다.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일본 가고시마현과도 여성단체간의 교류를 통하여 여성정책과 여성단체 사업등의 의견 및 정보교환으로 여성의 지위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넷째로 타단체와의 공동연대 및 네트워크를 구성해 나가고 있다. 호주제 폐지, 여성정치인 발굴, 에너지 절약 캠페인 등에서 전북여성 단체 연합과 전북 YWCA와 연대를 하였다.

다음 <표 5-3>에서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사)전라북도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실시하였던 사업을 열거하였다. 2001년과 2002년은 캠페인 사업을 열심히 한 것으로 보아 시대적 상황이 에너지 캠페인, 호주제 폐지위한 가두행진, 평등문화 실천 릴레이 2002 지방선거를 위한 여성릴레이 결의대회 유해문화 추방위한 릴레이 캠페인등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2004년, 2005년에는 외국인 부부, 외국인 여성 한마당, 중국 강소성 여성단체 교류사업, 일본 가고시마 여성단체 교류사업등을 중점사업으로 하였다. 왜냐하면 외국인 여성가정(이주여성가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건전한 가정생활을 위하여 중점적으로 펼쳐온 사업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주 여성 센터와 같은 기관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다.

<표 5-3> 전라북도 여성단체 협의회 2000년 주요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추 진 실 적
제2회 전북여성 영화제	-지방 최초 여성 영화제 -여성영화 경선제 도입 -여성영화 인력 육성 -5개지역(전주, 남원, 정읍, 익산, 군산)에서 상영	일시: 10월 24일 - 10월 28일 장소: 전주, 남원, 정읍, 익산, 군산시
제2회 전북 여성영화제 포럼	-지역의 문화적 현실과 여성영화 인력의 현재와 미래 -전주의 영상도시로 발전을 위한 포럼 -지방여성 영화인력 양성 -여성영화의 인력의 현실과 전망	일시: 10월 27일
전북지역 중견지도자 리더십개발	-시군 여성단체 협의회 지도자 리더십 -지역여성 단체의 활성화 방안 -여성단체의 재정, 인력 확보방안 및 홍보전략	일시:11월28일-11월29일 장소: 전주 코아 호텔
중년여성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워크샵 II	-여성역사 변화 모색 -중년여성의 정체성 -부부대화 -건강한 사회 건설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권익신장	일시: 12월8일-12월 9일 장소: 여산천호성지 피정의 집
저소득 실직가정 출산비 지원방안	-실업극복운동 -실직가정 출산비 지원 -62 가정 × 30 만원 = 1860만원	일시:2월21일- 4월 20일 장소:
여성단체 중견지도자 리더쉽개발	-도단위 여성단체 중견지도자 -지역 여성단체 현황 및 활성화방안 -민주적 회원관리 -여성운동 방향성 및 인간관계 프로그램 -리더십 교육	일시: 6월 29일- 6월30일 장소: 삼성생명 연수원
제1회 전라북도 여성 합창 대회	-전라북도내 최초의 아마추어 여성 합창대회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 -새천년 새 전북인 운동실천 -건강한 여가문화 창출	일시: 7월 7일 장소: 전북예술회관
중국교포여성합동 결혼식	-사실혼관계의 중국교포여성에게 결혼식 -정신적 안정, 행복한 가정생활 영위 -건강한 결혼관 정립	일시: 7월 4일 장소: 황실예식장
경제교육 -사이버 창업	-사이버 창업 교육 -여성의 경제적 자립 방안 교육 -여성의 세력화 운동	일시: 10월 17일 장소: 전북여성회관

<표 5-4> 전라북도 여성단체협의회 2001년 주요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추진실적
제2기 전북여성 정치교실	-6월 지방자치선거 출마자 위한 실천교육	일시: 3월 20일 - 4월 12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토론회	-공동체 문화확산 -안전의식 확산	일시: 4월 19일 장소:안전문화추진전주지역 본부
여성지도력 향상	-리더쉽 교육 -위원회의 역할과 의사결정 -여성정책	일시: 5월 28일 - 5월 28일 장소:
평등문화 실천 전국 릴레이	-여성부 주최 제6회 여성주간 기념행사	일시: 6월 18일 장소:
제2회 전북 여성 합창대회	-전라북도내 15개팀 참가	일시: 9월 21일 장소: 전북대 삼성문화센터
여성지도력 향상 프로그램 II	-통반장, 부녀회장 지도력 양성 -자기 개발 -의사소통, 갈등해소 방법 -양성평등	일시:11월 26일- 11월 27일
젊은 부부 대화 프로그램	-30대, 40대 부부의 대화기법 -양성평등 문화확산 -가사, 육아 공동책임	일시:
제3회전북여성영화제		

<표 5-5> 전라북도 여성단체협의회 2002년 주요사업

사업명	사업내용	추진실적
제3회 전라북도 여성합창대회	-16개 팀 참가 -지역문화축제 -여성합창을 통하여 여성 공동체 활동육성 및 활성화 -훌륭한 남성상 시상 : 3명	일시: 7월 19일 장소: 전라북도 예술회관
제3회 전북여성 영화제	-국내외 여성영화 상영(장편 8작품, 단편 5작품) -양성평등사상 고취 -단편 경선 영화작 발굴(17작품) -지방 여성영화 인력 육성	일시: 10월2일-10월4일 장소: 전북대 삼성문화관 건지아트홀
제3기 정치교실	-2002 지방선거 여성정치 세력화 방안 -2002년 지방선거 대비 -2박 3일 합숙훈련 -선거전략, 연설문 작성 및 연설기법 교육 -이미지 메이킹 -정책개발	일시: 4월1일-4월3일 장소: 전주유스호텔
여성의 정치 참여와 승리 위한 여성유권자 연대발대식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위한 결의 -여성 유권자 연대의식고취 -여성 유권자 연대사업 내용 발표 -6. 13 선거 여성후보자 적극 돕기	일시: 4월 1일 장소: 전주유스호텔
2002 지방선거를 위한 여성 릴레이 결의대회	-지방의 릴레이 결의대회 -전북여협, 전주 YWCA, 전북여성정치 발전센터 등이 전북여성 유권자 연대 결성	일시: 5월 9일
6. 13 지방 선거 및 당선자 축하연	-6. 13 지방선거 당선자 축하연	일시: 장소: 전주코야호텔
경제교육	-21C 시테크와 성공하는 여성 -여성지도자의 시테크 -시간디자인 -시간의 경제학 -전업주부들의 자원봉사 -직업 여성들의 시테크 전략	일시: 3월 22일 장소: 전라북도 여성회관
2002 전주세계 소리축제 민간 홍보사절 위촉식 및 여성단체 교류식	-경기, 인천, 충북 여성지도자 초청 -세계소리축제 홍보 -관광객 유치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지역 문화 우수성 홍보전략	8월26일-8월27일 8월29일-8월30일 장소: 소리의 전당 전통문화센터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여성 지도자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	-여성지도자의 공공관계 -NGO 마케팅, 공공관계 강화 -여성과 건강(발 건강학) -여성단체 활성화 프로그램 I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여성단체 활성화 프로그램 II -고령화 사회의 복지서비스 방안	일시: 12월23일-12월24일 장소 : 남원인월 요업

<표 5-6> 전라북도 여성단체협의회 2003년 주요사업

사업명	사업내용	주진실적
제1기 전북여성 영화제 여성 영화아카데미	-지역 여성영화 인력 양성 프로그램 -여성의 눈으로 문화해석하기 -문화 소비자에서 문화 생산자로 -제작 지원 작품 3편, 전북여성 영화제 상영	일시: 5월17일-7월12일 장소:전북대 특성화 영상사업단
제4회 전북 여성합창대회	-전북지역 여성 아무추어 합창공연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 -자치단체, 학교 어머니 합창단 참여	일시: 9월 20일 장소:전북대삼성문화관
제4회 전북 여성영화제	-6개 섹션, 총 39편 상영 -제1기 여성아카데미 제작 지원작 발표 -단편경선 공모 14편 -연인원 2100명 참가 -여성부, 전라북도비사업	일시: 11월6일-11월8일 장소:전북대삼성문화관 건지 아트홀
제3기 전북여협 정치교실		일시:
전북지역 여성단체 모니터 연수	-여성단체 활동의 전문성 제고 -소비자 모니터 교육 -의정 모니터 교육 -여성의 세력화 -성 주류화	일시: 6월2일 - 6월3일 장소: 전북여성회관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실태조사 및 릴레이 캠페인	-전북도민 의식실태조사 -토론회 개최 -호주제 폐지 위한 대안모색 -양성 평등사회 구현	일시: 7월 12일, 9월 16일 장소: 군산시내
금연교육	-여성지도자 금연교육 -금연서명운동 -내 몸 아낌, 내 가족 사랑	일시: 8월2일-10월17일
경제교육	-2003년 여성지도자 경제교육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연금활용 방안 -연금제도의 문제점과 대책 -연금관리 활용 I(한국) -연금관리 활용 (외국)	일시: 3월 19일 장소:
국제교류 전북, 가고시마 여성단체 교류	-격년제 상호방문 실시 -가고시마 여성 단체 지도자들 전북방문	일시: 9월1일-9월4일

<표 5-7> 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 2004년 주요사업

사업명	사업내용	추진실적
제2기 전북여성 영화제 여성 영화 아카데미	-페미니즘 강좌에 다류제작 부분 보완 -여성주의이론과 실기를 병행한 강좌 -영화에서 여성주의 시각의 필요성 -13강좌 -여성노동이론 -제작지원 3작품	일시: 7월 3일-8월 13일 장소: 전북대 특성화 영상산업 사업단
여성주간기념사업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연극공연	-연주가문장 아가 공연 -여성주간기념 양성평등 의식확산 -올바른 성 역할의 모델제시 -성정체성 회복으로 적극적인 사회 참여 유도	일시: 7월 2일 장소: 전라북도 예술회관 공연팀: 여성문화 예술기획
제5회 전북여성합창대회	-도내 여성아마추어 여성합창단(19팀) -가정과 지역사회의 화합 -여성 문화 축제	일시: 7월 7일 장소: 전북대 삼성문화회관
외국인 부부대화 프로그램	-외국인 한국인 부부로 구성권 대화프로그램(1박2일) -성격유형찾기 -화합의 장 -명상 시간 -한국가족 문화 이해하기	일시: 9월11일-12일 장소: 일산중앙중도훈련원
외국인 여성한마당	-도내 외국인 여성 한마당 잔치 -전통문화 교육 -전통의상 시연 장기 -전통문화 체험 -외국여성의 권익보호(정체성 공동체 의식 확산)	일시: 10월 8일 장소: 전주 전통문화센터
전라북도-중국 강소성 여성단체 교류	-전라북도-중국강소성 여성단체 교류식 -차 세미나 -역사현장탐방 -전라북도의 밤 행사 -강소성의 밤 행사	일시: 10월 19일-22일 예정 장소: 소리문화 전당
제5회 전북여성 영화제	-양성 평등의식 확산 -영화상영(전야제, 개막식 등) -다양한 부대행사 -단편경선 공모실시 및 상영 -지역 여성 영화인력 발굴	일시: 11월 5일-7일예정 장소: 건지아트홀, 아중문화의 집
제4기 전북여협 정치교실	-차세대 여성 정치인력 양성, 개발 -정치교실 -여성의 정치참여 기회확대	일시: 11월 23일-12월 9일 장소: 전라북도 여성회관
여성지도자 새로운 힘 발견하기	-여성리더쉽 프로그램(1박 2일) -전북여협이사, 4개 시군 여협회장 -기타 단체장 -조직내 원활한 의사소통 -여성단체 활동방향 정립 -지역사회와 여성 NGO의 교류 -여성지도자의 여성의식 확립	일시: 11월 26일-27일 장소: 우석대 정수연수원
서울여성 연합과 자매결연식	-자매결연식 -격년제 상호초청 방문추천 -전북, 서울지역 사회발전 및 단체간 상호화합과 우호증진 -노동간 상호간 이해증진 및 특산물 교류	일시:11월9일 11:30-19:00 장소: 리베라 호텔 새만금 공사현장

<표 5-8> 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 2005년 주요사업

사업명	사업내용	추진실적
제3기 전북여성영화제 여성영화아카데미	- 기획특강을 마련 (영화제 읽기) 하여 영화제 족과 연계 향후 스텝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제공 - 13강좌 - 제작지원 3작품	일시: 5월21일-6월25일 장소: 전북대 특성화 영상사업단
제6회 전북여성합창대회	- 도내 여성아마추어여성합창단(17팀)	일시: 7월 8일 장소: 전북대 삼성문화회관
외국인부부대화프로그램	- 외국인 한국인 부부로 구성된 대화프로그램 (1박2일)	일시: 10월 7일-8일 장소: 전주관광호텔
2005년 경제교육	- 함께일군 부부재산 (강의 및 영상물상영 토론회)	일시: 10월 14일 장소: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대강당
전라북도-가고시마 여성단체교류	-가고시마 방문 가고시마 여성단체 교류회	일시: 11월 6일 -9일 장소: 일본 가고시마
부부대화프로그램	- 부부대화프로그램 (1박2일)	일시: 11월 11일-12일 장소: 전주관광호텔
민주시민교육 (제5기 전북여협정치교실)	- 정치교실	일시: 11월 17-18,24-25 장소: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외국인여성 한마당	- 전통놀이	일시: 12월 23일 장소: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한중여성교류협회와공동주최
고령화시대의 저출산 해결방안	-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응전략	일시: 12월 29일-30일
여성지도자 리더십훈련	- 섬기는 리더십 훈련 - 영성훈련 - 사업 Item 개발 방법	일시: 12월

<표 5-9>는 (사) 전라북도 여성단체 협의회 소속 단체의 설립목적과 2004년 주요 활동사업을 간략하게 표시한 것이다. 22개 단체는 그 단체의 정체성에 맞추어서 목적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였다. 그 사업내용을 보면 조직 강화 사업, 환경 보호 사업, 소비자 자원 봉사활동, 취미 및 교양 교육, 생활개선 활동, 소비자 활동, 여성 상담 사업, 여성정치 세력화 사업, 회원 권익 사업, 차세대 진로 사업, 차세대 여성 지도자 발굴, 육성사업, 통일문제 사업, 양성평등 사업, 단체 연대활동 등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표 5-9> (사) 전라북도 여성단체 협의회 소속 단체 설립목적 및 활동사업(2004년)

단체명	설립목적	사업내용
대한 간호협회 전라북도 간호사회	-회원자질 향상도모 -직업윤리 준수 -회원권익 옹호 -국민건강 증진 및 국제교류 통한 국가 간호사업 발전에 기여	1. 조직 강화 2. 조직 활성화 3. 간호 사업 및 홍보 4. 대 지역 사업
대한민국 전문군경 미망인회 전라북도지부	-상부상조, 자활능력 배양 -순국자의 유지를 이어 조국통일을 조기완수 할 수 있는 활동에 이바지-국가안보 강화 -보훈의식 활성화	1. 군경모지 참배 및 정화 2. 현충일 행사 3. 의식개혁, 자긍심 보호의식 강화 4. 노인건강 문화교실 5. 거리질서 캠페인
(사)대한 미용사회 전라북도지회	-미용업 발전 및 기술향상 -회원간의 친목 -공중위생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	1. 교통질서 바로 하기 2. 도지사배 미용예술 경연대회 ①미용예술 경기대회 ②빅 헤어쇼, 헤어 작품 발표회
전국 주부교실 전북 주부도지부	-주부의 사회성 개발 -봉사정신 함양 -가정과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에 기여 -민주시민으로서 역할을 체득	1. 주부대학 운영 2. 함께하는 사회를 위한 사회환경 개선운동 3. 에너지 절약 사업 4. 환경 보전 사업 5. 소비자 사업
한국부인회전북도지부	-여성의 자주성과 자립심 고취 -잠재능력 개발 -여성의 권익보호 -건강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	1.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 2. 소비자 보호 사업 3. 이웃사랑 실천사업 4. 환경보호 사업 5. 모니터 사업
한국간호조무사협회 전북도지부	-회원자질 향상 도모 -간호보조업무에 관한 편익과 권익옹호 -회원 간의 친목과 복지도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	1. 기구조직 강화 2. 보수교육 3. 불우시설 위문 및 자원봉사 4. 봉사활동 5. 유관단체간 교류
전라북도 여약사회	-사회복지의 증진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약사 및 약학에 관한 연구개설 발전을 도모 -약사 권익 옹호와 윤리확립	1. 조직강화 사업 2. 인보사업
대한주부클럽 연합회 전북지회	-주부의 가치관 정립 -자질과 능력 향상 -건강하고 바람직한 가정유지, 발전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	1. 조직 훈련사업 2. 소비자 보호사업 3. 물가감시 및 물가안정 사업 4. 지속가능한 환경녹색교통 활동 5. 양성평등 사업 6. 단체연대 활동
대한 어머니회 전북도지부	-대한 어머니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자질 향상 및 기회부여 -복지사회건설에 이바지	1. E-clean korea 2004 선포식 및 캠페인 2. KDI, 시민단체 연계 경제토론회 3. 어린이 교통 안전지도 4. 명절 불우이웃 돕기
대한 영양사회 전북 도지부	-식생활 연구와 홍보활동 -회원의 권익옹호와 자질 향상 및 식품영양의 질적향상 도모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	1. 지부내부 감사실시 2. 임상영양 치료의 실제(비만)교육 3. 예비 영양사 오리엔테이션 4. 전북식품 영양학과 교수 간담회 5. 임상 영양자격 시험 실시

한국 걸스카우트 전북연맹	-대한민국의 소녀와 젊은 여성들의 잠재력 개발 -국가관이 투철한 민주시민으로서 지역사회, 국가, 세계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으로 성장 -국제교류활동전개, 국제 이해와 우의 증진	1. 조직사업 2. 지도자 훈련 및 행사 3. 홍보사업 4. 지역사회 개발 사업 5. 상호사업 6. 대원활동
전라북도 새마을부녀회	-새마을 정신을 바탕으로 건전한 가정육성 -지역봉사 활동을 통한 밝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데 기여	1. 나라사랑운동-무궁화 동산 조성 2. 어린이 독서교실 운영 3. 국경일 태극기 달기운동 4. 학부모와 함께하는독서문화캠프 5) 건전소비문화운동-어린이경제캠프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전북도지회	-여성의 교양증진과 여가선용 도모 -우리 농산물 판매, 농도 교류사업 지역봉사 활동 전개 -농가 소득 증대기여 및 지역사회 발전추구	1. 여성지도자 농촌현장 체험 2. 2014 무주 동계 올림픽 유치기원 환경지킴 이 발대식 및 캠페인 3. 농산물 안정성 조사 실시 4. 농도교류추진도모, 우리농 엑스 5. 농촌 일손돕기 및 농장수확체험 산지직거래 행사
전라북도 생활개선회	-건전한 농촌가정 육성 -회원간 친목 도모 -농촌지역 사회 발전에 참여 -여성 후계세대 육성 및 지원	1. 우리농산물 이용한 [선물 문화만들기]행사 2. 생활개선회 현지체험 및 전통문화 현장체험 3. 전북 향토음식 150선 전시회 4. 회원자질 향상 5. 도, 농연대 농심 나누기
전문직 여성 한국연맹 전주클럽	-전문직 여성 권익 향상위한 상호협력 -전문직 여성의 능력 제공-국가발전에 공헌 -외국전문직여성들과유대,친선증진	1. 촛불의식 2. 조직강화 3.진로지도교육
원불교 전북여성회	-가정과 사회윤리 확립 -남녀 불평등 요소 제거 -원만한 사회건설에 이바지	1. 흥중훈련(증법사님 찾아 뵙기) 2. 아나바다 장터 3. 온고을 민속잔치 4. 환경운동 및 여성 리더십 일일훈련 5.. 일일차집(양로원 방문)
한 중 여성 교류 협회 전북지회	-한중 여성간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기술 등 전보 교류통한 상호간 우호증진 -양국간의 삶의 질 향상 -하나의 공동체로서 대처할 수 있는 밝은 사회 구축	1. 외국인 여성 한미당 2. 전라북도-강소성 여성단체 교류 3. 여성 지도자 새로운 힘 발견하기 4. 전북여성 창업 세미나
한국통일여성협의회 전북지부	-통일을 향한 민간여성 단체 역량강화 -삶의 질 향상위한 범국민 운동 전개 -탈북민의 사회적응 방법 돕기	1. 참여정부와 평화 번영정책 토론회 2. 중고교생 통일 교육 3. 통일 학술 강연회 4. 대학생 통일문제 간담회 5. 중점사업 6. 지방업체 도와주기 사업
전라북도 재향군인여성회	향군의 발전과 사회공익에 기여 -회원 상호 친목도모 및 복지증진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을 위한 계몽 및 봉사활동 -타 여성단체와 협력 및 유대강화	1. 사회 봉사활동 2. 행사 및 회의 1) 회장단 회의 2) 이사회회의 3) 도정기 총회 4) 시군 정기총회
바르게 살기운동 전북 여성 협의회	-실천하는 생활인들의 바른 삶 위함-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 위한 국 민의식 개혁운동, 문화시민 운동, 국민 화합 운동전개	1. 교통질서 캠페인 2. 가정사랑 캠페인 3. 가정사랑 촉진결의 대회

농촌 전통 기술연구회	-천목도모 -개발된 능력을 지속적으로 사회에 헌신할 기회 모색 -전북생활개선회를 후원 -농촌 전통 기술 연구	1. 대보름 행사 2. 전통 세시 풍속활동 심포지엄 3. 영농과제 교육 4. 자원봉사활동 5. 전통 천연 염색교육
-------------	--	---

2. (사)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 여성연합은 참교육 학부모회, 전북 여성의 전화, 전북지역 탁아소 위원회, 성폭력 예방치료 센터 등 전북 여성농민회 연합, 전북 여성 노동자회 등이 연합하여 1993년 7월 창립되었다. 전북 여성연합의 모태인 전북 민주 여성회가 1988년 창립되었다. 1986년 6.29 민주화 선언 이후 결성된 단체로서 민중 민주세력의 여성들이 여성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2005년 12월 현재 전북 여성농민회 연합, 전북 여성 노동자회, 전북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군산 여성의 전화, 익산 여성의 전화, 전주 여성의 전화, 전북 여성 연구회, 전북 여성 장애인 연대, 환경을 지키는 여성들의 모임, 성폭력 예방치료 센터, 기독교 살림 여성회 및 열린 익산 여성회, 한국 장애인 부모회 전주지부 등 13개 단체의 협의체로 구성되었다. 제1대 상임대표는 이강실, 제2대는 김은경이다.

전북 여성연합은 진보적 단체이며 2003년과 2002년의 그 주요사업은 <표 5-10~13>에서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첫째로 여성정책 과제 개발 및 조직 강화사업에 주력하였다. 둘째로 여성인권 및 복지 증진사업으로 2003 호주제 폐지를 위한 국회 민법 개정안을 제출함과 동시에 시민교육과 거리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사)전라북도 여성단체 협의회와 함께 YWCA, 전북 여성연합은 [호주제 폐지를 위한 전북 여성연대]를 발족시켜 전북지역 내 45개 여성단체가 한목소리를 내게 되었다. 전북 여성연합은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여성 인권관련 건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대안가족제도 홍보사업과 함께 평등가족 만들기 캠페인을 함으로서 남성단체의 저항도 받았다. 성매매 방지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타단체와 연대하여 추진하였으며 성매매 여성인권 지원센터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셋째로 양성평등 문화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행사, 전북 여성운동 15돌 제9회 여성주간 기념 행사를 함으로서 선배들의 여성운동의 모습도 되새겨 볼 수 있었다. 넷째로 평화통일 사업을 전개해 나

갔다. 5.24 평화군축을 위한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여성통일, 평화 교육활성화를 위한 노력 등의 평화 워크숍을 수행하였다. 다섯째로 여성 정보 능력 향상사업의 일환으로 소식지, 리플렛 발간, 홈페이지 운영 등을 하였다. 그 밖에도 전북 여성연합은 재정자립화 및 자원봉사단 운영으로 기부문화확산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신년 후원인의 밤, 300인 후원인의 밤, 기금 마련위한 기획문화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감으로서 재정적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이로써 재정적 문제에 NGO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주는 표본이 되었다.

<표 5-10> (사) 전북 여성단체 연합 2000년도 주요사업

사업명	사업내용	추진일시
전북 총선연대	① 전북 총선 시민연대 대표자 회의 공동회견 및 서명운동 집회 ② 부패 정치인 공천반대 및 퇴출운동	일시: 1월 29일 장소: 코아백화점 앞
여성유권자 운동	① 여성유권자 실천 발대식 (무능 부패 정치인 낙선을 위한 전북여성 유권자 실천단) (전라북도 여성단체 협의회, 전북여성단체 연합, 전북 YMCA 등 31개 단체)	일시: 4월 7일 장소: 코아백화점 앞
	② 16대 총선도내 후보자 여성공약 이행서약서 결과보고 및 여성정책 발전촉구 기자회견	일시: 4월 11일 장소: 현대 문화센터
전북지역 여성복지시설 활성화 연구 및 토론회	-시설의 기초정보 파악 -요구에 맞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전문성확보 정도 -토론회	일시: 11월 24일 장소: 현대 문화센터
여성학 세미나	-페미니즘 사상연구 -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 -급진주의 페미니즘 -정신분석학 페미니즘 -에코 페미니즘	일시: 4월~11월 장소: 전북여연
NGO 모금 마케팅 전략강연	-NGO의 도래 -NGO의 모금 마케팅 전략 -NGO 홍보활동의 실제	일시: 5월 20일 장소: 현대 문화센터
성폭력 추방주간 기념토론회	군산 매매춘 지역 화재사건을 통해서 본 성매매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일시: 12월 6일 장소: 현대 문화센터
호주제 폐지운동	① 부부 공동문패 달기	일시: 6월-7월 장소: 전북여연 사무실
	② 평등가족 문화 한마당	일시: 7월 1일 장소: 객사 앞
	③ 호주제 폐지 및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일시: 10월 7일
	④ 캠페인인 및 서명운동	일시: 10월 17일 장소: 시청광장→객사
통일사업	조직강화를 위한 활동과 워크숍	일시: 9월 15일 장소: 불재 도예원

<표 5-11> (사) 전북여성단체연합 2001년도 주요사업

사업명	사업내용	추진일시
여성지도력 양성 아카데미	-조직내 갈등해소를 위한 능력향상 -대화를 통한 민주적 중재능력 향상	일시 : 8월 27일 ~ 29일 장소 : 경천면 청산농원
호남지역 여성복지 활성화와 여성복지인력의 리더쉽 강화를 위한 여성 복지 학교	호남지역 여성복지 활성화와 여성복지 인력의 리더쉽 강화	일시 : 6월 14일~16일 장소 : 남원일성 지리산 콘도
호주제 폐지운동	① 가정내 양성평등 프로그램	일시 : 5월 17일 장소 : 전북대
	② 양성평등 열린 가족문화 만들기 운동 Ⅱ 평등 밥상 차리기 대회 및 전북여성 한마당	일시 : 7월 7일 장소 : 전주 담배인삼 공사

<표 5-12> (사) 전북여성단체연합 2002년도 주요사업

사업명	사업내용	추진일시
민선2기 전라북도 여성정책 평가 토론회		일시: 1월22일 장소: 홍지문화공간
정책 수련회 참가	① 한국여단체 연합 -진보적 여성 정책 만들기 -문화체험 ② 전북여성 단체 연합 -진보적 여성운동의 성찰과 전진 -주요사업 방향	일시:11월15일 장소: 온살이 아쉬람
성매매 방지법 제정을 위한 활동	①성매매없는 건강사회 만들기 및 여성인권 콘서트 지역순회 캠페인	일시: 9월 14일 장소:전주 덕진공원
호주제 폐지, 평등가족 만들기 지역 순회 캠페인	“호주제 넘어 평등가족, 차별없는 사회로” 지역 순회 캠페인	일시: 9월 12일 장소 : 익산 중앙로 디자 이너 클럽
세계여성 폭력 추방 주간 기념식	세계여성 폭력 추방 주간 경과보고	일시:11월 26일 장소: 전주 객사 앞
성폭력, 가정폭력 사건관련 연대 탄원서 진정서, 성명서 발표	①가정폭력 사건 탄원서 제출 ②성폭력 사건 진정서 제출 ③가정폭력 사건 성명서 제출	일시: 5월 21일 수신: 전주지방법원 일시: 11월 8일 수신:전북지방검찰청 일시: 11월 20일
군산 개북동 성매매 집결지 화재 참사 대책위 활동일시	성매매 근절 군산 개북동 화재참사 진상규명 촉구대회	일시: 1월 29일 부터
2002 여성복지 학교	여성복지 인력의 성인지력 향상 및 네트워크 강화	일시: 6월 20~22일
3.8세계 여성의날 기념행사		일시: 3월 10일 장소: 서울대학교
제5회 여성주간 기념 “양성평등 열린 가족 문화 만들기 운동회	-제2회 평등밥상 차리기 대회 -가족이 함께하는 공동체 놀이 -여성주간 기념행사	일시:7월 6일
6.13지방선거 여성이 행복한생활자 차10대과제선포식	-10대 과제발표 -1분 스피치 -여성 후보 소개 및 여성정책 공약 약속	일시 : 5월 3일 장소 : 전주 시의회

여성유권자 정치참여 학술 세미나	-전북지역 여성 유권자 정치의식 실태조사 발표 및 토론	일시 : 6월 5일 장소 : 전북여성회관
6.13 지방선거 여성정책 캠페인	-모금활동 -유세자 격려 방문	일시 : 6월 6일~8일
대선여성 연대활동	①유권자 교육(7차)	일시: 11월 21일 장소: 전북대학교 외 6개소
	②유권자 캠페인 및 서포터즈 모집 -여성폭력 추방주간 및 평등 대통령 만들기 캠페인	일시: 11월 26일~12월 18일 장소 : 객사앞
평화통일 사업 -한국여성연합 연계활동사업	①2002 한반도 평화선언 -한반도 평화선언 동참 ②남북통일 여성대회 -북한 여성을 위한 물품모집	일시: 2월 15일 일시: 10월 15일~17 장소 : 금강산
-기타 연대 활동	①6.15 공동선언 이행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북통일 연대 -MD반대 부시방한 규탄대회 및 거리 캠페인	일시:2월 16일~18일 장소:코아 백화점 앞
국제연대 사업 지속 가능개발 정상회담 참가	①지속가능 개발 정상회담(WSSD)참가와 세계시민(NGO)포럼 참가 ②WSSD와 한국 여성의 역할 워크숍	일시:8월26일~9월6 장소: 일시:5월 10일~11일 장소 : 두산 연수원

<표 5-13> (사) 전북여성 단체 연합 2003년도 주요사업

사업명	사업내용	추진일시
여성인권, 복지증진 사업 성매매 근절을 위한 운동	-성매매 방지법 제정, 입법활동, 법안에 대한 교육, 캠페인, 문화행사 -군산 대명동, 개북동 화재참사 추모행사	
호주제 폐지를 위한 운동과 대안 가족제도 홍보활동	①안티 호주제 페스티벌 ②안티 호주제 마인드 교육 ③호주제 폐지를 위한 길거리 캠페인 ④'호주의 부담에서 벗어나고 싶다' 일반인 남성선언-전북도내 500인남성 ⑤호주제 폐지를 위한 전북여성 연대 발족 : 전라북도 여성단체 협의회, '전북 YWCA 협의체', 전북여성연합 등 45개 단체 연대	일시: 5월~6월 10월 장소: 전북도립여성 중고교 강당, 전북지역시민단체사무실 남원사랑의 광장 전라북도내 일원 전라북도여성회관
세계여성 폭력추방 주간기념 "여성폭력 우장을 위한 전북순회 캠페인 및 토론회"	① 여성 폭력추방을 위한 전북순회 캠페인 "폭력없는 세상 평화로운 사회를 향해" ②여성의 눈으로 본 미디어 모니터 발간 및 토론회	일시:11월~12월일 장소: 익산, 전주 군산, 남원 일시: 11월 28일 장소: 홍지문화공간
여성노인, 여성장애인 청소년, 아동등 여성인권 옹호활동	①전주지방 노동사무소 공권력에 의한 성추행 사건 ②부안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대책위 ③근천 성폭력한 전주시 의원 구속사건에 활동	일시: 11월 27일~ 일시 : 11월 30일 일시 : 12월 15일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여성주간 기념행사	①여성 한마당 등반대회 및 체육대회 ②전북여성상, 걸림돌, 디딤돌 선정	

3.8 세계여성의날 기념행사	-성매매 방지법 제정에대한 효과적인 홍보	일시: 3월 8일 장소: 서울대학교
전북여성 운동 15돌 제9회 여성주간 기념 제6회 전북여성 한마당 I Love 여성운동	-박찬숙의 여성노래 이야기 -노래를 통한 지난 여성운동의 모습 관조 -새로운 여성문화를 발굴 -선배활동가들과의 만남	일시 : 7월 8일 장소 : 전통문화센터 한벽당
평화통일 사업 평화통일 위원회 추진	①5.24평화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날기념 ②여성 통일, 평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 워크샵 전북지역 “여성이 만드는 평화와 통일 이야기”	일시: 5월 24일,9월 30일~10월 14 장소:동학혁명기념관,전교조 전북지부

<표 5-14> (사)전북여성단체연합 주요사업(2004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일시
성예산 분석 모임	-성인지예산 분석 모임(12회) -성인지 예산 및 정책 워크샵	일시 : 6월 3일 외 11회 장소 : 대전동학 산장 외 다수
여성인권복지 증진사업	①성과 인권위원회 회의(5회)	일시 : 2월 4일 외 장소 : 전북여연 사무실 외 다수
	②성매매 방지법 조기정착을 위한 전북시민 연대 발족식, 토론회 및 시민캠페인	일시 : 10월 27일 외 장소 : 전주시 자원봉사 종합센터 세미나실
여성세력화 사업	여성이 만드는 풀뿌리 공동체 -주민 자치 여성 리더십 교육	일시 : 6월 16일-17일 장소 : 풍남동 동사무소 회의실
	지역공동체 한마당	일시 : 11월 6일 장소 : 중화산 1동 산너머 종합 사회복지관
반전평화 통일사업	①평화통일 위원회 회의(3회)	일시 : 4월 6일 외 장소 : 전북여연 사무실
	②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 여성의 날 행사	일시 : 5월 24일 장소 : 객사 옆거리
	③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1000인 선언 및 캠페인	일시 : 11월 16일 장소 : 객사 옆거리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	①젠더 트레이닝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워크샵	일시 : 6월 2일 외 장소 : 흥지문화공간 외
	②여성단체 지도자를 위한 젠더 트레이닝 연수	일시 : 9월 2일-4일 장소 : 선운산 유스호스텔
	③양성평등 교육출강(총 10그룹)	일시 : 7월 29일 외 장소 : 전교조 전북지부 강당 외 다수

<표 5-15> (사)전북여성단체연합 주요사업(2005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일시
성인지적 예산과 정책예산 분석활동	①성인지적 예산 분석에 대한 총론, 지역 사례 발표 워크샵 ②정책분석 모임(5회)	일시 : 4월 8일 장소 : 기업은행 교육실
보육발전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활동	①보육조례 제정을 위한 특별 위원회 모임(5회) ②전주시 보육 조례 올바른 제정을 위한 토론회	일시 : 7월 5일 장소 : 전주시 의회 간담회실
여성세력화 사업	2006 성 평등한 지방의회 만들기 토론회	일시 : 9월 29일 장소 : 전북도의회 세미나실
여성인권, 복지 증진사업	① 일본여성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여성빈곤 극복을 위한 교류사업	일시 : 11월 14일 - 19일 장소 : 일본동경 가나가와현
	② 전북지역 이주여성 실태 및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샵	일시 : 4월 4일 장소 : 전북여성의 전화 교육실
반전평화 통일사업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식	일시 : 3월 8일 장소 : 전북대 구정문 앞

<표 5-16> (사)전북여성 단체연합 회원단체 주요 사업내용 (2004년)

단체명	사업명	사업내용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전북지부	전주 전통문화 체험 코스 탐방연수	한옥마을 경기전, 성지순례, 전주전통, 비빔밥 조리 체험
익산 여성의 전화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시민교육	여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인권 교육실시
전북여성 농민회 연합	전북여성 농민 한마당	'여성 농민의 힘으로 민족의 쌀독을 지키자'라는 주제로 우리 쌀 지키기 기원 : 모양성 밭기
전북여성 노동자회	교육활동	①노동 상담 워크샵 ②평등의 전화 상담원 교육 ③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법권리 교육 ④여성 노동자 삶과 투쟁을 다룬 여성 노동 영화 순회상영
전북여대생대표자협의회	대동제 여성문화제	- 여성중심의 문화제 진행 - 여성을 위한 문화제 개최
전국 여성의 전화	성폭력 전문상담원 공개교육	전문대 이상 졸업자에게 성폭력 피해여성 전문상담원 양성
기타 연대사업	① 3.8 여성의 날 행사 ② 성폭력, 성희롱, 가정 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 ③ 전북 교육 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	

3. 전북 YWCA 협의체

전북 YWCA는 전주 YWCA와 남원 YWCA 및 군산 YWCA의 협의체이다. 1928년 고아원 운영으로 시작한 전주 YWCA는 1969년 4월 전주 YWCA 탄생의 모태가 되었다. 전주 YWCA는 미국의 영향을 받아 기독교 사상으로 구호, 선교활동 등을 위해서 이루어졌다.

100여 년 전 미국 선교사들의 활동으로 시작되었던 교육사업과 기독교 선교활동은 우리나라의 각 분야에서 크게 영향을 미쳤다. 시민 운동체로서의 YWCA는 그 오랜 전통에 걸맞은 많은 일들을 독자적으로, 혹은 연대활동을 통해 이루어냈다. 1978년부터 소비자 고발상담과 소비자 고발센터를 운영하였으며 1987년에는 노동부로부터 탁아사업을 위탁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1991년 전주 YWCA 회관을 준공하게 되고 YWCA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1992년 전주시 의회활동과 전주시 행정을 모니터링하는 시정 모니터와 매체 모니터 활동을 전개하였다. 1998년 국민의 정부의 노동부에서 ‘일하는 여성의 집’을 위탁받아 여성 직업 훈련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는 2001년 여성부 지원 사업이 되었다. 2001년부터 3년간 한국 YWCA의 3년 운동 중점사업은 첫째로 인간존중 사상으로 여성노인들의 생활지혜를 존중해 주고 현대사회의 문화적 혜택을 접하도록 하였다. 또한 양성평등의 시각으로 호주제 폐지를 위해 경기지역의 YWCA와 호주제 폐지 회원 한마당을 개최하였다. 청소년 건전문화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청소년 문화광장을 개설하여 한 부모 청소년들을 위한 부모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문화관광부 지정 청소년 수련시설이며 청소년 동아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홍보하고 전북도내 학교와의 교류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간존중의 실천 방안으로 ①여성의 재취업 확대 ②영아 탁아진로(모성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 ③청소년 진로 캠프 운영 ④청소년 또래 상담자 교육 ⑤대학생이 직면하는 폭력실태 조사 ⑥ 여성노인 일거리 사업 및 교육운동 등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둘째로 소유와 나눔이다. 그 실천방안은 ① 자원봉사자뱅크운영 ② 대안학교 ③ 가정문제 상담 ④ 2% 부족하게 살기 운동 ⑤ 평양 YWCA재건 ⑥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신나는 배움터 운영이다.

셋째로 환경사랑 운동이다. 1980년대부터 환경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면서

YWCA는 유엔이 정한 지속가능한 개발, 개발과 보전이라는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환경사랑 음식점 선정사업, 음식물 쓰레기의 친환경적 처리 등을 홍보해왔다. 실천 방안은 ① 쓰레기 줄이기(일회용품 안쓰기 등) ② 생협운동 ③ 환경사랑 음식점 선정사업 ④ 우리 마을 환경학교 운영 등을 들 수 있다.

넷째로 화해와 공존을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다. 화해와 협력을 통해 평화통일을 준비하고 있다. 탈북자 돕기 운동과 더불어 연길 유치원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다. 화해와 공존을 위한 실천방안으로는 ① 탈북자와 함께하는 통일 이야기 터 ② 통일 체험 학교 ③ 평화 우체국 ④ 북한 YWCA 재건운동 ⑤ 평화통일 한마당(6. 15 공동선언 기념)등을 들 수 있다.

한국 YWCA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운동중점은 “여성이 만드는 건강한 세상”의 주제로 건강한 생활공동체 만들기, 50/50 사회만들기, 평화세상 이루기로 정하고 있다. 첫째로 건강한 생활공동체 만들기 프로그램은 ① 바른 건강문화운동 프로그램 개발 ② 바른 건강문화 운동 프로그램 개발 ③ 통합적 가족 서비스 구축 ④ 생협운동 정착운동이다. 둘째로 50/50 사회만들기에서는 ① 여성의 자립을 위한 양성평등 환경조성 ② 여성의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 ③ 가정과 직장의 양립 체제 위한 기반 서비스 구축, 셋째로 평화세상 이루기의 실천방안으로는 ① 폭력근절 위한 예방 및 대책마련 ② 인권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운동 ③ 지속적인 평화통일 운동 전개 등이다(전주 YWCA 총회자료).

제 3 절 여성단체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1. 단체운영 자금의 열악성과 상근 인력 부족

재정이 빈약하여 재원 조달방법을 보면(여성발전 연구원, 2004) 회원의 회비 수입이 전체 38.0%,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 보조금 수입 24.4%, 개인후원금 11.5%, 기업후원금 2.1%, 자산수익 3.3%, 수익사업 16.9%, 공익재단 보조금 3.8%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회원의 회비 수입과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 보조금 수입이 합계 62.4%로서 재원 조달방법이 매우 열악하고 소극적이어서 앞으로 NGO 활동을 위해서는 자체 수익사업을 벌여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의 견제세력이어야 할 NGO

가 보조금에 의존해야 할 시기가 지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개별 단체들은 그 목적 사업을 위해 재정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이 적극적이고 진취적이어야 할 것이다.

전라북도지역 여성단체의 재정을 알기 위해 연간 단체예산 현황을 보면 표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500만 원 이하 단체가 36.5%, 501만원~1,0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단체가 16.3%, 1,001만원~3,000만원의 단체가 26.1%로서 연간 1,000만원 이하 사용 단체가 전체 52.8%나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으로 보아 전라북도 내 여성단체의 단체운영 자금의 열악성을 알 수 있다. 재정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므로 사무실 상근인력이 태부족이다. 49.8%가 상근자수가 아예 없으며 1명 상주하는 경우가 26.6%로서 상근 인력이 확보가 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 수행에 어려움을 갖게 된다. NGO는 수익사업이 원활하지 못하여 예산상 어려움이 많으며 또한 정책결정자인 도지사의 여성사업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 지원이 달라질 수 있다. 전라북도의 재정이 열악한 중에도 도지사가 여성사업에 우호적이다. 조사에 의하면 지역 여성단체에는 전문적인 실무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상근 실무인력의 부족은 단체 활동의 위축을 의미하며 부익부 빈익빈의 경제논리의 현상에 빠지게 된다. 전라북도 지역 여성단체의 49.8%가 상근자가 없으며 1명 상근자의 단체가 26.8%이므로 급변하는 시대에 알맞은 프로그램 개발이나 사업 수행에 따르는 행정적 절차가 부실할 수 있다.

<표 5-17> 전라북도지역 여성단체 예산 (1년 예산액)

(단위 : 만원)

구분	빈도	백분율(%)
500이하	74	36.5
501~1000	33	16.3
1000~3000	53	26.1
3000~5000	10	4.9
5000~10000	12	5.9
10000이상	8	3.9
무응답	13	6.4
합 계	203	100.0

자료출처 : 전북여성발전연구원 2003.

<표 5-18> 자원 조달방법(복수응답)

구분	빈도	백분율
회원회비	178	38.0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 보조금	114	24.4
개인 후원금	54	11.5
기업 후원금	10	2.1
수익 사업	79	16.9
자산 수익	15	3.3
공익재단 보조금	18	3.8
합 계	468	100.0

자료출처 : 전북여성발전연구원 2003.

2. 새로운 인력 발굴 및 육성문제

취약한 재정과 자원의 빈약성 및 활동회원의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서 새로운 인력, 차세대 리더 양성 활용에 어려움이 많다. 단체장 중심의 단체운영으로 단체장들의 행정력이 부족하면 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려우므로 차세대 지도자 육성을 위해서라도 실무자 발굴, 육성 및 훈련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단체장의 교체 역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회장의 장기집권은 회원들의 고령화가 불가피하며 따라서 그 단체가 활력을 상실하게 되고 시대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게 되므로 새로운 인력이 일할 수 있도록 대처할 필요성을 갖게 된다. 10년 이상, 30년, 40년간이나 동일 단체장을 맡고 있어서 조직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조직은 시대에 따라서 산소와 새로운 피를 공급해야 하는 바, 단체장의 장기집권은 전라북도 여성계의 앞날에 먹구름을 가져올 것이 자명한 일이다. 조직은 살아 숨쉬어야 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라도 새로운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여성인적자원 네트워크 형성과 인재 풀 시스템이 필요하다. 새로운 인물, 인재발굴, 육성, 활용을 위한 장치마련이 필요하다.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정치, 과학기술, 환경, 통일 및 소비자운동, 국제교류에 부합하는 단체들의 창립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든 분야에서 민주적 리더로 커나갈 수 있고 자기의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 6 장

전북지역 여성인적 자원개발

- 제 1 절 행정기관의 여성인적자원개발 정책
- 제 2 절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로서 학교
- 제 3 절 여성평생교육기관
- 제 4 절 결론

제 6 장 전북지역 여성인적자원개발

권인탁(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

인적자원개발이란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것 뿐 아니라 인적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평생에 걸쳐 잠재능력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에서는 경제 또는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데 국한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지식·기술 뿐 아니라 도덕·예능·개성·인성 등 모든 사람들이 타고난 자질을 충분히 개발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특히 여성인적자원개발은 넓은 의미에서 모든 분야에서 여성들이 타고난 자질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한다.

평생학습시대, 지식기반시대가 도래하면서 여성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평생학습시대에 여성이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지식기반시대에는 여성들이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분야에서 많은 공헌을 한다. 국가나 사회적으로 여성인적자원개발은 과거에는 경제활동 위주로 교육을 생각해 왔기 때문에 거부감이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분야에서 학습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넓은 의미로 규정하기 때문에 저항감이 상당히 줄었다고 본다. 그러므로 전라북도 여성인적자원개발은 도내 행정기관의 여성정책 뿐만 아니라 도내 여성들이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들의 현황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행정기관의 여성인적자원개발 정책,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로서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전북지역 여성평생교육기관 등을 살펴본다.

제 1 절 행정기관의 여성인적자원개발 정책

1. 전라북도의 여성인적자원개발정책

전라북도는 여성인적자원개발 정책으로서 여성정책 활력화를 위한 기반구축,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내실 있는 여성 자원봉사 활동,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여성지도자 교육, 여성인력 개발 및 일자리 창출 교육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여성정책 활력화를 위한 기반구축은 남녀가 동반자 적이고 발전지향적인 관계를 지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구축 및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추진사업은 도의 14개부서와 전 시·군을 중심으로 한 전북여성정책의 평가와 계획수립, 근로여성 모성보호제도 홍보 및 시상, 정기적인 여성정책위원회 개최,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확대, 전북여성인명록 및 여성 통계연보 자료 정비 등을 실시한다.

둘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은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활성화로 양성평등의 이념 구현 및 여성단체의 건전한 운영을 지원하는데 있다. 구체적인 추진사업은 여성단체 특화사업 지원, 여성주간 기념행사, 시·군 여성 컴퓨터 경시대회, 전라북도·일본 가고시마현 여성단체 교류, 여성단체 간담회 등이다. 한편, 전라북도의 여성단체는 도와 시·군 각각 38개 단체와 176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다.

셋째, 내실 있는 여성 자원봉사 활동 정책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더불어 잘 사는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사업은 여성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지원 및 육성,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 및 워크숍, 여성자원봉사자 사례발표 등이다. 한편, 도 및 시·군의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는 15개소, 여성자원봉사단은 186개가 있다.

넷째,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여성지도자 교육은 변화하는 사회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역량 강화에 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도와 시·군에서 여성지도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도 단위에서의 여성지도자 교육은 여성지도자 리더십 향상 워크숍, 여성지도자 의식교육, 2030 우먼 리더십 캠프 등이 있다.

다섯째, 여성인력 개발 및 일자리 창출 교육지원 사업은 여성인적자원 개발과 활용으로 경제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여성 사회교육 운영의 확대로 사회참여 및 문화활동을 활성화하는데 있다. 이 사업은 여성회관과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 추진되는데 여성의 일자리 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구인구직 및 고충상담, 여성 직업능력 개발훈련, 기술·취미·교양·사회교육 등이다.

2. 시·군의 여성인적자원개발 정책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여성인적자원개발정책은 여성정책 기반구축 및 권익향상, 양성평등 조성 사업, 여성 직업능력개발, 사회교육강화, 여성단체 및 여성자원봉사활동 참여 확대 등이다. 각 시·군의 구체적인 여성인적자원개발 사업은 <표 6-1>과 같다.

<표 6-1> 시·군의 여성인적자원개발 사업

시·군	사업내용	기간	대상	인원수
전주시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	연 1회	·여성지도자	100명
	·여성작은동호회 운영(40개반)	연중	·동 지역여성	2,000명
	·여성일자리 체험	연중	·직업교육수료생	10명
	·여성직업교육	7월~12월	·교육여성	80명
군산시	·여성주간행사	7월	·지역여성	900명
	·여성사회교육실시	연중 2기	·지역여성	
익산시	·여성주간행사	7월	·지역여성	40명
	·여성자치대학	6월	·지역여성	
정읍시	·여성주간행사	7월	·지역여성	998명 2,560명
	·여성자원봉사단 운영	연중	·읍면동봉사단	
	·여성사회교육제공	연중	·지역여성	
남원시	·행복한가정만들기교육	4월	·지역여성	40명
	·양성평등교육	6월	·지역여성	40명
	·외국인여성을 위한 교육	연중	·외국인여성	25명
김제시	·여성자원봉사자교육	9월	·여성봉사자	200명
완주군	·여성지도자리더십교육	2월~3월	·여성단체임원	30명
	·여성주간기념행사	7월	·지역여성	400명
	·여성자원봉사자교육(기본, 전문)	8월~12월	·여성봉사자	
진안군	·여성지도자 교육	연중	·여성지도자	179명
	·여성자치대학운영	12월	·지역여성	30명

	· 외국인여성사회적응능력 교육 · 여성합창단운영	6월 7월	· 외국인여성 · 지역여성	40명 40명
무주군	· 여성지도자 전문교육 · 여성자치대학 · 여성자원봉사자교육 · 외국인여성한국문화적응교육	10월 연중 3월 6월-10월	· 여성지도자 · 지역여성 · 여성봉사자 · 외국인여성	150명 30명
장수군	· 여성지도자 위탁교육 · 여성주간기념행사 · 양성평등교육 · 외국인여성 맛자랑 품평회	3월 7월 10월 11월	· 여성지도자 · 지역여성 · 지역여성 · 외국인여성	20명
임실군	· 외국인여성 전통 및 예절 체험 · 양성평등의식교육 · 임실군 노래교실 · 여성자원봉사자교육	4월 7월 매주 화요일 12월	· 외국인여성 · 일반여성지도자 · 임실군 여성 · 여성자원봉사자	50명 300명 100명 100명
순창군	· 여성공무원리더쉽 개발교육 · 여성지도자 리더쉽 개발교육 · 여성능력개발 교양· 의식교육	연중 연중 연중	· 여성공무원 · 여성지도자 · 지역여성	30명 100명 300명
고창군	· 여성지도자 워크숍 · 여성자원봉사자 워크숍 · 외국인여성한글해독교육	8월 5월 6월-7월	· 여성자원봉사자 · 여성지도자 · 외국인여성	80명 80명 30명
부안군	· 아름다운여성아카데미 · 여성자원봉사자의 사랑으로 이웃돌아보기 · 외국인여성우리문화교육	매주목요일 연중 9월-12월	· 부안군여성 · 소외계층 · 외국인여성	60명 40명

<표 6-1>에서 보는바와 같이 대부분의 각 시·군은 양성평등교육, 여성지도자교육, 여성자원봉사교육, 외국인여성교육, 여성단체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모든 시·군은 7월초 기념식, 백일장대회, 문화행사 등의 여성주간행사를 개최하며, 도에서 주최하는 전북여성합창대회 등 여성주간 기념행사에도 참여한다. 전주시는 여성인적자원개발 사업으로써 여성일자리 체험 및 직업교육 등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익산시와 무주군은 여성자치대학을 개설하여 여성의 자치의식 함양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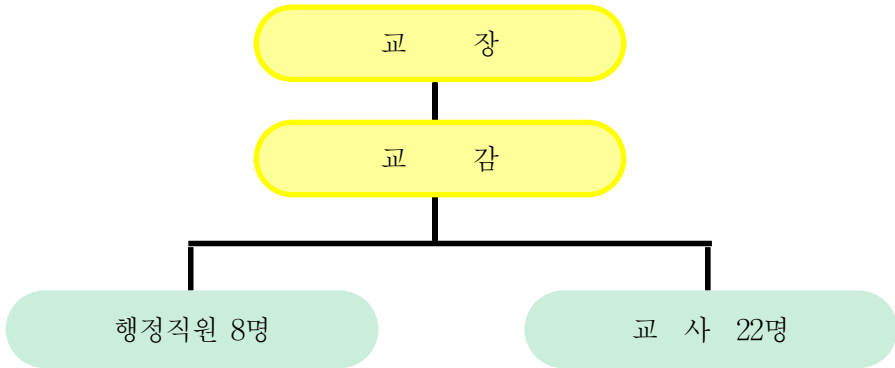
제 2 절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서 학교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교육의 시기를 놓친 성인여성들에게 평생교육 차원에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의 학력수준과 능력을 향상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1998년 3월 9일 설립되었다. 이 학교의 운영목표는 지적학습 능력 향상, 평생학습 실현, 민주시민 자질 향상에 두고 있으며, 중점 추진과제는 창의적이고 민주적인 자질 함양, 지식사회에 대비한 기초학력 신장,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건강한 생활 문화조성, 자율과 책임을 다하는 공동체 생활을 구현하는데 있다.

1. 학교현황

- ❖ 설립자 : 전라북도지사
- ❖ 설립근거 : 평생교육법 제20조 동시행령 제9조제5항, 동시행규칙 제9조 제4항에 의한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
- ❖ 학교위치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283-1번지
- ❖ 시설규모 : 부지 10,522m², 건물 연면적 2,227m²(교장실 1, 교무실 1, 행정실 1, 일반교실 6, 특별실 2, 합동강당1, 가사실습실 1, 식당 1, 다목적실 1, 기타시설)
- ❖ 교육과정 : 중학교 및 고등학교 3년제 정규과정
- ❖ 인가규모 : 6학급 240명(중·고 학년당 1학급씩)
- ❖ 재학생 : 245명(중학교 124, 고등학교 121)

2. 조직



<그림 6-1> 학교조직

<그림 6-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조직의 구성은 전라북도지사가 학교장이며, 교감 1명, 교사 22명, 행정직원 22명이 봉사하고 있다. 또한 학생자치활동기구가 조직되어 있는데 학생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임원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245명의 성인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3. 학생현황

<표 6-2> 연령별 성인학생 현황

구분	계	29세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계	245명	1	7	99	100	38	
중	소계	124	0	1	47	60	16
	1	38	0	0	16	20	2
	2	47	0	1	20	18	8
	3	39	0	0	121	22	6
고	소계	121	1	6	52	40	22
	1	38	1	2	13	16	6
	2	44	0	4	23	11	6
	3	39	0	0	16	13	10

<표 6-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학생분포를 보면 총 245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학교 급별로 보면 중학생은 124명, 고등학생은 121명이고,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대 1명, 30대 7명, 40대 99명, 50대 100명 60대이상 38명이다. 중학생의 연령분포는 30대 1명, 40대 47명, 50대 60명 60대이상 16명이며, 고등학생의 연령분포는 20대 1명, 30대 6명, 40대 52명, 50대 40명 60대이상 22명이다.

4. 학사운영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학사운영을 정규교과과정, 과외교과과정, 외부특강 등으로 운영한다. 첫째, 정규교과과정은 정규수업, 현장학습, 보충학습으로 운영한다. 정규수업은 1일 6교시로 진행하고 연간 220일 이상을 수업하며 3년 과정으로 운영한다. 현장학습은 체육대회, 백일장대회, M/T 등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성인학생을 위하여 보충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둘째, 과외교과과정은 정서, 문화, 외국어, 정보화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구체적으로는 문학, 서예, 회화, 합창, 사진, 풍물, 영어, 일본어 회화 및 독해, 스포츠탄스, 기공체조, 건강교실, 컴퓨터기초, 인터넷검색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셋째, 외부특강은 민주시민 의식함양, 단체 활동 적응학습, 여성관련 문제, 자긍심 함양 등의 주제로 실시되고 있다.

제 3 절 여성평생교육기관

전북여성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여성평생교육기관의 종류에는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YWCA, 여성회관, 종합사회복지관, 여성개발원, 여성단체, 문화센터, 매스미디어로 나누어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전라북도 여성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으로 대학부설평생교육원, YWCA, 여성회관, 사회복지관, 평생학습관, 자원봉사기관, 농협주부대학 등을 살펴본다.

1. 대학부설평생교육원

1) 개요

<표 6-3> 대학부설평생교육원현황

기관명	지역	소재지
고창기능대학 평생교육원	고창	고창군 고창읍 도산리 610-2
군산간호대학 평생교육원	군산	군산시 개정동 413
군산대학교 평생교육원	군산	군산시 미룡동 산 68
군장대학교 평생교육원	군산	군산시 성산면 608-8
서해대학교 평생교육원	군산	군산시 오룡동 832-1
전북기능대학 평생교육원	김제	김제시 백학동 84번지
한일장신대학교 평생교육원	완주	완주군 상관면 신리 694-1
원광대학교 평생교육원	익산	익산시 신용동 344-2
원광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	익산	익산시 신용동 344
익산대학교 평생교육원	익산	익산시 마동 194-5
예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임실	임실군 신평면 창인리 271
벽성대학교 평생교육원	전주	전주시 서신동 773 새마을회관
예수간호대학 평생교육원	전주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1가 168-1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	전주	전북일보 14층 (금암캠퍼스)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전주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3가 14-6
전주공업대학교 평생교육원	전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1070
전주기전여자대학 평생교육원	전주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 2가 94-4
전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전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200
호원대학교 사회교육원	전주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289-1

<표 6-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내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은 19개 기관이며, 이 기관들은 전북지역 여성인적자원개발에 지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도내 4년제 6개 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의 운영 현황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은 대학학위취득과정, 건강관리교육과정, 교양 및 생활체육과정, 댄스교육, 미술교육, 비즈니스 정보화교육, 외국어 교육, 요리 교육, 음악교육, 전문지도자교육, 직업교육, 특별교육과정 등 12개 과정에서 200여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수강인원은 학기당 총 3,600명이 등록하고 있으며, 연간 10,000여명의 수강생이 등록하고 있다. 이 가운데 여성 수강생은 70%를 차지하고 있다.

전주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은 일반교양교육, 외국어교육, 미술 실기교육, 생활체육교육, 지도사자격증과정 등 5개 과정에 총 46개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총 수강인원은

1,000여명으로 이 가운데 여성 수강생은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석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은 전문교육, 외국어교육, 건강교육, 교양교육, 특별교육 과정 등 5개 과정에 62개 강좌가 개설되었다. 총 등록인원수는 1,200여명이며, 역시 여성수강생은 70%를 차지하고 있다.

원광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은 예능과정, 건강레포츠과정, 자격증취득과정 등 4개 과정에서 50개 강좌가 개설되었다. 총 등록인원은 1,400명이며 이 가운데 여성 수강생이 역시 70%를 차지하고 있다.

군산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은 전문과정, 건강레포츠과정, 특별활동과정, 외국어 과정, 컴퓨터 과정, 교양·생활교육과정 등 6개 과정에 50개 강좌가 개설되었고 수강인원은 총 1,300여명이다.

2) 프로그램 예시('C'대학교 평생교육원)

여성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대학평생교육원 프로그램으로 'C'대학교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살펴본다. 세부적인 'C'대학교 평생교육프로그램은 <표 6-4>와 같다.

<표 6-4> 'C'대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램	세부 프로그램
학사학위취득과정	· 아동학 전공 · 청소년학 전공 · 행정학 전공
건강관리교육	· 간병사 · 귀반사건강법 · 골프교실 · 비만치료관리사 · 발건강관리사 · 수지침 · 스포츠마사지 · 이혈(귀) 건강법 · 체중조절을 위한 식생활 · 요가 · 카이로프랙틱 · 레크리에이션지도사
교양 및 생활교육	· 국제작명사 · 문예창작 · 매너 이미지 메이킹 · 부자학개론 · 분재 · 수맥과 생활 · 수필창작 · 스머프 매직 · 재미두수 · 풍수지리와 수맥 · 스피치기법과 변론 · 인간관계향상 및 자기표현훈련 · 생활역학과 작명
댄스교육	· 댄스스포츠 · 왈츠 · 은빛댄스스포츠 · 발레 · 췌즈댄스 · 한국무용
미술교육	· 꽃장식 · 꽃꽂이 · 꽃누름(Pressed Folwer) · 닥종이인형 만들기 · 도예 · 문인화 · 리본아트 · 선물포장 · 사진예술 · 서예 · 수묵화 · 산수화 · 수채화 · 서양화기초실기 · 예쁜글씨 · POP레터링 · 예쁜글씨 파스텔화 · 소묘 · 유화 · 한지전통공예 · 칠보공예 · 퀼트
비즈니스정보화	· 디지털카메라 그래픽 편집 · 컴퓨터수리와 네트워크운영 · 홈페이지제작과 쇼핑물관리 · Visual C+프로그래밍
외국어교육	· 영어회화 · Free Talking · 일본어회화 · 생활중국어

요리교육	· 전통 4계절 김치 · 전통떡볶 · 한식요리 · 한국상차림요리
음악교육	· 바이올린 · 성악 · 생활음악 · 웰빙여성음악특강 · 아코디언 연주과정 · 이탈리아 가곡 · 클래식 색스폰 · 클래식 기타 · 포크 기타 · 피아노 · 합창/관현악 지휘법 · 첼로
전문교육지도사	· 가족미술치료교육사 · 노년교육 지도사 · 논리논술 지도사 · 다도 · 독서치료 교육사 · 동화구연 지도사 · 병원서비스코디네이터양성 · 방과후 아동지도사 · 부모교육 지도사 · 시낭송 지도사 · 상담사 · 숲해설가 · 아동지도지도사 · 아동미술지도사 · 미술치료교육사 · 아동애니메이션지도사 · 아로마테라피스트 · 웰빙자연제품만들기 · 유아놀이 지도사 · 유아국악 지도사 · 유아 레크리에이션 지도사 · 유아/아동 체육 지도사 · 유전자 상담사 · 주산/양산교육지도사 · 음률지도사 · 음악치료 교육사 · 칼라믹스지도사 · 특수아치료교육사 · 프리벨 가베 교육
직업교육	· 공인중개사 · 부동산경매 실물 권리분석 · 부동산컨설팅과 권리분석 · 장애인지도사 · 유화
특별교육	· 심천사혈요법 · 침구요법
한자한문교육	· 논어강독 · 말하는 맹자 · 주역강해 · 재미있는 이야기 한문교실 · 한자교육지도사 · 한문교육지도사

자료: <http://www.ccc.chonbuk.ac.kr>

2. 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전라북도에는 군산, 남원, 전주에 YWCA가 있으며, 이 가운데 군산 YWCA와 전주 YWCA가 여성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직업교육기관으로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전문직업교육에 의한 직업인력 양성, 여성정보센터, 문화·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무료취업상담 및 여성유망취업 정보제공, 어린이를 위한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 운영, 직장여성과 교육생 자녀를 위한 놀이방 운영, 간병인, 가사도우미 등과 같은 여성인력 소개업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여기에서는 군산 YWCA와 전주 YWCA의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살펴본다.

1) 전주 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전주 YWCA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전북지역 여성을 위한 직업 교육 훈련기관으로서 여성부 지원으로 1998년 12월에 개관하였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요리교실, 어린이프

로그래, 직장인을 위한 야간반, 사회교육 및 문화활동, 국비무료 취업훈련, 정보화 교육, 특강 등을 운영한다.

■ 소재지: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410-1 제일빌딩

■ 시 설: 건평 530평(7층 -265평, 8층 265평)

층	시설현황
7층	대강당, 강의실1, 강의실2, 강의실3, 정보열람실, 이야기터, 관장실, 사무실, 컴퓨터실1, 2, 상담실
8층	소강당, 목공실, 양재실, 유아방, 요가실, 강의실4, 조리실습실, 제빵실, 물품보관실, 주방, 휴게실 센터 소개

■ 프로그램

<표 6-5>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프로그램

프로그램	세부 프로그램
요리교실	· 한식조리사 · 중식조리사 · 일식조리사
직업능력개발훈련	· 한자급수 · 생각그물0602 · ITQ엑셀자격증반 · 초등 수학교육지도사 · 아동 미술지도사 · 방문잉크충전사업 · 글쓰기독서지도사 · 한자지도사
어린이프로그램	· 동화극장 · 동화나라인형극장 · 한자급수반 · 연극교실 · 글쓰기 독서교실 · 리더쉽 키우기 · 발도르프 인형만들기 · 쿠키 & 머피만들기
직장인교육	· POP예쁜글씨쓰기 · 엑셀보고서만들기와 프리젠테이션 · 스피드요리 · 처녀들의 저녁식사 · 연상 실용한자 · 요가교실 · 마추이야기
사회교육 및 문화활동	· 플롯교실 · 크리스마스 선물 · 초등독후일기지도 · 테마요리 · 하하생활영어
국비무료취업훈련	· 출장반찬창업
정보화교육	· 인터넷과 한글반 · 싸이월드와 블로그
특강	· 퓨전떡만들기 · 천연비누로 촉촉한 피부만들기 · 맛깔나는 김치 담그기 · 리본 & 선물포장 · 가족 비즈만들기

자료: <http://www.jjwoman.or.kr>

2) 군산여성인력개발센터

이 센터는 노동부 지원에 의한 직업교육기관으로서 1996년 7월 15일에 개관하여 직업을 갖고자하는 여성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취업대비부업프로그램 23개, 자격증대비반 5개, 사회교육과정 17개, 직장인교육과정 5개

등이다. 이 센터는 취업정보제공, 취업알선 등 무료직업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 여성근로자의 고용평등상담을 하고 있으며, 놀이방, 식당 등 복지후생 시설을 운영한다.

■ 소재지: 군산시 나운 2동 45-10

■ 시 설: 총건평 400평

층	시설현황
지하1층	도배실, 피아노조율실, 강의실1,2
지상2층	관장실, 상담실, 놀이방, 사무실, 전산실, 양재실, 미용실, 구내식당
지상3층	강당, 조리실, 제과제빵실

■ 프로그램

<표 6-6> 군산여성인력개발센터 프로그램

프로그램	세부 프로그램
취업·부업 대비	· 독서 지도사 · NIE 지도자 · 영자 신문과 NIE · 동화구연지도자 · 컴퓨터방문교사 · 양재의류 수선사 · 퀼트 지도자 · 도배사 교육 · 펍백 이바지 음식사 · 간병인 · 발반사 · 성전 꽃꽂이 · 테디 베어 · 머신 퀼트 · 방과 후 아동지도자 · 베이비시터
자격증 대비	· 한식조리기능사 · 양식조리기능사 · 중식조리기능사 · 제과/제빵기능사
사회교육	· 기초 컴퓨터 · 인터넷기초 · 영어회화 · 기초영문법 · 중국어회화 · 수지침 · 특선별미요리 · 제과제빵 · 퀼트 · 종이공예 · 꽃꽂이교실 · 어머니동화구연 · 동양화 · 풍선아트 · 서예 · 발 관리반
직장인교육	· 아동미술 지도자 · 댄스스포츠 · 레크레이션 지도자 · 특선별미 요리 · 발관리자

자료: <http://www.kswork.or.kr>

3. 여성회관

1) 개요

전라북도 여성인적자원개발기관으로서 여성회관은 도에 의해 설치된 여성교육문화센터와 시·군에 의해 설치된 여성회관이 있다. 전라북도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성회관은 10개로서 자세한 운영현황은 다음 <표 6-7>과 같다.

<표 6-7> 전라북도 내 여성회관 현황

명칭	개관일자	소재지	건물 및 대지	주요사업	운영주체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1968.11.11	전주시 덕진구 금암1동 664-55	대지:4,300㎡ 건물:3,600㎡ 지하1, 지상3	교양교육, 능력개발 여성상담, 취업알선 문화교실, 직업훈련 어린이집 운영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군산시 여성회관	1987.1.27	군산시 영화동 14-2	대지:1,300㎡ 건물:1,100㎡ 지하1, 지상3	취미교실, 기술교육 건강교실, 교양교실 기능교육	군산시
익산시 여성회관	1983.5.18	익산시 남중도 86-1	대지:1,800㎡ 건물:1,900㎡ 지상3	교양강좌, 취미교실 건강교실, 부녀상담 기술, 재취업, 창업교육, 문화교실 빨래방 운영	익산시
정읍시 여성회관	1991.12.5	정읍시 연지동 252-54	대지:17,00㎡ 건물:1,300㎡ 지상3	교양강좌, 취미교실 부녀상담, 교양교육 문화의집 운영	정읍시
남원시 여성교육문화원	1995.1.3	남원시 조산동 30-2	대지:17,128㎡ 건물:1,980㎡ 지상3, 강당1	교양강좌, 취미교실 기술교육, 부녀상담 건강교실, 자원센터 검정고시반	남원시
김제시 여성회관	1995.4.21	김제시 검산동 1031	대지:3,300㎡ 건물:2,000㎡ 지하1, 지상3	교양강좌, 기술교육 부녀상담, 컴퓨터교육, 작품발표회	김제시
완주군 군민종합복지센터		완주군 봉동읍 은하리 1030-54	대지:4,000㎡ 건물:900㎡ 지하1, 지상3	기술교육, 문화강좌 취미교양교육 노인복지시설	완주군
순창군 군민종합복지회관	1998.5.18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966-7	대지:3,240㎡ 건물:1,590㎡ 지하1, 지상2	기술교육, 문화강좌 취미교양교육 실내수영장 운영	순창군
고창군 노인,여성복지회관	1999.2.1	고창군 고창읍 월곡리 택지개발지구 24-1	대지:2,820㎡ 건물:1,021㎡ 지하1, 지상2	기술교육, 취미교육 건강교육, 상담실 탁아소, 도서실	고창군
부안군 노인,여성복지회관	1998.10.22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643-65	대지:2,412㎡ 건물:1,263㎡ 지하1, 지상5	기술교육, 취미교육 요가교실, 한글교실 스포츠댄스교실	부안군

<표 6-7>에서 보는바와 같이 여성회관은 약간의 기능의 차이가 있다. 전라북도는

여성회관 사업을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2005.7.29)로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군의 여성회관은 대부분의 직원이 공무원로서 관 주도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도 위탁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는 서비스 대상지역이 도 전체이고, 도내 여성회관의 본부의 기능을 갖는 여성회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시·군 여성회관은 대상 및 기능에 있어서 지역여성의 특성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는 도내 여성회관의 총괄 및 조사·연구 지원기능, 여성복지서비스의 지역거점 역할, 여성 사회교육기관 협의회의 조직 및 활성화 기능, 지역평생교육 기능을 담당하며, 시·군 여성회관은 지역여성복지서비스의 중심기관의 역할, 전문 복지서비스 및 기술교육 기능, 여성소집단 모임지원, 지역평생교육 기능 등을 담당한다.

2) 프로그램 예시(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여성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여성회관 프로그램으로써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프로그램을 살펴본다. 세부적인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프로그램은 <표 6-8>과 같다.

<표 6-8>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프로그램

프로그램	세부 프로그램
직업능력교육	· 가사보조원 · 도배보조원 · 전통혼례음식조리사
전문인력양성교육	· 한식 요리사 · 출장 요리사 · 생활요리 · 홈패션 · 패션패인팅 · 도예 · 발관리 · 네일아트 · 선물포장/리본아트 · 헤어미용
창업교육	· 반찬전문창업 · 의류제작 및 수선 · 의상디자인전문가 · 베이커리창업
생활문화건강교육	· 영어 · 일어 · 건강요가 · 드로잉한국화 · 크로마하프 · 댄스스포츠
교사양성교육	· 한자한문지도사 독 · 서지도강사 · 중등논술지도사 · 미술치료지도사
IT전문가양성	· 컴퓨터기초 · 엑셀/파워포인트, ·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여성창업지원교육	· 역사탐방 · 논술교사양성
외국인여성정착지원	· 외국인여성 한국어교실 · 요리를 통해 본 한국문화 이해
전북여성 참여강자	· 지역사회 혁신, 여성의 힘으로

자료: <http://jbcw.re.kr>

4. 사회복지관

1) 개요

전라북도에는 평생교육기능을 통하여 여성인적자원개발에 기여하는 17개 사회복지관이 있다. 구체적인 사회교육기관과 지역 및 소재를 알아보면 <표 6-9>와 같다.

<표 6-9> 사회복지관

기관명	지역	소재지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군산	군산시 나운동 45
군산종합사회복지관	군산	군산시 산북동 3611-1
길보종합사회복지관	김제	김제시 신평동 613
김제사회복지관	김제	김제시 검산동 1030-1
김제제일사회복지관	김제	김제시 교동 118-2
남원사회복지관	남원	남원시 노암동 275
남원종합사회복지관	남원	남원시 이백면 남계리 343-3
동산사회복지관	익산	익산시 동산동 145
동암종합사회복지관	전주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가 230-27
부송종합사회복지관	익산	익산시 부송동 1069
선너머복지관	전주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1가 221-27
원광종합사회복지관	익산	익산시 신동 423-1
전라북도사회복지협회	전주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가 230-27
전북종합사회복지관	전주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986-1
전주종합사회복지관	전주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 445-1
정읍사회복지관	정읍	정읍시 수성동 918-1
평화사회복지관	전주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 445-6

<표 6-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관의 기능은 가족기능강화사업, 지역사회보 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교육문화사업 은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들을 위한 다양하고 유익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한다. 아동, 청소년의 학업향상을 도우며, 성인의 여가생활 및 자격증 취득을 통한 가정의 경제적 자립을 도우며,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평생 교육을 체 험하며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관은 교육문화사업을 통하여 여성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평생교육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2) 프로그램 예시(원광종합사회복지관)

여성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으로써 원광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을 살펴본다. 세부적인 원광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은 <표 6-10>과 같다.

<표 6-10> 원광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프로그램	세부 프로그램
사회교육	· 요가 · 서양화 · 기타 · 한글교실 · 푸름대학 · 천연비누 만들기 · 분재 · 컴퓨터 · 도예인테리어 · 피아노 · 오카리나 · 풍수지리 · POP 예쁜글씨 · 리본선물포장
자원봉사	· 재가복지봉사 · 청소년복지 봉사 · 지역복지 봉사 · 아동복지 봉사

자료: <http://wkw.or.kr>

5. 평생학습관

1) 개 요

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법에 의거 교육감이 지정한 평생교육시설이다. 전라북도 내 평생학습관은 16개 기관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구체적인 평생학습관명과 지역 및 소재를 알아보면 다음 <표 6-11>과 같다.

<표 6-11> 평생학습관

기관명	지역	소재지
고창교육청	고창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76-4
군산학생종합회관	군산	군산시 조촌동 853-1
김제원평공공도서관	김제	김제시 금산면 성계리 638-5
남원학생종합회관	남원	남원시 동충동 1171-2
마한학생종합회관	익산	익산시 마동 291-2
무주교육청	무주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329
부안공공도서관	부안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230-1
순창공공도서관	순창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268-1
완주공공도서관	완주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301
임실공공도서관	임실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617번지
장수공공도서관	장수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312
전라북도학생종합회관	전주	전주시 덕진구 진북1동 301-70
전주교육청	전주	전주시 덕진구 진북1동 382-7
전주시청	전주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568-1
정읍학생복지회관	정읍	정읍시 수성동 450-2
진안군청	진안	진안군 진안읍 군하리 97-4

<표 6-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감에 의하여 지정된 도내 평생학습관을 특성에 따라 분류하면, 지역교육청 3곳, 학생종합회관 및 복지회관 5곳, 공공도서관 6곳 지방자치단체 2곳이다.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지역교육청과 공공도서관은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여성인적자원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학생종합회관 및 복지회관은 건전한 심신육성을 위한 문화교실 운영, 학생의 소질개발을 위한 특별활동 강화, 독서인구확대와 지식정보제공, 삶의 질 향상과 자아실현을 위한 평생학습기회 제공, 문화체육활동을 위한 쾌적한 환경제공 등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평생학습기회 제공 사업은 이 기관이 여성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기관임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2) 프로그램 예시(군산학생종합회관)

여성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으로써 군산학생종합회관 프로그램을 살펴본다. 세부적인 군산학생종합회관 프로그램은 <표 6-12>와 같다.

<표 6-12> 군산학생종합회관 프로그램

프로그램	세부 프로그램
평생교육	· 영어회화 · 중국어회화 · 신문 활용 및 방과 후 아동지도 · 컴퓨터 · 종이공예 · 사군자 · 왕초보 영어 사물놀이 · 서예 · 노래 및 가곡 · 발 관리 · 한글 · 한자
문화교실	· 영화감상교실 · 미술 감상교실 · 음악 감상교실 · 교양강좌 교실 · 봉사활동교실

6. 자원봉사기관

1) 개 요

자원봉사기관은 지역의 많은 여성들을 자원봉사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구체적인 도내 자원봉사 단체 및 기관 현황은 다음 <표 6-13>과 같다.

<표 6-13> 자원봉사기관

기관 및 단체명	지역	소재지
(사)여성자원봉사연맹전북지부	전주	전주시 완산구 전동 2가 71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추진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전주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1가 108 전북은행 제일지점 6층
사랑모아사랑전달센터	전주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180
전라북도사회복지협의회부설 사회복지정보센터	전주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462-3 동원빌딩 4층
전북사회복지협의회	전주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462-3 동원빌딩 4층
전주시여성자원활동센터	전주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568-1
전주시자원봉사종합센터	전주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774-8
한국시민자원봉사사회전북협의회	전주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2가 427-14

<표 6-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원봉사기관들은 지역여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노인의 취미·여가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활동 참여 지원, 지역주부들의 생활 개혁운동과 노숙자 자원봉사 등을 수행한다. 이와 같이 여성들은 도내 자원봉사 기관에서 자원봉사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

2) 프로그램 예시(전주시 자원봉사종합센터)

여성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으로써 전주시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을 살펴본다. 세부적인 전주시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은 <표 6-14>과 같다.

<표 6-14> 전주시 자원봉사종합센터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내용
자원봉사 기초 교육	· 자원봉사 기초이론교육 · 자원봉사 리더쉽 레크리에이션 · 수화교육 · JVMS자원봉사 전산교육
학부모 교육	·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과 파급효과 · 자원봉사 레크리에이션 교육 · 지역 사회복지 현황 및 자원봉사 활동 · JVMS 전산관리 교육 · 기초수화교육 · 자원봉사자 건강관리
자원봉사 특화 교육	· 레크리에이션 2급지도사 양성과정 · 이/미용교육 · 호스피스/간병인교육 · 스포츠맛사지 · 수화교육 · 이혈교육 · 미술교육 · 응급구조교육
자원봉사 관리자 교육	· 대학생 자원봉사 지도자 교육과정 · 자원봉사 중급 관리자 과정 · 자원봉사 고급 관리자 과정 · 여성 자원봉사 CEO 과정

자료: <http://www.jeonjuvs.or.kr>

7. 농협주부대학

1) 개요

도내에는 단위농협을 중심으로 7개의 시·군에서 주부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주부대학 프로그램은 여성지도자 역량 강화,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여성지도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지역의 여성지도자로서의 자질 향상의 내용이며, 노

인자원봉사 프로그램은 노인자원봉사의 개념과 의미를 되새기고, 현장체험을 통해 봉사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내용이다.

<표 6-15> 농협주부대학

기관명	지역	주소
금마농업협동조합	익산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905-4
남원농업협동조합	남원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460-10
봉동농협협동조합	봉동	전북 완주군 봉동읍 330-1
북전주농업협동조합	전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702-2
순창농업협동조합	순창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783-1
전주농업협동조합	전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685-1
진안농업협동조합	진안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460-10

2) 프로그램 예시(농협중앙회전주지부)

여성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농업협동조합 프로그램으로써 북전주농업협동조합 프로그램을 살펴본다. 세부적인 북전주농업협동조합 프로그램은 <표 6-16>과 같다.

<표 6-16> 농협중앙회전주지부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독거노인대상 가정봉사자 연수	자원봉사개념, 노인특성이해, 노인응급처치 및 자가 간호법, 노인과의 인간관계 및 의사소통, 노인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실제 워크샵

제 4 절 결 론

본 장에서는 전라북도 여성인적자원개발에 관한 현황을 탐색하고자 행정기관의 인적자원개발정책,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로서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여성평생교육기관을 살펴보았다. 여성평생교육기관은 대학평생교육원, YWCA, 여성회관, 사회복지관, 평생학습관, 농협주부대학 등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여성인적자원개발 기관 및 단체들은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몇 가지 재고해야 할 점들이 있다.

첫째, 여성인적자원개발 기관은 취업 및 직업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많은 여성들은 취업을 원하고 있으므로 직업능력 및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인적자원개발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둘째, 여성인적자원개발 기관은 여성이 지역지도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기관들은 여성들이 각종 동아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촉진하거나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여성들이 지도자로서 역할을 갖출 수 있도록 리더십 교육 및 훈련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여성인적자원개발 기관은 여성이 각종 분야에서 자원봉사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기관들은 자원봉사자로서의 사명감, 역할, 활동분야, 리더십 등에 대한 훈련과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넷째, 여성인적자원개발 기관은 여성의 학력 신장과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지위에 있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학력취득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성인을 위한 기초학력 및 초중등학력시설의 설립 및 확대가 필요하다.

다섯째, 여성인적자원개발 기관은 직장여성의 전문성 및 직무능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아직도 여성들은 직장 내에서 승진 및 발전의 기회를 제약받고 있다. 모든 직장에서 여성들이 여성만이 가지는 특유의 장점을 살려서 발전할 수 있도록 여성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여성인적자원개발은 교육과 학습을 통해 지식과 능력을 극대화함으로써 변화하는 사회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함

으로써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역량을 강화하는데 있다. 따라서 여성인적자원개발은 행정기관, 학교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 등에서의 여성의 교육기회 확대 및 양질의 교육 제공으로 여성의 경제적 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여성의 사회참여 및 문화 활동 활성화에 의해 지도자적 역량을 갖게 하는 것이다.

제 7 장

전북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실태

- 제 1 절 전북여성의 인적현황 및 경제활동
- 제 2 절 여성의 취업활동 장애 및 노동환경

제 7 장 전북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실태

신대철(전주대학교 교수)

제 1 절 전북여성의 인적현황 및 경제활동

1. 전북여성의 인적 현황

전북은 1960년대 이후 지속된 한국사회 지역간 불균형 발전전략에 따라 지속적인 인구감소를 경험하였다. 예를 들면, 2002년 1,953,846명에서 2004년 1,906,742명으로 약 47천명이 감소하였다.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성비는 약 99.0으로 큰 변화가 없었는데 여기는 인구증감에 있어서 상쇄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즉 15세 이하의 출생인구의 경우 남아가 여아에 비해 많아 성비 또한 107-110로 높다. 그렇지만 50대 이후 성비는 100 이하로 낮아지고 있는데 특히 70세 이상 노인의 성비는 56.3로 나타나고 여성노인 인구가 남성에 비해 거의 2배 정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1> 전북지역 성별 연령구조, 2002~2004

(단위 : %)

연령별	2002			2003			2004		
	여 자	남 자	성 비	여 자	남 자	성 비	여 자	남 자	성 비
계	982,117	971,729	98.9	984,141	970,289	98.6	958,045	948,697	99.0
0~4	54,969	59,395	108.1	53,968	57,913	107.3	48,074	51,403	106.9
5~9	65,802	72,075	109.5	66,751	72,585	108.7	62,373	67,789	108.7
10~14	62,035	66,924	107.9	63,961	69,547	108.7	63,566	69,479	109.3
15~19	68,670	72,159	105.1	64,720	68,501	105.8	61,102	65,033	106.4
20~24	79,825	91,006	114.0	77,655	89,847	115.7	71,604	83,104	116.1
25~29	71,722	80,084	111.7	67,656	74,756	110.5	63,134	70,872	112.3
30~34	74,922	82,207	109.7	75,001	80,097	106.8	72,254	78,361	108.5
35~39	69,576	75,524	108.5	72,466	77,371	106.8	71,455	77,270	108.1
40~44	77,156	80,022	103.7	77,122	79,885	103.6	73,855	78,163	105.8
45~49	62,878	64,887	103.2	66,670	68,333	102.5	68,682	70,748	103.0
50~54	53,429	52,765	98.8	53,217	52,442	98.5	54,152	53,963	99.7
55~59	47,299	43,611	92.2	48,019	45,637	95.0	49,274	47,662	96.7
60~64	57,105	46,544	81.5	55,511	45,037	81.1	52,711	42,996	81.6
65~69	49,762	36,720	73.8	50,513	37,832	74.9	50,981	38,480	75.5
70~	86,967	47,806	55.0	90,911	50,506	55.6	94,828	53,374	56.3

주 : 1) 외국인은 제외됨. 2) 성비는 여자 100명당 남자의 수를 나타냄.

자료 : 전라북도(2005)

다른 한편, 2004년 전북지역 전체 인구 1,906,742명 가운데 15세 이하 인구가 362,684명으로 19%를 차지한 반면, 15세 이상 인구는 1,544,058명으로 81.0%를 차지하였다. 특히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15세부터 64세 이르는 생산연령층 인구가 1,306,395명으로 전체 인구의 68.5%를 차지하였고, 노인인구는 237,663명으로 전체 인구의 12.5%를 차지하였다.

<표 7-2>는 전국을 비롯하여 전북지역 성별 경제활동인구와 그 구성비를 1990년 이후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분석한 것이다.

먼저 전북여성인구의 경제활동 참여 변화를 살펴보면, 한국사회가 IMF 경제위기에 직면하기 직전인 1996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하다가 1997년부터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4년 46.9%로 전국 평균 49.8%보다 크게 낮은 편이다. 이런 차이는 남성인구에서도 목격되고 있는데 2004년 전북지역 남성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70.9%로 전국의 74.8%에 비해 3.9%나 낮았다.

그렇지만 남성인구와 여성인구의 경제활동참여 비율은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전북지역의 경우 그 격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서 1990년대 전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97년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감소하여 최근 다시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정체현상을 보인 남성인구(1990년 74.0%에서 2004년 74.8%)에 비해 개선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북여성의 경우는 1997년까지 크게 증가하다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4년 경제활동 참가율이 46.9%로 1990년 46.1% 수준에 비해 개선된 것이 없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남성인구(1990년 65.3%에서 2004년 70.9%)에 비해 경제활동참여가 악화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표 7-2> 전국 및 전북지역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1990-2004

(단위 : %, 천명)

구 분	전국 참가율		전국경제활동 인구여성비율	전북남자 참 가 율	전 북 여 자		
	남 자	여 자			15세 이상	활동인구	참 가 율
1990	74.0	47.0	40.4	65.3	774	357	46.1
1991	74.9	47.3	40.3	65.3	774	349	45.1
1992	75.5	47.3	40.1	66.2	774	356	46.0
1993	76.0	47.2	40.0	68.5	755	358	47.4
1994	76.4	47.9	40.1	70.1	751	371	49.4
1995	76.5	48.3	40.2	69.6	748	374	50.0
1996	76.1	48.7	40.4	69.4	764	383	50.1
1997	75.6	49.5	40.9	69.5	769	380	49.4
1998	75.2	47.0	39.9	72.0	772	358	46.4
1999	74.4	47.4	40.4	70.7	774	361	46.6
2000	74.0	48.3	41.0	69.9	774	365	47.2
2001	74.2	49.2	41.4	70.5	776	377	48.6
2002	74.8	49.7	41.4	70.0	770	369	47.9
2003	74.6	48.9	41.0	70.9	763	365	47.9
2004	74.8	49.8	41.4	70.9	756	355	46.9

주 : 1)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연구 / 15세이상인구 × 100

2)경제활동인구여성비율 = 여성경제활동 인구 / 총경제활동인구 × 1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년도

다음으로 <표 7-3>은 전북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자와 실업자의 분포를 구분하여 살펴본 것인데,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인구보다 비경제활동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러한 경향은 1996년까지 감소하다가 IMF 이후 다시 증가하였다. 예를 들면, 1996년 15세 이상 여성인구 가운데 비경제활동인구가 376천명으로서 경제활동인구 370천명에 비해 6천명 많았지만, 2004년 15세 이상 여성인구 756천명 가운데 비경제활동인구가 401천명으로서 경제활동인구 355천명보다 무려 46천명 많았다. 반면에 남성의 경우는 2004년 경제활동인구가 489천명으로 비경제활동인구 200천명에 비해 오히려 2배 이상 많았다. 이처럼 15세 이상 남녀인구 가운데 여성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남성에 비해 많은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65세 노인인구 가운데 여성인구가 절대적으로 많다는 사실이며, 그 다음으로 중요한 원인은 여성의 경우 취업하고자 하는 열망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적합한 직종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취업 의사를 철회하고 가정에 남게 되는 이른바 ‘실망 실직자’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김영기·박재규, 2001).

이상과 같은 결과는 여성의 취업률을 높여주는 반면 실업자 규모와 실업율을 감소시켜 주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여성의 취업률은 2004년 97.2%로 남성의 취업률 97.3%보다 높은 반면 실업율은 여성이 22.2%로 남성 실업율 2.7%보다 낮았다.

<표 7-3> 전북인구의 성별 경제활동인구와 취업 및 실업, 1990~2004

(단위 : 천명, %)

구 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 활동 인구		취업자		실업자		경제 활동 참가율		실업율	
	여 자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남 자
1990	774	741	357	484	354	476	3	8	46.1	65.3	0.8	1.7
1991	774	746	349	487	345	479	4	8	45.1	65.3	1.1	1.6
1992	774	748	356	495	351	484	6	12	46.0	66.2	1.7	2.4
1993	755	691	358	473	351	460	6	13	47.4	68.5	1.7	2.7
1994	751	686	371	481	363	468	7	12	49.4	70.1	1.9	2.5
1995	748	684	374	476	369	466	6	11	50.0	69.6	1.6	2.3
1996	746	683	370	474	363	461	6	13	49.6	69.4	1.6	2.7
1997	743	679	363	472	355	459	8	14	48.9	69.5	2.2	3.0
1998	772	714	358	514	345	480	13	34	46.4	72.0	3.6	6.6
1999	774	714	361	505	346	474	14	31	46.6	70.7	3.9	6.1
2000	774	715	365	500	357	483	8	17	47.2	69.9	2.2	3.4
2001	776	709	377	500	369	482	8	18	48.6	70.5	2.1	3.6
2002	770	703	369	492	363	478	6	15	47.9	70.0	1.6	3.0
2003	763	696	365	494	357	480	8	14	47.9	70.9	2.2	2.7
2004	756	689	355	489	347	476	8	13	46.9	70.9	2.2	2.7

자료 : 전라북도(2005)

다른 한편, 전북지역 15세 이상의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분석은 <표 7-4>와 같이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였고, 특히 여성의 경우 1997년 한국사회 IMF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즉 1990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여성의 비경제활동 인구가 1998년 다시 증가하였고, 그후 다시금 줄어들기 시작하여 2004년에 다시금 1990년대 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반면에 남성의 경우는 여성과 달리 1997년을 기점으로 비경제활동인구 증감이 심하지 않았다. 이처럼 IMF 경제위기가 여성에게 보다 심각한 영향을 미친 것은 여성의 경우 일자리를 잃고 난 이후 다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남성보다 어려워 실망 실업자 혹은 평생 실업자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암시해 준다.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대부분은 가사나 육아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가 되었으며, 이들 여성은 최근 들어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즉 1990년 가사 혹은 육아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 여성이 234천명에서 2000년 240천명, 그리고 2004년 261천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에 학업이나 기타 이유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 여성은 감소하였다.

반면에 남성의 경우는 육아나 가사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 사람은 지난 15년 동안 크게 감소하였다. 예를 들면, 1990년 43천명에서 2004년 18천명으로 감소한 반면 기타 이유로 비경제활동인구가 된 경우는 같은 기간에 59천명에서 98천명으로 증가하였다.

<표 7-4> 15세 이상 전북인구의 성별 비경제활동인구, 1990~2004

(단위 : 천명)

구 분	총 수		가사·육아		통 학		기 타	
	여 자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남 자
1990	417	257	234	43	108	155	75	59
1991	424	259	242	45	108	158	74	56
1992	417	252	239	41	109	156	69	55
1993	407	237	230	45	107	129	70	63
1994	381	205	213	41	103	107	65	57
1995	374	207	208	42	101	105	65	60
1996	376	209	203	39	102	107	71	63
1997	380	207	205	32	97	106	78	69
1998	414	199	230	28	94	106	90	65
1999	413	210	235	41	90	102	88	67
2000	409	214	240	46	90	94	79	74
2001	402	213	237	44	92	91	73	78
2002	400	210	246	49	82	96	72	65
2003	398	202	256	21	76	88	66	93
2004	401	200	261	18	72	84	68	98

자료 : 전라북도(2005)

2. 전북여성 취업자의 제반 특성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전북지역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대부분이 취업상태에 있는데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전국 취업여성 특성과 비교하였고, 그 첫 번째 특성으로서 <표 7-5>와 같이 취업자의 연령구성을 검토하였다.

먼저 지난 10년 동안 전라북도 여성 취업자의 연령구성에 있어서 발견되는 특성은 25세 이하의 여성취업자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과 34-54세 여성이 취업여성 구성에서 다수를 차지하며, 그리고 60세 이상의 여성 취업자가 다소 증가할 뿐만 아니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첫 번째 특성인 25세 이하의 여성 취업자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데, 1994년 15.2%에서 2000년 11.4%로 감소하였고, 2004년에 다시 9.6%까지 줄어들었다. 반면에 60세 이상 여성취업자는 1994년 16.5%에서 2000년 19.6%까지 증가하였고, 그 이후 다소 감소하여 2004년 18.7%를 유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35-45와 45-55세 연령층 여성이 전체 취업여성 가운데 지속적으로 1/2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즉 1994년 이들 연령층 여성은 전체 취업여성 가운데 42.9%를 차지하였지만 2004년 46.1%로 증가하는 동시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취업활동과 관련된 M자형 곡선이 전북 취업여성의 경우 최근 변하고 있음을 암시해 준다. 즉 한국사회 미혼여성의 경우 결혼 전에 직장활동을 하다가 결혼과 육아로 일자리를 그만둔 뒤 막내 자녀의 양육이 종료된 이후 다시 일자리로 돌아오는 M자형 취업곡선을 전형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러한 가정은 1994-5년 사이에 어느 정도 적합한 듯싶다. 왜냐하면 20-24세 취업여성이 25-29세와 30-34세 연령층 취업여성 비율에 비해 1.5-2배 정도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그 후 줄어들기 시작하여 2004년에 이르면 아주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에 35세 이후 취업여성 비율이 절대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또한 전국 취업여성의 연령 구성비와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전국 취업여성의 경우 아직도 M자형 취업곡선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즉 2004년 전국 취업여성의 경우 20-24세 연령층과 25-29세 연령층이 각각 12.3%와 12.3%를 유지하다가 30-34세 연령층 여성의 경우 11.2%로 약간 감소하

였다. 그렇지만 35세 이후 크게 증가하다가 55세 이후 다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전국 취업여성과 전북 취업여성 사이에 발견되는 두가지 특징은 전북지역의 경우 60세 이상 취업여성 비율이 높은데, 그 이유는 전북지역 60세 이상 취업여성 중에는 다수 농림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차이점은 24세 이하 전북지역 취업여성 비율이 전국 취업여성 비율에 비해 매우 낮은 것은 대학교 졸업 후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전북지역에 많지 않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표 7-5> 남성 대비 연령계층별 전북여성의 취업자 구성비, 1994-2004

(단위 : %)

구 분	전 북 여 자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48.3	49.3	48.6	47.8	41.8	42.2	42.5	43.4	43.2	42.7	42.2
15~19	2.8	2.4	1.9	2.0	1.7	2.0	2.5	1.4	1.1	1.1	1.2
20~24	12.4	13.0	11.6	11.0	10.1	9.8	8.9	9.8	9.6	9.5	8.4
25~29	6.9	7.9	9.4	9.3	9.3	8.7	8.7	9.2	9.1	9.8	8.9
30~34	8.0	7.0	8.3	7.3	9.3	9.2	8.9	10.3	9.9	8.7	8.6
35~44	22.0	21.4	21.8	21.1	24.0	22.5	21.5	23.3	23.7	25.5	24.8
45~54	20.9	20.9	20.9	21.4	19.1	19.3	21.8	20.1	20.4	20.4	21.3
55~59	10.7	10.6	8.8	9.6	9.9	9.0	8.1	7.9	8.0	7.6	7.8
60이상	16.5	16.5	17.3	18.0	16.6	19.4	19.6	18.2	18.2	17.6	18.7

구 분	전 국 여 자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40.3	40.4	40.6	41.0	40.4	40.9	41.3	41.4	41.4	41.0	41.4
15~19	3.2	3.0	2.9	2.7	2.3	2.2	2.3	2.4	2.0	1.9	1.7
20~24	16.5	15.9	15.0	14.0	11.8	11.5	11.3	12.7	12.8	12.7	12.3
25~29	11.0	11.4	11.9	12.4	12.5	11.9	11.9	12.6	12.3	12.2	12.3
30~34	12.3	11.6	11.8	10.8	10.9	10.6	10.2	11.1	11.3	11.5	11.2
35~44	24.4	25.4	26.1	26.4	28.3	28.5	28.1	27.2	26.9	26.9	26.6
45~54	16.9	16.7	16.7	16.7	17.2	17.8	18.8	18.1	18.8	19.1	19.9
55~59	6.7	6.6	6.6	6.9	6.8	6.6	6.3	5.6	5.4	5.5	5.7
60이상	8.9	9.3	9.5	10.1	10.2	11.0	11.2	10.3	10.6	10.2	10.3

주 : 여성취업자 구성비 계 = 여성취업자수 / 남녀취업자수 × 100

자료 : 전라북도(2005)

다음으로 전북 취업여성의 교육수준에 있어 어떤 특성이 있으며, 전국 취업여성과의 비교할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표 7-6>과 같다.

먼저 전북 취업여성의 교육수준 분포를 살펴보면, 지난 15년 동안 여성취업자 교육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초등학교 학력을 가진 취업여성의 비율이 1990년 63.3%에서 2004년 34.3%로 1/2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는 지난 15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여성의 교육수준이 그 동안 크게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고졸이나 대학교 이상 학력을 가진 취업여성의 비율은 크게 증가하였는데 같은 기간에 18.1%와 3.4%에서 32.3%와 20.7%로 증가하여 각각 약 2배와 6배 정도 확대되었다.

이런 결과를 전국 취업여성의 교육수준과 비교하면, 전북지역 취업여성의 교육수준이 다소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2004년 전북지역 취업여성 가운데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는 여성이 34.3%로 전국 취업여성 19.5%에 비해 15% 정도 많았지만,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여성의 경우는 20.7%로 전국 취업여성의 26.1%보다 5% 정도 적었다.

다른 한편 여성취업자와 남성취업자의 교육수준을 비교하면 남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전북지역의 경우 1990년 취업자 가운데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남성취업자가 12.2%로서 여성취업자 3.4%에 비해 3배 이상 많았고, 2004년에도 26.7%로서 20.7%에 비해 6% 많았다. 그렇지만 그 격차가 지난 15년 동안 크게 줄어들었다. 이런 결과는 전국 여성취업자와 남성취업자의 교육수준 비교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즉 1990년 취업자 가운데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남성취업자가 17.4%로 여성취업자 8.2%에 비해 2배 이상 많았지만, 2004년의 경우 각각 34.9%와 26.1%로서 그 차이가 9%로 크게 좁혀졌다.

<표 7-6> 전국대비 연도별·교육정도별 취업자 비율, 1990~2004

(단위 : 천명, %)

구 분	전 북 여 자					전 북 남 자				
	총수	초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총수	초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1990	349	63.3	15.2	18.1	3.4	476	36.6	19.7	31.5	12.2
1991	340	60.9	15.9	19.7	3.5	479	35.6	19.4	32.2	12.8
1992	343	58.3	15.2	21.3	5.2	484	34.1	18.8	33.1	14.0
1993	351	55.8	14.0	23.6	6.6	460	32.8	16.1	36.7	14.4
1994	363	52.6	13.5	24.0	9.9	468	31.0	16.5	36.3	16.2
1995	369	49.9	13.6	25.5	11.4	466	29.6	15.7	37.6	17.2
1996	363	47.1	14.0	27.2	11.7	461	28.2	15.2	38.6	18.0
1997	355	46.2	14.3	26.8	12.7	459	27.0	16.6	38.8	17.6
1998	345	43.8	13.9	27.8	14.5	480	25.0	14.6	37.3	23.1
1999	346	44.1	13.0	29.1	13.8	474	24.4	14.1	37.9	23.6
2000	347	42.6	13.5	30.3	13.5	483	23.2	14.5	40.2	22.2
2001	369	38.5	13.6	33.3	14.6	482	22.0	13.7	40.9	23.4
2002	363	36.6	14.0	34.7	14.6	478	21.8	13.0	41.6	23.8
2003	357	34.7	13.2	30.5	21.6	480	19.4	11.0	44.4	25.2
2004	347	34.3	12.7	32.3	20.7	476	18.3	10.7	44.1	26.7

구 분	전 국 여 자					전 국 남 자				
	총수	초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총수	초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1990	7,376	40.6	20.1	31.1	8.2	10,709	21.2	19.2	42.2	17.4
1991	7,535	38.4	19.8	32.8	9.0	11,076	20.1	18.7	43.1	18.1
1992	7,639	36.9	18.8	34.2	10.1	11,322	18.7	17.6	43.6	20.1
1993	7,738	33.7	18.1	37.1	11.1	11,515	17.1	16.2	45.3	21.4
1994	8,005	32.1	17.9	38.1	11.9	11,832	16.4	15.9	46.0	21.7
1995	8,224	30.8	17.6	38.6	13.0	12,153	15.1	15.4	46.8	22.7
1996	8,434	29.3	17.4	39.2	14.1	12,330	14.4	15.4	46.8	23.4
1997	8,639	28.8	17.9	38.4	14.9	12,409	14.1	15.9	46.0	24.0
1998	8,084	27.4	16.7	38.9	17.0	11,910	13.0	13.3	45.8	27.9
1999	8,303	26.9	16.8	38.6	17.7	11,978	12.7	13.3	46.1	27.9
2000	8,707	26.2	16.7	38.7	18.3	12,353	12.2	13.4	46.4	28.0
2001	8,991	23.7	15.5	40.4	20.4	12,581	11.0	12.3	47.2	29.4
2002	9,225	22.4	15.1	40.8	21.7	12,944	10.7	12.2	47.0	30.2
2003	9,108	20.6	13.6	41.0	24.8	13,031	10.1	11.0	44.8	34.0
2004	9,364	19.5	13.3	41.1	26.1	13,193	9.5	10.9	44.7	34.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연도

다음으로 여성취업자의 산업별 분포와 전북남성 및 전국 여성 및 남성취업자와의 비교는 <표 7-7>과 같다.

먼저 지난 15년 동안 전북지역 여성이 취업하고 있는 산업구성에 있어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농어업이나 광공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크게 감소한 반면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크게 증가하였다. 예를 들면, 1990년 농어업에 종사한 여성은 43.3%로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보다 가장 많았지만 2004년 23.2%로 감소하였고, 광공업에 종사하는 여성 또한 같은 기간에 19.5%에서 10.7%로 1/2 정도 감소하였다. 반면에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은 1990년 35.5%에서 2004년 64.2%로 약 30% 정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전국 취업여성의 산업별 분포와 비교할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하였다. 다시 말해서 전북지역 취업여성이 전국 취업여성에 비해 농어업 종사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고,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종사자 비율이 낮았지만, 그 변화 유형에 있어서는 비슷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전국 취업여성 가운데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1990년 20.3%로 전북지역 취업여성의 농어업 종사자 비율 43.3%에 비해 적었지만, 2004년 9.2%까지 감소하여 지난 15년 동안 1/2 수순으로 감소하였고, 광공업 종사 여성의 경우 또한 같은 기간에 28.2%에서 16.0%로 감소하였다. 반면에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종사자의 경우는 같은 기간에 49.7%에서 73.1%로 크게 증가하였다.

다른 한편, 전북지역 취업여성의 산업분포와 남성 취업자의 산업 분포를 비교하면 여성취업자의 경우 농어업 및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종사자가 많은 반면 남성취업자의 경우 광공업과 건설업 종사자 비율인 상대적으로 많았다. 예를 들면, 광공업이나 건설에 종사하는 전북남성의 경우 1990년 13.4%와 12.2%에서 2004년 각각 16.2%와 13.4%로 증가하였다. 그렇지만 전국 남성의 경우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광공업의 경우 오히려 같은 기간에 27.2%에서 21.2%로 크게 감소하였고, 건설업의 경우 또한 같은 기간에 각각 11.3%와 12.6%를 차지하여 오히려 약간 줄어들었다. 다만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국 남성취업자의 경우 1990년 45.2%에서 2004년 58.9%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 7-7> 전국대비 연도별·산업별·성별 취업자 비율 (1990~2004)

(단위 : 천명, %)

구 분	전 북 여 자					전 북 남 자				
	총 수	농어업	광공업	건설업	기 타	총 수	농어업	광공업	건설업	기 타
1990	349	43.3	19.5	1.7	35.5	476	33.2	13.4	12.2	41.2
1991	340	41.8	18.5	1.8	37.9	479	32.4	12.7	13.8	41.1
1992	343	40.2	16.6	1.8	41.4	484	31.4	12.6	14.5	41.5
1993	351	36.2	15.9	2.0	45.9	460	28.9	14.3	13.0	43.5
1994	363	33.6	15.4	2.5	48.5	468	26.9	14.3	13.9	44.9
1995	369	31.7	14.1	2.2	52.0	466	26.2	13.9	13.9	46.0
1996	363	29.8	14.6	1.9	53.7	461	24.9	14.5	14.1	46.4
1997	355	28.5	13.2	2.0	56.3	459	22.7	14.8	13.9	48.6
1998	345	30.4	10.7	1.4	57.5	480	26.5	11.9	11.7	50.1
1999	346	31.2	10.1	1.5	57.2	474	26.1	11.2	11.4	51.3
2000	357	29.4	11.8	2.2	56.6	483	24.8	13.0	12.2	49.9
2001	369	27.4	11.9	1.6	59.1	482	24.3	13.7	12.4	49.6
2002	363	26.7	12.4	1.7	59.2	478	23.6	13.4	12.3	50.7
2003	357	23.5	10.9	1.4	64.2	480	20.2	14.0	13.3	52.5
2004	347	23.1	10.7	2.0	64.2	476	18.1	16.2	13.4	52.3

	전 국 여 자					전 국 남 자				
1990	7,376	20.3	28.2	1.8	49.7	10,709	16.3	27.2	11.3	45.2
1991	7,535	18.6	27.6	2.1	51.7	11,076	15.0	26.9	12.6	45.5
1992	7,639	18.3	25.3	2.2	54.2	11,322	14.1	26.1	13.2	46.6
1993	7,738	17.2	23.1	2.1	57.6	11,515	13.0	25.3	13.2	48.5
1994	8,005	15.9	22.0	2.0	60.1	11,832	12.1	25.1	13.7	49.1
1995	8,224	14.6	21.4	2.2	61.8	12,153	11.0	25.0	14.1	49.9
1996	8,434	13.5	20.4	2.4	63.7	12,330	10.3	24.2	14.3	51.2
1997	8,639	13.0	18.5	2.5	66.0	12,409	9.7	23.4	14.4	52.5
1998	8,084	14.6	16.7	1.8	66.9	11,910	10.4	21.6	12.0	56.0
1999	8,303	13.3	17.4	1.5	67.9	11,978	10.4	21.6	11.3	56.7
2000	8,707	12.5	17.5	1.5	68.5	12,353	9.7	22.1	11.7	56.5
2001	8,991	11.3	16.9	1.5	70.3	12,581	9.0	22.0	11.5	57.5
2002	9,225	10.7	16.5	1.6	71.3	12,944	8.4	21.2	12.3	58.1
2003	9,1089,36	10.1	16.2	1.6	72.1	13,031	7.9	21.0	12.8	58.3
2004	4	9.2	16.0	1.7	73.1	13,193	7.3	21.2	12.6	58.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년도

그리고 여성취업자의 직업별 변화와 전북남성 및 전국 여성 및 남성취업자 변화를 비교한 결과는 <표 7-8>과 같다.

먼저 지난 15년 동안 전북 취업여성의 직업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은 크게 감소한 반면 판매직과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은 크게 증가하였다. 예를 들면,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1990년 43.3%에서 2004년 22.2%로 약 1/2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반면에 판매직과 전문직의 경우 같은 기간에 각각 24.6%와 12.1%에서 33.7%와 26.2%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노무자의 경우는 약간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전국 여성취업자의 직업 분포와 비교하면, 그 규모는 다르지만 변화 형태는 비슷하였다. 즉 전국 여성취업자의 경우에도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경우 지난 15년 동안 크게 감소하였고, 노무자의 경우는 약간 감소하였다. 그렇지만 판매직 및 전문직 종사 여성의 경우는 크게 증가하였다. 예를 들면, 판매직과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은 1990년 각각 33.6%와 20.4%에서 2004년 37.4%와 33.8%까지 증가하였다.

그리고 전북 여성취업자를 남성취업자와 비교하면, 남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노무직 종사자 규모가 크고 크게 증가하였고, 판매직과 전문직은 약간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남성취업자는 크게 감소하였다. 그렇지만 전국 남성취업자의 경우는 전북의 남성취업자와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노무직에 종사하는 남성이 1990년에 이미 40% 이상을 차지하여 약간의 증가만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전문직 종사 남성취업자의 경우 지난 15년 동안 22.6%에서 35.3%로 증가하였다. 반면에 판매직과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남성취업자의 경우 1990년 20.2%와 16.3%에서 2004년 각각 16.3%와 7.1%를 차지하여 크게 감소하였다.

<표 7-8> 전국대비 연도별·직업별·성별 취업자 비율, 1990~2004

(단위 : 천명, %)

구 분	전 북 여 자					전 북 남 자				
	총 수	전문직 ¹⁾	판매직 ²⁾	농수업 ³⁾	노무자 ⁴⁾	총 수	전문직 ¹⁾	판매직 ²⁾	농수업 ³⁾	노무자 ⁴⁾
1990	349	12.1	24.6	43.3	20.1	476	18.7	15.5	33.2	32.6
1991	340	13.3	26.1	41.8	19.1	479	18.4	15.0	32.4	34.2
1992	343	16.5	26.2	40.2	16.8	484	19.0	15.1	31.4	34.5
1993	351	18.5	25.6	36.2	19.7	460	22.0	13.3	28.9	35.8
1994	363	18.2	30.0	33.6	18.2	468	21.8	14.3	26.9	37.0
1995	369	20.1	29.5	31.7	18.7	466	22.1	14.8	26.2	36.9
1996	363	21.2	29.5	28.9	20.4	461	21.7	15.4	24.9	38.0
1997	355	22.0	31.0	28.2	18.8	459	22.0	15.9	22.2	39.9
1998	345	18.9	31.6	30.1	19.4	480	25.0	14.6	26.2	34.2
1999	346	17.6	31.7	30.5	20.2	476	23.7	15.8	25.8	34.7
2000	363	19.0	35.0	28.7	17.4	480	21.5	17.7	24.2	36.9
2001	369	20.3	35.5	26.8	17.3	482	22.4	17.4	24.1	35.9
2002	363	20.4	35.8	26.4	17.4	478	22.6	17.6	23.4	36.6
2003	357	26.1	34.5	23.0	16.5	480	23.3	17.7	19.8	39.4
2004	347	26.2	33.7	22.2	18.2	476	24.2	16.2	17.9	42.0

	전 국 여 자					전 국 남 자				
1990	7,376	20.4	33.6	20.3	25.7	10,709	22.6	20.2	16.3	40.9
1991	7,535	22.1	34.4	18.6	24.9	11,076	22.8	20.4	15.0	41.8
1992	7,639	23.9	35.1	18.3	22.7	11,322	24.8	20.5	14.1	40.6
1993	7,738	25.0	37.4	17.2	20.4	11,515	25.5	22.1	13.0	39.4
1994	8,005	25.7	31.0	15.9	27.4	11,832	29.2	15.2	12.1	43.5
1995	8,224	26.7	32.0	14.6	26.7	12,153	30.0	15.1	11.0	43.9
1996	8,434	27.4	33.1	12.7	26.8	12,330	30.7	15.2	9.9	44.2
1997	8,639	28.0	34.3	12.1	25.6	12,409	31.7	15.3	9.4	44.1
1998	8,084	27.1	34.9	13.7	24.3	11,910	33.3	16.1	10.5	40.1
1999	8,303	26.4	35.1	12.2	26.3	11,978	32.5	15.9	10.0	41.6
2000	8,769	28.6	38.4	11.2	21.8	12,387	31.8	17.3	9.1	41.8
2001	8,991	29.7	38.8	10.4	21.0	12,581	32.6	17.2	8.7	41.5
2002	9,225	30.9	38.8	9.8	20.5	12,944	32.7	17.1	8.2	42.0
2003	9,108	33.3	37.2	9.1	20.4	13,031	35.1	16.8	7.7	40.4
2004	9,364	33.8	37.4	8.2	20.7	13,193	35.3	16.3	7.1	41.4

주 : 1)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종사자

2)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3) 농업,임업 및 어업숙련종사자

4)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장치·기계조작조립종사자/ 단순노무자

자료 : 전라북도(2005)

다른 한편, 전북지역 여성취업자와 타 시도 여성취업자의 산업별 분포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그 결과는 <표 7-9>과 같다.

먼저 농림업에 종사하는 여성 중에는 전북지역 여성이 많은 편이다. 즉 2004년에 농림업에 종사하는 전국 여성 838천명 가운데 전북지역 여성이 78천명으로서 9.3%를 차지하였고, 경북(159천명), 전남(143천명), 경남(111천명), 그리고 충남지역(98천명) 다음으로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전북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고, 농업이 주요 산업 가운데 하나로 남아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반면에 광공업에 종사하는 전북여성은 37천명으로 전국 광공업 종사 여성 1,494천명에 중에 2.5%에 불과하여 매우 적었으며, 취업여성 인구가 전북과 비슷하거나 혹은 적은 충남이나 충북에 비해 크게 적은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또한 전북지역의 경우 공업시설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여성의 취업기회 또한 제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해 준다.

반면에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북 여성은 230천명으로 전체 전북 취업자 가운데는 다수이지만 이 영역에 취업한 전국 여성 7,004천명에 비하면 그 비율 또한 3.3%로 매우 적었으며,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비중이 매우 적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의 경우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남성취업자 가운데 전북지역 남성의 경우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광공업에 종사하는 남성은 매우 적었다. 그리고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북지역 남성의 경우 또한 매우 적었다.

<표 7-9> 산업별·시도별 취업자, 2004

구 분	여 자										
	계	농림어업		광 공 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농림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음 식숙박업	전기, 운수, 창고, 금융	사업, 개인, 공공 서비스 및 기타		
전 국	9,364	866	838	1,494	1,493	7,004	162	3,217	570	3,055	
서 울	2,039	3	2	325	325	1,711	45	740	161	765	
부 산	673	15	15	111	111	547	13	285	47	202	
대 구	497	14	14	97	97	386	8	204	24	150	
인 천	474	5	5	113	113	356	9	163	33	152	
광 주	259	14	14	28	28	216	6	91	17	102	
대 전	261	3	3	26	26	231	6	101	19	105	
울 산	174	10	9	29	29	135	3	61	10	62	
경 기	1,921	73	73	378	378	1,470	25	620	125	699	
강 원	285	48	44	19	19	218	6	106	14	92	
충 북	280	39	39	50	50	191	4	90	16	81	
충 남	384	100	98	55	54	229	6	117	14	92	
전 북	347	80	78	37	37	230	7	94	17	113	
전 남	415	146	143	25	25	245	5	132	16	92	
경 북	607	160	159	101	101	346	9	169	21	147	
경 남	618	119	111	96	96	402	8	198	29	166	
제 주	130	36	30	3	3	90	2	46	6	36	

계	남 자										
	농림·어업	광 공 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농림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음 식숙박업	전기, 운수, 창고, 금융	사업, 개인, 공공 서비스 및 기타		
13,193	959	911	2,812	2,797	9,423	1,658	2,646	1,616	3,503		
2,792	2	2	478	477	2,311	368	694	362	887		
939	15	11	194	194	731	116	220	163	232		
675	16	16	166	166	493	84	159	79	171		
718	10	8	222	222	486	88	129	93	176		
345	12	12	52	52	281	57	76	48	100		
388	7	7	54	54	327	58	88	56	125		
314	8	8	150	149	156	40	32	24	60		
2,954	101	100	744	744	2,108	360	585	333	830		
385	63	55	33	28	289	60	75	45	110		
397	52	52	75	74	269	46	73	53	97		
537	122	114	100	99	315	59	79	55	123		
476	86	84	77	75	312	64	77	58	113		
515	141	134	58	56	317	61	90	60	106		
759	173	170	156	154	430	75	114	76	166		
853	119	113	245	244	489	100	126	93	171		
148	33	26	8	8	108	22	28	21	36		

주 : 한국표준산업분류 8차개정(2000)기준

자료 : 통계청, 『2004 경제활동인구연보』, (2005)

3. 전북 취업여성의 시군별 분포

본 연구는 또한 취업여성이 전북지역 내부적으로 지역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남성취업자와 비교할 경우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검토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7-10>과 같다.

2004년에 전라북도가 발표한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2003년 산업별 시군별 여성종사자 196,552명 가운데 전주시가 67,761명에 34.5%로 1/3을 차지하였고, 군산시와 익산시도 각각 26,945명과 37,843명으로 13.7%와 19.3%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정읍시가 12,715명, 남원시가 10,598명, 김제시가 9,186명, 완주군이 6,763명을 차지하였으며, 진안군은 2,157명, 무주군 2,678명, 장수군 2,145명, 임실군 2,801명, 순창군 2,985명, 고창군이 5,682명, 그리고 부안군이 6,293명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시군 지역별 인구규모에 비례한 것으로서 전주, 익산, 군산의 경우 전북지역 인구의 2/3를 차지하고 있듯이 여성취업자 또한 67.5%로 2/3 수준을 차지하였다. 그밖에 도시와 농촌의 통합지역인 정읍, 남원, 김제의 경우 인구규모에 비례하여 여성취업자 또한 비슷한 규모를 차지하였다.

여성취업자의 시군 지역별 분포에서 발견되는 특징 몇 가지를 정리하면, 농림업에 종사하는 여성취업자 중에는 농공단지가 조성된 김제지역을 비롯하여 농촌산간지역인 장수, 평야지역인 고창과 부안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고, 제조업에 종사하는 여성 중에는 공업단지가 조성된 익산지역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전주와 군산지역이,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통합지역인 정읍, 남원, 김제 등이 많았다.

그밖에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의 경우는 도시화 및 산업화의 진행 정도와 비례하여 도시지역에서 많았고, 농촌산간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었다.

<표 7-10> 전북지역 취업여성 산업별 및 시군 분포

(단위 : 명)

구 분	전체산업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북전체	470,976	2,312	29	895	83,147	2,351	22,005	85,185	59,168
여 자	196,552	626	6	98	27,393	269	2,588	42,083	40,506
전주시	154,202	266	-	31	13,297	665	8,809	31,601	20,130
여 자	67,761	75	-	8	5,493	89	1,117	15,622	13,704
군산시	69,620	133	4	147	14,459	395	2,983	12,482	8,607
여 자	26,945	20	-	18	2,659	37	333	6,388	6,070
익산시	86,422	279	2	347	21,854	333	2,380	14,344	9,676
여 자	37,843	47	1	20	8,174	44	267	7,341	6,800
정읍시	29,327	196	-	55	6,419	126	620	5,355	3,552
여 자	12,715	38	-	3	2,672	11	89	2,557	2,492
남원시	24,252	132	-	77	3,725	151	1,137	4,526	3,408
여 자	10,598	31	-	3	1,647	15	140	2,221	2,341
김제시	24,472	463	-	33	6,610	65	913	3,938	2,364
여 자	9,186	140	-	3	1,912	3	112	1,765	1,646
완주군	22,160	80	-	21	9,375	40	654	2,212	2,092
여 자	6,763	24	-	1	1,638	2	75	991	1,415
진안군	5,874	58	-	14	787	83	530	924	629
여 자	2,157	15	-	5	324	13	44	419	401
무주군	7,246	9	-	8	422	135	520	1,004	2,112
여 자	2,678	1	-	1	132	12	35	501	1,080
장수군	5,288	199	-	33	707	60	444	791	663
여 자	2,145	62	-	1	322	8	45	377	489
임실군	7,307	93	3	-	1,286	68	567	1,265	730
여 자	2,801	43	2	-	494	9	51	602	508
순창군	7,037	105	-	-	1,143	46	640	1,155	812
여 자	2,985	18	-	-	613	5	56	514	578
고창군	13,597	155	6	50	1,402	66	1,047	2,621	1,978
여 자	5,682	64	2	12	556	9	123	1,229	1,423
부안군	14,172	144	14	79	1,661	118	761	2,967	2,415
여 자	6,293	48	1	23	757	12	101	1,556	1,559

< 7-10의 연속 >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임대업	사업 서비스업	공공행정 및사회보 장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사회 복지사업	오락,문화 및운동 관련산업	기타공공 수리및개인 서비스업
26,592	5,675	20,583	9,369	12,931	25,748	47,786	23,759	11,119	32,322
1,785	1,604	10,302	2,338	3,637	5,073	25,279	16,446	3,791	12,728
9,716	1,722	7,726	4,595	5,721	7,751	17,096	9,415	4,718	10,943
575	563	3,628	1,115	1,876	1,714	9,437	6,655	1,548	4,542
4,600	806	2,857	1,441	2,078	3,114	6,552	2,735	1,347	4,880
299	246	1,699	307	379	523	3,666	1,934	477	1,890
4,824	869	3,548	1,561	2,516	2,919	8,904	4,428	1,909	5,729
301	217	1,935	477	792	555	4,699	3,097	760	2,316
1,616	317	1,323	380	504	1,968	2,763	1,386	697	2,050
129	82	693	91	169	352	1,401	918	249	769
1,232	277	1,180	311	385	1,638	2,443	1,213	607	1,810
80	84	600	69	98	404	1,206	776	179	704
1,397	413	852	199	344	1,728	2,127	963	394	1,669
100	145	417	51	95	330	1,115	656	137	559
1,036	291	316	210	880	585	2,265	886	272	945
77	60	117	56	112	99	1,031	624	91	350
237	145	313	18	41	745	572	315	66	397
9	28	125	5	12	144	258	208	15	132
137	95	193	411	33	732	532	217	235	451
11	13	62	94	9	117	240	133	62	175
142	108	189	13	39	674	554	196	60	416
29	25	72	3	12	127	282	116	20	155
325	111	261	20	77	871	689	307	101	533
19	26	99	7	14	166	339	199	34	189
164	137	355	26	41	762	609	407	128	507
37	30	174	6	8	137	315	268	42	184
638	211	630	85	160	1,118	1,423	691	282	1,034
68	48	269	28	29	191	699	450	91	391
528	173	840	99	112	1,143	1,257	600	303	958
51	37	412	29	32	214	591	412	86	372

자료 : 전라북도,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보고서』(2004)

<표 7-11>은 시군 지역에 따라 여성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의 산업유형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분석한 것인데, 몇 가지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고 있다.

먼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여성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매우 낮다는 사실인데, 전체 사업체 운영자 119,717명 가운데 여성은 44,799명으로서 37.4%로 낮았다.

그리고 여성이 운영하는 사업체 가운데 상대적으로 적은 산업영역으로는 농림어업과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을 비롯하여 건설업과 공공행정 및 사회복지행정 분야로 나타났다. 즉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의 경우 여성 대표자가 아무도 없이 모두 남성이 운영하였고, 농림어업의 경우도 2.8%에 불과하여 농촌, 어촌, 그리고 산촌지역의 남성 중심적인 가치가 아직도 지배적임을 엿볼 수 있으며, 공공행정 및 사회보장행정의 경우도 여성대표가 1.6%에 불과하여 여성의 진출이 어려운 산업영역 가운데 하나로 분류될 수 있고, 건설업의 경우도 9.5%로 낮았다.

반면에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진출해 있는 산업유형으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을 비롯하여 교육 및 서비스업, 도소매업 등이 있다. 예를 들면, 여성이 운영하는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전체 23,437 업체 가운데 15,924로서 67.9%로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교육 및 서비스업이나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여성도 각각 56.2%와 40.4%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포가 시군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면, 대체로 지역인구 규모에 비례하여 각 산업의 여성대표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특히 숙박업이나 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 도시지역에 보다 집중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도시지역의 경우 수요층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표 7-11> 전북 여성 대표자 사업별 및 시군별 분포, 2003

(단위 : 개)

구 분	전체산업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북전체	119,717	167	14	87	9,364	101	3,067	35,869	23,437
여 자	44,799	4	1	9	2,042	-	291	14,480	15,924
전주시	38,812	11	-	6	2,145	10	977	11,749	7,106
여 자	14,837	-	-	1	573	-	80	4,843	4,807
군산시	17,748	10	2	9	1,192	26	429	5,473	3,781
여 자	7,336	-	-	2	318	-	39	2,475	2,675
익산시	19,409	20	1	27	1,870	10	320	5,561	3,815
여 자	7,268	2	1	3	351	-	31	2,178	2,594
정읍시	8,083	15	-	6	699	7	145	2,517	1,521
여 자	2,899	-	-	2	121	-	19	975	1,057
남원시	7,027	11	-	4	665	7	202	2,149	1,460
여 자	2,550	-	-	1	99	-	21	857	991
김제시	6,223	24	-	2	701	5	184	1,766	1,033
여 자	1,966	1	-	-	132	-	18	637	691
완주군	4,293	5	-	2	435	3	102	1,125	921
여 자	1,468	-	-	-	73	-	9	427	572
진안군	1,731	8	-	2	198	4	79	491	312
여 자	547	-	-	-	46	-	6	160	194
무주군	2,007	1	-	1	137	6	69	563	561
여 자	729	-	-	-	23	-	2	231	318
장수군	1,519	9	-	2	158	3	73	429	311
여 자	554	-	-	-	30	-	7	173	236
임실군	2,060	12	1	-	209	4	76	644	351
여 자	717	-	-	-	44	-	11	225	253
순창군	2,084	12	-	-	245	5	121	638	376
여 자	716	1	-	-	74	-	10	228	258
고창군	4,201	17	3	11	353	6	155	1,337	808
여 자	1,513	-	-	-	75	-	18	517	573
부안군	4,520	12	7	15	357	5	135	1,427	1,081
여 자	1,699	-	-	-	83	-	20	554	705

<표 7-11의 연속>

운수업	통신업	금융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임대업	사업 서비스업	공공행정 및사회보 장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사회 복지사업	오락,문 화및운동 관련산업	기타공공 수리및개인 서비스업
11,055	460	1,404	2,627	2,205	834	5,476	2,923	4,585	16,042
436	73	107	637	228	13	3,079	818	1,416	5,241
3,971	105	455	1,246	1,037	120	2,044	966	1,896	4,968
148	18	35	325	118	2	1,224	278	607	1,778
1,591	55	183	385	341	107	786	352	630	2,396
57	12	13	85	31	-	491	83	208	847
1,806	59	205	363	306	96	968	482	796	2,704
82	13	20	94	30	-	541	149	229	950
789	34	89	125	125	72	324	211	245	1,159
33	7	5	23	9	4	164	55	70	355
569	34	84	93	105	67	260	156	225	936
16	5	5	16	11	1	128	38	62	299
688	26	75	80	85	72	257	156	176	893
20	3	4	13	5	1	129	40	52	220
445	23	34	99	47	43	186	133	133	557
22	4	2	26	3	-	100	46	35	149
107	17	32	9	14	38	68	58	36	258
4	1	4	3	2	3	32	20	7	65
81	12	29	91	13	27	65	42	82	227
2	-	2	20	1	-	29	11	28	62
88	15	25	13	13	30	59	34	38	219
2	1	-	3	2	-	24	11	10	55
140	16	36	15	14	28	86	71	45	312
5	3	7	4	1	-	40	28	18	78
107	18	38	16	14	33	76	60	42	283
5	1	2	2	2	-	40	20	12	61
324	23	51	45	54	51	149	110	130	574
25	3	2	10	6	1	67	25	36	155
349	23	68	47	37	50	148	92	111	556
15	2	6	13	7	1	70	14	42	167

자료 : 전라북도,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보고서』(2004)

제 2 절 여성의 취업활동 장애 및 노동환경

1. 여성의 취업에 대한 태도 분석

여성의 취업에 대한 15세 이상 인구의 태도를 분석한 <표 7-12>에 의하면, 가정과 관계없이 취업할 수 있다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 점증적으로 증가한 반면 가정에만 전념해야 한다, 결혼 이전까지만 취업해야 한다, 그리고 자녀가 성장한 이후 취업해야 한다는 등과 같은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제적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크게 줄어들었다.

예를 들면, 여성은 가정사와 무관하게 취업할 수 있다는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1991년 13.7%에서 1995년, 20.9%, 1998년 26.8%, 그리고 2002년 35.4%까지 증가하였고, 이러한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는 남성보다 여성이 많았으며, 전국 평균보다 전북 지역 성인의 경우 보다 많았다. 예를 들면, 1991년 여성은 가정사와 관계없이 취업할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 중에서 여성이 16.7%로 남성 10.3%보다 많았고, 2002년에 각각 40.2%와 30.2%를 차지하여 그 차이가 보다 확대되었다.

그리고 전북지역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43.0%로서 전국 평균 35.4%에 비해 7% 이상 많았으며, 전북지역 여성이 47.2%로 남성의 38.5%보다 9% 정도 많았다.

반면에 여성은 가정 일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크게 줄어들었는데, 1991년 21.1%에서 1995년 15.8%, 1998년 10.0%, 그리고 2002년 8.1%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태도를 갖고 있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 차이도 큰 폭으로 줄어들었는데 예를 들면, 1991년 남성이 25.7%로 여성의 17.0%에 비해 9% 정도 많았지만 그 차이가 계속해서 줄어들어 2002년 각각 10.3%와 6.0%로서 4%까지 줄어들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북지역에서도 비슷하게 목격되고 있는데, 여성은 가정 일에 전념해야 한다는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1998년 11.0%에서 2002년 8.3%까지 감소하였고, 남녀간의 차이 또한 크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를 갖고 있는 전북지역 남녀와 전국

남녀 평균 사이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결혼전까지만 여성은 취업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15세 이상 인구 또한 크게 줄어들었는데, 1995년 20.2%에서 2004년 4.0%로 5배 정도 감소하였고, 남녀 간의 차이도 크게 줄어들어 2002년에 그 차이가 거의 없었다. 마찬가지로 자녀 성장후 취업해야 한다는 태도를 갖고 있는 15세 이상 인구도 크게 감소하였다.

그렇지만 여성의 경우 결혼 이전이나 혹은 자녀가 성장한 후에 취업해야 한다는 태도를 갖고 있는 15세 이상 인구는 1995년 최고조에 도달한 이후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편이다. 예를 들면, 1991년에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15세 이상 인구는 22.5%를 차지하였는데 1995년 오히려 34.1%까지 증가하였고, 1998년 감소하여 26.4%를 기록하였고, 2002년 또한 25.4%를 차지하여 1991년 수준보다 높았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는 사실이다. 즉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1995년 여성이 35.8%로 남성 32.3%보다 3.5% 많았고, 2002년에도 여성이 26.4%로 남성 24.6%에 비해 약간 많았다. 그리고 전북지역 여성 또한 전국여성에 비해 그 비율은 낮았지만 전북지역 남성에 비해 약간 많았다. 예를 들면, 여성은 결혼 이전이나 혹은 자녀 성장 이후에 취업해야 한다는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전북지역 여성은 1998년에 24.9%로 남성 22.9%에 비해 2% 많았으며, 2002년에도 각각 21.5%와 20.0%로서 1% 많았다.

<표 7-12> 15세 이상 인구의 여성취업에 관한 태도 (1991, 1995, 1998, 2002)

(단위 : %)

구 분	가정에만 전업	결혼전까지 취업	첫 자녀 출산까지 취업	자녀성장 후 취업	결혼 전 및 자녀성장후 취업	가 정 과 관계없이 취 업	모르겠음
1991							
전국	21.1	20.2	-	22.4	22.5	13.7	-
여성	17.0	17.8	-	23.9	24.6	16.7	-
남성	25.7	22.9	-	20.9	20.2	10.3	-
1995							
전국	15.8	13.2	-	16.1	34.1	20.9	-
여성	12.1	11.3	-	16.1	35.8	24.7	-
남성	19.6	15.1	-	16.1	32.3	16.8	-
1998							
전국	10.0	11.6	7.5	14.5	26.4	26.8	3.1
여성	8.5	10.3	6.7	14.0	27.6	30.4	2.6
남성	11.6	13.1	8.4	15.0	25.2	23.1	3.7
전북	11.0	13.5	7.2	14.1	23.9	27.6	2.7
여성	9.6	12.3	6.7	14.3	24.9	30.0	2.3
남성	12.5	14.8	7.7	14.0	22.9	24.9	3.2
2002							
전국	8.1	5.2	6.8	13.8	25.4	35.4	5.2
여성	6.0	4.4	5.5	13.4	26.2	40.2	4.2
남성	10.3	6.1	8.1	14.3	24.6	30.2	6.3
전북	8.3	4.0	6.2	13.3	21.0	43.0	4.1
여성	6.7	3.7	4.8	12.2	21.5	47.2	3.8
남성	10.0	4.4	7.8	14.5	20.5	38.5	4.4

자료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5, 1998), 『사회통계조사보고서』 (1999, 2003)

그리고 <표 7-13>은 여성취업의 장애요인을 분석한 것인데, 최근 취업여성의 가사 및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사회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여기에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 요인 또한 지속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예를 들면, 여성의 취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서 가사 및 자녀양육 부담을 지적한 사람은 1995년 52.5%로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1998년 육아와 가사부담이 각각 29.3%와 10.6%로 합계 39.9%를 차지하여 1995년보다 크게 줄었지만, 2002년

다시 47.9%로 증가하여 여전히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암시해 주고 있다. 여성 취업의 어려움으로서 자녀양육과 가사부담을 지적한 사람 중에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간 많았는데 그 차이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전북여성의 경우 전국 여성 평균과 비교할 경우 약간 적었는데 육아와 가사부담에 대한 평가는 약간 다르게 나타났다. 즉 육아부담이 여성의 취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태도를 갖고 있는 여성 중에는 전북지역의 여성이 전국 여성에 비해 약간 낮은 반면 가사부담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약간 많았다.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이 여성의 취업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1998년 약간 증가한 것으로 제외하면 20% 이상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즉 1995년 여성의 사회적 차별이나 편견을 여성취업의 장애요인으로 지적한 사람이 24.7%를 차지하였으며, 2002년에도 22.8%로 약간 감소하였다.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간 많았지만 그 차이는 아주 미미하여 의미를 부여하기에 부적합하였다. 전북지역 여성 또한 전국 여성과 비교할 경우 차이가 매우 적었으며, 전북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간 많았다.

그리고 여성의 직업의식 부족이나 일에 대한 여성 자신의 능력부족을 여성취업의 장애요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감소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보다 많았다. 예를 들면, 여성의 직업의식이나 책임감 부족을 지적한 사람이 1995년 8.7%에서 1998년 10.0%로 다소 증가하였지만 2002년 6.3%로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 1995년 10.8%를 차지하였고, 2002년에도 8.1%를 차지하여 여성의 4.5%에 비해 약 2배 정도 많았다. 이러한 태도를 갖고 있는 전북지역 여성과 남성은 전국 여성과 남성에 비해 다소 적었다. 그리고 일에 대한 여성 자신의 능력부족을 지적한 사람은 5% 미만으로 적었으며, 1995년 4.3%에서 2002년 2.4%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전북지역 여성이나 전국 여성이나 비슷하였다.

<표 7-13> 여성취업의 장애요인 분석

(단위 : %)

구 분	15세 이상 인구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 차별 관행	여성의 직업의식 책임감 부족	불평등한 근로여건 (채용, 승진, 임금,)	일에 대한 여성의 능력 부족	육아 부담*	가사 부담	기타	모르겠다
1995									
전국	100.0	24.7	8.7	9.5	4.3	52.5	-	0.3	-
여성	100.0	24.8	6.8	9.9	3.7	54.6	-	0.2	-
남성	100.0	24.5	10.8	9.1	5.0	50.3	-	0.3	-
1998									
전국	100.0	28.2	10.0	12.5	4.3	29.3	10.6	0.1	5.1
여성	100.0	27.6	8.1	13.0	4.0	31.4	10.8	0.1	4.9
남성	100.0	28.8	11.9	11.9	4.6	27.1	10.4	0.1	5.2
전북	100.0	27.6	9.0	12.7	5.2	26.5	13.3	0.1	5.6
여성	100.0	26.3	6.4	13.3	4.9	29.8	13.6	-	5.7
남성	100.0	29.0	11.9	12.0	5.5	22.9	13.1	0.1	5.5
2002									
전국	100.0	22.8	6.3	12.4	2.3	38.8	8.9	2.1	6.4
여성	100.0	21.7	4.5	13.2	2.0	41.1	9.2	2.5	5.8
남성	100.0	24.0	8.1	11.5	2.6	36.3	8.6	1.7	7.1
전북	100.0	24.6	5.7	11.8	2.4	36.8	10.3	2.7	5.7
여성	100.0	22.7	4.1	12.2	2.0	38.4	11.5	3.5	5.5
남성	100.0	26.7	7.6	11.3	2.9	34.9	9.0	1.8	5.9

* 1995년 자료의 경우 육아부담에는 가사부담이 포함되어 있고, 1998년부터 분리 조사되었음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1999, 2003)

2. 취업여성의 직무만족 및 복지실태

취업여성의 직무만족 수준을 남성과 비교한 <표 7-14>에 의하면, 전북지역 여성의 만족 수준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여성의 직무만족을 측정하는 시기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즉 한국사회에서 1998년은 한국사회가 IMF 경제위기를 경험한 직후인 관계로 노동자의 직무만족 수준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시점이다. 그 이후 노동자의 고용환경이 개선되면서 직무만족 수준 또한 개선되었기 때문에 2002년 노동자의 직무만족과 1998년 상황을 비교하게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박재규, 2003). 이러한 측면에 전북지역 및 전국 취업자에게서도 발견되고 있다. 예를 들면, 2002년에 하는 일이나 임금, 장래성 등에 대한 취업자의 평가는 1998년과 비교할 경우 적게는 4%에서 많게는 8% 이상까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결과는 전북지역 취업여성의 경우 목격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전북지역 취업여성 가운데 임금이 만족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1998년 7.8%로 매우 낮았지만 2002년 14.1%로 약 2배 정도 증가하였고,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장애성의 경우에서도 1998년 9.1%에서 2002년 15.7%까지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전국 취업여성의 경우에서도 비슷하게 목격되고 있다.

그렇지만 전국 취업여성의 직무만족 수준은 취업남성에 비해 낮았지만 전북지역 취업여성의 경우는 남성과 비교할 경우 큰 차이가 없었다. 예를 들면, 2004년 전북지역 취업여성의 경우 하는 일이나 임금, 일의 장래성, 인간관계 평가에서 만족스럽게 평가한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한 평가를 제외하면 오히려 남성보다 약간 많았다.

<표 7-14> 임금근로자 직무만족, 1991, 1995, 1998, 2002

(단위 : %)

구 분	하 는 일		임 금		장 래 성		인 간 관 계				직장에서 성희롱방지노력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상 하 간		동 료 간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1991												
전 국												
만 족	34.1	36.0	16.0	16.0	7.5	12.1	33.0	33.2	46.3	46.3	-	-
보 통	45.9	42.1	34.4	34.4	46.9	41.3	55.8	55.5	50.2	50.2	-	-
불 만	20.0	22.0	49.6	49.6	45.6	46.6	11.4	11.3	3.5	3.5	-	-
1995												
전 국												
만 족	32.1	36.6	16.7	17.5	13.8	20.4	31.0	33.9	44.8	44.8	-	-
보 통	51.3	47.8	41.2	40.2	55.6	48.5	60.2	56.3	51.9	51.9	-	-
불 만	16.6	15.6	42.3	42.3	30.6	31.1	8.8	9.8	3.4	3.4	-	-
1998												
전 국												
만 족	27.8	31.8	10.1	11.1	8.5	13.9	24.0	28.9	30.3	30.3	-	-
보 통	50.7	48.1	37.6	35.2	28.6	35.8	55.8	56.1	51.7	51.7	-	-
불 만	20.9	19.8	51.7	53.2	24.7	30.5	11.0	12.2	5.2	5.2	-	-
모르겠음	0.6	0.4	0.6	0.5	38.1	19.8	9.1	2.7	12.8	12.8	-	-
전 북												
만 족	23.4	28.5	7.8	11.0	9.1	13.5	27.6	32.0	36.3	36.3	-	-
보 통	54.4	50.6	37.2	39.1	37.3	41.3	57.7	55.3	49.8	49.8	-	-
불 만	21.8	20.5	54.3	49.8	29.9	33.1	10.0	10.2	4.4	4.4	-	-
모르겠음	0.3	0.3	0.6	-	23.7	12.0	4.7	2.5	9.5	9.5	-	-
2002							인 간 관 계					
전 국							여		남			
만 족	31.1	33.4	15.2	15.6	15.2	17.4	36.4		36.2		21.7	21.4
보 통	51.2	48.7	41.1	39.9	42.3	42.0	51.8		51.2		50.3	52.9
불 만	17.1	17.4	42.8	44.0	33.7	35.2	10.3		11.6		9.9	5.9
모르겠음	0.7	0.5	0.8	0.6	8.9	5.4	1.4		1.1		18.1	19.7
전 북												
만 족	29.2	31.1	14.1	14.0	15.7	14.3	40.3		39.8		19.0	19.5
보 통	49.6	50.2	37.8	35.0	37.4	37.9	49.3		50.9		55.5	61.4
불 만	20.9	18.7	47.4	51.0	39.8	44.6	10.4		8.9		10.8	5.2
모르겠음	0.3	-	0.7	-	7.0	3.2	-		0.4		14.7	13.9

자료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5, 1998), 『사회통계조사보고서』 (1999, 2003)

그리고 <표 7-15>는 취업여성의 사업별 고용보험 수혜를 살펴본 것인데, 남성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즉 2004년 취업 여성의 고용보험 수혜비율은 남성취업자에 비해 35.5% 수준에 불과하여 여성취업자는 남성취업자의 1/3 수준에서 고용보험 혜택을 받고 있었다.

여성취업자의 고용보험 혜택은 산업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광업(9.0%)이나 운수업(9.4%), 건설업(14.4%),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17.3%) 등에서 매우 낮았다. 반면에 여성취업자가 남성과 비교할 경우 비교적 고용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산업으로는 교육서비스업(81.1%)을 비롯하여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78.7%), 숙박업이나 음식업(58.9%)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북지역 취업여성의 고용보험 혜택이 전국 여성과 비교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표 7-16>에 의하면, 전국 취업여성 고용보험 혜택 비율 33.7%에 비해 2% 정도 많았다.

전북지역 취업여성보다 고용보험 혜택 비율이 높은 광역 시도로서는 제주도(38.2%)를 비롯하여 경기도(38.0%), 그리고 충북(35.6%) 세 지역밖에 없었다. 반면에 나머지 광역자치단체의 취업여성은 전북지역에 비해 고용보험 혜택 수혜자 비율이 낮았는데 특히 울산(21.1%)이나 전남(28.1%), 그리고 경남지역(29.9%)의 경우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다.

<표 7-15> 전북지역 취업여성의 산업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 (2004)

(단위 : 명, %)

구 분	전 체	여 자	여 성 비
전 체	180,086	64,005	35.5
농 립 업	1,369	430	31.4
어 업	19	5	26.3
광 업	511	46	9.0
제 조 업	60,558	17,253	28.5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1,666	289	17.3
건 설 업	22,184	3,188	14.4
도 매 및 소 매 업	11,998	4,551	37.9
숙 박 및 음 식 점 업	3,454	2,033	58.9
운 수 업	12,882	1,205	9.4
통 신 업	510	160	31.4
금 융 보 험 업	8,056	2,827	35.1
부 동 산 및 임 대 업	4,731	1,040	22.0
사 업 서 비 스 업	10,690	4,198	39.3
교 육 서 비 스 업	8,720	7,071	81.1
보 건 및 사 회 복 지 사 업	17,808	14,015	78.7
오락문화및운동관련사업	1,638	603	36.8
기타공공및개인서비스업	7,904	2,794	35.3
기 타 산 업	5,388	2,297	42.6

주 : 1) 기타 산업은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등으로 구성됨.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월보』 (2004)

<표 7-16> 시·도 및 성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 2002~2004

(단위 : 개소, 명)

구 분	2002. 12. 31		2003. 12. 31		2004. 12. 31		
	전 체	여 자	전 체	여 자	전 체	여 자	여성비
전 국	7,171,277	2,338,819	7,203,347	2,390,553	7,576,856	2,556,648	33.7
서 울	2,559,863	916,507	2,549,792	930,952	2,682,380	992,177	37.0
부 산	439,632	148,386	424,579	145,375	445,376	153,643	34.5
대 구	270,715	92,086	260,228	89,895	267,363	93,638	33.9
인 천	327,955	99,389	326,317	100,518	339,277	106,712	31.5
광 주	141,644	48,901	142,017	50,164	150,108	53,128	35.4
대 전	162,034	52,429	162,868	54,719	174,416	60,306	34.6
울 산	200,101	41,644	202,399	43,199	206,570	43,794	21.1
경 기	1,315,718	397,873	1,359,273	417,855	1,448,879	453,923	31.3
강 원	143,195	45,927	146,769	48,058	150,741	51,084	33.9
충 북	180,688	61,982	180,824	63,262	191,110	68,273	35.7
충 남	226,874	71,407	238,889	77,099	263,021	86,893	33.0
전 북	176,209	60,271	173,721	59,878	180,086	64,005	35.5
전 남	180,065	48,142	176,902	48,645	186,206	52,344	28.1
경 북	360,815	109,305	363,584	111,445	380,147	119,271	31.4
경 남	435,540	126,732	443,903	130,478	457,181	136,826	29.9
제 주	50,209	17,838	51,264	19,004	53,995	20,631	38.2
분류불능			18	7			-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월보』 각 년도

<참고자료>

<표 7-17> 산업 및 성별 월평균 임금, 2001~2004

(단위 : 1,000원, %)

산 업	2001			2002			2003			2004		
	여 자 (A)	남 자 (B)	남 녀 임금비 (A/B ×100)	여 자 (A)	남 자 (B)	남 녀 임금비 (A/B ×100)	여 자 (A)	남 자 (B)	남 녀 임금비 (A/B ×100)	여 자 (A)	남 자 (B)	남 녀 임금비 (A/B ×100)
· 전 산 업	1,245	1,969	63.2	1,331	2,120	62.8	3,112	5,887	52.9	3,432	6,458	53.1
· 광 업	1,056	1,879	56.2	1,111	1,953	56.9	2,631	5,040	52.2	2,820	5,807	48.6
· 제 조 업	1,078	1,859	58.0	1,160	2,058	56.4	2,708	6,146	44.1	2,967	6,674	44.5
· 전기·가스· 수도사업	1,433	2,706	52.9	1,783	3,268	54.6	5,487	10,126	54.2	6,212	11,841	52.5
· 건 설 업	1,043	1,891	55.2	1,102	1,912	57.7	1,552	3,126	49.6	1,929	3,703	52.1
· 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수리	1,195	1,892	63.1	1,353	2,123	63.7	3,205	5,290	60.6	3,693	6,044	61.1
· 숙박음식업	952	1,474	64.6	1,086	1,443	75.3	1,524	3,250	46.9	1,638	3,182	51.5
· 운수·창고 및 통신업	1,428	1,897	75.3	1,278	1,729	73.9	3,173	3,868	82.0	3,728	4,542	82.1
· 금융·보험업	1,710	3,021	56.6	1,908	3,339	57.2	7,687	16,149	47.6	8,687	17,923	48.5
·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1,141	1,792	63.7	980	1,306	75.0	1,733	2,540	68.2	2,100	3,038	69.1
· 교육서비스업	1,656	2,522	65.7	1,649	2,548	64.7	3,572	8,125	44.0	4,152	9,206	45.1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501	2,446	61.4	1,486	2,371	62.7	3,537	5,368	65.9	3,873	5,594	69.2
· 기타공공, 개인/사회서비스	1,143	2,104	54.3	1,171	1,803	64.9	2,064	4,070	50.7	2,406	4,516	53.3

주 : 1) 월평균 임금 = 월급여액 + (연간특별급여액 × 1/12)

2) 조사대상 :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자료 : 노동부,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보고서』 (2004)

<표 7-18> 직업 및 혼인상태별 여성취업자 분포(1990, 1995, 2000)

(단위 : 명, %)

구 분	합 계	전문, 기술 및 관련직종사 자	행정관리직 종 사 자	사 무 관 련직	판 매 사 자	종 · 축 · 임 · 수 수산업종사자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운수장 비, 운전자, 단 순노무자
1990전북전체	747,166	47,281	6,389	66,464	71,312	362,786	141,934
	100.0	6.3	0.8	8.9	9.5	48.5	19.0
미 혼	126,182	12,867	248	22,504	9,824	35,763	36,226
유 배 우	568,077	33,804	6,038	43,449	57,687	290,543	100,444
사 별	47,406	472	93	310	3,240	34,695	3,713
이 혼	5,501	138	10	201	561	1,785	1,551
여 자 전 체	100.0(293,681)	5.7	0.1	6.9	9.7	58.4	10.1
미 혼	100.0(57,105)	16.5	0.1	27.2	8.1	14.8	23.2
유 배 우	100.0(192,785)	3.6	0.1	2.3	10.7	68.5	6.9
사 별	100.0(41,467)	0.7	0.1	0.4	7.0	73.7	6.8
이 혼	100.0(2,324)	0.4	0.4	1.8	16.4	18.5	11.3
시 부	330,291	37,971	5,272	50,578	53,778	36,607	107,244
미 혼	68,575	9,564	196	16,417	7,049	2,411	25,958
유 배 우	246,003	27,951	4,995	33,751	43,978	30,717	77,646
사 별	12,457	328	71	251	2,240	3,217	2,556
이 혼	3,256	128	10	159	511	262	1,084
시 부 여 자	100.0(103,291)	12.7	0.2	14.7	19.5	12.2	20.8
미 혼	100.0(36,644)	19.1	0.1	30.9	9.1	0.6	27.1
유 배 우	100.0(54,174)	10.8	0.3	6.8	26.6	17.8	17.2
사 별	100.0(10,691)	2.0	0.3	14.9	18.7	25.4	18.4
이 혼	100.0(1,782)	48.8	0.5	2.4	19.7	2.9	14.2
군 부	416,875	9,310	1,117	15,886	17,534	326,179	34,690
미 혼	57,607	3,303	52	6,087	2,775	33,352	10,268
유 배 우	322,074	5,853	1,043	9,698	13,709	259,826	22,798
사 별	34,949	144	22	59	1,000	31,478	1,157
이 혼	2,245	10	-	42	50	1,523	467
군 부 여 자	100.0(190,390)	1.9	0.0	2.7	4.4	83.5	4.3
미 혼	100.0(20,461)	11.9	0.1	20.6	6.4	40.1	16.1
유 배 우	100.0(138,611)	0.7	0.0	0.6	4.4	88.4	2.9
사 별	100.0(30,776)	0.3	2.0	0.1	2.9	90.4	2.7
이 혼	100.0(542)	1.8	-	-	5.5	69.9	1.8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 경제활동편』 (1992, 1997, 2002)

<표 7-19> 직업 및 혼인상태별 여성취업자 분포(1995)

(단위 : 명, %)

구 분	합 계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준전문가	사무직	서비스 및 상점, 시장 판매 근로자	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 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 자	장치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단순 노무직
전북 전체	774,833	13,620	38,122	52,189	64,044	126,934	297,212	72,758	66,159	43,038
	100.0	1.8	4.9	6.7	8.3	16.4	38.4	9.4	8.5	5.6
	124,115	488	6,182	15,855	25,200	19,385	17,578	16,718	15,920	6,749
미 혼	594,109	12,877	31,449	35,544	38,149	96,883	246,284	52,757	48,558	30,891
유배우	49,189	155	359	523	422	8,541	31,619	2,349	806	4,415
사 별	7,420	100	132	267	273	2,125	1,731	934	875	983
이 혼	100.0	0.2	3.9	5.5	8.7	21.4	47.9	5.0	2.3	5.0
여자	308,030									
미 혼	100.0(53,043)	0.2	7.5	18.5	34.2	21.6	4.5	6.4	4.7	2.4
유배우	100.0(209,175)	0.2	3.7	3.2	4.0	21.4	55.8	4.8	2.0	4.9
사 별	100.0(42,882)	0.2	0.5	0.7	0.7	18.9	65.1	4.1	1.2	8.5
이 혼	100.0(2,930)	0.6	1.4	2.9	3.7	58.2	12.6	7.0	1.7	11.8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 경제활동편』 (1992, 1997, 2002)

<표 7-20> 직업 및 혼인상태별 여성 취업자 분포, 2000

(단위 : 명, %)

구 분	합 계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및 준전문가	사 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업,임업 어업속련 종사자	기능원 기능 종사자	장차· 기계 조작 및 조립원	단순노무 종사자
2000 전북전체	762,639 (100.0)	27,269 (3.6)	56,211 (7.4)	33,328 (4.4)	76,055 (10.0)	63,526	82,789	241,940	58,310	75,063	48,094
미 혼	114,751 (100.0)	1,225	15,925	10,711	23,179	9,731	11,259	9,823	10,929	14,455	7,491
유 배우	586,912 (100.0)	25,292	39,545	22,024	51,416	45,940	65,589	201,069	44,484	58,024	33,498
사 별	47,080 (100.0)	436	346	300	665	4,842	4,027	28,930	1,600	976	4,958
이 혼	13,896 (100.0)	316	395	293	795	3,013	1,914	2,118	1,297	1,608	2,147
여자전체	311,323 (100.0)	2,257	26,100	11,346	32,573	39,113	42,867	119,739	11,369	9,508	16,429
미 혼	48,910 (100.0)	188	1,935	5,975	15,780	4,774	5,456	885	1,091	1,848	967
유 배우	215,131 (100.0)	1,727	13,699	5,005	15,894	26,979	32,551	93,254	8,618	6,820	10,573
사 별	41,233 (100.0)	237	296	222	475	4,750	3,698	25,353	1,32	614	4,263
이 혼	6,049 (100.0)	105	170	144	424	2,610	1,162	247	335	226	626

주 : 계에는 기타와 미상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 경제활동편』 (1992, 1997, 2002)

제 8 장

여성의 정치참여와 정치적 대표성

- 제 1 절 서론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제 3 절 여성의 정치참여와 여성단체 활동
- 제 4 절 전북지역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현황
- 제 5 절 전북지역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방안

제 8 장 전북지역 여성의 정치참여와 정치적 대표성

박재규(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제 1 절 서 론

오늘날 정치의 그 영향력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생활정치’ 라고 명명되고 있다. 예를 들면, 정치적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법이나 정책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내용 및 범위를 규정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자원에의 접근을 허용하거나 혹은 제약하기 때문에 정치가 인간의 생활 전역에 걸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Randall, 1987; 박재규, 2002a). 인간생활 전역이 정치의 영향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게 된 현실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에 적극 참여하여 자신의 권익을 스스로 보호하는 일이 될 것이다. 정치가 인간생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은 사회의 희소자원을 분배할 수 있는 권력을 재상산하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정치가 갖는 절대적인 사회적 영향력 때문에 인류 역사를 통해 정치는 사회 계층, 성, 인종, 그리고 지역 등 특정 변수에 의해 독점되어 왔고, 이러한 독점현상은 특정 지역에서 아직도 지배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먼저 정치가 역사적으로 여성에게 있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선진국과 한국의 경험을 통해서 검토하며, 전북지역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현상을 실증적 자료를 통해 살펴보고, 그리고 그 결과물로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문제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와 내용

여성의 정치참여와 정치적 대표성 문제는 시간적으로 3번에 걸친 선거와 그 결과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즉 2002년 실시된 제3차 지방자치선거와 2000년 16대 총선과 2004년 17대 총선에서 유권자로서 여성의 참여와 그 결과물로서 여성후보의 당선에 초점을 두었고, 비교를 위해 이전 선거결과도 함께 검토하였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은 선거를 전후하여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 지역사회 여성단체 활동내용 또한 검토하였다.

그리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문제로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위공무원 구성과 정책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에서 여성의 참여가 어느 정도인지 2000-2004년에 한정시켜 검토하였다.

2. 연구방법

전북지역 여성의 정치참여와 정치적 대표성을 검토하는데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이용하였다.

첫째, 여성의 정치참여와 관련해서 2차례(2002년 지방선거와 2004년 총선)에 걸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집계한 자료를 사용할 것이며, 공식적인 자료 사용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지역 단위에서 이루어진 연구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여성단체의 여성후보 지원과 관련된 자료는 여성단체의 기록과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수집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고위공무원 구성에서 여성의 비율이나 각종 위원회 참여와 관련된 내용은 지자체의 공식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사용하였다.

제 3 절 여성의 정치참여와 여성단체 활동

정치참여란 사회의 구성원들이 지배자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선택하고, 공공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서로 분담하는 자발적인 활동을 의미한다(김옥렬, 1989). 이러한 정치참여 형태에는 투표권 행사를 비롯하여 정당활동, 집회참석, 정치자금 헌금, 의원들과의 교류 등을 다양한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여성의 정치참여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성의 정치참여활성화가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물론 양자 사이에 상관관계에 관한 경험적인 연구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여성의 정치참여 증대와 여성의 지위향상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검증하는 경험적인 연구 작업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이 겪은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양자간의 관계에 관한 부분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여성의 주체적 정치참여가 높은 선진국은 전체 사회의 민주적 발전과 여성의 발전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³⁰⁾ 특히 이들 국가는 여성인력의 활용이 국가경쟁력을 높여 줄뿐만 아니라 양성평등적인 정치참여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어 때문에 비례대표 및 지역구 공천과정에서 여성후보를 일정비율 추천하도록 규정한 ‘여성할당제’를 도입하였다. 더욱이 일부 선진국가들은 여성의 정치교육이나 선거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조치’를 도입하여 여성의 정치참여를 장려해 왔다. 그리고 정부가 마련한 일련의 조치와 함께 여성의 주체적 정치참여 활성화는 여성의 지위와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한다(김원홍·김혜영·김은경, 2001).

본 연구는 여성의 정치참여와 관련하여 유권자로서 여성의 정치참여와 여성단체의 여성후보 지원을 위한 활동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30) 의회의 경우 IPU(International Parliamentary Union -1888년 10월 의회행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국제문제를 연구하고, 국제평화와 국제협력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 스위스의 제네바에 본부가 있음)가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2000년 12월 현재 여성의 국회참여가 30% 이상 되는 나라들은 서구 유럽에 집중되어 있고, 일부 선진국에 속하는 나라(독일, 미국, 영국, 뉴질랜드)도 2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김원홍·김혜영·김은경, 2001).

1. 여성 유권자의 정치참여 실태 분석

유권자의 정치참여과정을 분석한 최근 연구에 의하면, 선거참여와 의사결정과정에서 남녀유권자 사이에 성차가 더 이상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이승희, 1993; 한국여성정치연구소, 1995; 김현희, 1999). 이러한 결과는 정치에 있어서 여성의 상대적 열등성을 제기하였던 기존의 연구결과와 상반된 것으로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더욱이 일부 연구는 여성유권자의 경우 ‘여성주의적 투표’(feminist vote) 형태로의 전환 가능성과 이러한 전환이 여성주의적 의식 또는 성 역할 인식변화에 기초하여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적극적인 주장을 전개하기도 하였다(이승희, 1993). 이와 같이 여성유권자의 정치행위 및 태도에 있어 커다란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과거 권위주의적 군사정권의 강력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여성계의 지속적인 저항운동이 있었으며, 1980년대 후반 민주화투쟁에 따른 권위주의적 군사정권의 붕괴와 그 후속조치로 진행된 제도개혁과 지방자치제도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여성유권자의 정치참여는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표 8-1>에 의하면, 지방선거에 참여한 남녀유권자간의 차이가 매우 적은 편이다. 즉 제1회 지방선거에 참여한 여성유권자는 68.2%로서 남성유권자 69.3%에 비해 1.1% 낮은 것이며, 제2차 지방선거에서의 경우 각각 52.1%와 54.3%로 그 차이가 약간 확대되긴 했지만 그 차이가 2.2%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심각하게 고민할 문제는 여성유권자가 남성유권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제2회 지방선거에서 여성유권자가 50.8%로서 남성유권자 49.2%에 비해 1.6% 많았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성유권자의 정치참여가 여전히 남성유권자에 비해 낮아 실질적인 차이는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차 지방선거결과와 관련하여 남녀유권자의 참여를 발표하지 않았던 그 차이를 알 수 없다.

<표 8-1> 지방선거에서 전국 남녀유권자 및 투표율 실태

(단위 : 명, %)

구 분	선거 년도		유권자 수		투표 참여자(율)			
			남 자	여 자	참여자	투표율	남자	여자
전국동시 지방자치 선거	제1회	1995	15,278,832	15,769,734	21,227,449	68.4	69.3	68.2
	제2회	1998	15,998,331	16,539,484	17,156,577	52.7	54.3	52.1
	제3회	2002	17,078,013	17,683,450	16,946,236	48.8	-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2003).

다른 한편, <표 8-2>는 전북지역에서 지방자치선거에 참여한 유권자 비율은 정리한 것인데 전국 유권자에 비해 전북지역 유권자 참여율은 5.1%에서 5.9%에 걸쳐 높게 나타났다. 예를 들면, 차이가 가장 낮은 제2차 지방선거의 경우 전북지역 유권자 참여율은 57.8%로 전국 유권자 참여율 52.7%에 비해 5.1% 많았고, 제3차 지방선거의 경우 전북 유권자 참여율은 54.7%로 전국 유권자 48.8%에 비해 5.9%가 많았다. 이런 차이는 전북지역의 경우 유권자의 정치참여가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가능할 것이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의 남녀 유권자 투표 참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양자간의 차이를 확인할 길이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연구원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선거에서 남녀유권자의 투표참여율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였다.

<표 8-2> 지방선거에서 전국 남녀유권자 및 투표율 실태

(단위 : 명, %)

구 분	선거 년도		유권자 수	참여자	투표율
전국동시 지방자치 선거	제1회	1995	1,350,350	1,001,959	73.7
	제2회	1998	1,400,419	809,506	57.8
	제3회	2002	1,431,722	783,645	54.7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표 8-3>은 전북여성발전연구원에서 조사한 6·13 지방선거 유권자 참여에 관한 자료인데, 유권자의 64.2%가 6·13 지방선거에 참여한 것으로, 반면 응답자의 35.8%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4.2%가 선거에 참여한 결과는 실제 6·13 지방선거에서 전라북도 전체 유권자의 참여 비율 54.7%에 비해 9.5% 높은 것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2).

그렇지만 지방선거에 참여한 남녀 유권자 차이를 보면, 비록 양자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남성유권자가 여성유권자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다. 즉 지방선거에 참여한 유권자 중에는 남성유권자가 65.6%로 여성유권자 62.9%에 비해 2.7% 많았다. 이러한 차이는 앞에서 검토한 전국 유권자의 남녀 참여 차이에서 밝혀진 비율과 비슷하여 여전히 여성유권자 남성유권자에 비해 실제 선거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다는 것을 엿볼 수 있어 향후 여성유권자의 정치참여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암시해 준다.

<표 8-3> 지방선거에서 남녀유권자의 정치참여 차이 분석

(단위 : %, 명)

유권자의 성별	지방선거 참여 여부			검 증
	참 여	불 참	합 계	
남 성	65.6	34.4	100.0(614)	X ² =1.01, p>.05
여 성	62.9	37.1	100.0(628)	
합 계	64.2	45.8	100.0(1,242)	

자료 : 박재규(2003)

다음으로 본 연구는 2000년 16대 총선과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8-4>와 같다. 먼저 유권자 구성에 의하면 2000년 16대 총선이나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여성유권자 50.9%로 남성유권자 49.1%에 비해서 1.8% 많았다. 그렇지만 이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 총선에 참여하였는가에 대한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00년 16대 총선에서만 발표하였고, 17대 총선

의 경우 발표하지 않았다. 먼저 16대 총선에서 남성유권자가 58.7%로 여성유권자 56.5%에 비해 2.2% 많았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전체 유권자 10%를 표본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먼저 유권자의 참여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유권자의 61.1%가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실제 투표에 참여한 60.6%에 비해 0.5% 차이로 매우 적어 표본조사 자료의 신뢰성을 높여주고 있다.

표본조사에서 드러난 남녀유권자의 17대 총선참여 비율을 비교하면, 남성유권자가 63.0%로 여성 유권자 59.2%보다 3.8% 높게 나타나고 있어 2000년 16대 총선에서 밝혀졌던 남녀유권자의 선거참여 차이 2.2%와 비교하면 다소 많은 것이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아 기존의 남녀유권자 차이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8-4> 국회의원 선거에서 남녀유권자 구성 및 투표 참여 분석

(단위 : 명, %)

구 분	유권자 수			투표 참여자(율)		
	전체	남 자	여 자	참여자	남자	여자
16대 총선 (2000)	33,482,387	16,436,931	17,045,456	19,279,161	9,648,478	9,630,683
	100.0	49.1	50.9	57.2	58.7	56.5
17대 총선 (2004)	35,672,296	17,497,407	18,109,889	21,581,550	-	-
	100.0	49.1	50.9	60.6	63.0*	59.2*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00, 200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체 유권자 10% 표본조사 자료임(전체 투표율은 61.1%로 실제 60.6%와 비슷)

다른 한편, 전북지역의 경우 16대 및 17대 총선에서 얼마나 많은 유권자가 참여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먼저 16대 총선의 경우 전북지역 전체 유권자 1,422,719명 가운데 862,541명이 참여하여 60.6%로 전국 선거참여 57.2%에 비해 약간 높았으며, 17대 총선의 경우에도 전북지역 유권자 1,419,340명 가운데 868,167명이 참여하여 61.2%로 전국 비율 60.6%보다 약간 많았다.

그렇지만 전국의 경우 마찬가지로 전북지역 유권자 가운데 남녀유권자의 선거참여 자료가 없어 그 차이를 알 수 없다. 다만 17대 총선을 앞두고 전북지역에서 조사한 표본조사에 의하면, 실제 선거참여 비율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 문제점을 갖고 있지만 남

녀유권자의 선거 참여와 관련해서는 매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예를 들면, 표본조사 자료에 의하면 전체 유권자 가운데 69.3%가 17대 총선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전북지역 유권자 중에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는 61.2%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남녀유권자 선거참여 의사에 있어 차이는 남성유권자가 여성유권자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즉 17대 총선에 참여하겠다는 유권자 중에는 남성유권자가 72.1%로 여성유권자 67.3%에 비해서 4.8%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는 기존의 차이와 비교할 경우 비슷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8-5> 전북지역 유권자의 17대 총선에서 참여 의지 분석

(단위 : 명, %)

유권자의 성별	총선 참여 의사		
	참여하겠다	참여하지 않겠다	합 계
남 성	72.1	27.9	100.0(258)
여 성	67.3	32.7	100.0(370)
합 계	69.3	30.7	100.0(628)

자료 : 박재규(2003)

2. 전북지역 여성단체의 활동 내용

1) 16대 총선과 6·13 지방선거에서 여성단체 활동

16대 총선을 앞두고 전북지역에서 가장 관심을 내용은 전북지역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정치지도자를 육성하는 지역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주도할 ‘전북여성정치발전센터’가 전·현직 정치인이 중심이 되어 1999년 10월 창립식을 갖고, 첫 사업으로 ‘여성정치학교’를 개설하여 여성정치지도자 육성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전북여성정치발전센터는 16대 총선에서 여성할당 30%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공약을 각 정당이 총선공약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전북여성단체협의회 또한 ‘여성정치교실’을 개설하여 총선을 겨냥하였으며, 총선을 목전에 두고 전주지역 여성유권자를 대상으로 정치참여와 정치의식 함

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여성단체의 여성의 정치참여 및 여성후보 양성 교육에도 불구하고 전북지역 지역구에서 16대 총선에 출마한 여성후보가 아무도 없게 되자 여성단체의 활동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및 남성후보자의 여성정책 공약 채택이나 당선 이후 정책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 정도로 제한되었다. 예를 들면, 전북여성단체연합은 2000년 4월 16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출마 후보자의 여성정책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즉 여성단체연합은 총선에 출마한 지역구 후보자 46명 가운데 26명으로부터 여성정책 21개 과제를 선정 제시하면서 당선 이후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서약서를 받아 발표하는 한편, 여성 30% 할당을 정당법에 명시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표 8-6> 16대 총선을 전후한 전북지역 여성단체의 활동 내용

일 시	참여단체	활동성격	주요내용
1999. 10. 11	전북여성정치발전센터	창립식	전북여성발전센터창립식
1999. 10. 17	전북여성단체협의회	정치교육	여성정치교실
1999. 11.	전북여성정치발전센터	정치교육	여성정치학교 수강생
1999. 12. 8	전북여성단체협의회	간담회	전주시 여성유권자 교육과 정치의식 간담회
2000. 1. 28	전북여성단체연합	기자회견	여성30% 할당제 정당법 명시
2000. 4. 11	전북여성단체연합	기자회견	여성정책공약 이행 촉구
2000. 4. 30	전북여성정치발전센터	성명서	여성할당제 공약요구

다른 한편, 전북지역 여성단체는 2002년 제3차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다 활발하게 여성의 정치참여와 여성후보 지원활동을 전개하였는데, 그 특성을 몇 가지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지방선거를 1년 정도 앞두고 차세대 여성지도자 양성이나 여성의 정치참여 의식 개선을 중심으로 전개한 활동이다. 물론 이런 활동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전북여성정치발전센터의 차세대 지도자 교육과 전주시 여성정책위원회의 지방선거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있었다.

다음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다 본격적으로 여성후보 지원활동을 전개하였는데 그 첫 번째 활동은 전북여성정치발전센터를 중심으로 전북지역 여성계가 함께 참여한 여성후보 지원을 위한 여성선거본부 출범식이 2002년 2월 1일에 있었다. 그리고 4월 1일 전북여성정치발전센터를 비롯한 YWCA와 전북여성단체협의회 등 전북지역 여성단체가 참여한 전북여성정치연대가 출범하여 여성후보 지원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그밖에도 여성후보 지원을 위한 세미나, 결의대회, 선포식 등 다양한 행사가 전개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후보의 지방의회 당선은 아래에서 보다 자세하게 검토하였지만 1998년 제2회 지방선거 결과에 비해 결코 새로운 것이 없는, 아니 오히려 퇴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8-6> 16대 총선을 전후한 전북지역 여성단체의 활동 내용

일 시	참여단체	활동성격	주요내용
2001. 9. 27	전북여성정치발전센터	교육활동	차세대 여성지도자 여대생 캠프 개최
2001. 12. 6	새정치여성연대 전북지부	창립식	새정치여성연대 전북지부 창립대회
2001. 12. 21	전주시 여성정책위원회	토론회	지방선거에서 여성참여를 위한 각계의 역할 여성정책
2002. 2. 1	전북여성정치발전센터	출범식	공동 여성선거본부 출범
2002. 3. 8	전주YWCA	행사	여성의날 ‘ 여성 정치참여 축제
2002. 4. 1	전주YWCA 전북여성단체협의회 전북여성정치발전센터	여성단체 발대식	여성정치 참여를 위한 여성권유권자 연대 발대식
2002. 5. 9	전북여성단체협의회	결의대회	2002 지방선거를 위한 릴레이 여성결의대회
2002. 5. 16	전북여성정치연대	공약 비교	2002지방선거 여성후보공약발표
2002. 5. 26	전북여성단체연합	선포식	여성이 행복한 생활자세 과제
2002. 6. 5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발전연구원	세미나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

2) 17대 총선에서 여성단체의 활동

17대 총선에서 전북지역 여성단체 활동은 보다 활발하였는데, 그것은 전국 차원의 ‘총선여성연대’활동에 자극을 받아 지역 여성후보를 지원하고 여성의 정치참여를 활성화시킬 목적에서 단일 조직을 구성하였고, 여성단체의 연대활동과 개별 단체의 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표 8-7>과 같다.

먼저 전북여성정치발전센터의 주관으로 전북지역 여성지도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당위성과 필요성을 정치권과 전라북도 유권자에게 알리는 ‘전북여성지도자 100인 선언식’을 가졌다. 여성지도자 100인 선언식은 정치권의 17대 총선 관련 제도개혁의 진행과정에서 이루어졌고, 여성의 정치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개혁을 강조하였다. 즉 전북지역 여성지도자들도 ‘지역구 30% 여성할당 보장, 여성전용선거구제 도입, 그리고 비례대표 확대를 통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등을 요구하였다. 같은 시점에 전북여성발전연구원에서도 17대 총선에서 전북지역 여성계가 여성후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특히 그 학술세미나는 17대 총선에 출마 의지를 갖고 있는 예비 여성후보 3인을 초청하여 여성후보가 선거에서 필요로 하는 도움이 무엇인지 듣는 한편 여성후보 지원 대안도 논의하였다.

전북지역 여성단체의 여성후보 지원활동은 ‘전북총선여성연대’의 출범과 함께 시작되었다. 즉 ‘전북여성지도자 100인’ 선언을 바탕으로 전북지역 38개 여성단체가 참여한 ‘전북총선여성연대’를 발족시켰고, 전북총선여성연대는 전북지역 여성후보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유권자의 여성후보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으로서 ‘거리 캠페인’을 통한 유인물 배포와 여성후보 지원을 위한 차량 스티커 배포, 혹은 편지글 보내기 활동, 여성후보를 위한 재정지원 등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전북여성정치발전센터는 총선에서 여성후보 지원을 목적으로 여성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즉 전북여성정치발전센터는 선거자원봉사에 관심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선거관련 제반 사항을 비롯하여 총선에서 여성후보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 필요성과 참여활동 내용을 교육시켰으며, 자원교육을 받은 여성들 가운데 일부는 17대 총선에서 여성후보 진영 자원봉사에 직접 참여하였다.

전북지역 여성단체는 17대 총선이 종결된 이후 총선결과를 결산하는 활동을 전개하

였고, 그 첫 번째 활동은 전북총선여성연대가 주최한 ‘17대 국회의원 당선자 환영’ 행사이다. 환영연은 총선에서 당선된 여성의원을 축하하고 낙선자를 위로하며, 향후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요구사항을 당선자에게 전달하였다. 전북총선여성연대는 당선자 환영연을 통해서 총선과정에서 노출된 여성단체 활동의 부정적 모습을 봉합하는 한편 향후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다른 한편, YWCA협의회는 총선과정에서 여성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의식 및 지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각 분야별 정책적 대안도 논의하였다.

이상과 같이 전북총선여성연대 활동은 매우 제한적이며, 성과도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런 결과는 전북총선여성연대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요인 때문이다. 첫 번째 요인은 개정된 선거법의 제약 요인이다. 즉 전북여성총선여성연대 활동은 개정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운동원만이 후보자 지원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조항에 묶여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조직적 활동이 좌절되었다. 다만 전북여성총선연대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필요성과 여성 정치인에 대한 유권자 인식전환을 목적으로 몇 차례의 ‘거리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여성단체의 거리 캠페인 또한 일부 여성단체의 참여 부족으로 활동 및 성과가 제한적이었다. 그렇지만 보다 심각한 문제는 여성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조직되었지만 전북여성총선연대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형식적 조직에 그치는 한계를 드러냈다. 특히 선거에 돌입하면서 전북총선여성연대를 이끌어 가는 주요 담당자들은 자신이 관여하는 정당과의 관계를 명분으로 여성후보에 대한 지원활동을 기피하였다. 다시 말해서, 전북총선여성연대에 참여한 일부 임원들 중에는 정당후보에 대한 지원 관계로 여성후보를 지원하는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 결과 전북총선여성연대 활동은 전북지역 여성단체로서의 대표성을 상실하였으며 그 활동 동력을 상실하면서 처음 추진하려는 계획이 무산되고 말았다. 이런 결과는 향후 전북지역 여성단체의 정치세력화 모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표 8-7> 17대 총선을 전후한 전북지역 여성단체의 활동 내용

일 시	참여단체	활동 성격	주요 내용
2004. 2.12	전북지역 여성지도자	선언문 발표 기자회견	여성후보지원을 위한 '전북여성지도자 100인 선언'
2004. 2.12	전북여성발전연구원	학술대회	4.15총선과 여성후보 지원 방안 모색
2004. 2.25	전북총선여성연대	발족식 대회	여성후보 재정 및 봉사활동 지원
2004. 3.19	전북여성정치발전센터	선거자원봉사자 교육	여성후보 지원을 위한 여성자원 봉사자 교육 및 훈련
2004. 4.30	전북총선여성연대	여성 국회의원 당선자 환영연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계의 단합과 요구사항 전달
2004. 5.25	전북YWCA협의회	토론회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한 조사결과보고 및 토론회

자료 : 박재규(2005)

제 4 절 전북지역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현황

정치지도자의 선택과 의사결정이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영역에서 전체 유권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은 소수에 불과한 반면, 남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여성의 정치적 저대표성(women's political under-representation) 문제가 법적·제도적인 차별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제도 개선을 통해 여성도 형식적으로 남성들에게 부여된 공식적 권리를 동일하게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권리의 수사학'에 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Smart, 1985). 왜냐하면 정당이나 정부기관은 여성의 정치활동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은 '비공식적 장애물'(informal barriers)이나 혹은 '유리천장'(glass ceilings) 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보이지 않은 장애요인이 오늘날 여성의 정치권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Guy, 1994; Morrison, White and Van Velsor, 1987; Still, 1997). 정치영역에서 여성의 저대표성 문제는 여성 관련 정책제안, 의사결정, 그리고 정책추진과 감독과정에서 여성의 직접참여를 배제시켜 궁극적으로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삶의 질 향상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의 정치적 저대표성 문제 극복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다. 예를 들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힘입어 다수의 여성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노르딕 국가에서는 오랫동안 무시

되어 왔던 평등권,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 통제권, 여성폭력에 대한 보호 문제들이 공공의 아젠다(public agenda)로 인식되었고, 그 결과 국가적 차원에서 예산이 반영되어 여성지위가 크게 향상될 수 있었다고 한다(United Nations, 1995).

1) 선진국에서 여성의 정치적 저대표성 극복과정

서구 유럽에서 여성의 ‘참정권’ 확보는 여성의 값진 희생을 토대로 이루어졌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를 위한 ‘여성할당제’의 도입과 정치관련 제도 개선을 여성조직을 통해 요구하였다. 서구 유럽의 정당은 여성의 요구와 시대적 변화에 맞춰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1960년대 다양한 풀뿌리 사회운동과 함께 여성운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한 결과 1965년 여성을 포함한 소수집단을 위한 적극적인 보호법(affirmative action program)이 행정명령으로 도입되었다. 더욱이 여성인력의 사회적 활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여성의 정치권 진출에 대한 정부와 정당의 지원도 크게 변화였다. 즉,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은 여성조직이나 재단(예를 들면, Emily List, WISH, 엘리노어 루즈벨트재단)을 설립하여 여성정치인의 육성과 선거에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여성위원회를 설립하여 여성후보에게 선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김정숙, 2003).

유럽의 경우 1970년대까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매우 낮았다. 예를 들면, 독일의 경우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한 것은 1968년 신좌파운동 이후 결성된 녹색당이다. 녹색당은 당원구성, 당직구성, 후보자 구성 모두에서 50% 할당제를 실시하여 많은 여성의 정계진출에 기여하였고, 녹색당의 영향으로 1980년대 사민당 또한 여성당원 40%에 맞춰 여성후보 40% 할당제를 실시하려고 노력하였다. 노르웨이도 정당의 역할에 의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었다. 즉 1960년대 이후 여성단체의 여성할당제 요구에 부응하여 1970년대 중반 자유당이 처음으로 성 할당제를 실시하였고, 그 후 사회당과 노동당이 채택하였다. 특히 각 정당은 후보자뿐만 아니라 의원들 중에서도 남성이나 여성이 최소한 40%를 구성하도록 노력하여 여성의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였고, 다른 사회 영역 또한 여성의 진출이 크게 증가하여 2003년 여성권한척도(GEM)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UNPD, 2003).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 2000년 남녀동수공천법인 파리티테(Parite) 법안을 도입함으로써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다. 즉 파리티테 법안은 지역의회와 시의회 선거 등 ‘명부식’ 선거의 경우 남녀동수를 지키지 않은 정당의 후보명부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구별로 후보를 접수하는 하원의원 선거에서는 여성공천 비율이 50%가 되지 않는 경우 국고정당 지원금을 삭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2001년 3월에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이 과거 22%에서 47.5%로 증가하였고, 2002년 6월 하원의원선거에서도 여성의원이 과거 6%에서 12.1%로 증가하였다(김정숙, 2003).

2) 전북지역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여성의 대표성 확보하기 위하여 서구 여러 나라들은 여성에게 일정 비율을 할애하는 여성할당제도를 정치 관련법이나 선거법에 규정하였고, 그 결과 여성의 정치적 저대표성 문제를 어느 정도 극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여성할당제가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표 8-7>과 같이 여성의 정치적 저대표성 문제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즉 한국의 여성권한지수는 66개 국가 가운데 61위로서 필리핀이나 멕시코보다 낮고, 터기보다 2단계 앞선 것으로 밝혀졌다.

<표 8-8> 한국과 선진국가의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현황 비교

국 가	GEM 순위*	의회여성 점유율(%)	행정관리직 여성비율(%)	전문기술직 여성비율(%)	실질여성 GDP
한 국	61	5.9**	5	34	10,791
노르웨이	1	36.4	25	49	23,454
아이슬란드	2	34.9	27	35	22,361
스웨덴	3	42.7	29	49	19,690
독일	8	31.0	27	50	16,904
미국	11	13.8	45	54	26,259
필리핀	38	17.2	35	66	2,933
멕시코	35	15.9	24	41	4,978
터기	63	4.2	9	36	4,379

* GEM = 여성권한지수 : 여성의원 수, 여성의 행정관리직, 전문직 종사 비율 등을 이용하여 산출한 수치, 66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비교 가운데 일부임

** 2004년 17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50% 여성할당제 도입으로 전체 국회의원 비율이 13.0%까지 증가함

자료 : UNPD, Human Development Report(2003).

본 연구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문제를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각종 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아래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선거에 의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실시되었던 2차례 국회의원 선거와 1차례의 지방선거 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000년 16대 총선과 2004년 17대 총선에서 전북지역 여성의원 당선 현황을 살펴보면 <표 8-8>과 같다.

먼저 16대 총선과 17대 총선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는 전체 97명으로 그 가운데 여성은 2명에 2% 수준으로 매우 낮은 반면 남성 후보자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지역구 출마 후보 가운데 여성 당선자는 1명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모두는 남성이 차지하였다. 이상과 같이 전북지역에서 국회의원의 경우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다만 17대 총선에서 11명의 당선자 가운데 여성이 1명 포함되어 그 비율이 9.1%를 차지하였다.

<표 8-9> 16대 및 17대 총선에 출마한 지역구 성별 후보자 및 당선자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출마자			지역구 당선자		
	남 성	여 성	합 계	남 성	여 성	합 계
16대(2000)	44	3	47	10	0	10
17대(2004)	48	2	50	10	1	11
합 계	92	5	97	20	1	21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2005)

다른 한편, <표 8-10>는 지난 1998년 제2회와 2002년 제3회 지방선거에서 여성후보 출마 및 당선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즉 2002년 지방선거에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광역의원의 경우 크게 향상되었지만, 기초의원의 경우는 오히려 후퇴하였다.

먼저 광역의원의 경우 지역구 출마 후보 가운데 여성은 1998년과 같이 2002년 제3회 지방선거에서도 2명이 출마하였고, 그 가운데 1명이 당선되었다. 비록 광역의원 지역구 출마 후보자 가운데 여성후보 비율은 3% 미만으로 매우 낮았지만, 199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여성후보는 아무도 없었지만, 2002년 2명 가운데 1명이 당선되어

50% 당선율을 기록하였다. 더욱이 여성할당제가 도입되어 광역의원 비례대표 4명 중에 여성후보 2명이 당선되어 1998년 1명에 비해 2배 증가하였고, 그 결과 전체 광역의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8.3%까지 증가하였다.

그렇지만 기초의원의 경우는 1998년 제2회 지방선거에 비해 오히려 후퇴하였다. 즉 2002년 지방선거에 출마한 여성후보가 12명으로 1998년 선거에 출마한 여성후보 2명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는 당시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통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려는 여성단체 활동에 고무적인 자극제였음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200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여성은 1998년과 마찬가지로 단지 2명에 불과하였다. 비록 기초의원의 정원이 다소 감소하였다고 하지만, 선거에 출마하는 여성후보가 제2회 지방선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기에 여성단체 또한 여성의 정치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삼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표 8-10> 지방선거 지역구 의원 출마 성별 후보자 및 당선자(비례대표 포함)

지방의회 선거		지역구 출마자			지역구 당선자			비례대표		전체 합계	
		남 성	여 성	합 계	남 성	여 성	합 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제2회(1998)	광역	75	2	77	32	0	34	4	1	36	1
	기초	568	564	4	246	3	249	-	-	-	-
제3회(2002)	광역	89	2	91	31	1	32	2	2	33	3
	기초	636	12	638	235	2	237	-	-	-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2005)

이상에서 검토한 전북지역 여성의원 자료를 국회의원, 전북 광역의원, 그리고 기초의회로 구분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의원의 성명, 소속정당, 지역구, 그리고 상임위활동 영역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 8-11>과 같다.

<표 8-11> 전북지역 여성 국회의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의원 및 상임위 활동

구 분	성 명	정 당	지역구/ 비례대표	상임위 활동	비 고
17대 국회(2004)	조배숙	열린우리당	익산시 을선거구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교육위원회	16대 국회 비례대표
제2회 광역의회(1998)	김원자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교육복지위원회	
제3회 광역의회(2002)	박영자	새천년민주당	전주시 제2선거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04. 2 사퇴
	백인숙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김민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교육복지위원회	'05. 12 사퇴
제2회 기초의회(1998)	박영자	무소속	전주 효자3동	도시건설위원회 사회문화위원회	
	이해천	무소속	전주 삼천1동	사회문화위원회	5대 의원
	오정례	무소속	전주 송천2동, 전미동	행정위원회	5대 의원
제3회 기초의회(2002)	함정식	무소속	군산 나운2동 제2선거구	행정복지위원회	4대 의원
	최복례	무소속	익산 영등동 제2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	초대 의원

자료 : 전북도의회, 전주시의회, 군산시의회, 익산시의회 홈페이지(2005)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 행정에서 여성공무원 비율과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하고 있는 고위공무원 가운데 여성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검토한 자료는 <표 8-12>과 같다.

먼저 일반직 공무원 가운데 여성공무원 비율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2000년 여성공무원은 24.8%에서 2002년 26.6%, 그리고 2004년 28.2%까지 증가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비율 28.2%(2004)와 같았다.

그렇지만 전북지역 일반직 공무원 가운데 지자체의 정책결정 지위에 해당되는 5급 이상 공무원 가운데 여성 공무원은 4% 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직 공무원 가운데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이 2004년 8.8%인 점을 고려하면 전라북도의 고위직 여성공무원 비율은 1/2 수준에 불과하다.

<표 8-12> 전북지역 여성공무원의 직급별 비율, 2000-2004

(단위 : %)

공무원 직급	연도	2000	2002	2004
일반 여성공무원 비율		24.8	26.6	28.2
5급 이상 여성공무원		4.30	3.58	4.39

자료: 전라북도(2001, 2003, 2005)

마지막으로 전라북도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것인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는 최근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활성화 측면에서 여성의 각종 위원회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왜냐하면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고위 직 여성공무원이 매우 적기 때문에 기존 정책이 남녀차별을 극복하기보다 오히려 고착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선출직 위원 가운데 여성 위원이 어느 정도 인지 분석한 결과는 <표 8-13>과 같다.

먼저 전라북도의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에 의하면, 여성부가 권장하는 여성위원의 비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하였고 그 목표를 초과달성하였다. 즉 2000년 여성위원 목표가 25.0%인데 반해 28.9%로 초과달성하였으며. 이러한 성향은 그 이후에 계속되었다. 예를 들면, 2004년 여성부가 권장하는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은 34%인데 반해 전라북도는 36.5%로서 여성부 권장 비율에 비해 2.5% 높은 것이다. 이처럼 전라북도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여성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여성부 권장 비율보다 높은 수준인데, 이러한 결과는 전라북도가 정책적으로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를 지원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³¹⁾

31) 여성의 각종 위원회 참여 확대와 관련해서 2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첫 번째 문제는 여성의 경우 중복적으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인적 자원이 다양하지 않은 한계점으로 인해 1인이 몇 개의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 두 번째 문제는 선출직 여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여성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여성 선출직 위원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일부 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회의 경우 여성위원 비율이 매우 낮아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김재인 외, 2002).

<표 8-13>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 가운데 여성위원 비율, 2000-2004

(단위 : %)

구분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전라북도 달성 목표율		25.0	28.0	30.0	36.0
전라북도 각종위원회 여성비율		28.9	33.9	35.2	36.0	36.5

자료: 전라북도(2001, 2003, 2005)

제 5 절 전북지역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방안

이상과 같이 전북지역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 더욱이 현재와 같은 정치구조 하에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선진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정치권이 앞장서서 여성의 정치소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각 정당은 여성의 정치적 저대표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당의 고위직과 공천과정에서 여성을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할애하는 ‘여성할당제도’를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성단체 또한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통해서 정치권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

2004년 17대 총선을 계기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크게 변하고 있는데, 그 기초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정치영역에서 여성의 저대표성이 지속됨에 따라 정책이나 제도가 남성 중심적 관점에서 형성되어 궁극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성이 자각하게 되었고, 특히 사회-경제활동과정에서 여성이 겪었던 차별 또한 여성의 정치적 소외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최근 저출산과 급격한 노령화에 따른 노인부양 부담이 급증하면서 그 해결방안으로서 여성인력의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가경쟁력 강화와 사회발전과정에 여성의 잠재인력 개발과 활용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선진국가의 경험을 통해 확인되면서 국제적 규범으로 정착되고 있다(박재규, 2002b). 이와 같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 당위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정받고 있으며, 그 실현방안으로서 제도개혁과 여성유권자의 정치세력화가 제기되고 있다. 여기서는 여성유권자의 역할과 여성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전체 유권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유권자의 주체적인 정치참여를 통한 여성의 '정치세력화'는 정치를 비롯한 사회 전역에서 여성대표를 확보하는 가장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여성의 정치세력화 구축은 굳이 '여성'에 의한 대표를 추구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정치인은 양성평등적 시각을 갖지 않고는 더 이상 정치를 비롯한 사회활동에서 지도자로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성의 정치세력화는 여성이 정치과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집단적 위상과 하나의 투표블럭을 갖게 되며, 그것을 바탕으로 여성후보 혹은 여성 친화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남성)후보에게 표를 몰아줌으로써 후보의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그리고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의 의사결정과정에 여성의 욕구와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압력단체로의 성장을 의미한다. 여성의 정치세력화는 여성유권자의 주체적 정치의식과 참정권 행사, 그리고 여성단체의 조직화가 맞물려 진행되었을 때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박재규, 2002b).

그 동안 지역 여성단체가 여성후보 지원을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한바 있지만, 17대 총선에서와 같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한계점도 드러난바 있다(박재규, 2005). 그런 의미에서 제4차 지방선거에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여성단체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첫째, 전국단위의 여성단체 조직과 지역단위의 여성단체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전국단위 여성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이나 활동들이 지역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전국의 231개 여성단체는 2002년 6·13 지방선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총선 1년 전부터 '총선여성연대'를 조직해 체계적으로 활동하였다. 총선여성연대는 여성활동가를 중심으로 결성된 '맑은정치여성 네트워크'와 함께 여성후보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선거관련법 개정, 여성후보 발굴 및 추천, 정당의 여성친화적인 정책공약 개발을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총선여성연대의 조직에 자극 받은 전북지역의 여성단체들도 선거를 40일 앞두고 '전북총선여성연대'를 조직해 여성후보를 지원하려고 하였지만, 총선이 본격 시작되면서 전북총선여성연대의 활동은 매우 제한적으로 진행되어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전국단위 여성단체조직과 지역단위 여성단체조직이 동일한 목표를 갖고 결성되었음에 불구하고 양 조직간에 '유기적인' 네트워크는 형성되지 못하는 문제를 드러냈다. 특히 일부 지역단위 여성단

체가 ‘총선여성연대’에 참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 조직의 활동이 연결성을 갖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중앙과 지역의 여성단체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형성은 전북지역에 국한하지 말고 전 지역의 여성단체로 확대한다면 그 파급효과 또한 배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2006년 지방선거에서부터 여성후보 지원을 위한 조직을 전국적 여성단체 조직에 각 지역여성단체가 참여하는 동시에 각 지역의 여성단체는 전국규모의 여성단체와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결성하여 사업을 전개한다면 그 파급 효과가 일정 부분에 그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크다.

다음으로 여성단체의 활동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및 여성 정치발전을 위한 “로드맵”으로 발전시켜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2년 단위로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총선을 겨냥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여성유권자 교육과 여성지도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즉 여성단체는 여성유권자의 정치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여성정치지도자 양성교육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여성유권자의 정치의식 함양교육과 여성정치 지도자 양성교육은 지역여성단체 모두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주관하면서 교육 프로그램과 운영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여성의 정치참여와 관련된 교육 및 지도자양성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될 비용은 전라북도 여성발전기금이나 혹은 여성부 여성단체 협력사업 기금을 지원 받는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그 파급효과는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클 것으로 예상된다. 즉 유권자 정치참여 및 여성지도자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보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여성단체간의 공동체 의식도 크게 고양될 것이다. 이러한 사업은 전라북도 여성정책과의 적극적인 지원 또한 매우 필요하다.

제 9 장

여성의 문화예술활동

- 제 1 절 여성 문화예술 활동의 의미
- 제 2 절 전라북도의 여성 문화정책
- 제 3 절 전문적 문화예술 활동 현황
- 제 4 절 전라북도 여성들의 문화생활과 여가생활
- 제 5 절 연구를 통한 제언

제 9 장 여성의 문화예술 활동

문윤걸(예원예술대학교 교수)

제 1 절 여성 문화예술 활동의 의미

1. 여성과 문화예술 활동

여성의 역할과 활동영역은 아주 오랫동안 가족의 유지 및 재생산과 관련한 활동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 때문에 여성들은 대부분의 일상 활동을 가사와 출산 그리고 육아 등에 보내야 했으며, 이외의 부분에서 표출되는 다양한 욕구들은 스스로 억눌러야 했거나, 사회적으로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을 제공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산아제한으로 인한 출산력의 변화와 교육기회의 평등으로 인한 여성교육의 활성화와 여성의 자의식 성장, 그리고 노동시장의 점차적인 개방을 통한 여성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 등은 가족 내 여성의 역할에 대한 변화는 물론 사회적 영역에서의 여성 활동에 대한 변화를 동시에 가져다주었다.

이러한 변화는 여성 스스로 사회적인 존재임을 자각하면서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 공적인 영역의 여러 부분에 여성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는 의식의 전환을 가져왔고, 실제로 이러한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여성의 주체적인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여성들의 경제활동, 정치활동, 사회활동에 대한 욕구는 매우 강렬하다. 또 이러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여성들의 활동 또한 활발하다. 그래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정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나 이에 대한 실태조사, 그리고 여성들의 참여를 보다 활발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들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문화활동에 대한 연구는 의외로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성역할 이데올로기에 따르면 문화예술분야는 남성성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여성성의 영역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성들의 참여가 활발하며, 다른 어떤 분야에

비해서도 성차별이 심하지 않은 영역으로 이해되기 쉽다. 하지만 실제 사례를 들여다 보면 문화예술 분야도 어떤 분야 못지않게 강고한 남성들만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다. 그럼에도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랐던, 아니면 문화예술이라는 영역이 정치, 경제 영역에 비해서는 사회적 권력이 미미했다고 여겼기 때문이던 간에 문화예술영역에서 여성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 지에 관해 제대로 알 수 있는 보고서는 드물다.

현대사회에서 문화예술 활동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문화예술 활동은 과거와 같이 여윌시간의 활용 차원 정도의 의미가 아닌 인간의 창조적 삶의 구체적인 실현이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삶의 질을 측정하는 중요한 평가 척도가 되기도 한다. 이를테면 인간이 얼마나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는가에 대한 가장 적절한 평가가 바로 얼마나 자유롭고 풍요로운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가로 측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삶에 있어서 문화예술 활동은 더 이상 부차적인 것이 아니다.

2. 여성문화예술 활동의 일반적 상황

‘여성문화예술’ 활동이라 할 때 이를 어떤 의미로 해석하느냐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여성문화예술’ 활동은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여성들에 의한 문화예술 활동, 둘째, 남성적 또는 남성성과 대비되는 여성적, 여성성에 기초한 문화예술 활동, 셋째, 페미니즘에 기초하여 남성적인 문화에 저항하는 당위적인 이데올로기를 내포한 문화예술 운동으로서의 문화예술 활동 등이 바로 그것이다.

여성의 문화예술 활동을 이렇게 개념적으로 구분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지만³²⁾ 여성의 문화예술 활동은 위의 3가지 구분이 상호 교차하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여성의 문화예술 활동을 엄밀하게 어느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 말하기는 곤란하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영역에서 벌어지는 활동이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참여 욕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참여 태도 또한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여성의 문화예술 향유권

32) 류정아(2004:6)의 연구에서는 “여성문화를 기존의 사회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여성들의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현상적인 차원의 여성문화인가, 아니면 남성문화와는 대비되는 어떤 것로서의 여성문화인가, 또는 여성문화는 어떤 것이어야 한다는 당위적 차원의 여성문화인가로 구분하면서 여성문화를 어떻게 구분하는가에 따라 여성문화정책의 방향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을 확대하고, 동시에 문화예술영역에서의 성적 차별을 해소하며, 문화예술을 통한 성차별적인 이데올로기의 재생산을 차단하는 여성 문화예술 활동이 적극 장려되어야 한다는 사실에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그동안 여성의 문화예술 활동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에 대한 일반적인 추이를 김양희 외(1994)와 김재인 외(1998), 그리고 류정아(2004)의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먼저 여성의 문화활동 경향의 변화에 관하여 김양희 외의 연구에서는 60년대 이후 급격하게 일어난 산업화, 도시화, 경제성장, 인구 및 가족구조의 변화 등 사회경제적 변화는 여성의 의식과 생활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70년대 이후 등장한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가부장제 문화 속에서 억압되었던 자기를 표현하고 계발하여 자아를 확장하려는 욕구를 높이게 되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문화적 가치에 대한 의식이 급속히 증대되었으며 창조적인 시간 사용과 개성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등 개개인의 문화적 욕구가 증대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 변화와 여성 개개인의 의식변화가 맞물려 80년대 이후 언론기관이나 백화점의 문화센터뿐 아니라 전국 시·군·구의 여성회관, 지역사회복지관, 구민회관, 공공도서관 등에서 여성의 문화욕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문화교실을 개설하는 등 변화를 시도함으로써 여성의 문화활동이 크게 신장되었다고 보았다³³⁾.

뒤이어 나온 김재인 외의 연구에서는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는 주로 백화점 또는 언론기관 등의 부설 문화센터 등에서의 문화강좌에의 여성들의 참여함으로써 여성문화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90년대 중반부터는 문화, 복지, 교육 분야의 정책시행에 발맞춘 여성문화회관, 여성회관, 지역종합복지관, 여성발전센터, 문화의 집 등이 설립되면서 개설된 문화강좌, 문화프로그램, 취미교육, 소모임 등에의 여성참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1990년대 초반에 백화점이나 언론기관 등 상업성이 강한 사적영역을 중심으로 여성의 문화활동이 증가하였다면, 1990년대 중반부터는 여성문화회관, 여성회관, 지역종합복지관 등 국가가 투자한 공공성이 강한 공적영역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다는 것이다³⁴⁾.

이는 88올림픽 이후 경제적 안정과 동시에 문화활동이 삶의 질 차원에서 이해되면

33) 김양희외(1994)

34) 김재인외(1998)

서 여가와 문화생활에 대한 개인적인 욕구가 분출하기 시작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인 문화향유체계가 보다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참여와 활동을 요구하는 여성의 문화적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교양강좌나 취미활동 정도의 차원에 머물러 여성의 문화향유 만족도를 충분한 수준에서 제공하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³⁵⁾.

또 80년대 이후 증가하는 여성의 문화활동의 양상에 대해서 김양희 외의 연구에서는 여성의 문화활동이 수동적·수용적 집단활동, 여성소모임 문화활동, 대안적 문화 패러다임의 창출활동 등의 세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첫 번째 그룹은 수동적 수용자로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만족과 개발, 여가선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집단으로 대부분 일반 여성들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일반여성의 경우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생기고는 있으나 아직은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며, 활동이나 프로그램도 여성 개개인의 생활경험과 밀착되지 못하고 여성의식과 창의력과 연결되지도 못해 진정한 자기개발과 표현으로 이어지지 못해 기존의 문화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미흡한 문화의 수동적 수용자 집단으로 특징지어 지는 그룹이다.

두 번째 그룹은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여성들이 소그룹을 만들고 그 속에서 여성 상호간의 피드백과 공동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활동욕구를 실험하고 충족시키는 그룹이다. 이 그룹은 특정 사안에 대한 집중적인 활동과 연구를 통하여 보다 창의적인 대안을 찾아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그룹이다.

세 번째 그룹은 가장 전문적인 문화활동 그룹으로 문화의 정치학을 기본으로 하여

35) 90년대 이후의 여성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시도되었던 다양한 공적인 제도적 방안이나 지원제도가 실질적인 여성들의 문화적 욕구에 거의 부응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다음의 표에서 잘 제시되고 있다.

<표 9-1> 과거 활동과 앞으로 하고 싶은 문화활동

활동의 종류	과거(%)	미래(%)
여가 및 건강증진 활동	23.3	8.0
가정생활에 도움 되는 활동	26.9	3.4
자기추구적 활동	22.2	63.9
학습활동	27.6	16.7
사회참여 및 봉사활동	0.0	8.0

* 출처 : 김양희 외, 1994

즉 여성들이 현재 실천하고 있는 문화활동의 실태와 여성들이 실제로 원하는 문화활동의 방향이 현재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90년대의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외면적으로 표현된 여성들의 문화활동의 양상은 여성의 문화적 잠재력이 주체적이고 창조적으로 표현된 것이라기보다는 교양획득, 취미활동 수준에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의 대안적 문화패러다임을 창출해내고자 하는 보다 전문적인 움직임이다. 문학과 문학비평, 미술, 연극과 영화, 문화비평 등 다양한 장르별로 여성전문가들이 연대를 이루어 여성문제를 형상화하려 시도해온 그룹으로 문화활동을 문화운동 차원으로 승화시킨 그룹이다. 이러한 활동은 문화활동을 통하여 문화생산자로서의 여성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양성 평등한 대안문화 창출이라는 정치적 가능성을 열어보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룹이다.

김재인 외의 연구에서는, 여성문화 활동을 활동거점별로 구분하였다. 첫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여성문화회관, 여성회관, 문화학교, 문화의 집, 지역종합복지관 등에서 이루어지는 문화활동, 둘째, 비영리적인 사회단체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여성연합, 여성사회교육원, YMCA같은 단체, 셋째, 언론기관부 소속의 문화센터, 상업성이 강한 백화점 문화센터 등의 구분이 그것이다.³⁶⁾

이러한 여성의 문화활동 현황에 대해 류정아 외의 연구에서는 비교적 다양한 종류의 여성문화 활동의 여건이 조성되고 여기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숫자가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은 문화소비자로 간주되거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여성의 문화적 삶의 질적 향상이 가시화되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앞의 두 연구에서 생산성의 결여, 지역문화의 특성 결여, 비전문적 운영과 관리, 비전문적 프로그램, 일회적 지원방식, 전통적인 여성종속성 강화, 활동가들의 활동전략 미숙, 활동층의 저변확대 미비, 문화소비자로서의 위치에 머무, 여성들 내부의 여가장애요인 등을 중요한 문화활동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며 이는 여성들의 여가에 대한 권리의식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여성들은 전체적으로 문화활동에 대하여 높은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여성들이 원하는 문화활동의 종류 또한 자기추구적인 것이 압도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단순여가선용의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현실이다. 여성들이 기본적으로 느끼고 있는 문화적 결핍감은 현재의 문화활동 인프라로는 만족스러운 정도로 충족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이나 의무에 구

36) 이 외에도 문화활동의 유형을 문화활동 대상별로 심미적 유형(문화예술 향수와 창작활동), 기능적 유형(직업관련 활동), 이해적 유형(학습과 교육활동), 역할적 유형(가정에서의 여성역할의 전문화와 효과적인 수행활동), 경제적 유형(여성의 성정체성 형성 구현활동), 주체적 유형(여성주체성 강화활동)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김재인 외 1998:35)

속되어 있는 경우 문화활동은 더욱 장애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에 스스로 욕아매지 않을 때 문화활동을 통한 자기표현과 개발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서, 여성의 문화활동은 시간의 유용한 활용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한국 여성의 현재의 사회문화적 위상을 파악하고 전체 한국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여성의 문화활동의 양상과 방향성 그리고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즉 개인주의적이며 개별화된 활동을 지양하고, 남성중심주의적 시각을 탈피하고, 자기성찰과 문화적 자생력을 키우며, 문화활동을 의식화 작업과 연결시키고, 피상적인 문화활동에서 벗어나서 문화지체 현상을 극복하고, 문화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에서 벗어나 비판적 안목을 키우는 일들이 무엇보다 시급히 요청된다 고 지적하고 있다.

제 2 절 전라북도의 여성 문화정책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여성부의 여성정책기본계획을 토대로 지역실정에 맞는 여성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왔다. 여기서는 민선3기(2002-2006) 여성정책의 발전방향을 정립할 목적으로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과 한국여성개발원이 공동으로 객관적인 평가 작업을 하였던 민선2기(1998-2002)의 여성정책 평가 결과 보고서를 중심으로 전라북도의 여성문화정책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전라북도는 1997년 12월 ‘전북여성발전 중장기 계획’을 세웠고, 1998년에는 ‘전라북도 여성발전기금조례’ 제정하였으며, 2001년 2월에는 ‘전북 여성정책 3개년(변경) 계획 2000-2002’를 발간하였고, 여성정책관실을 수립하기도 하고, 여성복지국 내에 여성정책과를 두는 등 여성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정책시행의 적극성이 실제 전라북도 여성의 삶을 얼마나 개선하였는가 하는 실효성을 평가한 ‘전라북도 여성정책 평가 및 발전방향 탐색을 위한 연구’ 보고서를 활용하여 전라북도 여성문화정책의 현황과 성과를 확인해 보기로 하자.

전라북도는 미래지향적 여성정책은 문화변동의 경향성에 적극 대처하면서 여성들의 참여를 증대시켜야 할 과제를 갖는다는 문제의식 하에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은 「여성의 문화·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이란 전략과제를 두고 그 하위에 「여성의 문화활동 활성화」(과제번호 16)라는 추진과제를 두었다.

이 사업의 개요 및 평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여성의 문화활동 활성화」는 「기본계획」 6대전략과제 중 하나인 「여성의 문화·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의 추진과제로 설정되었으며, 다시 여성의 문화활동 지원(16-1)과제와, 여성의 문화교류 활성화(16-2)라는 두 가지 시책과제로 나뉘어진다. 그리고 문화활동 지원에는 각종 문화수준 평가시 여성관련 평가요소 도입(16-1-1), 다양한 여성참여 문화프로그램 개발과 보급(16-1-2), 문화시설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책 마련(16-1-3)이 포함된다. 문화과제는 「전북여성발전 중·장기계획」(1997년 12월)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제1차 「기본계획」(1998-2002)에 맞추어 조정된 「전북여성정책3개년(변경)계획」에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의 하위과제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 목적은 여성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그 저변인구를 확대하는 것, 여성들의 여가를 이용한 능력개발 기회확대, 그리고 문화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설정되었다.

1. 「여성의 문화활동 활성화」 사업의 추진실적

1) 16-1-2 다양한 여성참여 문화프로그램 개발 보급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문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여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도는 문화예술과를 추진체제로, 98년도에는 도 여성회관과 진안 공공도서관에 “문화학교”를 2개소 지정하고, 도내 13개 문화학교에 운영비를 1억 4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지원하였으며, 이후 점차 사업을 확대하였다. 99년도에는 전주, 익산, 완주에 문화의 집을 새로 설치하였으며(11억), 정읍의 문화의 집에는 운영비 1600만원을 지원하였다. 이외에 12개소 문화강좌 68개에 9천만원 정도를 지원하였다. 2000년도에는 문화의 집 4개소(전주, 익산, 정읍, 완주)를 개관·운영하였으며, 문화학교 2개소(남원, 장수)를 지

정하였다. 2001년도에는 2000년도부터 계속 진행중이던 문화의 집 1개소를 신축·완성하였으며, 14개소 문화강좌 72개를 지원하였다.

2) 16-1-3 문화시설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책 마련

자녀가 있는 여성들의 문화시설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문화시설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에 맞추어 도는 14개 시·군, 예술회관, 문예회관, 도서관 등 관련기관에 설치협조를 요청하였으나 보육을 담당할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결과를 내기 어려웠다. 2000년 정읍 여성회관, 완주 문화의 집 등 7개소에는 보육시설이 설치되었다.

3) 16-2 여성의 문화교류 활성화

「기본계획」에 의하면 이 사업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는, 여성들의 문화 참여가 활발해지고 문화활동의 수준도 취미생활 수준을 넘어 점차 전문성을 띄어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여성 문화예술인을 적극적으로 발굴·육성하여 독자적인 문화영역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데 있다. 전라북도는 이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전개하였다. 98년이래 2001년까지 매년 5-8개 여성문화예술단체(문학, 무용, 음악단체)에 800-1000만원의 문예진흥기금을 지원하였으며, 문화관련 위원회에 여성을 30% 위촉하였다. 여성위원의 비율은 목표를 조금씩 추가달성하여, 2001년 현재 5개의 문화예술관련 위원회에서 58명(31%)를 구성하였다. 2001년의 경우 1700만원(문예진흥기금 1400만원) 중 5개 동호인 단체에 총 8백만원이 지급되었다.

2. 「여성의 문화활동 활성화」 사업 정책평가³⁷⁾

1) 연계성

「전북 여성정책 3개년(변경) 계획 2000-2002」은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이란 전략과제 하에 여성의 문화활동 제고라는 정책과제를 설정하였다. 목적은 여성예술인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저변인구를 확대하며, 여성들의 여가를 이용한 능력개발 기회 확대, 문화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여성의 삶의 질 향상으로 설정하여 중앙의 「기본계획」의 취지와 부합하는 정책을 구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전부터 전북, 특히 전주 등은 예향으로 불리우면서 예술에 대한 관심과 수용자의 수준이 높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주목을 받고 있는 전주시의 “여성 작은 동호회”라든가 전북여성단체협의회 “여성영화제”에 쏠리는 높은 관심과 참여는 바로 이러한 문화적 갈증과 이와 같은 문화정책분야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목표의 구체성

「전북 여성정책 3개년(변경) 계획 2000-2002」에 제시된 문화관련 항목의 계획은 주로 기본계획 「16-1-2 다양한 여성참여 문화프로그램 개발보급」과, 「16-2 여성의 문화교류 활성화」에 관련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여성동호인 단체의 창작활동 지원, 문화예술 관련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 확대, 그리고 문화사랑방, 문화관람실, 정보자료실 등 문화의 집 확대 설치(6개소) 및 여성회관, 문화원 등을 이용한 문화학교 확대 지정(17개소) 등을 구체적인 세부사업과제로 설정하였다. 이외에 「16-1-3 문화시설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책 마련」 부분은 「전북 여성정책 3개년(변경) 계획 2000-2002」에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으나, 각 년도의 사업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었다.

37) 이 부분은 2002년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과 한국여성개발원이 공동연구한 『전라북도 여성정책 평가 및 발전방향탐색을 위한 연구』 결과를 인용한 것임.

<표 9-2> 여성의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계획

분 류		단위	2000년 실적(개소)	연도별계획		계 (2000- 2002)	
				2001	2002		
추진 과제명	16-2	여성동호인 단체의 창작활동 지원 (문예진흥기금배정) 등	단체	5	8	10	
	16-2	문화예술관련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	%	38	38	38	
	16-1	문화의 집, 문화학교 지정 운영	개소	6	3	14	23
예산 (여성관련 문화사업 전체)			백만원	8	1,197	20	1,225

출처: 「전북 여성정책 3개년(변경) 계획 2000-2002」, p.52(과제내용), p.64(예산)에서 재구성

3) 수단의 적절성

예산과 인력, 추진체계 측면에서 위의 정책과제들이 실질적으로 적절한 집행수단을 갖추었는지를 살펴본다. 여성참여 문화프로그램 개발과 문화시설의 보육서비스는 여성발전기본법, 여성의 문화교류 활성화는 문화예술진흥법 20조 및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한다. 「16-1 다양한 여성참여 문화프로그램 개발보급」과, 「16-2 여성의 문화교류 활성화」는 추진체계 및 예산이 배정되어 있었으나, 「16-1-3 문화시설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책 마련」은 그러한 조건이 구비되지 못하였다.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여성의 문화참여를 실질화하는 중요한 사업이나, 시행의 방식이 비예산 사업으로 “설치유도 공문시달”, “설치독려”에 그쳐서 정책의 실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인다. 한편 추진체계에서 보자면 애초 문화예술과를 추진체제로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로 시행과정 중에 각 시설에서 보육을 담당할 인력확보 등 구체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애로사항을 겪게 되면서 2001년부터는 복지여성국의 가정복지과 등 보육부서와 합동추진을 계획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하고, 2002년부터 다시 문화예술과 단독의 추진체계 방식으로 복귀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문화관련 사업 중에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역여성들의 참여를 높이고

있는 사례로서 전라북도 내에서 대표적인 것은 전주시가 그러하다. 전주시는 “취미생활을 원하는 여성 및 지역문제에 관심이 있는 주부들의 여가선용을 통한 문화활동 저변확대와 지역공동체 화합 분위기 쇄신에 이바지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여성동호회활동을 지원해오고 있다. 예컨대 2001년에는 동사무소 23개소, 공공기관 3개소 등 43개의 장소를 대여하여 47개의 동호인 반 운영을 위해 약 1억원을 지원하였다. 현재 동호회의 회원수는 1,980여 명이며 운영과목은 민요·전통차 예절·댄스 스포츠·한국무용·서예 등 13개 과목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모임을 꾸린 후 각 지역(동) 단위의 종합발표회를 가지는데, 복지시설이나 경로당 위문공연 등 개인적 차원의 취미생활만이 아니라 지역에 대한 봉사과 자원활동으로 확산시키고 있다(2001년 사업보고). 이들 여성문화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은 문화와 자원활동의 개념을 통합적으로 발전시켜줄 매개가 되고 있다고 보인다.

4) 목표달성도

<표 9-3> 「여성참여 문화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관련사업의 목표달성도

* 괄호안은 실적을 나타냄.

구 분	1998	1999	2000	2001	계
문화의 집	1(1)	1(5)	1(4)	1(2)	4(12)
문화학교	1(2)	1(1)	1(2)	1(-)	4(5)

자료: 여성정책과의 각 년도 여성정책 시행결과 및 시행계획에서 재정리.

문화관련 사업은 일단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던 문화의 집과 문화학교 설치 사업은 애초의 계획보다 확대되어 수행되어, 전북지역에서의 문화관련 관심을 반영한다고 보인다.

<표 9-4> 「문화시설 보육서비스제공」 사업의 목표달성도(1998-2002)

* 계획과 다른 실적결과만 괄호안에 표시.

구 분	1998	1999	2000	2001	계
합 계	-	11	11	11(13)	33(35)
문화회관	-	2	2	2	6(6)
도서관	-	3	3	3(5)	9(11)
시군민회관	-	1	1	2	4(4)
복지회관	-	2	2	2	6(6)
국악원	-	2	2	2	6(6)
전수교육관	-	1	1	1	3(3)

자료: 여성정책과의 각 년도 여성정책 시행결과 및 시행계획에서 재정리.

한편 문화시설의 보육서비스 제공이란 과제는 수치상으로는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적으로 보육서비스를 담당할 인력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왔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얼마만한 실효가 있었는지 명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

<표 9-5> 「여성참여 문화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관련사업의 목표달성도

(단위:%)*

구 분	1998	1999	2000	2001	계
여성위원 위촉	30	30	30	30(31)	58명 (5개위원회)
기금지원비율**	6	7	8	9	3,200만원

* 계획과 다른 실적 결과만 괄호안에 표시.

** 전체 문예진흥기금의 문화단체에 대한 지원비용 중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여성정책과의 각 년도 여성정책 시행결과 및 시행계획에서 재정리.

마지막으로 문화교류 활성화 사업은, 먼저 여성위원 위촉비율은 타도에 비해서도 높고 목표치를 웃도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문예진흥기금 중 여성 관련 문화예술 동호인 단체에 지원하는 액수가 너무 빈약하여 큰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보인다. 실제로 매년 약 800만원-1,000만원 정도가 5-8개 단체에 지원되었으므로 한 단체당 100만원-160만원 정도를 지원받은 것으로 말할 수 있다. 여성들의 문화에 대한 수요와 생산욕구가 점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원의 확대가 요구된다.

5) 효과성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탓인지 문화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전문가와 공무원의 응답을 보면 가족관련, 문화·사회참여 관련 과제들 중 만족도가 가장 낮은 사업에 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만족도가 가장 높은 사업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것은 “자원봉사분위기의 확산”(36.8%)이었으며, “다양한 여성참여 문화프로그램의 개발보급”(9.2%)은 “방과 후 아동지도 사업의 확산”(7.7%)와 낮은 함께 낮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표 9-6> 「여성참여 문화프로그램 개발보급」 사업의 양성평등에 대한 기여도 평가

구분	매우 기여함	대체로 기여함	보통	거의 기여못함	전혀 기여못함	계
전문가	1(2.9)	6(17.1)	15(42.9)	11(13.4)	2(5.7)	35(100.0)
공무원	4(9.5)	19(45.2)	16(38.1)	3(7.1)	0(0.0)	42(100.0)
전 체	5(6.5)	25(32.5)	31(40.3)	14(18.2)	2(2.6)	77(100.0)

보육, 문화 등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비교적 후한 점수를 주고 있는 공무원 응답을 제외하고 전문가의 응답만 살펴본다면 여성참여적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의 양성평등에 대한 기여도는 “기여하지 못했다”는 대답(거의·전혀의 합이 37.1%)이 “기여했다”고 응답한 비율(매우·대체로의 합이 20.0%)보다 훨씬 높다. 이것은 문화프로그램들이 아직 여성의 관심과 이해를 특화하지 못하거나, 여성참여를 유도할만한 장치를 갖추고 있지 못한 결과라고 보인다.

3. 「여성의 문화활동 활성화」 사업 종합평가 및 문제

여성의 문화관련 사업에서 핵심적인 것은 문화의 집, 문화학교 등을 통한 여성참여 문화프로그램 지원인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여성의 문화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매해 여성문화예술단체들에 약 1000만원의 문예진흥기금을 지원하였으며, 문화시설의 보육 서비스 제공은 보육서비스 인력의 미비로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화학교 설립 그 자체를 여성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것은 문화학교에서 어떤 내용의 프로그램이 소비되고 생산되는지에 따른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문화의 수요자, 나아가 잠재적인 생산자의 주요 층이 여성임을 감안할 때 여성의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나아가 여성을 문화의 생산자로 육성할 수 있는 발전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보인다. 현재 문화학교의 강좌내용들은 주로 여성적 취미생활에 관한 것으로 보이며, 부분적으로 여성의식 개선과 관련된 교양강좌나 직업관련 강좌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보인다. 결국 전통적 성역할규범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거나, 혹은 그때 그때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정도의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 발전은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래의 표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전라북도의 정책요구에 대한 조사에서 남녀 응답자 모두 여성을 위한 문화시설의 확대와 똑같이 중요하게 문화프로그램의 개발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었다.

<표 9-7> 여성의 문화활동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

구 분	남 성		여 성		합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여성 소집단(단체)간 문화교류 지원강화	54	14.8	117	12.1	171	12.8
여성문화를 이끌어 갈 전문가 양성교육	61	16.7	212	21.9	273	20.4
여성을 위한 문화시설 (복지관, 회관) 확대	122	33.3	314	32.4	436	32.7
다양한 여성문화 프로그램 개발 보급	121	33.1	315	32.5	436	32.7
기타	8	2.2	11	1.1	19	1.4
합 계	366	100.0	969	100.0	1335	100.0

앞으로 문화관련 여성정책의 앞으로의 기본방향은 지금까지 문화소비자로서 자리 매김되어 왔던 여성의 위치를 문화생산자로서의 위치로 자리바꿈하는 것을 지향하는 성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전라북도 여성의 문화관련 정책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문화학교나 문화의 집에 대한 지원은 보다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의 개발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발전하면서 여성이 문화적 생산자로서 한 몫을 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4. 전라북도 여성문화정책에 대한 지역의 평가

1)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에 대한 전반적 평가

전라북도의 문화활동 활성화 사업은 여성부의 제1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문화·사회활동 활성화 기반구축” 범주와 일치하는 것이었으나 여성참여 문화프로그램 개발 등의 문화관련 사업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어서, 전문가들의 경우 30% 이상이 이들 사업은 양성평등에 “거의 기여하지 못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표 9-8> 여성참여 문화프로그램개발사업의 양성평등 기여도 평가

구분	매우 기여함	대체로 기여함	보통	거의 기여못함	전혀 기여못함	합 계
전문가	1(2.9)	6(17.1)	15(42.9)	11(31.4)	2(5.7)	35(100.0)
공무원	4(9.5)	19(45.2)	16(38.1)	3(7.1)	0(0.0)	42(100.0)
전 체	5(6.5)	25(32.5)	31(40.3)	14(18.2)	2(2.6)	77(100.0)

한편 문화활동 참여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제안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안이 제기되었다. “향후 5년간 가장 중요한 과제”에 대해 문화와 가족을 연결지어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제안되었다. 이는 주5일제 근무제도가 확산되면서 여가와 문화생활이 중시되는 등의 사회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문화적으로 볼 때 주5일제 근무제도의 확산과 같은 근무형태의 변화는 가정생활과 여가를 중시하는 새로운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문화향수에 대한 기대수준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도 가족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가족문화 조성과 양성평등적인 가족 프로그램 개발이 전문가들에 의해 중요하게 지적되었다. 또한 IT산업의 성장, 미

디어분야의 확장에 따라 여성들의 참여 기회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따라서 여성들에게 문화소비자로서의 역할만이 아니라 문화생산자로서의 역할기대가 증대함을 예측할 수 있다.

또 장차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의 변화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에 따라 여성의 가정 내 발언권이 증대하고 민주적인 부부관계에 대한 기대수준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가정중심의 문화프로그램의 개발 필요성, 특히 평등가족문화에 대한 중요성이 거론된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다.

<표 9-9> 문화참여 활성화를 위한 향후 5년간 주요 정책제안

항 목	내 용	빈도(%)
가족이 함께하는 문화만들기 (주5일제 근무에 따른 여가문화 만들기 등도 포함)	1. 가정중심 문화프로그램개발	4 (12.1)
	2. 가족복지증진대책	1 (3.0)
	3. 다양한 가족교육 프로그램 개발 · 보급 및 예산지원	1 (3.0)
	4. 평등가족 확산	1 (3.0)
	5. 평등한 가족관계 문화가 확산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할 것임	1 (3.0)
	6. 주5일 근무제에 맞춰 다양한 레저 · 여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확산	1 (3.0)
소 계		9 (27.2)
문화프로그램 및 문화행사 확산	1. 여성전용 문화예술의 첨단시설건립	1 (3.0)
	2. 문화행사의 다양화	1 (3.0)
	3. 문화프로그램 개발보급	1 (3.0)
	4. 여성문화인력육성 · 지원	1 (3.0)
소 계		4 (12.1)
다양한 문화의 접촉	1. 다양한 문화의 접촉과 시도	1 (3.0)
	2. 다양한 계층의 여성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장소 제공	2 (6.1)
	3. PC개발 보급	1 (3.0)
소 계		4 (12.1)
합 계		33 (100.0)

제 3 절 전문적 문화예술 활동 현황

전라북도내에서 장르별로 전문 여성문화예술인들의 수는 얼마나 되며, 또 이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양한 경로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적절한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다. 점차 전문 여성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추세였으나 지금까지 단 한번도 전라북도 차원의 문화예술인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 여성 문화예술인들의 활동 상황은 물론 전라북도 문화 예술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조차 구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확보된 자료와 다양한 문화예술인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전문 여성문화예술인들의 활동 상황을 파악해 보기로 한다.

1. 전라북도 전문 여성문화예술인 활동 현황

먼저 전문 여성문화예술인들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예술단체총연합회(약칭 예총) 전라북도지회를 방문하여 확인해 보았다. 예총 전북지회는 건축가협회, 국악협회, 무용협회, 문인협회, 미술협회, 사진작가협회, 연극협회, 연예협회, 영화인협회, 음악협회 등 10개의 회원단체와 전주, 군산, 익산, 남원, 정읍, 김제, 고창, 부안, 진안 등 9개의 지부를 두고 있다. 그러나 몇몇 단체나 지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단체나 지부가 회원 수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파악할 수 없었으며, 설혹 회원수를 파악할 수 있다 하여도 회원들 중 남자 회원과 여자 회원이 얼마나 되는 지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였다. 따라서 전라북도에 장르별로 얼마나 많은 여성 전문 예술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지는 아쉽게도 파악할 수 없었다.

2. 장르별 전문 여성문화예술인 활동 현황

1) 문학분야

전라북도에서 전문적인 문학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예총산하의 문인협회나 사단법인 민족문학작가회의 전북지부(약칭 전북작가회의)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다. 예총산하의 문인협회에는 어떤 단체들이 얼마나 소속되어 있으며 이 중 여성문인들의 활동상황은 어떠한 지를 파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전북작가회의에서는 자료를 구할 수 있었는데 전북작가회의에 소속된 문인들은 총 128명이었으며 이중 남성회원은 103명(80.3%)이었고 여성회원은 25명(19.7%)이었다. 또 여성회원들이 속해있는 세부 장르는 시 13명, 소설 4명, 수필 4명, 아동문학 3명, 희곡(극작) 1명 등으로 주로 시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일단 수적으로 보면 여성문학가는 남성의 약 20%수준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여성작가들의 작품활동에 대한 평가를 문인들에게 구해보았다. 그 결과 대부분의 문인들이 전라북도는 남성문인들의 활동이 두드러지며, 혼불의 작가 최명희 선생을 제외하면 큰 업적이나 성과를 남긴 사람들도 대부분 남성 문인들이라고 평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여성문인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활발해지고 있다. 한 예로 여류문학회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각 문화시설의 문학강좌에 여성 수강생이 증가하고 있고, 또 전라북도 각 지역의 문인협회를 이끄는 대표로 여성 문인들이 활동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들 수 있다.

현재 여성 대표가 이끄는 문학회로는 1985년에 창립한 전북여류문학회 등 각 지역의 여류문학회를 비롯하여 무주 산글, 군산 청사초롱, 무주 문인협회, 전북수필문학회, 김제문인협회, 익산문인협회, 군산서해문학회, 풍물시 동인, 카톨릭 문우회 등이다. 이들은 “90년대에 들어 여성 문인들로 구성된 모임이 활발해졌으며 그동안 모임의 장은 재정보호 측면에서 사회적 관계가 많은 남성들이 주로 맡고, 편집위원 등 안 살림은 여성이 많이 참여하는 등 전통적인 성역할에 따라 문인들의 모임이 운영되었지만 최근 여성 문인들의 활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변하면서 여성들이 한 모임의 책임자로서 역할을 맡겨도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게 된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문학분야에서는 아직은 양적으로 또는 질적으로 여성문인들의 활동이 남성 문인들과 대등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90년대 이후 여성문인들의 활동이 보다 적극적인 활동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활동의 영역을 점차 넓혀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미술분야

<표 9-10> 지역별/장르별 전문작가 현황(2005년)

전북	공예			디자인			문인화			서양화			한국화			조각			서예			합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미협																									
전주	28	25	53	8	3	11	7	17	24	133	73	206	80	57	137	26	8	34	41	39	80	323	222	545	
고창	0	0	0	1	1	2	1	0	1	0	0	0	0	0	0	3	0	3	7	2	9	12	3	15	
군산	8	2	10	2	2	4	2	23	25	31	9	40	13	9	22	11	1	12	9	4	13	76	50	126	
남원	2	1	3	0	0	0	0	0	0	14	2	16	4	1	5	3	0	3	6	1	7	29	5	34	
부안	1	0	1	0	0	0	0	0	0	6	3	9	5	2	7	0	0	0	1	0	1	13	5	18	
김제	1	2	3	0	0	0	1	0	1	4	1	5	11	2	13	2	0	2	4	0	4	23	5	28	
익산	19	8	27	1	0	1	2	3	5	21	10	31	17	3	20	15	5	20	10	5	15	85	34	119	
정읍	6	1	7	0	0	0	0	0	0	14	3	17	6	3	9	3	1	4	12	7	19	41	15	56	
진안	0	0	0	0	1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	
계	65	39	104	12	7	19	13	43	56	223	101	324	136	77	213	63	15	78	90	58	148	602	340	942	

* 출처 : 예총 전라북도지회 제공자료를 재구성

한국예총 전라북도 미술협회에 소속된 전문 작가는 모두 942명이다. 이중 남성은 602명(63.9%), 여성은 340명(36.1%)으로 남성작가의 비율이 여성작가에 비해 많았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 현황으로 보면 지역적으로는 전라북도내 전문 여성미술작가들의 65.3%가 전주 시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군산과 익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등 대부분 도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르별로는 서양화와 한국화, 그리고 서예, 문인화 등의 순으로 여성작가의 수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특이한 것은 문인화의 경우 남성작가들의 수보다 여성작가들의 수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술분야는 문학분야에 비해 여성작가들의 활동이 매우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2004년도 전라북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평가보고서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도 전라북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에 가장 많이 지원

신청을 한 분야가 바로 조형예술분야(회화, 서예, 조각, 공예, 사진)로 무려 102개 사업이 지원을 받았다³⁸⁾.

지원사업들은 모두 전시회 사업들인데 이 전시회에는 다양한 여성 회원들이 참여하여 미술분야에서는 여성 전문작가들이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국악분야

한국예총 전라북도 국악협회에 소속된 국악 예술인들은 모두 308명이다. 이중 남성은 48명(15.6%), 여성은 260명(84.4%)으로 여성 국악인의 수가 남성 국악인의 수보다 월등히 많았다. 이를 보더라도 전라북도의 경우 국악분야에서는 여성의 활동이 남성에 비해 훨씬 더 활발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전라북도에는 전북도립국악원, 남원 국립국악원, 전주시립국악단 등 3개의 관립 국악단이 있는데 이중 전북도립국악원을 예로 들어보자. 전북도립국악원에는 교수부가 있는 데 모두 23명이 교수가 재직 중이다. 이중 남자교수는 10명이며 여자 교수는 13명으로 여자 교수의 수가 더 많다. 창극단의 경우 총 23명 중 남자가 7명, 여자가 16명이며, 관현악단의 경우 총 42명 중 남성단원은 12명이며 여성단원은 30명이었다. 그리고 무용단은 총 26명 남성단원은 6명에 그쳐 국악분야에서는 여성 예술인들의 활동이 남성 예술인들에 비해 훨씬 더 활발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9-11> 전북도립국악원 예술단원 현황 (2005년)

구분	교수부	창극단	관현악단	무용단	계
남성단원	10	7	12	6	35
여성단원	13	16	30	20	79
합계	23	23	42	26	114

38) 음악분야는 32개 사업, 무용분야는 8개사업, 연극분야는 6개사업, 전통예술분야는 41개사업, 대중예술분야는 10개 사업 등으로 미술분야의 지원사업이 타분야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4) 양악분야

양악분야의 경우 여성 전문예술인이 얼마나 활동하고 있는 지에 관한 정확한 통계를 구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지역내 음악전공자들을 배출하는 교육기관이나 관립 또는 민간 음악단체들의 현황을 보면 여성 음악인들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먼저 전라북도에는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전주대학교, 군산대학교, 한일장신대학교, 전주교대, 예원예술대학교, 서해대학 등에서 음악전공자를 배출하고 있는데 이들 대학 재학생의 70%가 여학생이며, 각 대학 교수진에도 여성 교수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다.

또 전주시립교향악단, 전주시립합창단, 군산시립교향악단, 군산시립합창단, 익산시립합창단, 김제시립합창단, 남원시립합창단, 정읍시립합창단 등 관립 음악단체들에도 남성단원보다는 여성단원이 훨씬 많으며, 각 지역의 민간 음악단체에도 여성 음악인들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각 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나 지휘자로 여성이 활동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또 여성이 주로 활동하는 음악 장르는 대부분 연주자로서의 참여하는 분야이며 작품을 창조하는 작곡가로서의 참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최근 지역에서 창작된 대형 작품(오페라나 칸타타, 음악극 등)은 모두 남성 작곡가에 의해서 창작되었으며, 이를 기획하고 연출한 음악인도 모두 남성 음악인들이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보면 지역내에서 여성 음악인들의 배출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성음악인들의 현장 활동도 활발하지만 활동의 영역에 한계가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이 여성 음악인들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짓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무용분야

무용계는 어느 장르보다도 여성들의 활동이 돋보이는 영역이다. 예총 전북지회에는 170여명의 무용인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중 남성회원은 34명(20.0%)에 불과하였으며, 여성회원이 136명(80.0%)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전라북도에는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우석대학교 등에서 무용 전문 예술인들을 배출하고 있는데 여기서 배출된 인원들이 지역을 근거로 활동을 계속함으로써 무용 전문 예술단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또 이들 단체들은 대부분 여성 무용가가 단체의 장을 맡아 활동함으로써 다른 어떤 예술장르보다도 여성 예술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두드러지는 영역이 되고 있다.

특히 타 장르와의 연합공연(예를 들면 오페라나 뮤지컬, 음악극, 대형 체육행사 등) 시에도 무용분야의 종합 연출을 여성 무용인이 맡아 하는 등 대형 작품에의 참여도 두드러져 전라북도 무용계는 여성 무용인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6) 연극 분야

전라북도의 연극은 타 지역에 비해 수준이 높고 연극에 대한 열정도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전라북도 연극의 뿌리가 깊고, 매년 지속적으로 창작품을 생산해 왔고, 또 우수한 작품이 많이 배출해 왔기 때문이다.

전라북도는 전주시립극단을 비롯하여 극단 황토, 창작극단, 하늘, 명태 등 민간 극단들이 있으며, 또 전북대학교내의 기린극회, 전주대, 우석대, 한일장신대 등에 연극영화과가 있어 매년 새로운 연극인들이 배출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연극인들의 얘기를 빌면 최근 지역 내에 새로운 젊은 신인들의 유입이 과거에 비해 원활하지 못하다고 한다. 또 남성 연극인들이 생활고로 인하여 연극 활동을 지속하지 못하고 생업을 찾아 떠나는 경우가 많아 지역 연극이 여성 연극인 중심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심지어는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전주시립극단조차도 남성 연극인과 여성연극인의 비율이 맞지 않아 주로 여성등장인물이 많은 연극을 무대에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으로 보면 현재 지역 연극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그나마 지역 연극을 지탱하고 있는 건 여성 연극인들의 참여가 있기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의 견해를 들어보면 전북지역은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기는 하지만 매년 꾸준히 창작품이 5편 이상은 나올 정도로 연극에 대한 열정이 강한 곳이며, 다른 지역에서는 쉽게 찾아 볼 수 없는 여성 극작가가 배출되고 있는 지역이라는 자랑도 들어 볼 수 있다.

7) 기타 분야

사진 분야나 대중예술 분야, 그리고 영화분야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길이 없었다. 대부분 정확한 통계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정확한 숫자를 언급하지는 못하지만 회원들의 활동 상황에 대한 얘기는 들을 수 있었다.

대부분 현대사회에서 예술활동을 지속한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 하였다. 왜냐하면 예술활동이 생업과 직결되는 것이어서 생업에 크게 지장받는 경우 예술활동을 지속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 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최근 남성 예술인들보다 생업에 대한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여성 예술인들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경제적으로 안정된 기혼 여성에게서 증가하고 있다.

또 한 가지 특별한 상황은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 여성들의 활동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들의 활동영역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과거 예술이 여성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나 교양 차원에서 이해되던 것을 탈피하고 보다 적극적인 삶의 구현을 위한 하나의 기회로 생각하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전문예술영역에서 과거와 같이 성역할 이데올로기에 따른 역할 구분이 점차 희미해지고 여성 예술인들이 남성과 대등한 위치에서 보다 폭넓게 예술활동에 참여하는 양상으로 변화해 가고 있는 것이다.

제 4 절 전라북도 여성들의 문화생활과 여가생활

전라북도 여성들의 문화생활과 여가생활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국통계청이 발간한 2004 사회통계조사(문화와 여가부문)의 결과를 확인하여 재구성해 보았다.

1. 전라북도 여성들의 문화생활

1) 신문구독율 및 관심 분야

<표 9-12> 전라북도 여성들의 신문 구독율 (2004년)

(단위 : 백분율(%))

구분	신문 보는 사람	일반신문					인터넷신문					
		거의 매일	주 3~4회	주 1~2회	주 1회	%	거의 매일	주 3~4회	주 1~2회	주 1회	%	
전국	남	72.7	66.6	18.9	11.6	2.9	84.9	54.7	26.5	15.1	3.7	39.9
	여	55.4	80.3	51.7	22.7	19.8	80.3	41.7	30.7	21.1	6.4	41.0
	계	63.8	60.1	20.6	15.1	4.2	82.8	48.9	28.4	17.9	5.0	10.4
전북	남	62.1	45.1	21.1	13.8	2.9	76.4	47.9	32.5	16.7	2.8	44.8
	여	43.1	62.2	25.8	22.2	6.9	77.6	38.0	30.8	26.4	4.8	42.4
	계	52.2	55.0	23.1	17.4	4.6	76.9	43.5	31.8	21.0	3.7	43.4

전라북도 여성들의 신문 구독율은 전국 평균 63.8%에 비해 낮은 43.1%에 그쳤다. 이는 전국 여성 평균 55.4%보다도 낮은 수준이어서 전라북도 여성들이 신문을 잘 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라북도 남성들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낮은 비율이어서 사회현상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관심분야에 있어서는 사회 · 환경, 경제, 연예 · 스포츠 · 레저 등의 순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어 정치나 경제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남성들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반면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서 교육 · 문화 · 예술 분야와 생활 · 건강 · 날씨 분야 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도 알 수 있다.

<표 9-13> 전라북도 여성들의 신문 구독시 관심분야 (2004년)

(단위 : 백분율(%))

		정치	경제	사회· 환경	정보통신· 과학기술	연예· 스포츠· 레저	교육· 문화· 예술	생활· 건강· 날씨	사설· 논평	기타	계
전국	남	27.9	32.1	11.8	2.8	18.7	2.2	2.4	2.1	0.1	100.0
	여	11.3	24.8	20.9	1.4	20.7	9.1	9.1	2.5	0.2	100.0
	계	20.5	28.9	15.8	2.2	19.6	5.3	5.4	2.3	0.1	100.0
전북	남	29.9	26.4	15.0	2.6	18.1	3.2	3.0	1.8	0.1	100.0
	여	10.8	20.9	24.6	1.8	20.5	8.4	10.2	2.7	-	100.0
	계	21.6	24.0	19.1	2.3	19.1	5.4	6.1	2.2	0.0	100.0

2) TV 즐겨보는 프로그램

남성들의 절반 이상이 뉴스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데 비해 여성들은 드라마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여성들 역시 가장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은 드라마(57.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30.4%와 전국 여성평균 50.9%를 넘어선 것으로 전라북도 여성들이 TV 드라마를 얼마나 선호하고 있는 지를 잘 보여준다. 두 번째로 관심을 가지는 프로그램은 뉴스로 나타났으며 이외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매우 호감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타 지역 여성들과 큰 차별성이 없는 것이나 뉴스에 대한 선호도가 낮고 드라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전라북도 여성들의 관심은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표 9-14> 전라북도 여성들의 TV 즐겨보는 프로그램 (2004년)

(단위 : 백분율(%))

		뉴스	드라마	스포츠	연예·오락	영화	교육	교양	홈쇼핑 프로그램	기타	계
전국	남	56.7	8.9	15.9	10.5	4.4	0.5	2.5	-	0.3	100.0
	여	29.7	50.9	0.9	11.5	2.9	0.7	2.9	0.2	0.3	100.0
	계	42.8	30.4	8.2	11.0	3.6	0.6	2.8	0.1	0.3	100.0
전북	남	58.6	10.0	14.4	10.4	3.0	0.7	2.9	-	-	100.0
	여	26.1	57.9	1.0	9.1	1.8	0.7	2.9	0.2	0.3	100.0
	계	41.7	34.9	7.4	9.8	2.4	0.7	2.9	0.1	0.2	100.0

3) 비디오 및 DVD 시청

전라북도 여성들의 비디오나 DVD 시청 정도는 23.4%로 전국 평균 29.4%에 비해서 다소 낮은 편이며 전라북도 남성들의 시청 정도와 비교해서도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라북도 여성들은 오락용 영상물을 가장 많이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용 비디오 시청율은 전국 평균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15> 전라북도 여성들의 비디오 및 DVD 시청율 (2004년)

(단위 : 백분율(%))

구분		본다	오락용	교육용	교양용	기타
전국	남	31.9	93.6	7.4	12.9	11.5
	여	27.0	92.5	8.5	10.1	11.8
	계	29.4	93.1	7.9	11.5	11.6
전북	남	31.5	93.0	9.6	12.3	12.8
	여	23.4	90.4	10.0	7.9	8.8
	계	27.3	91.9	9.8	10.3	11.0

4) 독서인구 비율

전라북도 여성들의 독서인구 비율은 53.0%로 전국 평균 62.2%, 전국 여성평균 62.4%에 비해서 다소 낮은 편이었으며 전라북도 남성들의 독서인구비율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 전라북도 여성들의 독서정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여성들은 가장 즐겨 읽는 책은 교양서적, 잡지류 등의 책이었으며, 직업관련 서적은 전국 평균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라북도 지역 여성들의 경제활동 정도가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편에 있음과 관련이 있지 않나 싶다.

<표 9-16> 전라북도 여성들의 독서인구 비율 (2004년)

(단위 : 백분율(%))

구분		독서인구	교양서적	잡지류	직업관련 서적	생활, 취미 정보서적	기타	계
전국	남	62.0	63.5	49.1	43.3	21.5	25.7	100.0
	여	62.4	75.5	60.3	23.4	26.4	17.1	100.0
	계	62.2	96.7	54.9	32.5	24.0	21.3	100.0
전북	남	57.0	63.9	44.5	33.7	18.6	26.2	100.0
	여	53.0	78.5	55.7	17.4	22.7	15.3	100.0
	계	54.9	71.3	50.1	25.5	20.6	20.7	100.0

한편 독서를 하는 여성들의 독서량을 살펴보면 연간 3-5권을 읽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으며, 매월 1권 이상 읽는 사람들도 43.2%나 되어 책을 읽는 사람들의 독서량은 비교적 많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여성들의 평균 독서량과 비슷한 수준인데 이것으로 보아 전체적으로 전라북도 여성들의 독서인구는 전국 수준과 비교해서 다소 낮지만 독서하는 여성들의 책을 읽는 수준은 전국 수준과 비슷한 수준에서 읽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9-17> 전라북도 여성들의 독서량 (2004년)

(단위 : 백분율(%))

구분		독서량별 인구비율					독서인구
		1~2권	3~5권	6~10권	11~20권	21권이상	
전국	남	13.0	20.7	18.8	19.3	28.2	62.0
	여	13.3	21.6	20.3	20.7	24.1	62.4
	계	13.2	21.2	19.6	20.0	26.1	62.2
전북	남	13.1	22.9	19.0	19.9	25.2	57.0
	여	14.1	23.7	19.0	22.2	21.0	53.0
	계	13.6	23.3	19.0	21.1	23.1	54.9

5) 음악감상 비율 및 음악감상 방법

<표 9-18> 전라북도 여성들의 음악감상 비율 및 방법 (2004년)

(단위 : 백분율(%))

구분	음악 감상 비율	오디오	PC 온라인				MP3	휴대폰	라디오,T V	
			유료사 이트	무료사 이트	인터넷 방송	계				
전국	남	63.4	34.5	1.4	21.1	3.4	25.9	9.6	1.2	28.8
	여	62.5	37.8	1.0	19.6	3.2	23.8	6.8	1.3	30.4
	계	63.0	36.1	1.2	20.3	3.3	24.8	8.2	1.3	29.6
전북	남	56.7	37.8	0.7	21.8	3.6	26.1	6.8	0.4	28.9
	여	52.8	37.1	0.7	19.6	4.4	24.7	3.0	1.4	33.8
	계	54.7	37.4	0.7	20.7	4.0	25.4	4.9	0.9	31.4

음악감상을 즐기는 전라북도 여성들은 52.8%로 전국 평균 63.0%에 비해 낮았으며 전국 평균 여성 음악감상 비율에 비해서도 낮게 나타났다. 전라북도 여성들이 음악감상을 할 때 가장 즐겨 사용하는 방법은 오디오나 라디오, TV를 활용하여 감상하는 것이었고, 무료 사이트 등 PC, 인터넷을 통한 음악감상 비율도 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전라북도 여성들의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경험을 보면 관람 경험자의 비율이 38.4%로 전국평균 51.0%나 전국 여성 평균 51.0%보다 현저하게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관람경험 횟수에서도 전국 여성 평균이 1년에 7.6회 관람하는 반면 전라북도 여성은 5.9회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문화예술 관람경험에 있어 박물관, 미술전시장 관람보다는 음악, 연주회, 무용, 영화 등 무대공연작품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스포츠에 대한 관심은 매우 떨어진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표 9-19> 전라북도 여성들의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2004년)

(단위 : 횟수, 백분율(%))

		공연장 이용		전시장 관람		스포츠 관람		관람자비율	
		관람자	횟수	관람자	횟수	관람자	횟수	관람자	횟수
전국	남	83.2	5.9	28.6	2.8	28.5	3.2	51.0	6.6
	여	91.5	6.9	35.3	3.0	10.9	2.7	51.0	7.6
	계	87.4	6.4	32.1	2.9	19.5	3.1	51.0	7.1
전북	남	77.5	4.6	35.0	2.6	30.1	2.8	43.9	5.3
	여	86.7	5.3	38.7	2.4	13.4	2.7	38.4	5.9
	계	82.0	5.0	36.8	2.5	22.0	2.8	41.0	5.6

2. 전라북도 여성들의 여가생활

1)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활용방법

주말이나 휴일 전라북도 여성들의 여가생활 실태를 보면 24.5%의 여성들이 주말이나 휴일에도 가사활동으로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전라북도 남성들은 4.2%만이 주말이나 휴일에 가사활동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과 비교하면 여성의

여가시간 활용이 남성과는 크게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 외의 여가시간에는 TV시청, 휴식이나 수면 등으로 주로 시간을 보내 적극적인 여가생활보다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여가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주말이나 휴일에 여성들이 적극적인 여가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은 주말이나 휴일에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있으므로 성역할 분업상 주로 집에서 그들의 뒷바라지를 해야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9-20> 전라북도 여성들의 여가활용방법 (2004년)

(단위 : 백분율(%))

구분	TV 시청	여행	문화 예술 관람	스포츠 관람	스포츠	게임 PC 통신	창작적 취미	자기 계발	사교 관련	봉사 활동	가족과 함께	가사일	휴식 수면	기타	계	
전국	남	26.4	7.0	1.7	0.9	7.1	9.9	1.0	2.0	11.0	0.7	8.7	3.9	18.2	1.5	100.0
	여	25.7	3.4	3.0	0.2	1.7	4.0	1.1	1.7	11.9	1.1	9.9	19.8	14.2	2.5	100.0
	계	26.1	5.2	2.3	0.5	4.3	6.9	1.0	1.8	11.4	0.9	9.3	12.1	16.1	2.0	100.0
전북	남	25.9	5.9	0.9	0.4	7.2	9.6	1.7	1.9	11.9	0.6	8.6	4.2	20.0	1.2	100.0
	여	25.3	2.3	1.5	0.3	1.6	4.5	0.9	1.9	10.5	1.5	8.5	24.5	13.8	3.0	100.0
	계	25.6	4.0	1.2	0.3	4.3	6.9	1.3	1.9	11.2	1.0	8.5	14.8	16.7	2.2	100.0

2) 여가활동 만족 및 불만족 이유

전라북도 여성들은 자신의 여가생활에 대해 30.0%의 여성들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전국평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여성 70.0%의 불만족 이유를 보면 절반이 넘는 53.4%의 여성들이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는 것을 꼽았고, 그 다음이 시간부족(22.0%)을 꼽았다.

<표 9-21> 전라북도 여성들의 여가생활 만족 및 불만족 이유 (2004년)

(단위 : 백분율(%))

구분	만족	불만족	불만족 이유									
			경제적 부담	시간 부족	교통 혼잡	여가 시설 부족	여가 정보 부족	취미가 없어서	건강·체력 부족	함께 즐길 사람이 없어서	기타	
전국	남	28.6	71.4	51.9	27.2	4.1	3.8	1.7	4.7	4.4	2.1	0.1
	여	26.1	73.9	53.0	23.0	3.5	3.7	2.2	4.6	7.6	2.1	0.3
	계	27.3	72.7	52.4	25.0	3.8	3.7	2.0	4.7	6.1	2.1	0.2
전북	남	30.8	62.9	54.1	23.1	1.6	4.9	1.8	6.1	6.0	2.2	-
	여	30.0	70.0	53.4	21.0	1.7	5.0	2.0	6.7	8.8	1.3	0.1
	계	30.3	69.7	53.8	22.0	1.7	5.0	1.9	6.4	7.5	1.7	0.0

3) 국내 관광여행 횟수

전라북도 여성들의 국내 관광여행 경험을 보면 전라북도 여성들의 60.3%가 최소한 1번이상의 국내 여행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먼저 15세 이상 전라북도 여성 1인당 여행횟수는 2.5회로 다른 범주보다 낮았으며, 관광여행자 1인당 여행횟수도 4.2회로 낮아 전라북도 여성들의 여행경험은 다른 범주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여성들의 여행경험을 숙박 여행과 당일치기 여행으로 나누어서 여행의 수준을 살펴보면 1박 이상의 숙박여행을 다녀왔다는 여성은 32.2%로 다른 범주에 비해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9-22> 전라북도 여성들의 국내관광여행 횟수 (2004년)

(단위 : 횟수, 백분율(%))

구분	국내 관광 여행자			숙박 여행 여행자			당일 여행 여행자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여행 횟수	관광 여행자 1인당 여행 횟수	%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여행 횟수	관광 여행자 1인당 여행 횟수	%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여행 횟수	관광 여행자 1인당 여행 횟수	%	
전국	남	3.1	5.3	57.9	1.1	2.6	40.7	20.	4.8	41.1
	여	2.8	4.7	59.0	1.0	2.4	40.2	1.8	4.4	42.2
	계	2.9	5.0	58.4	1.0	2.5	40.4	1.9	4.6	41.7
전북	남	2.8	4.8	59.4	0.8	2.2	34.9	2.1	4.3	48.0
	여	2.5	4.2	60.3	0.6	2.0	32.2	1.9	3.7	49.5
	계	2.7	4.5	59.9	0.7	2.1	33.5	2.0	4.1	48.7

4) 해외 여행 경험

<표 9-23> 전라북도 여성들의 국내관광여행 횟수 (2004년)

(단위 : 횟수, 백분율(%))

구분	지난 1년동안 해외 여행자	관광	가사	업무	
전국	남	11.3	58.0	12.2	43.6
	여	9.2	77.8	18.6	12.1
	계	10.2	67.1	15.2	29.1
전북	남	7.2	65.1	15.5	29.8
	여	6.1	76.1	16.5	6.3
	계	6.6	70.4	10.6	18.6

지난 1년동안 해외여행을 다녀 온 전라북도 여성들은 6.1%로 전국 평균 10.2%는 물론 전국 여성평균 9.2%에 비해서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해외여행 이유를 보면 관광이 76.1%로 가장 높다.

5) 레저시설별 이용자 (복수응답)

전라북도 여성들의 레저시설별 이용자 현황을 보면 레저 시설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여성들은 58.1%로 전국 평균보다는 낮았지만 같은 전라북도 지역 남성들에 비해서는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가장 즐겨 찾는 레저시설은 관광명소였으며, 놀이공원, 해수욕장, 온천장, 삼림욕장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골프장이나 스키장과 같은 고비용 레저시설에 대한 경험도는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9-24> 전라북도 여성들의 레저시설별 이용자 현황 (2004년)

(단위 : 횟수, 백분율(%))

구분		이용자	관광 명소	온천장	골프장	스키장	해수 욕장	삼림 욕장	놀이 공원	기타
전국	남	61.4	63.8	31.8	5.1	13.2	41.3	26.6	43.6	1.4
	여	63.2	63.2	35.2	1.5	10.4	37.5	25.6	47.5	1.1
	계	62.3	63.5	33.5	3.3	11.7	39.3	26.1	45.6	1.2
전북	남	56.8	71.8	23.1	3.1	8.2	38.1	33.7	36.5	0.2
	여	58.1	71.8	27.0	0.8	5.2	30.8	25.5	38.7	0.1
	계	57.5	71.8	25.2	1.9	6.6	34.3	29.4	37.7	0.1

제 5 절 연구를 통한 제언

이상과 같이 전라북도 여성들의 문화예술 활동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문 예술인들의 활동과 일반 시민 여성들의 문화향유 실태를 알아보았는데 먼저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관련 기관과 여러 자료들을 조사해 보았는데 그 어느 곳도 여성들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나 관련 자료들을 성실하게 확보하고 있는 곳이 없었으며, 또 소속 전문예술인들의 활동 상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기록해 놓은 곳이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충분한 1차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련자들의 증언과 부분적인 자료에 의존하여 기록된 것이어서 전라북도 여성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총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문화예술 활동 및 문화욕구에 대한 적절한 향유 시스템을 사회가 확보하는 것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이는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가 어떤 것이며, 현재 주민들이 그러한 욕구를 어떤 방식으로 충족하고 있는 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적절한 향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라북도는 지역 여성들의 문화적 욕구가 무엇인지에 대한 파악은 물론 실제로 여성 전문예술인들의 활동 상황에 대한 초보적인 자료조차도 정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 일반 여성들의 문화향유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실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여성들의 문화향유 현황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최소한의 지역 여성들의 문화예술 현황은 이해할 수 있게 해주며, 여성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신장시킬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향후 충분한 시간을 들여 지역 여성들의 문화예술 향유 실태에 관한 충분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그것의 첫 시발점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결과와 이 연구를 위해 인터뷰에 응해 준 지역의 전문예술인들의 의견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전라북도 여성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증진시키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더하면서 글을 맺으려 한다.

먼저 여성의 문화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전라북

도민들의 평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5.4%가 여성을 위한 문화시설 공간의 확대와 함께 다양한 여성문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많은 응답자가 여성을 위한 문화시설 확대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전라북도에서 여성의 문화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차원에서 각 시·군 문화회관 및 여성회관 건립을 위해 적극 지원했다고는 있지만 아직도 도민의 요구나 기대 수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반증한다.

그 다음으로 응답자의 20.4%는 여성문화를 이끌어 갈 전문가 양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사실 여성문화 공간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부족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이 요구된다. 그 밖에 여성단체간의 문화교류 지원강화를 강조한 응답자가 12.8%를 차지하였다.

<표 9-25> 여성의 문화활동 참여 활성화 방안 (2002년)

문화활동참여 활성화	성 별	남 성 (N=366)	여 성 (N=969)	합 계 (N=1,335)
여성소집단(단체)간 문화교류 지원강화		14.8	12.1	12.8
여성문화를 이끌어 갈 전문가 양성교육		16.7	21.9	20.4
여성을 위한 문화시설(복지관, 회관) 확대		33.3	32.4	32.7
다양한 여성문화 프로그램 개발 보급		33.1	32.5	32.7
기 타		2.1	1.1	1.4
합 계		100.0	100.0	100.0

이와 함께 본 연구를 위해 인터뷰하게 된 지역의 문화예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그들은 대부분 전라북도 여성들의 문화예술 향유시스템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 여성들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속히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여성들의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을 재생산하거나 여성을 단순히 문화 소비자로서의 역할로 제한하는 문화활동을 넘어서 여성이 문화의 생산자로서 주체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토대이며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일차적으로는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전라북도 여성문화예술과

관련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시급하다. 그리고 이와 함께 여성 문화 전문인력의 육성도 중요하다. 여성 문화전문인력은 여성들의 문화향유를 폭넓게 확장할 수 있는 문화축매자나 매개자, 그리고 여성문화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연구 인력, 또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문화상품 개발 및 문화산업 전문인력, 또 문화행정직 등 다양한 부문의 문화예술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발굴하는 단계에서부터 육성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연결하는 정책적인 의지와 그에 걸맞는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또 여성문화 동아리나 소모임 활동이 적극적으로 활성화 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여성들에 의한 문화예술창조활동이 활발해지도록 육성해야 한다. 지금까지 여성문화동아리나 소모임 활동이 주로 문화의 집이나 문화학교, 백화점, 관공서 등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런 기관에서의 프로그램은 여성을 문화소비자로 규정하고 일반 교양수준의 꽃꽂이나 다도, 스포츠 댄스, 종이접기나 기초수준의 공예 등 대체로 일반 교양활동 수준의 강좌들만을 제공했다.

이러한 프로그램도 기초적인 문화활동을 제공함으로써 많은 여성들이 손쉽게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런 프로그램을 넘어서는 보다 수준 높은 프로그램이 동시에 마련되어 있어야 여성의 문화예술 활동의 수준이 점차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즉 기본적인 기초과정을 중심으로 한 강좌들 외에도 중급, 고급, 그리고 전문가과정으로의 프로그램들이 연계되어 제공된다면 그것을 기반으로 소모임 활동을 지속할 수 있어 여성 자신의 발전은 물론 사회적 활동의 연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예술 향유시설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여성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신장하는 데 매우 필요한 시설이라는 제안도 많았다. 여성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활발히 하는 데 가장 큰 제약요인은 바로 가사와 육아였다. 특히 육아활동은 장시간 여유시간을 갖는 것을 제약하는 가장 큰 요인이었으며, 동시에 문화예술 향유기관에서는 일정한 연령층 이하의 어린이들을 엄마와 같이 입장시키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갖기 때문에 여성들은 자녀가 일정한 연령대로 성장하기 이전에는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삶이 조건지워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

성의 문화예술 활동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기관에서 보육서비스 또는 탁아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한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지금까지 문화관련 사업에서 가장 부진했던 분야가 바로 여성들의 문화시설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 사업이었는데 보다 효과적인 방식으로 보육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재정적 토대를 갖추는 일도 필요하다.

2003년 ‘(사)여성문화예술기획’, ‘문화연대’, ‘미즈엔’, ‘여성신문’,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우먼타임즈’, ‘페미니스트 저널 이프’, ‘또 하나의 문화’ 공동 작성한 ‘새 정부 양성평등 문화정책 제안’에서는 양성평등 문화정책³⁹⁾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추진전략, 추진과제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어서 2004년 문화관광부는 『창의한국』을 발표하였다. 여기서 문화관광부는 5대 기본방향⁴⁰⁾과 여기에 27대 추진과제를 정하였다. 5대 기본과제 중 첫 번째의 “문화참여를 통한 창의성 제고”에 ‘양성평등 문화확립’이 포함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늘의 세계는 창의성과 다양성, 감성과 지성을 비롯한 모든 면에서 여성의 시각과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로 옮겨가고 있다. 여성의 잠재력을 가치 있게 여기는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변화만큼이나 시민과 사회의 의식과 문화의 변화가 중시되어야 한다. 양성평등한 문화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양성평등한 문화정책 기반을 조성하고 양성평등 문화예술 환경 조성, 여성의 문화적 표현 및 향유 확대, 여성 문화 창조지원, 여성문화유산의 발굴계승과 아시아 문화교류의 거점 조성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문화관광부, 2004, 『창의한국』, pp.38-39).

이에 문화관광부는 여성문화 TF를 운영하면서 여성문화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문화정책의 각 영역에 여성관점을 반영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문화여성인력의 양

39) 양성평등 문화정책이란 정부가 문화와 예술의 발전을 위해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특성과 차이를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효과가 양성 간에 형평성과 평등을 가져오도록 하는 성인지적 정책의 한 분야를 말한다

40) 문화참여를 통한 창의성 제고, 문화의 정체성과 창조적 다양성 제고, 문화를 국가발전의 신성장 동력화, 국가균형발전의 문화적 토대 구축, 평화와 번영을 위한 문화교류협력 증진 등을 5대 과제로 정하였다.

성, 활용의 제도화와 함께 효율적인 여성정책 마련, 여성문화 현장과의 연계성 강화 및 부내 각 실국과의 연계체제 구축을 통하여 여성문화 인식확산과 정책적 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발맞추어 전라북도도 여성 전문문화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은 물론 일반여성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체계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여건 불충분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지 못하던 여성들을 공공의 예술문화 활동의 장으로 끌어냄으로서 예술문화 활동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보다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개인의 재능과 관심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것은 문화예술을 전공한 여성의 예술적 재능과 예술적 창조욕구를 현실적으로 표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되기도 할 것이다.

제 10 장

전북지역 보육실태와 지원방안

- 제 1 절 서론
- 제 2 절 연구방법 및 범위
- 제 3 절 전북의 보육 현황
- 제 4 절 맺는말

제 10 장 전북지역 보육실태와 지원방안

이혜숙(한일장신대학교 교수)

제 1 절 서 론

1. 보육과 사회적 변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저 출산 고령화 사회”가 가져올 사회문제의 심각함을 일깨워 강조하면서 이를 극복하는 자구책 마련에 절치부심하고 있다.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의 비율이 사회적 위협 수준으로 높아진 주된 원인을 평균 수명의 연장과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낮은 출산율을 꼽을 수 있겠다. 평균 수명의 연장이 사회발전의 결과물로서 자연적 현상이라면 출산율 저하는 과중한 육아 부담과 취약한 복지제도, 과도한 교육비와 부동산 가격 등의 사회조건으로 인해 아동의 출산과 양육을 기피 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현실이 파생한 결과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는 저 출산 시대의 보육정책과 서비스를 개선하는 일이라 하겠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들은 보육 환경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동시에 새로운 변화와 발전의 필요성과 기대를 창출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사회적 양육의 책임적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포괄적 서비스 기능이 강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이다. 보육 서비스의 역할이 이제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아동보호의 기본육구 충족하는 잔여적이고 선별적인 수준을 극복해야 한다. 아동의 바람직한 발달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질적인 수준이 반드시 확보 되어야 하고 서비스의 범위 역시 아동을 둘러싼 부모, 가정, 지역사회를 포함하여 확대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의 증가와 취약해진 가족 기능에 대한 사회적 양육의 가치와 의미로서, 특히 저 출산 고령화 사회의 주요 대안으로서 능동적인 보육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둘째, 보육 정책 및 행정 전달체계의 개편에 따른 내적 변화를 수용하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보육 여건은 영유아 보육법이 제정된 후 15년 만에 전면적인 법 개정이 단행되었고(2004,1,29) 그 후속 조치로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며(2005,1) 보육의 주관부서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되는 등 ('04,6,2) 큰 변화를 겪고 있다. 보육 정책 및 행정, 전달 체계의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보육서비스의 양성평등 지향적 성격을 그 어느 때 보다 강조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보육서비스가 여성복지의 한 부분에 포함되거나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취급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보육의 변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보육의 본질적 기능을 확대하고 발전시키는 토대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보육사업의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에서 공동부담하고 있지만 지방자치 단체에서 보육 사업에 대한 특수 시책 사업을 실시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부담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과 정책에 따라 보육 서비스의 내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지방 분권화와 사회복지 사업의 지방 이양은 지역의 욕구에 기반 한 지방 보육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할 뿐 아니라 지방의 역량을 요구하고 있다. 전라북도 역시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여 지역여건을 고려한 조례제정과 같은 제도 마련과 바람직한 정책개발과 예산수립 등의 보육 발전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할 시점에서 있다.

2. 보육의 양적 변화와 전북의 보육 여건

여성가족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전국의 보육 시설은 25,319개 시설이며 보육 정원은 1,133,589명, 보육아동은 930,252명, 예산은 13,355억이다. 이는 우리나라 6세 미만 전체 아동 350만 명의 25%에 해당하는 아동이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0-2세 아동 14.4%, 3-5세 33.7%에 해당하는 것이다(여성부, 2005). 1991년 영 유아 보육법이 제정되기 직전인 1990년 말 전국의 보육규모가 1,919개 시설에서 48,000명의 아동을 보육 했던 것과 비교하면 시설규모는 약 13배, 보육 아동은 약 18배 정도가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라북도의 통계에서도 이런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데 1991년에는 전북의 전체 보육시설은 157개소였고 보육 아동은 11,687명이었는데, 2004년 말 에는 1,146개 시설

에서 46,746명 (정원59,453명) 아동을 보육하게 되어 시설 면에서 약 7배, 보육아동과 관련해서는 약 5배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전라북도 내부자료, 2005). 또한 이 규모는 전국 보육 시설의 4.3%, 보육아동 현원의 5.3%를 구성하고 있는 규모에 해당 한다.

전북의 보육 정책 역시 중앙정부의 보육 정책의 변화와 발전을 수용하며 변화하고 있다. 정부는 2004년 보육정책의 향후 전망을 1) 수요자 욕구에 따른 다양한 보육 서비스의 개발, 2)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3) 여성의 경제 활동보장을 위한 실질적 보육기반 구축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성부, 2004, p.33). 또한 영유아보육법은 보육사업의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보육 시설의 설치, 보육 교사의 교육과 훈련, 보육 정보 센터의 설치 및 운영, 보육 위원회구성을 자치 단체의 책임으로 규정 하고 있으며 동시에 지방 자치 단체에 따라 별도로 보육정책 세우고 보육 사업을 지원 하도록 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이러한 정부 정책에 따라 2004년 전북의 보육 정책 목표를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보육 서비스 확충”으로 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 영아, 장애아 전담 보육 수요에 따른 특수 보육의 지속적인 확충 (13개소), 2) 특수 보육서비스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2,811명), 3) 방과 후 아동 보육 사업의 확산 및 보육 프로그램 무상보육 추진 (1,147개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여성부, 2004, p.77).

제 2 절 연구방법 및 범위

연구 방법은 선행연구 및 보고서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고 보육관련 자료 및 통계 자료를 분석하여 재구성하는 방법으로 진행 하였으며 그 내용을 크게 7개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라북도의 보육 수요를 추정하고 분석하였다. 보육 수요에서는 10세 미만의 아동의 인구와 기혼 여성의 취업률에 근거하여 전북의 절대적 보육 수요와 충족율을 시군 별로 분석하였고, 10세 미만 자녀의 주된 양육 방법, 육아부담과 취업의 장애요인을 고찰 하였다.

둘째, 전라북도의 보육 시설 현황을 분석 하였다. 총괄적인 보육시설 설치 현황과 각 유형별 보육 시설의 현황, 각 시.군 별 보육 시설의 현황, 연도별 시설 확충 현

황, 특수 보육시설 실태로 구분하여 그 현황을 살펴 보았다.

셋째,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현황을 분석 하였다.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현황을 전국의 통계치와 비교 하였고, 보육 아동을 지역과 연령에 따라 실태를 파악하고, 보육 아동의 증가 추이, 각 시군 별 보육아동의 현황, 보육료 지원 아동, 특수 보육 아동 등에 대해 비교 하였다.

넷째, 보육 시설 종사자 현황을 분석 하였다. 시설 유형 및 시.군별 종사자 현황, 시설장 및 보육 교사의 자격 소지 등에 대해 고찰 하였다.

다섯째, 보육 예산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실태 분석을 하였다. 보육 예산 총괄, 시군 별 보육 예산 현황, 시설 지원 예산 현황, 시설 개축 및 개보수 예산 현황, 시군 별 아동 지원 예산 현황, 시군 별 보육 시설 용자 예산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비교 하였다.

여섯째, 전라북도 특수보육시책을 타 지방자치 단체와 비교하여 살펴보고 각 시군 별 특수보육시책의 사업 내용과 예산을 탐색하고 문제점을 지적 하였다.

일곱째, 보육 정보 센터 운영 현황, 직장보육시설 및 상해보험 가입 현황, 등을 살펴 보았다.

제 3 절 전북의 보육 현황

1. 보육 수요

보육 수요에 대한 추정은 보편적 보육 수요, 대리적 보육 수요, 기본적 보육 수요로 구분 되는⁴¹⁾ (정 경희, 김 유경, 1977) 각각의 관점에 따라 대상의 적용이 다르며 절대적 보육 수요, 실제적 보육 수요, 희망 보육 수요, 잠재적 보육 수요로 다시 구분하면 그 수요는 또다시 달라진다. 전북의 보육 수요는 보편적 보육수요의 관점에서 입각하여

41) 보육수요에 대한 관점은 보편적 보육 수요, 대리적 보육 수요,, 기본적 보육 수요로 구분 할 수 있는데 관점과 학자에 따라 수요 추정 방법은 다르다. 보편적 보육 수요는 대상 연령층 모두에게 적용하는 것이며, 대리 보육 수요는 취업모의 아동을 보육 수요로 추정한다. 기본 보육 수요는 계층간의 불평등 해소와 관련하여 보육 서비스의 기능을 규정하고 저소득층 취업모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본고에서는 비교적 보편적 보육수요의 관점에서 자료를 검토 하였다.

취학 전 아동과 저학년의 학령기 아동의 인구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전라북도 기혼 여성의 취업률과 취업의 장애요인으로서 아동양육의 영향을 살펴봄으로서 잠재적 보육 수요에 대해 가늠하고자 하였다.

1) 전북의 10세 미만의 아동인구 추이

전북의 10세 미만의 아동 인구는 1994년부터 2001년까지는 꾸준히 증가한다. 1994년의 10세 미만 아동은 285,922명이지만 2001년에는 300,355명에 이른다. 그러나 2002년 이후는 감소되기 시작 하여 2002년 280,081명, 2003년 279,567명, 2004년 257,554명으로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아동 인구변화 관련해서는 전북의 절대 보육수요는 2002년 이후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표 10-1> 10세미만의 아동인구

(단위:명)

구 분	'94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인구수	285,922	288,398	289,777	265,732	293,859	296,197	296,258	300,355	280,081	279,567	257,554

출처 :전북여성통계연보, 2004 에서 발췌하여 재구성

2) 전북의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

전북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1990년대 초부터 중반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최고 수준에 이른다. 1990년 15세 이상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46.1%인데 1996년에 이르면 50.1%로 가장 높은 참여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 추세는 IMF가 시작되는 1997년부터 꺾이기 시작하여 1999년 까지 꾸준히 낮아져 1999년에는 경제 활동 참가율이 47.2%로 낮아진다. 그 후로는 조금씩 감소하거나 증가하고 있지만 50%를 밑돌고 있다. 그러므로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과 관련지어 볼 때 전라북도의 대리적 보육 수요는 1997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으로 바뀌었으며 감소의 정도를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가기도 하여 유동적이라 하겠다.

<표 10-2> 전북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1990-2002)

(단위%,천명)

구분	전국참가율		전국경제활동 여성비율	전북 남자참가율	전북여자		
	남자	여자			15세이상	활동인구	참가율
1990	74.0	47.0	40.4	65.3	774	357	46.1
1991	74.9	47.3	40.3	65.3	774	349	45.1
1992	75.5	47.3	40.1	66.2	774	356	46.0
1993	76.0	47.2	40.0	68.5	755	358	47.4
1994	76.4	47.9	40.1	70.1	751	371	49.4
1995	76.5	48.3	40.2	69.6	748	374	50.0
1996	76.6	48.7	40.4	69.4	764	383	50.1
1997	76.1	49.5	40.9	69.5	769	380	49.4
1998	75.6	47.0	39.9	72.0	772	358	46.4
1999	75.2	47.4	40.4	70.7	774	361	46.6
2000	74.4	48.3	41.0	69.9	774	365	47.2
2001	74.2	49.2	41.4	70.5	776	377	48.6
2001	74.8	49.7	41.4	70.0	770	369	47.9

주) : 1) 경제활동 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 15세이상인구 x 100

2) 경제활동인구 여성비율 = 여성경제활동인구 / 총경제활동인구 x 100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연보」, 각 년도

전라북도, 전북여성통계연보,2004

3) 0-5세 미만의 아동 인구와 수탁 율 추이

(1) 전국의 수탁 율

1990년에서 2003년 기간에 전국의 취업여성의 5세 이하 자녀의 보육시설 수탁률은 다음 (표3)과 같다. 전국의 0-5세 아동의 인구는 1990년 3,870,483명이지만 2003년 에는 3,598,194명으로 감소하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에 전국의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율은 41.3%에서 43.7%로 약간 증가하고 있다. 이들 취업모의 자녀수는 1990년에는 1,598,509명인데 2003년에는 1,572,411명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수탁율은 1990년에는 3.0% 2003년에는 54.6%로 크게 증가 하였다. 따라서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실제 적 보육 수요는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 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표 10-3> 취업여성 자녀의 수탁율 추정치 (전국)

(단위 : 명, %, 개소)

연도	0-5세아동수 (A)	25-34세기혼여성 경제활동(B)	25-34세취업모 의0-5세자녀수(AxB)	보육시설수	원아수(C)	수탁률 (C/AxB)x100
1990	3,870,483	41.3	1,598,509	1,919	48,000	3.0
1992	3,945,711	40.7	1,605,904	4,513	123,297	7.7
1993	4,030,683	39.8	1,604,212	5,490	153,105	9.5
1994	4,115,854	39.8	1,638,110	6,975	219,308	13.4
1995	4,192,911	40.0	1,677,164	9,085	293,747	17.5
1996	4,237,522	41.6	1,762,809	12,098	403,001	22.9
1997	4,231,289	43.5	1,857,536	15,375	520,959	28.0
1998	4,171,905	40.9	1,706,309	17,605	556,957	32.6
1999	4,066,423	41.1	1,671,300	18,768	640,915	38.3
2000	3,969,179	42.4	1,682,932	19,276	686,000	40.8
2001	3,854,184	42.9	1,653,445	20,097	734,192	44.4
2002	3,720,013	43.9	1,653,086	22,147	800,991	49.0
2003	3,598,194	43.7	1,572,411	24,142	858,345	54.6

주 : 취업모의 0-5세 자녀수는 0-5세 전체 아동수에 1992년도 전국 25-34세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곱한 것임.

자료 : 1)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1)

2)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990,1992-2002)

3) 한국보육시설연합회(2004)

(2) 전라북도의 수탁 율

비슷한 시기에 전라북도의 취업 여성 자녀의 수탁률을 살펴보면 다음(표4)과 같다. 1995년부터 2004년 기간동안 수탁율은 2002년을 제외하고는 일관되게 증가하는데 1995년 수탁율이 34%, 2000년 90%, 2004년 120%에 이르게 된다. 즉 이 기간동안에 보육시설이 양적으로 크게 확대 되면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한 현상이 발생 한 것이다. 특히 2003년 전국과 전북의 수탁비율이 54.6 : 120 임을 비교 해 볼 때 전라북도에서 수요 초과 현상이 매우 현저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보육시설의 난립, 정원 미달, 운영 난, 보육 수준의 질적 저하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표 10-4> 전북 취업여성자녀 수탁율 추정치(1990-2005년 현재)

(단위 : 명)

구분	0-5세 인구수	보육수요	보육아동수	수탁률(%)
1995	157,984	39,496	13,417	34
1996	162,360	40,590	17,994	44
1998	162,714	40,679	29,358	72
1999	161,643	40,411	32,324	80
2000	158,338	39,585	35,601	90
2001	156,315	39,079	37,918	97
2002	140,676	44,654	41,840	94
2003	138,268	43,693	44,172	101
2004	123,423	39,002	46,746	120

* 보육수요“95-2001까지는 보육인구의 25%를 보육수요로 추정

(한국행동과학연구소 용역결과)

* 보육아동수 :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수

* 수탁률 : 보육수요에 대한 보육아동 비율

자료 : 전라북도노인아동과 내부자료,2005

(3) 각 시군별 보육수요, 충족율, 추가보육 수요

보육수요와 충족율은 전라북도 안에서도 각 시.군에 따라 차이를 나타나고 있다. 2004년 전라북도의 보육 수요 충족률에 대한 연구 (전라북도 여성 발전연구원, 2004)에 따르면 수요를 초과하는 지역은 임실군(107.8), 순창군(105.4), 전주시 (100.6)등이며 완주군(98.6)과 군산시(90.9)는 보육 수요에 거의 도달하고 있다.⁴²⁾ 아직도 보육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은 장수군(52.5), 정읍시 (53.4), 무주군 (63.8), 진안군 (69.3)이다.

42) 보육수요와 충족율, 수탁율에 대한 수치는 계산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다. 따라서 (표4)의 수탁율 추정치와 (표 5)의 수요와 수탁율 추정치는 계산 방식과 자료의 차이로 인해 해석이 다를 수 있음을 밝혀 둔다.

<표 10-5> 전라북도 시도별 보육수요, 충족율, 추가 보육수요

구분	0-5세아동 수 (A)	보육시설이용 아동수(B)	보육율 C =B/A x100	보육수요율 (D)	보육수요 아동수 E=AxD	보육수요 충족율 F=B/Ex100	추가보육 요구아동수 G=E-B
전북전체	138,268	42,422	30.6	34.8	48,117	88.1	5,695
전주시	46,115	16,153	35.0	34.8	16,048	100.6	-105
군산시	19,508	6,172	31.6	34.8	6,788	90.9	616
익산시	23,763	7,201	30.3	34.8	8,269	87.1	1,068
정읍시	13,197	2,451	18.5	34.8	4,592	53.4	2,141
남원시	7,285	2,111	28.9	34.8	2,535	83.3	424
김제시	6,465	2,003	31.0	34.8	2,249	89.1	246
완주군	6,159	2,114	34.3	34.8	2,143	98.6	29
진안군	1,734	415	24.1	34.8	599	69.3	184
무주군	1,375	305	22.1	34.8	478	63.8	173
장수군	2,250	411	18.3	34.8	783	52.5	372
임실군	1,621	608	37.5	34.8	564	1007.8	-44
순창군	1,573	577	36.7	34.8	547	105.4	-30
고창군	3,826	983	25.7	34.8	1,331	73.9	348
부안군	3,407	918	26.9	34.8	1,185	77.5	267

자료 : 전라북도 여성발전연구원, 「취업모의 가족지원을 위한 보육욕구및 보육기관실태조사연구」 p.48.에서 재인용

주 : 보육수요율34.8%는 97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서 산출한 수치이고, 2002년 3.6일 보육사업 활성화방안에서 제시한 수치임.

4) 10세 이하 자녀의 주된 양육방법 (전국 대비, 전북)

전국의 10세 이하의 자녀 양육 실태는 다음(표6)과 같다. 1995년을 살펴보면 취업한 어머니의 자녀의 양육 방법에서 부모 양육인 경우는 27.5%인데 비해 가사에 종사하는 어머니는 부모양육이 69.9%를 보여 큰 차이를 나타나고 있다 (전북여성 통계연보, 2004). 타인 양육의 형태는 유치원이나 예체능 학원이 27.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가족 및 친인척 24.0%, 유아원이나 선교원 9.7%, 보육 시설인 놀이방과 어린이 집은 8.0%에 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02년에는 이러한 양상이 크게 바뀐다. 우선 취업한 어머니와 가사에 전담하는 어머니의 부모 집 양육은 각각 34.6%, 52.0% 로서 가사에 전담하는 어머니는 부모양육은 감소하였고 취업한 어머니의 경우에는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전라북도의 경우에 부모의 자기 집 양육비율은 전국에 비

해 높은 편이다. 특히 1세 미만의 자녀의 경우 부모 양육이 전국 86,4%에 비해 97,5%를 보여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10-6> 10세 이하 자녀의 주된 양육 방법

(단위 : %)

구분	자녀	자녀의 부모	가족, 친인척	파출부, 가정부, 이웃사람	유치원	보육시설	학원	집에 그대로둠	기타
전국전체	100.0	62.6	11.9	0.7	4.3	6.3	11.2	2.8	0.1
자녀연령									
1세미만	100.0	86.4	11.0	0.9	0.2	1.5	-	-	-
1-3세	100.0	70.5	15.4	1.2	2.5	9.3	0.8	0.2	0.1
4-6세	100.0	57.7	11.0	0.4	11.0	11.1	7.5	1.3	0.1
7-10세	100.0	56.7	10.4	0.7	1.0	1.2	23.7	6.4	0.0
전북전체	100.0	61.3	11.2	0.3	7.0	7.7	9.6	2.9	-
자녀연령									
1세미만	100.0	97.5	2.5	-	-	-	-	-	-
1-3세	100.0	78.2	12.2	1.0	3.4	5.2	-	-	-
4-6세	100.0	47.3	11.2	-	17.2	16.8	3.7	4.0	-
7-10세	100.0	55.1	12.3	-	1.8	2.8	23.3	4.6	-

출처 :전북여성통계연보, 2004에서 재구성

5)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아동 양육의 부담비율

한편 전북 여성들이 육아 및 가사부담으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를 살펴보면 2002년의 경우 육아부담 36.8%와 가사부담 10.3%를 나타내고 있다. 전국의 여성들의 38.8%의 육아 부담, 8.9%의 가사부담 비율과 비교 할 때 전북 여성은 육아 부담은 전국보다 적게 느끼고 있지만 가사부담은 오히려 크게 느끼고 있다. 이것은 전라북도가 대도시 지역에 비해 육아에 대한 지지 자원인 확대 가족과 친 인척의 도움이 용이한 편이지만 성 역할을 좀 더 보수적인 특성이 반영한 것이라 판단된다. 그런데 주목 할만한 사항은 육아에 대한 부담의 정도가 1998년에는 29.8%인데 2002년에는 38,4%로 증가하고 있어서 전라북도의 기혼 여성 역시 육아 부담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 10-7> 여성 취업의 장애요인 (육아 및 가사)

(단위 : %)

구분	육아부담	가사부담
1998		
전국	29.3	10.6
여	31.4	10.8
남	27.1	10.4
전북	26.5	13.3
여	29.8	13.6
남	22.9	13.1
2002		
전국	38.8	8.9
여	41.1	9.2
남	36.3	8.6
전북	36.8	10.3
여	38.4	11.5
남	34.9	9.0

2 . 전라북도 보육 시설 현황

전라북도의 보육 시설 현황은 전국대비 보육시설 설치 현황, 각 시군 별 보육 시설 현황, 보육 시설 확충 현황, 용자 보육 시설 현황, 특수 보육 시설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보육 시설 현황

2004년 말 기준 전국의 보육시설은 26,903개 시설이며 이 시설이 수용 할 수 있는 보육 아동의 정원은 1,133,589명이다. 이를 다시 시설 유형별로 분류 하면 어린이집이 16,327개 시설에 보육 정원이 955,230명이며, 놀이방은 10,576개 시설에 보육 정원은 178,359명으로 집계 되어 있다.

같은 기간에 전라북도의 전체 보육시설은 1,146개 시설이며 보육아동 정원은 59,453명이다. 시설에 따라 분류 해 보면 어린이집이 687개 시설에 보육아동 정원은 51,589명이고 놀이방은 459개 시설에 보육 아동 정원은 7,964명이다. 이러한 전라북도의 보육 규모는 전국 보육 시설 수의 4.3%, 전국 보육 아동 정원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 신규로 설치된 시설은 84개 시설이며 폐지나 휴지된 시설은 35개 시설로 나타나 현재도 보육 시설은 증가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8> 전북의 보육시설현황 (전국 대비)

(단위:개소,명)

구분	전반기말 현재	설치		폐쇄		현반기말 현재	
		신규	전입(정원증 원포함)	폐지, 휴지	전출(정원감 원포함)		
전국(계)	시설수	25,319	2,489	-	905	-	26,903
	보육정원	1,066,728	70,847	18,975	20,070	2,891	1,133,589
어린이집	시설수	15,723	863	-	259	-	16,327
	보육정원	906,445	42,828	17,392	9,374	2,061	955,230
놀이방	시설수	9,596	1,626	-	646	-	10,576
	보육정원	160,283	28,019	1,583	10,696	830	178,359
전북(계)	시설수	1,067	84	-	35	-	1,146
	보육정원	56,629	2,551	1,089	813	3	59,453
어린이집	시설수	660	34	-	7	-	687
	보육정원	49,158	1,788	1,003	357	3	51,589
놀이방	시설수	437	50	-	28	-	459
	보육정원	7,471	763	86	456	-	7,964

출처 : 여성부 보육기획과 자료를 재구성함 (2004.12.31)

2) 보육시설의 연도별 운영 설치 현황

(1) 전국의 보육시설 설치 현황

1990년부터 2004년 까지 전국의 보육 시설 설치 현황은 다음 (표9)과 같다. 1900년 전체 보육시설은 1,919개소가 설치되었고 보육 시설 확충 3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1995년에는 9,085개소, 그 계획이 마무리 되는 1997년에는 15,375개소, 2000년에는 19,276개소 2004년에는 26,903개소가 설치되었다. 이는 1990년을 기준으로 약 14배의 증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표 10-9> 전국의 보육시설 연도별 설치운영 현황

(단위: 개소)

구분	계	국.공립	민간				직장	가정 (놀이방)
			소계	법인	법인외	개인		
1990	1,919	360	39	미분류			20	1,500
1991	3,690	503	1,237	미분류			19	1,931
1992	4,513	720	1,808	425	14	1,369	28	1,957
1993	5,490	837	2,419	624	19	1,776	29	2,205
1994	6,975	983	3,091	807	17	2,267	37	2,864
1995	9,085	1,029	4,125	928	33	3,175	87	3,844
1996	12,098	1,079	6,037	1,280	69	4,688	117	4,865
1997	15,375	1,158	8,172	1,634	150	6,388	158	5,887
1998	17,605	1,258	9,622	1,927	227	7,468	184	6,541
1999	18,768	1,300	10,558	1,965	266	8,327	207	6,703
2000	19,276	1,295	11,304	2,010	324	8,970	204	6,473
2001	20,097	1,306	11,794	1,991	313	9,490	196	6,801
2002	22,147	1,330	12,679	1,633	575	10,471	199	7,939
2003	24,142	1,329	13,644	1,632	787	11,225	236	8,933
2004	26,903	1,349	14,728	1,537	966	12,255	243	10,583

출처 : 여성부 보육기획과 (2004.12.31)

(2) 전라북도의 연도별 보육 시설 설치 현황

전라북도의 연도별 보육 시설 설치는 1991년, 1995년, 1997년, 2000년 2004년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전라북도의 보육 시설은 영유아 보육법이 제정되던 1991년 157개 시설이었으나 보육 시설 확충 3개년 계획이 실시되는 1995년에는 269개소가 설치되었고 3년 후인 1997년에는 438개 시설, 2000년에는 787개 시설, 2004년에는 1,146개 시설이 설치된다. 1991년을 기준으로 2004년의 시설설치 규모는 약 7배 정도가 증가 된 것이다.

<표 10-10> 전라북도 시. 군별 시설 설치현황

(단위: 개소)

연도 시군별	1995	1997	2000	2004
합계	269	438	787	1,146
전주시	72	145	323	462
군산시	48	78	105	163
익산시	64	81	151	222
정읍시	15	25	41	74
남원시	15	21	32	52
김제시	13	22	33	40
완주군	10	16	26	42
진안군	5	6	7	7
무주군	4	6	6	6
장수군	4	6	6	8
임실군	4	6	10	11
순창군	5	5	11	12
고창군	4	9	16	22
부안군	6	12	20	25

출처 : 전라북도, 노인가동과 내부자료 (2004, 12, 31)

2004년을 기준으로 전라북도의 전체 보육 시설의 지역 별 분포 현황을 분류해 보면 전주시 462개소, 익산시 222개소, 군산시 163개소으로 3개시를 합한 시설수가 847개소서 전라북도 전체의 약 7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정읍시 74개소, 남원시 52개소, 김제시 40개소인데 이를 포함하면 결과적으로 전라북도 전체의 약 88.3%에 해당하는 1,013개 시설이 시 지역에 설치된 셈이다. 이에 비해 농어촌 지역이라 할 수 있는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지역을 모두 합한 보육 시설은 44개소에 그치고 있어서 전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라북도에서도 보육시설이 도시 지역에 집중하여 설치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3) 설립주체에 따른 지역별 보육시설 설치 현황

2004년을 기준으로 전라북도의 보육 시설 설치 현황을 지역, 시설유형에 따라 구분해 보면 다음 (표11)과 같다.

설립 주체에 따라 보육 시설 유형을 구분해 보면 국공립 보육시설은 모두 34개 시설, 법인 보육시설 187개 시설, 종교 부설 보육시설 56개 시설, 복지관 부설 6개시설로서 전체의 24%에 해당하는 283개 시설이 정부로부터 시설 운영비를 지원받는 공공보육 시설에 해당한다. 그리고 개인이 운영하는 보육 시설은 400개 시설이며 놀이방 형태의 가정 보육시설은 459개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이를 다시 정리 해 보면 정부의 공공비용 이 지원되는 공보육 성격의 국공립, 법인, 등의 보육 시설은 283개 (24.6%) 시설이며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859개(74.9%) 시설이다. 이는 전국과 마찬가지로 전라북도 역시 보육 사업이 민간 개인에 의존하는 시장원리의 소극적 보육서비스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표 10-11> 전북의 시군별 보육시설 설치, 운영현황

(단위: 개소)

구분	합계	공공보육시설					사보육시설			직장
		소계	국공립	법인, 법인외	종교 부설	복지관 부설	소계	개인	가정	
	1,146	283	34	187	56	6	859	400	459	4
전주시	462	66	4	53	7	2	394	184	210	2
군산시	163	36	7	20	9	-	127	61	66	
익산시	222	52	7	38	7	-	169	57	112	1
정읍시	74	22	3	15	3	1	52	31	21	
남원시	52	21	1	11	7	2	31	14	17	
김제시	40	19	3	11	4	1	21	8	13	
완주군	42	22	2	13	7	-	19	14	5	1
진안군	7	7	2	5			-		-	
무주군	6	5	2	3			1		1	
장수군	8	5	1	4			3	2	1	
임실군	11	8	-	4	4	-	3	1	2	
순창군	12	6	1	2	3		6	5	1	
고창군	22	10	1	5	4		12	7	5	-
부안군	25	4	-	3	1		21	16	5	

출처 : 전라북도, 노인가동과 내부자료 (2004,12월,31)

4) 시설 확충 현황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라북도 역시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래 보육 시설은 괄목 할 정도로 증가한 것이 사실이다. 보육시설 증가는 1) 정부에서 법인 형태의 시설에 시설 신축 비나 설치비를 지원한 국고 지원시설과 2) 국민 연금 기금을 보육 시설 설치자에게 융자한 융자 보육 시설 확충이 보육 시설 증가에 크게 기여 했다고 평가 한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방법에 의한 전라북도내의 보육시설 확충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1)국고지원 시설 확충 현황 (1995-2004)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전라북도에 새로 설치된 국고지원 시설 현황은 다음 (표12) 과 같다. 이 기간에 전라북도에는 170개의 국고 지원시설이 설치되었는데 이를 시설 유형 별로 구분 해 보면 흔히 일반어린이집에 지칭되는 영유아 보육 시설 66개소, 영아전담 시설 15개소, 장애아 전담 시설 4개소, 복지관 부설 시설 6개소, 종교부설 시설 79개소이다. 지역별로는 전주시에 47개 시설, 군산시에 24개 시설, 익산시 21개 시설, 정읍시 12개 시설, 남원시 15개 시설, 김제시 10개 시설, 완주군 12개 시설, 진안군 2개 시설, 무주군 5개 시설, 장수군 3개 시설, 임실군 5개 시설, 순창군 6개 시설, 고창군 7개 시설, 부안군 1개 시설이 각각 설치되었다.

<표 10-12> 전북 국고지원시설 확충 현황(1995-2004)

(단위: 개소)

시군별	계	국고지원시설확충				종교법인시설	비고
		영유아 시설신축	영아 전담신축	장애아 전담신축	복지관 부설신축	종교부설신축	
계	170	66	15	4	6	79	
전주시	47	20	9	1	2	15	
군산시	24	8	1	1	-	24	
익산시	21	11		1	-	9	
정읍시	12	5			1	6	
남원시	15	4	2		2	7	
김제시	10	4		1	1	4	
완주군	12	3	2			7	
진안군	2	1				1	
무주군	5	3				2	
장수군	3	3					
임실군	5	1				4	
순창군	6	1				5	
고창군	7	2	1			4	
부안군	1	-				1	

출처 : 전라북도, 노인가동과 내부자료 (2004,12월,31)

(2) 용자보육 시설 확충 현황

전라북도에서 국민연금 기금에서 용자받아 설치한 보육시설은 모두 121개 시설이다. 이 중에서 시설 신축비를 용자받아 건축하여 보육시설을 설치한 경우는 68개 시설, 설치비 용자를 통해 설치한 시설은 41개 시설, 기능 보강비를 용자받은 시설은 12개 시설이다. 지역별 확충 현황을 살펴보면 전주시에 61개 시설, 군산시 25개 시설, 익산시 21개 시설, 정읍시와 고창군에 각각 3개, 김제와 완주에 각각 2개 시설 남원시, 장수군, 순창군, 부안군에 각각 1개 시설이 설치되었다.

<표 10-13> 응자보육시설 확충현황(1995-2004)

(단위 : 개소)

시군별	계	신축	설치비	기능보강	비고
계	121	68	41	12	
전주시	61	33	25	3	
군산시	25	7	13	5	
익산시	21	19		2	
정읍시	3	1		2	
남원시	1	1		7	
김제시	2	1	1		
완주군	2	2			
진안군	-				
무주군	-				
장수군	1	1			
임실군	-				
순창군	1	1			
고창군	3	1	2		
부안군	1	1			

출처 : 전라북도, 노인아동과 내부자료 (2004,12월,31)

5) 특수보육 시설 현황

전라북도에서 영아, 장애 아동, 학령기 아동 등의 특수 대상과 주말이나 휴일, 야간 시간에 보육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보육의 특정 욕구를 수용하기 위해 설치된 특수 보육 시설의 설치 현황은 다음 (표14)과 같다. 영아전담 보육 시설은 도내에 모두 34개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법인 시설 12개소, 법인 외 시설 1개소, 개인 시설 21개소로 나뉘어 설치 되어있다. 또한 장애아 전담 보육 시설은 모두 5개소가 있는데 법인 시설 4개, 개인 시설 1개소에 설치되어 있다.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역시 법인 시설 4개, 개인 시설 1개소로 모두 5개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방과 후 전담 시설은 22개 시설로서 개인 보육 시설에 18개소, 가정 보육 시설에 4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한편 방과 후 통합 시설은 모두 96개 시설이며 국공립 1개소, 법인 25개소, 법인 외 12개소, 개인 57개

소, 놀이방 1개소에 설치되어 있다.

시간 연장 형 보육 시설은 9개소가 있는데 법인 시설에 5개소, 법인 외 시설에 4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휴일 형 보육 시설은 법인시설에 1개소 설치되어 있다.

<표 10-14> 특수보육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국공립	민간				직장	놀이방	
			소계	법인	법인의외	개인			
영아전담	전국	929	51	481	105	142	234	-	397
	전북	34	-	34	12	1	21	-	
장애전담	전국	103	16	84	48	16	20	-	3
	전북	5	-	5	4	-	1	-	
장애아 통합	전국	229	107	118	37	10	71	1	3
	전북	5	-	5	4	-	1	-	
방과후 전담	전국	259	13	219	50	99	70	-	27
	전북	22	-	18	-	-	18	-	4
방과후 통합	전국	1,200	98	1,013	140	53	820	1	88
	전북	96	1	94	25	12	57	-	1
시간 연장형	전국	715	113	439	85	21	333	1	162
	전북	9	-	9	5	4	-	-	-
휴일형	전국	60	7	41	14	2	25	-	12
	전북	1	-	1	1	-	-	-	-

출처: 여성부 보육 지원과 자료를 재구성함

3. 보육 아동 현황

보육 아동의 현황은 시설 유형, 연령, 지역에 따라 보육아동의 현황과 증가 추이를 살펴보고, 지원아동, 특수 보육 시설 아동, 장애아동 등의 현황을 정리하였다.

1) 전북의 연령 및 지역별 보육 아동 현황

우선 전국의 보육 아동을 지역과 연령에 따라 구분해서 살펴보면 <표 10-15>와 같다.

2004년 말 현재 전국의 보육 아동 현원은 930,252명(정원1,133,589명)이다. 연령 별로

구분해 보면 0세 아동이 21,445명이고 1세는 73,686명, 2세 167,785명, 3세 230,516명, 4세 213,679명, 5세 183,917명, 5세 이상 39,224명이다. 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대도시 지역아동 380,843명, 중소도시 357,021명, 농어촌 192,388명이다.

<표 10-15> 전국의 지역 및 연령별 보육 아동 현황

(단위:명)

구분	계	국공립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	가정 보육시설	
			법인	법인외	개인			
총 계	계	1,133,589	113,620	155,183	54,294	617,442	14,666	178,384
	2세미만	138,424	11,855	15,070	8,963	61,047	1,579	39,910
	만2세	230,220	19,784	25,797	13,188	114,615	2,876	53,960
	3-만5세	727,190	78,113	109,356	30,437	417,606	10,054	81,624
	만5세이상	37,755	3,868	4,960	1,706	24,174	157	2,890
대 도 시	계	465,421	67,666	48,018	16,252	256,225	6,887	70,373
	2세미만	65,447	7,808	5,261	3,192	29,792	894	18,500
	만2세	100,414	12,216	8,103	4,214	51,333	1,479	23,069
	3-만5세	280,625	44,413	32,726	7,981	163,708	4,402	27,395
	만5세이상	18,935	3,229	1,928	865	11,392	112	1,409
중 소 도 시	계	437,682	30,000	48,545	17,666	250,888	5,492	85,091
	2세미만	50,899	2,773	4,838	3,121	22,741	494	16,932
	만2세	88,664	4,923	8,268	4,571	45,974	990	23,938
	3-만5세	286,329	21,934	34,263	9,373	173,910	3,968	42,881
	만5세이상	11,790	370	1,176	601	8,263	40	1,340
농 어 촌	계	230,486	15,954	58,620	20,376	110,329	2,287	22,920
	2세미만	22,078	1,274	4,971	2,650	8,514	191	4,478
	만2세	41,142	2,645	9,426	4,403	17,308	407	6,953
	3-만5세	160,236	11,766	42,367	13,083	79,988	1,684	11,348
	만5세이상	7,030	269	1,856	240	4,519	5	141

출처: 여성부 보육 지원과 자료를 재구성함

또한 전북의 보육아동 현황을 지역과 연령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16)과 같다. 2004년 전북의 보육 아동은 전체 46,746명이다. 연령별로 구분해 보면 0세 1,047명, 1세 3,211명, 2세 7,010명, 3세 11,097명, 4세 10,303명, 5세 11,787명, 만 5세 이상 2,291명이다.

지역별 분포는 중소도시에 34,081명, 농어촌 지역에 12,665명이다. 전북의 경우 광역시가 없기 때문에 대도시 지역의 보육 아동은 통계에 들어가지 않지만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 보육 아동 비율은 전체적으로 비교할 때 높은 편이다.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공립보육시설에 2,363명, 법인보육시설 13,418명, 법인 외 보육 시설 4,131명, 개인 보육시설 22,235명, 직장 보육시설 205명, 가정 보육시설 4,394명이 구성 되어 있다.

<표 10-16> 전북의 지역 및 연령별 보육아동 현황

(단위:명)

구분	계	국.공립	민간			직장	가정 (놀이방)	
			법인	법인외	개인			
전북 계	계	46,746	2,363	13,418	4,131	22,235	205	4,394
	0세	1,047	12	119	98	210	2	606
	만1세	3,211	110	700	367	795	9	1,230
	만2세	7,010	318	1,773	754	2,653	26	1,476
	만3세	11,097	601	3,016	789	6,021	54	615
	만4세	10,303	595	3,357	894	5,181	51	215
	만5세	11,787	705	3,764	947	6,150	63	158
	만5세이상	2,291	22	679	282	1,215	-	93
중 소 도 시	계	34,081	1,529	6,821	2,346	19,103	199	4,083
	0세	962	8	94	83	188	2	587
	만1세	2,527	67	368	219	679	9	1,185
	만2세	5,308	198	907	504	2,275	23	1,401
	만3세	8,381	415	1,547	414	5,405	51	549
	만4세	7,258	405	1,716	448	4,460	51	178
	만5세	8,194	428	1,737	491	5,364	63	111
	만5세이상	1,451	8	452	187	732	-	72
농 어 촌	계	12,665	834	6,597	1,785	3,132	6	311
	0세	85	4	25	15	22	-	19
	만1세	684	43	332	148	116	-	45
	만2세	1,702	120	866	250	388	3	75
	만3세	2,716	186	1,469	375	616	3	67
	만4세	3,045	190	1,651	446	721	-	37
	만5세	3,593	277	2,027	456	786	-	47
	만5세이상	840	14	227	95	483	-	21

출처 : 여성부 보육기획과 (2004. 12. 31 현재)

2) 연도별 보육 아동 현황 (전국대비)

1990년 전국의 보육 아동이 48,000명에서 2004년에는 930,252명이 되어 약 19.3배

정도가 증가 되었다. 시설 유형 별로 살펴보면 국공립 보육 시설은 25,000명에서 107,335명으로 증가 되었고 민간 보육 시설은 1,500명에서 691,343명으로 크게 증가 되었다. 그 중에서도 민간 개인이 운영하는 보육 시설은 1992년 25,769명에서 2004년에는 507,398명으로 증가하여 이용 아동수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직장 보육 시설은 1,500명에서 11,787명으로 가장 적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가정 보육 시설은 20,000명에서 119,787명으로 증가 되었다.

<표 10-17> 전국의 연도별 보육아동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국.공립	민간				직장	가정 (놀이방)
			소계	법인	법인의외	개인		
1990	48,000	25,000	1,500	미분류			1,500	20,000
1991	89,441	37,017	36,099	미분류			712	15,613
1992	123,297	49,529	57,797	31,243	785	25,769	768	15,203
1993	153,270	55,133	80,400	44,026	854	35,520	725	17,012
1994	219,308	70,937	119,968	63,466	759	55,743	976	27,427
1995	293,747	78,831	170,412	77,187	591	92,634	2,388	42,116
1996	403,001	85,121	255,844	99,119	2,735	153,990	3,596	58,440
1997	520,959	89,002	358,245	123,567	6,727	227,951	5,245	68,467
1998	556,957	91,260	400,906	141,616	9,290	250,000	5,823	58,968
1999	640,915	99,866	466,477	151,652	13,195	301,630	7,278	67,294
2000	686,000	99,666	510,567	157,993	15,949	336,625	7,807	67,960
2001	734,192	102,118	546,946	161,419	16,483	369,044	7,881	77,247
2002	800,991	103,351	597,971	142,035	30,289	425,647	8,730	90,939
2003	858,345	103,474	640,545	140,994	37,911	461,640	10,391	103,935
2004	930,252	107,335	691,343	135,531	48,414	507,398	11,787	119,787

출처 : 여성부 보육지원과 (2004. 12. 31 현재)

전북의 경우에는 1991년에 157개 보육시설에서 11,687명의 아동을 보육 하였는데 2004년 말에는 46,746명으로 증가 하였다. 보육 아동은 보육시설보다 증가 폭이 약간

낮은 편이다. 1995년, 1997, 2000년, 2004년을 기준으로 각 시군 보육 아동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5년에는 전라북도 전체 보육 아동이 13,417명, 1997년에는 21,801명, 2000년에는 35,601명, 2004년에는 46,746명이다. 이 기간 동안에 5배 정도의 증가를 보이는 지역은 전주시 (3,630명에서 17,919명), 고창군 (181명에서 1,145명), 부안군 (159명에서 1,090명) 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주시의 보육 아동은 17,919명, 군산시 6,571명, 익산시 7,498명, 정읍시 3,32명, 남원시 2,279명, 김제시 2,147명이다. 군부 지역을 살펴보면 완주군 2,497명, 진안군 440명, 무주군 376명, 장수군 517명, 임실군 632명, 순창군 603명, 고창군 1,145명, 부안군 1,090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다.

<표 10-18> 전라북도의 연도별 보육아동 현황 (시군별)

(단위:명)

연도 시군별	1995	1997	2000	2004
합계	13,417	21,801	35,601	46,746
전주시	3,630	6,623	13,411	17,919
군산시	2,383	3,542	4,709	6,571
익산시	2,991	4,423	6,377	7,498
정읍시	840	1,479	2,045	3,032
남원시	659	1,093	1,628	2,279
김제시	816	1,193	1,825	2,147
완주군	652	1,036	1,660	2,497
진안군	296	370	427	440
무주군	122	281	345	376
장수군	205	313	446	517
임실군	263	404	694	632
순창군	220	250	519	603
고창군	181	436	858	1,145
부안군	159	358	657	1,090

출처: 전라북도, 노인 아동과 내부자료 (2004. 12. 31 현재)

3) 시설 유형별 보육 아동 현황

2004년 기준 전라북도의 시설 유형에 따라 보육 아동현황을 분류 해보면 다음 (표 19)와 같다. 우선 공공 보육 시설에는 19,912명의 아동이 이용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면 정부지원시설인 국공립 보육 시설에 2,363명, 법인 및 법인 외 보육 시설에 13,811명, 종교부설 보육 시설에 3,265명, 복지관 부설에는 473명이 속해 있다. 비 지원 보육 시설은 26,229명이 아동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개인 보육 시설에 22,235명, 놀이방에 4,394명이 소속되어 있다. 그리고 직장 보육 시설에는 205명의 아동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표 10-19> 시설 유형별 보육아동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공공보육시설					사보육시설			직장
		소계	국공립	법인, 법인외	종교 부설	복지관 부설	소계	개인	가정	
계	46,746	19,912	2,363	13,811	3,265	473	26,229	22,235	4,394	205
전주시	17,919	4,726	405	3,695	404	222	13,077	10,910	2,167	116
군산시	6,571	2,821	457	1,710	654		3,750	3,198	552	
익산시	7,498	3,324	520	2,365	439		4,091	3,148	943	83
정읍시	3,032	1,631	152	1,180	204	95	1,401	1,198	203	
남원시	2,279	1,252	61	759	354	78	1,027	860	167	
김제시	2,147	1,550	191	1,046	235	78	597	496	101	
완주군	2,497	1,538	155	1,057	326		953	907	46	6
진안군	440	440	127	313						
무주군	376	366	102	264			10		10	
장수군	517	450	99	351			67	57	10	
임실군	632	536	-	266	270		96	59	37	
순창군	603	375	49	176	150		228	228		
고창군	1,145	663	45	442	176		482	406	76	
부안군	1,090	240		187	53		850	768	82	

자료: 전라북도 노인아동과 내부자료 (2004,12,31현재)

4) 보육시설 아동의 정, 현원 현황

보육관련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보육 시설은 정원에 미달하고 있었다. 이러한 원인은 시설이 과잉 공급되었거나 아동과 부모의 욕구를 하지 못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부족, 보육의 질적 수준에서 찾아 볼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출산율이 저하되어 아동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원인이 어떻든지 보육 시설이 아동의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것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가져 올 것이고 이것은 서비스 질의 하락, 보육의 부실운영 등의 부작용이 우려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 된다 하겠다.

우선 전국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보육 시설 전체 정원은 1,133,589명이며 현원은 930,252명으로 정원의 82%를 충족하고 고 있다. 전라북도는 전체 보육정원이 59,453명인데 현원은 46,746명으로 정원의 79%를 충족하고 있어 전국보다 더 보육 아동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시설 유형에 따라 보육 아동의 정원 충족율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를 비교 해 보면 국공립 보육 시설 90%, 법인 보육 시설 86%, 법인 외 보육 시설 84%, 개인이 운영하는 보육시설 79%, 직장 보육시설 83%, 놀이방은 56%로서 이는 직장 보육 시설을 제외하고 모등 시설 유형에서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전라북도의 보육 수요에 대한 자료에서 보육 충족율이 120%에 이른 점과 전라북도의 인구 구성이 노인 인구가 많고 게다가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여 보육 수요보다 공급이 초과하는 현상과 관련이 있겠다. 따라서 향후 보육 정책을 수립할 때 이런 내용이 고려되어야 하겠다.

<표 10-20> 보육시설 아동의 정. 현원 현황

(단위: 명)

구분	구분	계	국.공립	민간				직장	가정 (놀이방)
				소계	법인	법인외	개인		
계	정원	1,133,589	113,620	826,919	155,183	54,294	617,442	14,666	176,384
	현원	930,252	107,335	691,343	135,531	48,414	507,398	11,787	119,787
	이용율	82%	94%	84%	87%	89%	82%	80%	67%
서울	정원	197,398	49,518	113,540	4,353	5,120	104,067	3,613	30,727
	현원	168,579	47,401	97,809	4,131	4,961	88,717	2,987	20,372
	이용율	85%	96%	86%	95%	97%	85%	83%	66%
전북	정원	59,453	2,612	48,730	15,535	4,938	28,257	247	7,864
	현원	46,746	2,363	39,784	13,418	4,131	22,235	205	4,394
	이용율	79%	90%	82%	86%	84%	79%	83%	56%

출처: 여성부 보육지원과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함 (2004.12.31 현재)

5) 정부의 보육료 지원아동 현황 (전국대비)

정부에서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은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첫 번째는 표준 보육 단가에 근거하여 그 비용 일체를 국가가 부담 하는 형태다. 이 경우는 생활 보호법에 의해 부모가 국민 기초 생활 수급권자의 자녀, 모자복지법에 해당하는 한 부모 가정의 자녀, 아동복지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시설보호 아동이다. 두 번째 보육료 감면은 정부가 매년 도시의 평균 가계소비 지출에 근거하여 일정 소득 이하의 가정을 저소득층으로 정하고 이들 가정의 아동에 대해 보육료 일부를 국가에서 부담 한다. 보육료 감면 아동은 1-4층으로 구분되어 있다.

(1) 전라북도의 보육료 지원 아동 현황 (총괄)

전국의 보육아동 중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은 279,662명이다. 이 중에서 0세 아동 4,718명, 1세 아동 18,719명, 2세 아동 37,335명, 3세 아동 56,159명, 4세 아동 60,208명, 5세 아동 82,877명, 5세 이상 19,866명이다.

또한 전라북도에서 보육료를 지원 받는 아동은 전체 21,229명인데 0세 아동 154명, 1세 아동 1,523명, 2세 아동 2,684명, 3세 아동 4,198명, 4세 아동 4,224명, 5세 아동 7,150명, 5세 이상 아동 1,296명이다.

<표 10-21> 정부의 보육료 지원 아동 현황 (총괄)

(단위:명)

구분	계	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만5세이상
전국	279,662	4,718	18,719	37,335	56,159	60,208	82,877	19,866
전북	21,229	154	1,523	2,684	4,198	4,224	7,150	1,296

출처 : 여성부 보육지원과 자료 재구성함 (2004.12.31현재)

(2) 법정 저소득 아동현황

법정 저소득 자녀를 분류되어 보육료 전체를 국가가 부담하여 보육료를 면제 받는 아동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의 자녀, 시설보호 아동, 모.부자 가정의 아동이다. 이들 전체와 각각의 아동의 현황은 (표 10-22), (표 10-23), (표 10-24), (표 10-25)와 같다.

법정 저소득 층 아동으로 보육료 전액을 지원 받는 아동은 전국적으로 73,706명이다. 이 중에서 0세 아동이 1,450명, 1세 아동 4,835명, 2세 아동 8,926명, 3세 아동 13,741명, 4세 아동 15,857명, 5세 아동 16,243명, 만 5세 이상 12,643명이다.

전북의 법정 저소득층 아동은 5,094명인데 0세 28명, 1세 350명, 2세 561명, 3세 798명, 4세 992명, 5세 1,463명, 5세 이상 902명이다.

<표 10-22> 법정저소득 지원아동 현황

(단위:명)

구분	계	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만5세이상
전국	73,706	1,450	4,835	8,926	13,741	15,857	16,234	12,643
전북	5,094	28	350	561	798	992	1,463	902

출처 : 여성부 보육지원과 자료 재구성함 (2004,12,31현재)

전국의 국민 기초 생활수급권자의 자녀로서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 받는 아동은 모두 50,047명이다. 이를 다시 연령별로 구분해 보면 0세 아동 987명, 1세 아동 3,520명, 2세 아동 6,164명, 3세 아동 9,502명, 4세 아동 10,886명, 5세 아동 11,679명, 5세 이상 9,309명이다.

전라북도의 국민 기초 생활 수급권 자녀로 보육료 지원아동은 모두 4,357명이다. 이 중에서 0세 아동이 24명, 1세 아동 309명, 2세 아동 489명, 3세 아동 652명, 4세 아동 811명, 5세 아동 1,263명, 5세 이상809명이다.

<표 10-23> 기초생활 수급권 자녀 지원 아동현황

(단위:명)

구분	계	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만5세이상
전국	52,047	987	3,520	6,164	9,502	10,886	11,679	9,309
전북	4,357	24	309	489	652	811	1,263	809

출처 : 여성부 보육지원과 자료 재구성함 (2004,12,31현재)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 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으로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여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은 전국에서 1,961명이다. 연령별로는 0세 아동 11명, 1세 아동 34명, 2세 아동 75명, 3세 아동 365명, 4세 아동588명, 5세 아동 641명, 5세 이상 347명이다.

전라북도 역시 아동복지 시설에서 보호 받는 아동으로 보육료를 지원 받는 아동은 모두 128명이다. 이 중에서 2세 아동 1명, 3세 아동 23명, 4세 아동 43명, 5세 아동 61명 이고, 0세 와 1세, 5세 이상에 해당하는 아동은 없다.

<표 10-24> 아동복지시설아동지원현황

(단위:명)

구분	계	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만5세이상
전국	1,961	11	34	75	365	588	641	247
전북	128	-	-	1	23	43	61	-

출처 : 여성부 보육지원과 자료 재구성함 (2004,12,31현재)

한 부모 가정인 모 부자 가정의 자녀로서 보육료 면제 혜택을 받는 아동은 전국에서 모두 19,696명이다. 이중에서 0세 아동이 452명, 1세 아동1,281명, 2세 아동 2,687명, 3세 아동 3,574명, 4세 아동 4,393명, 5세 아동3,914명, 5세 이상 아동 3,087명이다.

전라북도의 한 부모 가정의 자녀로 보육료를 지원 받는 아동은 전체 609명이다. 이중에서 0세 아동 4명, 1세 아동 41명, 2세 아동 71명, 3세 아동 123명, 4세 아동 138명, 5세 아동 139명, 5세 이상 아동 93명이다.

<표 10-25> 모. 부자 가정 지원아동 현황

(단위:명)

구분	계	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만5세이상
전국	19,696	452	1,281	2,687	3,574	4,393	3,914	3,087
전북	609	4	41	71	123	138	139	93

출처 : 여성부 보육지원과 자료에 근거하여 재구성함 (2004,12,31현재)

(3) 기타 저소득 지원아동 현황

매년 도시가구 의 평균 소비지출이하의 가정을 저소득 가정으로 분류 하고 이 가정의 자녀들의 보육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기타 저소득층 지원 아동은 전국에서 모두 206,176명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0세 아동이 3,258명, 1세 아동 13,844명, 2세 아동 28,409명, 3세 아동 42,416명, 4세 아동44,341명, 5세 아동 66,643명, 5세 이상 아동 7,273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전라북도의 경우 기타 저소득층으로 보육료를 지원 받는 아동은 모두 16,135명이다. 0세 아동 126명, 1세 아동 1,173명, 2세 아동 2,123명, 3세 아동 3,400명, 4세 아동 3,232명, 5세 아동 5,687명, 5세 이상아동 394명이다.

<표 10-26> 기타 저소득 지원아동 현황

(단위;명)

구분	계	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만5세이상
전국	206,176	3,258	13,844	28,409	42,416	44,341	66,643	7,273
전북	16,135	126	1,173	2,123	3,400	3,232	5,687	394

출처 : 여성부 보육지원과 자료를 재구성함 (2004,12,31현재)

(4) 전라북도 정부지원 아동의 각 시군 별 현황

2005년 전라북도의 법정 저소득층과 기타 저소득층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 5세아 무상보육 지원아동, 장애아 지원아동의 각 시군 별 현황은 다음 (표27)과 같다. 전라북도 전체에서 지원 아동은 모두 28,539명인데 이 중에서 법정 저소득층 지원아동은 5,83명이고 기타 저소득층 지원 아동은 16,135명이며 5세아 무상보육아동은 6,922명, 장애아 무상 보육 아동은 399명이다.⁴³⁾

각 시군 별로 지원 아동 현황을 살펴보면 법정 저소득층으로서 보육료 면제 대상 아동은 전주시 1,581명, 군산시 666명, 익산시 549명, 정읍시 505명, 남원시 459명, 김제시 338명, 완주군 393명, 진안군 39명, 무주군 16명, 장수군 125명, 임실군 70명, 순창군41명, 고창군 171명, 부안군 130명이다.

또한 기타 저소득층가정의 자녀로 보육료 감면 대상 아동은 모두 16,135명인데 지역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전주시 5,393명, 군산시 1,948명, 익산시 2,989명, 정읍시 1,349명, 남원시 891명, 김제시 903명, 완주군1,046명, 진안군 201명, 무주군 115명, 장수군 92명, 임실군 258명, 순창군 211명, 고창군 423명, 부안군 316명이다.

취학 직전인 5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2001년 농어촌 지역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2002년부터는 도시 지역까지 확대 되었다. 2005년 1인당 월 12,5000원씩 6,922

43) 이 자료는 전라북도의 2005년 6월 내부 자료에 근거 하였는데 5세아 무상보육 지원 아동과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아동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시기와 대상의 차이로 인해 앞에서 제시한 통계와 차이가 있음을 밝힌다.

명에게 5세아 무상보육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전주시 3,854명, 군산시 514명, 익산시 597명, 정읍시337명,남원시 251명 ,김제시222명, 완주군 785명, 진안군 49명, 무주군 4명, 장수군 42명, 임실군 62명, 순창군 22명, 고창군 103명, 부안군 76명이다.

장애아동에게 지원되는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아동은 전라북도 전체 399명이다. 각 시군 별로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전주시 173명, 군산시 86명, 익산시 76명, 정읍시 23명, 김제시 13명 완주군 8명, 진안군 2명, 장수군 2명, 임실군 2명, 순창군 5명, 고창군 7명, 부안군 2명이다.

<표 10-27> 전북 각 시군별 지원아동 현황

(단위:명)

시군별	계	법정저소득층	기타저소득층	5세아 무상보육	장애아 무상보육
계	28,539	5,083	16,135	6,922	399
전주시	11,001	1,581	5,393	3,854	173
군산시	3,214	666	1,948	514	86
익산시	4,201	549	2,989	597	76
정읍시	2,214	505	1,349	337	23
남원시	1,601	459	891	251	-
김제시	1,476	338	903	222	13
완주군	2,232	393	1,046	785	8
진안군	291	39	201	49	2
무주군	135	16	115	4	-
장수군	261	125	92	42	2
임실군	392	70	258	62	2
순창군	283	41	211	26	5
고창군	704	171	423	103	7
부안군	524	130	316	76	2

출처 ; 전라북도 노인 아동과 내부자료 (2005,6,30현재)

6) 특수보육시설 아동 현황

특수보육 시설의 아동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28)과 같다.

<표 10-28> 특수보육시설아동현황

(단위:명)

구분			계	국공립	민간				직장	놀이방
					소계	법인	법인의외	개인		
영아 전담	정원	전국	29,453	2,397	20,673	6,086	5,641	8,946	-	6,381
		전북	1,676	-	1,676	692	45	939	-	-
	현원	전국	23,361	1,997	16,458	4,070	4,675	7,713	-	4,906
		전북	1,187	-	1,187	381	45	761	-	-
장애 전담	정원	전국	4,676	567	4,049	2,616	755	678	-	60
		전북	198	-	198	173	-	25	-	-
	현원	전국	3,935	483	3,413	2,186	637	590	-	39
		전북	120	-	120	95	-	25	-	-
장애아 통합	정원	전국	20,135	11,025	8,984	3,941	681	4,362	79	47
		전북	498	-	498	459	-	39	-	-
	현원	전국	1,666	795	858	338	109	411	4	9
		전북	79	-	79	76	-	3	-	-
방과후 전담	정원	전국	8,613	527	7,652	1,661	3,620	2,371	-	434
		전북	658	-	597	-	-	597	-	61
	현원	전국	13,538	1,798	11,442	2,631	934	7,877	9	289
		전북	405	-	383	-	-	383	-	22
방과후 통합	정원	전국	90,028	11,091	77,127	15,494	4,891	56,742	121	1,689
		전북	11,371	123	11,237	2,827	1,362	7,048	-	11
	현원	전국	13,538	1,798	11,442	2,631	934	7,877	9	289
		전북	1,452	-	1,446	355	278	813	-	6
시간 연장형	정원	전국	14,685	3,678	9,443	2,668	318	6,457	5	1,559
		전북	65	-	65	30	35	-	-	-
	현원	전국	5,761	1,201	3,772	892	177	2,703	5	783
		전북	55	-	55	24	31	-	-	-
휴일형	정원	전국	2,130	295	1,638	976	57	605	-	197
		전북	10	-	10	10	-	-	-	-
	현원	전국	457	38	349	140	10	199	-	70
		전북	10	-	10	10	-	-	-	-

출처 : 여성부 보육지원과 자료 재구성함 (2004,12,31현재)

영아 전담 보육 시설의 보육아동은 1,187명 (정원 1,676명)이고, 장애 전담 보육 시설의 아동은 120명(정원 198명)이며, 장애아 통합 보육 시설 아동은 79명 (정원498명), 방과 후 전담 보육시설 아동 405명 (정원658명), 방과 후 통합 보육시설 아동 1,452명 (정원 11,371명), 시간 연장 형 보육시설 아동 55명 (정원65명), 휴일 형 보육아동 10명 (정원10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에서 방과 후 통합 보육 시설과 장애아 통합 보육 시설에서 보육 아동이 정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 부분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문제점 개선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7) 전북지역 시군별 방과 후 보육아동 추이

영유아 보육법은 보육 대상을 학령기 아동까지 포함시키고 있으며 방과 후에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령기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 지원 정책을 실시했다. 그러나 실제 보육 시설에서 보육시설에서 방과 후 보육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에는 보육 시설 외에 방과 후 아동의 문제해결을 위해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는 추세이고 지역 아동 센터와 민간단체 등에서 학령기 아동의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⁴⁴⁾

2005년 여성 가족부의 보육 통계자료에 의해 전라북도의 방과 보육 아동의 현원은 정원 12%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이는 실제로 보육 시설에서 방과 후 보육은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제 기능을 다하기 어려운 현실이라 판단된다.

전라북도의 2000-2005년까지 방과 후 보육 아동의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 (표29)와 같다. 전라북도 전체 방과 후 보육아동은 2000년 1,238명, 2001년 978명, 2002년 1,381명, 2003년 1,535명, 2004년 1,857명, 2005년 1,857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5년을 기준으로 각 시군의 방과후 보육 아동의 현황을 아동이 많은 순서대로 살펴보면 전주시

44) 학교, 지역아동 센터, 기타 방과 후 보육아동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 할 수도 있지만 이 시설들이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 가족부, 등으로 관련법과 부서, 행정체계 등이 통일 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를 포함할 경우 여러 가지 기준의 문제와 자료의 혼란이 우려되어 제외하고 영유아 보육법에 근거하고 여성 가족부에 소속되어 있는 방과 후 보육시설만으로 한정 하였다.

618명, 정읍시 293명, 완주군 256명, 남원시 156명, 익산시 136명 군산시 83명, 장수군과 고창군이 78명이며 김제 49명, 부안 42명, 순창 29명 진안 27명, 임실 11명이다. 무주군의 경우에는 2004년 이후 방과 후 보육아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0-29> 시 군별 방과 후 아동 추이

(단위 : 명)

시군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1,238	978	1,381	1,535	1,857	1,857
전주시	809	382	514	451	618	618
군산시	33	63	68	66	83	83
익산시	66	102	112	115	137	137
정읍시	62	81	128	197	293	293
남원시	16	16	142	156	156	156
김제시	50	38	47	48	49	49
완주군	84	92	165	186	256	256
진안군	-	19	19	17	27	27
무주군	-	15	14	14	-	-
장수군	38	79	53	75	78	78
임실군	32	13	23	40	11	11
순창군	25	30	30	30	29	29
고창군	12	21	21	80	78	78
부안군	11	27	45	60	42	42

출처 ; 전라북도 노인아동과 내부자료 (2005,6,30현재)

8) 전라북도 장애아동 보육 현황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발전 되어야 할 부분이다. 2000년 전라북도의 장애아동의 보육 수는 199명으로 취약한 형편이다. 전북의 장애전담 보육 시설과 장애아 통합 보육 시설에서 보육하고 있는 아동의 현황은 다음(표30)과 같다. 우선 2000년부터 2005년 까지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0년 150명, 2001년 112명, 2002년 125명, 2003년 187명, 2004년 199명, 2005년 199명의 아동이 보육 서비스를 받고 있다. 또한 각 시군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주시 65명, 군산시 61명, 익산시 45명,

정읍시 33명 , 남원시 22명, 김제시 3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외의 지역에서는 장애 아동을 보육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정확한 보육대상 장애 아동에 대한 실태 파악이 있어야 하겠고 이에따라서 시설확충 및 정책적 지원, 인식 개선을 위한 대책 등이 강구 되어야 하겠다.

<표 10-30> 각 시군별 장애 아동 보육 현황

(단위 : 명)

시군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150	112	125	187	199	199
전주시	36	41	46	49	65	65
군산시	90	47	55	70	61	61
익산시	-	-	-	38	45	45
정읍시	-	-	-	4	3	3
남원시	24	24	24	22	22	22
김제시	-	-	-	4	3	3
완주군	-	-	-	-	-	-
진안군	-	-	-	-	-	-
무주군	-	-	-	-	-	-
장수군	-	-	-	-	-	-
임실군	-	-	-	-	-	-
순창군	-	-	-	-	-	-
고창군	-	-	-	-	-	-
부안군	-	-	-	-	-	-

(장애아전담 및 장애아통합보육시설에 보육하는 아동만 파악됨)

출처 ; 전라북도 노인아동과 내부자료 (2005,6,30현재)

4. 보육 시설 종사자 현황

보육 시설의 종사자 현황은 시설 유형별 종사자 현황, 자격별 종사자 현황, 직무별 종사자 현황, 연도별 종사자 현황, 지역별 종사자 현황 등을 분석 고찰 하였다.

1) 전북의 보육시설 종사자 현황

우선 전국의 보육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125,147명이다. 이를 시설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국공립 보육 시설에 13,145명, 법인 보육시설에 1,5797명, 법인 외 시설에 6,519명, 개인 보육 시설에 63,319명, 직장 보육시설 1,746명, 가정보육시설 23,621명이 종사하고 있다.

전라북도에는 모두 6,190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시설 유형별로는 국공립 보육 시설에 274명, 법인 보육 시설에 1,993명, 법인 외 보육시설에 175명, 개인 보육시설에 2,765명, 직장 보육시설에 23명, 놀이방에 960명이 분포되어 종사하고 있다. 이를 충청북도 5,143명, 충청남도 5,271명, 전라남도 5037명과 비교 할 때 전북의 보육 시설 종사자가 가장 많은데 이는 전북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보육 시설이 상대적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표 10-31> 보육시설 종사자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국.공립	민간				직장	가정 (놀이방)
			소계	법인	법인외	개인		
계	125,147	13,145	86,635	15,797	6,519	63,319	1,746	23,621
충북	5,143	256	4,090	1,364	155	2,571	80	717
충남	5,271	263	4,264	1,137	629	2,498	67	677
전북	6,190	274	4,933	1,993	175	2,765	23	960
전남	5,037	263	4,003	1,610	742	1,651	53	718

출처 : 여성부 보육지원과 자료 재구성함 (2004,12,31현재)

2) 직위 및 시설규모에 따른 보육시설 종사자 현황

직위별로 살펴보면 전국의 보육 시설 종사자 125,147명 중에서 시설장이 26,903명인데 40인 이상 보육시설 시설장 7,425명, 40인 미만보 육시설 시설장 19,478명이다. 또한 보육교사는 모두 77,395명인데 1급 보육교사 47,495명이고 2급 보육교사 29,900명이다.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의사는 모두 145명인데 이중에서 의사 4명, 촉탁 의사 141명이다. 간호사는 321명, 간호조무사 334명, 영양사 503명, 사무원 1,238명, 취사원 10,153명, 운전기사 등 기타 종사자가 8,155명이다.

한편 전라북도의 보육시설 종사자는 모두 6,190명이며 이중에서 시설장은 모두 1,146명이다. 시설장 중 40인 미만 시설의 시설장 653명, 40인 이상 보육시설 시설장 493명이다. 보육교사는 전체 3,586명인데 자격 별로 살펴보면 1급 보육교사 2,650명, 2급보육교사 936명이다. 보육교사 및 시설장 이외의 종사자는 촉탁의사 1명, 간호사 8명, 간호조무사 20명, 영양사 27명, 사무원 117명, 취사원 697명, 운전기사 등 기타 종사자 588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0-32> 보육시설 종사자 현황

(단위:명)

구분	합계	시설장			보육교사			의사			
		소계	40인 미만	40인 이상	소계	1급	2급	소계	의사	축탁 의사	
합계	125,147	26,903	19,478	7,425	77,395	47,495	29,900	145	4	141	
국.공립	13,145	1,349	67	1,282	9,317	7,846	1,471	29	-	29	
민간	법인	16,797	1,537	70	1,467	11,307	9,429	1,878	55	1	54
	법인 외	6,519	966	362	604	4,278	2,928	1,350	9	1	8
	개인	63,319	12,225	8,285	3,940	39,406	21,658	17,748	50	2	48
직장	1,746	243	111	132	1,216	976	240	1	-	1	
가정	23,621	10,583	10,583	-	11,871	4,658	7,213	1	-	1	
전북(계)	6,190	1,146	653	493	3,586	2,650	936	1	-	1	
국.공립	274	34	-	34	173	156	17	-	-	-	
민간	법인	1,993	170	4	166	1,297	1,107	190	1	-	1
	법인 외	175	79	8	71	67	62	5	-	-	-
	개인	2,765	400	181	219	1,598	1,157	441	-	-	-
직장	23	4	1	3	15	13	2	-	-	-	
가정	960	459	459	-	436	155	281	-	-	-	

<표 10-32>의 연속

(단위:명)

구분	간호사			영양사	사무원	취사원	운전기사등기 타
	소계	간호사	간호 조무사				
합계	655	321	334	503	1,238	10,153	8,155
국.공립	128	56	72	54	166	1,576	526
민간	법인	150	79	71	127	333	1,465
	법인외	32	21	11	26	118	658
	개인	328	155	173	273	565	5,396
직장	10	7	3	17	30	167	62
가정	7	3	4	6	26	533	594
전북(계)	28	8	20	27	117	697	588
국.공립	1	-	1	3	8	38	17
민간	법인	7	2	5	5	67	250
	법인외	1	1	-	1	5	16
	개인	18	4	14	18	33	356
직장	-	-	-	-	-	2	2
가정	1	1	-	-	4	35	25

출처 : 여성부 보육지원과 자료 재구성함 (2004,12,31현재)

3) 시설장 및 보육 교사의 시군별 채용 현황

전라북도의 시설장과 보육교사의 현황은 다음 <표 10-33>과 같다. 전라북도의 시설장과 보육교사는 모두 4,732명이다. 이중에서 시설장이 1,146명인데 40인 미만 시설의 시설장은 655명이고 40인 이상 시설장은 491명이다. 보육교사는 모두 3,586명으로 1급 보육교사 1,342명이고 2급 보육교사 936명이며, 보육 교사 1급을 인정받으며 동시에 유치원 교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교사는 1,308명이 있었다. 시설장 및 보육교사의 시군 별 종사 현황을 살펴보면 전주시 2,024명, 군산시 627명, 익산시 779명, 정읍시 248명, 남원시 205명, 김제 189명, 완주군 213명, 진안군 36명, 무주군 43명, 장수군 40명, 임실군 75명, 순창군 56명, 고창군 95명, 부안군 102명이다.

<표 10-33> 전북의 시군별 보육시설 시설장 및 보육교사 현황

(단위:명)

구분	합계	시설장			보육교사			
		소계	40인 미만시설	40인 이상시설	소계	1급	2급	유치원 교사 유자격자
총 계	4,732	1,146	655	491	3,586	1,342	936	1,308
전주시	2,204	462	300	162	1,562	509	580	473
군산시	627	163	94	69	464	70	76	318
익산시	779	222	136	86	557	96	96	74
정읍시	248	74	40	34	174	-	-	-
남원시	205	52	27	25	17	42	42	94
김제시	189	40	16	24	32	22	22	95
완주군	213	42	14	28	28	57	57	86
진안군	36	7	-	7	10	4	4	15
무주군	43	6	1	5	20	3	3	14
장수군	40	8	-	8	3	11	11	18
임실군	75	11	3	8	28	13	13	23
순창군	56	12	4	8	11	3	3	30
고창군	95	22	9	13	16	16	16	41
부안군	102	25	11	14	37	13	13	27

출처 ; 전라북도 노인아동과 내부자료 (2005,6,30현재)

4) 전라북도의 시 군 별 종사자 추이

전라북도의 보육 시설 종사자 전체 추이를 1995년, 1997년, 2000년 2004년으로 나누어 그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표34)과 같다. 전라북도 전체 보육 시설 종사자는 1995년 1,939명, 1997년 2,522명, 2000년 4,058명, 2004년 6,109명이다. 각 시군 지역에 따라 종사자 분포를 살펴보면 전주시 2,642명, 군산시 733명, 익산시 1004명, 정읍시 333명, 남원시 297명, 김제시 248명, 완주군 289명, 진안군 51명, 무주군 51명, 장수군 50명, 임실군 98명, 순창군 74명, 고창군 128명, 부안군 152명이다.

<표 10-34> 전라북도 시.군별 종사자 현황

(단위:명)

연도 시군별	1995	1997	2000	2004
합계	1,939	2,522	4,058	6,190
전주시	456	853	1,628	2,642
군산시	303	412	492	773
익산시	569	481	701	1,004
정읍시	113	176	241	333
남원시	130	115	203	297
김제시	98	108	194	248
완주군	81	114	174	289
진안군	42	42	50	51
무주군	15	18	33	51
장수군	28	37	43	50
임실군	28	45	69	98
순창군	23	27	63	74
고창군	35	52	91	128
부안군	18	42	71	152

출처 ; 전라북도 노인아동과 내부자료 (2005,6,30현재)

5) 특수보육시설 종사자 현황

전국의 특수 보육시설 종사자는 모두 5,595명인데 전라북도의 종사자는 모두 299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전라북도의 보육 시설이나 보육아동 현황에 비해 매우 낮은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전라북도의 특수보육시설 종사자의 종사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표34)과 같다. 영아 전담 보육 시설의 종사자는 전체 299명으로 법인 보육시설 종사자 100명, 법인 외 보육 시설 종사자 12명, 개인 보육 시설 종사자 187명으로 분포 되어 있다.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의 경우 전체 48명인데 법인 보육 시설에 39명이 개인 보육 시설에 9명이 소속 되어 있다. 장애아 통합 보육 시설의 경우에는 전체 18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18명은 법인 보육 시설에 종사하고 있고 개인 보육 시설에 1명이 종사하고 있다. 방과후 전담 보육 시설 종사자는 31명인데 이 경우에는 다른 보육시설의 경우와 다르

계 개인 보육 시설에 27명 , 놀이방에 4명이 종사하고 있다. 방과 후 통합 보육 시설의 경우 전체 87명이며, 국공립 보육 시설 종사자 1명, 법인 보육 시설 종사자 24명, 법인 외 보육 시설 15명, 개인 보육 시설 48이 분포 되어 있다. 시간 연장 형 보육 시설의 경우 모두 12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법인 보육 시설에 6명, 법인 외 보육 시설에 6명이 종사하고 있었다. 휴일형 보육 시설 종사자는 모두 2명이고 이들은 모두 법인 보육 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다.

<표 10-35> 특수보육시설 종사자 현황

(단위:명)

구분	계	국공립	민간				직장	놀이방	
			소계	법인	법인외	개인			
영아전담	전국	5,595	499	4,017	995	1,166	1,856	-	1,079
	전북	299	-	299	100	12	187	-	-
장애전담	전국	1,339	174	1,157	735	212	210	-	8
	전북	48	-	48	39	-	9	-	-
장애아 통합	전국	563	275	280	126	27	127	3	5
	전북	19	-	19	18	-	1	-	-
방과후 전담	전국	392	26	335	72	145	118	-	3
	전북	31	-	27	-	-	27	-	4
방과후 통합	전국	1,493	108	1,278	227	79	972	1	106
	전북	87	1	87	24	15	48	-	-
시간 연장형	전국	1,033	193	658	167	37	454	1	181
	전북	12	-	12	6	6	-	-	-
휴일형	전국	106	11	78	24	4	50	-	17
	전북	2	-	2	2	-	-	-	-

출처 : 여성부 보육지원과 자료 재구성함 (2004,12,31현재)

5. 보육 예산

예산 부분에서는 전라북도의 보육 예산을 전국의 보육 예산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보고 각 시군 별 예산 현황과 시설 및 아동 지원 예산 등으로 살펴보았다.

1) 전국의 보육예산

2005년 보육 사업 안내에 의하면 전국의 보육 예산은 600,091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95,094백만원이 증액되어 48.2%가 증가한 예산이다. 예산 항목은 보육 시설 운영 지원 273,754백만원, 보육료 지원 267,088백만원, 보육시설 기능 보강비 50,420백만원, 보육시설 인프라 구축 4,303백만원, 민간단체 지원 예산 60백만원, 어린이집 운영비 4,466백만원이다 .

<표 10-36> 2005년 전국의 보육 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2004예산(A)	2005년예산(B)	증감(B-A)	%	비고
계	404,997	600,921	195,094	48.2	
보육시설운영지원	227,848	273,754	45,906	20.1	
보육료 지원	152,444	267,088	114,644	75.2	
보육시설기능보강	20,821	50,420	29,599	142.1	
보육인프라구축	2,670	4,303	1,633	61.1	
민간단체지원	57	60	3	5.3	
어린이집 운영	1,157	4,466	3,309	285.9	

출처 : 2005 여성부 보육사업안내에서 재구성함

2) 전라북도 보육 예산

2005년 전라북도의 보육 예산은 다음(표37)과 같다. 2005년 보육 예산은 전체 86,372,910천원이며 이중에서 국고 보조 사업 예산이 83,178,360원이고 도 자체 사업 예산은 3,194,550 천원으로서 국고 사업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도 자체 사업 예산은 소규모 수준이다. 항목별 예산을 살펴보면 국고 보조사업예산은 보육 시설 운영비 예산이 81,171,822천원인데 이중에서 인건비 지원 38,911,946천원, 보육료 지원 41,102,304천원,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843,712천원, 농어촌 차량 운영비 313,860천원이 수립 되어 있다. 보육 인프라 구축 예산은 보육 정보 센터 운영 120,000천원, 보육교사 보수 교육139,338천원을 합해 259,338천원이며 보육 사업 기능 보강사업예산은 1,747,200천원 이며 이 중에서 장애아 전담 신축 예산 574,200천원, 증개축 957, 000천원, 개보수 180,000천원, 장비비 36,000천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 자체사업 예산은 저소득 보육 간식비 3,194,550천원, 출산 대체 인건비 2,892,000천원, 민간 농어촌 차량 운영비 163,800천원으로 모두 3,194,550천원을 확보하고 있다.

<표 10-37> 전라북도 보육 예산

(단위:천원)

사 업 명	계	국비+도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86,372,910	62,995,575	41,414,460	21,581,115	23,377,335
국비보조사업	83,178,360	62,326,410	41,414,460	20,911,950	20,851,950
보육시설운영비	81,171,822	60,878,866	40,585,911	20,292,955	20,292,956
○ 시설별지원(인건비)	38,911,946	29,183,959	19,455,973	9,727,986	8,727,987
○ 보육료	41,102,304	30,826,728	20,551,152	10,275,576	10,275,576
- 저소득층 보육료	25,470,528	19,102,896	12,735,264	6,367,632	6,367,632
1층보육료	6,719,764	5,039,823	3,359,882	1,679,941	1,679,941
2층보육료	9,409,450	7,057,088	4,704,725	2,352,363	2,352,362
3층보육료	5,983,392	4,487,544	2,991,696	1,495,848	1,495,848
4층보육료	3,357,922	2,518,441	1,678,961	839,480	839,481
- 만5세 무상보육료	13,867,552	10,400,664	6,933,776	3,466,888	3,466,888
- 장애아 무상보육료	1,233,754	925,316	616,877	308,439	308,438
- 두자녀 보육료	530,570	397,852	265,235	132,617	132,628
○ 민간시설교재교구비	843,712	632,784	421,856	210,928	210,928
○ 농어촌 차량운영비	313,860	235,396	156,930	78,465	78,465
보육인프라 구축	259,338	224,504	129,669	94,835	34,834
- 보육정보센터 운영	12,000	12,000	60,000	60,000	
- 보육교사보수교육비	139,338	104,504	69,669	34,835	34,834
보육사업기능보강	1,747,200	1,223,040	698,880	524,160	524,160
○ 시설기능보강사업	1,747,200	1,223,040	698,880	524,160	524,160
- 장애아 전담신축	574,200	401,940	229,680	172,260	172,260
- 국공립시설신축비	-	-			
- 증개축	957,000	669,900	382,800	287,100	287,100
- 개보수	180,000	126,000	72,000	54,000	54,000
- 장비비	36,000	25,200	14,400	10,800	10,800
○ 정보센터설치비	-	-			
도자체사업	3,194,550	669,165		669,165	2,525,385
보육시설지원비	3,194,550	669,165		669,165	2,525,385
○ 저소득보육간식비	2,892,000	578,400		578,400	2,313,600
○ 출산대체인건비	138,750	41,625		41,625	97,125
○ 민간농어촌차량운영비	163,800	49,140		49,140	114,660

자료출처: 전라북도 노인 아동과 내부자료 재구성 (2005.8.30)

3) 전라북도 및 각 시군 별 보육 예산 추이

2000년-2005년 기간에 전북의 각 시군 별 전체 보육예산 현황은 다음 (표38)과 같다. 연도별 현황은 2000년 22,774,396천원, 2001년31,395,959천원, 2002년 41,693,192천원 2003년 59,508,066천원 2004년 52,358,671천원, 2005년 83,766,904천원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일수 있다.

2000년의 보육 예산을 각 시군 별로 살펴보면 전주시 23,807,280천원, 군산시 11,222,204천원, 익산시 13,871,788천원, 정읍시 6,708,896천원 남원시 6,301,901천원, 김제시 5,284,205천원, 완주군 6,103,961천원, 진안군1,394,213천원, 무주군 1,041,697천원, 장수군 1,221,090천원, 임실군1,674,317천원, 순창군 1,271,635천원, 고창군 2,418,806천원, 부안군 1,594,911천원이며 전라북도 자체 예산은 2003년까지는 수립되지 않았고 2004년에 1,222,700천원, 2005년에 120,000천원이 수립 되어 있다.

<표 10-38> 전라북도 및 각 시군 별 보육 예산 추이

단위:천원

시군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22,774,396	31,395,959	41,693,192	59,508,066	52,358,671	83,766,904
전주시	5,399,528	7,468,139	10,170,355	14,764,646	17,258,102	23,807,280
군산시	2,642,671	3,620,286	5,148,669	7,493,974	7,307,745	11,222,204
익산시	4,316,666	5,928,648	7,281,367	10,022,955	10,688,766	13,871,788
정읍시	1,916,322	2,618,190	3,404,014	4,736,939	4,982,060	6,708,896
남원시	1,509,003	2,073,520	3,006,759	4,462,920	4,141,218	6,301,901
김제시	1,553,277	2,275,586	2,927,113	3,742,707	4,118,021	5,284,205
완주군	1,774,482	2,422,600	3,346,747	4,604,278	4,792,197	6,103,961
진안군	587,727	796,240	1,014,013	1,384,633	1,190,295	1,394,213
무주군	363,505	491,480	598,814	917,393	957,092	1,041,697
장수군	489,605	670,860	897,635	1,283,369	977,546	1,221,090
임실군	643,344	881,180	1,145,382	1,791,566	1,430,509	1,674,317
순창군	475,925	646,400	767,378	1,262,026	1,179,504	1,271,635
고창군	733,255	995,000	1,188,098	1,819,189	1,843,491	2,418,806
부안군	369,086	507,830	795,848	1,221,471	1,269,425	1,594,911
도					1,222,700	120,000

자료출처: 전라북도 노인아동과 내부자료 (2005,8,30현재)

4) 전라북도 각 시군별 시설지원 예산

전라북도의 각 시군에서 국공립, 법인 및 법인 외 보육 시설에 종사자 인건비를 보조하는 시설 지원 예산은 다음(표39)과 같다. 우선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지원 예산을 비교해 보면 2000년 29,793,054천원 2001년 31,395,959천원 2002년 39,038,596천원, 2003년 57,980,395천원, 2004년 64,221,966천원, 2005년 86,157,210천원이다.

2005년의 예산을 각 시군 별로 살펴보면 전라북도 전체는 86,157,210천원이며 전주시는 24,415,119천원, 군산시 11,567,390천원, 익산시 14,532,125천원, 정읍시 6,812,206천원, 김제시 5,430,835천원, 완주군 6,142,365천원, 진안군 1,406,548천원, 무주군 1,111,362천원, 장수군 1,315,680천원, 순창군 1,404,913천원, 고창군 2,563,311천원, 부안군 1,609,857천원의 예산이 수립 되어 있다.

<표 10-39> 전라북도 각 시 군별 시설 지원예산

시군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비 고
계	29,793,054	31,395,959	39,038,596	57,980,395	64,221,966	86,157,210	
전주시	7,086,853	7,468,139	10,191,705	14,359,527	18,064,214	24,415,119	
군산시	3,626,267	3,620,286	4,820,858	7,272,219	8,605,141	11,567,390	
익산시	5,397,666	5,928,648	6,726,421	9,719,899	10,682,602	14,532,125	
정읍시	2,510,960	2,618,190	3,040,702	4,608,982	5,145,640	6,812,206	
남원시	2,044,847	2,073,520	2,604,026	4,312,713	4,194,803	6,062,921	
김제시	2,027,361	2,275,586	2,472,711	3,638,454	4,205,057	5,430,835	
완주군	2,387,390	2,422,600	3,007,689	4,508,362	4,839,304	6,142,365	
진안군	710,061	796,240	1,083,360	1,507,771	1,019,201	1,406,548	
무주군	450,439	491,480	566,869	900,760	795,848	1,111,362	
장수군	653,024	670,860	814,799	1,255,207	1,178,788	1,315,680	
임실군	832,274	881,180	1,025,850	1,738,796	1,349,184	1,782,578	
순창군	559,350	646,400	754,289	1,237,333	1,051,385	1,404,913	
고창군	893,010	995,000	1,137,265	1,763,154	1,963,650	2,563,311	
부안군	583,552	507,830	792,052	1,157,218	1,127,149	1,609,857	

출처 ; 전라북도 노인아동과 내부자료 (2005,6,30현재)

5) 전라북도 아동 지원 예산

저소득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과 교재비와 간식비 등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아동 지원에 대한 전북의 예산 현황은 다음 (표40)과 같다. 아동지원에 따른 전체 예산은 27,704,582천원이며 이중에서 저소득 아동에 대한 지원예산은 25,405,376천원, 교재비 564,043천원, 간식비 1,735,163천원으로 각각 책정되어 있다. 각 시군 별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전주시 8, 838,230천원, 군산시 3,507,791천원, 익산시 4,648,312천원, 정읍시 2,316,996천원, 남원시 1,855,856천원, 김제시 1,668,532천원, 완주군 1,775,659천원, 진안군 348,585천원, 무주군 196,148천원, 장수군 341,057천원, 임실군 486,309천원, 순창군 336,312천원, 고창군 789,562천원, 부안군 595,223천원의 예산을 수립하고 있다.

<표 10-40> 시군별 아동지원 예산

(단위:천원)

시군별	계	보육료면제아동 감면아동	교재비	간식비	비고
계	27,704,582	25,405,376	564,043	1,735,163	
전주시	8,838,230	8,041,665	233,593	562,972	
군산시	3,507,791	3,189,226	103,382	215,183	
익산시	4,648,312	4,245,745	114,080	288,487	
정읍시	2,316,996	2,133,418	35,088	148,490	
남원시	1,855,856	1,713,986	19,770	122,100	
김제시	1,668,532	1,547,906	14,656	105,970	
완주군	1,775,659	1,661,890	13,436	100,353	
진안군	348,595	325,155	-	23,440	
무주군	196,148	182,731	-	13,417	
장수군	341,057	321,177	1,370	18,510	
임실군	486,309	453,397	2,225	30,687	
순창군	336,312	310,098	4,107	22,107	
고창군	789,562	733,268	9,157	47,137	
부안군	595,223	545,714	13,179	36,330	

출처 ; 전라북도 노인아동과 내부자료 (2005,6,30현재)

6) 전북지역 시군별 개축 및 개보수 등 지원예산

공공 보육 성격의 국공립 및 법인, 법인 외 보육 시설 건물이 노후 되어 보수 및 개축이 불가피 하여 건물 개축 및 보수에 필요한 전라북도의 예산 현황은 다음(표41)과 같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의 예산의 경우 2000년 242,478천원, 2001년 292,478천원, 2002년 146,170천원, 2003년 632,050천원, 2004년 1,043,115천원, 2005년 1,077,300천원이 지원 되었다. 2005년 예산 기준으로 각 시군 별 예산현황은 전주시 1,077,300천원, 군산시 97,700천원, 익산시 225,400천원, 정읍시 62,000천원, 남원시 193,400천원, 김제시 2,000천원, 완주군 4,000천원, 진안군 4,000천원, 무주군 4,000천원, 순창군 2,000천원, 고창군 2,000천원, 부안군과 임실군은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다.

<표 10-41> 전라북도 시군별 개축 및 개보수 지원예산

(단위: 천원)

시군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비 고
계	242,478	292,478	146,170	632,050	1,043,115	1,077,300	
전주시		15,000	22,010	193,400	157,370	353,100	
군산시	28,826	33,826	28,710	28,710	126,535	97,700	
익산시	34,826	39,826	32,730	97,700	224,360	225,400	
정읍시		-	-	86,130	153,120	62,000	
남원시		10,000	20,000	-	95,700	193,400	
김제시	176,826	176,826	-	-	126,535	2,000	
완주군		5,000	5,000	2,000	99,950	4,000	
진안군		-	2,000	2,000	30,835	4,000	
무주군	2,000	2,000	2,010	28,710	-	4,000	
장수군		5,000	28,710	95,700	-	-	
임실군		5,000	-	95,700	-	2,000	
순창군		-	-	-	-	2,000	
고창군		-	-	-	28,710	127,700	
부안군		-	5,000	2,000	-	-	

출처 : 전라북도 노인아동과 내부자료 (2005.6.30현재)

7) 용자보육시설 설치 예산

1994년부터 1997년까지 민간 보육 시설설치를 위해 국민 연금을 용자예산은 다음(표40)과 같다. 이 기간에 전라북도에서 국민연금 기금을 용자받은 시설은 전체 121개 시설이며 이들 시설에서 받은 용자액은 26,344백만원이다. 각 시군 별 용자금액을 살펴보면 전주시가 61개 시설에서 26,344백만원이 용자 받았고 군산시 25개 시설에 5,202백만원, 익산시 21개 시설에 4,952백만원, 정읍시 3개 시설에 300백만원, 남원시 1개 시설에 100백만원, 김제시 2개 시설에 600백만원, 완주군 2개 시설에 315백만원, 장수군 1개 시설에 124백만원, 순창군 1개 시설에 100백만원, 고창군 3개 시설에 290백만원, 부안군 1개 시설에 300백만원이다. 용자금액 이 없는 지역은 진안군, 무주군, 임실군이다.

<표 10-42> 전북 시군별 보육시설 용자금액

(단위:백만원, 개소)

시군별	용자금액	용자 시설수
계	26,344	121
전주시	14,061	61
군산시	5,202	25
익산시	4,952	21
정읍시	300	3
남원시	100	1
김제시	600	2
완주군	315	2
진안군	-	-
무주군	-	-
장수군	124	1
임실군	-	-
순창군	100	1
고창군	290	3
부안군	300	1

출처 ; 전라북도 노인아동과 내부자료 (2005,6,30현재)

6. 전라북도 특수보육시책 사업

지방자치 단체에 따라 자치 단체 독자적으로 특수 보육 시책을 개발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전라북도의 경우는 타 지역과 비교해서 특수보육 시책의 사업 내용과 예산 규모가 매우 열악한 형편이다. 다음 (표43)에서 볼 수 있듯이 서울시의 특수 보육 시책 예산은 모두 147,719,756 천원, 경기도 등의 특수 보육 시책 예산은 69,455,045천원으로 예산의 규모와 사업내용이 풍부하녀 매우 활발한 지지체의 보육 정책을 대변하고 있다. 또한 전라북도와 비슷한 충청남도가 6,168,250천원이며 충청북도 6,260,472천원인데 비해 전라북도의 특수 보육 시책 예산은 4,534,794천원으로 미흡한 수준이다.

<표 10-43> 전라북도 특수 보육시책 예산의 타 지역 비교

(단위:천원)

구분	전체	시도 (광역) 예산	시군 (기초)예산
서울시	147,719,756	103,820,698	43,899,058
경기도	69,455,045	35,820,050	34,165,995
충청남도	6,168,250	5,385,800	782,450
충청북도	6,260,472	105,700	6,154,772
전라남도	1,442,316	370,760	1,071,556
전라북도	4,534,794	317,550	1,317,244

출처 : 여성부 보육지원과 자료 재구성함 (2004,12,31현재)

1) 전라북도 특수보육시책 사업 및 예산

전라북도에서 자체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특수보육시책 사업과 예산은 다음 (표44)과 같다. 2000년에는 저소득 아동 간식비와 방과 후 보육 시설 지원 사업에 대한 515,000천원을 예산을 수립하였다. 2001년에는 저소득 아동 간식비와 방과 후 보육 시설 설치, 증개축 사업을 계획하여 976,626 천원의 예산을 집행 하였다. 2002년에는 저소득 아동 간식비, 방과 후 보육 시설 설치비, 보육시설 신축, 장비 지원 사업을 수립하여 1,446,400천원의 예산을 집행 하였다. 2003년에는 저소득 보육 간식비, 출산교사 대체 인건비, 국공립 시설 기능보강 사업, 이전신축, 증개축, 개보수

사업에 수립되고 2,009,020천원을 지원 하였다. 2004년의 경우에는 저소득 보육 간식비, 출산교사 대체 인건비, 장애아 보육 시설 장비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을 1,963,913천원을 집행 하였다.

<표 10-44> 전북 특수시책 사업 및 예산 (2000-2004년)

(단위:천원)

구분 년도분	예산	내역		사업량
2,000	515,000	저소득 보육 간식비	465,000	6,200명,1인 25원 10개소 당 5000천원
		방과후 보육시설 지원	50,000	
2,001	976,626	저소득 보육 간식비	776,626	10,355명
		방과후 교육 설치 지원	50,000	10개소
		증개축비	150,000	1개소
2,002	1,446,400	저소득 보육 간식비	1,203,000	16,040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지원	50,000	10개소
		보육시설 신축	191,400	1개소
		장비비	2,000	1개소
2,003	2,009,020	저소득 보육 간식비	1,530,883	17,010명
		출산교사 대체인건비	104,907	56명
		국공립시설 기능보강사업	373,230	5개소
		이전 신축	191,400	1개소
		증개축	95,700	1개소
		개보수	86, 170	3개소
2,004	1,963,913	저소득 보육 간식비	19,280	19,280
		출산교사 대체인건비	138,750	74명
		장애아 보육시설 장비비	1,805,883	9개소

출처 : 여성부 보육지원과 자료 재구성함 (2004,12,31현재)

2) 전라북도 각 시군별 특수보육 시책 현황

2005년 전라북도를 비롯한 각 시군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수 보육 시책을 계획하고 있다. 전라북도에서는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출산보육교사 대체 인건비, 농어촌 민간 시설 차량 운영비, 아동 학대 예방 종합교육, 보육인 한 마음대회, 유아 문화 축제 등의 시책사업을 계획하고 3,217,550천원의 예산을 수립 하였다. 전주시의 경우에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보육인 한마음대회, 방과 후 보육 시설교재 교구비, 보육대상 아동 가정 보육료 지원안내문 발송을 시책 사업으로 계획하고 384,164천원의 예산을 책정 하였다. 군산시는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 국공립 보육 시설 기능보강 사업지원을 특수 시책으로 채택하고 180,000천원을 예산을 수립 하였다. 익산시의 경우에는 보육 정보화 시스템 구축, 보육 정보화 사업 유지보수 지원, 모범 보육 시설 종사자 시상, 모범 보육시설 종사자 선진지 견학, 장애인 보육 시설 장비비 지원, 시립 어린이집 개보수 지원 등의 시책 사업에 이에 필요한 예산을 175,735천원을 확보 하였다. 정읍시는 보육시설 그림 잔치 3,000천원, 남원시는 보육 시설 종사자 교육 및 회의 참석 보상과 장애인 전담 보육 시설 교재 교구비 지원에 따른 예산 2,200천원을 예산 책정 하였다. 김제시는 공무원 자녀 보육비지원과 예산 100천원을 계획하고 있고 완주군은 보육 시설 종사자 강사수당, 공립보육 시설 신축비, 직원자녀 보육 수당을 사업으로 채택하고 307,440천원의 예산을 수립하고 있다. 진안군은 보육 아동 화합체육대회 5,000천원, 장수군은 보육시설 유아체육대회 3,000천원, 임실군은 공무원 자녀 보육 수당 77천원, 고창군과 부안군은 각각 475천원을 예산으로 책정하고 있다.

<표 10-45> 전라북도 각 시군별 특수 보육 시책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사업명	예산
전 북	저소득층 아동보육 간식비, 출산보육교사 대체인건비 농어촌 민간시설 차량운영비, 아동학대예방종합교육 보육인 한마음대회, 유아문화축제	3,217,550
전주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보육인 한마음대회, 방과후보육 시설교재교구비, 보육대상아동가정 보육료지원안내문발송	384,164
군산시	공무원자녀 보육료지원, 국공립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지원	180,000
익산시	보육정보화시스템구축, 보육정보화사업 유지보수비지원, 모범보육시설종사자 시상, 모범보육시설 종사자 선진지견학, 장애인보육시설 장비비지원, 시립 어린이집 개보수 지원	175,735
정읍시	보육시설 그림잔치	3,000
남원시	보육시설종사자 교육 및 회의참석 보상, 장애인 전담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2,200
김제시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	100
완주군	보육시설 종사자교육 강사수당, 공립보육시설 신축비, 직원자녀 보육수당	307,440
진안군	보육아동 화합 체육대회	5,000
무주군	해당사항 없음	
장수군	보육시설 유아체육대회	3,000
임실군	공무원자녀 보육수당 지원	77
순창군	해당사항 없음	
고창군	보육아동 보육료 지원 안내 및 보육시설 우편물발송, 보육사업 안내책자발간, 보육시설 전기, 가스, 안전점검지원 보육시설 어울 한마당, 공무원자녀 보육수당지급	475
부안군	보육료감면 실태조사 안내 우편발송	475
총계		4,534,794

출처 : 여성부 보육지원과 자료 재구성함 (2004,12,31현재)

7. 기타

전라북도 보육 정보 센터의 운영 현황, 전라북도 보육 아동의 상해 보험 가입 현황, 보육 시설의 화재보험 가입 현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전라북도 보육 정보 센터 운영 현황

보육 정보 센터의 설치 대상 지역은 전국의 234지역 이지만 현재는 24개 지역에만 설치되어 있다. 전라북도는 1개 지역에만 설치되어 있다. 보육 정보 센터의 직원은 전국에서 103명이 채용되어 종사하고 있는데 전라북도 정보 센터의 직원은 모두 5명이

다. 직원의 업무별 내용을 살펴보면 센터장 1명, 보육 지도원 2명, 전산 지도원 1명, 사무원 1명이다.

<표 10-46> 전라북도 보육 정보 센터 설치 현황

(단위 개소,명)

구분	설치현황			운영방법	직원채용현황					
	대상	설치	미설치	위탁	계	센터장	보육지도원	전산지도원	영양사	사무원
전국	234	24	210	23	103	24	52	11	9	5
서울	25	3	22	3	12	3	6	1	1	-
경기	31	7	24	7	30	7	12	2	1	-
전북	14	1	13	1	5	1	2	1	-	1

출처 : 여성부 보육기획과 자료를 재구성함 (2004,12,31)

2) 상해보험 가입 현황

전라북도 전체 보육 시설 1,146개 시설에서 상해 보험에 가입한 시설은 1,122개 시설이다. 이 중에서 국공립 보육 시설의 경우 34개 시설에서 2,367명이 가입하였고 법인 보육 시설은 170개 시설에서 13,535명의 아동, 법인 외 보육 시설에서는 79개 시설에서 3,947명의 아동이 상해 보험에 가입 하였다. 개인이 운영하는 보육 시설에서는 394개 시설에서 21,883명의 아동, 직장 보육 시설은 4개 보육 시설에서 205명의 아동, 가정 보육 시설은 441개 시설의 4,238명의 아동이 상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 아동의 경우 138명의 아동 중 55명만이 상해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표 10-47> 전라북도 보육 시설 및 아동의 상해보험 가입현황

(단위:개소)

구분	시설수	가입시설 (계)	정부지원시설					
			국공립		법인		법인의외	
			시설수	아동수	시설수	아동수	시설수	아동수
전국	26,903	26,549	1,349	107,310	1,536	135,635	966	48,037
전북	1,146	1,122	34	2,367	170	13,535	79	3,947

구분	개인		직장		가정놀이방		장애아동(아동수)	
	시설수	아동수	시설수	아동수	시설수	아동수	가입	미가입
전국	12,138	487,517	241	11,708	10,318	117,286	8,411	436
전북	394	21,883	4	205	441	4,238	138	55

출처 : 여성부 보육지원과 자료 재구성함 (2004,12,31현재)

3) 화재 보험 가입 현황

전라북도의 보육 시설 1,146개 시설 중 화재 보험에 가입한 보육 시설은 1,118개 시설로 약 97%의 보험 가입 율을 나타냈다. 설립 주체별 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국공립 보육 시설이 31개소, 법인 보육시설 170개소, 법인 외 보육 시설 75개소, 개인보육시설 394개소, 직장 보육시설 4개소, 가정 보육시설 441개소이다.

<표 10-48> 전라북도 보육시설 화재보험 가입 현황

(단위:개소)

구분	시설수	가입시설	설립주체별 가입보육시설수					
			국공립	법인	법인외	개인	직장	가정
전국	26,903	26,559	1,349	1,553	944	12,164	241	10,308
전북	1,146	1,118	34	170	75	394	4	441

출처 : 여성부 보육지원과 자료 재구성함 (2004,12,31현재)

제 4 절 맺는말

전라북도의 보육사업 역시 영유아 보육법 개정과 지방 분권시대, 그리고 저 출산 고령화 현상이란 사회적 위기 앞에서 양적 성장을 마무리하고 질적 수준 향상과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확대하며 사회적 역할을 충족해야 하는 중요한 지점에 서있다. 특히 2005년부터는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보육 시설 평가 인증제가 전라북도에서도 시범적으로 실시 될 전망이고 전주시에서 보육조례가 제정 되었고 전라북도에서도 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지역 현실에 맞는 보육 여건의 새로운 조성이 관건이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시점에서 전라북도 보육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은 전라북도 보육의 방향 정립과 정책 마련의 기초가 되고 전북의 보육 발전에 밑그림이 되길 기대하며 전북 보육의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사항을 첨가 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첫째, 전라북도 보육 공급이 이미 수요를 초과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보육 시설을 확대 할 경우 양적 확대 보다는 필요한 지역과 대상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가 있어야 하겠다. 아직도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과 대상을 발굴하고 여기에 부응하는 시설 설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서비스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겠다.

둘째, 보육 시설이 설치가 도시 중심의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향후에는 균형발전을 위한 보육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즉 농어촌 지역의 보육 발전과 장애아 보육 통합 보육과 같이 특수 보육에 대한 전라북도의 보육 정책이 수립 될 필요가 있었다.

셋째, 전라북도의 지자체 특수보육 시책이 내용과 예산 면에서 매우 열악함을 감안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개선과 보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주민의 욕구와 지역 현실에 맞는 특수 시책이 개발되어야하고 필요한 예산이 확보 되어야 한다.

넷째, 보육 시설 평가 인증과 관련하여 평가를 통해 보육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통한 준비가 이루어 져야 하겠다.

제 11 장

여성의 복지서비스 실태와 지원방안

- 제 1 절 서론
- 제 2 절 여성과 복지
- 제 3 절 맺음말

제 11 장 여성의 복지서비스 실태와 지원방안

윤명숙(전북대학교 교수)

제 1 절 서 론

현대사회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변혁의 시대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경제적 발전은 여성에게 매우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여성의 역할이 변화하였으며, 가정과 사회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지위가 변화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여성의 욕구에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사회복지의 일차적 관심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들에 대한 해결이다. 사회복지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욕구들을 충족시켜주는 것으로 빈곤, 질병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개인과 집단, 가족을 보호하는데 있다. 따라서 산업사회의 시장경제체계 하에서 여성의 생존을 위한 제반 욕구, 특히 여성들의 가사노동과 취업이라는 역할 수행에 따른 이중고를 해소하고 완화하며, 성 차별을 없애는 사회지원 체계인 사회복지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사회복지예산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의 예산을 차지하는 분야가 바로 여성복지서비스 분야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의 대상이 되는 여성 문제는 사회 구성원이 되는 모든 여성들을 포함하는 일반여성 문제와, 사회적으로 인식된 구체적 욕구와 문제를 표출하는 요보호 여성문제 등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인 일반여성문제는 사회적 자원의 결핍문제와 가부장제하에서 생기는 불평등과 성차별의 문제영역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그리고 후자인 요보호 여성의 문제는 여성가구조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구 여성, 미혼모, 근로여성, 자활수급 여성, 기초생활보장수급여성, 외국이주여성, 장애여성, 여성노인 등을 들 수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복지현황과 더불어 전라북도 여성들 특히 요보호대상 여성들의 현황과 욕구 및 문제점을 탐색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전북지역 여성들의 사회복지서비스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나아가야 할 복지 정책에 대한 제언을 통해 전라북도 여성들의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범위는 요보호여성중심으로 기술하였으며 여성빈곤,

여성장애인, 여성노인, 외국이주여성으로 크게 범주화하였고 마지막으로 일반 여성들의 복지관련 서비스 현황을 개괄적 살펴보았다. 각 범주와 연결하여 관련 소주제별로 자료를 정리하였으며,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및 실제적인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지난 5년 이내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제 2 절 여성과 복지

1. 여성 빈곤과 사회복지

한국은 빈곤의 여성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회라고 볼 수 있다. 즉,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50%에도 미치지 않는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2002년 말 현재 47.9%)이 특징적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내용도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을 특징으로 하는 임시직·일용직·시간제 등 비정규직 고용 형태 및 영세 자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역사도 짧을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제도의 참여도 경제활동의 기간과 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성의 대부분이 고용보험, 연금보험 등 사회보장제도로부터도 배제되어 있어(석재은, 2003), 결과적으로 배우자의 사망, 가출 혹은 이혼, 질병 등으로 여성가구주가 되었을 경우 빈곤상태에 놓일 위험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과 사회보험체계의 완성으로 다양한 소득상실 위험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함으로써 절대 빈곤율을 감소시켰다고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여성은 여전히 빈곤계층의 대표적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1) 여성가구주와 빈곤문제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에 의하면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비율은 16.7%로, 남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 6.4%보다 2.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3). 즉, 우리나라는 빈곤의 여성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회이다. 이혼의 증가, 고령화로 인하여 여성 가구주 가구는 계속 증가해 왔는데 비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가족 내 성역할, 사회보장 체계에서 경제적 자원 배분의 소외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가구의 생계

를 책임지는 여성가구주는 1975년 850,000명에서 2003년 현재 3.4배 증가한 2,018,000명에 이르고 있고, 여성 가구주 가구의 비율은 1975년 12.8%에서 2003년 19.1%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표 11-1>.

<표 11-1> 여성가구주 비율 추이

(단위 : 천 가구, 천명, %)

	가 구1)	여성가구주	남성가구주	여성가구주 비율
1975	6,648	850	5,798	12.8
1980	7,969	1,169	6,801	14.7
1985	9,571	1,501	8,070	15.7
1990	11,355	1,787	9,568	15.7
1995	12,958	2,147	10,811	16.6
2000	14,312	2,653	11,659	18.5
2001	14,834	2,775	12,059	18.7
2002	15,064	2,845	12,218	18.9
2003	15,298	2,918	12,379	19.1

주 : 1) 1975년은 보통가구, 1980년 이후는 일반가구임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년도,

2001년 이후는 「2002년 장래가구추계」 자료임.

전라북도의 경우 15세 이상 인구 중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2년 47.9%를 차지하고 있다. 전라북도 여성 가구주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표 11-2>, 1995년 110,539 가구로 여성 가구주 비율이 전체 가구 수의 18.5%를 차지하였고, 2000년 129,091가구로 21.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평균(18.5%)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서 전북지역 여성 가구주의 양적 증가와 함께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가구주 발생의 변화추이를 혼인상태별(발생원인별)로 살펴보면 발생원인 중에서는 사별로 인한 여성가구주의 발생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별로 인한 여성가구주의 절대적 수치는 완만하게 증가하였으나 전체여성가구주에서 사별이 차지하는 비율은 70.4%에서 65.5%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가장 급속한 증가 추이를 보이는 여성 가구주 발생원인은 이혼으로 10년 사이 2,658건(2.8%)에서 8,895건(6.9%)으로 3.5배 증가하여 여성가구주 발생의 주요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미혼의 여성가구주들이 12.0%에서 13.4%로 완만하고 점진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경제적 자립능력이 있는 여성들의 미혼 경향을 보이는 세태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2> 전북지역 혼인상태별 여성가구주

(단위: %, 명)

년 도	계	유배우	사별	이혼	미혼	여성가구주 비 율
1990	100.0 (95,844)	14.8 (14,175)	70.4 (67,461)	2.8 (2,658)	12.0 (11,446)	18.5
1995	100.0 (110,539)	12.9 (14,249)	70.8 (78,328)	3.7 (4,080)	12.6 (13,882)	19.8
2000	100.0 (129,098)	14.2 (18,337)	65.5 (84,616)	6.9 (8,895)	13.4 (17,184)	21.4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1990, 1995, 2000)
전라북도, 「전북여성통계연보 2000」

여성가구주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3년 현재 48.3%로 OECD 평균인 64%에 훨씬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이고(통계청, 2003), 남성가구주 경제활동참가율 88.9%에 비해서는 24.9% 낮은 수준이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의 질도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을 특징으로 하는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등 비정규직 고용 형태 및 영세 자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대부분이 경제활동의 기간과 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고용 보험, 연금보험 등 사회복지제도로부터도 배제되어 있고, 여성의 보살핌 노동 및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보상은 거의 부재하다. 따라서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위험은 남성가구주 가구에 비하여 최저 2.36배에서 최고 3.12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가구주 가구가 남성가구주 가구보다 빈곤율이 최저 12.64%p 에서 최고 15.24%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보건사회연구원, 2003).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약 142만4천명(75만3천 가구)으로 전 인구 대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인 수급률은 2.9%로 나타나고 있다. 수급자의 종류별로 보면, 일반수급자가 대부분인 93.9%이며, 시설수급자는 6.1%를 차지하

고 있다.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수급률을 보면<표 11-3>, 전남이 6.7%, 전북 5.9%, 경북 4.6%, 충남 4.1%의 순이며, 울산이 가장 낮은 1.6%로 전북 지역이 매우 높은 수급률을 나타내 빈곤의 문제가 매우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11-3> 지역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

(단위: %)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9	1.7	3.2	3.2	2.3	3.8	2.8	1.6	1.8	3.9	3.7	4.1	5.9	6.7	4.6	3.2	3.7

주: 수급률 = 지역의 수급자수/지역의 전체인구 × 100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을 성별로 살펴보면<표 11-4>, 성별수급률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16.3%가 더 많고, 모든 연령층에서 여자가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2004년 12월 현재 일반수급자 중 여성수급자 수는 775,640명으로 일반수급자 중 58%를 차지하고 있다.

<표 11-4>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현황 - 수급자 성별

(단위: 명)

	계	남	여
2001	1,345,526	567,025	778,501
2002	1,275,625	533,167	742,458
2003	1,292,690	541,233	751,457
2004	1,337,714	562,074	775,640

출처: 보건복지부

전라북도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 현황을 살펴보면<표 11-5>, 2005년 6월말 현재 115,647명으로 전북인구 중 6.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은 71,018

명으로 인구대비 3.75%를 차지하고 있다. 각 시·군별 실태를 살펴보면 김제시가 10.61%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저소득층은 고창군이 7.0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5> 전라북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 현황

(기준 : 2005. 6월말, 단위: 명)

시·군	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층		
	가구	가구원	인구 대비	가구	가구원	인구 대비	가구	가구원	인구 대비
계	114,005	186,665	9.85%	59,620	115,647	6.10%	54,385	71,018	3.75%
전주시	22,307	39,160	6.29	10,431	22,249	3.57	11,876	16,911	2.71
군산시	14,381	24,207	9.16	8,128	16,164	6.12	6,253	8,048	3.04
익산시	16,712	27,356	8.53	8,416	16,823	5.24	8,296	10,533	3.28
정읍시	12,875	20,689	15.81	6,416	12,228	9.34	6,459	8,461	6.46
남원시	7,392	12,226	12.85	4,058	8,009	8.42	3,334	4,285	4.51
김제시	10,163	16,629	15.97	5,986	11,043	10.61	4,177	5,615	5.39
완주군	6,051	9,131	10.94	3,124	6,163	7.39	2,927	2,968	3.56
진안군	2,309	3,478	12.46	1,363	2,334	8.36	946	1,146	4.11
무주군	2,439	4,210	16.13	1,463	2,568	9.84	935	1,517	5.81
장수군	2,173	3,371	13.47	1,214	2,219	8.87	959	1,152	4.60
임실군	2,508	4,094	12.49	1,457	2,650	8.08	1,051	1,433	4.37
순창군	2,279	3,361	10.92	1,277	2,135	6.94	1,002	1,210	3.93
고창군	6,386	9,478	14.67	2,798	4,979	7.71	3,588	4,527	7.01
부안군	6,071	9,157	13.86	3,489	6,083	9.21	2,582	3,212	4.86

주 : 일반, 특례수급자는 복지행정DB자료 인원

주 : 저소득층은 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경로연금, 보육료, 모부자가정, 장애인지녀학비), 차상위(의료급여, 자활근로자) 인원

출처 : 전라북도 사회복지과

전라북도의 경우 2004년 12월 현재 전체 수급자 수는 108,201명이며 이중 여성수급자는 62,820명으로 전체수급자의 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일반수급자 여성 평균비율인 58%와 동일한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율은 전남여성의 59%보다는 다소 낮으나 전국적으로 균등한 비율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1-6>.

<표 11-6>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현황- 시도, 성별

(기준 : 2004년 12월말, 단위: 명)

지역	전체	남성	여성
서울	160,100	66,578	93,522
부산	109,061	46,559	62,502
대구	75,270	31,489	43,781
인천	56,947	23,682	33,265
광주	50,142	20,869	29,273
대전	37,384	16,029	21,355
울산	16,757	7,302	9,455
경기	180,897	76,849	104,048
강원	56,979	24,470	32,509
충북	50,428	21,516	28,912
충남	76,109	32,151	43,958
전북	108,201	45,381	62,820
전남	127,475	52,035	75,440
경북	117,265	48,959	68,306
경남	95,605	40,352	55,253
제주	19,094	7,853	11,241

출처: 보건복지부

전라북도 일반수급자 여성들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표 11-7>, 전체적으로 여성의 일반수급자 현황은 노년기가 가장 높은 34%이고, 다음 중년기(28.3%), 청소년기(17.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북여성 일반수급자의 경우에도 65세 이상 여성들의 일반수급비율이 34%로 나타나 여성노인들의 빈곤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보건사회연구원(2003)의 조사에 따르면 가구주 연령이 20세 미만인 경우에는 남성 가구주와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이 10% 수준으로 유사하나, 20-64세 연령층의 경우에는 남성이 가구주는 5.3%, 여성가구주는 11.8%로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위험이 2.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남성이 가구주는 29.3%, 여성가구주는 56.1%로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위험이 1.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여성노인들 역시 여성노인가구주 100가구 중 56가구정도는 빈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들 여성 노인 가구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시급한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자료에 따르면 1996년의 경우 20세 미만 1.3%, 20-64세 83.1%, 65세 이상 15.5%였던 것에 비해 2000년에는 20세 미만 0.7%, 20-64세 76.5%, 65세 이상 22.7%로 타 연령계층에 비하여 65세 이상 연령계층에서 여성가구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인구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자녀동거비율이 낮아진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11-7> 일반수급자 연령별현황(여자)

(기준 : 2004년 12월말, 단위: 명)

지역	계	0 ~ 4	5 ~ 9	10 ~ 14	15 ~ 19	20 ~ 24	25 ~ 29	30 ~ 34	35 ~ 39
2004	775,640	14,696	40,263	62,208	71,081	25,248	10,418	23,765	44,871
전 북	62,820	1,279	3,371	4,870	5,692	2,528	1,016	1,995	3,431

40 ~ 44	45 ~ 49	50 ~ 54	55 ~ 59	60 ~ 64	65 ~ 69	70 ~ 74	75 ~ 79	80세 이상
58,744	47,837	31,431	31,913	49,679	70,094	72,412	59,394	61,586
4,313	3,657	2,531	2,729	3,900	5,509	5,830	4,832	5,337

출처: 보건복지부

2000년 10월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활대상자의 근로능력 및 의욕을 고취시키고, 취업 및 창업지원 등을 위해 자활사업이 실시되었다. 자활사업 수행을 위한 자활후견기관이 1999년 20개소, 2000년 70개소, 2004년 12월 현재 242개소로 확대되었다. 2004년 9월말 현재 자활사업에 참여자는 기초생활수급자 64,540명, 차상위계층은 21,186명으로 총 85,726명에 달하고 있다. 자활사업 참여자 중 여성의 비율이 67%로 남성에 비해 다소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표 11-8>.

<표 11-8> 2004년도 자활사업 참여 현황

(기준: 2004년 9월말 현황, 단위: 명)

< 자활사업 대상자 기준 >

구 분	총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소 계	조건부 수급자	자 활 특례자	일 반 수급자	
총 계	52,619	37,706	29,059	5,304	3,343	14,913
누계 (1-9월)	85,726	64,540	49,940	8,632	5,968	21,186

< 자활사업 프로그램 기준 >

구 분	총계	보건복지부							노동부
		소계	자활 공동체/ 개인창업	자활근로			지역봉사 사회적 프로그램	공동 작업장 등 기타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
			시장 진입형	사회적 일자리형	근로유지형 (지자체형)				
총 계	52,619	50,642	1,926	5,001	12,506	26,345	3,017	1,847	1,977
누계 (1-9월)	85,726	81,176	2,662	8,921	19,528	41,604	5,067	3,394	4,550

출처: 보건복지부

전라북도 자활사업 참여자 및 여성비율을 살펴보면<표 11-9>, 전체 사업 참여자수는 4,223명이며 이 중 여성은 2,906명으로 68.8%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근로빈곤가구 중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과 연결되어 있으며, 동시에 성인지적인 여성자활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즉, 빈곤 여성과 그 가족이 처해 있는 상황은 여성의 자활 장애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복합적인 문제를 고려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빈곤은 경제적 가난함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건강상태의 부실, 사회적 고립, 스트레스, 낙인, 무기력을 동시에 경험함을 의미한다. 때문에 여성이 빈곤상태에 있다는 것은 여성이 한 사람의 사회 성원으로 생존하기 위해 보다 많은 신체적, 심리적 노력을 필요로 한다. 또한 빈곤의 상태는 여성 자신의 삶과 자녀 그리고 그 여성이 부양하고 있는 성인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훨씬 더 큰 사회적 의미를 가진다. 특히 빈곤 여성과 그 가족은 일반 빈곤 가정들과는 다르게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 배제를 동시에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역 복지 인프라의 구축을 통해 경제적, 정서

적, 사회적 자활을 동시에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표 11-9> 전라북도 자활사업 현황-시군, 성별

(단위 : 명)

지역	전체	남성	여성
전라북도	4,223	1,317	2,906
전주	721	211	510
군산	598	135	463
익산	506	269	237
정읍	471	134	337
남원	285	67	218
김제	321	127	194
완주	151	59	92
진안	137	35	102
무주	125	30	95
장수	112	36	76
임실	128	34	94
순창	78	22	56
고창	263	64	199
부안	327	94	233

출처: 전라북도 사회복지과 내부자료

3) 모자가족

한부모가족(모, 부자 가족)의 발생은 흔히 배우자의 사망 별거, 이혼, 유기, 미혼부모에 기인한다. 우리나라에서 한부모 가족을 발생시키는 가장 빈번한 원인은 배우자의 사망과 이혼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서는 가장의 실질직과 가족경제의 파탄으로 인해 이혼에 이르거나 혹은 별거, 유기 등을 경험하는 가족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혼율의 증가와 맞물려 한부모 가족의 형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별에 의한 형성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인구사회학적 및 경제적 특성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보건복지부, 2002), 연령에 있어서는 남성가구주의 평균연령은 60.6세이며 여성가구주의 평균연령은 65.6세로 여성가구주가 약 5세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결혼 상태를 살펴볼 경우, 남성가구주의 55%가 배우자가 있는 반면에 여성가구주는 이혼·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91.7%에 이르러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배우자유무가 기초보장수급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전라북도 지역의 일반수급 가구의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가구, 노인 가구, 장애인가구에 이어 모자가구는 4,289가구로 전체 가구의 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1-10>.

<표 11-10> 일반수급가구 세대구분(가구유형)별 현황 - 시도별

(단위: 가구)

시 도	계	노인세대	소년소녀 가장세대	모자세대	부자세대	장애인 세 대	일반세대	기 타
2004	753,681	240,030	14,387	70,951	17,916	123,418	249,393	37,586
서울	90,887	28,203	1,206	10,657	2,240	15,719	27,458	5,404
부산	61,949	17,243	1,080	6,933	1,883	10,265	21,400	3,145
대구	39,050	9,022	625	5,546	1,047	5,737	15,228	1,845
인천	31,198	9,226	761	4,237	835	5,233	9,206	1,700
광주	24,163	5,153	542	4,351	840	3,593	8,669	1,015
대전	19,241	4,447	248	2,722	610	3,069	7,201	944
울산	9,569	2,458	188	1,039	283	1,473	3,496	632
경기	104,651	34,093	2,132	10,808	2,654	17,065	31,169	6,730
강원	33,574	11,970	881	2,371	672	6,016	9,806	1,858
충북	28,443	9,382	630	1,890	506	4,892	9,755	1,388
충남	43,270	15,290	587	2,729	779	7,850	13,985	2,050
전북	58,241	18,782	1,117	4,282	1,126	10,583	20,601	1,750
전남	72,845	28,008	1,521	4,087	1,375	10,179	24,890	2,785
경북	68,602	23,669	1,229	4,528	1,375	10,590	24,477	2,734
경남	57,294	19,450	1,319	3,747	1,309	9,491	19,047	2,931
제주	10,704	3,634	321	1,024	382	1,663	3,005	675

출처: 보건복지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사업은 부녀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수혜만을 제공하고자 하는 한국의 잔여적 사회복지의 대표적 사업이다. 1989년 제정된 모자복지법이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되어 우리나라 한부모 가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의 근거가 되고 있다. 전라북도에서는 <표 11-11>에 나타나 바와 같이 이들 대상 집단에 대한 생활안정을 위한 자립금, 생계유지비, 월동비 및 피복비, 자녀의 학비보조금이 1998년 이후 대부분 매년 증액되었고,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지원도 확대되었다. 2001년의 경우, 모·부자가정 100세대를 대상으로 15000,000원의 자립금이, 790세대를 대상으로 198백만 원의 월동비 및 피복비가 지원되었다. 852명을 위한 379백만 원의 양육비 및 중고생 학비와 1,342명의 대학입학생을 위한 383백만 원 입학금은 자녀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었다. 한부모가정이 저소득층이거나 장애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여성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자녀보육료의 전액 또는 일부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저소득층이 아닌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자녀지원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전라북도의 해당 개별 가구에 지원된 금액을 살펴보면 현실적으로 낮은 지급수준이므로 이를 자립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6개소의 모자보호시설 운영비와 시설기능 보강비 1,168백만 원은 1998년에 비해 300백만 원 증액된 액수이다. 그밖에 전라북도 지역의 공부방이나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복지관, 초등학교의 에듀케어(Educare)사업, 2005년부터 확대된 초·중·고에서의 교육복지사업 및 학교사회복지사업 등으로 통해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급식, 방과 후 보호와 지도, 문화적 경험, 심리사회적 지원 등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표 11-11> 저소득 모 · 부자가정 지원 사업 추진실적

세부사업	1998	1999	2000	2001
모 · 부자가정 실태조사	-	완료	-	-
생활안정 및 자립능력 배양	100세대에게 100백만 원 자립금 지원, 세대주 1,650명 대상 건강진단 사업비 146백만 원 지원	100세대에게 100백만 원 자립금 지원, 1,870세대 대상 187백만 원 생계유지비 지원, 수기공모, 수기집 700부 발간	85세대 대상 자립금 85백만 원 지원, 1,088세대 월동비 및 피복비 162백만 원 지원	100세대 대상 자립금 150백만 원 지원, 790세대 세대 월동비 및 피복비 198백만 원 지원
자녀의 건전한 성장 지원	대학신입생 107명에게 입학금 107백만 원 지원, 아동양육비 중, 실업고생 791명에게 286백만 원 지원, 중학생 2,756명에게 부교재비 및 용돈 81백만 원 지원	323명 대상 자녀양육비 62백만 원 지원, 1,004명 대상 자녀학비 447백만 원 지원, 1,461명 대상 학용품비, 참고서, 교통비 58백만 원 지원	961명 대상 양육비 및 중고생학비 62백만 원 지원, 1,996명 대상대학입학금 271백만 원 지원	852명 대상 양육비 및 중고생학비 379백만 원 지원, 1,342명 대상 대학입학금 383백만 원 지원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등 지원	6개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보호비, 기능보강비 856백만 원 지원	6개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보호비, 기능보강비 875백만 원 지원, 시설종사자 23명 교육 및 비교견학 1회 실시	6개소 운영비, 보호비, 기능보강비 1,715백만 원 지원	6개소 운영비 및 생계비 993백만원, 5개소 시설기능보강사업비 175백만 원 지원

출처 :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2002), 전라북도 여성정책평가 및 발전방향 탐색을 위한 연구 pp.138-139.

2004년 12월 현재 전라북도의 모 · 부자시설현황을 살펴보면<표 11-12>, 모자시설이 원광, 신광, 성애, 이산모자원 4개소, 모자자립시설 1개소, 모자일시보호시설 1개소로 인구 규모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나, 전라북도 지역의 여성가족주 가족, 저소득층비율 등을 감안할 때 보다 확충될 필요성이 있다.

<표 11-12> 모·부자복지시설 현황

(단위:개소수, 2004. 12. 31 현재)

	계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모자일시보호시설		미혼모시설	
		시설 수	시 설 명	시설 수	시 설 명	시설 수	시 설 명	시설 수	시 설 명
전북	6	4	원광, 신광, 성애, 이산모자원	1	신광자립원	1	삼성여성쉼터		-
전국	69	40		4		14		11	

출처 : 여성가족부 모부자복지사업 자료실

4) 사회복지시설입소 여성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비율을 살펴보면, 2002년 현재 장애인시설의 여성입소자는 404명으로 44.9%, 아동복지시설은 471명으로 42.5%,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324명 34.8%, 부랑인시설 120명 34.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1-13>. 전체적인 시설입소자 중 장애인시설의 여성입소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관련 사회복지시설내 성인지적 서비스가 사실상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시설 입소 여성들의 특성에 적합한 복지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이 요청된다.

<표 11-13> 전북의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수 및 여성비율 (1998 ~ 2002)

(단위 : 개소, 명)

구분	장애인 시설			아동복지시설			정신질환자요양시설			부랑인 시설		
	시설 수	입 소 자		시설 수	입소자		시설 수	입 소 자		시설 수	입 소 자	
		여자	여자 비율		여자	여자 비율		여자	여자 비율		여자	여자 비율
1998	10	300	44.7	18	523	42.5	5	431	35.3	4	164	37.2
1999	11	323	48.5	18	523	42.6	4	320	34.4	4	153	37.4
2000	11	335	48.0	18	505	41.6	4	325	51.7	4	148	35.4
2001	14	395	46.8	18	493	42.6	4	333	34.1	4	130	35.1
2002	14	404	44.9	18	471	42.5	4	324	34.8	4	120	34.5

주 : 입소자는 연말 현재 재소자를 기준으로 함.

출 처 : 전라북도 여성정책 평가 및 발전방향탐색을 위한 연구(2002), p.137 ~ p.143

2. 여성 장애인과 복지서비스

현재 정부에 등록된 장애인은 전체인구의 약 120만 명이며 미등록자까지 포함하면 전체인구의 3.09%인 150만 명으로 추정된다(보건복지부, 2001). 현대사회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여성노인 인구의 증가와 여성의 사회, 경제활동 참여의 꾸준한 증가로 인한 산업재해나 교통사고의 발생 또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어 여성 장애인의 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국 장애인의 성별분포를 보면(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전체 장애인의 38.3%인 총 53만 명이 여성장애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규모는 1980년에 32만여 명, 1995년 47만 명 이후 여성장애인의 출현이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음을 확인 시켜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전라북도의 경우 2004년 12월 말 현재 등록된 전체 장애인은 91,959명이며 이중 여성장애인은 35,358명 38.4 %로 보고되고 있다. 1급 장애인의 경우 전체 8541명중 여성이 3737명으로 43%를 차지하고 있고, 2급 장애인의 경우 전체 17131명 중 7171명으로 4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14 >.

<표 11-14> 장애인 등록현황

(기준: 2004년. 12월말, 단위 : 명)

구분		합 계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합계	계	91,959	8,541	17,131	17,492	12,913	16,376	19,506
	남	56,601	4,804	9,960	11,141	7,912	9,509	13,275
	여	35,358	3,737	7,171	6,351	5,001	6,867	6,231
전주	계	22,736	1,965	3,806	4,437	3,067	4,409	5,052
	남	13,670	1,085	2,172	2,733	1,847	2,458	3,375
	여	9,066	880	1,634	1,704	1,220	1,951	1,677
군산	계	12,468	1,051	2,085	2,504	1,663	2,252	2,913
	남	7,865	574	1,218	1,629	1,030	1,372	2,042
	여	4,603	477	867	875	633	880	871
익산	계	14,712	1,612	2,995	2,653	2,032	2,380	3,040
	남	9,147	903	1,701	1,702	1,274	1,453	2,114
	여	5,565	709	1,294	951	758	927	926
정읍	계	7,503	859	1,512	1,375	1,047	1,299	1,411
	남	4,569	494	881	887	638	754	915
	여	2,934	365	631	488	409	545	496
남원	계	5,380	437	1,154	1,031	744	861	1,153
	남	3,338	255	665	655	465	517	781
	여	2,042	182	489	376	279	344	372
김제	계	7,414	623	1,414	1,434	1,136	1,282	1,525
	남	4,534	372	820	905	689	740	1,008
	여	2,880	251	594	529	447	542	517
완주	계	5,123	549	976	997	674	905	1,022
	남	3,137	305	591	640	403	485	713
	여	1,986	244	385	357	271	420	309
진안	계	1,723	164	319	290	278	298	374
	남	1,082	97	187	190	183	163	262
	여	641	67	132	100	95	135	112
무주	계	1,561	129	290	270	251	302	319
	남	977	69	177	183	143	180	225
	여	584	60	113	87	108	122	94
장수	계	1,592	110	295	328	258	248	353
	남	986	61	166	229	154	144	232
	여	606	49	129	99	104	104	121
임실	계	2,210	191	384	419	331	431	454
	남	1,366	108	221	261	207	244	325
	여	844	83	163	158	124	187	129
순창	계	1,957	166	408	360	285	337	401
	남	1,208	93	251	245	168	186	265
	여	749	73	157	115	117	151	136
고창	계	3,746	369	749	653	540	706	729
	남	2,338	199	461	424	333	417	504
	여	1,408	170	288	229	207	289	225
부안	계	3,834	316	744	741	607	666	760
	남	2,384	189	449	458	378	396	514
	여	1,450	127	295	283	229	270	246

출처: 전라북도 사회복지과

전라북도 장애인의 유형별 등록 현황을 장애유형별, 성별로 살펴보면 <표 11-15>, 여성장애인은 지체장애 18,784명, 뇌병변 3,499명, 시각장애 3,455명, 청각장애 3,432명, 정신지체 3,156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11-15> 전라북도 장애유형별, 성별 장애인등록 현황

(기준: 2004년 12월, 단위 : 명)

구분	지체	뇌 병 변	시각	청각 (2~6)	언어 (3~4)	정신 지체 (1~3)	발달 (1~3)	정신 (1~3)	신장 (2,b)	심장 (1~3,b)	호흡기 (1-3)	간장애 (1-3,b)	안면 (2~4)	장루 요루 (2-b)	간질 (2-4)	
합 계	계	51,274	7,932	9,230	7,980	854	7,555	251	3,910	1,286	404	450	149	62	403	459
	남	32,490	4,433	5,775	4,548	625	4,399	199	2,162	795	235	364	123	28	281	260
	여	18,784	3,499	3,455	3,432	229	3,156	52	1,748	491	169	86	26	34	122	199

출처: 전라북도청

이처럼 여성장애인의 수는 점증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여성장애인은 불평등한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의 차별 속에서 사회적 소외를 경험하고 있다. 특별히 경제활동실태에서도 여성장애인은 일반여성들은 물론 남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수준에도 절대적으로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장애인 고용 및 노동정책이 이들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원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 정보의 부족, 무감각한 치료, 그리고 여성장애인이 성적이지 않다는 가정들 때문에 여성장애인은 필요한 재생산서비스와 산과보호, 적절한 교육 등을 받지 못하는 경향이 높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자립도는 매우 낮으므로 여성장애인들의 임신출산비용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전문적인 의료시설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장애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남성장애인에 비해 자녀양육과 가사노동, 그리고 교육기회의 제한으로 사회활동에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다. 또한 이것은 직업생활로 연결되어 취업 기회의 부족, 불평등한 임금,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의 조사에 따르면 장애 및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장애에 대한 진단비율에서 남성장애인은 94.1%가 진단을 받은 반면, 여성장애인은 87.5%만 진단을 받음으로써 본인이나 가족의 장애에 대한 인식에서 남녀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단을 받은 시기에서도 남녀 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남성이 증상이 나타난 직후 진단을 받은 비율이 75.5%인데 반해 여성장애인은 65.9%였으며, 3년 이후로 진단시기가 지연된 비율에 있어서도 남성이 6.4%인데 비해 여성 8.1%로 더 지체되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치료받지 않은 비율에서 남성이 13.0%인데 비해 여성이 19.0%로 더 높아 전반적으로 여성장애인은 신속한 진단이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통계청의 장애인육구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가장 높은 전라북도 및 전국장애인들의 육구는 “장애인을 이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었으며, “일자리 제공”, “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나타났다<표 11-16>. 이것은 장애인들이 남·여 성차에 관계없이 사회적 지지와 생산성 증진을 위한 직업을 가장 많이 원한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1-16> 장애인 욕구 실태조사 (2002)

(단위 : %)

구 분	15세 이상 인 구	일 자 리 제 공	장 애 인 을 이 해 하 는 사 회 적 분 위 기 조 성	편 의 시 설 확 충	장애아교육 시 설 확 충
전 국	100.0	33.4	37.8	11.7	2.8
여	100.0	32.5	37.1	11.9	2.9
남	100.0	34.2	38.7	11.5	2.6
전 북	100.0	33.1	36.8	11.1	3.0
여	100.0	32.4	35.1	11.0	3.3
남	100.0	34.0	38.6	11.1	2.6
구 분	의 료 시 설 확 충	교육기회 제 공	경제적 지원	기 타	모르겠음
전 국	3.7	1.5	6.3	0.0	2.8
여	3.9	1.4	6.6	0.0	3.6
남	3.5	1.5	6.0	0.1	2.0
전 북	5.0	1.6	7.3	-	2.1
여	6.0	1.6	7.8	-	2.8
남	3.8	1.6	6.8	-	1.4

출 처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2003)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업은 1998-1999년에는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인 복지서비스와 구분되지 않아서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 가정 영아양육비 지원 등의 사업을 함께 실시하다가 2000년 이후에야 비로소 여성장애인에 대한 접근이 시도되기 시작하였다<표 11-17>. 여성장애인단체 지원 사업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 2001년 현재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와 컴퓨터 운영을 위해 6백만 원이 지원되고 있다. 앞으로 여성장애인을 위한 가정사회생활 지원 프로그램 더욱 내실 있게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표 11-17 > 여성장애인 법적, 제도적 생활보호 사업 추진실적

세부사업	1998	1999	2000	2001
공공공중이용시설내의 편의시설 설치, 홍보책자 발간	64,455개소 편의시설 실태조사 실시 4,881개소 근린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 내 4,881개소 횡단보도, 턱낮추기 설치, 홍보책자 500부 제작, 시·군·읍·면·동에 배부	편의시설 전수조사, 1,994개소 근린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 내 편의시설 설치	-	-
여성장애인 실태조사	-	14개 시군 600명 면접조사, 실태분석결과 책자 120부 발간	-	-
가정사회생활 지원 프로그램 실시	57명 대상 수직교실, 48명 대상 손뜨개 교실 운영	-	-	-
장애인가정 영아양육비 지원	-	12개 장애인 가정 영아양육비 65백만원 지원	175명 대상 105,000천원 지원	210명 대상 126백만원 지원
임산부 장애인 해산서비스센터 운영	-	-	1개소에서 20명 이용, 10,000천원 운영비 지원	1개소에서 25명 이용, 10백만원 운영비 지원
여성장애인단체지원	상당실-191명 상담 지도, 침터-7명 보호	1개소 525명 대상 상담 실시	1개 단체(전북여성장애인연대) 지원	6백만원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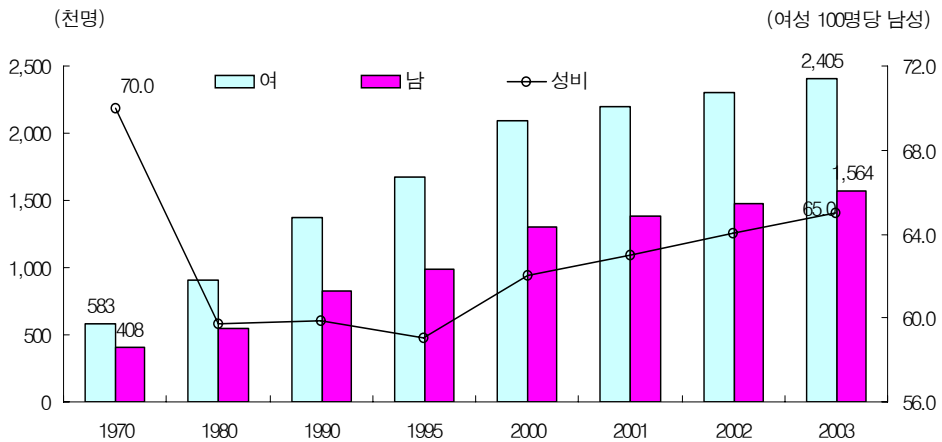
출처 : 전라북도 여성정책 평가 및 발전방향탐색을 위한 연구(2002)

3. 여성노인과 사회복지

2004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8.7%인 417만 명이었으며 이미 2000년에 7%를 넘어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2019년에는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통계청, 2003).

2003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60.6%, 남성은 39.4%로, 여성 100명당 남성인구는 65명으로 나타나(통계청, 2004), 노령 계층이 고위험 빈곤집단임을 감안할 때, 여성노인의 빈곤문제 해결이 중요한 사안임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노인가구주의 경우 매우 높은 빈곤율을 보이는데, 65세 이상 노인이 가구주인 가구의 경우 10가구 중 4가구가 빈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에서도 여성노인가주 가구의 경우 빈곤율이 56.1%로 10가구 중 5-6가구가 빈곤한 것으로 나타났다(석재은, 2004).

<그림 11-1> 65세 이상 인구 추이



자료 : 통계청, 「2001년 장래추계인구」, 각년도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전북여성 일반수급자의 경우 65세 이상 여성들의 일반수급 비율이 34%로 나타나 여성 노인들의 빈곤 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가구의 가구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표 11-18>, 전국적으로 2004년 현재 노인세대는 240,030가구로 전체 가구의 31.8%를 차지하며, 기타세대 및 일반세대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가구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의 경우 일반세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세대구성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노인세대는 18,782세대로 전체 가구구성 대비 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18> 일반수급가구 세대구분(가구유형)별 현황 - 전라북도

(기준: 2004년 12월말, 단위: 가구)

시 도	계	노인세대	소년소녀 가정세대	모자세대	부자세대	장애인 세 대	일반세대	기 타
2004	753,681	240,030	14,387	70,951	17,916	123,418	249,393	37,586
전 북	58,241	18,782	1,117	4,282	1,126	10,583	20,601	1,750

출처: 보건복지부 자활지원과

2004년 12월 31일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4,124,946명이며, 전북지역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의 수는 237,66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지역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들의 노인주거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유료, 실비, 무료 시설 수는 모두 합쳐 48개소이며 현재 입소인원은 2,71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료시설의 경우 총 32개소가 있으며 이 중 양로원 8개(입소인원 : 397명), 요양시설 15개(입소인원: 701명), 전문요양시설 9개(입소인원: 509명)으로 나타났다. 실비시설의 경우 총 6개가 있으며 이 중 양로시설이 2개(입소인원: 18 명),요양시설4개소(입소인원: 177명)이다. 유료시설의 경우 총 10개소가 있으며, 양로시설 1개소(입소인원: 8명), 요양시설 5개소(입소인원: 35명) , 전문요양시설 2개소(입소인원: 49명), 노인전문병원 1개소(입소인원: 107명), 복지주택 1개소(입소인원:186명)로 나타났다<표 11-19>.

<표 11-19> 시도별 노인 의료복지시설 및 주거복지시설 총괄표

(기준: 2004년 12월 31일, 단위: 명)

시·도	65세 이상 노인인구 (2004.12.31주민등록인 구기준)	합 계			
		시설수	입소인원		종 사 자 수
			정원	현원	
합계	4,124,946	518	35,421	27,724	11,416
서울	689,986	42	3,312	2,876	1,322
부산	285,927	32	2,717	2,080	732
대구	186,250	21	1,344	1,090	453
인천	169,549	18	1,703	1,265	535
광주	94,606	12	908	728	232
대전	95,099	15	990	762	364
울산	54,399	9	507	279	153
경기	709,953	108	8,123	6,392	2,537
강원	175,187	28	1,959	1,297	619
충북	162,747	15	1,300	1,017	340
충남	255,030	32	1,537	1,109	432
전북	237,663	48	2,716	2,187	871
전남	295,568	34	1,858	1,553	623
경북	348,758	52	3,117	2,407	1,075
경남	310,934	39	2,622	2,015	841
제주	53,290	13	708	667	287

출처: 보건복지부(2005), 자료 재구성

노인여가시설의 경우 전라북도 내 노인복지 회관이 10개소, 경로당(신고, 미신고)이 5,277개소, 노인교실이 45개소에 이르고 있다<표 11-20>.

<표 11-20> 전라북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총괄표

(기준: 2004년 12월 31일, 단위: 명)

시·군·구	65세 이상 노인인구 (2004.12.31 주민등록인 구기준)	합계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시설수	종사자수	합계 : 계	합계 : 신고	합계 : 미신고	합계 : 개수
전북 합계	237,663	5,332	10	84	5,277	5,211	66	45
고창군	13,964	418			417	417	-	1
군산시	26,295	358	1	12	351	351	-	6
김제시	19,751	493	2	15	490	490	-	1
남원시	16,001	453			450	444	6	3
무주군	5,818	220			220	220	-	-
부안군	13,282	314	1	5	310	310	-	3
순창군	7,511	302			301	301	-	1
완주군	12,908	362	1	5	360	360	-	1
익산시	32,922	513			496	480	16	17
임실군	8,048	304			303	291	12	1
장수군	5,694	260			259	259	-	1
전주시	46,650	492	4	36	485	485	-	3
정읍시	22,192	589	1	11	582	550	32	6
진안군	6,627	254			253	253	-	1

출처: 보건복지부(2005), 자료 재구성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이 49개소(이용인원: 3,844명)이며, 가정봉사원수는 유급 93명, 무급 632명으로 나타났다. 주간보호시설은 12개소(이용인원: 182명),실비주간보호시설 3개소(이용인원 35명), 단기보호시설 1개소(3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표 11-21>.

<표 11-21> 전라북도 재가노인복지시설 총괄표

(기준: 2004년 12월 31일, 단위: 명)

시·도	합계				가정봉사원파견시설						가정봉사원교육시설				
	시설수	이용인원		종사자수	시설수	이용인원		종사자수	가정봉사원수			시설수	이용인원		종사자수
		정원	현원			정원	현원		계	유급	무급		정원	현원	
합계	662	31,212	30,875	4,252	300	24,836	24,750	1,930	13,176	1,031	12,013	2	350	386	4
전북	65	4,671	4,064	236	49	4,434	3,844	183	952	93	632				

출처: 보건복지부(2005), 자료 재구성

시·도	주간보호시설				실비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시설 수	이용인원		종사자 수	시설 수	이용인원		종사자 수	시설 수	이용인원		종사자 수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합계	237	4,245	4,390	1,392	41	604	483	177	82	1,177	866	749
전북	12	179	182	45	3	43	35	6	1	15	3	2

전라북도 여성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윤명숙, 2001)에서 연령에 따른 삶의 만족도를 분석해 본 결과<표 11-22>, 전북지역 60대 여성의 경우 가장 삶의 불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노인들은 다른 연령대의 여성들에 비해 가족 및 친척관계, 자아감, 친구 및 대인관계, 주거환경, 신체 및 정신건강, 경제정도, 여가활동, 직업 및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가장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여성노인의 만족도가 남성노인보다 낮으며, 더 우울정도가 심하고 여성노인들의 만성질환으로 인한 일상생활 지장률이 80.6%에 달하며 여성특유의 건강 문제가 많다는 연구결과(정경희, 1997)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성노인의 삶의 질을 보다 체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개입이 시급하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표 11-22> 연령에 따른 삶의 만족도

연령	삶의 만족도	가족 및 친척관계	자아감 및 일반적 삶	친구 및 대인관계	주거환경	신체 및 정신건강	의·식 및 경제정도	여가활동	직업 및 하루일과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20대	70.26 (21.62)	7.18 (2.63)	14.03 (6.05)	15.50 (3.75)	5.82 (3.28)	11.69 (3.82)	7.53 (3.17)	3.43 (2.20)	8.36 (3.52)
30대	68.69 (23.29)	7.52 (2.96)	13.98 (5.21)	10.42 (4.18)	5.28 (3.30)	11.14 (3.82)	7.17 (3.39)	3.29 (2.20)	7.97 (3.66)
40대	74.51 (23.66)	7.82 (2.55)	14.51 (5.36)	10.91 (4.18)	6.60 (3.21)	11.94 (4.04)	7.69 (3.74)	3.79 (2.36)	8.70 (4.02)
50대	69.67 (26.14)	7.02 (2.96)	12.66 (5.89)	10.89 (4.62)	6.26 (3.26)	11.48 (4.20)	6.79 (3.19)	3.51 (2.39)	7.62 (4.04)
60대 이상	56.48 (20.95)	6.54 (2.20)	9.64 (5.44)	9.04 (3.53)	5.08 (3.26)	9.04 (3.89)	6.20 (2.97)	2.42 (1.70)	5.62 (3.42)
계	69.84 (23.66)	7.39 (2.76)	13.63 (5.64)	10.55 (4.14)	5.88 (3.30)	11.36 (3.99)	7.24 (3.40)	3.42 (2.26)	7.95 (3.84)

출처: 윤명숙(2001), 전라북도 여성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또한 연령별 서비스 욕구를 살펴본 결과<표 11-23>, 60대 이상 여성의 경우 건강 및 의료보호에 대한 욕구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 노년기 여성의 일차적 염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11-23> 연령에 따른 서비스 욕구

(단위: 명, %)

	부모 자녀 관계 증진	부부 성 상담	가정 법률 상담	가정 폭력 상담	여성 쉼터	부부 갈등 해소	직업 훈련, 상담	위기 관리	스트 레스 관리	건강, 의료 보호	기타	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20대	23 (34.8)	3 (4.5)	1 (1.5)	3 (4.5)	4 (6.1)	7 (10.6)	8 (12.1)	3 (4.5)	10 (15.2)	4 (6.1)		66 (100)
30대	38 (32.2)	4 (3.4)	8 (6.8)	5 (4.2)	3 (2.5)	11 (9.3)	14 (11.9)	7 (5.9)	12 (10.2)	15 (12.7)	1 (0.8)	118 (100)
40대	37 (37.0)		1 (1.0)		6 (6.0)	11 (11.0)	9 (9.0)	6(6.6)	9 (9.0)	20 (20.0)	1 (1.0)	100 (100)
50대	15 (24.2)		2 (3.2)	3 (4.8)	1 (1.6)	5 (8.1)	9 (14.5)	4 (6.5)	4 (6.5)	18 (29.0)	1 (1.6)	62 (100)
60대 이상	4 (16.7)			1 (4.2)	3 (12.5)	1 (4.2)	1 (4.2)	2 (8.3)		12 (50.0)		24 (100)
계	117 (31.6)	7 (1.9)	12 (3.2)	12 (3.2)	17 (4.6)	35 (9.5)	41 (11.1)	22 (5.9)	35 (9.5)	69 (18.6)	3 (0.8)	370 (100)

$\chi^2 = 64.090$ df=40 p= .009

출처: 윤명숙(2001), 전라북도 여성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통계청 자료(2003)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노인들의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문제, 외로움, 소외감을 주 어려움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라북도 여성노인의 경우 역시 경제적인 어려움 31.7%, 건강문제 32.6%, 외로움, 소외감 18.5 % 순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노인들의 경제적지지망 구축, 건강문제에 대한 사례관리 체계구축, 소외감 및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지역사회 지지망 구축 등이 시급한 정책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11-24>.

<표 11-24> 노인들의 욕구조사(2002)

(단위 : %)

구 분	15세 이상 인 구	경제적인 어려움	직업이 없음	소일거리가 없음	건강문제 (질병문제)	외로움 소외감
전 국	100.0	36.8	4.3	6.1	27.4	16.9
여	100.0	37.4	4.1	6.0	27.3	16.9
남	100.0	36.2	4.6	6.3	27.6	16.9
60세 이상	100.0	36.4	3.4	5.7	39.3	8.1
전 북	100.0	32.0	3.4	5.3	32.1	19.5
여	100.0	32.7	2.9	5.0	32.6	18.5
남	100.0	31.2	4.0	5.6	31.5	20.6
60세 이상	100.0	29.8	2.5	4.6	47.8	10.5
구 분	가족으로부터 푸 대 접	경로의식화 약 화	노인복지시설 (요양시설, 양로원 등)의 부족	기 타	모르겠음	
전 국	3.5	1.0	2.9	0.0	0.9	
여	3.8	0.8	2.8	0.0	1.0	
남	3.3	1.2	3.0	0.1	0.9	
60세 이상	2.4	1.0	2.2	0.1	1.4	
전 북	3.7	1.1	2.5	0.0	0.4	
여	4.0	1.2	2.7	0.1	0.4	
남	3.4	1.0	2.2	-	0.4	
60세 이상	2.0	0.7	1.6	0.2	0.3	

출 처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2003)

여성노인 복지증진 사업의 경우, 1998-1999년에는 노인을 위한 일반적인 복지서비스와 구분이 되지 않은 채, 재가복지사업확대, 치매노인대책 강구, 유료노인복지시설 설치 등의 사업이 함께 진행되다가 2000년 이후에 여성전용 경로당 설치와 같은 여성노인에 대한 접근이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표 11-25>에서와 같이 여전히 경로당 관련 사업이 여성노인의 복지 증진 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경로연금, 경로교통수당 지급 등도 노인일반을 위한 복지사업이다. 그러므로 보다 성인 지적 접근이 뒷받침되어 노인을 위한 일반 복지사업과 차별화된 여성노인 복지사업을 연구하고 실시하도록 할 것이다.

<표 11-25> 전라북도 여성노인복지증진 사업 추진실적(2000-2002)

세부사업	2000	2001
여성전용 경로당 신축	4개소 200,000천원 지원	5개소 250,000천원 지원
경로다 운영 활성화 사업추진	10개소 40,000천원 지원	20개소 40,000천원 지원
경로교통수당 지급	123,001명 대상 9,926백만 원 지급	128,062명 대상 12,161백만 원 지급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 지급	3,893개소 대상 3,047백만 원 지급	4,024개소 대상 3,092백만 원 지급

4. 외국이주여성과 사회복지서비스

1990년대 이후 남성들이 동남아시아, 러시아 등지의 여성들과 결혼하는 현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통계청(2005)의 이론 및 혼인관련 자료에 따르면 전체 혼인건수 중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1.2%에 불과했으나 2004년 현재 11.4%로 무려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남성과 국제결혼을 한 외국 이주 여성들은 의사소통의 문제, 문화적 차이로 인한 고통, 차별적인 대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의 주요 수혜대상 집단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들 대상자들이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이주여성이 동사무소, 사회복지관, 이주여성상담소 등에서 서비스를 지원받은 비율이 10%내외 인 것을 고려하면(설동훈 등, 2005) 증가하는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 11-26>에서 여성 결혼 이민자의 출신국 분포를 살펴보면 중국이 64.7%,(그 중 47.4%는 중국동포)로서 가장 많고, 다음은 일본(10.6%) · 필리핀(8.2%) · 베트남(7.0%) · 태국(2.0%) · 몽골(1.6%) · 러시아(1.4%) 등의 순이다.⁴⁵⁾

45) 통계청 자료는 결혼건수를 보여주고, 법무부 자료는 “현재 국내 거주”(stock) 결혼이민자 수를 나타낸다.

<표 11-26>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 분포

(기준: 2005년 4월, 단위: 명, %)

출신국	외국인 아내		등록외국인		2002년 이후 귀화자	
	인원 수	%	인원 수	%	인원 수	%
전체	66,912	100.0	55,964	100.0	10,948	100.0
한국계 중국인	31,739	47.4	24,681	44.1	7,058	64.5
중국	11,577	17.3	9,721	17.4	1,856	17.0
일본	7,097	10.6	7,076	12.6	21	0.2
필리핀	5,457	8.2	3,692	6.6	1,765	16.1
베트남	4,675	7.0	4,592	8.2	83	0.8
태국	1,364	2.0	1,340	2.4	24	0.2
몽골	1,072	1.6	1,055	1.9	17	0.2
러시아	950	1.4	933	1.7	17	0.2
기타 구소련, 동유럽	1,190	1.8	1,161	2.1	29	0.3
아시아 저개발국	595	0.9	549	1.0	46	0.4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5	0.1	28	0.1	7	0.1
중남미	140	0.2	124	0.2	16	0.1
기타 선진국	1,021	1.5	1,012	1.8	9	0.1

자료: 법무부, 데이터베이스, 2005 계산.

2005년 4월 현재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이주여성은 2,955 명이며<표 11-27><표 11-28>, 세대비율 0.44%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국이주여성에 대한 행정기관 자체 자료에 따르면 1,831명을 추정하고 있고, 통계청의 (2001)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은 1,600명으로 나타나 통일된 자료가 아직 없다. 최근 들어 농촌지역에 정착하는 외국 결혼이민자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문화적응 지원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들이 경험하는 가정폭력, 문화적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표 11-27 > 여성 결혼이민자의 거주지 분포

(기준: 2005년 4월, 단위: 명, %)

	전체		도시		농촌	
	인원	%	인원	%	인원	%
전국	66,912	100.0	49,755	100.0	17,157	100.0
서울특별시	16,454	24.6	16,454	33.1	0	0.0
부산광역시	3,753	5.6	3,693	7.4	60	0.3
대구광역시	1,857	2.8	1,708	3.4	149	0.9
인천광역시	4,114	6.1	4,028	8.1	86	0.5
대전광역시	1,426	2.1	1,426	2.9	0	0.0
광주광역시	1,301	1.9	1,301	2.6	0	0.0
울산광역시	996	1.5	756	1.5	240	1.4
경기도	16,681	24.9	12,630	25.4	4,051	23.6
강원도	2,142	3.2	866	1.7	1,276	7.4
충청북도	2,176	3.3	880	1.8	1,296	7.6
충청남도	3,047	4.6	874	1.8	2,173	12.7
전라북도	2,955	4.4	1,406	2.8	1,549	9.0
전라남도	3,250	4.9	764	1.5	2,486	14.5
경상북도	2,892	4.3	1,013	2.0	1,879	11.0
경상남도	3,288	4.9	1,584	3.2	1,704	9.9
제주도	580	0.9	372	0.7	208	1.2

주: 도시는 동 지역, 농촌은 읍·면 지역임.

자료: 법무부, 데이터베이스, 2005 계산.

<표 11-28 > 지역별 여성 결혼이민자 세대 수와 비중

(기준: 2005년 4월, 단위: 세대, %)

	세대수	여성 결혼이민자 수	비율
전국	17,391,932	66,912	0.38
서울특별시	3,780,305	16,454	0.44
부산광역시	1,251,069	3,753	0.30
대구광역시	853,142	1,857	0.22
인천광역시	908,673	4,114	0.45
대전광역시	469,847	1,426	0.30
광주광역시	492,068	1,301	0.26
울산광역시	356,143	996	0.28
경기도	3,748,325	16,681	0.45
강원도	563,355	2,142	0.38
충청북도	534,231	2,176	0.41
충청남도	736,328	3,047	0.41
전라북도	675,145	2,955	0.44
전라남도	741,768	3,250	0.44
경상북도	985,475	2,892	0.29
경상남도	1,096,069	3,288	0.30
제주도	199,989	580	0.29

주: 구·시·군별 주민등록세대수는 2004년 말 기준임. 비중은 여성 결혼이민자 수를 한 세대에 한 명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계산한 것임.

자료: 통계청 <http://kosis.nso.go.kr>; 법무부, 데이터베이스, 2005 계산.

국제 이주문제는 국가 간, 문화 간 이동이기에 국제결혼으로 형성된 가족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족차원에서의 다른 문화 간의 접촉과 적응이 가져오는 문제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문화인류학적 관점’의 적용이 요구된다. 또한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와서 생활하는 여성은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으므로, 그들이 성공적으로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책적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전라북도에서는 중국교포여성의 사회적응을 위한 고층처리 상담창구 운영, 적응 및 기술교육, 무료합동결혼식 실시 등의 세부사업을 2000년부터 시행하였는데 2001년에 중국조선교포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1회 합동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이 대폭 축소되었다. 요보호여성의 복지증진 사업 대상은 중국교포여성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여성노동자에게까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표 11-29> 중국교포여성 사회적응 사업 추진실적

세부사업	1998	1999	2000	2001
고층처리 상담창구 운영	-	-	결혼가정 현황파악 및 397명 지속관리	200명 대상 중국조선교포 여성 결혼가정 합동교육 1회 실시-5,200천원 지원
한국사회 적응교육, 기술교육 및 취미교육	-	-	384명 대상 한국사회 적응교육 8회 실시, 90명 대상 취미활동 및 기술교육 4회 실시	
동거부부 무료합동결혼식	-	-	7쌍 실시	
가족초청위안회, 각종 행사 초청	-	-	308명 대상 6회 실시	

설동훈 등의 연구(2005)에서,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이용실태를 살펴보면<표 11-30>, 전체 여성 결혼이민자 중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관 등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비율은 기관을 방문한 사유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먼저 각종 상담을 받기 위해 방문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16.0%이고 이중 가장 많이 이용한 기관은 이주여성 상담소(7.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여성 상담소 뒤를 이어 상담 문제로 찾은 기관은 종교단체,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관 순으로

나타났다. 본국출신 사람과 친교를 하기 위해 기관을 방문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2.2%이고, 종교단체를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결혼이민자가 취업정보를 얻고자 기관을 방문한 비율은 10.5%이고 이중 가장 많이 이용한 기관은 종교단체로 조사되었다. 의료서비스 지원을 목적으로 기관을 방문한 비율은 9.0%로 아래에 제시된 6개 사유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이용한 기관은 읍·면·동사무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을 받기 위해 방문한 기관은 읍·면·동사무소, 이주여성 상담소, 종교단체, 사회복지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상담은 이주여성 상담소, 본국출신과 교류, 취업정보, 종교 활동은 종교단체, 의료서비스 지원과 각종 교육은 읍·면·동사무소를 이용하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1-30> 동사무소·사회복지관·이주여성상담소 방문 경험과 이유: 전체

(기준: 2005년 4월, 단위: 명, %)

	없음	있음			
		읍·면·동 사무소	사회 복지관	이주여성 상담소	종교단체 (절·교회)
상담을 받기 위하여(713)	84.0	2.7	2.1	7.7	3.6
본국출신사람과 친교를 위하여(681)	87.8	1.6	1.3	0.6	8.7
취업정보를 얻기 위하여(680)	89.5	1.6	1.8	3.0	4.1
의료서비스 지원을 받기 위하여(680)	91.0	3.3	3.0	0.9	1.8
종교 활동을 위하여(684)	85.5	1.8	0.7	0.2	11.8
각종 교육을 받기 위하여(697)	80.0	6.3	3.2	5.8	4.8

출처: 설동훈 등(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 복지지원방안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설동훈 등, 2005),전체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13가지 서비스 항목 중 가장 많이 이용한 서비스는 '한국어 및 문화적응 교육'으로 22.4%가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식사(반찬) 배달 서비스 (16.3%), 직업훈련, 취업상담, 취업알선 서비스 (12.9%), 집수리, 도배 등 주택관련 서비스 (12.0%), 의료비 지원 서비스 (11.6%), 생계비 지원(10.2%) 순으로 조사되었다. 나머지 항목의 서비스는 모두 10.0%미만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1-31>.

<표 11-31>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실태

(단위: %)

	전체		중국 동포		기타 외국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생계비 지원	10.2	89.8	3.9	96.1	16.7	83.3
의료비 지원	11.6	88.4	7.3	92.7	16.2	83.8
물품 지원(식료품, 의류 등)	7.2	92.8	2.9	97.1	11.8	88.2
가정봉사 서비스(청소, 세탁 등)	5.9	94.1	3.6	96.4	8.4	91.6
식사(반찬) 배달 서비스	16.3	83.7	9.9	90.1	23.3	76.7
주택관련 서비스(집수리, 도배 등)	12.0	88.0	4.5	95.2	19.7	80.3
직업훈련, 취업상담, 취업알선	12.9	87.1	7.2	92.8	18.8	81.2
상담(고민, 갈등, 정신건강 등)	9.7	90.3	8.1	91.9	11.5	88.5
약물(알코올)상담	4.4	95.6	1.6	98.4	7.4	92.6
학대 혹은 가정폭력 상담	7.5	92.5	6.6	93.4	8.4	91.6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 교육	8.6	91.4	2.4	97.6	15.0	85.0
이동을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	8.5	91.5	3.0	97.0	14.3	85.7
한국어 및 문화적응 교육	22.4	77.6	7.6	92.4	36.6	63.4

출처: 설동훈 등(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 복지 지원방안

현재 도내에는 이주여성인권지원센터가 있어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여성들의 문제해결에 지지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북여성농민회연합에서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사업을 위탁받아 가사도우미,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도내 외국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실태조사 및 이들의 상이한 특성 및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다만, 여성단체 및 사회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단기적인 캠프나 도우미프로그램들이 실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전라북도 지역적 특성 상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이주여성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사회적 소수자인 이들의 사회적 적응에 대한 장기적으로 이들의 적응과 문제해결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히 필요하다. 사례관리 서비스체계 구축, 전문상담원의 양성과 활용, mentor program을 활용한 심리사회적 지원서비스 등을 개발. 적용하는 것이 요청되고 있다.

제 3 절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 및 전라북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여성 복지의 실태는 사회 내에서의 여성의 지위만큼이나 상대적으로 낮았고 아직까지 요보호여성중심의 잔여적 사회복지서비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라북도의 여성 사회복지 서비스 상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빈곤의 경우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노인의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서는 60세 이상 여성노인들의 경제적, 의료적, 가족적 욕구에 대한 체계적 개입이 필요하다.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여성노인들의 경우 상대적 취업률의 저하 및 소득의 격감 등으로 인한 빈곤문제가 이들의 정신건강전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노인들의 절대 다수가 건강 및 의료보호에 대한 욕구를 상당부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요설금, 관절염, 중풍, 신경통, 고혈압 등 여성노인 특유의 질병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며 여성노인의 의료적 수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둘째, 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의 확립이 시급하다. 전체적으로 전라북도의 사회복지서비스는 다른 시·도와 유사하게 성인지적 관점이 매우 미약하며, 성인지적인 특화된 여성중심 사회복지서비스 및 정책이 수립되어 있지 못하다. 자활사업의 경우 참여자 중 여성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자활후견기관에서는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인정하나, 프로그램으로 시도되거나 정착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를 위해서 여성 참여자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그 출발점이 된다. 즉, 여성참여자의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고, 사회적, 심리적 특성을 포함한 개인의 조건, 자녀와 배우자 등 가족 여건, 이전 직업 등을 포함하여 빈곤화 경로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고, 여성의 욕구에 맞는 상담서비스와 지원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 참여자들의 굴곡된 삶을 이해하고, 여성들 속에 내재된 힘을 찾아내어 자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자활후견기관 실무자들이 성인지적 관점이 갖춰져야 하며 이를 위한 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도내의 경우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는 결혼으로 인한 이주외국인 여성은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사회적 소수자집단이다. 전북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후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이들 외국인 여성들의 문화적 적응 및 가족적 적응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사회복지 지원프로그램 개발이 필수적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요보호여성에 대해서조차 아직까지 충분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여성복지가 요보호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생계의 위협 속에서 다양한 심리·사회적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요보호여성들에 대해서만큼은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고 충분한 수준의 지원과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여성복지의 주요 대상중의 하나인 요보호여성들의 자립을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경제적 지원의 기반 위에 이들의 다양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전문적 서비스의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대로 주어진 예산을 적당히 쪼개어 적당히 분산하는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에 의한 접근이 모색되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요보호여성이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자립하여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것인지에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신들의 권익옹호와 능력개발에 관심을 가진 일반여성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많은 일반여성들도 나름대로의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와 생활상의 어려움 속에서 살아하고 있다. 전체 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 때, 요보호여성보다는 일반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지원과 접근성을 증진시키는 것이야 말로 여성복지서비스의 주요 표적이 되어야 한다.

여성들은 사회복지서비스의 가장 많은 대상을 차지하면서도 가장 낮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집단이다. 더구나, 인구의 절반이라는 수적 평등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사회적 제도 속에서 많은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저소득 여성과 학대받는 여성 등은 생존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있다. 그리고 많은 일반여성들 또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와 같은 요보호여성과 일반여성을 위한 여성복지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야 말로 인간적인 사회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다. 성(性)과 관련하여 가지지 못한 집단에 속한 여성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확산이야 말로 보다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초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때이다.

제 12 장

여성의 인권실태와 권익증진

- 제 1 절 여성의 권익증진 지원 사업
- 제 2 절 전북여성긴급전화<1366>의 활동 현황
- 제 3 절 전라북도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사업 현황 및 특성
- 제 4 절 요약 및 결론

제 12 장 여성의 인권실태와 권익증진

김선남(원광대학교 교수)

제 1 절 여성의 권익증진 지원 사업

전라북도는 해마다 여성권익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2002년 5억 865만원, 2003년 5억 770만원, 2004년 6억 938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5년에는 10억원 이상을 지원할 전망이다(<표 12-1>참조).

<표 12-1> 여성권익증진을 위한 지원 현황(2002-2005)

(단위 :천원)

시 설 명	시설장	년 도 별 지 원 현 황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합 계		586,539	453,772	515,736	568,224	
가정폭력상담소	전주가정폭력상담소	김영수	21,194	33,379	35,040	36,792
	전주여성전화부설 가정폭력상담소	김귀녀				
	군산가정법률상담소부설가정폭력상담소	김지순	21,193	33,379	35,040	36,792
	군산여성전화부설 가정폭력상담소	민인순	21,193			
	익산가정법률상담소부설가정폭력상담소	성보영	21,193	33,379	35,040	36,792
	익산여성전화부설 가정폭력상담소	하춘자	21,193			
	정읍가정법률상담소부설가정폭력상담소	송경숙	21,194			36,792
	정읍시민 가정폭력상담소	박연란				폐지
	(9) 남원YWCA가정폭력상담소	박문화		33,379	35,040	36,792
성폭력상담소	한국가정폭력상담소	김수기				
	전주여성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최은진	31,538	52,976	52,968	54,552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성폭력상담소	김정수	31,538	52,976	52,968	54,552
	가족보건복지협회부설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은경	31,538		2,400 (교통비)	56,952
	여성장애인연대부설성폭력상담소	박미경	52,860	55,376	55,368	폐지
	군산성폭력상담소	최용희	53,937	52,976	52,968	54,552
	익산성폭력상담소	도성희	53,937	52,976	52,968	54,552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성폭력상담소	최옥순	53,937	52,976	52,968	54,552
	정읍시민성폭력상담소	정선희				폐지
	(8) 남원YWCA성폭력상담소	김숙희	31,538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김제지부성폭력상담소	김철동	31,358		52,968	54,552	

시 설 명		시설장	년 도 별 지 원 현 황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합 계			586,539	332,321	384,077	510,526
가폭 시설	전주여성전화부설전주여성의쉼터	김미숙	31,755	38,925	40,869	45,500
	남원YWCA사랑의집	박진숙			13,623	22,084
	익산여성전화부설 익산여성의 쉼터	김경희				9,216
성폭 시설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디딤터	고미숙	48,740	48,740	48,740	45,500
	군산은혜의 쉼터	김선자	6,703	35,622	37,496	38,500
성매 시설	성매매피해여성선도보호시설 민들레	김은경			37,377	95,326
	성매매여성현장상담센터	송경숙		52,000	54,000	95,000
전북여성긴급전화1366		함미화	157,026	157,034	151,972	159,400

최근 3년간 전라북도에서 발생한 여성권익 관련 범죄현황은 <표 12-2>에 제시되어 있다. 즉 성매매 관련 범죄는 2002년에 228건이었던 것이 2003년, 2004년에는 감소하여 각각 78건, 131건을 기록하였다. 가정폭력 관련 범죄 역시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 경향을 보였다. 즉 가정폭력 관련 범죄의 검거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2년 294건이었던 것이 2003년에는 246건, 2004년 179건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성폭력 범죄는 2002년과 2003년은 각각 362건, 360건이 발생하였는데 2004년에 들어서는 다소 증가하여 438건이나 되었다.

<표 12-2> 여성범죄발생현황(2002-2004)

구분	2002(1-12)			2003(1-12)			2004(1-12)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성매매	228	221	732	78	69	319	131	130	484
성폭력	362	353	384	360	319	378	438	408	488
가정폭력	-	294	311	-	246	257	-	179	203

※ 성폭력자료는 “형법상 강간과 관련된 범죄의 합계”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을 합산한 자료임

제 2 절 전북여성긴급전화 <1366>의 활동현황

전북여성긴급전화<1366>은 1998년 1월 운영 개시하여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로부터 피해를 당한 여성들을 상담, 보호하고 이들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적극 활동하고 있다. 전북여성긴급전화<1366>의 시설현황이 <표 12-3>에 제시되어 있다.

<표 12-3> 전북여성긴급전화<1366>의 시설 현황

대표자	운영 개시	소재지	형태 및 규모			운영주체		
			위치	사용면적 (긴급 피난처)	보유 형태	법인 종류	법인명 (설립 일자)	대표자
함미화	1998.1.1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복지시설내	105㎡	자가	사회복지	삼성원	김옥정

* 위치 : 아파트, 복지시설내, 일반주택, 상가·빌딩, 기타

* 보유형태 : 자가, 유료임차, 무료대여 등으로 기재 (단위 : 명)

* 사용면적 단위는 ㎡이며 긴급 피난처 면적은 ()에 기재

전북여성긴급전화<1366>은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24개의 상담소, 보호시설 등과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으며(표<12-4>참조), 6개의 수신전용회선수, 18개의 전용회선수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표 12-5>참조).

<표 12-4> 여성긴급전화<1366>의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2004)

(단위 : 개)

상담소	보호 시설	사회 복지관	112· 119	의료 기관	응급 구조단	법률 기관	법원	검찰	경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학교	기타
10	3		3	1		2		1	1	1		2

<표 12-5> 여성긴급전화<1366>의 네트워크 구축현황(2004)

지역협의체 회의 횟수	수신전용 회선수	전용선회선수 (구축 기관수)
(2)	(6)	(18)

전북여성긴급전화<1366>은 일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들의 참여 시간은 2002년의 경우 322시간이었고 2004년에는 485시간으로 증가하였다. 여성긴급전화<1366>은 2004년에 들어서는 전문봉사자를 활용하고 있다(<표 12-6>참조).

<표 12-6> 여성긴급전화<1366>의 자원봉사자 활용(2002-2003)

(단위 : 명)

년도	전문봉사			일반봉사			대학생봉사		
	실인원	연인원	활동 시간	실인원	연인원	활동 시간	실인원	연인원	활동 시간
2002				7		322	13		1,829
2003				6	64	198	6	127	516
2004		1	42		1	485			

* 전문봉사 :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봉사를 의미

* 일반봉사 : 전문봉사자의 모든 봉사활동을 의미

* 학생봉사 : 학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의 모든 봉사활동으로 전문봉사와 일반봉사를 구분하지 않음

전북여성긴급전화<1366>의 상담활동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표 12-7>에 나타나 있듯이, 상담건수는 2002년에 4,578건이었던 것이 2003년 5,367건, 2004년 5,407건으로 증가하였다. 여성긴급전화<1366>에 접수되었던 상담의뢰자 유형은 주로 ‘본인’이었으며, 상담의 방법은 ‘전화’가 가장 많았다(<표 12-7>참조).

<표 12-7> 여성긴급전화<1366>의 상담의뢰자 및 상담방법(2002-2003)

(단위:명)

년도	계	상담의뢰자				상담방법				
		본인	보호자	동료이웃 교사 등	행위자	내방 및 방문	전화	서신 (전자우편)	사이버	기타
2002	4,578	3,984	361	211	22	59	4,519			
2003	5,367	4,406	586	333	42	92	5,248		27	
2004	5,407	4,495	535	211	166	104	5,269		34	

* 2004년의 경우는 보호자에 가족 및 친인척을 포함시킴. 행위자에 관련기관을 포함시킴.

전북여성긴급전화<1366>의 상담주제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건수는 ‘가정폭력’으로 드러났다. ‘부부갈등 문제’, ‘성폭력 문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외도를 포함한 부부갈등, 성상담, 약물중독, 취업 및 직업훈련 문제 등에 대한 상담주제도 해마다 증가하였다(<표 12-8>참조).

<표 12-8> 여성긴급전화<1366>의 상담주제(2002-2004)

(단위 : 명)

년도	계	가정 폭력	성폭력	미혼모	가출 유형	부부 갈등 (외도)	성 상담	가족 문제 (갈등)	윤락 관련	중독 (약물)	저소득 모자	취업 직업 훈련	이혼	기타
2002	4,573	1,008	228	53	38	195	706	354	68	14	16	8	772	1,124
2003	5,367	1,260	321	36	32	143	375	202	137	8	32	9	724	2,088
2004	5,407	1,227	330		46	830	833	277	185	37	22	25	640	955

* 기타에 포함된 사항: 2002년(법률: 347, 자녀문제 : 94, 기타: 623), 2003년(법률 : 205 자녀문제 : 57, 기타:1,826)
2004년(법률:450 카드빚:31 종교:27 동료갈등 23: 인생사:184 기타:240).

전북여성긴급전화<1366>의 피상담자의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층은 ‘30대’이었으며 ‘40대’, ‘50대’가 뒤를 이었다(<표 12-9>참조).

<표 12-9> 여성긴급전화<1366>의 피상담자 연령(2002-2004)

(단위:명)

년도	계	7세미만	7-13세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기타
2002	4,573	2	37	400	859	1,534	959	280	52	455
2003	5,367		11	376	906	1,911	1,698	356	68	41
2004	5,276	8	30	414	907	1,852	1,642	286	62	75

전북여성긴급전화<1366>의 피상담자 학력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12-10>에 제시되어 있듯이, ‘대졸이상’이 가장 많았으며 ‘고졸’이 그 뒤를 이었다. 이렇듯 여성긴급전화<1366>활용은 주로 고학력자가 그 주요 대상임을 알 수 있다.

<표 12-10> 여성긴급전화<1366>의 피상담자 학력(2002-2003)

(단위:명)

연도	계	무학	초등퇴	초등재	초등졸	중퇴	중재	중졸	고퇴	고재	고졸	대퇴	대재	대졸이상	미상
2002	4,573	1	4	6	43	41	88	67	26	215	1,060	34	100	1,118	455
2003	5,367	10	34		100	108	109	239	111	272	1,837	41	41	1,976	275

최근 3년간 여성긴급전화<1366> 피상담자들은 ‘12:00-18:00 시간대’에 가장 많은 상담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표 12-11> 참조).

<표 12-11> 여성긴급전화<1366>의 피상담자 상담시간(2002-2004)

(단위:명)

년도	계	9:01-12:00	12:01-18:00	18:01-24:00	24:01-09:00
2002	4,578	911	1,677	1,219	771
2003	5,367	1,075	1,947	1,420	925
2004	5,407	1,102	1,877	1,532	896

전북여성긴급전화<1366>은 피상담자를 상담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12>에 나타나 있듯이, 여성긴급전화<1366>은 2004년의 경우 전체 5,568건 가운데 2,505건을 직접 상담후 처리하였으며, 관련기관 연계는 1,121건, 전문상담기관 안내는 1,01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긴급전화<1366>은 복지시설입소를 안내(492건)해 주었거나 2차 상담을 권고(341건)하기도 하였다.

<표 12-12> 여성긴급전화<1366>의 피상담자 상담조치 결과(2002-2004)

(단위 : 명)

년도	계	직접상담	복지시설 입소안내	현장출동 협조요청	전문상담 기관안내	2차상담 권고	긴급피난 처 피신	관련기관 연계	기타
2002	4,578	2,359	269	19	1,754	172	4		1
2003	5,367	2,942	280	31	1,867	246	1		
2004	5,568	2,505	492	30	1,015	341	2	1,121	13

- 주간내 지역내 연계할 전문기관이 없는 상담의뢰 사항을 직접 상담하여 처리완결한 사항
- 야간에 직접 상담하여 처리완결한 사항(정보제공 및 전문서비스 기관 안내 등으로 계속적으로 상담 등이 진행되는 사항은 직접상담에 포함되지 않음)
- 2004년의 관련기관연계(의료기관:140, 수사기관:127, 법률기관:854)

한편 전북여성긴급전화<1366>은 외국인 여성 상담도 활발히 진행하였다. 2004년 현재 외국인 상담건수는 13건에 달하였다. <표 12-13>에 나타나 있듯이, 피상담자의 국적은 ‘중국’(6건)이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필리핀’(4건) ‘러시아’(2건)가 이었으며 피상담자 모두가 기혼 상태였다. 또한 상담은 주로 당사자(8건)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13> 여성긴급전화<1366>의 외국인 피상담자 유형 · 국적 · 체류자격(2004)

(단위 : 명)

구분	상 담 의 리 인				피해자 국적										피해자 체류자격									
	계	본인	동료·이웃	기타	계	러시아	필리핀	중국	베트남	태국	몽골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타이	기타	미상	계	예술행	연수취업	방문동거	결혼	거주	기타	미상
계	13	8	1	4	13	2	4	6							1	13					13			
통역시스템 활용	2	2					1								1	2					2			
자체상담	11	6	1	4	13	2	3	6								11					11			

한편 전북여성긴급전화<1366>의 외국인 피상담자의 상담은 주로 자체적인 상담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14건), 나머지 4건은 통역시스템을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또 이들의 상담 시간대는 ‘12시-18시’(8건)가 가장 많았으며, ‘9시-12시’(6건)가 뒤를 이었다(<표 12-14>참조).

<표 12-14> 여성긴급전화<1366>의 외국인 상담자 방법 및 시간대(2004)

(단위 : 건)

구분	계	09:01 ~ 12:00	12:01 ~ 18:00	18:01 ~ 24:00	24:01 ~ 09:00
계	16	6	8	2	
통역시스템 활용	2		2		
자체상담	14	6	6	2	

전북여성긴급전화<1366>의 외국인 상담은 내국인 상담에서와 마찬가지로 주로 ‘가족폭력문제’(8건)에 관한 것이었으며, ‘이혼문제’(4건), ‘기타’(3건)가 그 뒤를 이었다(<표 12-15>참조).

<표 12-15> 여성<1366>의 외국인 상담의 주제(2004)

(단위 : 건)

계	성매매	성폭력	가정 폭력	이혼	산업 재해	임금	의료	불법 체류	출국	기타
16			8	4					1	3

전북여성긴급전화<1366>의 외국인 피상담자에 대한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법률기관과의 연계’가 가장 많았으며(6건), ‘외국인 노동자 관련단체와의 연계’(2건), ‘외국인 보호시설 연계’(1건), ‘현장중동 협조요청’(1건)이 그 뒤를 이었다(<표 12-16>참조).

<표 12-16> 여성긴급전화 <1366>의 외국인 상담 조치결과(2004)

(단위 : 건)

계	관련기관 연계						현장출동 협조요청	기타
	외국인 보호시설	외국인 성매매 및 성폭력 상담소	외국인 노동자 관련단체	법률기관	의료기관	기타		
18	1		2	6		6	1	2

제 3 절 전라북도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사업 현황 및 특성

1. 성폭력⁴⁶⁾ 피해자 보호사업 및 성과

1) 성폭력상담소의 상담활동

지난 1994년 1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범죄는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 전라북도의 경우 성폭력 범죄건수를 보면 2002년 362건이었던 것이 2004년에는 386건이었다. 1998년 1월 1일 개정된 법령에 의해서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관계상의 성폭력 범죄를 가중 처벌할 수 있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범죄는 지속되고 있다. 여성부는 2001년부터 성폭력 피해자 의료지원 체계 개선방안을 시도하였는데 최근 들어서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현재 8개 성폭력상담소와 2개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8개 성폭력상담소는 2004년 현재 3,866건의 상담건수를 기록하였다. 이것은 2002년의 5,723건, 2003년 4,935건에 비하여 다소 감소한 것인데, 그러한 감소세는 성폭력상담소의 감소(2002-2003년 10개소 운영)와 관련이 있다.

전라북도 성폭력상담소의 피상담자 유형 및 상담방법이 <표 12-17>에 제시되어 있다. 표에서 보듯이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는 피상담자 유형은 ‘본인’이었으며, ‘보호자·동료’, ‘이웃·교사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이들의 상담 방법은 주로 ‘전화’에 의한 것이었으며, ‘내방’, ‘방문’ 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성폭력상담소의 상담 방법은 매체변화에 따라서 연도별 변화를 보여주었는데, 예를 들면 2002년(74건)과 2003년(104

46) 2002-2003년은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소, 전주여성의전화 부설성폭력상담소, 대한가협부설 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여성장애인연대부설장애인성폭력상담소,군산성폭력상담소,익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부설, 정읍시민성폭력상담소, 남원 YMCA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김제지부 등10개가 포함됨. 2004년은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소, 전주여성의전화 부설성폭력상담소, 군산성폭력상담소,익산성폭력상담소,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부설, 정읍시민성폭력상담소, 남원 YMCA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김제지부 등8개가 포함됨.

건)에는 ‘서신’을 통한 상담이 많았던 반면 2003년(101건)과 2004년(72건)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이 많았다. 향후 성폭력 상담에 있어서 인터넷을 활용한 상담방법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표 12-17> 성폭력 피상담자 유형 및 상담 방법(2002-2004)

(단위 : 명)

년도	구 분	계	피 상 담 자					계	상 담 방 법					
			본인	보호자	동료, 이웃, 교사 등	가 해 자	기타		내방	방문	전화	서신	사 이 버	기타
2002	전체	5,723	4,254	951	420	98		5,723	1,132	454	3,900	74		163
	장애인	318	247	51	19	1		318	37	116	164			1
2003	전체	4,935	3,876	723	296	40		4,935	1,030	710	2,973	104	101	53
	장애인	352	232	101	15	0		352	47	110	194			1
2004	전체	3,866	2,943	500	300		123	3,866	879	469	2,011		72	435
	장애인	210	57	57	39		57	210	42	91	77			

※‘전체’는 장애인 포함하여 기재

*2004년의 보호자는 가족 친인척임

최근 3년간 전라북도 소재 성폭력상담소의 피상담자 연령별 특성을 살펴보면, <표 12-18>에 있듯이 ‘성인’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청소년’, ‘어린이’, ‘유아’로 나타났다. 또한 성폭력 피상담자들이 경험하였던 피해는 ‘성추행’이 가장 많았다. 특히 2004년에는 2002년, 2003년과 달리 ‘음란전화’(101건), ‘사이버 성폭력’(33건), ‘스토킹’(12건) 등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 피해가 있었다.

<표 12-18> 성폭력 피상담자 유형 및 상담 방법(2002-2004)

(단위 : 명)

년도	구분	계	피해자 연령					피해 유형				
			유아 (7세미만)	어린이 (7-13)	청소년	성인 (20세이상)	강간	성추행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음란전화	기타
2002	전체	5,723	52	226	1,230	4,215	778	593				4,352
	장애인	318		6	23	289	61	19				238
2003	전체	4,935	50	232	853	3,800	751	1,107				3,077
	장애인	352		99	53	290	117	36				199
2004	전체	1,063	31	133	348	549	410	429	12	33	101	78
	장애인	149	2	6	12	129	41	24				33

성폭력상담소에 집계된 성폭력 가해자 유형은 최근 3년간 비슷한 형태를 보였다. 2002년 경우 기타(4,283건)를 제외하고 ‘이웃’(330건), ‘모르는 사람’(302건), ‘친족 및 친인척’(279건), ‘동급생·선후배’(261건), ‘직장동료 및 상사’(199건)의 순이었다. 2003년도 기타(1,161건)를 제외하고 ‘모르는 사람’(2,436건) ‘이웃’(461건), ‘동급생선후배’(321건), ‘친족 및 친인척’(278건)의 순이었다. 2004년은 ‘기타’(236건), ‘모르는 사람’(210건), ‘친족 및 친인척’(159건), ‘직장동료 및 상사’(157건), ‘동급생선후배’(139건), ‘이웃’(122건) 등이었다. 2004년에는 ‘배우자 및 애인에 의한 성폭행’ 피해도 무려 43건이나 접수되었다 (<표 12-19>참조).

<표 12-19> 성폭력 가해자 유형(2002-2004)

(단위 : 명)

년도	구 분	계	친족 및 친·인척	동급생 선후배	이웃	교 사 · 강 사	모르는 사 람	직 동 상	장 료 사	배우자 애인	기타
2002	전체	5,723	279	261	330	69	302	199			4,283
	장애인	318	16	27	24		4				247
2003	전체	4,935	278	321	419	80	2,436	240			1,161
	장애인	352	37	16	102		186	6			5
2004	전체	1,063	159	139	122	38	210	157	43		236
	장애인	149	6	48			43	3	45		2

성폭력 상담소의 상담 후 조치를 살펴보면, <표 12-20>에 있듯이 ‘상담 후 귀가’ 결과가 가장 많았으며, ‘치료 후 귀가’, ‘복지시설 입소’가 뒤를 이었다. 특히 2003년부터 ‘무료법률구조지원’(8건)의 조치가 제공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가해자의 경우 ‘선도 및 면담’의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고소 및 고발’이 이었다.

<표 12-20> 성폭력 상담조치(2002-2003)

(단위 : 명)

년 도	구 분	피 해 자						가 해 자					
		계	상담후 귀가	치료 귀가	복지 시설 입소	무 법 구 조 지원	기타	계	고소 고발	선도 면담	교정 치료	미조 치	기타
2002	전 체	5,723	1,258	211	144		3,780	5,723	64	353			5,306
	장애인	318	135	10	2		171	318	1	28			289
2003	전 체	4,935	2,079	247	17	8	2,584	4,935	283	1,451		620	2,581
	장애인	352	242	71		1	38	352	106	35		175	36

한편 2004년에 들어서 성폭력상담소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조치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표 12-21>에 제시되어 있듯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가장 많이 지원된 조치는 ‘심리·정서적 지원’(930건)이었으며, 그 뒤를 ‘수사 및 법적지원’(369건), ‘의료 지원’(300건), 그리고 ‘시설업소연계지원’(15건)이 이었다.

<표 12-21> 성폭력 피해자 상담 조치(2004)

(단위 : 명)

년도	계	심리·정 서적지원	수사 및 법적지원				의료 지원			시설업소 연계	기타
			수사 의뢰	수사 동행	법률 상담	소송 지원	치료 동행	치료비 지원	의료기관 연계		
2004	1,758	930	38	64	246	21	81	104	115	15	144

2) 성폭력상담소의 교육·홍보·조사·연구 활동

전라북도의 성폭력상담소는 교육, 홍보, 조사 연구 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하였다. 2004년 교육사업 현황이 <표 12-22>에 제시되어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폭력상담소는 총656건의 교육사업을 시행하였는데, 그 가운데 ‘예방교육’(600건)이 가장 많았으며 ‘전문인력양성’은 40건이었다. 이들 사업의 실시기간은 주로 ‘일회적’(407건)인 것이었으며, ‘외부 출강’(370건) ‘자체’(209건), ‘외부기관과의 협력형태’(77건)로 진행되었다.

<표 12-22> 성폭력상담소의 교육사업(2004)

(단위 : 건)

상담소명	총건수	교육목적			실시기간			주관기관			
		예방교육	전문인력양성	기타	일회성	지속성	기타	자체	외부출강	외부기관과협력	기타
	656	600	40	16	407	249		209	370	77	
(사)성폭력 예방치료센터부설 성폭력상담소	42	33	9		33	9		9	33		
전주여성의 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167	166	1		90	77		103	64		
군산성폭력 상담소	188	188			87	101		10	129	49	
익산성폭력 상담	63	44	10	9	47	16		9	50	4	
사)성폭력치료센터 정읍지부 성폭력상담소	37	29	4	4	32	5		3	34		
정읍시민 성폭력상담소	45	42	3		21	24		1	25	19	
남원YWCA 성폭력상담소	42	30	12		30	12		12	30		
성폭력예방치료센터김제지부 부설성 폭력상담소	72	68	1	3	67	5		62	5	5	

<표 12-2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성폭력상담소의 2004년 홍보사업은 680건이었다. 지속적으로(389건) 이루어진 홍보가 일회적(279건)인 것보다 더 많았으며 이것들은 자체적으로 준비된 것이다(507건). 이들의 홍보방법은 ‘기타’(478건)를 제외하고 ‘자료제

작배포’(151건), ‘이벤트성 기획행사’(33건), ‘대중매체 인터뷰 및 출연’(18건) 순으로 이루어졌다.

<표 12-23> 성폭력상담소의 홍보사업(2004)

(단위 : 건)

상담소명	총건수	실시기간			주관기관			진행방법			
		일회성	지속성	기타	자체	외부기관과협력	기타	자료제작배포	대중매체인터뷰및출연	이벤트성기획행사	기타
	680	279	389	12	507	166	7	151	18	33	478
(사)성폭력 예방치료센터 부설 성폭력 상담소	9	6	2	1	7	1	1	3	4	1	1
전주여성의 전화 부설 성폭력 상담소	10	1	9		9	1		8	2		
군산성폭력 상담소	149	33	116		25	124		21	3	10	115
익산성폭력 상담소	334	144	185	5	333	1		3	2	6	323
(사)성폭력 예방치료센터 정읍지부성폭력상담소	37	3	34		8	29		7		4	26
정읍시민 성폭력상담소	7	1	6		3	4		4		2	1
남원YWCA성폭력상담소	72	35	31	6	60	6	6	47	6	7	12
성폭력 예방치료센터김제 지부부설성폭력상담소	62	56	6		62			58	1	3	

전라북도의 성폭력상담소는 2004년 총 33건의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이것은 자체사업 22건, 응모사업 3건, 기타 3건 등으로 구성되었다(<표 12-24>참조).

<표 12-24> 성폭력상담소의 조사·연구사업(2004)

(단위 : 건)

상담소명	사업형태			제 목	개 요
	자체사업	외부응모사업	기타		
합 계	22	8	3		
성폭력 예방치료센터 부설 성폭력 상담소	1	1	1	성폭력가해자 특성 분석연구 등	
전주여성의 전화 부설 성폭력 상담소	2			성폭력예방을 위한 길잡이	
군산성폭력 상담소		1		• 건전한 성문화정착을 위한 글그림 모음집	양성평등을 주제로 관내 유아에서일반인을 대상 글 쓰기 그림으로 의식조사를 하여 우수작을 모아 모음집 발간
		2		• 성매매, 성폭력지킴이	성매매,성폭력지킴이란 무엇이며 이에 관한 역할을 제시함
		1		• 성매매,성폭력추방걸 의대회 및 온가족어울림마당	군산시민들이 본행사를 통해 의식을 개선하고 문화행사를 통하여 지킴이가 되고 그 역할을 수행토록 함
		2		• 또래 상담교육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또래상담원을 양성 학, 학교내 학교폭력, 따돌림등을 방지하는 역할
		2		• 학부모 성교육	성교육을 가정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배울수 있도록 교육
		1		• 부모자녀 대화법	심리교육을 통하여 자녀의 심리를 파악 서로를 배려하는 이의의법 교육
		1		• 의사소통 훈련	
		2		• 내가 알고 있는 성 등	중학생을 대상으로 성의식을 알아보고 적절한 성교육 실시
		2		• 나의 성 인지도 테스트 등	
익산성폭력 상담소	1			대상별성의식 및 성폭력 실태조사	예방교육 및 자료구축을 통한 피해를 낮추기 위함
남원YWCA성폭력상담소	1	5		• 한부모 희망찾기 • 성폭력 예방인형극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 성폭력매매 방지교육	

김제성폭력 상담소	4	1	가해자 특성 분석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학년용 성교육PPT • 중학생용 성교육PPT • 고학년용 성교육PPT • 미성년자 성교육PPT 	
	1		호신용 호루가기 볼펜 제작	성폭력 예방 및 상담소 홍보
	1		호신술 배우기 책자	

한편 전라북도 여성장애인 대상 성폭력상담소는 2004년 총 242건의 교육 및 훈련 사업을 수행하였으며(<표 12-25>참조), 196건의 홍보사업(<표 12-26>참조)과 7개의 조사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표 12-27>참조).

<표 12-25> 여성장애인 대상 성폭력상담소의 교육 및 훈련사업(2004)

(단위 : 건)

상담소명	계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형태(주관기관)			
		장애인	비장애인	성교육	전문상담 원양성	기타	자체	외부 출강	외부 기관과 협력	기타	
총 계	계	242	52	190	234	6	2	191	39	12	
전주장애여성폭력 상담소	계	54	43	11	48	4	2	3	39	12	
대한기협장애인 성폭력상담소	계	188	9	179	186	2		188			

<표 12-26> 여성장애인 대상 성폭력상담소의 홍보사업(2004)

(단위 : 건)

상담소명	총건수	내 용			진행방법			
		성폭력 에 방 제고	성폭력 피해현실 및 심각성 이해	여성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인식제고	자료 배포	대중매체 인터뷰 및 출연	이벤트성 기획행사	기타
총 계	계 196	258	4	34	35	257	4	
전주장애여성 폭력상담소	계 66	28	4	34	35	27	4	
대한가협장애 인 성폭력 상담소	계 230	230				230		

<표 12-27> 여성장애인 대상 성폭력상담소의 조사·연구사업(2004)

상담소명	사업형태			제 목	개요
	자체사업	외부응모 사업	기타		
총 계	6	1			
전주장애여성 폭력 상담소	1 1 1 1			상담소홍보물품 및 의식조사 상담소홍보 리후렛 제작 상담소홍보책자 제작 상담소홍보물품 제작 가폭매뉴얼 설문조사	
대한가협장애 인 성폭력 상담소		1			

3) 전라북도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운영 현황

전라북도는 2개의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표 12-28>에 있듯이 이들 2개소는 2002년, 2003년에 각각 320건, 46건을 상담하였다. 즉 <디딤터>는 307건(2002년), 21건(2003년)을, <은혜의 쉼터>는 13건(2002년)과 25건(2003년)을 상담하였다. 또한 이들의 상담방법을 살펴보면 2002년에는 ‘방문’(258건), ‘기타’(15건), ‘내방’(13건), 2003년에는 ‘내방’(25건), ‘방문’(21건)으로 이루어졌다.

<표 12-28>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피상담자 유형 및 방법(2002-2003)

(단위 : 명)

시 설 명	연도	구분	계	피상담자				상담방법					
				본인	보호자	동료 이웃 교사	가해자	내방	방 문	전화	서 신	사이버	기 타
계	2002	전체	320	286	12	7	15	13	258	34			15
		장애인											
	2003	전체	46	22	13	11		25	21				
		장애인	1		1				1				
디 딘 터	2002	전체	307	273	12	7	15		258	34		15	
		장애인											
	2003	전체	21	5	5	11			21				
		장애인	1		1				1				
은혜의 쉼터	2002	전체	13	13				13					
		장애인											
	2003	전체	25	17	8			25					
		장애인											

※ “전체”는 장애인 포함하여 기재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에 접수된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표 12-29>에 제시되어 있듯이 2002년에는 ‘강간’(216건) 가장 많았으며, ‘기타’(92건), ‘성추행’(12건)이 그 뒤를 이었다. 2003년은 ‘강간’(21건), ‘기타’(13건), ‘성추행’(12건) 순으로 나타났다. 2004년에 들어서 ‘강간’(25건)보다는 ‘기타항목’(예, 성희롱, 음란전화, 스토킹, 사이버상의 음란물 유포, 음란성 채팅, 몰래카메라촬영 등)(38건)이 더 많았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즉 2002년과 2003년에 가장 많이 나타난 피해연령은 20세 이상의 성인계층이었던 반면, 2004년에는 청소년 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최근 성폭력 피해 연령이 점차 낮아질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 12-29>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피해 유형 및 연령(2002-2004)

(단위 : 명)

시 설 명	연도	구분	계	피해 유형			피해자 연령			
				강간	성추행	기타	유아 (7세미만)	어린이 (7-13세)	청소년 (14-19세)	성인 (20세 이상)
계	2002	전체	320	216	12	92		66	80	174
		장애인								
	2003	전체	46	21	12	13	7	12	3	24
		장애인	1	1				1		
	2004	전체	71	25	10	38	3	10	30	18
		장애인	10						3	7
디딤터	2002	전체	307	212	12	83		66	80	161
		장애인								
	2003	전체	21	9	12			11	3	7
		장애인	1	1					1	
	2004	전체	33	25	10		2	8	18	5
		장애인	7						3	4
은혜의 힐터	2002	전체	13	13	4					13
		장애인								
	2003	전체	25	12		13	25			
		장애인								
	2004	전체	38			38	1	2	22	13
		장애인	3							3

※ 기타 : 성희롱, 음란전화, 스토킹, 사이버상의 음란물 유포, 음란성 채팅, 몰래카메라촬영 등

최근 3년간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에 접수된 성폭력 가해자 유형을 살펴보면, <표 12-30>에 있듯이 해마다 가해자 유형이 달라져왔다. 예를 들면 2002년에는 ‘모르는 사람’(90건), ‘이웃’(53건), ‘친족 및 인척’(8건)의 순이었고, 2003년에는 ‘모르는 사람’(19건), ‘기타’(13건), ‘친족 및 인척’(12건) 순이었다. 그러나 2004년에는 ‘친족 및 인척’(26건), ‘모르는 사람’(23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친족 및 친인척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확인하는 대목이다.

<표 12-30>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가해자 유형(2002-2004)

(단위 : 명)

시 설 명	연도	구분	계	성폭력 가해자 유형									
				친족 및 친인척	동급생 선후배	이웃	교사 강사	모르는 사람	직장동료상사	배우자 애인	채팅 상대자	기타	
계	2002	전체	320	8	1	53	2	90	2				
		장애인											
	2003	전체	46	12		1		19	1			13	
		장애인	1			1							
	2004	전체	71	26					23	1	2	1	18
		장애인											
디딤터	2002	전체	307	5	1	52	2	81	2			164	
		장애인											
	2003	전체	21	12		1		7	1				
		장애인	1			1							
	2004	전체	33	26					3	1	2	1	
		장애인											
은혜의 쉼터	2002	전체	13	3		1		9					
		장애인											
	2003	전체	25						12				13
		장애인											
	2004	전체	38						20				18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상담 결과를 보면, <표 12-31>에 제시된 바와 같이 피해자에 대해서 2002년의 경우 기타(240건)를 제외하고 ‘상담후 귀가’(48건), ‘복지시설입소’(32건)이었고, 2003년에는 ‘복지시설입소’(24건), ‘상담후 귀가’(22건)이었다. 가해자에 대해서 2002년에는 기타를 제외하고 ‘선도면담’이 15건이었던 반면 2003년에는 ‘미조치’(25건)가 가장 많았다.

<표 12-31>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상담조치결과(2002-2003)

(단위 : 명)

시설명	피해자							가해자						
	구분	계	상담후 귀가	치 료 귀 가	복지 시설 입소	무료 법률 구조 지원	기타	계	고소 고발	선도 면담	교정 치료	미조치	기타	
계	2002	전체	320	48		32		240	320		15			305
		장애인												
	2003	전체	46	22		24			25				25	
		장애인	1			1								
디딤터	2002	전체	38			29		240	307		15			292
		장애인												
	2003	전체	21			21								
		장애인	1			1								
은 해 의 원터	2002	전체	13	10		3			3					13
		장애인												
	2003	전체	25	22		3			25				25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지원 실적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2년에는 ‘훈련학습’(33건), ‘병원치료’(28건), ‘전문심리상담’(17건), ‘고소고발’(4건), ‘수사의뢰’(3건)이었다. 2003년에는 ‘훈련학습’(30건), ‘병원치료’(28건), ‘전문심리상담’(11건)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고소고발’ ‘수사의뢰’는 1건도 없었다(<표 12-32>참조).

<표 12-32>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지원실적(2002-2003)

(단위 : 명)

시 설 명	지원실적								
	구분		계	수사의뢰	고소고발	병원치료	전문심리 상담	훈련 학습	기타
계	2002	전체	88	3	4	28	17	33	3
		장애인							
	2003	전체	76			28	11	30	7
		장애인	2			1		1	
디딤터	2002	전체	84	3	4	27	17	33	
		장애인							
	2003	전체	51			19	11	21	
		장애인	2			1		1	
은혜의 쉼터	2002	전체	4			1			3
		장애인							
	2003	전체	25			9		9	7
		장애인							

한편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상담결과 및 지원실적은 2004년에 들어 다양해졌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2,419건의 입소자에 대한 심리적 정서적 지원이 있었다. 그 가운데 ‘심신단련 프로그램’(2,076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개인상담’(203건), ‘권리찾기교육’(80건), ‘전문심리치료기관연계’(60건)가 제공되었다.

<표 12-33>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입소자의 심리적·정서적 지원(2004)

(단위 : 건)

시 설 명	계	개인상담	심신단련 프로그램	권리찾기 교육	전문심리치료 기관 연계	기타
합 계	2,419	203	2,076	80	60	
디 딤 터	2,374	163	2,071	80	60	
은혜의 쉼터	45	40	5			

또한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수사·법적지원은 21건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소송지원’(8건), ‘수사의뢰’(7건), ‘수사동행’(6건)으로 구성되어 있었다(<표 12-34>참조).

<표 12-34>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입소자의 수사·법적 지원(2004)

(단위 : 건)

시 설 명	계	수사의뢰	수사동행	법률상담	소송지원	기타
합 계	21	7	6		8	
디 덤 터	21	7	6		8	
은혜의 쉼터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의료적 지원 296건 가운데, ‘치료동행’은 142건, ‘치료비지원’ 104건, ‘의료기관연계’ 50건으로 나타났다(<표 12-35>참조).

<표 12-35>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입소자의 의료적 지원(2004)

(단위 : 건)

시 설 명	계	치료동행	치료비 지원	의료기관 연계	기타
합 계	296	142	104	50	
디 덤 터	287	139	101	47	
은혜의 쉼터	9	3	3	3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학교문제에 관한 지원은 총 22건 이루어졌는데 ‘지도교사 면담’(17건), ‘전학문제’(5건) 등의 순이었다(<표 12-36>참조).

<표 12-36>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입소자의 학교문제 지원(2004)

(단위 : 건)

시 설 명	계	전학문제	지도교사 면담	기타
합 계	22	5	17	
디 덤 터	22	5	17	
은혜의 쉼터	해	당	없	음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입소자 자립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이는 ‘자립지원’ (6건), ‘퇴소 후 거주지알선’(4건), ‘직업훈련연계’(2건) 등으로 구성되었다(<표 12-37>참조).

<표 12-37>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입소자의 자립지원(2004)

(단위 : 건)

시 설 명	계	취업알선	직업훈련 연계	퇴소 후 거주지 알선	기타
계	6		2	4	
디 덤 터	6		2	4	
은혜의 쉼터	해	당	없	음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입·퇴소 현황은 <표 12-38>에 제시되어 있다. 이들의 하반기 중 평균보호인원은 2002년에 9명, 2003년 11명, 2004년 17명이었다.

<표 12-38>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입·퇴소현황(2002-2004)

(단위 : 명)

시 설 명	연도	구분	정원	입·퇴소 현황				
				상반기말 보호인원	하반기중입 소인원	하반기중 퇴소인원	하반기말 보호인원	하반기중평균보 호인원
계	2002	전체	20	4	28	25	7	9명/일
		장애인						
	2003	전체	20	16	36	44	8	11명/일
		장애인		2	1	3	1	1
	2004	전체		8	71	68	10	17명/일
		장애인		1	10	7	4	3
디 덤 터	2002	전체	10	4	28	25	7	8명/일
		장애인						
	2003	전체	10	10	11	14	7	8
		장애인		2	1	3	1	1
	2004	전체		7	33	30	10	16명/일
		장애인		1	7	4	4	3
은혜의 쉼터	2002	전체	10		3	3		1명/일
		장애인						
	2003	전체	10	6	25	30	1	3명/일
		장애인						
	2004	전체		1	38	38		
		장애인			3	3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연령별 입소 현황을 보면, 2002년과 2003년은 20대 이상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던 반면 2004년은 '14-19세'가 가장 많았다(<표 12-39>참조). 이것은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이 최근 낮아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표 12-39>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연령별 입소현황(2002-2004)

(단위 : 명)

시 설 명	연도	구분	계	연령별 입소 현황			
				7세미만	7-13세	14-19세	20대이상
계	2002	전체	28	1	7	6	14
		장애인					
	2003	전체	36	7	4	2	23
		장애인	1			1	
	2004	전체	71	3	10	30	18
		장애인	10			3	7
디 딘 터	2002	전체	25	1	7	6	11
		장애인					
	2003	전체	11		3	2	6
		장애인	1			1	
	2004	전체	33	2	8	18	5
		장애인	7			3	4
은혜의 쉼터	2002	전체	3				3
		장애인					
	2003	전체	25	7	1		17
		장애인					
	2004	전체	38	1	2	22	13
		장애인	3				3

성폭력 보호시설의 연령별 입소 경로는 <표 12-40>에 나타나 있다. 즉 2002년에는 ‘성폭력상담소’, ‘경찰’, ‘사회단체’가 각각 7건, ‘본인 및 보호자’ 2건이었다. 2003년은 ‘사회단체’ 14건, ‘보호자’ 8건, ‘본인’ 5건, ‘성폭력상담소’ 4건이었다. 2004년에 들어 입소경로는 ‘경찰’ 23건, ‘성폭력상담소’ 19건, ‘본인’ 10건, ‘가정폭력상담소’ 8건 등이었다. 이것은 최근 성폭력이 범죄로 인식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대목이다.

<표 12-40>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입소 경로(2002-2004)

(단위 : 명)

시설명	연도	구분	계	입소경로												
				본인	보호자	성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상담소	일반행 정기관	경찰	사회단체	학교교사	병원	1366	기타		
계	2002	전체	28	2	2	7				7	7	1	1		1	
		장애인														
	2003	전체	32	5	8	4		1			14					
		장애인	1			1										
	2004	전체	71	10		19	8	3		23		1			1	5
		장애인														
디딤터	2002	전체	25	2	2	4				7	7	1	1		1	
		장애인														
	2003	전체	7	1		4					2					
		장애인	1			1										
	2004	전체	33	8		17	2	2		2		1				1
		장애인														
은혜의 쉼터	2002	전체	3			3										
		장애인														
	2003	전체	25	4	8			1			12					
		장애인														
	2004	전체	38	2	3	3	6	1		21					1	4
		장애인														

최근 3년간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은 유사하였다. <표 12-41 >에 있듯이, 가장 빈번한 보호기간은 ‘7일이하’이었고, 그 다음은 ‘1개월초과 3개월이하’, ‘1개월이하’ 순이었다.

<표 12-41>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보호기간(2002-2004)

(단위 : 명)

시 설 명	연도	구분	계	보호기간				
				7일이하	1월이하	1월초과-3월이하	3월초과-6월이하	6월초과-9월이하
계	2002	전체	32	8	7	7	5	5
		장애인						
	2003	전체	45	16	11	15	2	1
		장애인						
	2004	전체	68	34	9	15	6	4
		장애인	7	3	1	1	1	
디 덩 터	2002	전체	29	8	4	7	5	5
		장애인						
	2003	전체	14	2	2	8	1	1
		장애인						
	2004	전체	30	2	4	14	6	4
		장애인	4		2	1	1	
은혜의 쉼터	2002	전체	3		3			
		장애인						
	2003	전체	31	14	9	7	7	
		장애인						
	2004	전체	38	32	5	1		
		장애인	3	3				

2.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업 및 성과

1) 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담활동

지난 1998년 7월 1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으로써 가정폭력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전라북도에서도 상당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도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전라북도는 현재 9개 가정폭력상담소와 3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2004년 현재 전라북도 가정폭력상담소는 총 10,084건의 상담건수를 기록한 바 있다. 이 수치는 2002년 12,872건보다는 낮지만 2003년 8,985건에 비하여 많은 것이다.

가정폭력상담소의 피상담자 및 상담방법은 <표 12-42>에 제시되어 있다. 피상담자 유형에서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한 것은 ‘본인’이었으며 ‘보호자’, ‘동료·이웃·교사’ 순이었다. 또한 상담 방법을 살펴보면, ‘전화’를 통한 상담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은 것은 ‘내방’, ‘방문’이었다. 가정폭력상담 방법은 사회변화를 반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2004년에는 2002년과는 달리 ‘서신’을 통한 상담이 1건도 나타나지 않았던 반면 ‘사이버’ 상담에서는 비약적 증가를 보였다.

<표 12-42> 가정폭력상담소의 피상담자 유형 및 상담 방법(2002-2004)

(단위 : 명)

년도	계	피상담자유형					계	상담방법					
		본인	보호자	동료·이웃·교사등	가해자	기타		내방	방문	전화	서신	사이버	기타
2002	12,872	11,084	1,269	411	108		12,872	3,740	222	8,839	15	10	46
2003	8,985	7,979	711	215	80		8,985	2,987	92	5,835	15	22	34
2004	10,084	8,838	817	242		187	10,084	2,285	1,451	6,288		35	25

*2004년의 보호자는 가족친인척임

가정폭력상담소에 접수된 가장 많은 건수의 피해 유형은 ‘신체적 폭력’에 관한 것이다(2002년 7,295건, 2003 2,404건).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기타’ 가 그 뒤

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이 폭력적이라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가정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일반상담내용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항목은 기타를 제외하고 ‘가정생활’에 관한 것이었으며, ‘자녀문제’와 ‘성상담’ 문제도 비슷한 수치로 나타났다(<표 12-43> 참조). 한편 2004년에 들어 가정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상담내용은 다양해졌다. <표 12-44>에 제시되어 있듯이 총 10,084건의 상담 가운데 가정폭력관련 상담건수는 5,704건에 달하였다. 기타의 상담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이혼문제’(1,246건), ‘가족문제’(696건), ‘부부갈등’(647건)으로 구성되었다.

<표 12-43> 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담내용(2002-2003)

(단위 : 명)

년도	계	가정폭력피해 상담자						일반상담자				
		소계	신체적 폭력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기타	소계	가정생활	자녀문제	성상담	기타
2002	12,872	7,295	3,693	1,909	682	555	456	5,577	2,325	350	308	2,594
2003	8,985	5,335	2,404	1,221	839	451	420	3,650	1,299	194	200	1,957

<표 12-44> 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담내용(2004)

(단위 : 명)

년도	계	가정폭력상담	기타상담								
			소계	성폭력	성매매	이혼	부부갈등	성상담	가족문제	중독	기타
2004	10,084	5,704	4,380	83	214	1,246	647	122	696	72	1,300

최근 3년간 전라북도 가정폭력상담소의 피상담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표 12-45>에 있듯이 30대가 가장 많았다. 즉 2004년의 경우 ‘30대’(1,156건), ‘40대’(1,497건), ‘50대’(603건) 순이었다. 이것은 가정폭력이 낮은 연령층의 기혼여성들이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폭력 피상담자의 학력을 보면 ‘고졸 이하’가 많은 건수를 차지하였다. 예를 들어 2003년의 경우 ‘고졸이하’(3,387건), ‘중졸이하’(1,632건) ‘대졸이상’(1,388) ‘초졸이하’(959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45> 가정폭력상담소의 피상담자 연령 및 학력

(단위 : 명)

년도	계	연 령							학 력						
		20세 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미 파악	계	초등학교이하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이하	전문대 이하	대졸 이상	미상
2002	12,872 (7,295)	218 (54)	2,212 (1,177)	4,648 (3,079)	3,626 (2,021)	1,618 (655)	550 (309)		12,872 (7,295)	1,610 (1,165)	1,878 (1,106)	5,179 (3,296)	2,334 (974)	2,334 (974)	-
2003	8,985 (5,335)	79 (48)	1,203 (631)	3,130 (1,949)	2,970 (1,841)	1,197 (631)	406 (235)		8,985 (5,335)	959 (613)	1,632 (976)	3,387 (2,188)	904 (419)	1,388 (816)	715 (323)
2004	5,009	61	498	1,516	1,497	603	186	639							

* 가정폭력피해 상담자와 일반상담자를 포함한 총수 표시. ()안에는 가정폭력피해자 수 별도 표시

최근 3년간 가정폭력상담소에 접수된 가해자는 ‘배우자’가 가장 많았다. ‘과거배우자’, ‘직계 존속 및 직계 비속’이 그 뒤를 잇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2-46>참조).

<표 12-46> 가정폭력가해자 유형(2002-2004)

(단위 : 명)

년도	계	배우자	과 거 배우자	직 계 존 속	직 계 비 속	계부모	동거하는 친 족	기 타
2002	7,295	6,067	470	329	135	116	37	141
2003	5,335	4,720	194	149	100	11	55	106
2004	5,009	4,420	200	141	53	11	15	169

* 배우자는 사실혼도 포함하며, 일반상담 숫자는 제외함

가정폭력상담소에 집계된 가해자의 연령 및 학력은 <표 12-47>에 제시되어 있다. 가해자 연령은 연도별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예를 들면 2002년 ‘30대’(3,057건), ‘40대’(1,949건), ‘20대’(1,051건), ‘60대 이상’(278건)순으로 나타났던 반면 2003년은 ‘40대’(2,044건), ‘30대’(1,833건), ‘50대’(736건), ‘20대’(450건), ‘60대’(278건)순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학력을 살펴보면, 2002년에는 ‘고졸’(2,994건), ‘중졸’(1,211건), ‘초졸’(1,113건), ‘전문대졸’(1,025건) ‘대졸이상’(959건)순이었던 반면 2003년에는 ‘고졸’(2,249건)이 가장 많았으며, ‘중졸’(964건), ‘대졸’(894건), ‘초졸’(463건), ‘전문대졸’(388건) 순이었다.

<표 12-47> 가정폭력가해자 연령 및 학력(2002-2003)

(단위: 명)

년도	계	연령						학력						
		20세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계	초등학교이하	중학교이하	고등학교이하	전문대이하	대졸이상	미상
2002	7,295	36	1,051	3,057	1,949	800	402	7,295	1,113	1,211	2,994	1,025	953	-
2003	5,344	3	450	1,833	2,044	736	278	5,344	463	964	2,249	388	894	386

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담 조치 결과를 보면, 피해자에 대하여 2002년에는 전체 12,872건 가운데 ‘상담’후 귀가’가 가장 많은 8,015건을 차지하였다. 이어서 기타(4,599건)를 제외하고 ‘복지시설입소’(214건), ‘치료귀가’(44건)가 뒤를 이었다. 2003년에도 이와 유사하게 전체 8,985건 가운데 ‘상담 후 귀가’ 5,877건을 차지하였으며 기타(2,950건)를 제외하고, ‘복지시설입소’(95건), ‘치료귀가’(20건)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경우 2002년은 전체의 7,295건 가운데 ‘미조치’(6,986건)가 가장 많았던 반면, 2003년은 총 4,146건 가운데 기타(3508건)를 제외하고 ‘선도상담’(432건)이 가장 많았다(<표 12-48> 참조).

<표 12-48>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상담조치결과(2002-2003)

(단위 : 명)

년도	피해자						가해자				
	계	상담후 귀가	치료 귀가	복지 시설 입소	무 료 법 률 구 조 지 원	기 타	계	고 소 고 발	선도 상담	미조치	기 타
2002	12,872 (7,295)	8,015 (5,682)	44 (35)	214 (204)	-	4,599 (1,374)	7,295	20	158	6,986	131
2003	8,985 (5,335)	5,877 (3,658)	20 (17)	95 (155)	48 (46)	2,950 (1,333)	4,147 (1,866)	9 (4)	432 (138)	198 (3)	3,508 (1,721)

※ 상담자 수는 가정폭력 관련상담자 수와 일반상담자 수를 합한 수를 기재하고, ()에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자에 대한 조치결과 수를 한번 더 기재함

※ 무료법률구조지원 : 무료법률구조대상자 입증자료인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인원

2004년 현재 전라북도의 가정폭력상담소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체계화하였다. <표 12-49>에 제시되어 있듯이 2004년 현재 총 상담건수 5,009건 그 가운데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것은 '신체적 폭력'(2,405건)이었다. 그 뒤를 잇는 것은 '경제적 학대'(894건), '성적학대'(212건), '기타'(182건), '정서적 학대'(13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49> 가정폭력피해유형(2004)

(단위 : 건)

상 담 소 명	계	신체적 폭력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기 타
합 계	5,009	2,405	212	134	894	182

가정폭력상담소의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7,058건 가운데 ‘심리적·정서적 지원’이 4,6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사 및 법적지원’ 2,293건, ‘법률상담’ 2,161건, ‘소송지원’ 125건이 그 뒤를 이었다. 시설업소연계의 지원도 89건이나 되었다. 전반적으로 가정폭력상담소는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표 12-50>참조). 한편 가정폭력상담소는 가정폭력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에 대하여도 지원을 하였는데, <표 12-5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전체 569건은 ‘개인면담’(273건), ‘교육프로그램 운영’(162건), ‘기타’(114건), ‘타기관 의뢰’(20건)로 구성되었다.

<표 12-50> 가정폭력상담소의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내용(2004)

(단위 : 명)

년도	계	심리·정서적지원	수사 및 법적지원				의료 지원			시설업소연계	기타
			수사 의뢰	수사 동행	법률 상담	소송 지원	치료 동행	치료비 지원	의료기관 연계		
2004	7,058	4,610	2	5	2,161	125	14	6	16	89	30

<표 12-51> 가정폭력상담소의 가정폭력 가해자 지원내용(2004)

(단위 : 건)

상담소명	계	개인면담	교육프로그램운영	타기관 의뢰	기타
합 계	569	273	162	20	114

2) 가정폭력상담소의 교육·홍보·조사·연구 활동

전라북도의 가정폭력상담소는 교육, 홍보, 조사 연구 활동을 다양하게 수행하였다. 2004년 가정폭력상담소는 266건의 교육 사업을 추진하였다. 먼저 교육목적을 보면 ‘전문인력양성’이 12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예방교육’(124건)이 이었다. 이들의 사업형태는 지속사업(391건)형태가 가장 많았으며, ‘자체’(141건)의 순서로 나타났다. 교육방법은 주로 ‘외부출강’(74건), ‘외부기관과의 협력’(48건) 등으로 이루어졌다(<표 12-52>참조).

<표 12-52>가정폭력상담소의 교육사업(2004)

(단위 : 건)

상담소명	총건수	교육목적			실시기간			주관기관			
		예방교육	전문인력양성	기타	일회성	지속성	기타	자체	외부출강	외부기관과협력	기타
합 계	266	124	129	13	106	391		141	74	48	3
전주가정폭력상담소	17	16	1		15	2		11	4	2	
전주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상담소	13	5	5	3	5	8		6	3	1	3
군산가정법률상담소 부설가정폭력상담소	30	30			5	25		27	1	2	
군산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상담소	116	13	97	6	17	99		75	6	35	
한국가정폭력상담소	0										
익산가정법률상담소 부설가정폭력상담소	15	3	8	4	6	9		5	3	7	
익산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상담소	32	27	5		27	5		5	27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정읍지부부설 가정폭력상담소	1		1		1	1				1	
(사)삼동청소년회정읍지회부설가정폭력상담소	0										
남원 YWCA 가정폭력상담소	42	30	12		30	12		12	30		

가정폭력상담소는 2004년 총 318건의 홍보사업을 수행하였는데 이들 가운데 175건은 지속사업, 131건은 일회성 사업으로 진행되었다. 이들의 홍보사업은 주로 자체적인 것이었으며(197건)이었다. 홍보방법은 주로 ‘자료배포 및 제작’(99건), ‘이벤트성 기획행사’(95건), ‘대중매체 출연 및 인터뷰’(81건)에 의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53>참조).

<표 12-53>가정폭력상담소의 홍보사업(2004)

(단위 : 건)

상담소명	총건수	실시기간			주관기관			진행방법			
		일회성	지속성	기타	자체	외부 기관과 협력	기타	자료 제작 배포	대중매체 인터뷰 및 출연	이벤트 성 기획행사	기타
합 계	318	131	175	12	197	98	23	99	81	95	43
전주가정폭력상담소	77	57	20		71	6		5	55	17	
전주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 상담소	8	1	5	2	3	3	2	3	2	1	2
군산가정법률상담소 부설가정폭력상담소	37	8	26	3	21	16		11		1	25
군산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 상담소	99	20	79		24	60	15	22	15	60	2
한국가정폭력상담소	0										
익산가정법률상담소 부설가정폭력상담소	7	1	6		7			4		2	1
익산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 상담소	11	8	3		9	2		4	1	6	
한국가정법률 상담소정읍지부 부설 가정폭력 상담소	5	1	3	1	1	4		2	1	1	1
(사)삼동청소년회정읍지회부 설가정폭력 상담소	2		2		1	1		1	1		
남원 YWCA 가정폭력상담소	72	35	31	6	60	6	6	47	6	7	12

가정폭력상담소의 2004년 조사 및 연구 활동은 총 29건이었다. 이 가운데 18건은 외부응모사업이었고 자체사업은 5건이었다(<표 12-54>참조).

<표 12-54>가정폭력상담소의 조사 및 연구사업(2004)

(단위 : 건)

상담소명	계	사업형태			제 목	개 요
		자체 사업	외부응 모사업	기 타		
	29	6	18	5	이혼숙려 기간 및 이혼전상담제도화를 위한 심포지엄 설문조사 등	이혼제고 설문조사
군산가정법률상담소			2		행위자 최종상담 설문조사 등	상담후 행동변화와 행위자의 성향 교정 여부
부설가정폭력상담소			2		부부캠프 설문조사 등	추가사업 반영을 위한 조사
			1	3	성매매 유해업수와 공무원의 부패방지 등	부패방지위원회 용역사업
			1	1	미디어에 나타난 여성의 성차별적형태조사 등	드라마“풀하우스”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평가(코딩지 작업)
군산여성의전화부설 가정폭력상담소		1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	시민의식조사
		1			군산시 여성정책예산분석	군산시의 여성정책사업과 관련한 예산분석
			1		성매매업소 실태조사	군산시 관련업소조사
			2		부부재산공동명의 및 가족견기대회	인원위 용역사업 (군산시 보조금사업)
			1	1	상담홍보 및 가해자프로그램	안내책자
익산가정법률상담소 부설가정폭력상담소			2		가족폭력에 대한 시민의식조사연구 논문발표회 등	익산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추진, 가정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자료로 사용
익산여성의전화부설 가정폭력상담소		1		1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프로그램	가정폭력에서 벗어난 가족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교육홍보 리후렛
					가정폭력상담소 홍보 리후렛	가정폭력상담소의 기능과 역할을 알리는 홍보 리후렛
남원YMCA 가정폭력상담소		2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 가정 희망찾기 • 갇어폭력 바로알기 • 자원상담가 활동교육 	

3) 전라북도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운영 현황

전라북도는 3개의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의 연중 보호 인원의 수는 증가추세에 있다. <표 12-5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개의 보호시설에 수용되었던 가정폭력 피해자의 연중보호인원은 2002년에는 6명, 2003년에는 14명이었으나 2004년에는 16명으로 늘어났다. 뿐만 아니라 2004년에 들어 연중 입소 및 퇴소, 그리고 동반자녀의 수도 크게 늘었다.

<표 12-55>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운영실적(2002-2003)

(단위 : 명)

시설명	연도	전년말 보호인원	연중 입소			연중 퇴소			연말 현인원			연중평균 보호인원
			소계	피해자	동반 아동	소계	피해자	동반 아동	소계	피해자	동반 아동	
합계	2002	14	75	45	30	87	53	34	2	2		6
	2003	2	57	46	12	56	46	10	4	2	2	14
	2004	14	126	89	32	128	94	34	12	7	5	16
전 주 여 성 의 전화	2002	14	75	45	30	87	53	34	2	2		6
	2003	2	46	34	12	45	35	10	4	2	2	3
	2004	3	99	70	29	95	66	29	7	5	2	13
남원YMCA 사랑의집	2003		11	11		11	11					11
	2004	11	19	14	5	30	25	5				2
익 산 여 성 의 전화부설 여성쉼터	2004		8	5	3	3	3		5	2	3	1

가정폭력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의 연령별 특성은 연도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지난 200년의 경우 45명 가운데 '30대'가 2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서 '40대' 15명, '20대' 6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은 '30대' 19명, '20대' 11명, '40대' 7명 순이었다. 2004년에는 전체 126명 가운데 '20세 이하'(62명)가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다. 그 뒤를 이어서 '30대'(16명), '40대'(14명)가 차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근 가정폭력보호시설에 보호되는 피해자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2-56>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연령별 입소현황(2002-2004)

(단위 : 명)

시설명	구 분	계	20세이하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세이상
계	2002	45	1	6	21	15	2	
	2003	45	2	11	19	7	3	3
	2004	126	62	8	16	14	1	5
전주여성의전화 부설여성의쉼터	2002	45	1	6	21	15	2	
	2003	34	2	9	12	5	3	3
	2004	99	48	7	15	13	1	5
남원 YWCA 사랑의집	2002							
	2003	11		2	7	2		
	2004	19	5	2	10	2		
익산 여성의 전화 부설 여성의 쉼터	2004	99	48	7	15	13	1	5

※ 입소자 : 동반아동을 제외한 입소자

최근 3년간 가정폭력보호시설 입소자들이 동반한 아동의 연령이 점차 낮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57>에 있듯이, 2002년에는 ‘3-6세’(12명), 2003년의 경우 ‘7-12세’(6명)가 가장 많았던 반면 2004년에는 ‘3세 미만’(32명)이 가장 많았다.

<표 12-57>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입소시 동반 아동연령(2002-2004)

(단위 : 명)

시설명	연도	계	3세미만	3-6세	7-12세	13-18세	19세이상
계	2002	30	6	12	10	2	
	2003	12	3	3	6		
	2004	32	32	5	13	10	4
전주여성의전화 부설여성의쉼터	2002	30	6	12	10	2	
	2003						
	2004	29	29	4	8	9	3
남원YWCA 사랑의집	2002						
	2003						
	2004	5	5		3	1	1
익산 여성의 전화 부설 여성의 쉼터	2004	3	3	1	2		

최근 3년간 가정폭력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들의 직업은 대체로 무직 및 전업주부, 단순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2-58>참조). 이것은 직업영역에서 여성의 지위향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표 12-58>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입소자의 직업(2002-2004)

(단위 : 명)

시 설 명	연도	계	무직/ 전업주 부	단 순 서비 스 직	농림수 산 노 동 자	농 립 수산업	생산직	사무직	자영	전 문 관리직	기 타
계	2002	45	19	3	2	10	1	2	6	2	
	2003	33	25			6			1		1
	2004	126	62	17	2		2	2	3		33
전주여성의 전화부설 여성의힘터	2002	45	19	3	2	10	1	2	6	2	
	2003	26	20			6					
	2004	99	52	16				2			19
남원YWCA 사랑의집	2002	11	3	3	1				4		
	2003	7	5						1		1
	2004	19	7				2		2		6
익산여성의 전화부설 여성의힘터	2004	8	3	1				1			3

최근 3년간 가정폭력보호시설에 입소자의 입소경로는 연도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2002년에는 ‘본인’(28명), ‘보호자’(8명), ‘경찰’(3명), ‘병원’(2명)의 순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반면 2003년은 ‘경찰’(15명), ‘가정폭력상담소’(12명), ‘본인’(11명), ‘일반행정기관’(5명)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의 경우 ‘가정폭력상담소’(51명), ‘본인’(43명), ‘경찰’(27명), ‘1366’(5명)의 순서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에 들어 ‘가정폭력상담소’와 ‘1366’의 활동이 가장 두드러졌다(<표 12-59>참조).

<표 12-59>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입소자의 입소경로(2002-2004)

(단위 : 명)

시 설 명	연도	계	가정 폭력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	본인	보호자	일 반 행 정 기 관	경 찰	사 회 단 체	학 교 교 사	병 원	1366	기타
계	2002	45			28	8	1	3	2		2		1
	2003	45	12		11		5	15	2				
	2004	126	51		43			27				5	
전주여성의 전화 부설 여성의쉼터	2002	45	120		28	8	1	3	2		2		1
	2003	34	2		10		5	15	2				
남원YWCA 사랑의집	2004	99	28		43			23				5	
	2002												
	2003	11	10									1	1
	2004	19	16					3					
익산여성의 전화 부설 여성의 쉼터	2004	8	7					1					

가정폭력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을 살펴보면, <표 12-60>에서 제시되어 있듯이 2002년의 경우 '8일 이하-1월 이하'가 47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서 '1월 초과-2월 이하'(13명), '2월 초과 -3월이하'(10명), '7일 이하'(10명), '3일이하'(7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3년의 경우는 '8일-1월 이하'(21명), '3일이하'(14명), '7일이하'(7명), '1월 초과-2월 이하'(4명) 순서였다. 2004년은 '8일-1월 이하'(44명), '7일이하'(22명), '3일이하'(19명), '2월 초과-3월 이하'(7명)순이었다. 최근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입소자의 보호기간이 단기로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2-60>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입소자의 보호기간(2002-2004)

(단위 : 명)

시 설 명	연도	계	3일 이하	7일 이하	8일-1월 이하	1월초과- 2월이하	2월초과- 3월이하	3월초과
계	2002	87	7	10	47	13	10	0
	2003	46(10)	14(2)	7(3)	21(4)	4(1)	0	0
	2004	128	19	22	44	13	7	3
전주여성의 전화 부설 여성의컴터	2002	87	7	10	47	13	10	0
	2003	35(10)	6(2)	5(3)	20(4)	4(1)		
	2004	95	9	18	40	18	7	3
남원YWCA 사랑의집	2002							
	2003	11	8	2	1	0	0	0
	2004	30	9	4	14	3	0	0
익산여성의 전화 부설 여성의 컴터	2004	3	1	0	1	0	1	0

- 연중퇴소 인원예 대한 보호기간 기재 (동반아동 포함)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지원을 살펴보면, 2002년에는 전체의 45건 가운데 ‘전문심리상담’(20건)이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병원치료’(13건), ‘훈련학습’(5건), ‘수사의뢰’(1건)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고소고발’ 및 ‘무료법률구조지원’은 1건도 없었다. 반면 2003년의 경우 전체 47건 가운데 ‘전문심리상담’이 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훈련학습’(9건), ‘병원치료’(8건), ‘무료법률구조지원’(6건), ‘고소고발’(5건)이 뒤를 이었다(<표 12-61>참조).

<표 12-61>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지원실적(2002-2003)

(단위 : 명)

시 설 명	년도	계	수 사 의뢰	고소·고발	무료법률구조지원	병원치료	전문심리상담	훈련습	기 타
계	2002	45	1			13	20	5	6
	2003	47		5	6	8	16	9	3
전주여성의전화 부설여성의쉼터	2002	45	1			13	20	5	6
	2003	36		4	5	6	9	9	3
남원YWCA 사랑의집	2002								
	2003	11		1	1	2	7		

※ 중복적으로 제공되었을 경우 각각의 항목에 중복 기입

※ 무료법률구조지원 : 무료법률구조대상자 입증자료인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인원

2002-2003년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에서 피해자의 치료 및 재활 지원현황이 <표 12-62>에 나타나 있다. 2002년의 경우 '치료 보호'(18건)에 치중하였던 반면 2003년은 직업재활 특히 취업에 중점을 두었다. 사회 심리재활분야에 있어서도 2002년의 경우는 심리치료에 초점을 두었던 반면, 2003년에는 '심리치료'(17건)뿐만 아니라 '교육'(16건), '가족상담'(15건), '사회적응훈련'(6건) 등에 관심을 두었다.

<표 12-62>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 및 재활 지원(2002-2003)

(단위 : 명)

시 설 명	년도	계	치료 보호	직업재활				사회심리재활					
				소계	직업 훈련	직업 의뢰	취업	소계	사회 적응 훈련	심리 치료	교육	가족 상담	타기관 의뢰
계	2002	63	18	9	7	2		36		20	5	9	2
	2003	71	1	10	2	3	5	60	6	17	16	15	6
전주여성의전화 부설여성의쉼터	2002	63	18	9	7	2		36		20	5	9	2
	2003	60	14	4	1	1	2	55	4	17	15	15	4
남원YWCA 사랑의집	2002												
	2003	11		6	1	2	3	5	2		1		2

* 치료보호는 병·의원에서 외래 또는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대상자를 의미함

* 사회심리 재활서비스를 중복적으로 제공되었을 경우에는 각각의 항목에 중복대상자를 포함시킴

한편 2004년부터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되었다. 즉 심리·정서적 측면, 수사 및 법적 측면, 의료적 측면 지원이 제공되었다. 먼저 ‘심리·정서적 측면 지원’ 168건 가운데 ‘개인상담’(111건)이 가장 많았으며, ‘인간관계 훈련’(35건), ‘심신단련프로그램’(15건), ‘권리찾기교육’(7건)이 뒤를 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표 12-63> 참조).

<표 12-63>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심리·정서적측면 지원(2004)

(단위 : 명)

시 설 명	계	개인상담	심신단련 프로그램	권리찾기 교육	인간관계 훈련	기 타
합 계	168	111	15	7	35	
(사)전주여성의전화부설전주 여성의쉼터	50	25			25	
남원YWCA 사랑의집	49	22	10	7	10	
익산여성의 전화 부설 여성의 쉼터	69	64	5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수사 및 법적 지원형태는 ‘법률상담’(11건)과 ‘소송지원’(1건)으로 이루어졌으며(<표 12-64>참조), 의료적 지원은 ‘의료기관의 연계’(24건), ‘치료비 지원’(7건), ‘치료동행’(6건)등으로 구성되었다(<표 12-65>참조)

<표 12-64>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수사·법적 (2004)

(단위 : 명)

시 설 명	계	수사의뢰	수사동행	법률상담	소송지원	기타
합 계	12			11	1	
(사)전주여성의전화부설전주 여성의쉼터	10			10		
남원YWCA 사랑의집						
익산여성의 전화 부설 여성의 쉼터	2			1	1	

<표 12-65>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의료적 지원 (2004)

(단위 : 명)

시 설 명	계	치료동행	치료비 지원	의료기관 연계	기타
합 계	37	6	7	24	0
(사)전주여성전화부설전주 여성의쉼터	17	5	7	5	
남원YWCA 사랑의집	2	1		1	
익산여성의 전화 부설 여성의 쉼터	18			18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에서는 피해자를 지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반아동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에게 ‘취업알선’(3건)을 하였으며(<표 12-66> 참조), 또한 그들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학습놀이지도’(13건), ‘아동상담’(10건)도 지원하였다(<표 12-67> 참조). 뿐만 아니라 이들은 가해자들에게 ‘개인면담’(10건)을 수행한 바 있다(<표 12-68> 참조).

<표 12-66>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피해자 자립지원(2004)

(단위 : 명)

시 설 명	계	취업알선	직업훈련 연계	퇴소 후 거주지 알선	기타
합 계	3	3	0	0	0
(사)전주여성전화부설전주 여성의쉼터					
남원YWCA 사랑의집	2	2			
익산여성의 전화 부설 여성의 쉼터	1	1			

<표 12-67>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피해자 동반아동지원 (2004)

(단위 : 명)

시 설 명	계	학교문제지원		학습·놀이 지도	아동상담	기타
		전학문제	지도교사면담			
합 계	29	1		13	10	
(사)전주여성의전화부설전주 여성의쉼터	21	1		10	10	
남원YWCA 사랑의집						
익산여성의 전화 부설 여성의 쉼터	8		2	3	3	

<표 12-68>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가해자 지원(2004)

(단위 : 명)

시 설 명	계	개인면담	교육프로그램운영	타기관 의뢰	기타
합 계	14	14			
(사)전주여성의전화부설전주 여성의쉼터	10	10			
남원YWCA사랑의집	3	3			
익산여성의 전화 부설 여성의 쉼터	1	1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입소자들의 퇴소시의 상태가 <표 12-69>에 제시되어 있다. 혼인관계 항목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은 ‘결혼관계 지속’(22건)이었던 반면 ‘별거 및 이혼’, 혹은 ‘이혼 소송중’은 각각 7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상황의 항목에서도 ‘남편과의 동거’(21건)가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였으며, ‘독립’(7건)이 그 뒤를 이었다.

<표 12-69>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퇴소시 상태(2004)

(단위 : 명)

시 설 명	계	혼인관계					계	거주상황					
		결혼관 계지속	별거	이혼	이혼 소송중	기타		남편 과 동거	타시 설	재입 소	아는 사람 접 거주	독립	기타
합 계	36	22	3	1	3	7	36	21				8	1
(사)전주여성의전화 부설 전주여성의쉼터	24	13	2		3	6	24	12		5		7	
남원YWCA사랑의집	7	6				1	7	6					1
익산여성의 전화 부설 여성의 쉼터	5	3	1	1			5	3			1	1	

3. 성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업 및 성과

우리 사회는 법적으로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성매매 업소가 공공연하게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산업이 날로 번창하고 있다. 지난 2000년 9월 19일 군산대명동 화재참사와 2002년 1월 19일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는 성매매 현실을 사회문제로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전북지역 7개 시군에 2002년 현재 총 2,276개의 성매매 업소수가 있으며(<표 12-70> 참조), 여기에 7,725명의 여성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12-71> 참조).

<표 12-70> 7개 시·군별 조사업소수(2002.6-11)

시군면	조사지역	성매매 업소 집결 지역				소계	성매매 업소 상업 지역							전화방	소계	합계
		맥주양주방석집	여인숙집결지	유리방	기지촌		조사지역	단란유주점	다방	맥주양주	여인숙, 여관, 모텔	이용원	안마시술소			
전주시	덕진공원앞	5					서신동	4	2	6		2		2	16	
	무너미길	4					시내*	31	6	1	19				58	
	선미촌			85			시외고속	9	19	2	59	4			93	
	선화촌		49				안골사거리	17	4		7	2		1	31	
	한국은행	4					아중리	66	4		47		2		119	
							전주역	58	24	31	61	6	3	1	184	
							중화산동	49	14	5	32	4	2	3	109	
						코아앞	11	12	1	7	4			35		
						한국은행	13	4	3	6	2			28		
소계	5지역 3유형	13	49	85		147	소계	258	89	49	238	24	7	8	673	820
익산시	농협골목	24					남부지역	62	15	8	50	2	3		140	
	마피골목	13					역주변	19	24	28	47	11	2	2	133	
	창인동		36				평화동	42	38	26	38	7	4	2	167	
	한일장여관	9														
소계	4지역 2유형	46	36			82	소계	123	77	62	135	30	9	4	440	522
군산시	개복동	38					니운동**	26	17	34	23	1	1		102	
	대명동	23					산북동***	2	13	33	14	3			65	
	A 타운				18		월명동****	34	13	25	10	12	1		95	

						중앙로****	31	18	13	38				100	
소계	3지역 2유형	61			18	79	소계	93	61	105	85	16	2	362	441
정읍시	연지동	1	12				연지동	12	13	5	17	4	1	52	
	천주교골목	33	3				우체국골목	14	8	22	11	1		54	
							관통로 모텔	8	4	2	8	2		24	
소계	2지역 3유형	34	15			49	소계	34	25	29	36	7	1	132	181

시군면	조사지역	성매매 업소 집결 지역				소계	성매매 업소 상업 지역							전회방	소계	합계
		맥주양주방석집	여인숙집결지	유리방	기지촌		조사지역	단란유흥주점	다방	맥주양주	여인숙,여관,모텔	이용원	안마시술소			
남원시	광한루 주변	26					관광단지	14	3	5					22	
	북부시장		29				광한루	7	8	4	3	1			23	
							시외터미널	15	7	1	11		1		39	
							남원역 주변	1	14	9	5	5			34	
소계	2지역 2유형	26	29			55	소계	37	32	19	19	6	1	114	169	
김제시	꽃동네	21	16				꽃동네	9	13	1	10	1			34	
							시외터미널		7		2	1	1		11	
소계	1지역 2유형	21	16			37	소계	9	20	1	12	2	1	45	82	
부안군	터미널 주변	4	14			18	터미널 주변	13	13	4	11	2			43	82
소계	1지역 2유형	4	14			18	소계	13	13	4	11	2		43	61	
합계		205	159	85	18	467	합계	567	317	269	536	87	21	12	1,809	2,276

<출처> 전북여성단체연합,전라북도지역성매매실태조사보고서, 2002.

*시내-고사동, 다가동2기(관공호텔부근 포함) **나운동/조촌동/경진동일대***산북도/소룡동일대***개북동/대명동/중앙로/중동일대****월명도/영화동/중앙1가/장미도/신흥동일대

<표 12-71> 7개 시·군별 조사여성수(2002.6-11)

시 군 면	조사지역	성매매 업소 집결 지역				소계	성매매 업소 상업 지역							소계	합계
		맥주양주 방석집	여인 숙집 결지	유 리 방	기 지 촌		조사지역	단란유 형주점	다방	맥주 양주	여인숙 ,여관. 모텔	이 용 원	안 마 시 술 소		
전 주 시	덕진공원 앞	20				서산동	20	2	12		5			39	
	무너미길	12				시내*	62	6	2					70	
	선미촌			225		시외고속	27	29			10			66	
	선화촌		74			안골사거리	51	8						64	
	한국은행	16				아중리	561	12				30		603	
						전주역	290	48	62		15	15	84	514	
						중화산동	368	42	10		10	10	112	552	
						코아앞	33	24	2		12			71	
					한국은행	39	16	12		5		60	132		
소 계		48	74	255	377	소계	1,451	187	100		62	55	256	2,488	

시군면	조사지역	성매매 업소 집결 지역				소계	성매매 업소 상업 지역								소계	합계
		맥주양주방식집	여인숙집결지	유리방	기지촌		조사지역	단란유행주점	다방	맥주양주	여인숙,여관,모텔	이용원	안마시술소	보도방*		
익산시	농협골목	144					남부지역	465	90	24		4	15		598	
	마피골목	26					역주변	114	144	84		10			374	
	창인동		72				평화동	252	228	78		34	20		612	
	한일장여관	66														
소계		236	72		308	소계	831	462	186		60	45		1,584	1,892	
군산시	개복동						나운동**	221	68	170		2	5		466	
	대명동						산북동***	12	39	165		6			222	
	A 타운				219		월명동****	204	13	125		24	6		372	
							중앙로*****	186	18	65					269	
소계				219	219	소계	623	138	525		32	11		1,329	1,548	
정읍시	연지동	6	24				연지동	48	31	10		8	5		106	
	천주교골목	103					우체국골목	56	28	66		1			148	
							관통로모텔	32	14	6		2			54	
소계		109	24		133	소계	136	73	82		11	5		307	440	

남원시	광한루 주변	65				관광단지	112	18	10				140			
	북부시장		58			광한루	42	48	8		2		104			
						시의 터미널	30	42	2			6	82			
						남원역 주변	1	84	18		10		121			
소계		65	58		123	소계	185	192	38		12	6	423	556		
김제시	꽃동네	71	27			꽃동네	9	47	2		2		62			
						시의 터미널		25			2	5	32			
소계		71	27		98	소계	9	72	2		4	5	92	190		
부안군	터미널 주변	16	28		18	터미널 주변	65	36	12		2		43	82		
소계		16	28		18	소계	65	36	12		2		43	61		
합계		545	283	255	219	1,302	합계	3,300	1,160	945		185	127	256	5,973	7,275

<출처> 전북여성단체연합, 2002.

*성매매 업소 상업지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중리, 전주역, 한국은행에 있는 보도방과 보유하고 있는 여성의 수

전북여성연합의 조사(2002)에 의하면 전북지역의 성매매업소 집결지, 성매매 업소 상업지 중에서 3시(전주, 익산, 군사)의 비율이 매우 높으며 규모가 작은 소도시 및 군 단위에서는 티켓다방영업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관련 종사자의 인권유린이 극심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1) 성매매 상담소의 상담활동

전라북도는 2개 성매매 피해자 시설, 즉 <성매매여성현장상담센터>, <성매매 피해 여성선도보호시설 민들레>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전북성매매 여성현장상담센터는 상

담소장을 포함하여 4명의 상담원이 성매매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표 12-72>참조).

<표 12-72> 성매매상담센터 현황

(단위 : 명)

상담소명	위 치	운영주체(대표자)	종사자수			비 고
			계(명)	상담소장 및 상담원	기타	
전북성매매여성현장 상담센터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679-2	전북여성단체연합	4	4		

성매매여성현장상담센터의 상담활동은 지난 2003년에는 2,726건이었던 것이 2004년에는 4,431건으로 증가하였다. <표 12-73>에 제시되어 있듯이, 상담의뢰인은 주로 ‘본인’이었으며, 다음은 ‘가족 및 친인척’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방법은 ‘현장방문’이 주를 이루었다. 이것은 성폭력 및 가족폭력 상담방법이 주로 전화에 의존하였다는 점과는 다른 특성이라고 하겠다.

<표 12-73> 성매매상담센터의 상담의뢰자 및 상담방법(2003-2004)

(단위 : 명)

상 담 소 명	연도	상담의뢰인					상담방법					
		계	본인	가족·친인척	동료	기타	계	현장방문	내방	전화	사이버	기타
전북성매매 여성현장 상담센터	2003	2,726	2,652	40	5	29	2,726	2,225	239	256	2	1
	2004	4,431	4,301	54	6	70	4,431	3,279	628	517	2	5

성매매여성현장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주제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3년의 경우 전체 기타(2,338건)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것은 ‘빛문제’(375건)였으며, 그 뒤를 잇는 것은 ‘탈성매매’(375건), ‘위협’(40건), ‘진로문제’(28건), ‘구타문제’(23건), ‘질병’(9건)이었다. 2003년에는 기타(3,027)를 제외하고, ‘빛문제’(685건)가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였으며 ‘탈성매매’(339건), ‘질병’(131건), ‘위협’(72건), ‘구타’(37건), ‘진로’(65건), ‘사회적 시선’(31건)이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2-74 >참조).

<표 12-74> 성매매상담센터의 상담 주제(2003-2004)

(단위: 건)

상담소명	년도	계	탈성매매	빛문제	구타	감금	위협	성폭행	인신매매	질병	진로(취업 등)	사회시선/낙인	기타
전북성매매여성현장 상담센터	2003	3,020	181	375	23	4	40	6	1	9	28	5	2,328
	2004	4,431	339	685	37	13	72	20	11	131	65	31	3,027

성매매여성현장상담센터의 피상담자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였던 업소는 ‘성매매업소’가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잇는 것은 ‘식품접객업소’, ‘안마시술소’, ‘위생접객업소’ 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표 12-75>참조).

<표 12-75> 성매매상담센터의 피상담자 종사업소(2003-2004)

(단위: 건)

상담소명	년도	계	성매매업소		식품접객업소	위생접객업소	안마시술소	외국인전용클럽	기타	미파악
			A형	B형						
전북성매매여성현장 상담센터	2003	2,590	2,258	37	213	5	7	0	59	11
	2004	4,999	3,481	410	925	27	37	0	93	26

※ 성매매업소

- A형 : 1962년 이후 특정지역으로 분류된 곳(현행법상 등록형태 없음)
- B형 : 식품접객업 등으로 등록하였으나 업소내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곳

※ 식품접객업소 : 휴게음식점(다방), 단란주점, 유흥주점(룸싸롱), 대중음식점(카페) 등

위생접객업소 : 숙박업소(여관, 호텔 등), 목욕장업소(증기탕), 이용업소 등

개인성매매 : 전화방, 폰팅, 채팅 등을 통한 성매매

알선성매매 : 직업소개소(보도방), 결혼상담소, 이벤트사 등을 통한 성매매

성매매여성현장상담센터에 상담해온 여성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20대’가 가장 많았으며 ‘30대’, ‘40대’가 그 뒤를 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표 12-76>참조).

<표 12-76> 성매매상담센터의 피상담자 연령(2003-2004)

(단위: 명)

상담소명	년도	계	15세 이하	16-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미상
전북성매매 여성현장 상담 센터	2003	2,441	0	1	1,715	407	224	69	25
	2004	3,652	0	2	2,509	621	288	131	101

성매매여성현장상담센터의 피상담자에 대한 지원결과는 <표 12-77>에 나타나 있다. 2002년의 경우 전체 3,027건 가운데 기타(2,036건)를 제외하고 ‘법률상담’이 37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심리·정서적 지원’(208건), ‘보호시설과의 연계’(62건)로 이루어졌다. 2004년에는 전체 4,957건 가운데 기타 3,516건을 제외하고, ‘법률상담’(691건)이 가장 빈번하였으며 ‘심리·정서적 지원’(331건), ‘의료기관 연계’(125건), ‘수사동행’(106건)이 그 다음 순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최근 피상담자의 법률적 지원이 강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2-77> 성매매상담센터의 피상담자 지원결과(2003-2004)

(단위: 건)

상담소명	연도	계	심리정서적 지원	관련기관연계			현장 구조	법률지원				기타
				보호 시설	의료 기관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기관		법률 상담	수사 의뢰	수사 동행	소송 지원	
전북성매매여성현장 상담센터	2003	3,027	208	62	4	2	5	379	11	28	22	2,036
	2004	4,957	331	84	125	2	6	691	25	106	71	3,516

2) 성매매여성현장상담센터의 홍보·조사·연구 활동

전라북도의 성매매여성현장상담센터는 홍보 및 조사, 연구 등을 다양하게 실시하였다. 2003년의 경우 총 62건의 홍보 사업을 수행하였는데, 홍보 대상은 주로 성매매 종사여성(36건)이었으며 홍보 방법도 ‘자료 배포 및 부착’이었다. 2004년에 들어서 홍보 활동이 더욱 증가하였다. ‘성매매종사여성’(80건), ‘일반인’(56건) 등을 대상으로 총 149건의 홍보를 수행하였으며, 주로 ‘자료 배포 및 부착’(50건), ‘물품배포’(40건)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표 12-78>참조). 성매매여성현장상담센터의 조사연구 활동은 <표 12-79>에 제시되어 있다.

<표 12-78>성매매여성현장상담센터의 홍보사업(2004)

(단위 : 건)

상담소명	연도	총건수	홍보대상				진행방법				
			일반인	관련기관실무자	성매매업소/종사여성	기타	자료배포및부착	물품배포	대중매체활용인터뷰 및출연	이벤트성기획행사	기타
전북성매매여성현장상담센터	2003	62	13	11	36	2	25	18	3	2	14
	2004	149	56	11	80	2	50	40	8	15	36

<표 12-79>성매매여성현장상담센터의 조사연구사업(2004)

(단위 : 건)

상 담 소 명	연도	사업형태			제 목	개 요
		자체 사업	외부 응모 사업	기타		
전북성매매 여성현장 상담센터	2003	○			소중한 북	집결지 현장의 언니들에게 배포되는 소식지 월1회 발행 (편지글,센터활동,유머,건강정보) 총6회 발행
		○			소중한 언니들	집결지 현장의 언니들에게 배포되는 소식지 월1회 발행 (상담중인 언니의 편지, 건강정보) 총12회 발행
		○			업소실태조사	업소현황(수,영업유무), 여성수
		○			현장방문 상담의실제	현장방문상담의 실제 (자원활동 교육 자료)
		○			성매매 피해여성 상담의 실제	상담의 기본관점 전화, 면접상담 지침
		○			중간지도력 강화를 위한 회원교육	성매매운동의 역사와 활동 리더쉽 교육
	2004	9			용감한언리들 당신과 함께라면 매매없는 평화의 행진 현장방문상담 상담원강화교육 등	소식지 5회발행 상담센터 홍보용 리플렛 성매매운동의 흐름과 성매매 방지법 제정 현장방문상담의 실제 및 상담원 강화 교육

3) 성매매선도일시보호시설 운영

전라북도 성매매선도 일시보호시설인 <쉼터민들레>에는 2004년 현재 108명이 입소하여 있다(<표 12-80>참조).

<표 12-80> 성매매 선도일시보호시설 현황

(단위 : 명)

시 설 명	계	가. 전년말보호인원	나. 기중(연중) 입소	다. 기중(연중) 퇴소	라. 기말(연말) 현원
쉼터 민들레	108	0	54	43	11

성매매선도 일시보호시설 <쉽터민들레> 입소자의 연령은 주로 ‘20-29세’ (50명)이 있으며 ‘30-39세’는 4명에 불과하였다(<표 12-81>참조).

<표 12-81> 성매매 선도일시보호시설 입소자의 연령(2004)

(단위 : 명)

시 설 명	계	7세이하	8-13세	14-16세	17-19세	20-29세	30-39세	40세이상
쉽터 민들레	54					50	4	

성매매 선도일시보호시설인 <쉽터민들레>의 입소자 학력은, ‘고중퇴자’(21명)가 가장 많았으며 ‘고졸’(13명), ‘중졸’(9명), ‘전문대재이상’(5명), ‘중퇴’(4명)가 그 뒤를 이었다 (<표 12-82>참조).

<표 12-82> 성매매 선도일시보호시설 입소자의 학력(2004)

(단위 : 명)

시설명	계	무학	초재	초중퇴	초등졸	중재	중중퇴	중졸	고재	고중퇴	고졸	전문대재 이상	의무취학 유예	
													초등	중등
쉽터 민들레	54			1	1		4	9		21	13	5		

<쉽터민들레>의 입소자 입소경로를 살펴보면, ‘본인’(32명)에 의한 자원입소가 가장 많았으며, ‘관련기관연계’(17명), ‘경찰인계’(4명), ‘1366연계’(1명)가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2-83>참조).

<표 12-83> 성매매 선도일시보호시설 입소자의 입소경로(2004)

(단위 : 명)

시 설 명	계	보호처분	보호조치						
			소계	1366등의 연계	관련기관연계	경찰인계	자원입소		기타
							본인	부모	
쉼터 민들레	54			1	17	4	32		

성매매선도일시보호시설 <쉼터민들레> 입소자의 성매매 경험여부를 보면 전원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는 성매매 유형은 ‘산업형’(35건)이었다(<표 12-84>참조).

<표 12-84> 성매매 선도일시보호시설 입소자의 성매매 경험 여부 및 유형(2004)

(단위 : 명, 건)

시 설 명	성매매 경험			성매매 유형					
	계(명)	성매매경험	미경험	계(건)	전통형	산업형	자영형	출장형	기타
쉼터 민들레	54	54		54	11	35		5	3

성매매선도일시보호시설 <쉼터민들레> 퇴소자의 입소기간을 살펴보면, ‘7일이내’(5명)가 가장 많았으며, ‘3개월 이상’(10명), ‘1개월이상-2개월 미만’(7명), ‘1개월 미만’(5명)이 그 뒤를 이었다(<표 12-85>참조). 이들의 퇴소사유는 주로 ‘귀가’(25명), ‘관련기관연계’(7명), ‘무단이탈 퇴소’(6명), ‘보호기간만료’(5명)로 나타났다(<표 12-86>참조).

<표 12-85> 성매매 선도일시보호시설 퇴소자의 입소기간(2004)

(단위 : 명)

시 설 명	계	7일이내	15일미만	1개월미만	1개월이상- 2개월미만	2개월이상- 3개월미만	3개월이상
쉼터 민들레	43	15	3	5	7	3	10

<표 12-86> 성매매 선도일시보호시설 퇴소자의 퇴소사유(2004)

(단위 : 명)

시 설 명	계	귀가	관련기관 연계	무단이탈/ 퇴소	자립			보호기간 만료	기타
					진학	취업	기타		
쉼터 민들레	43	25	7	6				5	

한편 <쉼터 민들레>의 재입소자 사유를 살펴보면 ‘보호기간연장’이 가장 많았으며 (5명), ‘자립준비부족 및 부적응’(3명), ‘귀가후 부적응’(2명)의 이유로 재입소를 했던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표 12-87>참조). 이들의 연령은 주로 20-29세에 해당하였다(<표 12-88>참조).

<표 12-87> 성매매 선도일시보호시설 재입소자의 재입소 사유(2004)

(단위 : 명)

시 설 명	계	귀가후 부적응	무단이탈후 복귀	연계기관 부적응	자립준비 부족/부적응	보호기간 연장	기타
쉼터 민들레	11	2			3	5	1

<표 12-88> 성매매 선도일시보호시설 재입소자 연령(2004)

(단위 : 명)

시 설 명	계	7세이하	8-13세	14-16세	17-19세	20-29세	30-39세	40세이상
쉼터 민들레	11					11		

성매매선도일시보호시설 <쉼터민들레>는 2004년 이래 의료시설 서비스(196건)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이 가운데 156건은 ‘양방서비스’, 40건은 ‘한방서비스’였다. 특히 양방진료서비스는 ‘신경정신과’(55건)가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잇는 것은 ‘산부인과’(52건), ‘기타’(23건), ‘치과’(12건), ‘내과’(10건) 서비스이었다(<표 12-89>참조).

<표 12-89> 성매매 선도일시보호시설 의료서비스(2004)

(단위 : 건)

시 설 명	계	양 방								한방
		소계	치과	외과	안과	내과	산부인 과	신경 정신과	기타	
쉼터 민들레	196	156	12	1	3	10	52	55	23	40

성매매선도일시보호시설 <쉼터민들레>는 2004년 97건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는데, ‘문화활동 및 체험학습’이 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양취미활동’(20건), ‘심리정서프로그램’(17건), ‘체육활동’(16건)이 그 뒤를 이었다(<표 12-90>참조).

<표 12-90> 성매매 선도일시보호시설의 프로그램(2004)

(단위 : 건)

시 설 명	계	심리정서 프로그램	학습활동	문화활동/ 체험학습	교양취미활동	체육활동	기타
쉼터민들레	97	17	4	25	20	16	15

성매매선도일시보호시설 <쉼터민들레>는 2004년 입소자 36명에게 총 49건의 법률 지원을 하였는데, 그 가운데 ‘법률상담’(29건)이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잇는 것은 ‘수사지원’은 17건, ‘소송지원’은 3건이었다(<표 12-91>참조).

<표 12-91> 성매매 선도일시보호시설의 법률지원(2004)

(단위 : 건)

시 설 명	계(명)	법률지원					
		계(건)	법률상담	수사의뢰	수사지원	소송지원	기타
쉼터 민들레	36	49	29		17	3	

제 4 절 요약 및 결론

첫째 최근 3년간 전라북도에서 발생한 여성인권관련 범죄 건수를 보면 가정폭력과 성매매는 감소한 반면 성폭력 범죄는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성폭력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둘째 전북여성긴급전화 <1366>은 1998년 이래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로부터 피해를 당한 여성들을 상담, 보호하고 이들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담건수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이에 따라서 전북여성긴급전화 <1366>은 전문봉사자 인원 보강에 힘써야 할 것이다. 전북여성긴급전화 <1366>의 전문가 보강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상담주체의 연도별 변화에서, 부부갈등(외도), 성매매, 성상담, 취업 관련 문제 등 전문적인 분야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상담이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전북여성긴급전화 <1366>의 피상담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층은 '30대'이며, 학력에서는 '대졸이상'이었다. 따라서 젊고, 고학력계층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원보강을 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국내의 활발한 외국인 유입과 더불어 전북여성긴급전화 <1366>에서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상담을 활발하게 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전문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 향후 외국인 관련 상담을 해낼 수 있는 전문인 확보가 시급하다.

셋째 전라북도에서는 해마다 성폭력 범죄는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 상담소의 성폭력 상담 건수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향후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전라북도의 성폭력상담소의 상담 방법은 연도별 변화를 보여주었는데, 특히 최근 들어 인터넷을 통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인터넷을 통한 상담은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을 유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서 성폭력 상담소는 인터넷을 활용한 상담을 할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인 방법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성

폭력상담소에 집계된 성폭력 피해의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사례는 ‘성추행’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올바른 성교육을 시행해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또한 최근 ‘음란전화’, ‘사이버 성폭력’, ‘스토킹’ 등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시대의 신종 성폭력에 대한 정책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성폭력 상담소에서는 교육, 홍보, 조사 연구 등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른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러한 활동은 상황대처에 급급한 면이 적지 않아서 효과성이 반감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향후 이들의 활동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형태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 활동을 관련 유관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속에서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전라북도는 2개의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 이 시설에 접수된 피해 유형을 보면 강간보다는 기타항목(예, 성희롱, 음란전화, 스톱킹, 사이버상의 음란물 유포, 음란성 채팅, 몰래카메라촬영 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도 낮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 가해자 유형도 친족 및 친인척에 의한 것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성폭력이 우리 사회에서 매우 일상적이며 일반적인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전라북도의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활동은 매우 적극적이고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편이다. 특히 입소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으며 다른 유관단체와의 긴밀한 상호협조체제 속에서 적극적인 대처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섯째 전라북도는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현재 9개 가정폭력상담소와 3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들어 가정폭력 상담소의 상담방법 유형에서 상당한 변화를 보였다. 예를 들면 상담소 ‘내방’이나 ‘전화’에 의한 상담방법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인터넷을 통한 상담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상담에 주목하여 할 것이다.

전라북도의 가정폭력상담소에 접수된 것 가운데 가장 많은 건수의 피해 유형은 ‘신체적 폭력’이었다는 점을 통하여 우리는 가정폭력이 매우 가학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사회가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

이며 또한 가정폭력에 대처할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2004년에 들어 가정폭력상담은 최근의 높은 이혼율을 반영하듯이 ‘이혼문제’, ‘가족문제’, ‘부부갈등’ 등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향후 결혼, 화목한 가정, 이혼 등과 같은 주제에 대한 교육 및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상담정책이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적용되어야할 것이다.

가정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는 모두 결혼생활 초입에 있는 30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또한 성폭력 범죄에서와는 달리 ‘고졸 이하’의 낮은 학력계층의 여성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에 대한 면밀한 원인 규명과 대책이 수반되어야할 것이다. 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담 조치 결과를 보면, 주로 피해자에 대한 상담에 의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행위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조치는 매우 지엽적이고 일회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가정폭력 상담소의 관련 조직과의 연계활동을 통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조치와 대안이 수반될 수 있도록 전환되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폭력상담소에 전문상담인력과 재정적인 기반이 선행되어야할 것이다.

가정폭력상담소의 교육, 홍보 및 조사연구 활동은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향후 가정폭력상담소는 상담사업과 관련하여 자체적인 조사 및 연구를 풍부하게 진행하여야할 것이며 이를 상담진행과정에 적용하여야할 것이다.

여섯째 전라북도에서는 3개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의 연중 보호 인원의 수가 증가추세에 있다. 또한 이들 시설의 입소자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무직 및 전업부주, 혹은 단순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낮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왜 이러한 추세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3년간 가정폭력보호시설 입소자의 입소경로는 유관단체 (예, 가정폭력 상담소, <1366>의 연계활동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활동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지원은 비교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일곱째 전라북도는 2개의 성매매 피해자 시설을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이들 시설에서는 법률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의 상담활동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주로 ‘현장방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성매매여성현장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 여성의 연령층은 20대가 가장 많았으며 ‘성매매업소’ 관련자였다.

전라북도 성매매여성현장상담센터는 홍보 및 조사, 연구 등을 다양하게 실시하였다. 주로 성매매 종사여성을 대상으로 홍보하였는데 ‘자료 배포 및 부착’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매매 관련 홍보 및 교육은 성매매가 매우 일상적이고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이므로 특정한 계층의 여성을 타깃으로 하기 보다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라북도 성매매선도 일시보호시설은 적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로 이 시설은 20대의 낮은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성매매의 경험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보호와 지원체계에 대한 정책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제 2 장 전북여성의 발전사

- 여성정책의 현황과 전망-21세기를 향한 여성정책,
한국여성개발원 제2회 여성주간기념세미나 1997년 7월 4일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
정무장관(제2)실. 1995. 한국여성발전50년
전라북도. 2000. 전북여성발전50년
광복이후 여성의 지위변화와 전망,
한국여성개발원 광복50주년기념 학술대회, 1995.
한국여성연구우회 여성사분과 편. 1992. 한국여성사 근대편, 풀빛
전북일보사. 전북년감
전북일보. 전북여성사(1995년 6월 5일~1995년 12월 31일 주 1회 게재)
전북여성인물사, 전북일보(2003년 6월 1일~2003년 12월 30일)
이정덕 외 공저. 2001. 전북생활문화100년 전라문화총서5, 신아출판사
한국여성연구소. 2000. 새 여성학 강의, 동녘
부산대여성연구소. 1993-4. 여성과 남성을 위한 여성학
김태균, 이문숙. 2002. 21세기에 만나는 여성의 삶, 성신여자대학 출판부
이배용 외. 1999. 우리나라 여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2, 청년사
전주서문교회1백년 기념사업회. 1998. 전주서문교회 1백년사,
배은희. 1994. 방애인 소전
댄스포럼 출연감 간행실 편, 2004. 2004년 한국의 무용가
대한 YWCA연합회. 2005. 한국YWCA 반백년

제 3 장 전북 여성정책 내용 및 평가

- 전라북도, 복지여성국 각년도 업무보고자료 (2001~2005)
전라북도, 각년도 전북여성통계연보 (2001~ 2003)
전라북도, 각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2001~ 2005)
전라북도, 제3차 전라북도 종합발전계획(2000~ 2020)
전라북도, 전북발전 5개년 계획(2003~2005)

전라북도, 중기 지방재정계획(2003~2007)
 전라북도, Home page
 여성부, 2003. 여성백서
 여성부, Home page, 여성정책기본계획 2004시행실적 및 2005시행계획(지방자치단체, 전라북도)
 통계청, 2002.사회통계조사보고서
 전라북도 여성발전연구원 2002, 전라북도 여성정책 평가 및 발전방향 탐색을 위한 연구
 전북여성단체연합 2002, 민선2기 전라북도 여성정책 평가토론회
 전북여성단체연합 2003, 예산에도 성이 있다
 전북여성단체연합 2004, 성평등의 눈으로 본 정책과 예산

제 4 장 전북의 인구와 가족

『전북일보』 2004. 5. 11, “기획특집: 우리시대 가족은”.
 기획관실, 『주민등록인구통계보고서』.
 김혜경의, 『가족의 사회학적 이해』, 2002, 학지사.
 이재경 2003, “여자의 이혼, 남자의 이혼,” 『가족의 이름으로: 한국근대가족과 페미니즘』, 또 하나의 문화.
 장혜경·김혜경의 2003, 『전국가족조사 및 한국가족보고서』, 한국여성개발원.
 전라북도, 2004년 『전북통계연보』.
 전라북도 2004, 『여성통계연보 2003』.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 2004, “국내거주 외국인의 성공적 정착 지원정책 토론회” 2004년 11월 24일.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 2002, 『전라북도 여성정책 평가 및 발전방향 탐색을 위한 연구』.
 전북가족상담치료센터, 『건강한 가족 행복한 우리』 통권 5호(2004년 1월).
 전주여성의 전화 2002, “전북지역 현황보고 및 대안마련을 위한 대토론회”.
 전주여성의전화부설 가정폭력상담소 2005, “04년도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실적”.
 정혜정 2000, “전북지역 가정폭력 실태와 가정폭력특별법 인지 및 활용도 조사” “전북지역 현황보고 및 대안마련을 위한 대토론회,” 사단법인 전주 여성의 전화.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2002.
 통계청, 인구동태조사, 2001-2003.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995, 2000.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잠정집계결과(2005. 12. 28 발표, <http://www.nso.go.kr> 참조)
 한승주 2002, 『전라북도 여성의 의식 및 생활실태조사』,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

제 5 장 전북지역 여성단체 활동

-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 2003. 전북지역 여성단체의 실태 분석과 활성화 방안
이윤애. 2004, “공존하는 여성 변화하는 지역 여성단체”.
_____. 2004, 전북지역 여성단체 현황 및 운영실태. 전라북도 여성발전연구원
(사)전라북도 여성단체 협의회 정기 총회자료
(사)전북여성 단체연합 정기 총회자료
조옥라. 2003, “21세기 한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가기” 조옥라 홈페이지 게재문
전주 YWCA 정기 총회자료
백경남. 2005, 17대 총선과 여성정치 참여
한정자·이상원, 2004, 정부와 여성단체의 협력사업 활성화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제 7 장 전북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실태

- 김영기·박재규. 2000. “IMF 관리체제하에서 실직가능성과 삶의 질 변화”, 『보건과 사회과학』 6·7:71-112.
노동부. 2004.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보고서』
전라북도. 2005. 『전북여성통계연보』
통계청. 2002.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1997, 1992)
_____. 『경제활동인구연부』(각년도)

제 8 장 여성의 정치참여와 정치적 대표성

- 김민정. 2004. “2004년 총선과 여성”, 한국여성유권자연맹 『17대 총선과 여성』 발제집.
김옥렬. 1989. 『한국여성과 사회참여』,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김원홍·김혜영·김은경. 2001. 『해방 후 한국여성의 정치참여 현황과 향후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김정숙. 2003. “17대 총선, 여성 지역구 진출 확대방안”, 한국여성단체협의회 2003년 여성정책토론회 자료집(2003.11.5).

- 김현희. 2001. “대안정치세력으로서의 여성: 21세기 한국여성의 투표행태의 전환가능성 연구”. 『경제와 사회』 52(겨울호): 227-251.
- 박재규. 2002a. “여성의 정치참여와 동원화 전략”. 2002년도 한국사회학회 전기사회학 발표논문.
- _____. 2002b. 『전북지역 여성유권자의 정치참여와 정체세력화 연구』. 전북여성발전연구원.
- _____. 2003. 『6·13 지방선거와 여성의 정치세력화 실패 연구』. 전북여성발전연구원.
- _____. 2005. “17대 총선에서 여성단체의 여성후보 지원활동 분석”, 『한국사회학』 제39집(4) : 131-161
- 이승희. 1993. “한국인의 정치적 태도와 행태의 성차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26(3).
- 전라북도. 2001. 『전북여성통계연보』
- _____. 2003. 『전북여성통계연보』
- _____. 2005. 『전북여성통계연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2.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_____. 2004. 제17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결과」.
- _____. 2005. 홈페이지 참조
- 한국여성정치연구소. 1995. 『6·27 지방선거와 남녀유권자의 투표형태 연구』.
- Guy, M.E. 1994. "Organizational Architecture, Gender and Women's Careers," *Review of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14(2): 77-90.
- Morrison, A., R. White and E. Van Velsor, 1987. *Breaking the Glass Ceiling*, Reading, Mass: Addison-Wesley.
- Palley, Marian L. 1990. "Women's Status in South Korea : Transition and Change," *Asian Survey* 30(12): 1136-1156.
- Randall, Vicky. 1987. *Women and Politics -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Chicago: Macmillan Publishers Ltd.
- Skard, T. and E. Haavio-Mannila, 1985. "Mobilization of Women at Elections," in E. Haavio-Mannila et al. eds.
- Smart, C., 1989. *Feminism and the Power of Law*, New York: Routledge.
- Still, Leonie V. 1997. "Glass Ceilings and Sticky Floors - Barriers to the Careers of Women in the Australian Finance Industry," A report prepared for Human Rights and Equal Opportunity Commission and Westpac. United Nations, 1995.
- UNDP. 2003. *Human Development Report*.

제 9 장 여성의 문화예술활동

- 김양희, 이춘아, 김이선, 1994, 『여성의 문화활동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 김재인, 정숙경, 1998, 『여성의 문화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류정아외, 2004, 『여성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문화정책』, 강원도, 『강원여성백서』, 2002

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3, 『문화향수실태조사』
 문화관광부, 2004, 『창의한국』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 2002, 『전라북도 여성정책 평가 및 발전방향 탐색을 위한 연구』
 통계청, 2004, 『사회통계조사보고서 (주거와 교통·문화와여가·교육)』

제 10 장 전북지역 보육실태와 지원방안

여성부, 2003, 보육법인 모형 개발 연구
 여성부, 2004, 제2차 여성정책 기본 계획(2003-2004)2003년도 시행 실적 및 2004년도 시행 계획(지방자치단체)
 여성부, 2003, 여성백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 평가에 관한 연구
 경기도, 1999, 경기도 보육 사업 평가와 발전 방향 연구
 정기원, 오미연, 오현애, 1995, 보육 시설 평가기준 및 평가 체계 개발,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한국 여성 개발원, 1998,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관한 연구
 정경희, 김 유경, 1997, 지역별 보육 수요와 정책방안,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 2003, 취업모의 가족지원을 위한 보육 욕구 및 보육기관 실태조사 연구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 2002, 전라북도 여성 정책 및 발전 방향 탐색을 위한 연구
 전라북도, 2004, 여성통계연보
 한국 여성 연구소, 2003, 보육 정책의 새로운 관점 정리 및 개선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2005, 보육사업안내
 여성부 홈페이지
 전라북도 홈페이지

제 11 장 여성의 복지서비스 실태와 지원방안

강남식·김수현·백선희, 2002, 『여성자활 활성화를 위한 자활근로사업개발』
 김영란, 1997, “빈곤의 여성화와 사회복지정책”, 『한국사회복지학회』 제31집, 한국사회복지학회
 박경숙, 2001, “저소득 모자가정의 빈곤실태와 자활대책 개선방안”, 『한국사회보장학회 2001년도 추계학술대회자료집』.
 박영란·황정임, 2002, 『여성의 빈곤실태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 여성개발원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각년도.

- 보건복지부, 2005, 『2003-200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보건복지부, 2003, 『2003년 모부자복지사업』
- 석재은·김태완, 2000, 『노인 소득실태 분석과 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설동훈 등, 2005, 국제결혼이주여성 실태 조사 및 보건. 복지지원정책방안
- 오혜경, 2002,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실태 및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상황과 복지 13호, pp. 113-146
- 윤명숙, 2001, 전라북도 여성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복지학회지 6호.
- 조홍식.김혜련.신혜섭.김혜란, 2000, 여성복지학, 학지사
-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 2002, 전북지역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고육실태 조사
-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 2002, 전북지역 여성가장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연구
- 전라북도, 2003, 전북여성통계연보
- 통계청, 2000, 『인구주택총조사』, 2000.

전발연 2005-정책-02

2005 전북여성백서

발행인 | 한 영 주

발행일 | 2005년 12월 31일

발행처 | 전북발전연구원

560-014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4가 1번지

전화:(063)286-9201 팩스:(063)286-9206

<http://www.jd.re.kr>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발전연구원에 속합니다.